

부평의 환경과 역사, 인물

제 1 권



일러두기

1. 편찬 기본방향

- 이 책은 부평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집대성한 기록이다.
- 이번 편찬에서는 독자의 가독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주제별로 총 8권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부평 지역의 근현대사를 대폭적으로 추가하였다.
- 또한 부평구 내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반환을 계기로, 그 전신인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으로 밝혀낸 권으로 편성하였다.

2. 서술 대상 지역과 시기

- 서술 대상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원칙으로 하였다. 단, 필요에 따라 분구하기 이전의 계양구, 서구를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서술 대상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2019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20년 이후의 내용도 수록하였다.

3. 본문서술

-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를 쓰는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을 표기하였다.
 - 구술 증언자료의 경우 증언자가 발음한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록하였다.
 - 그 밖의 세부적인 집필방법은 국립국어원, 학회, 정책연구기관 등의 집필요령을 반영한 집필요강에 따랐으며, 집필에 통일성을 기했다.
 - 각 권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설을 작성하였고, 각 장마다 필요에 따라 들어가는 말과 마무리 글을 배치하였다.
-



목차

총설

제1장 부평의 하늘과 땅

제1절 _ 해양의 영향이 작은 부평의 기후	032
1. 기후 특성과 기후변화	
2. 부평의 미래 기후는?	
제2절 _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부평의 땅	058
1. 지형	
2. 지질	
3. 토양과 식생	
제3절 _ 부평의 대기오염	073

제2장 부평의 연혁

제1절 _ '부평(富平)' 정명 710주년	080
제2절 _ 조선시대 부평의 읍격 변화와 공간적 범위	086
제3절 _ 근대이행기 '부평' 지역의 변화	089
1. '부천군(富川郡)'의 등장과 역사 부평의 해체	
2. 인천의 확장과 새로운 부평의 등장	
3. 부천시 승격과 부천군 폐지	



제 3 장 부평의 역사지리

제1절 _ 부평의 위치와 영역	109
제2절 _ 지세와 부평들의 개발	118
제3절 _ 19세기 말 취락의 분포	126
제4절 _ 경인철도의 부설과 20세기 초 취락의 확산	129
제5절 _ 1940년대 공업화와 경인로	138
제6절 _ 광복 직후 에스컴 시티의 건설과 캠프 마켓	145
제7절 _ 1970년대 이후 취락의 확산과 인구의 증가	148

제 4 장 전근대의 부평

제1절 _ 삼국시대 해양 방어의 요충지 계양산성	166
1. 계양산성의 현황	
2. 계양산성에 대한 옛 기록들	
3. 계양산성의 주요 발굴조사 및 성과	
4. 계양산성의 연혁과 역사적 가치	
제2절 _ 온천(溫泉) 소동과 부평의 읍격 강등	179
1. 15세기 전반 부평의 호구 및 농지 규모	
2. 세종의 부평 온천 조사	
제3절 _ 조선 후기 부평 지역의 호구 양상	191
1. 18세기 중엽	
2. 18세기 말	
3. 19세기 후반	
4. 20세기 초	

제4절 _ 조선시대 부평 출신 과거 합격자들	202
1. 부평 출신 과거 합격자의 규모	
2. 과거 합격자의 연령	
3. 과거 합격자의 전력(前歷)	
4. 과거 합격자의 성씨	
제5절 _ 일제의 인천 개항 강요와 부평의 방어 시설 설치	217
1. 연희진과 포대	
2. 중심성(衆心城)	
제6절 _ 20세기 초 부평 지역의 사립학교 설립	225
1. 부평의 근대 최초 사립학교 '보명(普明)'	
2. 부평의 또 다른 사립학교들	

제 5 장 개항기 인천·부평의 염업과 주안천일제염시험장 설치

제1절 _ 개항기 경기만의 염전과 염업 조사 사업	246
제2절 _ 통감부 염업 조사로 본 인천·부평 지역의 제염 방식과 경영 실태	254
1. 제염 방식과 제염 시설	
2. 소금 판매와 경영 상태	
제3절 _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의 설치와 제염 성적	268

제 6 장 부평 지역의 농업경제와 수리조합

제1절 _ 부평 지역 토지조사	287
1. 토지시험조사의 의의	
2. 군내면·서면·동면 지주의 토지소유	
제2절 _ 일제의 농업정책과 부평 지역 농업생산	292

제3절 _ 산미증식계획과 부평수리조합	296
1. 부평 지역의 농업실태	
2. 부평수리조합의 결성	
제4절 _ 부평 지역 지주제와 농민운동	303
1. 수리조합-지주-소작농의 갈등	
2. 부평농민조합의 결성과 소작쟁의	

제 7 장 부평의 수령(守令)

제1절 _ 고려시대의 부평 수령	313
1. 수주(樹州)에서 지수주(知樹州)까지의 부평 수령	
2. 안남도호 부사와 계양도호 부사	
제2절 _ 조선시대의 부평 수령	322
1. 부평 수령에 대한 자료	
2. 법전에 규정된 수령직	
3. 조선시대의 부평 수령	

제 8 장 부평의 인물

제1절 _ 전근대 인물	362
제2절 _ 근현대 인물	423

제 9 장 부평의 지명 유래

제1절 _ 부평 이전 이름의 뜻	457
1. 주부도군	
2. 장제군	
3. 수주	

4. 안남도호부
5. 계양도호부
6. 길주목

제2절 _ 부평의 뜻	468
-------------	-----

제3절 _ 부평구의 각 동(洞) 이름 유래	470
-------------------------	-----

1. 갈산동(葛山洞)
2. 구산동(九山洞)
3. 만월산(滿月山)=약산(藥山)
4. 부개동(富開洞)
5. 부평동(富平洞)
6. 산곡동(山谷洞)
7. 삼산동(三山洞)
8. 십정동(十井洞)
9. 일신동(日新洞)
10. 청천동(淸川洞)
11. 굴포천(掘浦川)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부평사
富平史

총설



총설

임 학 성(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현재의 부평구는 인천광역시의 북동부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계양구, 서쪽으로는 서구, 동쪽으로는 부천시(오정구·원미구·소사구), 그리고 남쪽으로는 미추홀구·남동구 등과 접해 있다. 그런데 근대 이전 부평 지역은 지금의 부평구는 물론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서구,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구로구의 일부 동리 등을 아우르는 도호부(都護府) 단위의 넓은 행정구역이었다. 따라서 부평의 역사를 언급하게 되면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이야기를 풀어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전통시대의 ‘원(原)’ 부평 지역과 1995년 이후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의 역사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부평(富平)’의 지명 유래

문헌상 ‘부평’이라는 지명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고려사(高麗史)』 지리지에서이다. 부평은 ‘주부토(主夫吐)’(5세기 후반, 고구려 장수왕 때) → ‘장제(長堤)’(8세기 중엽, 통일신라 경덕왕 때) → ‘수주(樹州)’(940년) → ‘안남(安南)’(1150년) → ‘계양(桂陽)’(1215년) → ‘길주(吉州)’(1308년) 등으로 그 이름이 변경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에 이르러 비

로소 ‘부평(富平)’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부평’ 지명이 탄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710년 전임을 알 수 있다.

‘부평(富平)’의 지명 유래는 이곳이 넓은 곡창지대여서 ‘수확이 많은(富) 넓은 들(平)’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반면 지명은 한자(漢字)의 뜻을 풀어 그 유래를 살피는 것보다, 한자는 우리의 고유말을 음차한 경우가 많으니 그 한자에 숨어있는 우리 고유말을 찾아서 풀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명에 쓰인 ‘富’는 ‘金’과 서로 통하는데, ‘金’은 흔히 ‘신(神)’이나 ‘거룩한 존재’ 등을 뜻하는 우리 옛말 ‘금’을 한자로 바꿔 쓴 것일 때가 많으니, 부평(富平)은 ‘거룩한 땅’, ‘높은 사람이 다스리는 땅’ 정도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이다.

2. 부평 지역의 역사지리와 환경

현 부평구는 인천광역시에 속한 8구(區)·2군(郡) 중의 하나이다. 부평구는 1995년 인천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모할 때, ‘북구(北區)’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하면서 처음 생겨났다.

부평구 일대는 조선시대에는 부평도호부, 고려시대에는 부평부에 소속된 지역이었다. 1310년(충선왕 2)에 ‘길주’목이 폐지되면서 ‘부평’부가 탄생했는데, ‘부평’이라는 이름은 이때부터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의 일환으로 부평 지역 전역을 인천의 동남부 지역과 합친 후, 부평의 ‘부(富)’자와 인천의 ‘천(川)’자를 각각 한 글자씩 따서 ‘부천군(富川郡)’을 신설하면서 600년 이상 써온 ‘부평’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부평’이라는 행정 명칭의 부활은 80여 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다.

부평 지역은 19세기 말까지 굴포천(掘浦川) 연안의 충적지를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인천 제물포의 개항 이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근대 철도 시설이 부평을 통과하면서 인천과 서울의 중간 지점에서 상업도시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부평에 경인 신작로와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한국 최초의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상공업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나가기 시작하였다.

3. 선사시대 : 청동기 문화가 번성했던 부평

계양구와 서구 지역을 포함한 옛 부평 땅에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서구 원당동과 당하동·검단동·블로동·경서동 등지에서 구석기시대의 유구와 편석기(주먹도끼, 찌개, 자르개, 찌르개, 긁개 등)가 발굴된 것이다. 그리고 계양구 동양동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편도 발굴되었다.

한편, 서구 대곡동 고인돌군(群)은 인천광역시와 김포시 경계에 자리한 가현산 북동쪽 말단부에 위치한다. 고인돌은 여러 개의 군집을 이루고 100여 기 이상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규모는 그 세계적 가치가 인정되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화도의 고인돌과도 견줄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양구 동양동과 서구 원당동·검단동·블로동 등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등이 발견되어 청동기 문화가 번성했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상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 특히 밀집된 고인돌군, 취락유적 등이 적잖게 발견된 사실을 통해 볼 때 부평 지역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는 사람들이



❖ 대곡동 고인돌(출처 : 인하대학교 박물관)

주거할 좋은 지리·환경적 입지를 부평이 지니고 있었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주요한 입지 조건 가운데 하나는 강과 바다에 연결하여 어로활동 및 해상활동에 많은 이점이 있었다는 점이다.

4. 고대 : 해양 방어의 요충지였던 계양산성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고대사회에서 부평의 계양산(桂陽山)은 서쪽으로는 서해와 강화도 일대, 서북쪽으로는 한강 하류, 북동쪽으로 김포평야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이 때문에 한강 하류지역을 군사적으로 제어하고 주변의 넓은 평야지대를 통제하기 위해 이른 시기에 산성을 축조·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계양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유적에 대한 조사 자료와 1천여 점의 유물이 체계적으로 확보되면서 계양산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었고 그 역사적 평가가 촉진되었다. 그 결과 계양산성은 삼국시대 한강 하류와 서해 연안을 군사적으로 제어하는 핵심 거점으로 중시되어 삼국간의 치열한 각축의 현장이 되었다. 백제가 처음 성을 쌓은 이래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었으며, ‘토심석축기법’을 비롯한 당대 최고의 기술로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

고려시대까지 지방의 거점으로 활용되던 계양산성은 조선시대 들어와 관방시설로서의 용도가 폐기되면서 ‘옛성’[古城]으로 퇴락해 갔지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란이 발생하게 되면 개축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5. 고려시대 : ‘부평’과 ‘계양’ 이름의 생성

고려시대는 옛 부평 지역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평’과 ‘계양’이 처음 생성된 시기이다. 그런 점에서 고려시대는 부평 지역사에서 애착이 가는 시대라 하겠다. ‘계양(桂陽)’은 고려 고종 2년(1215)에 탄생하였고, ‘부평(富平)’은 백년 쯤 후인 충선왕 2년

(1310)에 탄생하였다. 따라서 굳이 그 정명(定名)의 시원을 따지자면 계양은 8백년이 되고, 부평은 7백년이 되는 셈이다.

고려시대 부평 고을은 그 관할 구역이 지금과 비교하면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시기에 따라 구역에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의 인천광역시 남부 지역과 경기도 시흥시, 김포시 통진면,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대를 그 속읍으로 두고 있었던 것이다.

부평에서의 고려시대사를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항목이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계양도호부 수령 재임에 관한 부분이다. 고려시대 최고의 문호(文豪)이자 정치가였던 그가 1219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간 부평 고을을 다스렸던 것이다. 이규보는 재임 기간 부평을 경험하면서 13세기 전반 부평의 모습을 엿보게 해주는 글을 남겼는데, “(부평) 사람들은 순박하고 … 땅이 척박하여 백성이 쇠잔하니 차마 볼 수 없다”는 묘사도 확인된다. 시구(詩句)에서의 표현이라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으나 그가 재임할 당시 부평 지역의 농경 환경이 양호하지 않았음은 분명한 것 같다.

6. 조선시대 : 굴포천 유역의 개간과 수리시설

부평 지역에는 부평구 만월산에서 발원하여 부평의 도심지와 공단지대를 통과한 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총 길이 약 21km의 ‘굴포천(掘浦川)’이 흐르고 있다. ‘굴포(掘浦)’라는 한자는 ‘흙을 파낸 하천’으로 풀이되는데, 우리말로는 ‘판개’라 하였다.

기록상 굴포천 유역의 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2세기 초부터이다. 굴포천의 너비와 수심을 증가시키는 치수(治水)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5세기 전반 조선 태종대에는 무려 1천여 결(結)의 광활한 농지를 관개(灌溉)할 수 있는 수리시설인 수통제언(水桶堤堰)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이 수통제언은 지금의 부평역 인근에 있던 ‘소가방축(邵哥防築)’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부평 지역이 한반도 연안의 어느 저습지보다 유구한 수리시설 축조와 수전(水田) 개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 진산초교사거리에서 원적산 방향으로 바라본 굴포천(사진 홍승훈)

7. 근대 : 최초의 천일제염 시험장 설치와 토지시험조사

소금은 인간의 역사에서 필수 식품이었기에 소금 생산 및 확보는 정부의 주 관심사였다. 소금 생산의 전통적인 방식은 바닷물을 끓여 그 결정체(소금)를 얻는 자염(煮鹽)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는 대량 생산이 힘들었기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한 것인 근대 이후 천일제염(天日製鹽) 방식의 도입이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천일제염 시험장을 설치한 곳이 부평 지역이다. 1907년 9월 인천부 주안면 십정리에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이 준공된 것이다. 그 규모는 1정보(3,000평)의 증발지 및 결정지, 1정보의 저수지를 포함하는 총 2정보(6,000평)였다고 한다. 이 시험장에서의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1909년부터 관영천일염전의 건설을 개시하여 정부가 염전을 건설하고 경영하는 제조전매제인 ‘관업제염(官業製鹽)’의 방침이 수립되었다.

한편, 일제는 식민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선의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목적

은 토지조사에 대한 민심의 동향을 살피고 측량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감부의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에서 1909년 11월부터 1910년 2월에 걸쳐 부평군 군내면·동면·서면에서 시험적 토지조사를 실시한 것이 그 최초였다. 부평군 토지시험조사는 민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도 포함하여 산림을 제외한 한 지역의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선토지조사사업(1910~1918)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1920년대에 들어와 일제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자 식민지 조선에서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였다. 1920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선산미증식계획(朝鮮産米増殖計劃)의 핵심은 토지개량사업이었다. 그것은 곧 미곡생산을 위한 관개(灌漑)개선에 집중되었다. 관개개선을 위해 종래의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을 수립하였고, 수리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에 따라 부평 지역에서도 일찍이 수리조합이 결성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미곡생산을 강요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1923년 4월 9일 설치 인가를 받은 부평수리조합은 창립 당시 부평 평야의 3,872정보 가운데 93%인 3,601정보를 몽리(蒙利) 면적으로 하였는데, 이는 당시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였다고 한다.

반면,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수리조합의 결성은 지주제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지주-소작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수리조합의 설치에 수세, 소작료, 조합비 등 조선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농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소작농들은 지주의 소작료 인상에 대하여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강력하게 대항하였다. 부평 지역의 소작인들은 1927년 10월 28일 부천군 계남면 소사에서 부평농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1997.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의 역사』,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 조기준, 『부평사연구(증보판)』, 백암 문집간행위원회, 1995.

논문

- 류창호, 「굴포천 개착과 '경인운하' 계획」, 『인천학연구』 2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8.
- 박성우, 「선사시대의 인천」, 『인천역사』8(인천 향토사의 재조명),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1.
- 이희인, 「발굴유적으로 보는 인천」, 『인천역사』8(인천 향토사의 재조명),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1.





제 1 장 부평의 하늘과 땅

제1절 _ 해양의 영향이 작은 부평의 기후

제2절 _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부평의 땅

제3절 _ 부평의 대기오염

제1장 부평의 하늘과 땅

최영은(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제1절 | 해양의 영향이 작은 부평의 기후

부평구는 지리적으로 북위 37°대에 위치하여, 온대성 기후의 특징을 띤다. 온대성 기후는 인간 생활에 가장 적합한 기후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겨울은 한대와 같이 춥고, 여름은 열대와 같이 덥다. 긴 겨울과 여름을 나기 위한 냉난방 시설과 의복 준비를 포함하여 삶의 유지에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보통, 기후는 기온, 강수량, 바람과 같은 다양한 기후요소의 30년 이상 장기간의 통계로 표현한다. 즉, 부평구의 기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잘 관리된 30년 이상 축적된 기후 자료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보건, 에너지 수급, 농업 생산성, 산림자원 관리 등에 10년 단위의 기후 특성이 활용되기도 한다.

부평구에서 기후요소의 관측이 시작된 것은 2001년으로, 현재 20년 정도의 기후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동기상관측지점으로 관측 요소가 많지 않고, 관측 기간도 짧다. 또한, 관측이 누락된 날, 즉, 결측이 다수 존재하여 기후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부평구의 기후는 주로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종관기상관측지점인 인천 지점의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

지면서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한 기후 특성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의 기후 특성을 파악할 때 기후요소의 평균뿐만 아니라 변동성, 극한성, 발생 확률을 포함하면서 그 지역에서 관측한 기후 자료의 활용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20년의 관측 역사를 가지지만, 결측 자료를 제외하고 10년 이상의 자료를 축적한 부평 지점의 자료를 기반으로 부평구의 기후 특성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 지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부평구의 기후는 해안을 끼고 있는 인천 중구 지역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국지적인 규모의 기후는 지표면의 피복 상태에 따라 온도와 바람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규모의 지형도 지역 조건에 따라서는 국지적인 기후의 차이를 유발한다. 부평은 분지에 위치하지만, 경기만을 끼고 있어서 해양의 영향도 받는다. 다만, 황해는 바다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아서 동해에 비해 극한기온의 완화 역할은 약하다.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난류가 여름에는 황해를 따라 북상하고, 겨울에는 한반도 연안과 중국 해안을 따라서 남하한다. 이 난류는 겨울철로 접어들면 시베리아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이북까지 북상하기 어렵다. 대륙에서 불어오는 한랭건조한 계절풍이 이 난류 위에서 수증기를 얻어서 안개가 잦아지기도 한다. 또한, 부평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피복 상태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의 현재와 미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미래기후 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부평구의 미래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부평구의 대기질 상황도 기술하였다.

1. 기후 특성과 기후변화

우리나라의 지역별 기후 특성은 기상청 종관기상관측망(ASOS)에 포함된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부평구에는 종관기상관측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부평구의 기후를 기술할 때는 부평구에서 가장 가까운 종관기상관측망인 인천광역시 중

구에 위치한 ‘인천’지점을 사용하였다. 자동기상관측지점(AWS)인 ‘부평’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기온, 강수량, 바람 등 3개 요소 관측 자료만을 제공하고, 결측 자료를 다수 포함한다.¹ 따라서, 부평에서 축적된 기후 자료와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지점의 기후 자료를 같이 사용하여 부평구의 기후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또 다른 종관기상관측지점인 ‘강화’지점을 함께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인천과 강화 지점은 부평에서 각각 11.1km와 37.4km 떨어져 있다.

표 1 관측 지점의 위치와 특성

지점	주소	경위도	관측 요소	관측 시작 연도	지점유형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사서함 317-4번지	경도 : 126.75°E 위도 : 37.47°N	기온, 강수량, 바람	2001	자동기상관측망 (AWS)
인천 (기상대)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25번지	경도 : 126.62°E 위도 : 37.48°N	기온, 강수량, 바람, 상대습도 등 11개 요소	1904	종관기상관측망 (ASOS)
강화 (기상관측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811-1	경도 : 126.45°E 위도 : 37.71°N	기온, 강수량, 바람, 상대습도 등 11개 요소	1972	종관기상관측망 (ASOS)

1) 기온의 분포와 변화

우리나라 남한 기준, 서북부에 위치한 부평구는 연평균기온이 11.9℃로 인천(12.6℃)보다 낮고, 강화(11.4℃)보다 높다(표 2). 2014년에 12.8℃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2005년에 10.5℃로 가장 낮아서 기온의 연간 변동성이 큰 편이다. 연평균 최고기온은 17.1℃

1 부평구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것은 2001년이지만, 본격적으로 자료가 축적된 것은 2002년부터이다. 「기상청 통계관리지침(2019)」에는 기후 자료 처리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월평균과 연평균기온을 산출할 때는 지침을 만족하지 못한 결측 연도를 제외하였다. 평균기온은 2004년, 2006년, 2010년, 2018년 등 4개년,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2004년, 2005년, 2006년, 2010년, 2018년 등 5개년을 제외하고 평균하였다. 연강수량은 2010년이 제외되었다.

로 인천과 강화보다 높았고, 연평균 최저기온은 7.8℃로 인천보다는 낮고, 강화보다는 높았다. 즉, 부평구는 인천 중구보다 최고기온은 높고, 최저기온은 낮다. 계절별 평균기온은 여름에 23.5℃로 가장 높고, 겨울에 -1.1℃로 차이가 매우 크다. 여름 평균 최고기온은 28.4℃로 27.4℃의 인천과 강화보다 높았고, 겨울 평균 최저기온은 -5.0℃로 -3.3℃의 인천보다는 낮고, -6.6℃의 강화보다는 높았다. 즉, 부평의 여름은 인천과 강화보다 덥고, 겨울은 인천보다 춥고, 강화보다는 덜 추웠다. 이는 부평구가 인천광역시 중구보다 내륙에 위치하여, 해양의 완화 작용이 작고,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강화는 해양에 위치하지만, 부평구보다 위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다. 비록 부평 관측 지점이 결측도 존재하고, 자료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부평구의 기온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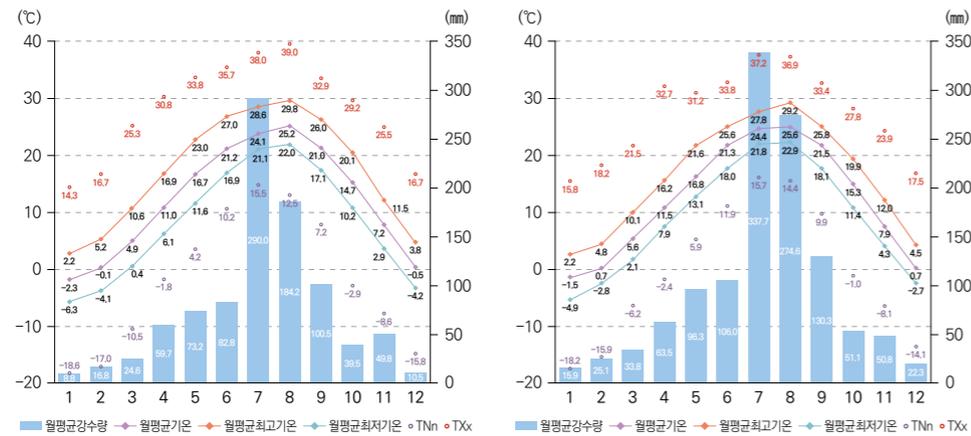
표 2 부평구의 연별·계절별 평균 최고·최저기온(2002~2020년)

		(단위: °C)				
구분	연	봄	여름	가을	겨울 ²	
부평구	평균기온	11.9	10.8	23.5	14.3	-1.1
	최고기온	17.1	16.9	28.4	19.2	3.4
	최저기온	7.8	6.0	20.0	10.1	-5.0
인천	평균기온	12.6(12.5)	11.5(11.3)	23.8(23.7)	15.1(14.9)	0.0(0.0)
	최고기온	16.6(16.7)	16.1(16.0)	27.4(27.6)	19.1(19.2)	3.7(3.9)
	최저기온	9.3(9.1)	8.0(7.7)	21.1(20.9)	11.6(11.3)	-3.3(-3.4)
강화	평균기온	11.4(11.3)	10.6(10.4)	23.1(23.0)	13.5(13.4)	-1.7(-1.6)
	최고기온	16.4(16.3)	15.9(15.8)	27.4(27.3)	18.9(18.8)	3.2(3.4)
	최저기온	6.7(6.6)	5.4(5.2)	19.5(19.3)	8.6(8.3)	-6.6(-6.5)

❖ 비교 : 인천과 강화의 괄호 값은 1991~2020년의 평균값임.

2 겨울철 기온과 강수량, 바람은 12월과 이듬해 1월, 2월의 값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겨울철 기온값과 강수량값, 바람 자료는 2019년(2019년 12월, 2020년 1월, 2월)까지 적용하였다.

그림 1 부평구의 월별 기온과 강수량(2002~2020년)(좌)와 인천의 월별 기온과 강수량(1991~2020년)



출처: 필자 작성, 자료: 기상청

특정 지역의 기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좌표에 기입하여 나타낸 클라이모그래프를 사용한다. 기온과 강수량의 월별 분포를 활용하여 기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부평구의 클라이모그래프와 인천의 클라이모그래프를 같이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12월, 1월, 2월의 기온이 가장 낮고, 강수량도 적다. 6~8월은 강수량이 많고, 기온도 높다. 부평구의 최난월(8월) 평균기온은 25.2°C이고, 최한월(1월) 평균기온은 -2.3°C이며, 연교차가 27.5°C로 매우 크다. 월별 최저 최저기온(TNn)³과 최고 최고기온(TXx)⁴를 살펴보면, 4월의 TNn(-1.8°C)은 인천보다 높았고, 4월 TXx는 부평구와 인천 모두 30°C 이상의 기온이 나타났다. 부평구의 가장 높았던 TXx(39.0°C)와 가장 낮았던 TNn(-18.6°C)의 차이는 57.6°C이고, 인천의 가장 높았던 TXx(37.2°C)와 가장 낮았던 TNn(-18.2°C)의 차이는 55.4°C로 부평구에서 차이가 더 컸다. 즉, 부평이 인천광역시 중구보다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추운 것을 알 수 있다. 월별 강수량을 살펴보면, 부평구는 7월 강수량이 290.0mm로 가장 많지만, 모든 월별 강수량이 인천보다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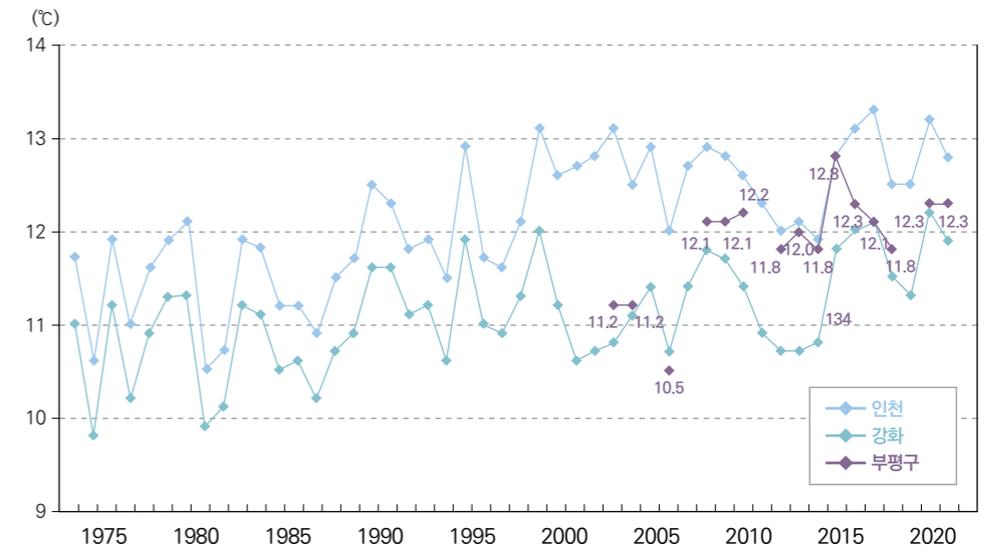
연평균기온의 변화는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 폭, 즉 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3 관측 기간의 특정 월에 기록된 가장 낮았던 최저기온으로 기후의 극한성을 잘 보여준다. 이하 TNn으로 표기한다.

4 관측 기간의 특정 월에 기록된 가장 높았던 최고기온으로 기후의 극한성을 잘 보여준다. 이하 TXx로 표기한다.

정보이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기준이 된다. 부평구는 관측 기간이 짧고, 결측 연도가 존재하여 연평균기온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1973~2020년까지 인천과 강화의 연평균기온 상승 폭은 10년에 각각 0.37°C, 0.22°C이다. 두 지점과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 연평균기온 변화를 고려했을 때 부평구의 연평균기온도 상승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온도 상승은 부평구의 기후뿐만 아니라 보건, 생태, 도시, 수문, 에너지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2 부평구·인천·강화의 연평균기온 변화(1973~2020년)



출처: 필자 작성, 자료: 기상청

온난해진 지구로 인해 중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이미 여름이 열대만큼 더운 우리나라에서 극심해지는 고온 현상은 현재 사회경제시스템의 여러 가치를 바꾸게 할 것이다. 하루 중에 최고기온이 나타나는 시간은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오후 2시 이후에 나타나고, 구름이 없고, 맑은 여름에는 오후 5시와 6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일최고기온이 33°C 이상으로 나타나는 날을 폭염일이라고 한다. 부평구에서 연평균 폭염 일수는 11.0일로 해안에 가까운 인천(3.5

일)과 강화(3.5일)보다 7.5일 많이 발생하였다(표 3). 내륙에 위치하고, 도시화가 빠른 부평구는 해안에 인접한 다른 지역보다 폭염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2018년에는 부평구에서 폭염이 37일 발생(인천 : 20일, 강화 : 18일)하였고, 2012년에 27일, 2013년과 2016년에 23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기온은 보통 동틀 무렵에 나타나는데, 이때 기온이 25℃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라고 한다. 부평구의 연중 열대야 일수는 4.2일로, 인천(8.4일)보다 적으며, 강화(1.7일)보다 많았다. 열대야 일수는 부평에서 2018년에 21일 발생(인천 : 26일, 강화 : 9일)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부평구는 인천 중구보다 폭염 일수는 많고, 열대야 일수는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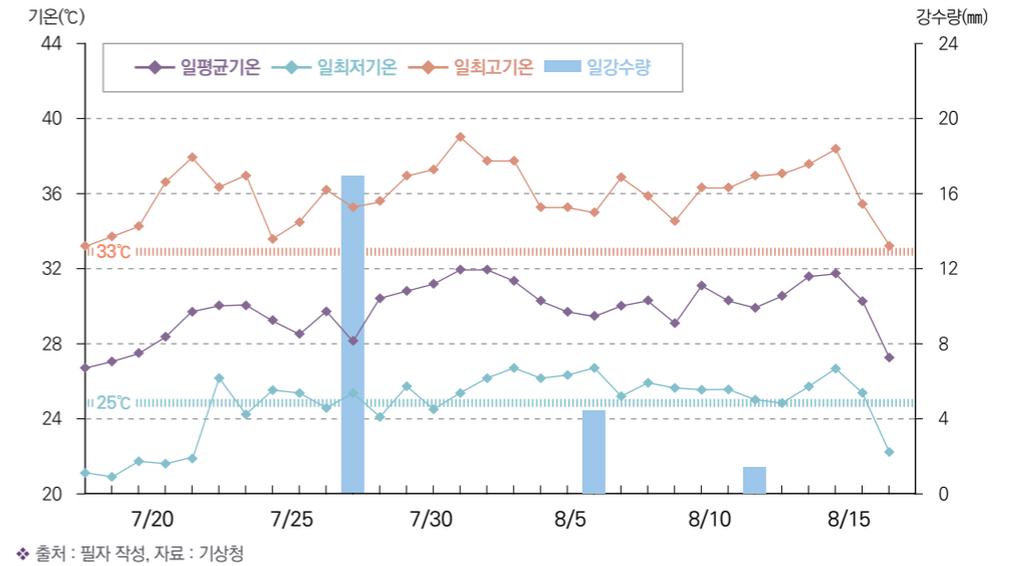
표 3 부평구·인천·강화의 평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2002~2020년)

(단위 : 일)

구분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부평구	11.0	4.2
인천	3.5 (4.4)	8.4 (7.7)
강화	3.5 (3.2)	1.7 (1.7)

2018년에 8월은 강원도 홍천에서 기온이 41.0℃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TXx가 경신되었다. 부평구도 8월 1일에 39℃를 기록하여 부평구의 TXx의 기록을 경신하였다. 2018년에 부평구에서는 폭염이 인천과 강화보다 많은 37일 발생(인천 : 20일, 강화 : 18일)하였다. 2018년 7월 18일에서 시작한 폭염은 8월 17일까지 31일간 지속되어, 가장 폭염 지속 기간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주간에 나타난 폭염은 야간 열대야로 이어져 7월 23일, 7월 25~26일, 7월 28일, 7월 30일, 8월 1~6일 등 총 21일의 열대야가 발생하여 잠들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와 같은 극한기온의 빈번한 발생은 부평구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3 2018년 여름 부평구 폭염일과 열대야 최장 지속 사례(2018년 7월 18일~8월 17일, 31일)



극한 고온과 저온의 발생은 생태계와 사회경제시스템에 미치는 피해가 즉각적이고, 크다. 부평구의 연도별 여름철 TXx의 평균은 34.6℃로 인천과 강화보다 높으며, 2018년 8월 1일에 39.0℃를 보여 가장 높은 여름철 TXx를 기록하였다. 부평구의 연도별 겨울철(TNn의 평균은 -14.0℃로 인천(-13.0℃)보다 낮고, 강화(-16.0℃)보다 높다. 가장 낮았던 겨울철 TNn은 2013년 1월 4일에 발생한 -18.6℃이고, 가장 높았던 겨울철 TNn은 2008년 1월 13일에 발생한 -9.1℃이다. 연극한기온교차는 연중 가장 높았던 일최고기온과 가장 낮았던 일최저기온의 차이로 정의되는데, 부평구에서 48.0℃로 인천(46.6℃)보다 크고, 강화(49.7℃)보다 작다. 연극한기온교차가 가장 컸던 해는 2018년으로 57.2℃를, 가장 작았던 해는 2007년으로 38.5℃를 기록했다. 이는 부평구 주민이 경험하는 온도의 폭이 매우 크고, 날씨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부평구·인천·강화의 평균 여름철 최고 최고기온(TXx)과 겨울철 최저 최저기온(TNn) 및 차이 (연극한기온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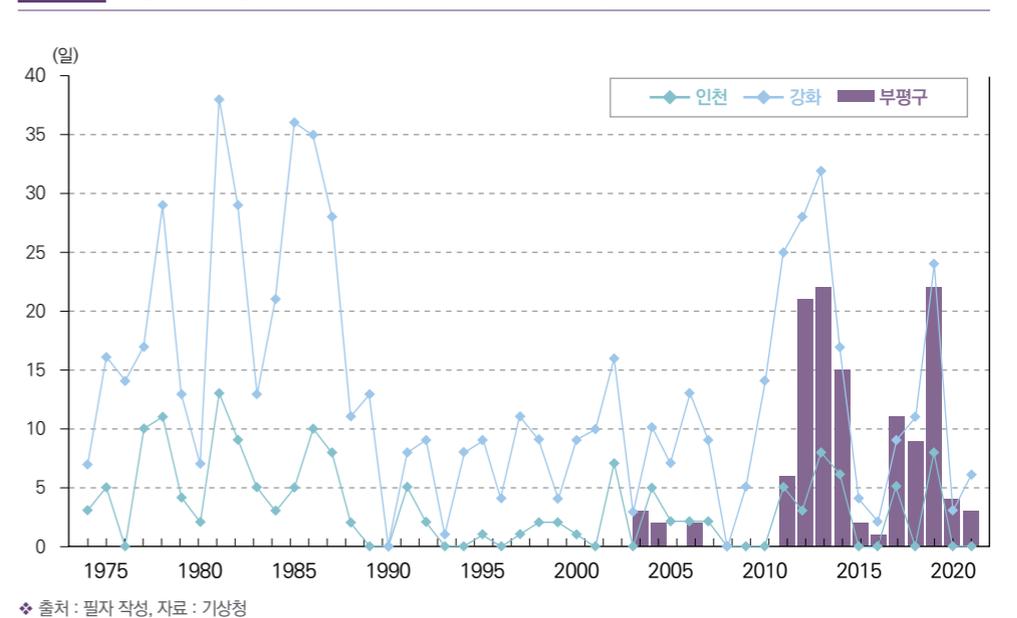
구분	여름철 TXx	겨울철 TNn	연극한기온교차
부평구	34.6	-14.0	48.0
인천	33.7 (33.8)	-13.0 (-12.9)	46.6 (46.7)
강화	33.9 (33.7)	-16.0 (-15.8)	49.7 (49.3)

기상청은 일최저기온 -12°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 한파주의보, 일최저기온 -15°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 한파경보를 발령한다.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 겨울이 한대만큼 춥다. 지구가 더워지면 중위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겨울철 추위는 덜하다. 하지만, 겨울철에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산발적으로 한파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에 영향을 미친다. 연중 일최저기온이 -12°C 이하인 날의 수로 정의하는 한파 일수는 부평구에서 6.5일로 인천(2.4일)보다 많고, 강화(11.7일)보다 적다. 한파의 발생은 동파, 추위, 질병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해충의 월동을 어렵게 하는 장점도 있다. 연중 일최저기온이 0°C 미만인 날의 수로 정의하는 서리 일수는 부평구에서 92.8일로 인천(79.2일)보다 많고, 강화(115.5일)보다 적다. 서리 일수는 2007년에 53일로 가장 적었고, 2017년에 137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기온으로 산출되는 서리 일수는 기상학적으로 서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여, 실제 서리 발생 일수와는 차이가 있다. 서리 일수는 작물의 재배 가능한 시기를 보여주는 좋은 척도이다. 우리나라는 겨울 기온이 낮아서 12월에서 2월까지 일부 남부지역을 제외하면 노지에서 작물 재배가 어렵다. 연중 일최고기온이 0°C 미만인 날의 수로 정의하는 결빙 일수는 부평구에서 19.4일로 인천(18.1일)보다 많고, 강화(21.5일)보다 적다. 결빙 일수는 2011년에 33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에 3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결빙 일수는 낮 최고기온이 영하로 유지되어 물이 어는 온도로 서리 일수보다 더 강력한 추위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표 5 부평구·인천·강화의 평균 한파 일수, 결빙 일수, 서리 일수

구분	한파 일수	결빙 일수	서리 일수
부평구	6.5	19.4	92.8
인천	2.4 (2.1)	18.1(16.9)	79.2 (82.9)
강화	11.7 (10.4)	21.5 (20.0)	115.5 (1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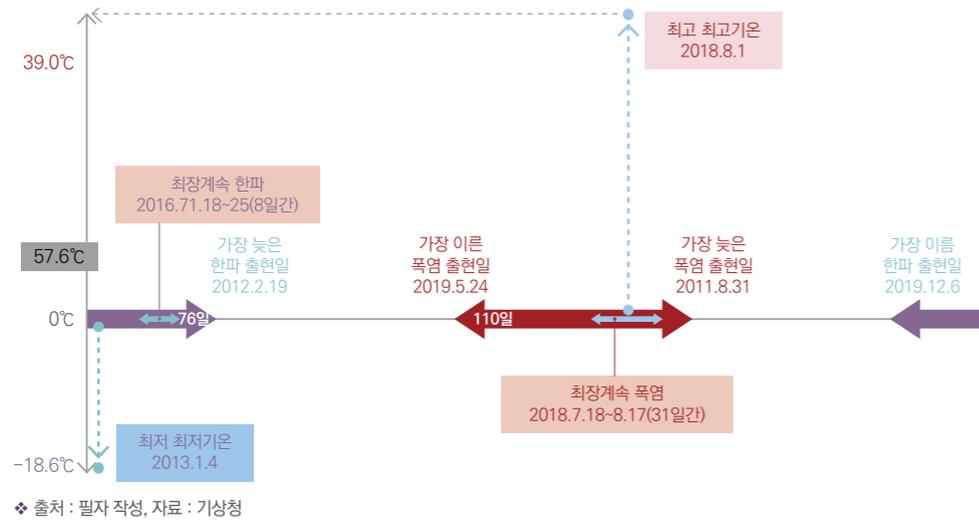
그림 4 부평구·인천·강화의 한파 일수의 변화(1973~2020년)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평구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기온은 2018년 8월 1일에 발생한 39.0°C 이고, 가장 낮은 기온은 2013년 1월 4일에 기록된 -18.6°C 이다. 이로 인해서 부평구 주민이 경험한 극한의 무더위와 추위를 보여주는 온도의 범위는 무려 57.6°C 이다. 지금까지 폭염이 가장 일찍 출현한 것은 2019년 5월 24일이었고, 가장 늦게 출현한 날은 2011년 8월 31일로, 부평구에서 폭염일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은 110일로 짧지 않다. 부평에서 폭염은 이 기간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더 길

어질 수도 있다. 가장 이른 한파 출현일은 2019년에 12월 6일이었고, 가장 늦게 출현한 날은 2012년 2월 19일로, 한파 발생 가능 기간이 76일이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파의 강도는 약해지고, 빈도도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이와 같은 극한기후의 상태는 부평구 주민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림 5 부평구 폭염과 한파의 발생 가능 기간과 규모(2002~2019년)



2) 강수와 관련 극한 강수 지수의 특성과 변화

부평구의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집중된다. 여름철 강수량은 그해 연강수량을 결정하고, 해에 따라 값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은 장마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인천의 해안 지대는 증발량이 많은 해양의 영향을 받지만, 상승기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높은 산지가 없어서 지형성 강수량은 적다. 내륙에 위치한 부평은 해안에 비해 고도는 낮지만 구름성 산지가 있어서 인천 중구보다는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결측 자료가 다수 있어서 파악이 어렵다. 자료상으로 보면, 부평구의 평균 연강수량은 940.4mm로 같은 기간의 인천(1207.5mm)과 강화(1250.5mm)보다 적었고, 인천(1207.5mm)과 강화(1266.3mm)의 30년 평년값보다 적었다.

이 부분은 부평 지점이 잘 관리되어 결측이 줄어들어야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 부평은 1863.5mm로 연강수량이 가장 많았지만, 계절별로도 모든 계절에서 강수량이 인천과 강화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강수집중도는 부평이 59.2%, 인천이 58.8%, 강화가 58.1%로 비슷하며, 연강수량의 50% 이상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집중된다. 강수량은 기온에 비하여 경년변동성이 커서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림 6 인천·강화·부평구 연강수량 변화(1973~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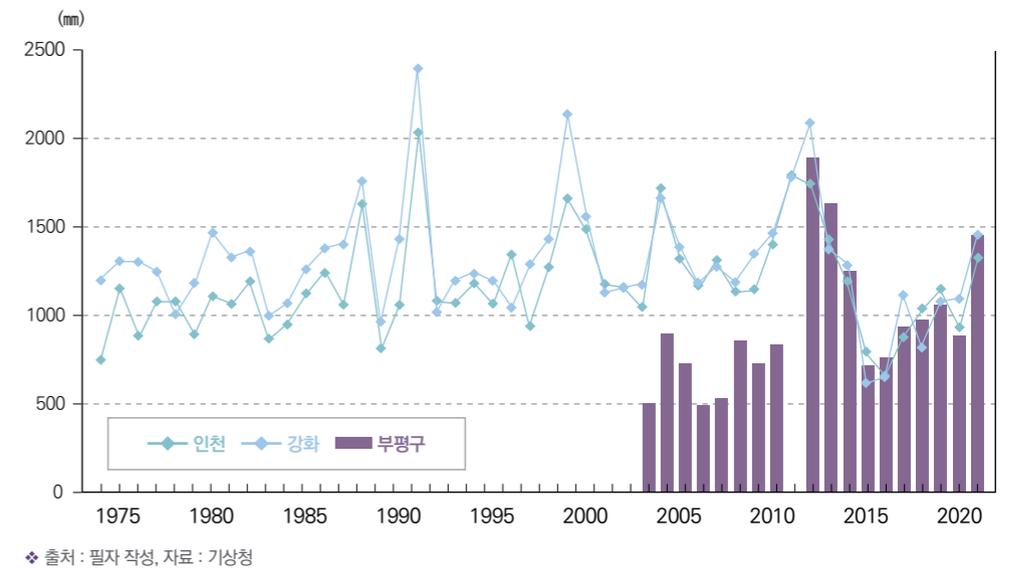


표 6 부평구·인천·강화의 평균 연 강수량과 계절별 강수량

(단위: mm)

구분	연	봄	여름	가을	겨울
부평구	940.4	157.5	557.0	189.8	36.1
인천	1207.5 (1207.5)	196.2 (193.6)	709.8 (718.3)	237.4 (232.2)	64.1 (63.3)
강화	1250.5 (1266.3)	215.0 (207.2)	726.3 (766.0)	249.0 (233.6)	60.1 (59.4)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어, 호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 특히, 장마 기간과 그 이후에 호우가 내리면 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크다. 지역의 강수 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일강수량 100mm 이상 강수일수, 1일과 5일최다강수량, 강수 강도 등이다. 부평구에서 100mm 이상 강수일수는 0.6일로 인천(1.8일), 강화(1.4일)보다 적게 발생한다. 2011년에 4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부평구에서 평균 1일최다강수량은 105.4mm로 인천(128.7mm), 강화(144.7mm)보다 적지만, 일강수량 100mm 이상은 적은 강수량 값이 아니다. 2011년 7월 27일에 265.5mm가 내린 적이 있는 등 부평구가 호우에서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여름철에 긴 장마 기간을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1일 최다강수량과 함께 5일 동안 강수량을 누적한 5일최다강수량은 더 의미 있는 정보일 수 있다. 부평구에서 5일최다강수량 평균값은 176.1mm로 인천(226.8mm), 강화(239.4mm)보다 역시 적지만, 2011년 7월 27일~2011년 7월 31일 5일간에 최대 473.5mm를 기록한 적이 있다. 강수량을 강수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하는 강수 강도는 부평구에서는 14.1mm/일로, 인천(16.6mm/일)과 강화(17.9mm/일)보다 약하다. 하지만, 강수 강도가 가장 강하였던 해인 2011년에 23.6mm/일로 높았다. 장마전선의 영향과 저기압의 통과로 언제든지 많은 강수량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발달할 수 있다.

부평구를 포함한 인천, 경기에서도 홍수는 폭염과 함께 거의 매년 경험하게 되는 자연재해이다. 1995년 7월 10일에 오전 1시~4시까지 3시간 동안 79mm의 비가 내려, 부평구 부개2동, 부개3동, 부평5동 일대의 주택 608세대와 농경지 50ha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2017년 7월 23일에도 새벽 집중호우로 인해 인천-부평역 구간이 침수되어, 전동차 운행이 오전 9시 30분부터 27분간 중단되었다. 또한 부평구 청천동에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장에서 근로자 7명이 지하 현장에서 작업 중에 고립됐다가 약 1시간 만에 구조되었다.

표 7 부평구·인천·강화의 일 강수량 100mm 이상 강수일수와 1일·5일 최다강수량, 강수 강도

(단위: 일, mm, mm/일)

구분	100mm 이상 강수일수	1일 최다강수량	5일 최다강수량	강수 강도
부평구	0.6	105.4	176.1	14.1
인천	1.8 (1.6)	127.5 (132.5)	226.8 (238.9)	16.6 (16.8)
강화	1.4 (1.6)	144.1 (160.2)	239.4 (283.1)	17.9 (18.0)

장마가 끝나고 가을이 지나고 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영향을 미치면서 이듬해 봄까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어, 겨울과 봄 가뭄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일강수량 1mm 이하의 날이 가장 길게 지속된 기간을 나타내는 최대무강수계속기간⁵은 부평구에서 44.1일로 인천(32.5일), 강화(34.7일)보다는 길지만,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변동성이 강해서 2004년 12월 7일~2005년 3월 9일까지 93일간 최대무강수계속기간이 지속되었다. 즉, 2004년 겨울부터 2005년 초봄까지 무강수가 지속되었다. 강수와 관련된 현상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표 8 부평구·인천·강화의 최대무강수계속기간

(단위: 일)

구분	최대무강수계속기간
부평구	44.1
인천	32.5 (32.2)
강화	34.7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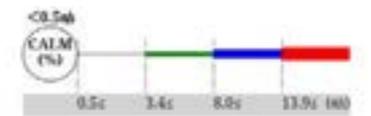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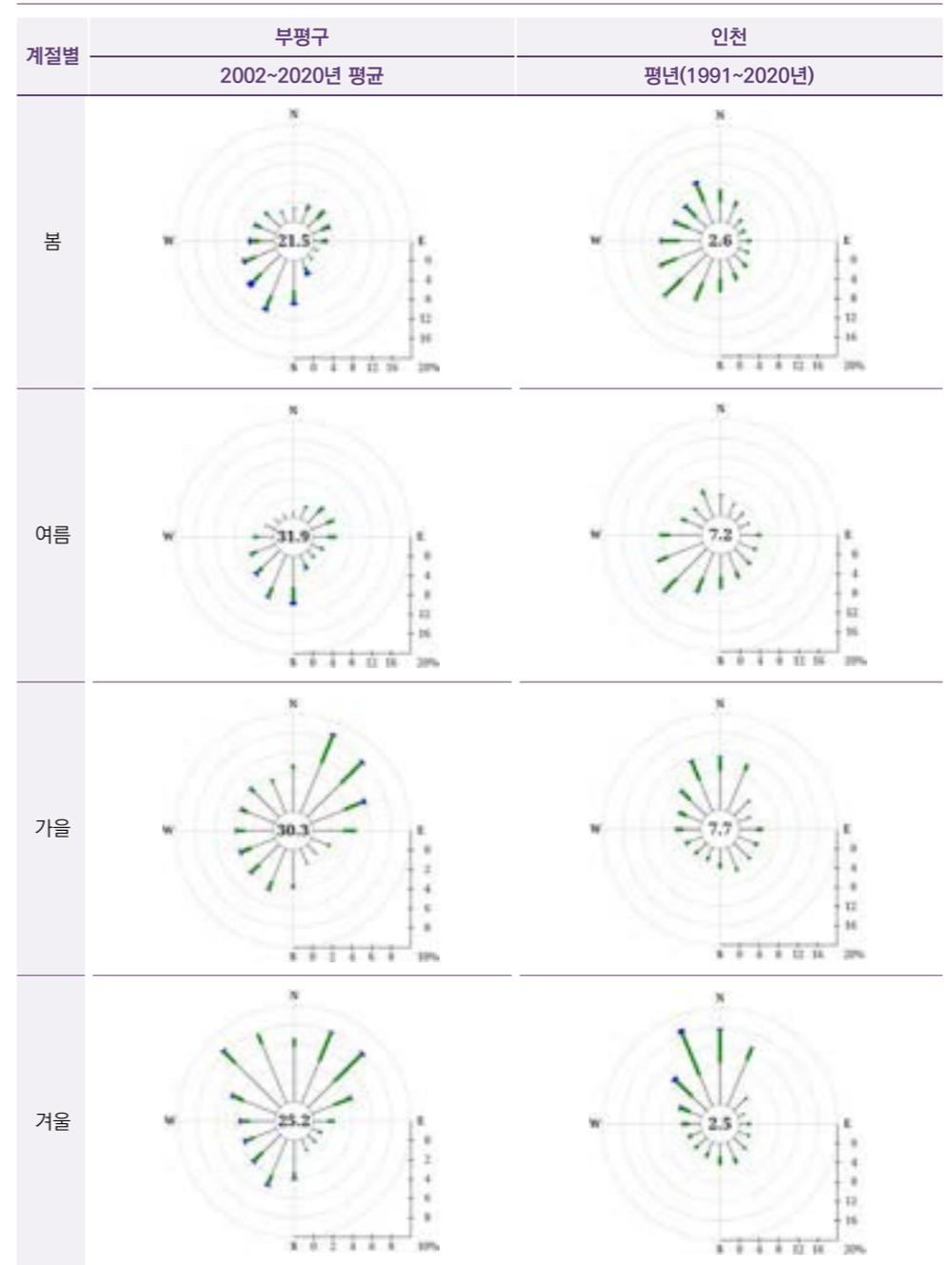
5 최대무강수계속기간은 가뭄지수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름철인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2019년 값은 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기간에 산출한 값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2019년까지 산출하였다.

3) 바람 특성과 변화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여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풍계 바람이 많이 분다. 인천 지점에서 관측된 탁월풍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점과 같이 북서풍과 남서풍 계열이다. 북서풍 계열은 겨울과 가을철의 탁월풍인데 북북서풍, 북서풍, 서북서풍 순으로 비중이 높다. 겨울철의 북서풍은 체감온도를 실제 기온보다 낮춘다. 남서풍 계열은 여름철과 봄철의 탁월풍이다. 봄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도 적지 않게 부나, 여름에는 남서풍이 탁월하다. 가을에 주 풍향은 다시 북서풍 계열로 바뀐다. 부평 시가지의 바람은 주변 비도시 지역에 비해 다양한 건물 높이 영향으로 도시 지표의 기복이 크고, 도시 구조물에서 종종 나타나는 고온 현상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즉, 부평 시가지의 건물, 특히 복잡한 스카이라인을 지닌 건물군은 도시 상공이나 도시 주변의 공기 유동에 강력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풍향과 풍속이 아주 급속하게 달라지는 요란과 돌풍이 발달할 수 있다.

부평구는 모든 계절에서 해안에 가까이 위치하는 인천보다 정온(0.4% 이하) 비율이 높고, 특히 여름철에 31.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은 인천에서 북서풍과 남서풍이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는데, 부평구에서는 남서풍 계열이 탁월하며, 그중 남남서풍(11.9%)의 비율이 높았다. 여름철에는 인천, 부평구 모두에서 남서풍 계열이 우세했고, 부평구에서는 남풍(11.2%)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을철과 겨울철에서 인천에서는 북서풍이 탁월했지만, 부평에서는 북북동풍의 비율이 높았다(가을 : 9.8%, 겨울 : 10.1%). 풍향과 풍속은 관측 지점 주변 지세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인천과 부평에서 차이가 났지만, 계절별 탁월풍을 고려할 때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풍향과 풍속은 도시지역의 오염물질 확산과 도시풍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9 부평구·인천의 평균 연과 계절별 평균 풍속과 풍향



출처: 필자 작성, 자료: 기상청

표 10 부평구·인천의 연·월별 최대순간풍속 13.9% 이상 평균 일수

구분	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평	34.6	2.8	2.5	4.1	4.6	3.6	1.6	2.9	2.6	1.3	2.5	3.4	2.6
인천	36.9	3.3 (3.9)	2.8 (3.6)	4.5 (5.4)	3.8 (4.1)	1.6 (2.4)	0.9 (1.3)	1.7 (2.3)	1.9 (2.0)	1.0 (1.3)	2.3 (2.8)	3.8 (3.6)	4.0 (4.2)

❖ 비교 : 2002~2020년, 인천의 괄호 값은 1991~2020년 평년값임.

강풍의 기준인 최대순간풍속 13.9% 이상 평균 일수는 부평구에서 연평균 34.6회로 4월에 최대가 나타나고, 3월, 5월, 11월에 3회 이상 발생한다. 6월과 9월은 강풍 일수가 가장 적었다. 4월~8월까지 부평에서 인천보다 강풍 일수가 많고, 나머지 계절에는 반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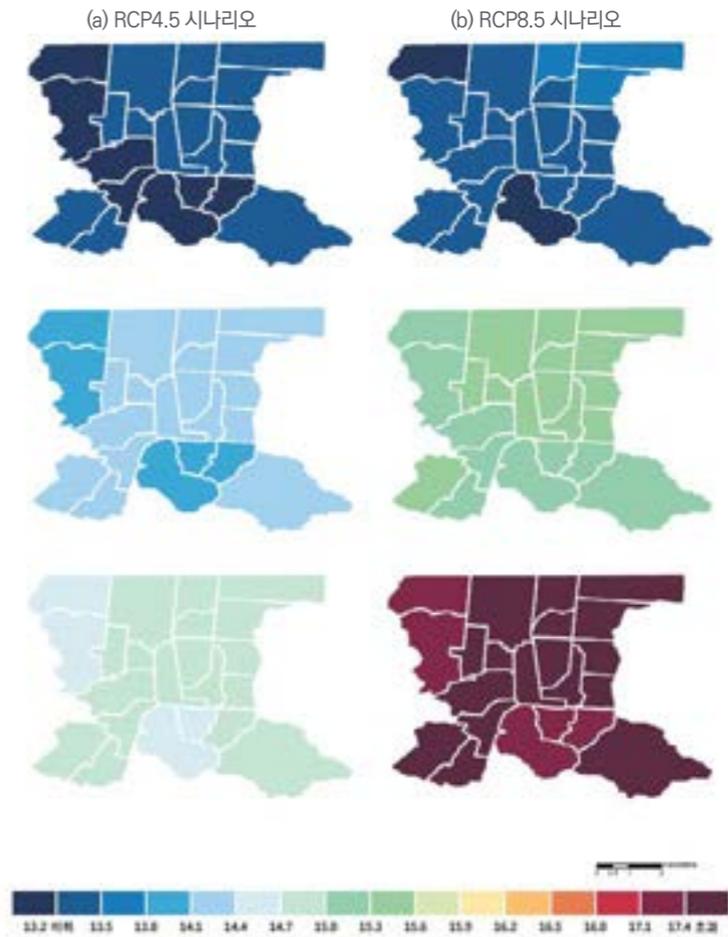
2. 부평의 미래 기후는?

1) 기온

2020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COVID-19 창궐로 인한 팬데믹과 기후위기이다. 기후 위기 문제는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는 완화 노력과 새로운 기후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위도에 위치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위기는 아열대화, 계절 길이의 변화, 폭염과 열대야일의 빈번한 출현, 한파일의 감소 등과 연관된다. 2014년에 발간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후변화 상세분석보고서』는 대표농도시나리오(RCP 시나리오)⁶에 기반하여 21세기 부평구의 기온, 강수량과 함께 다양한 극한기후지수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6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는 대기 단위 면적(m²)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양(W)의 변화를 가정하는 복사강제력 시나리오이다. RCP8.5 시나리오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여, 2100년에 700ppm까지 증가하여 8.5 W/m²의 복사강제력을 가진다. RCP4.5 시나리오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525ppm으로 4.5W/m²의 복사강제력을 가진다.

RCP8.5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현재보다 약 5.3℃ 상승하고, 부평과 인천에서는 각각 4.9℃, 5.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과 사회기반시설로 이와 같은 강도의 기온 상승은 감당하기 어렵다. RCP8.5 시나리오가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는 고배출량 시나리오라면, RCP4.5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노력과 기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포함한 시나리오이다.



❖ 부평구의 평균기온(℃) 분포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후변화 상세분석보고서』, 기상청·인천기상대, 2014, 18쪽)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적극적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RCP8.5 시나리오에서 부평구 연평균기온은 2000년대에 비해 2040년대에는 2.1℃, 2090년대에는 5.6℃ 상승한다. 반면에 RCP4.5 시나리오에서 2090년대 부평구의 연평균기온은 2.4℃ 상승하여 파리협약⁷의 목표 온도인 2.0℃에 가깝다. 부평구 내 동별 평균기온의 변화량은 차이가 크지 않고, 모두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RCP8.5 시나리오에서 부평구는 2040년대부터 아열대기후형⁸으로 변화하고, RCP4.5 시나리오에서는 2070년대부터 아열대기후형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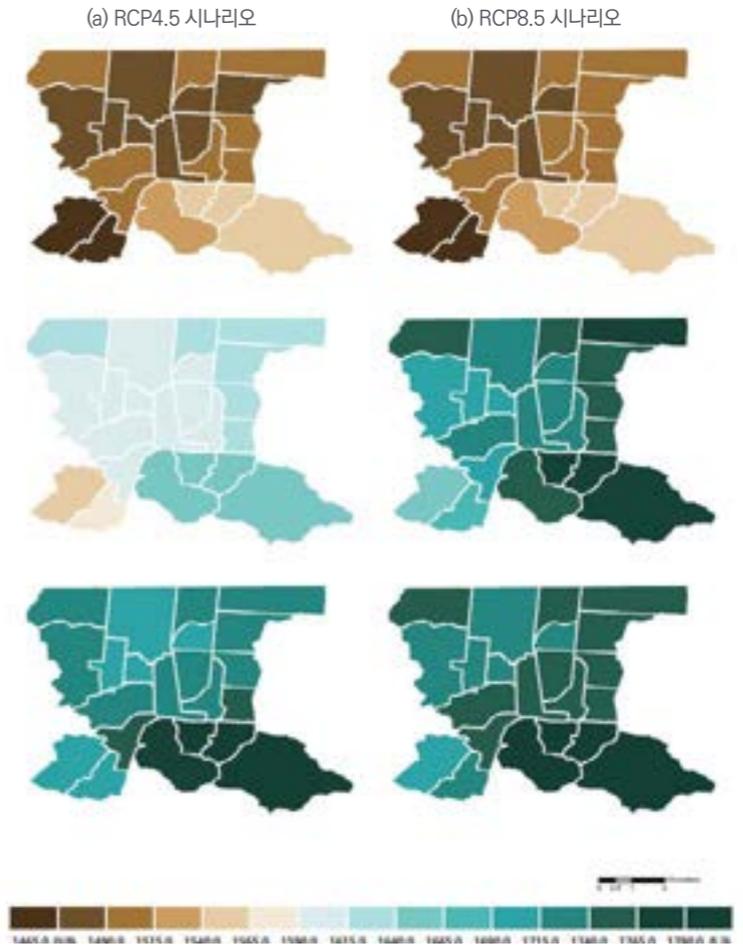
온실가스의 배출량 수준을 현재 추세대로 유지하면, 온난화로 인하여 부평구의 식물 성장가능기간은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21% 증가하여 일 년에 약 50일을 제외하고는 식물성장이 가능하다. 여름 일수도 현재보다 약 60일 늘어나서 일 년에 160일이 넘어갈 전망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식물성장가능기간과 여름 일수는 각각 19일, 28일 증가(각각 RCP8.5의 34%, 55%)하여 현재보다는 높지만, 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2) 강수량

연강수량은 변동성이 커서 예측이 어렵고,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그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부평구의 연강수량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RCP8.5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부평구와 인천광역시의 강수량 증가율은 유사하여 각각 37%, 3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편이다. 부평구 내 동별로 살펴보면 강수량의 증가율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나, 부평5동에서 가장 크고, 청천1동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의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현재 추세로 유지하였을 경우를 비교해 보면,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2100년에 지구 기온 상승 온도를 2.0℃로 제한하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다. 2.0℃는 지구 생태계가 새로운 기후시스템에 적응하고, 식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온난화 강도이다.

8 1년 12개월 중 8개월의 월평균기온이 10℃를 넘으면 아열대기후형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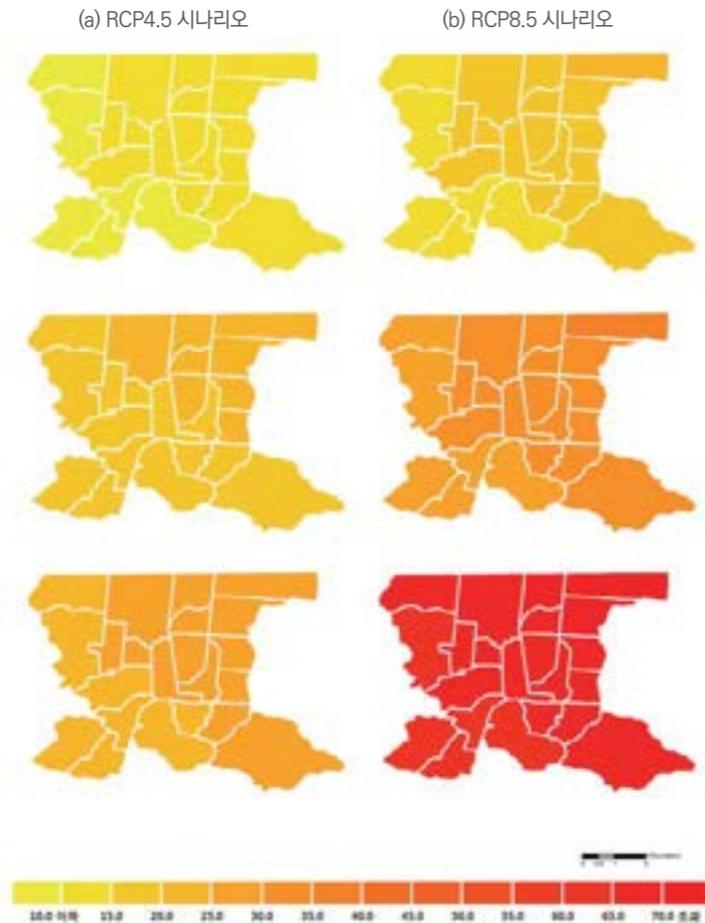


❖ 부평구의 연강수량(mm) 분포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후변화 상세분석보고서』, 기상청·인천기상대, 2014, 22쪽)

3) 극한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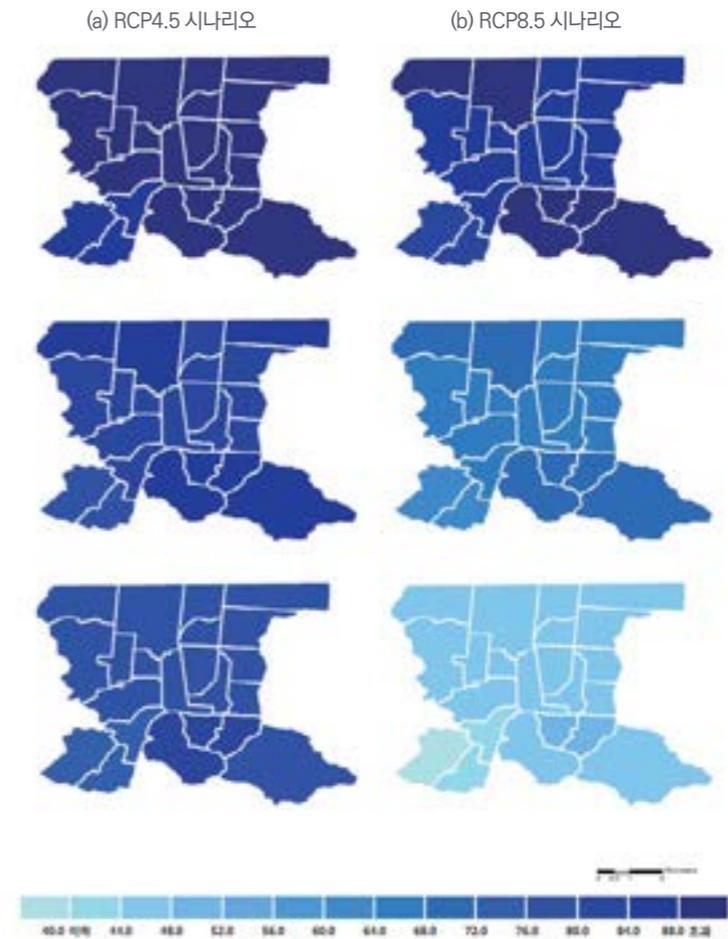
부평구는 해안에 가까운 인천광역시 중구와 비교하여 폭염 일수의 발생이 많다. RCP8.5 시나리오의 경우, 부평구의 폭염 일수는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67일 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1년에 두 달 정도가 폭염일이 되는 고온 상태가 발생하면 보건, 물 관리,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응과 노력이 없으면 취약성이 커질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폭염 일수의 발생빈도가 높지만, 그중 삼산1동에서 가장 빈번하다.

열대야도 비슷하게 상승하여,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68일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부평구에서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갈산1동과 삼산1동이다. 부평구 내 각 동의 기온 상승 폭이 비슷하여, 현재 발생 일수가 많은 지역이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많이 나타난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현재 10일 또는 그 이하로 나타나는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대폭 증가하여 여름의 대부분 기간에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 부평구의 폭염 일수(일) 분포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후변화 상세분석보고서』, 기상청·인천기상대, 2014, 28쪽)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기온 상승 폭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의 발생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RCP4.5 시나리오의 경우에 부평구의 폭염 일수는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25일이 나타나 RCP8.5 시나리오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다. 열대야 일수도 33.2일로, RCP8.5 시나리오의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만이 이와 같은 재앙을 막을 수 있다.



❖ 부평구의 해수 일수(일) 분포도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후변화 상세분석보고서』, 기상청·인천기상대, 2014, 32쪽)

기온 상승 폭이 큰 부평구의 서리 일수와 결빙 일수는 인천광역시 중구보다 적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현재 추세로 유지하는 RCP8.5 시나리오에서 부평구의 서리 일수는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현재보다 47일 적게 나타나며, 결빙 일수는 16.6일 적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부평구의 서리 일수는 현재보다 14일 감소하고, 결빙 일수는 12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RCP8.5보다 감소 폭이 작아진다. 서리 일수와 결빙 일수의 감소로 인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지만, 월동하는 해충이 많아지면서 농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

부평구 내 동별 일최고기온 차이는 최대 0.6℃, 일최저기온 차이는 최대 0.5℃로 나타나고, 현재 갈산1동과 삼산1동은 폭염 발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의 폭염 발생이 가장 빈번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평2동은 일최고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폭염 일수가 적게 나타나며 미래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CP8.5 시나리오의 경우에 부평5동이 부평구 내에서 가장 큰 강수량 증가율을 나타낸다. RCP8.5 시나리오에서 강수 강도와 호우 일수는 현재 지역적 차이가 크지 않으나 미래에는 십정2동에서 강수 강도의 증가가, 산곡4동에서는 호우 일수의 증가가 가장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영향

RCP8.5 시나리오의 경우에 21세기 전반기(2011~2040년)에 부평구는 열지수와 불쾌지수가 각각 ‘경고’, ‘높음’ 범위에 속하고, 21세기 중반기(2041~2070년)에는 ‘주의’, ‘매우 높음’ 범위에 속한다.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가 되면 열지수와 불쾌지수가 각각 ‘위험’, ‘매우 높음’ 범위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부평구에 건강과 관련된 적절한 적응 노력과 대응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에너지 수급 계획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냉방도일(冷房度日)은 특히 7월과 8월에 급격히 증가하고, 냉방이 필요하지 않던 10월에도 냉방이 필요해진다. 난방에 필요한 기존 에너지 외에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수급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부평구의 미래 기후전망 요약(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후변화 상세분석보고서』, 기상청 인천기상대, 2014, 61쪽)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효과는 폭염과 열대야와 같은 극한기후에서 더욱 두드러져서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폭염 일수는 61일 증가에서 20일 증가로 줄어들며, 열대야 일수도 65일 증가에서 30일 증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감축은 호우 일수의 변화율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변동성이 크다. 또한, 생육도일, 유효적산온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인천광역시와 부평구에서 10℃ 기준 생육도일의 증가 폭을 각각 31%, 29% 감소시킬 수 있고, 유효적산온도의 증가폭도 각각 31%, 29% 감소시킬 수 있다. 인천광역시와 부평구에서 열지수는 각각 22%, 20% 감소시킬 수 있고, 불쾌지수의 경우 각각 5%, 4%, 냉방도일은 각각 842%, 509% 감소시킬 수 있다. 난방도일(暖房度日)의 경우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온실가스 감축이 감소 폭을 인천광역시에서 22%, 부평구에서 21% 완화할 수 있다.

5) 취약성

온난해지는 기후시스템으로 인해서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수준에서 적응과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 부평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에 따르면, 부평구는 건강과 물 관리, 재난 재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취약성(climate change vulnerability)이란 부평구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 또는 그 영향에 대처하기 어려운 정도를 말한다. 앞에 제시된 미래 기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하여 기후변동에 대한 사회경제시스템의 노출과 민감도와 적응 능력의 함수로 산출된다.

부평구는 기후변화에 건강 부문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관련된 부평구의 취약성 순위를 보면 태풍을 제외하면 모두 인천광역시 10개 구 중에 1~3위를 차지한다. 특히, 기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건강 취약성은 2020년대를 기준으로 RCP4.5와 RCP8.5 시나리오 모두에서 인천광역시에서 부평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고온과 관련된 극한기후의 발생빈도 증가 전망을 보여주는 기후변동과 더불어 민감도 부문에서 14세 이하 인구, 65세 이상 인구, 심혈관질환 사망자 수,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취약성 기후 노출 부문에서도 부평구가 다른 지역보다 일최고기온의 연간평균값, 시간미세먼지 농도가 100 $\mu\text{g}/\text{m}^3$ 이상인 날의 횟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재난 재해에서는 폭설과 폭염, 물 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과 수생태 부문에서 부평구는 취약하여 이에 대한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

표 11 부평구의 인천광역시 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별 순위

부문	세부 부문	RCP4.5 시나리오		RCP8.5 시나리오	
		2020년대	2040년대	2020년대	2040년대
건강	곤충 및 설치류에 의한 전염병 건강 취약성	1	3	3	2
	기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건강 취약성	1	1	1	1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취약성	2	2	2	2
	수인성 매개질환에 대한 건강 취약성	1	3	2	1
	오존농도 상승에 의한 건강 취약성	2	2	3	2
	태풍에 의한 건강 취약성	5	7	3	3
	폭염에 의한 건강 취약성	2	2	2	2
	한파에 의한 건강 취약성	3	4	4	3
	홍수에 의한 건강 취약성	3	5	4	4
재난 재해	폭설에 대한 기반시설 취약성	3	3	3	2
	폭염에 대한 기반시설 취약성	2	3	2	3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반시설 취약성	7	8	8	8
	홍수에 대한 기반시설 취약성	7	5	7	5
물 관리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취약성	1	3	2	2
	이수에 대한 취약성	3	3	3	4
	치수에 대한 취약성	6	6	8	7

❖ 출처: 『제2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 인천광역시, 2016, 80~149쪽 발췌 정리.

제2절 |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부평의 땅

하천과 산지 등의 자연환경적 요소를 포함한 지리적 조건은 행정 경계를 설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평구는 1995년에 인천직할시 북구가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리되면서 형성되었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굴포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유역 분지를 이루고 있다. 부평구는 인천광역시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북쪽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쪽은 인천광역시 서구, 남쪽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서부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접해 있다. 동쪽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와 경계를 나눈다. 부평구의 동-서 거리는 약 7.5km, 남-북 거리는 약 6.6km로 면적은 32km²이다.



❖ 부평구와 주변 지역의 위치 (출처: 『1:100,000 도로지도(道路地圖)』, 성지문화사, 2016)



❖ 부평구의 위치를 보여주는 위성 영상(출처: 국토정보플랫폼)

1.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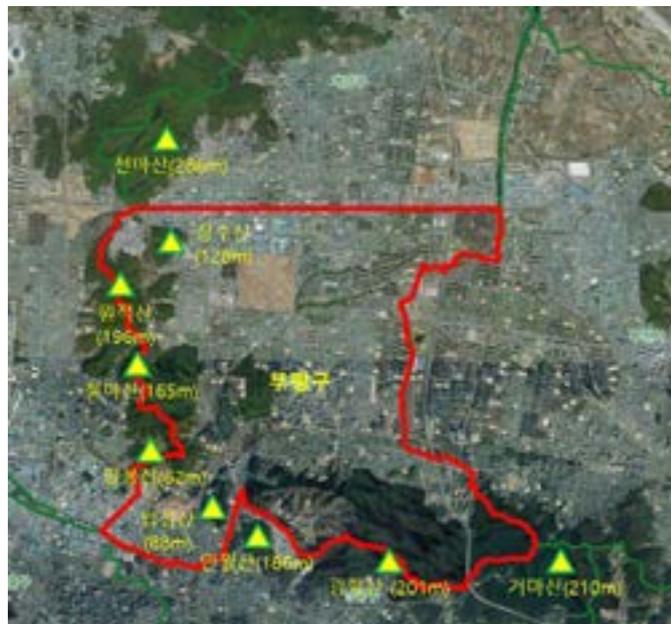
1) 산지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산지 인식 체계는 산경표(山經表)에 잘 나타나 있다. 산경표에 따르면 인천의 산줄기는 속리산에서 갈라져 북서쪽으로 뻗어가면서 한강 유역과 경기 서해안을 나누는 한남금북정맥에 속한다. 한남정맥은 인천의 남동쪽에 위치한 성주산을 지나 비루고개-금마산-주안산-원통고개-장고개-원적산-천마산-계양산-피고개산을 지나고, 계양구 독실동에서 김포 방향으로 휘어져 가현산-약산-문수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 산줄기가 인천도호부와 부평도호부를 나눈 경계선이었고, 속리산에서 한강, 금강, 낙동강으로 물줄기가 갈라지는 것으로 여겼다.

부평을 포함한 인천광역시의 산지는 섬을 제외하면 대략 남북방향으로 연속성을 보인다. 남북방향의 산지는 남쪽으로부터 소래산(299m), 성주산(217m)이 시흥시와 부천시 경계를 이룬다. 서쪽에는 거마산(205m), 무네미고개, 만월산, 광학산(201m, 철마산이라고도 불림)으로 이어진다. 북쪽으로는 함봉산(61m), 장고개, 철마산(146m, 산곡동), 원적산(199m), 안하지고개, 철마산(227m, 효성동), 계양산(395m)을 이루고, 북서쪽에는 100m 내외의 구릉이 존재한다.

◦ 서부 산지

안하지고개(아나지고개)는 내륙의 부평과 해안 지역인 서구를 잇는 주요 교통로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부평구 청천동과 계양구 효성동, 서구 가정동을 동서로 연결하는 고개로, 조선 후기에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세금으로 거둔 대동미를 한양으로 운반하던 중요한 길목이었다고 한다. 부평구의 서부, 즉 안하지고개-원통이고개에는 150m 내외의 낮은 산지가 위치한다. 이 산지에는 원적산(199m), 철마산(산곡동, 146m)이 위치하여 부평구 청천동, 산곡동과 서구 가좌동의 경계가 된다. 이 산지는 전통적으



❖ 부평구와 주변 지역의 주요 산(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 원적산과 세월천

로 인천의 내륙(부평)과 해안(원래 인천)을 나누는 경계로도 사용된다. 과거에는 내륙과 해안 지역 간 교통의 장애가 컸으나, 1972년 원적산길이 개설되었고, 2004년에는 천마터널(현 원적산터널)이 개통되어 교통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

부평구 서부 산지의 남쪽 끝에 위치한 원통이고개는 부평구 십정동과 부평동 사이의 낮은 고개이다. 이 고개의 북쪽에는 서부 산지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61m의 함봉산, 동쪽에는 남부 산지가 시작되는 광학산(일신동, 201m)이 있다. 이 고개를 중심으로 한 통로는 경인선 철도와 전철,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도 46호선(경인로), 경원대로 등 인천의 도심과 부평, 부천, 서울을 잇는 핵심 교통로가 된다. 원적산의 가장 남쪽 끝자락에서 산줄기가 동남쪽과 서남쪽 두 갈래로 갈라진다. 동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해발 120m인 호봉산을 지나 부평도서관, 백운공원, 신동아아파트(십정동) 배후의 구릉지를 지나 원통이고개를 가로지른다. 서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분수계에는 부평구와 서구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부평구 주변에는 모두 3개의 철마산이 국가 기본도인 지형도에 올라 있다. 부평구와 서구 경계의 철마산(산곡동, 146m), 부평구와 남동구 경계의 철마산(일신동, 201m, 광학산), 그리고 계양구와 서구 경계의 철마산(효성동, 227m)이 그것이다.

◦ 남부 산지

만월산은 주 봉우리가 부평구와 경계를 이루는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다. 약사사라는 사찰과 약산공원이 있어 약산으로 불리기도 하며 원통산, 선유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리고개는 부평구 일신동과 남동구 만수동을 연결하는 고개로 비루고개, 별리고개, 별고개 등으로도 불리었다. 비리고개는 일신동과 구산동 일대에 오랫동안 군부대가 주둔한 후 사람의 왕래가 차단되었다. 광학산(일명 철마산, 금마산)은 부평구 부평동, 일신동과 남동구 만수동, 장수동 사이에 동서 약 6km, 남북 대략 3km 정도에 걸쳐있다. 이 산은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 1번 출구 맞은편에서부터 동쪽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구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밑의 무네미고개에서 높이가 낮아진다. 광학산은 부평 분지의 남쪽에 위치하여 부평시가지와 남동구와의 연결성 측면에서 남북 간의 흐름을 더디게 하여, 오래전부터 내륙의 부평구와 연안에 인접한 남동구 두 지역의 생활권을 나누는 분수계가 되었다.

무네미고개는 광학산과 거마산을 연결하는 길목으로 영동고속국도, 제2경인고속국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거마산 정상은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하지만, 부평구 동남부 일대에 퍼져 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남동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경계가 된다.



❖ 경원대로와 함봉산(사진 문희수)

2) 평야와 하천



❖ 굴포천

하천의 작용은 평야의 발달에 필수적 요인이다. 굴포천은 부평평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굴포천의 서쪽과 동쪽으로 대략 2~3km의 간격을 두고 각각 인공 수로인 서부간선수로와 동부간선수로가 위치한다. 이 수로는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설하였다. 많은 비로 굴포천이 범람하거나 한강 본류가 굴포천을 거슬러 역류하면서 발달한 퇴적작용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면서 산지와 분지 내부의 경사는 더욱 완만해졌다. 그 결과, 굴포천 유역에는 평야로 발달 가능한 비옥한 충적지가 넓게 발달하게 되었다.

하천은 일정한 물길을 따라 흐르는 물로 인간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천은 물길을 이용한 교통로와 농업용수원으로 사용되었고, 도시의 발달과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로 식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사용된다. 부평구가 위치하는 인천광역시는 계양산을 포함하여 몇몇 산지를 제외하면 대체로 구릉지와 충적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천의 유로가 짧고, 유역 면적이 좁다. 부평구에는 2016년 국가지정하천으로 지정



❖ 굴포천과 갈산천 합류

된 굴포천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방2급 하천이 1개소가 있다. 굴포천은 부평구 청천동 295-1번지에서 출발하여 계양구 하야동, 인천 경기 도계가 종점으로 유로 연장이 11.5km, 유역 면적 60.0km²이다. 다른 작은 하천과 청천천은 굴포천으로 합류하고, 연장이 8.0km, 유역 면적이 6.1km²로 매우 좁다. 굴포천은 부평구와 계양구의 여러 하천과 합쳐지면서 북쪽으로 흘러 김포대교 부근에서 한강으로 합류한다.

부평구와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에 걸쳐있는 부평 분지를 에워싸고 있는 산에서 발원하는 크고 작은 물길은 굴포천으로 모여든다. 분지의 서부 산지에서는 동쪽으로, 남부 산지에서는 북쪽으로, 동부 산지에서는 서쪽으로 흘러 고도가 낮은 곳으로 모여서 굴포천을 형성하게 된다. 굴포천의 지류 중에 부평 분지에서 발달한 하천인 원통천은 광학산 북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북동류하다가 만월산 등지에서 흘러나오는 소하천들과 합류하여 부평 1동 사무소와 부평구청 부근을 통과한 다음 동쪽으로 방향을 튼다. 향동천은 무네미고개에서 발원하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의 경계선을 따라 흐르다가 부평



❖ 청천천 상류



❖ 무네미고개



❖ 향동천(사진 문희수)

구 삼산동과 계양구 서운동, 부천시 삼정동에 걸쳐 있는 서운 분기점 부근에서 굴포천과 합쳐진다.

굴포천의 홍수와 범람은 한강 본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강 본류에서 굴포천 하구와 가장 가까운 홍수예보발령지점은 한강대교 지점이다.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산업화로, 1980년대 말부터는 부평 분지 내부에도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었다. 시가지가 확장되거나, 새로 개발되면서 부평구의 하천은 거의 모두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 유로가 변경, 개수되거나 직선화되어 자연 상태의 하천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같은 하천의 인공화 현상은 비단 부평구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며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삼산1배수펌프장



❖ 굴포천 주변의 도두리 들



❖ 원통천-굴포천 복개도로

2. 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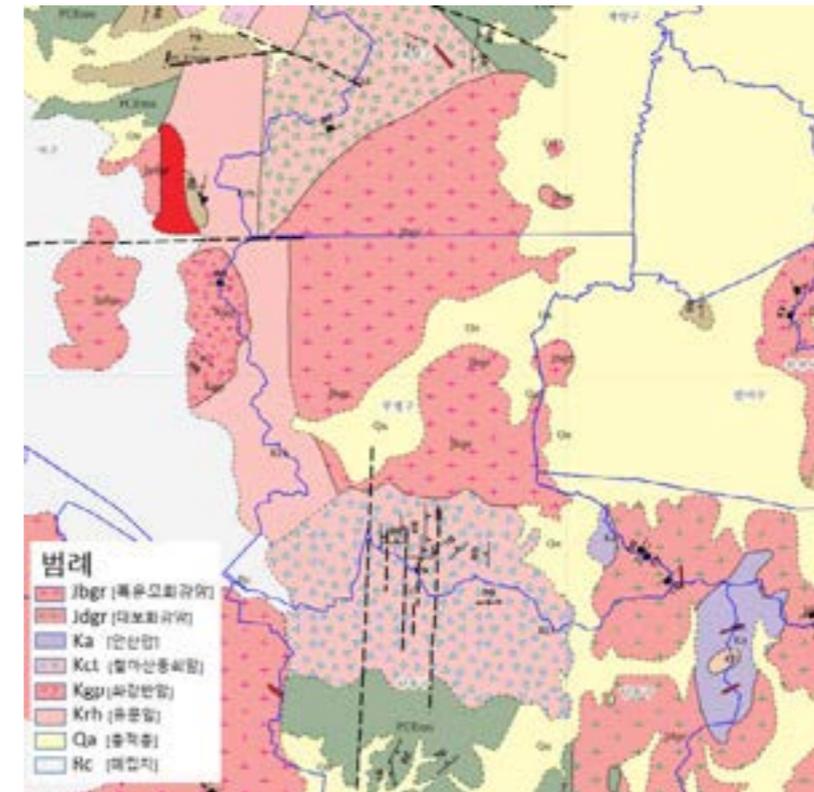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는 경기육괴로 분류된다. 경기육괴 중에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인 경기변성대가 기반암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경기편마암복합체라고도 부른다. 이들 지질은 장기간의 풍화작용으로 낮은 구릉지로 남아 있다. 인천광역시의 지질은 약 8억 년 전인 캄브리아기에 해당하는 화강편마암의 혼성암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의 화강편마암은 퇴적암이 모체이기 때문에, 풍화가 활발하게 작용하여 낮은 구릉성 산지로 발달하였다. 인천광역시의 화강암류는 주로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화강암류와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류가 주를 이룬다. 이 화성암류 중 흑운모화강암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이의 지질시대는 절대 연령 1억 6,200만 년으로 알려져 있다. 흑운모화강암은 인천시가지에 넓게 분포하며, 철마산 용결응회암의 기저가 된다. 흑운모편마암과 운모편마암은 구릉성 지형을 이루고 장기간에 걸쳐 풍화작용을 받았다. 백악기 화산암류로는 계양산을 중심으로 용결응회암, 백악기 화성암류로는 철마산 일대에 응회암이 분포하고 있다.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이 광범위하여 굴포천 유역 등에 기저암인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 쥐라기의 화강암류와 백악기 화산암류 등을 부정합으로 하여 넓게 발달하였다. 특히, 부평구는 백악기 철마산 응회암, 쥐라기 화강암이 주류를 이루지만, 서부 평지상에 제4기 충적층도 형성되어 있다. 또한, 시가지가 형성된 부평동, 청천동, 갈산동 등에 쥐라기의 흑운모화강암이 널리 분포하고, 삼산동과 부개동의 농경지에는 제4기 충적층이 쌓여 있다. 일신동, 만월산, 철마산 일대에는 백악기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암역, 원통이고개, 인천가족공원공설묘지(부평시립공동묘지) 등의 지질은 백악기 철마산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학산-계양산에 이르는 남북방향의 산지는 주로 결정편암이나 화강반암류가 기반암을 이룬다. 이들 암석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냉각되어 형성된 심성암으로 풍화에 비교적 강하다. 그래서 이 산지의 봉우리들은 경사가 급하고, 기반암이 드러나 있는 곳이 많다. 이들 산지는 인천광역시 동부에 위치하는 부평구와 계양구를 다른 지역과 분리하는 행정 경계가 된다. 부평구에는 굴포천을 따라 충적지가 넓게 발달하였지만, 남북

방향 산지에는 고도 200m 이상의 산지가 일부 존재하여 과거에는 교통에 장애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부평 분지’는 계양산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철마산, 원적산, 만월산, 거마산으로 이어지는 산지와 성주산을 지나 북쪽의 원미산, 춘의산으로 에워싸인 지역이다. 부평 분지는 중생대 이전부터 퇴적되어 있던 편마암, 편암으로 화강암이 비집고 들어가면서 변성된 변성퇴적암이 밑바닥을 이루고 있다. 이들 변성퇴적암은 고생대~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습곡 작용을 받았다. 이후 중생대 쥐라기~백악기에 대규모의 화산분출이 있었다. 그 결과, 변성퇴적암층 위에 화산분출로 공급된 용결응회암, 유문암, 응회암 등의 화성암들이 쌓여 부평 분지를 경계 짓는 산지가 되었다.



❖ 부평구의 지질(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3. 토양과 식생

지표를 덮고 있는 토양은 식생에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을 공급한다. 토양은 암석, 공기, 수분, 생물 등 다양한 요인들 간에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매우 더디게 발달한다. 하지만, 하천 범람원의 토사처럼 유기물이 풍부하여 식생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토양도 있다. 토양은 단면의 상태에 따라 성숙도와 미성숙도로 구분한다. 성숙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표적인 토양층이 모두 존재하는 토양이다. 성숙도로 인천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성대토양⁹은 온대기후에 발달하는 혼합림지대에서 전형적으로 형성되는 갈색 삼림토이다. 형성 기간이 짧은 토양층의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미성숙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반암의 풍화물이 암반 위를 얇게 덮은 암쇄토, 하천 주변의 충적토, 해안 간척지의 염류토 등이 있다. 부평구에는 하천 주변에 신생대 제4기¹⁰ 이후에 쌓인 충적토가 넓게 분포한다. 인천광역시에는 암쇄토와 염류토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적황색 암쇄토는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는 토양으로, 특히 내륙과 도서부의 산지나 구릉지에 분포한다. 회색의 충적토는 굴포천 등 하천을 따라 국지적으로 나타나며, 해안과 해안 평탄지에는 회색의 충적토나 염류토가 나타난다. 염류토는 특히, 매립 이전 해안을 따라 널리 분포한다. 이러한 토양 분포는 전반적으로 구릉성 산지가 넓다는 지형적인 요인과 해안 저지대의 간척지 조성이라는 인간의 활동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간척 사업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토양의 분포가 넓다는 특징이 있다.

부평구에 분포하는 토양은 13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토양들은 다시 분포 지역에 따라 내륙 평탄지, 하천 범람지, 산악 곡간지, 저구릉지와 산록지와 곡간지, 구릉지와 산악지 토양으로 구분된다. ‘배수 양호’는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대지나 구릉지, ‘약간 불량’은 배수가 나빠서 상당 기간 습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이고, ‘배수 불량’은 배수가 매우 나쁜 토양이다.

9 다양한 토양 형성 요인 중에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주로 받은 토양을 일컫는다.

10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 160만 년 전~1만 2,000년 전)와 홀로세(Holocene, 1만 2,000년 전~현재)를 포함하는 지난 200만 년 동안의 지질학적 기간을 말한다.

표 12 토양별 특성과 분포 지역

토양 부호	토양명	토양 특성	지형	모재	주요 분포지역
Apa	회색토 충적토	배수 약간 불량, 미사 식양질 또는 식질	내륙 평탄지	하성충적	갈산동 삼산동 부개동 부평동
Apb	적황색토	홍적, 배수 약간 양호 또는 양호, 식양질 내지 식질	대지	홍적	갈산동
Ana	회색토 충적토	배수 약간 양호 또는 불량, 미사 식양질	산악 및 구릉의 곡간충적지	곡간충적	구산동 일신동
Fma	회색토 충적토	배수 약간 불량, 식양질 또는 식질	해안 평탄지	하해혼성충적	삼산동 십정동
Fmc	염류토	배수 약간 불량 내지 불량, 미사 사양질 또는 식질	해안 평탄지	하해혼성충적	십정동
Fmd	충적토 회색토	배수 불량 내지 매우불량, 미사 식양질 또는 식질	해안 평탄지	해성충적	십정동
Mab	암쇄토	구릉, 산성암, 배수 매우 양호, 사양질 또는 식양질	구릉지	산성암 잔적	일신동 구산동 청천동
Mva	암쇄토	구릉, 중성 또는 염기성암, 배수 매우 양호 또는 양호, 식양질 또는 사양질	구릉지	중성 내지 염기성암 잔적	산곡동
Raa	적황색토	저구릉, 홍적 및 산성암, 배수 양호, 식질 또는 식양질	저구릉대지	홍적 및 산성암 잔적	갈산동 부평동 일신동 부개동
Rab	적황색토 암쇄토	저구릉, 산성암, 배수 양호, 식양질 또는 사양질	저구릉지	산성암 잔적	청천동 산곡동 일신동
Rac	적황색토	산록, 산성암, 배수 양호, 식질 또는 식양질	산록 경사지	산성암 붕적 및 퇴적	청천동 산곡동
Rea	암쇄토	저구릉, 산성암, 배수 매우 양호, 식양질 또는 사질, 침식상	저구릉지	산성암 잔적	산곡동
Rxa	회색토 충적토	저구릉 곡간, 배수불량내지 약간 양호, 식양질 또는 식질	저구릉의 곡간충적지	곡간 충적	청천동 산곡동

| 제3절 | 부평의 대기오염



❖ 원적산 암쇄토(적황색토)와 혼합림(사진 이도영)



❖ 만월산 암쇄토(사진 문희수)

질 좋은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대기오염 농도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2019년 2월말~3월 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빈번하게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평구에는 2개의 도시대기측정망과 1개의 도로변대기측정망이 있다. 도시대기측정망은 도시지역의 평균 대기질 농도를 파악하여 환경 기준 달성 여부를 판정하는 목적으로, 도로변대기측정망은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변 대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부평구의 대표 측정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번길 19(부평동) 인천 부평동초등학교 옥상에 위치해 있으며 지리적으로 부평구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1989년 대기오염을 관측을 시작했고, 초미세먼지(PM2.5)는 2015년부터 관측이 추가되었다.

표 13 부평구 대기측정소의 위치와 측정 시작 연도

유형	명칭	소재지	측정 시작 연도
도시대기측정망	부평	부평구 부평대로 88번길 19 부평동초등학교 4층 옥상	1989
도시대기측정망	삼산	부평구 삼산동 443-1 시냇물공원 화장실 1층 옥상	2019
도로변대기측정망	부평역	부평구 광장로 지하 15(부평동) 부평역 7번 출구앞	2002

❖ 출처 :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현재의 연평균 대기질 기준으로 보면 부평구의 대기질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보통’과 ‘나쁨’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보통’을 보이는 미세먼지(PM10)를 제외하면 ‘좋음’을 유지하고 있다. 이산화질소(NO₂),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소(CO), 오존(O₃)의 ‘좋음’의 기준은 각각 0.03ppm, 0.02ppm, 2ppm, 0.03ppm이다. ‘나쁨’이나 ‘매우 나쁨’으로 기록되는 날이 있지만, 연평균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보통을 유지하고 있다. 부평구의 연평균 PM10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좋음’ 기준은 각각 30μg/m³과 15μg/m³이다.

그림 7 부평구의 대기오염 변화(1989~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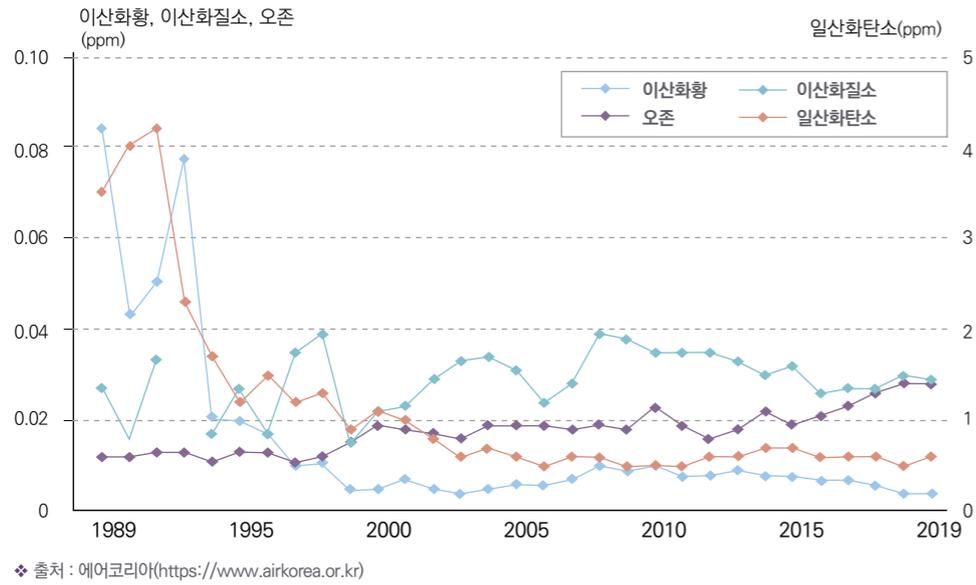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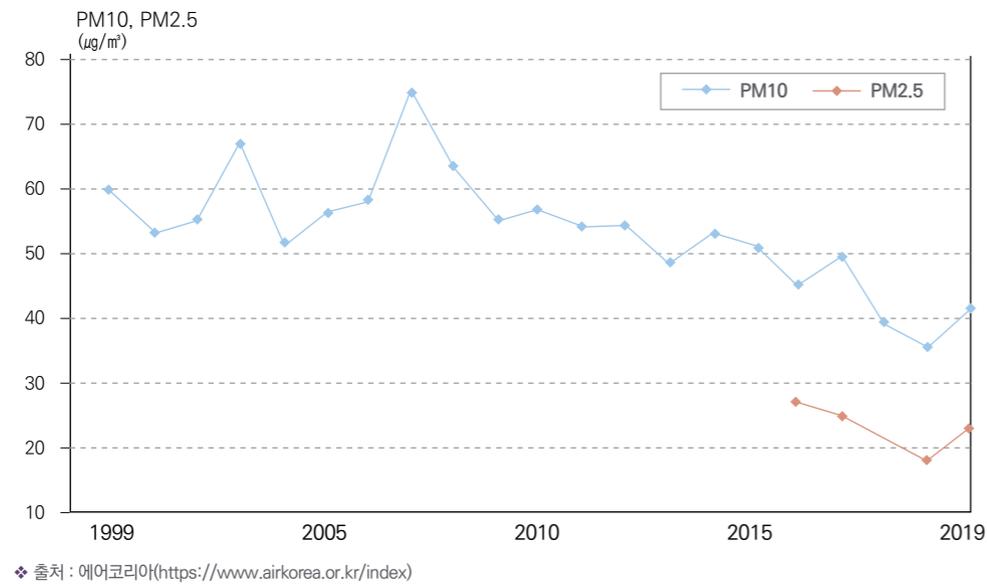


그림 8 부평구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1999~2019년)



2020년 11월 29일~11월 30일까지 부평구의 대기질 측정 항목의 변화를 보면 주간에는 ‘ 좋음’을 유지하다가, 야간이 되면서 ‘보통’으로 바뀐다. 야간에 대기가 안정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11월 30일 21시에 이산화질소를 제외하면 모두 ‘좋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9 부평구의 대기질(2020년 11월 30일 21시)



그림 10 부평구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2020년 11월 29일 21시~11월 30일 2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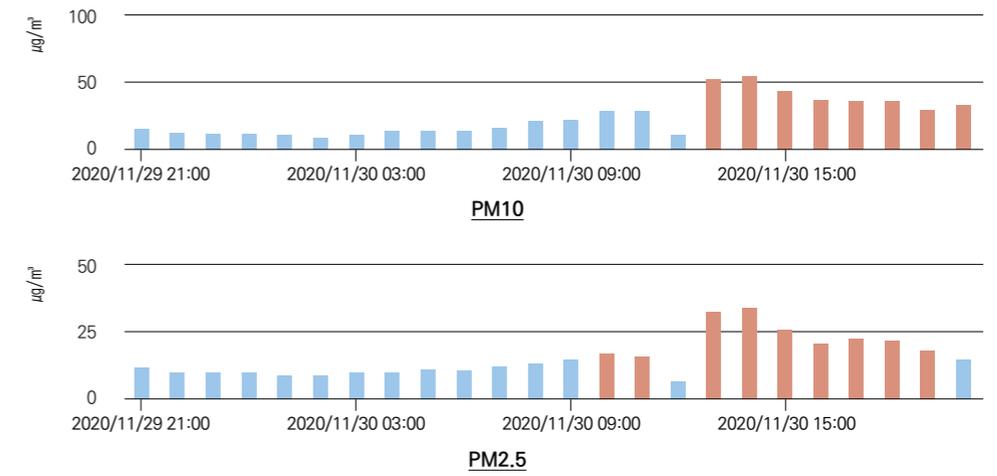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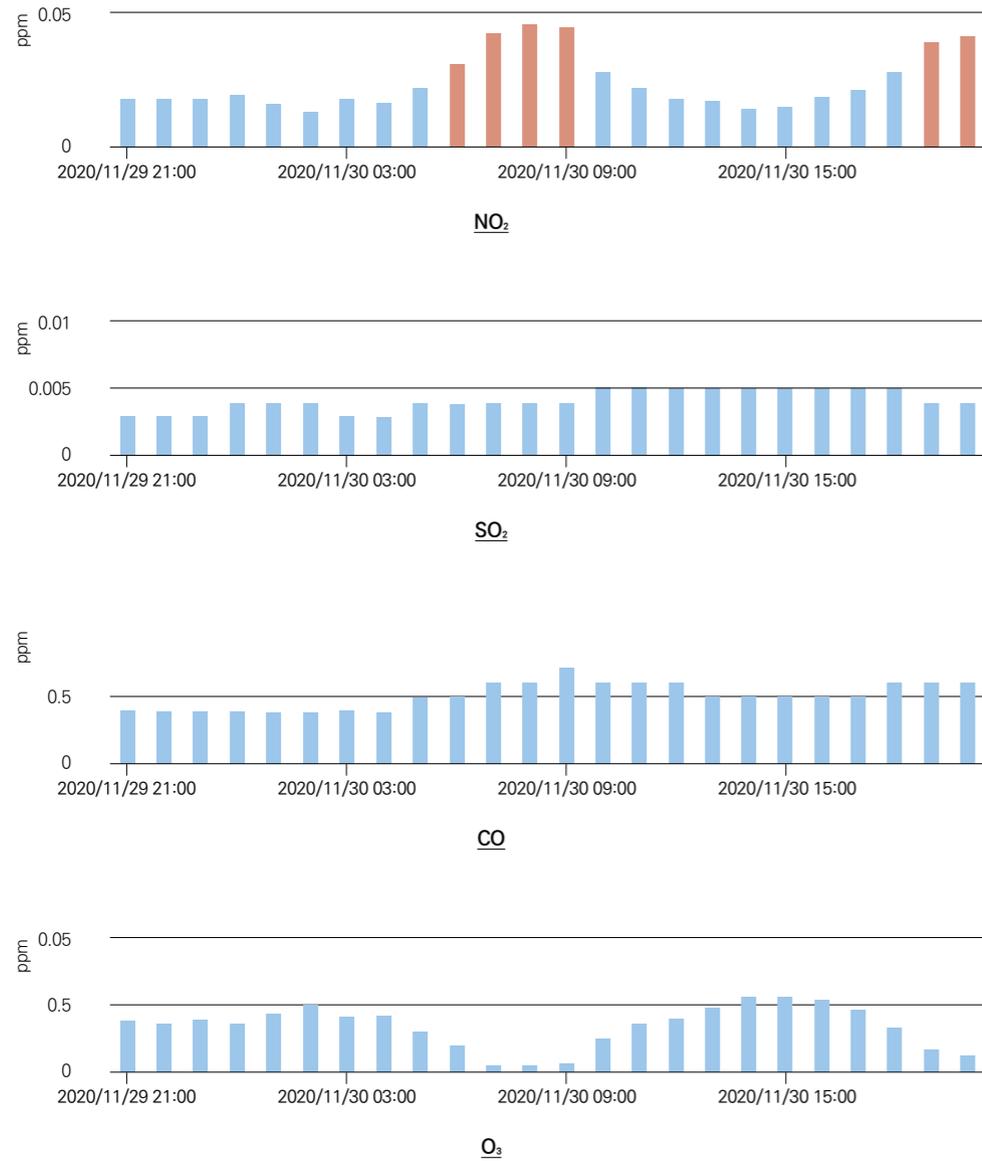


그림 11 부평구 시간별 이산화질소(NO₂),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변화
(2020년 11월 29일 21시~2020년 11월 30일 20시)



❖ 출처 :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index>)



참고 문헌

단행본

- 권혁재, 『자연지리학』, 법문사, 2003.
 권혁재, 『한국지리(지방편)』, 법문사, 2004.
 권혁재, 『한국지리(총론편)』, 법문사, 2005.
 성지문화사 편집부, 『1:100,000 도로지도(道路地圖)』, 성지문화사, 2016.
 이승호, 『기후학』, 푸른길, 2012.

논문

- 김규한 하우영, 「부평 은광산 지역의 유문암질암과 화강암류의 가스 틈 유체퍼유물 연구」, 『Econ. Environ. Geol.』, 30(6), 1997.
 범선규, 「강화도의 수리시설과 수리체계」, 『인천학연구』2(2),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범선규, 「강화도의 해안선과 해안지형」, 『인천학연구』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보고서

- 국도교통부 국토정책국 하천계획과, 『한국하천일람』, 국토교통부, 2018.
 기상청, 『통계관리지침』, 2019.
 기상청-인천기상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후변화 상세분석보고서』, 기상청-인천기상대, 2014.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과, 『제2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 인천광역시, 2016.
 환경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환경부, 2020.

웹사이트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https://data.kigam.re.kr>)





제 2 장 — 부평의 연혁

제1절 _ '부평(富平)' 정명 710주년

제2절 _ 조선시대 부평의 읍격 변화와 공간적 범위

제3절 _ 근대이행기 '부평' 지역의 변화

제2장 부평의 연혁



권 선 정(동명대학교 동양문화학과 교수)

| 제1절 | '부평(富平)' 정명 710주년

현재 시점에서 '부평' 또는 '부평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또는 무엇을 떠올리게 되는가? 우선 '부평'이란 명칭이 포함된 지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부평역, 부평동(주민센터), 부평구, 부평초·중(여중)·고(여고), 부평소방서,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우체국, 부평IC, 부평향교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부평향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련 행정 지명과 관내 소재한 시설들의 명칭이다. 특히 부평동, 부평구 등은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하위 행정구역이다.

그렇지만 근대 이전 부평 지역은 행정 지위상 지금의 부평동·부평구는 물론이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서구, 경기도 부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구로구의 일부 동리 등을 아우르는 도호부(都護府) 단위의 행정구역이었다. 부평 지역의 화려한 과거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인천과 구분되던 부평도호부나 부평부를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듯 현재적 입장에서 부평 지역을 간략히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명이나 행정구역, 중심지, 도로체계 등의 역사지리적 변천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장소성을 탐색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문헌상 '부평' 지명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고려사』 지리지이다. 내용인 즉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수주(樹州)는 본래 고구려 주부토군(主夫吐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고쳐 장제군(長堤郡)으로 하였다. 고려 초 수주로 고쳤고 성종 14년(995)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 이를 폐지하였고 현종 9년(1018) 지주사(知州事)로 고쳤다. 의종 4년(1150) 다시 안남도호부로 삼았고 고종 2년(1215) 또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고쳤다가 충렬왕 34년(1308)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시켰다. 충선왕 2년(1310) 여러 목을 폐지하면서 부평부(富平府)로 내렸다. 속현이 여섯(衿州, 童城縣, 通津縣, 孔巖縣, 金浦縣, 守安縣)이다.”¹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상 '부평' 지명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710년 전인 1310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계양', '길주' 등으로 불렸는데 여타의 군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지명이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편찬되는 부평 관련 지리지에서도 '부평' 지명이 등장할 때까지 명칭 변화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고려사』의 부평부(富平府) 관련 내용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안남도호부.

고려시대 접어들어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어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던 군·현의 경우 대부분은 고려 태조, 성종, 현종대를 중심으로 고려 전기 그러한 행정구역 변화나 지명 개칭을 경험하게 된다.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삼한이 비로소 평정되어 아직 행정구역을 정리할 겨를이 없었다가 940년(태조 23)에야 비로소 전국의 주(州)·부(府)·군(郡)·현(縣)의 명칭을 고쳤고 성종이 다시 주·부·군·현 및 관방(關防)·역참(驛站)·강하(江河)·포구(浦口)의 명칭을 고치면서 마침내 전국을 10개 도(道)로 만들고 12개 주(州)에 각각 절도사를 두었다.”²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특히 고려전기 지명 개칭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는 940년(태조 23)으로 광주목(廣州牧)·충주목(忠州牧)·원주(原州)·청주목(淸州牧)·공주(公州)·금주(金州)·양주(梁州)·상주목(尙州牧)·경산부(京山府)·남원부(南原府)·춘주(春州) 등 부나 목과 같은 상위 행정구역의 경우 앞서 지리지 서문에서 밝혔던 태조 23년을 각 군현 서술에서 다시금 제시하고 있고 그 외 대부분 군현은 ‘고려 초’라고 개칭 시기를 서술하고 있다.³

필자는 기왕의 연구에서 ‘고려 초’로 서술된 약 100개 이상 군현명의 개칭 시기가 태조 23년 즉 940년임을 밝힌 바 있다.⁴ 가령 개명 시기가 ‘고려 초’로 서술되고 있는 군·현은 부평 이전 지명 중 하나인 수주(樹州)를 비롯하여 송림현(松林縣)·마전현(麻田縣)·적성현(積城縣)·견주(見州)·포주(抱州)·행주(幸州)·풍향현(豐壤縣)·금주(衿州)·안산현(安山縣)·용성현(龍城縣)·양성현(陽城縣)·강화현(江華縣)·천녕군(川寧郡)·죽주(竹州)·과주(果州)·용구현(龍駒縣)·괴주(槐州)·제주(堤州)·단산현(丹山縣)·황려현(黃驪縣)·강주(降州)·도안현(道安縣)·청당현(靑塘縣)·회인현(懷仁縣)·덕은군(德恩郡)·회덕군(懷德郡)·연산군(連山郡)·진잠현(鎭岑縣)·석성현(石城縣)·정산현(定山縣)·신평현(新豐縣)·대흥군(大興郡)·고구현(高丘縣)·보령현(保寧縣)·청양현(靑陽縣)·여미현(餘美縣)·여양현(驪陽縣)·온수군(溫水郡)·인주(仁州)·신창현(新昌縣)·풍세현(豐歲縣)·직산현(稷山縣)·안성현(安城縣)·홍산현(鴻山縣)·흥해군(興海郡)·장산군(章山郡)·수성군(壽城郡)·청하현(淸河

2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3 군·현 단위에서는 창녕군(昌寧郡), 해양현(海陽縣) 등에서 태조 23년이 언급되고 있다.

4 권선정, 「지역 브랜드 슬로건 지명의 위상과 영역 변화 : 대전시 '회덕' 지명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3), 2018, 419~421쪽.

縣)·연일현(延日縣)·울주(蔚州)·예주(禮州)·평해군(平海郡)·영덕군(盈德郡)·부이현(烏伊縣)·칠원현(漆園縣)·현풍현(玄豊縣)·강성군(江城郡)·영선현(永善縣)·단계현(丹溪縣)·감음현(感陰縣)·신번현(新繁縣)·초계현(草溪縣)·보령군(保寧郡)·청산현(靑山縣)·산양현(山陽縣)·공성현(功城縣)·가은현(加恩縣)·가리현(加利縣)·안읍현(安邑縣)·임하군(臨河郡)·예안군(禮安郡)·은풍현(殷豊縣)·봉화현(奉化縣)·안덕현(安德縣)·기주현(基州縣)·흥주(興州)·의성부(義城府)·보주(甫州)·화천현(和川縣)·염주(鹽州)·백주(白州)·안주(安州)·풍주(豊州)·안악군(安岳郡)·유주(儒州)·은율현(殷栗縣)·청송현(靑松縣)·가화현(嘉禾縣)·영령현(永寧縣)·웅진현(瓮津縣)·영강현(永康縣)·황주목(黃州牧)·봉주(鳳州)·평주(平州)·곡주(谷州)·협계현(俠溪縣)·수안현(遂安縣)·문산현(汶山縣)·화주(和州)·용진진(龍津鎭) 등 대략 100개 이상에 달한다.

이에 반해 태조대의 예산현(태조 2, 919년), 성종대의 무안군, 현종대의 가림현처럼 고려전기지만 태조 23년이 아닌 시기 개명이 이루어졌거나 태조대가 아닌 성종, 현종대 개명된 군·현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 시기가 서술되고 있다.⁵ 이와 관련해 볼 때 ‘부평’ 지명 등장 이전 고려 초 부평 지역의 명칭인 ‘수주’로의 개칭 시기는 940년(태조 23)임을 알 수 있다.⁶

5 가령 “예산현은 본래 백제의 오산현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은 고산으로 고치고 …… (고려)태조 2년(919)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청부현은 본래 고구려의 청이현으로 신라 때 적선으로 이름을 고쳐 아성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초 부이현이라 했다가 또 고쳐 운봉현이라 하고 성종 5년(986)에 다시 지금 이름으로 고쳐 내속하였다.”, “무안군은 본래 백제의 물야해군으로 신라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혜종 원년에 물량군으로 고쳤으며 설종 10년(991)에 다시 지금 이름을 칭하고 내속하였다.”, “가림현은 본래 백제의 가림군이었는데 …… 현종 9년(1018)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하여 태조 23년과는 구분되는 구체적 시기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성종대의 명칭 변경은 주로 고려 이전이나 태조대 개명된 행정명에 더하여 별호(別號)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앞의 청부현이나 무안군처럼 숙주(성종 2)·자주(성종 2)·담양군(성종 14)·교주(성종 14) 등 그 정확한 개명 연대가 서술되어 있다. 현종대는 가림현처럼 1018년(현종 9) 심악현·재양현·정송현·장연현·홍양현·하양현·남곡현·홍천현·금화군·평강현·안변도호부·진명현·연곡현 등의 군현 명칭이 바뀌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6 ‘수주’ 지명은 계양산 북쪽 수소리(樹蘇里)에 주(州)의 청사가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분명하지는 않다(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5 : 인천의 지명』상, 2015, 207쪽)

표 1 고려~조선 후기 지리지 상 '부평' 지명 및 관련 내용

지리지	'부평' 지명 및 관련 내용
『삼국사기』지리지 (1145)	장제군(長堤郡)은 본래 고구려의 주부토군으로 경덕왕이 고친 것이다. 지금의 수주(樹州)로 속한 현이 닛(수성현-戍城縣, 김포현-金浦縣, 동성현-童城縣, 분진현-分津縣)이다.
『고려사』지리지 (1451)	(부평부) 본래 고구려 주부토군(主夫吐郡)으로 신라 경덕왕이 고쳐 장제군으로 하였다. 고려 초 수주로 고쳤고 성종 14년(995)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 이를 폐지하였고 현종 9년(1018) 지주사(知州事)로 고쳤다. 의종 4년(1150) 다시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삼았고 고종 2년(1215) 또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고쳤다가 충렬왕 34년(1308)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시켰다. 충선왕 2년(1310) 여러 목을 폐지하면서 부평부(富平府)로 내렸다. 속현이 여섯이다.
『세종실록지리지』 (부평, 1454)	(부평도호부) 본래 고구려 주부토군으로 신라가 장제군으로 고쳤다. 고려가 수주로 고쳤고 성종 을미(995)에 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을사(1004)에 이를 파하고 현종 무오(1018)에 지수주사(知樹州事)로 고쳤으며 의종 4년 경오(1150)에 안남도호부로 고쳤다. 고종 2년 을해(1215)에 계양도호부로 고치고 충렬왕 34년 무신(1308)에 길주목으로 승격시켰다가 충선왕 2년 경술(1310)에 모든 목을 없앴에 따라 부평부로 내렸다. 본조 태종 기사(1413)에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 1530)	(부평도호부) 본래 고구려 주부토군으로 신라에서 장제라 고쳤다. 고려 초 수주라 고쳤고 성종 때 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때 파하였다. 현종 9년 지주사라 고쳤고 의종 때 고쳐 안남도호부로 삼았고 고종 때 계양으로 개칭하고 충렬왕 때 길주목으로 승격시켰다. 충선왕 2년 여러 목을 없앨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강등시켜 부로 삼았다. 본조 태종 13년(1413) 예에 따라 고쳐 도호부로 삼았고 세종 20년(1438) 강등시켜 현령(縣令)으로 하였고 28년(1446) 복구하였다.
『동국여지』 (부평, 17세기 중반)	(부평도호부) 본래 백제 미초홀(彌超忽) 땅인데 고구려가 이를 취해 주부토군으로 삼았고 신라 경덕왕 때 장제군으로 고쳤다. 고려 초 수주라 고쳤고 의종 때 고쳐 안남도호부로 삼았고 고종 때 계양으로 개칭하고 충렬왕 때 길주목으로 승격시켰고 충선왕 초 고쳐 부평부로 삼았다. 본조 공정왕 13년(1413) 도호부로 삼았고 장헌왕 20년(1438) 강등시켜 현으로 하였다가 다시 도호부로 복구하였다.
『여지도서』 (부평, 18세기 중반)	(부평부) 본래 고구려 주부토군으로 신라 때 장제로 고쳤다. 고려 초 수주라 고쳤고 성종 때 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때 폐지했다. 현종 9년 지주사로 바꾸고 의종 때 고쳐 안남도호부로 삼았고 고종 때 계양으로 개칭하고 충렬왕 때 길주목으로 승격시켰다. 충선왕 2년 여러 목을 없앨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강등시켜 부로 삼았다. 본조 태종 13년 예에 따라 고쳐 도호부로 삼았고 세종 20년 강등시켜 현령(縣令)으로 하였다가 28년 복구하였다. 연산 11년(1505) 고을 출신인 내시 김순손을 죽이고 본 부를 폐지하였다가 1년 뒤(중종 원년, 1506) 복구하였다. 속종 11년(1685) 군영을 설치하고 진무영(鎭撫營)의 전영장(前營將) ⁷ 을 겸하게 하였고 24년(1698) 장릉(章陵)에 불을 지른 죄인 최필성이 태어난 고을인지라 현감으로 강등시켰다가 10년 뒤(1708) 복구하였다.

7 진무영은 1700년(숙종 26) 강화도에 설치된 군영으로 모두 5영으로 구성되었는데 부평부에는 전영(前營)이 있었고 인천이 속해 있었다. 그 외 중영(中營)은 강화부, 좌영(左營)은 통진부(김포 속함), 우영(右營)은 풍덕부, 후영(後營)은 연안부(배천 속함)에 있었다(『여지도서』, 「강화부지」).

지리지	'부평' 지명 및 관련 내용
『부평부읍지』 (19세기 중반 추정)	(부평부) 『여지도서』(부평)와 동일. ⁸
『부평부읍지』 (1842)	건치 연혁 없음.
『경기지』 (부평, 1842)	건치 연혁 없음.
『대동지지』 (부평, 19세기 중반 이후)	(부평) 본래 백제 주부토로 신라 경덕왕 16년(757) 장제군으로 고쳐(속한 현이 4개로 영현은 4개(분진分津-通津·김포金浦·동성童城·수성成城)인데 한주에 붙였다. 고려 태조 23년(940) 수주라 고쳤고 성종 14년 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8년 이를 폐지하였다. 현종 9년 지주사로 고치고 의종 4년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삼았는데 속현이 6개로 금천(衿川)·동성(童城)·통진(通津)·공암(孔岩)·김포(金浦)·수안(守安-戍城)이다. 고종 2년 계양도호부로 고쳤고 충렬왕 34년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시켰다가 충선왕 2년 여러 목을 폐지하며 부평부로 내렸다. 본조 태종 13년 도호부로 고쳤고 14년 김포현을 합쳤다가 ⁹ 16년 다시 나누어 예전대로 하였다. ¹⁰ 세종 20년 현령으로 내렸다가 28년 부로 복구하였다. 연산 11년 고을 출신인 내시 김순손을 죽이고 본 부를 폐지하였다가 중종 원년 복구하였다. 속종 24년 장릉을 방화한 죄인이 태어난 고을인지라 현으로 강등시켰다가 33년(1707) 다시 승격시켰다.
『경기읍지』 (부평, 1871)	(부평부) 본래 고구려 주부토군으로 신라 때 장제로 고쳤다. 고려 초 수주라 고쳤고 성종 때 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때 폐지했다. 현종 9년 지주사로 바꾸고 의종 때 고쳐 안남도호부로 삼았고 고종 때 계양으로 개칭하고 충렬왕 때 길주목으로 승격시켰다. 충선왕 2년 여러 목을 없앨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강등시켜 부로 삼았다. 본조 태종 13년 예에 따라 고쳐 도호부로 삼았고 세종 20년 강등시켜 현령(縣令)으로 하였다가 28년 복구하였다. 연산 11년 본 부를 폐지하였다가 중종 원년 복구하였다. 속종 11년 군영을 설치하고 진무영(鎭撫營)의 전영장(前營將)을 겸하게 하였고 24년 현감으로 강등시켰다가 10년 뒤 복구하였다.
『부평군읍지』 (1899)	(부평군) 『경기읍지』(부평, 1871)와 동일.

8 단지 세종 때 부평부로 다시 복구되는 해를 세종 20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28년의 오기로 보인다.

9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윤9월 24일.

10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 7월 30일.

이러한 사실은 조선 후기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부평)에도 명확히 서술되어 있다. 고려 초 수주로 개칭될 당시에는 현재의 경기도 김포시 일대의 4개 현(수성현成城縣, 김포현金浦縣, 동성현童城縣, 분진현分津縣)을 속현으로 두었는데 부평부 개칭 때에는 이들 4개 현 외에 현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서울특별시의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인 금주(衿州), 공암현(孔巖縣)을 포함하여 6개의 속현을 관할하게 되었다.

제2절 | 조선시대 부평의 읍격 변화와 공간적 범위

조선시대 접어들어 부평부는 부평도호부(1413년, 태종 13)¹¹ → 부평현 강등(1438년, 세종 20)¹² → 부평도호부 복구(1446년, 세종 28)¹³ → 부평도호부 폐지(1505년, 연산 11)¹⁴ → 복구(1506년, 중종 1) → 부평현 강등(1698년, 숙종 24)¹⁵ → 부평부 복구(1707년, 숙종 33)¹⁶ 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행정 지위의 승강이나 일시적 폐지가 있었지만 ‘부평’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평 관련 지리지 상 부평 지명의 역사적 연원 및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이들 지리지 중 그동안 1698년 제작된 것으로 소개된 「부평부읍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915.12-B889b)는 『여지도서』(부평), 『경기지지』(부평, 1842), 「부평부

11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10월 15일.

12 『세종실록』, 권83, 태종 20년 11월 8일 : “임금이 부평에 온천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여러 번 조관을 보내어 찾아 보았으나 아전과 백성이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므로 깎아 내려서 현으로 삼았다.”

13 『세종실록』, 권114, 세종 28년 11월 10일.

14 『연산군일기』, 권60, 연산군 11년 8월 24일 : “부평 땅은 이제 이미 갈라서 금표 안에 넣었으며 또 죄인 김순손(金舜孫)이 살던 고향이니 혁파(革罷)하라.”

15 『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 2월 26일.

16 『여지도서』(부평)·「부평부읍지」·『경기읍지』(부평) 등 조선 후기 부평 지리지에서는 숙종대 부평현으로의 강등 이후 다시 부로 승격된 것이 10년 후(1708, 숙종 34)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동지지』에는 강등 이후 9년 만인 1707년(숙종 33)으로 서술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도 1707년 1월 4일 한해 전까지 부평현감이었던 이세유(李世維)에게 부평 부사 관직을 제수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숙종 33년 1월 4일).

읍지」(1842), 『경기읍지』(부평, 1871), 「부평군읍지」(1899) 등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여타의 부평 관련 지리지나 고지도와 비교해 볼 때 그 편찬 시기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건치 연혁 항목의 내용 중 숙종 대 부평현 강등 이후 다시 복구되는 내용, 그리고 19세기 중반 제작되는 지리지의 첨부 지도와의 유사성, 마지막으로 산천 항목이나 첨부 지도에서 확인되는 산 지명의 비교 등을 통해 볼 때 19세기 중반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표 1>에서 보듯 『여지도서』(부평)와 비교해 볼 때 건치 연혁 항목의 내용이 동일한데 특히 말미에 나와 있는 1698년(숙종 24) 부평현으로의 강등과 10년 뒤 다시 부로 복구되었다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 편찬 시기가 1698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동지지』(부평)에는 10년 뒤라는 시기가 바로 계산되듯 숙종 34년이 아닌 1707년(숙종 33)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1700년대 초에서 『여지도서』가 편찬되는 중반 사이 편찬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가능성은 적지만 연산군대, 중종대, 숙종대 부평부의 일시적 폐지 및 승강 관련 내용이 「부평부읍지」에서 처음 서술되고 이후 『여지도서』가 그 내용을 참고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부평부읍지」의 첨부 지도를 보면 19세기 중반의 『경기지지』(부평, 18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2178) 첨부 지도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계양산 아래 부평 읍치 앞에 있던 ‘명동산(名東山)’의 이명으로 ‘망동산(望東山)’이라는 명칭이 유일하게 두 지도에서만 확인된다. 부평 관련 고지도 어느 곳에서도 ‘망동산’이라는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지도상 ‘염성산(廉城山)’으로 표현된 명동산 바로 앞산이 지리지 산천 항목에는 ‘영성산(靈成山)’이라는 이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두 지리지의 동일하다. 첨부 지도가 없는 「부평부읍지」(1842)의 산천 항목에도 동일한 내용의 ‘영성산’이 등장하고 있고 이후 편찬되는 『경기읍지』(부평, 1871), 「부평군읍지」(1899)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명칭과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염성산’의 이명으로 ‘영성산’을 표기하기 시작한 시기가 19세기 중반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1698년 편찬된 것으로 추정돼 온 「부평부읍지」는 앞서 『여지도서』 내용을 근간으로 19세기 중반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842년의 『경기지지』(부평)와 「부평부읍지」에는 건치 연혁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리지나 고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평부의 공간 영역도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범위는 북쪽의 계양산에서 시작하여 남으로 천마산 → 원적산 → 만월산 → 금마산 → 거마산 → 성주산 → 원미산·춘의산까지 이어지는 알파벳 'C'자 형태의 산지로 둘러싸인 부평분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가 해당된다(<부평 일대의 산지와 면> 그림 참조). 구체적으로 조선 후기 지리지 중 관내 방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여지도서』 그리고 1900년대 초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을 비교해 보면 부평부(부평군)



❖ 부평 일대의 산지와 면(『해동지도』, 부평)(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를 구성하고 있는 면리들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여지도서』(부평)에는 읍치가 위치한 부내면(府內面, 상·하 2개 방)을 비롯하여 동면(東面, 8개 방), 당산면(堂山面, 5개 방), 주화곶면(注火串面, 5개 방), 상오정면(上梧亭面, 7개 방), 하오정면(下梧亭面, 7개 방), 수탄면(水呑面, 12개 방), 옥모면(玉毛面, 7개 방), 석천면(石川面, 6개 방), 동소정면(同所井面, 5개 방), 서면(西面, 7개 방), 마장면(馬場面, 3개 방), 석곶면(石串面, 8개 방), 모월곶면(毛月串面, 8개 방), 황머면(黃魚面, 7개 방) 등 15개 면 97개 방이 확인된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도 1895년 근대적 지방관제 개편(23부제)¹⁷에 의해 인천부 12개 군 중 하나로 편제된 ‘부평군(富平郡)’에 『여지도서』(부평)와 마찬가지로 군내면, 동면, 마장면, 모월곶면 등 15개 면 84개 동리가 확인된다. 단지 부내면이 군내면(郡內面)으로 옥모면이 옥산면(玉山面)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소속 동리수가 84개로 약간 줄어들었을 뿐이다. 결국 600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부평부·부평군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 것은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 근대이행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제3절 | 근대이행기 ‘부평’ 지역의 변화

한국 사회에서 근대적 또는 근대로의 이행은 다분히 ‘서구적’이거나 서구화되는 과정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근대 또는 근대이행기를 어떻게 어느 시기로 구분할 것 인지의 문제는 연구의 방법론이나 대상 영역, 또는 근대성의 규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1차 산업 위주의 공간 구성에서 현재와 같은 도시 중심의 자본주의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전환기에 주목하면 1900년대 초부터 일제강점기를 근대이행기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7 칙령 제98호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관보』 1895년 5월 26일).

이렇듯 공간적 차원에서 근대 또는 근대이행기를 규정하게 되면 이 시기는 전통과 현대 사이의 불연속적 단절이자 동시에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 공간의 경우 전통적 모습과 구분되는 근대적(서구적) 형태의 도시 형성 및 기본 틀이 마련된 때가 바로 이 시기이다.¹⁸ 따라서 한국의 도시 형성 과정 및 변화를 이해하고 국토 공간상 현재 주요한 정주체계를 이루는 도시의 역사적 장소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간극을 메우는 역사지리적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1914년 부천군(富川郡)의 등장으로 인한 역사 부평의 해체, 인천과 부평 지역과의 관계, 부평과 부천시와의 관계 속에서 근대이행기 부평 지역의 역사지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천군(富川郡)'의 등장과 역사 부평의 해체

앞서 말했듯이 역사상 '부평' 지명이 문헌 기록상 처음 확인되는 것은 1310년(고려 충선왕 2)의 일이다. 이후 부평 지역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부평부', '부평도 호부', '부평현', '부평군' 등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일제강점기 초까지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부평' 지명의 행정 지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려 말부터 1900년 초까지 적어도 600년 이상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온 부평의 역사적 과정에 주목하여 '역사 부평'으로 규정하기도 한다.¹⁹ 그렇지만 1914년 '부천군(富川郡)'의 등장 이후 '부평' 지명은 부내면에 속하는 '부평리(富平里)', 1940년 인천부와 통합으로 설치된 '부평출장소', 1947년 일본식 지명 변경으로 신설된 '부평동', 1995년 인천광역시 북구로 부터 분리된 '부평구(富平區)' 등 근대 이전보다 하위 행정 단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지난 1세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 '부평' 지명 그리고 그것이 관련된 공간 영역은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18 권선정, 「근대이행기 수리시설의 변동에 대한 연구 : 충남 지역의 '제언'과 '보'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29(3), 2017b, 2쪽.

19 전종한, 「지역역사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역사부평'의 문화경관과 지역 정체성」, 『기전문학연구』37, 2016, 22쪽.

표 2 부평 지역의 행정구역 변화(조선 후기~현재)

조선 시대	1895년	1914년 ²⁰	1940년 ²¹	1962년	1968년	1973년	1988년	1995~현재
부평 도호부 (15개면)	군내면 서면 마장면 동소정면	부내면	인천부 (인천시) ²²	부평 출장소	북구 (서곶 출장소)	북구 (서곶 출장소)	북구	부평구
	모월곶면 석곶면			서곶 출장소		서구	계양구	
	동면 당산면 황어면	계양면 ²⁴	계양면	계양면	계양면	김포군 계양면	북구 (1989년)	계양구
	주화곡면 상오정면 하오정면	오정면	오정면	서울 강서구(1963년 오곡리와 오쇠리를 분리 편입)		김포군 오정면 ²⁵	부천시	
	수탄면 옥산면 석천면	계남면 →소사면 (1931년) →소사읍 (1941년)	소사읍	소사읍	소사읍	부천시 승격		
				서울 구로구(1963년 오류리·고척리·개봉리·온수리·천왕리·궁리·향동리 등을 당시 영등포구로 분리 편입 →1980년 구로구 분리)				

*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1914년 부천군으로 편제된 부평군 지역

** 부천군은 부평군 이외에도 인천군 대부분(다주면·문학면·남동면·소래면·영종면·용유면·덕적면)과 남양군(대부면·영흥면, 강화도(북도면)의 일부 면리를 포함하여 총 15개 면으로 재편된다.

20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등명칭일람』 지명 통폐합 사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21 1940년 문학면은 분청 직할로 하고 그 외 지역은 남동·부평·서곶출장소로 편제되었다(인천부 고시 제32호). 당시 부평출장소는 부평리(현 계산동)에 신축한 부내면사무소를 1년 만에 폐쇄하고 인천부 백마정(白馬町, 산곡동) 1번지에 설치되는데 1941년 다시 이전하였다가 이듬해 10월 다시 옛 북구청 자리인 부평동 442-1번지의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조기준, 『부평사연구(증보판)』, 백암문집간행위원회, 1995, 83-84쪽). 그리고 서곶출장소는 인천부 정상정(井上町, 연희동) 247번지의 7에 설치되었다(조찬석, 「옛 부평지역의 땅이름에 관한 조사 연구 : 특히 부평구를 중심으로」, 『기전문학연구』27, 1999, 119쪽).

22 일제강점기 도시 지역인 인천부(仁川府)는 1949년 8월 15일 인천시(仁川市)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3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 북부에 해당하는 금곡동·당하동·대곡동·마전동·불로동·오류동·왕길동·원당동 등은 1995년 3월 1일 김포군 검단면에서 편입된 지역이다.

24 김포군 노장면 당하리 일부 병합.

25 1975년 부천시로 편입.

이렇듯 조선 후기까지 몇 차례 행정 지위의 승강은 있었지만 인천과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유지되던 부평 지역이 공간적 차원에서 행정구역이나 지명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근대이행기 접어들어서이다. 특히 1914년 일제에 의해 주도된 전국적 수준의 행정구역 통폐합 과정은 역사 부평을 포함한 인천과 주변 지역에 역사상 가장 큰 공간적 변화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실내의 책상 위에서 이루어진 행정구역 변경이나 지명 변화가 아니다. 그만큼 근대이행기는 부평과 인천 지역이 국토 공간상 그 어떤 곳보다도 급격한 공간적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부평 지역 일대의 행정구역 변화 상황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근대이행기로 접어들며 부평, 인천 지역 일대에서 경험한 가장 급격한 행정구역 변화는 단연 1914년 새로 설치되는 부천군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천군은 1895년(고종 32) 전국을 23부로 편제한 근대적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부(仁川府)²⁶에 속하게 된 12개 군 중 인천군과 부평군을 중심으로 남양군, 강화군 일부를 합쳐 신설된 행정구역이다. ‘부천’이라는 명칭도 부평의 ‘부(富)’자와 인천의 ‘천(川)’자를 따 합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²⁷

신설된 부천군은 부평군 15개면 전 지역과 인천군 12개 면, 그리고 남양군의 2개 면과 강화군 1개 면을 통폐합하여 재편된 부내면·서곶면·계양면·오정면·계남면·다주면·문학면·남동면·소래면·영종면·용유면·덕적면·대부면·영흥면·북도면 등 15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일견 외형적으로 볼 때 1914년 신설된 부천군 관할 지역은 1995년 광역시로 승격된 인천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듯 부평과 인천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설치에 이미 1906년(광무 10) 지방행정구역 개편 때 시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



❖ 1906년 『지방제도조사』 상 인천군 편입 지역(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다. 1906년 통감부 치하에서 수행된 지방행정구역 개편²⁸의 주 내용은 지방제도 조사소를 설치하여 지방행정 구획의 설정, 지방과 중앙의 경비 분담, 공무 분배, 조세 징수의 지방관청 관장 범위, 경찰과 지방관의 충돌회피 방법 등을 포괄하는 지방제도 개정과 지방구역 분합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당시 계획했던 지방행정구역 재조정 및 통폐합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방제도조사』(1906)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계획을 수정할 정도로 거센 저항에 부딪혀 결국은 그해 가을 전국에 남아있던 비입지(飛入地, 월경지)와 두입지(斗入地, 犬牙相入地)의 정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²⁹

인천의 경우에도 그림 <1906년 『지방제도조사』 상 인천군 편입 지역>에서 보듯이 월경지였던 이포면(梨浦面)을 남양군으로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1906년 이포면의 동리

26 1895년 당시 인천부가 관할하게 된 지역은 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서남부, 경기도 서부 지역으로 인천군을 비롯하여 부평군·김포군·양천군·시흥군·안산군·과천군·수원군·남양군·강화군·교동군·통진군 등 12개 군이다.

27 인천부, 『인천부사』, 경기 근택상점인쇄소, 1933, 178·181·571~572쪽; 조찬석, 「부평지역의 행정구역 변천과 각 동의 유래 : 1883년 이후 인천직할시 복구를 중심으로」, 『기전문화연구』21, 1993, 213~214쪽.

28 칙령 제49호 「지방구역 정리건」(1906년 9월 24일 공포, 『관보』1906년 9월 28일).

29 윤해동, 『지배와 자치 : 식민지기 촌락의 삼국면구조』, 역사비평사, 2006, 51~52쪽.

들은 남양군의 화척지면(禾尺只面)과 며지곶면(旆知串面)³⁰으로 편입되었다가 1914년 수원군 음덕면(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 문호리, 수화리, 신외리, 장전리)과 비봉면(현 화성시 비봉면 : 삼화리, 유포리)으로 재편된다. 그사이 인천부의 월경지였던 이포면의 남양군 편입 시기는 대부분 1895년 지방관제 개편 때로 알려져 왔다. 이는 1986년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지명총람 18 : 경기편(하)·인천편』의 화성군 남양면과 비봉면 연혁에 소개되어 있는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해 … 인천부의 이포면을 편입하여 …”라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³¹ 그렇지만 1895년 지방관제 개편의 주 내용은 기존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을 일괄적으로 군(郡)으로 바꾸고 새롭게 재편된 전국 23부(府)에 개별 군을 분속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1906년 『지방제도조사』의 부평, 인천 관련 내용을 보면 인천부의 월경지였던 이포면을 남양군에 넘겨주고 부평군 전역을 편입하여 총 27개 면으로 새롭게 인천을 재편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그림 <1906년 『지방제도조사』 상 인천군 편입 지역> 참조).³² 그런데 1906년 이후부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까지의 부평군, 인천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는 인천부의 부내면·다소면·주안면 등 이포면을 제외한 총 13개면, 부평군의 군내면·당산면·마장면 등 총 15개 면이 각각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인천과 부평에 속해 있던 면리들이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까지 그대로 인천부와 부평군에 속해 있다가 새로 설치되는 부천군에 편입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단지 당시 인천의 도회 지역이었던 부내면과 다소면 일부만이 제외됐을 뿐이다.

1914년 부천군의 신설은 인천부로 남겨진 중심 지역 일부를 제외한다면 1906년 『지방제도조사』에서 계획됐던 인천부로의 행정구역 통폐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찌 보면 1914년 신설된 부천군은 1906년 계획했던 통합 인천의 대체물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조선시대 회덕현(懷德縣)과 진잠현(鎭岑縣), 공주목(公州牧) 동

30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는 미지곶면(旆知串面)으로 기록되어 있다.

3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8 : 경기편(하)·인천편』, 1986, 487~491·503~504쪽. 1895년~1914년 사이 특히 월경지나 투입지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이와 같은 오류가 『한국지명총람』에서 다수 확인된다.

32 『지방제도조사』(1906년, 국립중앙도서관 古朝鮮31-62), 281쪽.

남부 지역을 공간범위로 하는 근대도시 대전(大田)이 있다. 1914년 현 대전광역시와 거의 동일한 공간 영역을 갖는 대전군(大田郡)의 신설은 공교롭게도 1906년 『지방제도조사』에서 확인되는 회덕군(懷德郡)으로의 행정구역 통폐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06년의 인천을 대체한 1914년의 부천군처럼 회덕군을 대체한 대전군이 등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부천’ 지명과 달리 대전천(大田川) 변의 일개 동리명에 지나지 않았던 ‘대전’ 지명은 회덕군, 진잠군, 공주군 동남부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 지명 즉 대전군·대전면(1914)으로 등장한 이후 대전군·대전읍(1931) → 대전부(1935) → 대전시(1949) → 대전직할시(1989) → 대전광역시(1995)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지위가 승격되어 왔다.³³ 그렇기에 일제강점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부평을 포함한 부천군 지역이 인천에 편입되는 과정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인천의 확장과 새로운 부평의 등장

일제강점기 인천과 부평 지역 일대의 공간 변화상 눈에 띄는 모습은 인천의 시역 확장과 부천군의 축소이다. 이는 곧 인천부가 부천군을 포획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40년에 이르러서는 인천부가 다주면·문학면·남동면·부내면·서곶면 등 부천군의 주요 지역 대부분을 편입하기에 이른다(<표 3> 참조).³⁴ 당시 인천부에 편입되지 않은 부천군의 잔여 지역은 해방 후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치며 서울이나 경기도로 분리 편입되는 주변 지역들이다. 말하자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부천군에 속해 있던 인천부 인접 지역이나 부천군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한 동리들은 대부분 인천부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33 권선정, 「지역 브랜드 슬로건 지명의 위상과 영역 변화 : 대전시의 ‘회덕’ 지명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3), 2018, 418~431쪽.

34 1936년 다주면의 구월·간석·십정리와 문학면의 학익·승기·관교·옥련리 등은 이미 인천부에 편입되었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8 : 경기편(하)·인천편』, 1986, 543쪽).

표 3 근대이행기 부평 주요 지역(부천군 주내면·서곶면 일대)의 지명 변화

1895년(부평군)		1914년(부천군)	1940년(인천부) ³⁵	1947년	1995년	
군내면	갈월리	부내면 부내면	갈월리	갈산동	부평구	
	하동		하리	계산동	계양구	
	상동		부평리	대정정(大正町)	계양구	
서면	후정리	후정리	삼립정(三笠町)	삼산동	부평구	
	도두리	도두리	동운정(東雲町)	서운동	계양구	
	작정리	작천리	작전정(鵲田町) ³⁶	작전동	계양구	
마장면	산곡리	산곡리	백마정(白馬町)	산곡동	부평구	
	청천리	청천리	천상정(川上町)	청천동	부평구	
	효성리	효성리	서정(曙町)	효성동	계양구	
동소정면	구산리	구산리	이등정(伊藤町)	구산동	부평구	
	마분리	마분리	명치정(明治町)	부개동	부평구	
	항동	항동리	향취정(香取町)	일신동	부평구	
	대정리	대정리	소화정(昭和町)	부평동	부평구	
(인천부) 주안면	상십정리 외	다주면	십정리	대도정(大島町) ³⁷	십정동	부평구
모월곶면	가정리	가정리	천대전정(川代田町)	가정동	서구	
서곶면	가좌동	서곶면	가좌리	천간정(淺間町)	가좌동	서구
	검암리		검암리	과생정(瓜生町)	검암동	서구
	고잔리 외		고잔리	이가정(李家町)	경서동	서구
	공촌리		공촌리	흑전정(黑田町)	공촌동	서구
	백석리		백석리	운양정(雲揚町)	백석동	서구
	번작리 외		고작리	촌상정(村上町)	석남동	서구
	시천리		시천리	춘일정(春日町)	시천동	서구
	신현리		신현리	현무정(玄武町)	신현동	서구
	심곡리		심곡리	일진정(日進町)	심곡동	서구
	연희리		연희리	정상정(井上町)	연희동	서구
	포리 외		포리 ³⁸	구수정(久水町)	원창동	서구

❖ 출처 :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조선총독부, 1912); 『신구대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越智唯七, 191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 : 경기편(상)』, 198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8 : 경기편(하)·인천편』, 1986; 조찬석, 『옛 부평지역의 땅이름에 관한 조사 연구 : 특히 부평구를 중심으로』, 『기전문학연구』27, 1999 등.

35 인천부 고시 제32호에 의해 인천부에 편입된 부천군 부내면과 서곶면 지역 동리의 일본식 지명으로서의 변화는 조찬석의 『옛 부평지역의 땅이름에 관한 조사 연구 : 특히 부평구를 중심으로』(『기전문학연구』21, 1999) 119-120쪽을 참고하였다.

36 작전정은 작정리, 가현리, 신대리, 화전리를 합친 구역이다.

37 1936년 인천부에 편입.

38 원창동 연희에 대해 『한국지명총람』에는 1914년 부천군 서곶면에 편제된 원창리(元倉里)를 기술하고 있는데,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신구대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그리고 이후 간행되는 『행정구역명칭일람』에 모두 포리(浦里)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된 부천군의 주요 지역 즉 부천군 부내면과 서곶면 동리들이 일제강점기 도시 지역에 부여되었던 일본식 지명 ‘~정(町)’으로 바뀌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가령 부내면의 갈월리(갈야정;吉野町, 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하리·부평리(대정정;大正町, 현 계양구 계산동)·후정리(삼립정;三笠町, 부평구 삼산동)·도두리(동운정;東雲町, 계양구 서운동)·작천리(작전정;鵲田町, 계양구 작전동)·산곡리(백마정;白馬町, 부평구 산곡동)·청천리(천상정;川上町, 부평구 청천동)·효성리(서정;曙町, 계양구 효성동)·구산리(이등정;伊藤町, 부평구 구산동)·마분리(명치정;明治町, 부평구 부개동)·향동리(향취정;香取町, 부평구 일신동)·대정리(소화정;昭和町, 부평구 부평동), 서곶면의 가정리(천대전정;川代田町, 현 서구 가정동) 등이 그것이다(<표 3> 참조). 이렇듯 지명의 변천에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는 개별 동리에 부여되는 일본식 동명의 부여 상황만 보아도 당시 도시 지역의 형성 및 성장과정에 대한 전체적 윤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인천부의 확장에 따른 부천군 주요 지역의 편입 과정에서 주목되는 장소가 있다. 바로 부평군의 소재지였던 군내면 상동(현 계산동) 즉 1914년 부천군 부내면에 편제되는 부평리(富平里)와 1899년 경인선 철도의 개통³⁹과 더불어 개설된 부평역 일대 대정리(大井里, 현 부평구 부평동)가 그곳이다. 부평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후 60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던 ‘부평’ 지명의 명맥을 잇게 된 유일한 행정 지명으로 근대 이전 부평도호부의 중심지(邑治)가 자리했던 곳이다. 조선 후기 부평 읍내에서 사방으로 연결된 길들을 그림 <조선 후기 부평 일대의 길 체계>에 표시해 보았다. 이들은 지역 내 주 간선도로이자 광역도로체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그 결절지는 다름 아닌 부평 읍치이다. 이들 길들은 이미 조선 후기 편찬되는 『여지도서』(부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쪽으로 한양에 이르는 양화진로(陽花津路, 그림 <조선 후기 부평 일대의 길 체계>의 ①), 서쪽으로 영종진 가는 영종로(그림 <조선 후기 부평 일대의 길 체계>의 ④), 남쪽으로 기탄교를 지나 금천현 가는 노량진로(그림 <조선 후기 부평 일대의 길 체계>의 ②), 남쪽으로 소사현 지나 안산군 가는 안산로(그림 <조선 후기 부평 일

39 1899년 9월 13일 개통식을 거행한 경인선의 당시 정치역은 인천역, 축현역, 우각리역, 부평역, 소사역, 오류동역, 노량진역 등으로 열차는 오전, 오후 1회씩 하루에 2회 운행하였다고 한다.



❖ 조선 후기 부평 일대의 길 체계(『해동지도』, 부평)(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의 길 체계>의 ③), 북쪽으로 황어장평을 거쳐 김포군 가는 김포로(그림 <조선 후기 부평 일대의 길 체계>의 ⑤)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해동지도』(부평)에서는 강도로(江都路), 공암진로(孔岩津路), 인천영종로(仁川永宗路) 등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현 부평구 부평동에 해당하는 대정리 일대는 1899년 경인선 철도의 개통으로 부평역이 개설되고 또 1940년 인천부 편입과 함께 부평출장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과거 역사 부평의 중심지였던 부평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부평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조선지형도』에도 근대이행기 새롭게 중심지로 급부상한 부평역 일대를 결절지로 하는 경인선 철도 및 주요 도로들의 연계망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경

40 1920년을 전후하여 제작되는 『조선지형도』에서는 『구한말한반도지형도』에서 도로(道路)·연로(聯路)·간로(間路)·소로(小路) 등 네 등급으로 나누었던 도로를 보다 세분화하여 일등도로(一等道路)·이등도로(二等道路)·달로(達路)·연로·간로·소로 등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선 철도와 경성에서 소사, 부평역(현 부평동)을 경유하여 제물포로 연결되는 이등도로(二等道路)의 출현이다(그림 <근대이행기 부평 일대의 길 체계 변화> 참조).



❖ 근대이행기 부평 일대의 길 체계 변화
(출처: 『조선지형도』의 김포(상단 왼쪽), 경성(상단 오른쪽), 인천(하단 왼쪽), 군포장(하단 오른쪽) 도역을 합쳐 재구성함)

지금 시점에서 부평 하면 떠올리는 장소가 어디지를 생각해 보자. 대부분 근대 이전 오랫동안 부평도호부의 중심지였던 계양산 아래 계산동 일대보다는 부평역 일대의 부평동이나 부평구를 떠올릴 것이다. 부평 지명과 관련된 구체적 공간이 이렇듯 변하게 된 과정은 앞서 말했듯이 근대이행기 접어들며 경험하게 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인선 철도 개통과 부평역 개설, 그리고 1940년 인천부로의 편입과 더불어 행정관청인 부평출장소의 현 부평동(대정리, 昭和町) 입지 등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후반 부평조병창 개창(1941) 같은 일제에 의한 식민 군사기지 즉 공업지역으로의 변화가 현 부평동 일대에서 전개되었던 것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계양산 아래 부평도호부 읍치가 자리했던 '부평리(구 부평군 군내면 상동)'와 부평역 일대의 '현 부평동(구 부평군 동소정면 대정리 일대)'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한국의 지명 연혁을 상세히 정리한 『한국지명총

람』에서도 1914년 처음 등장하게 된 부평리가 현재의 부평동과 동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⁴¹ 크나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근대이행기 부평 지역의 실제적인 공간상 변화 그리고 행정구역 변화, 지명 변천 등이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부평 하면 떠올리는 구체적 장소 이미지나 공간 범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새롭게 형성된 부평 소위 신 부평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천시 승격과 부천군 폐지

앞서 말했듯이 1914년 부천군의 신설로 등장한 ‘부천’ 지명은 600년 이상 유지돼 온 ‘부평’ 지명의 역사적 지속성을 거의 단절시킬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던 것이 1940년 부천군의 주요 지역이 인천부에 편입됨에 따라 이제 부천 지명은 부천군의 주변 잔여 지역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변화되었다.

일제강점기 도시 지역으로 급성장한 한반도의 여러 도시들은 대개 1930~1940년대를 지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1914년 기존의 군현을 통폐합하며 새롭게 등장한 군 단위 행정구역이 ‘도시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지역(府)’과 ‘주변부의 촌락 지역(郡)’으로 양분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심 도시와 주변 촌락이 공존하는 형태의 이원적 공간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1935년의 광주부(光州府)와 광산군(光山郡), 대전부(大田府)와 대덕군(大德郡), 전주부(全州府)와 완주군(完州郡) 등이 그 예이다.

인천, 부평 지역 일대에서는 1940년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물론 그 분할 형태는 마치 도넛처럼 가운데 중심도시가 있고 가장자리에 촌락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는 아니다. 중심 도시인 인천부의 서쪽으로 바다와 도서가 펼쳐져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적 공간체계는 대개 1980년대 후반부터 시군 통합, 도농 통합 등을 통해 마무리된다. 그렇지만 인천, 부평 지역의 경우 1960년대 초 부천군 오정면과 소사읍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고 곧이어 1973년 부천시 승격에 따른 분리 등 한반도의 대

4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 : 경기편(상)』, 1985; 『한국지명총람 18 : 경기편(하) 인천편』, 1986.

다수 도시 지역이 경험한 것과는 다른 과정을 통해 기존의 도시-촌락 이원적 공간체계가 사라지게 된다(<표 2> 참조).

이제 부천시의 분리 승격에 따라 1914년 처음 등장한 부천 지명은 당시 포괄하던 공간 범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축소돼 버린 경기도의 일개 시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 ‘부천’ 지명이 한때나마 근대 이전의 부평과 인천 지역을 아우르던 통합 행정명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제 일반전화의 통화권행정구역⁴²상 인천광역시와 동일한 032 지역번호(DDD)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⁴³ 동시에 ‘부천’ 지명(부천군)이 광범위하게 대체해 버렸던 부평 지명은 ‘부평동’이나 ‘부평출장소’, ‘부평구’ 등 근대 이전 역사 부평 때의 지명 위상이나 공간 영역과는 구분되는 행정 지위와 관할 범위를 가지며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부평’ 지명이 지칭하는 지역, ‘부평’ 하면 떠올리는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다시금 물음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시나 촌락을 막론하고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이나 장소이미지 구성을 위해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 요소를 찾고 심지어 복원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살펴 본 역사상 독립된 행정 단위로서 부평부의 존재 사실, ‘부평’ 지명과 행정구역의 역사지리적 변천 과정 등은 현 인천광역시나 부평구, 계양구 그리고 부천시 등에 이르기까지 개개 지역 단위별로 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여러 과제를 남기지 않는가 한다.

42 1980년대 중반 DDD(Direct Distance Dialing, 전자교환시스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국번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일종의 지역코드를 배정하게 된다. 2000년 7월 지역에 따라 혼재하던 두 자리, 세 자리 수 국번을 모두 세 자리수 국번-네 자리 수 번호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역번호도 세 자리 수로 개정하여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번호는 세 자리 수로 바뀌었다.

43 현 경기도 부천시 지역은 본래 부평전신전화국 관할이었기 때문인데(1976년 부평전신전화국 산하 부천분실 설치), 그에 반해 가톨릭대학교 성심 교정, 온수산업단지, 역곡동과 옥길동 일부는 서울지역번호 02를 사용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문용식 역주, 『여지도서 2 : 경기도 I』, 다자인흐름, 2009.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69.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 신서원편집부(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편찬), 『(북역)고려사』, 도서출판 신서원, 1991.
- 윤해동, 『지배와 자치 : 식민지기 촌락의 삼국면구조』, 역사비평사, 2006.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1.
-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5 : 인천의 지명』상, 2015.
- 인천부청, 『인천부사』, 인천부, 1933.
- 조기준, 『부평사연구(증보판)』, 백암 문집간행위원회, 1995.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 : 경기편(상)』, 1985.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8 : 경기편(하)·인천편』, 1986.

논문

- 권선정, 「조선후기 고지도를 통해 본 대전의 장소성」, 『문화역사지리』28(1), 2016a.
- 권선정, 「근·현대지도를 통해 본 대전의 지역 변화와 도시정체성」, 『문화역사지리』28(4), 2016b.
- 권선정, 「전통도시 읍치(邑治)를 통해 본 지역역사지리의 구성 : 충남 예산군을 사례로」, 『기전문화학연구』38(1), 2017a.
- 권선정, 「근대이행기 수리시설의 변동에 대한 연구 : 충남 지역의 '제언'과 '보'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29(3), 2017b.
- 권선정, 「한국의 전통도시 읍치(邑治)를 통해 본 세종시의 지역역사지리」, 『문화역사지리』29(4), 2017c.
- 권선정, 「지역 브랜드 슬로건 지명의 위상과 영역 변화 : 대전시의 '회덕' 지명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24(3), 2018.
- 전종한, 「소지역 단위의 지역역사지리학 연구 시론 : 부평 지역의 사례」, 『기전문화학연구』35, 2009.
- 전종한, 「지역역사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역사부평'의 문화경관과 지역 정체성」, 『기전문화학연구』37, 2016.



조찬석, 「부평지역의 행정구역 변천과 각 동의 유래 : 특히 1883년 이후 인천직할시 부구를 중심으로」, 『기전문화학연구』21, 1993.

조찬석, 「옛 부평지역의 땅이름에 관한 조사 연구 : 특히 부평구를 중심으로」, 『기전문화학연구』27, 1999.

사료

- 『부평군읍지』(189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715)
- 『부평부읍지』(18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7361)
- 『부평부읍지』(19세기 중반 추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915.12-B889b)
- 『1872년 지방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경기읍지』(187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2177)
- 『경기지』(18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2178)
- 『고려사』(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貴 3539~v.1-85)
-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조선총독부, 1912).
- 『구한말한반도지형도』(육지측량부 : 남영우 편, 1996, 성지문화사).
- 『대동지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 4790-37~v.1-15)
- 『동국여지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 4790-51~v.1-10)
- 『삼국사기』(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貴 3614~v.1-10)
-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
-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越智唯七, 1917)
- 『신증동국여지승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貴1932~v.1-25)
- 『여지도서』(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90-68)
- 『조선왕조실록』
- 『조선지형도』(조선총독부)
- 『지방제도조사』(1906, 국립중앙도서관 韓古朝31-62)
- 『해동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大4709-41)





웹사이트

계양구청(<http://www.gyeyang.go.kr>)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http://library.history.go.kr>)

부천시청(<http://www.bucheon.go.kr>)

부평구청(<http://www.icbp.go.kr>)

부평문화원(<http://www.bpcc.or.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인천광역시청(<http://www.incheon.go.kr>)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부평사
富平史





제 3 장 — 부평의 역사지리

제1절 _ 부평의 위치와 영역

제2절 _ 제2절 지세와 부평들의 개발

제3절 _ 19세기 말 취락의 분포

제4절 _ 경인철도의 부설과 20세기 초 취락의 확산

제5절 _ 1940년대 공업화와 경인로

제6절 _ 광복 직후 에스컴 시티의 건설과 캠프 마켓

제7절 _ 1970년대 이후 취락의 확산과 인구의 증가

제3장 부평의 역사지리

김 종 혁(역사지도공작소 소장)



부평은 대대로 인천과 다른 별개의 독립된 군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은 인천 광역시와 부평구의 관계이지만, 조선시대에 부평과 인천은 모두 도호부(都護府)로 읍격이 같았다. 도호부의 수령인 도호부사의 품계는 종3품으로, 군(宗4품)이나 현령(宗5품)·현감(宗6품)보다 높았다. 고려 때부터 따지면 천 년 이상을 별개의 군으로 살아오다가 두 군은 1914년에 부평의 ‘부’자와 인천의 ‘천’자를 따서 ‘부천군’으로 합쳐졌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인천과 부평의 한 집살이는 계속되고 있다.

조선시대 부평도호부 시절, 부평의 중심지는 계양구 계산동이었다. 계산동에 있는 ‘부평’초등학교 부지가 옛 부평의 치소(治所)이다. 치소란 오늘 시군청 소재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시청과 군청 등의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을 일컫는다. 당시에는 동헌과 객사가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고, 성황단과 여단, 그리고 향교 등이 치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었다. 읍치(邑治)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이 있던 곳들이 지금의 계산동이고 대체적인 위치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심지가 부평동 일대로 옮겨 왔다.

‘부평구 부평동’이라는 이름 또한 예전에는 ‘계양구 계산동’ 일대를 일컫는 지명이었다. 중심지만 옮겨 온 것이 아니라 이름도 옮겨왔다. 이른바 ‘지명 이동’ 현상이 발생

한 것이다. 이처럼 지명이 이동하거나 하나의 지명을 두고 두 지역에서 서로 차지하려는 ‘지명 쟁탈’ 사례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부평구는 옛 부평도호부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 지역을 통틀어서도 가장 변화한 시가지를 형성하였다. 한국은 20세기 초까지 90%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경 사회였다. 부평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평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대도회로 성장하였을까? 어떤 전제적인 입지 요인이 있었을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 도시적 변화를 시작한 때는 언제쯤일까? 어느 지역이 먼저 도시화의 길을 걸었을까? 이 장에서는 농업 사회 부평이 언제 어떻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계기로 오늘날과 같은 도시 경관을 갖추게 되었는지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경관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 부평의 위치와 영역

부평, 부평구, 부평 지역, 부평권, 원 부평, 구 부평 등 부평이라는 명칭은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지역적 범위를 일컫는다. 공식적인 행정 지명으로는 ‘부평구’와 ‘부평동’이 있다. 부평구는 인천광역시에 속한 8구(區) 2군(郡) 중의 1구이고, 부평동은 부평구 내 9개 법정동 가운데 하나이다. 부평구에는 22개의 행정동이 있는데, 부평동은 1동에서 6동까지 구내에서 분동(分洞)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

표 1 부평구의 법정동과 행정동

법정동(9)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 산곡동, 부평동, 부개동, 십정동, 일신동, 구산동
행정동(22)	청천1·2동, 갈산1·2동, 삼산1·2동, 산곡1·2·3·4동, 부평1·2·3·4·5·6동, 부개1·2·3동, 십정1·2동, 일신동

부평구는 1995년에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할 때 처음 생겨난 이름이다. 행정 지명으로서의 부평구는 이제 25년이 된 셈이다. 부평구 일대는 조선시대에는 부평도호부, 고려시대에는 부평부에 소속된 지역이었다. 1310년(충선왕 2)에 길주목이 폐지되면서 부평부가 생겨나는데, ‘부평’이라는 이름은 이때부터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부평부는 1413년(태종 13)에 부평도호부가 되었고, 수 차례 짧은 기간 현으로 강등된 적은 있지만 조선시대 내내 도호부를 유지하였다. 도호부는 전국의 읍격(邑格)이 군으로 통일되는 1895년에 부평군이 되었다.¹ 부평군은 1914년에 인천군과 통합, 부천군이 되면서 600년 이상 써 온 ‘부평’이라는 이름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1914년에 인천부의 영역은 오늘날 인천역에서 도원역까지의 중구와 동구 일부 지역에 불과하다가 1936년과 1940년 두 차례에 걸쳐 시역이 확대된다. 1936년에는 오늘날 미추홀구와 연수구, 그리고 부평구의 십정동과 남동구의 간석동 일대가 인천으로 편입되었고, 1940년에는 오늘날 인천 영역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까지 확대되었다. 결국 오늘날 부평구는 1914년에 ‘부천군’ 부내면이 되었다가 1940년에 ‘인천부’ 부내면이 되었다. 1914년에 부평도호부의 중심부 일대를 부내면(富內面)이라 명명한 것은 옛 ‘부평(도호부)의 읍내’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1914년에 사라진 이름 부평이 다시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이 앞서 얘기한 1995년에 만들어진 부평구이다.

인천부는 1949년에 인천시가 된 이후 1995년까지 시역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 그만큼 인구도 꾸준히 늘어났고, 1968년에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중구, 동구, 남구, 북구 등 네 개의 구가 설치되었다.² 1981년에는 직할시로 승격하였고, 1988년에는 북구에서 서구가, 남구에서 남동구가 분리되었다. 1995년에는 광역시가 되면서 북구를 부평구와 계양구로, 남구의 일부를 연수구로 분리하였다. 이로써 1914년에 사라진 ‘부평’군은 81

1 현으로 강등된 때는 1438년부터 1446년까지 8년간, 1505년부터 1506년까지 1년간, 1698년부터 1707년까지 9년간이었다. 강등되었더라도 10년 안에 다시 도호부로 복설되었으며, 1308년 부가 된 이후 현으로 강등된 전체 기간은 18년간이다.

2 가장 먼저 구가 설치된 시는 서울이고, 부산, 대구, 인천으로 이어진다. 서울은 일제시기인 1943년에 이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 7개의 구가 설치되었고, 부산이 1957년에 6개 구(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대구가 1963년에 5개 구(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설치되었다. 광주는 1973년에 동구와 서구, 대전은 1977년에 동구와 중구가 설치되었다.



❖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영역과 부평군

년 만인 1995년에 ‘부평’구로 부활하였다. 정리하자면, ‘부평’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기간은 1308년부터 1914년까지, 그리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712년 중 81년을 제외한 631년(89%) 동안 부평이라는 이름은 부평 땅의 역사와 부평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아 오고 있다.

지명은 태생적으로 공간 정보(위치 정보)를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명이란 어느 특정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거나,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명의 존재는 크게 점(point)·선(line)·면(polygon)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부평역과 부평향교는 점의 형태로, 부평대로와 굴포천은 선의 형태로, 원적산공원과 부평들(부평평야)은 면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의 존재 양상은 지도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물론 지도 스케일에 따라 점과 면은 동일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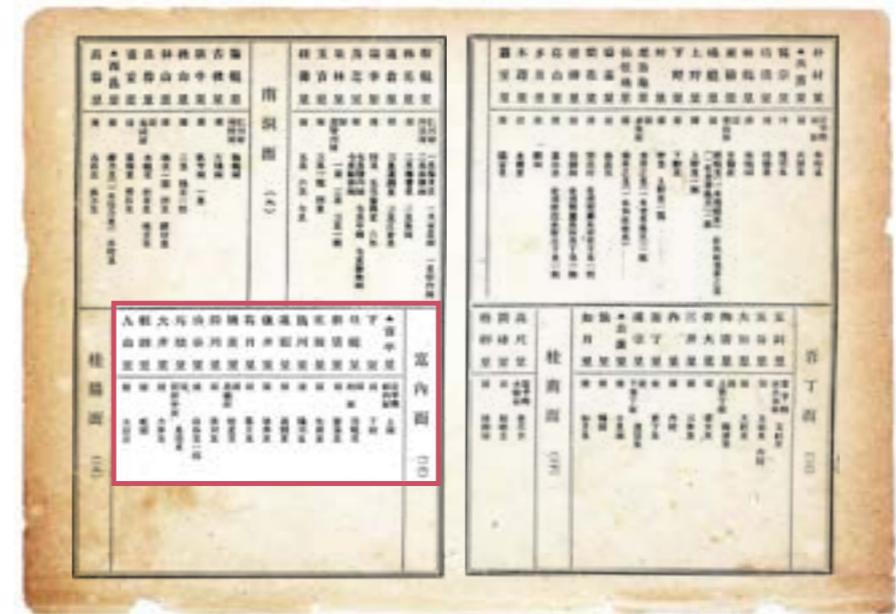
부평구와 부평동 모두 폴리곤(polygon)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폴리곤 안에 있는 수 많은 부평이라는 지명이 포인트로 존재하고 있다. 앞에서 예로 든 부평역을 포함하여, 부평우체국, 부평소방서 등이 부평 폴리곤 안에 있는 부평 포인트라 할 수 있다. 그

런데 지명으로 연결되는 폴리곤과 포인트 사이에는 어떤 강제성도 없다는 것이 지명의 특징이다. 역시 앞에서 예로 든 부평향교는 부평구가 아니라 계양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부평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다. 더욱 첨예한 사례는 부평동이다. 일반적으로 면이 읍이 되고, 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기존의 '리'가 '동'으로 변경된다. 부평리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부평동이 되었다면 매우 자연스럽겠지만, 부평만큼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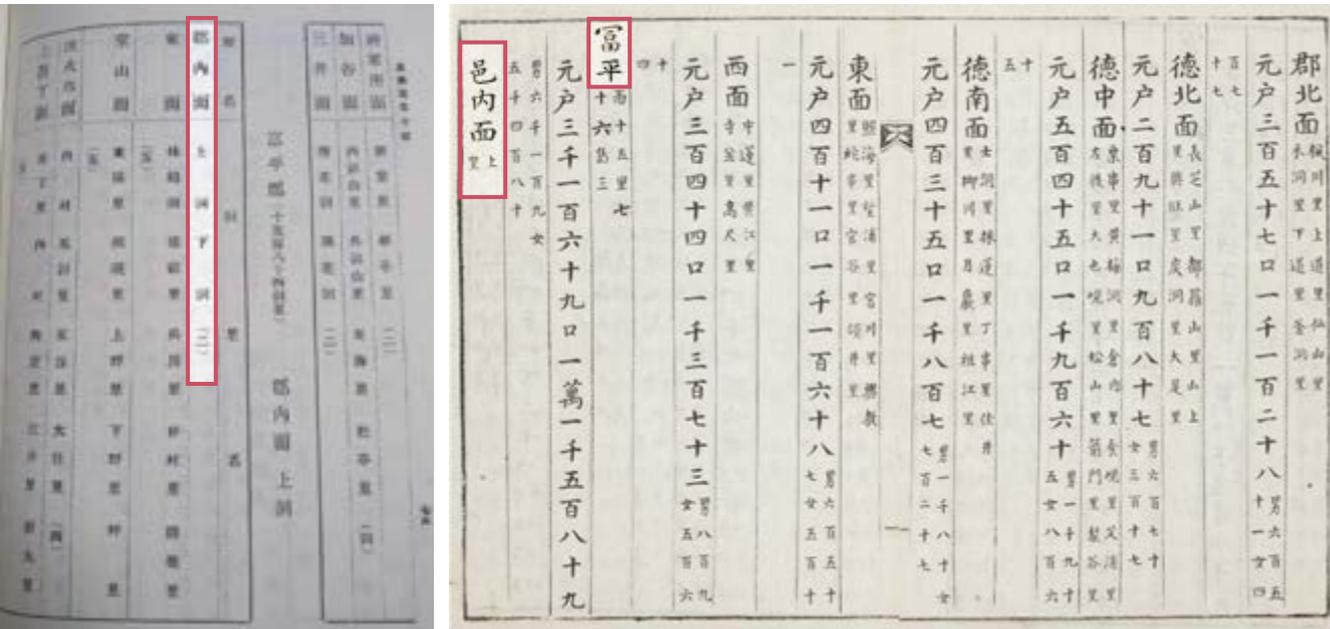
❖ 1914년 부천군의 영역과 부평구

이를 추적하기 위해 우선 1914년 상황으로 올라가 보자. 부연하지만, 1914년에는 인천군과 부평군이 통합되어 부천군이 새로 만들어졌다. 부천군은 처음 15면 160리로 재편되었고, 군청은 문학면 관교리에 있었다.³ 통합 이전 인천도호부의 치소를 그대로 부천군 군청 소재지로 삼은 것이다. 15면 가운데 하나가 부내면(富內面)이다.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은 1914년 통합 이전 군내면 '상동'이 1914년 통합 이후 부내면 '부평리'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상황은 비슷한데, 이보다 좀 더 앞선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는 군내면이 상동(上洞)과 하동(下洞)으로, 그리고 『호구총수』(1789)에는 읍내면이 다시 상리(上里) 하나로 편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부평리라는 지명은 조선시대에 없다가 1914년에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관례적으로 군 이름을 면 또는 리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1914년에 부평이라는 군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리 이름으로나마 남기고 싶어 했는지 모를 일이다.



❖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에 기록된 부내면

3 15개 면은 다주면, 문학면, 소래면, 남동면, 영종면, 용유면, 덕적면(이상 舊 인천군 소속), 부내면, 계양면, 오전면, 계남면, 서곶면(이상 舊 부평군 소속), 북도면(舊 강화군 소속), 대부면, 영흥면(이상 舊 남양군 소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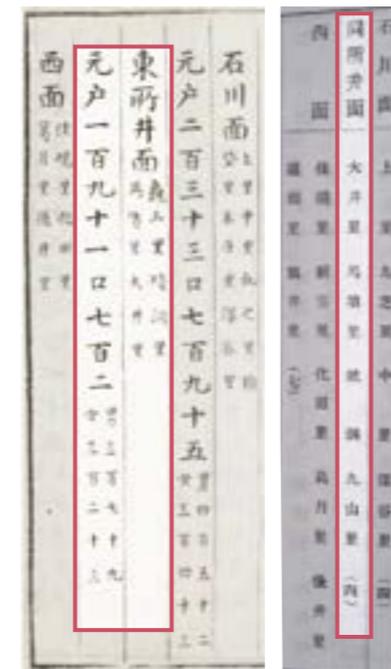
❖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좌))와 『호구총수』(1789(우))에 기록된 읍내면의 소속 리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914년에 부내면 부평리는 조선시대 군내면 상리에 기반을 둔다. 상리의 영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오늘날 계산동 일대임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1890년대 중반 상황을 보여주는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부평도엽에 ‘상리’와 ‘중리’가 표시되어 있고, 1910년대에 제작된 1:500,000 지형도에는 ‘중리’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부천시 상동과 중동 일대를 가리킨다.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호구총수』에서 보여주는 상리와는 무관하다.

‘부평리’는 나중에 이름이 ‘부평동’으로 바뀐다. 그런데 부평리와 부평동이 지칭하는 지역은 서로 다르다. 부평리는 현재의 계양구 계산동 일대를 가리키지만, 부평동은 오늘날 부평역을 위시한 그 일대, 즉 현재의 부평구 부평동을 일컫는다. 이름은 같지만 그 이

름이 지칭하는 영역이 다르다. 땅은 움직일 수 없으니 지명이 이동한 셈이다. 이를 용어화하여, 전술했지만, 흔히 ‘지명 이동’이라 한다.⁴

오늘날 부평동 지역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으로는 부평도호부 동소정면(同所井面)⁵ 대정리(大井里)이다. 『호구총수』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은 동소정면이 대정리(大井里), 마분리(馬墳里), 항동(航洞里), 구산리(龜/九山里) 4개 리로 편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마분리와 항동은 오늘날 부개동과 일신동, 그리고 구산리는 구산동의 원마을이다.



❖ 동소정면의 소속 리(출처 : 『호구총수』(1789, 좌),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우))

- 4 지명 이동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인천의 영종도도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영종도의 원 이름은 자연도였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자연도로 나온다. 그러다가 1653년(효종 4)에 남양도호부에 있던 영종진을 자연도로 옮기면서 섬 이름도 자연도에서도 영종도로 바뀌었다. 영종진은 만호(萬戶, 종4품)가 파견된, 오늘날 일종의 해군 부대이다. 결국 진 이름이 이동하면서 지역명이 바뀐 것이다. 인천의 송도(松島) 역시 일본에서 지명이 이식된 것이고, 송도 앞바다를 매꿔 마련한 땅을 또 송도라 명명하였으니 이는 지명의 확장 사례에 속한다.
- 5 『호구총수』에 동소정면은 ‘東所井面’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東은 同의 오기일 것이다. 조선시대의 다른 문헌이나 지도에는 대부분 同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날 부평동은 조선시대 동소정면의 대정리(가 발전한 것이고, 오늘날 계산동은 일제시기의 부내면 부평리, 또는 조선시대의 군내면 상리가 발전한 것이다. 일제시기 1:50,000 지형도를 살펴보면, 상리는 조선시대 동헌이 있던 부평초등학교 일대로, 하리는 계산시장 남쪽 입구 회전교차로에서 동북 방향으로 난 도로선(계산천동로19번길-어사대로41번길)의 동남쪽 일대로 추정된다.

이 계산동 일대를 가리키던 부평이라는 지명이 언제 부평역 인근 지역으로 내려왔을까? 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일대의 지명 변천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일단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하나는 부평리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오늘날 부평동으로 남하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평리의 영역이 계속 확장하여 오늘날 부평동 지역까지를 아우르다가 분화하여 계산동, 작전동, 갈산동, 부평동 등으로 분동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가설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오늘날 계산동(부평리)과 부평동 사이에는 작전동과 갈산동이 있는데, 이들은 동시대에 계속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부평리가 계속 영역을 확장했다는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평이라는 지명은 한 순간에 이동했을 것이다. 그 때가 언제일까? 현재로서는 1945년이 유력하다.



❖ 1940년 인천부의 영역과 부평구

1914년부터 부천군 부내면에 속했던 부평리와 대정리는 1940년 인천부가 확장하면서 인천부로 소속이 된다. 이때 하위 리명도 일본식으로 바뀌는데, 부평리는 대정정(大正町, 다이쇼마치), 대정리는 소화정(昭和町, 쇼와마치)이 된다. 그리고 이 일본식 지명은 1945년에 대정정이 계산동으로, 소화정이 부평동으로 다시 이름을 바꾼다. 부평리가 부평동이 된 것은 아마 이때로 생각된다. 이때 어떤 사유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부평리는 오랜 기간 지역 중심지였음에도 그 이름을 다른 지역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중심성이 그 지역으로 옮겨갔음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⁶ 조선 후기 이후 부평리와 부평동의 이력은 간단히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부평리와 부평동의 지명 이력

부평리 (1914)	부평도호부 읍내면 上里(1789, 『호구총수』) → 부평군 군내면 상리(1912,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 부천군 부내면 富平里(1914,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 인천부 大正町(1940) → 인천부 桂山洞(1945, 인천부고시 제62호)
부평동 (2020)	부평도호부 동소정면 大井里(1789, 『호구총수』) → 부평군 동소정면 대정리(1912,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1914,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 인천부 昭和町(1940) → 인천부 부평동(1945, 인천부고시 제6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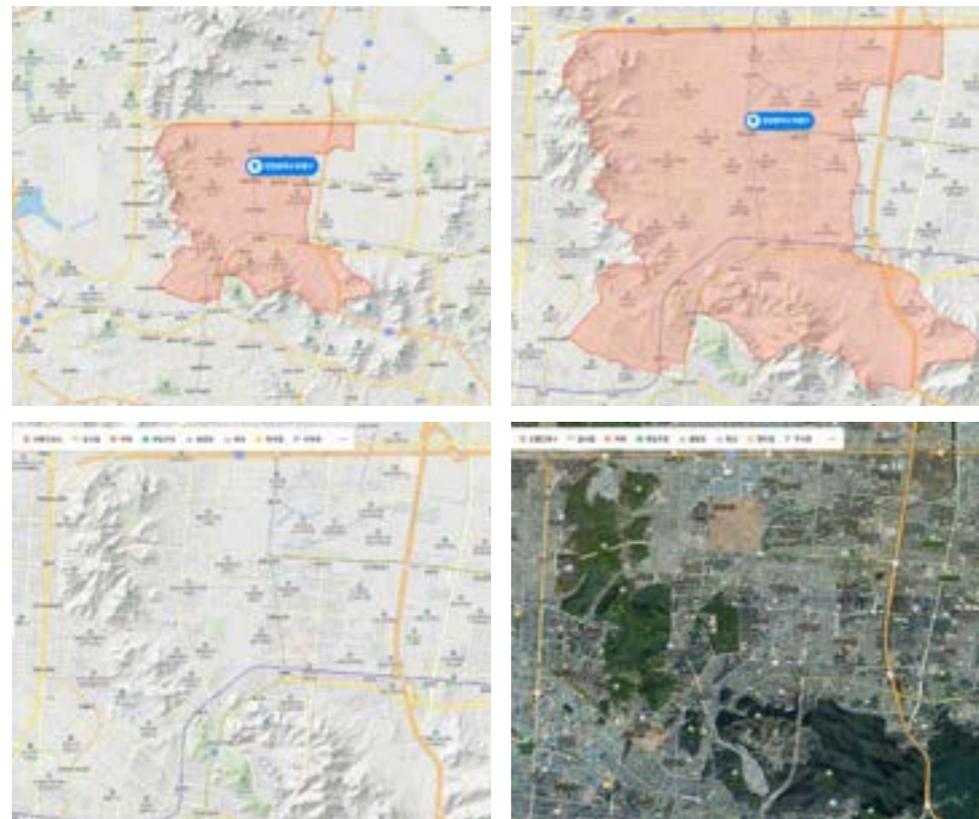
1945년에 소화정을 부평동으로 바꾼 상세한 과정은 알 수 없다. 다만, 지명의 이동 사례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명을 교체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시점 이전 언젠가부터 부평의 중심지 기능을 계산동보다는 부평동이 수행하고 있었음에 근거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유추가 가능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이 지명이 단순 지명이 아니라 군 이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름이라는 것이다. 부평동은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부평의 중심지가 되었을까?

6 이러한 사례는 부평뿐 아니다. 경기도 고양시에는 원 고양군의 중심지가 고양동이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지만 현 행정중심지는 덕양구 주교동이고, 파주시 역시 원 파주군의 중심지가 파주읍에 파주리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지만, 현 행정중심지는 조선시대 교하군의 중심지였던 아동동(금촌1동)이다. 물론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구 중심지와 신 중심지 사이에서 지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부평의 사례가, 중심지의 이동에 따라 지명의 이동이 수반된 점에서 고양이나 파주보다 지역성을 더 잘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제2절 지세와 부평들의 개발

지명 유래는 워낙 개연성이 많아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부평’이라는 이름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1310년이고, 그 이전에 이 일대를 일컫는 지명으로는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계양, 길주 등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부평과 특별히 연관되었을 것 같은 이름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새로 작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새로 만들어진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세와 연관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자전을 찾아보면 부(富)는 ‘넉넉하다’는 뜻이고, 평(平)은 ‘평평하다’, ‘고르다’, ‘편안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자의를 굳이 해석하자면 ‘전반적으로 지세가 평평하고, 고르



❖ 부평구 일대의 지세(출처 : 네이버 지도 위에 필자작성 지도 오버레이(overlay))

며 들이 많아 물산이 넉넉한 고을’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다. 실제 부평의 지세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저평하다. 이 저지대의 구성 물질은 한강과 굴포천이 부평에 사람이 살기 훨씬 이전부터 해마다 범람과 곡류(曲流)를 반복하면서 만든 충적지가 대부분이다.

이 충적지는 동쪽과 북쪽에서 한강, 그리고 서쪽과 남쪽에서는 일련의 산줄기와 접한다. 부평구 안에서 이 산줄기는 남쪽 구산동의 거마산(210m)에서 시작하여 일신동의 성현(별고개, 110m)-철마산(201m)-만월산(187m)-동암산(110m)-원통이고개(50m, 경인선 철도 및 경인로, 46번 국도)-철마산(227m)-원적산(211m)-(경인고속국도)-천마산-중구봉(276m)-경명현(118m)-계양산(395m)으로 이어진다. 한강 유역과 서해안 유역을 구분하는, 이른바 한남정맥(漢南正脈)의 일부이다. 한남정맥은 백두대간의 속리산에서 분기한 한남금북정맥의 연장선으로 안성 칠현산에서 시작하여 광교산과 수리산을 지나 인천의 진산인 소래산을 경유하고, 성현으로 이어진 후 계양산, 김포의 가현산과 약산을 지나 통진의 문수산에서 끝난다.

한남정맥의 북동사면으로부터 한강 유로까지의 저지대를 통칭하여 흔히 김포평야로 부른다. 김포평야는 한남정맥 곳곳에서 발원하는 다수의 소하천과 한강 본류의 범람과 곡류로 형성된 것으로, 부평구 일대에서는 부평들 또는 부평평야로도 불린다. 이 다수의 소하천들이 하류로 가면서 서로 합류하여 굴포천(굴포)이 된다. 조선 중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부평도호부 산천조에는 대교천(大橋川)이 수록되어 있는데, ‘부의 동쪽 7리에 있다. 근원이 원적산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흘러 직포가 되고, 김포현(金浦縣)을 지나 굴포(堀浦)가 되어 제법진(濟法津)으로 들어간다’고 적혀 있다. 대교천이라는 이름은 부평부로 들어가는 길목에 다리[大橋]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했을 것이다.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해동지도』(1740년대)와 1872년 지방지도에는 원적산에서 발원하여 대교를 지나 굴포교로 이어지는 하천 유로가 그려져 있다. 곧 굴포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술된 굴포천을 좀 더 상세히 번역하면, 굴포천은 부평부 내에서는 대교천과 직포, 김포에서는 굴포, 한강과의 합수점은 제법진으로 불렸다는 얘기이다. 제법진은 『해동지도』(18세기 중반)에는 제진도(濟津渡), 1872년 지방지도에는 제진도(濟津島)로 표기되어 있다.



❖ 『해동지도』(18세기 중반) 부평부



❖ 『1872년 지방지도』 부평부



❖ 『해동지도』(18세기 중반) 김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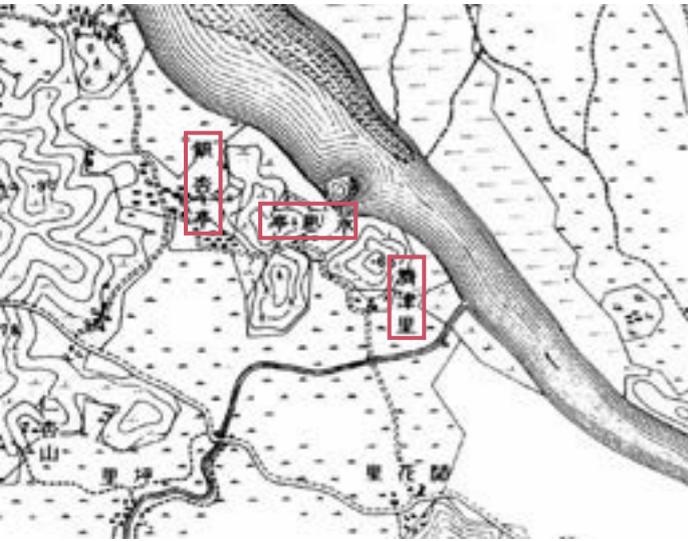
❖ 『1872년 지방지도』 김포군

위 두 지도에는 '직포'가 없지만, 김정호가 만든 『동여도』(1859)와 『대동여지도』(1861)에는 '직포천'이 올라와 있다. 소래산과 원적산 두 곳에서 발원하는 굴포천이 부평부에서는 직포천, 김포군에서는 굴포(천)로 불리는 동일 하천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굴포는 태안, 부안, 무안, 순천 등지에도 있다. 굴(掘)은 '판다'는 뜻이다. '판개'라는 지명은 굴포의 한글 이름이니 '굴포'와 같은 의미이다. 이 가운데 부평과 태안의 굴포는 하천 연안을 파서 운하를 건설하려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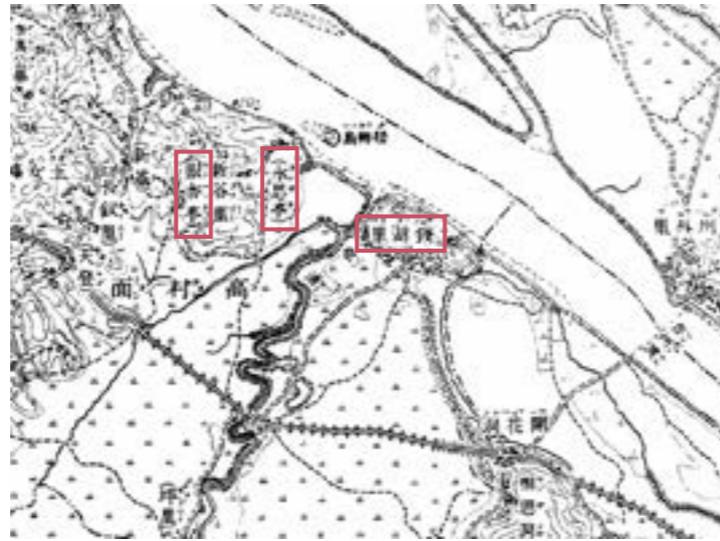
『대동여지도』에 보이는 굴포천의 북쪽 유로가 오늘날 경인아라뱃길의 모태가 되었고, 본류는 일제 때부터 수로로 개발되어 연안의 농업용수로 매우 긴요하게 사용되어 왔다. 지금은 마치 굴포천 본류가 계양구 노오지동에 설치된 아라뱃대 앞에서 아라뱃길에 합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굴포천 본류는 김포국제공항 서북단에서 계양구 상야동의 벌말을 지나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로 들어간다.



❖ 『대동여지도』(1861)에 나타난 직포천(부평)과 굴포(김포)



❖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1890년대)



❖ 1910년대 지형도

전술했듯이 굴포천이 한강에 합수되는 지점을 제법진 또는 제진도라 하였다. 전호리에 있던 포구이다. 한강 하류에서는 계절에 따라 수량 조건이 달라지면서 합수점이 일정하지 않다. 1910년대 1:50,000 지형도에는 전호리의 전호산 동쪽에 형성되어 있지만,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1890년대)에 굴포천은 전호산의 서쪽, 즉 좀 더 하류쪽에서 한강과 만난다. 그런데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1890년대)에 보면 영사정 위에 제진리라는 지명이 보인다. 오늘날 전호리이고, 조선시대 지리지에 언급된 제법진 또는 제진도일 것이다. 1910년대 지형도에는 영사정 앞에 오류도라는 섬이 보이는데, 오늘날 백마도이다. 이곳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백마도에서 고양시쪽으로 한강수중보(신곡보, 1988)가 건설되었고, 백마도와 신곡리 사이에는 신곡양수장이 건설되었다.

신곡양수장 건설은 부평들 개발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부평들은 굴포천 유역권 내의 평야로 한정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충적지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인천 부평구·계양구, 부천시 구 원미구·오정구, 서울 강서구 과해동 일대에 걸쳐 있다. 충적지는 부왕산(김포 고촌읍 신곡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석산(고촌읍 태리)-다남동 역골(금륜역터)-계양산-……-거마산-성주산(시흥시 대야동)-원미산(부천시 원미동)-작동산(작동)-밤바위산(고강동)-수명산(강서구 내발산동)-개화산(개화동, 128m)을 지나 전호산(김포

고촌읍 전호리)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안쪽에 있다. 굴포천은 이 산줄기의 매우 많은 곳에서 발원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만월산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적산 아래 산곡동, 만월산과 부개산 아래 부평동, 성주산과 원미산 안쪽 계곡의 소사동에서 내려오는 각 물줄기가 본류 못지않다. 이들 물줄기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갈산동-삼산동-서운동 사이이고, 서운동 하류쪽에서는 꽤 큰 물줄기를 형성한다.

환형으로 형성된 좁은 유역권에 다수의 유로가 모두 중앙을 향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부평들은 오래전부터 상습 침수지로 유명하였다. 장마철이나 호우 시에는 한강 본류가 굴포천 유로를 따라 역류해 올라왔기 때문에 굴포천 연안 지역은 침수가 거의 연례 행사와도 같았다. 호우가 사리 부근 날 대조 시간대와 겹치면 바닷물도 범람해 올라왔다. 이때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침수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컸고, 무엇보다 농작물이 염해를 입어 작황에 큰 타격을 주곤 하였다. 이런 상황의 부평들에 획기적인 변화를 안겨다 준 것이 신곡양수장이다. 굴포천 연안에 제방을 쌓아 범람을 막고, 적절한 곳에 양배수장을 설치하여 가뭄과 모내기철에 농업용수를 끌어들이 수 있게 되었고, 우천 시 배수장을 가동, 굴포천 수로로 물을 빼내어 홍수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굴포천의 범람과 부평들의 침수(1984)(사진 권혁재)

이 사업을 담당한 것이 부평수리조합이다. 이 일련의 공사는 1925년 3월에 마무리되었다. 공사 내역의 핵심은 신곡리에 배수갑문을 설치하고, 동부·서부간선수로를 비롯하여 지선 용·배수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5년은 지금도 20세기 최대의 홍수로 기억되는 ‘을축년 홍수’가 있었던 해이고, 이에 애써 건설한 수리시설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때 호우로 부내면은 310호 이상의 가옥이 무너지거나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⁷

부평들은 이후 수리가 안정되면서 습지가 논으로 개간되었고, 대도시 서울 주변의 핵심 농업지대로 기능하였다. 부평들은 1920년대 이후 1970년대에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들 때까지 부평을 지탱해준 화수분과도 같은 존재였다. 부평들은 부평역이 있는 부평동에서 출발하여 서북쪽의 산곡동과 청천동, 그리고 북쪽의 갈산동, 작전동, 계산동, 효성동이 차례대로 도시화되었고, 굴포천 하류의 계양구 일부 지역만이 농촌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계양구 상야동과 하야동, 특히 하야동의 벌말[野洞]은 부평들의 오래된 전형적인 농촌 취락이었다. 지금 굴포천 상류는 유로를 복개(覆蓋)하여 도로와 시가지로 이용하고 있다. 굴포천 물줄기는 부평구청역(부평사거리) 지점 하류부터 볼 수 있다. 굴포천은 부평역사박물관(삼산2동) 앞에서 청천천을 합류하고, 경인운하 건설 이후에는 본 유로를 벗어나 아라뱃대(계양구 노오지동) 앞에서 아라뱃길에 합류하게 되었다.

한남정맥은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와 인천도호부의 경계였다. 이 산줄기는 연속성도 강하지 않고 고도도 높지 않지만, 오랜 기간 부평과 인천의 문화권을 가르는 경계이기도 하였다. 이 산줄기 중에 부평과 인천을 잇는 고개로는 성현(星峴)이 가장 중요했다. 별고개로도 불리는 성현은 조선시대에 인천 치소가 관교동일 때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로가 통과한 고개이다. 인천 만수동에서 별고개를 넘으면 부평구 구산동(일신동)이다. 이 고개는 현재 번개신병교육대 영내로 편입되어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어 있다. 인천에 이사청(理事廳: 통감부가 주요 도회에 설치한 행정기관)이 설치된 이후 행정 및 경제 중심지가 제물포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리고 경인철도가 놓이면서 서울과 인천을 잇는 고갯길은 별고개에서 원통이고개로 이동하였다. 이밖에 가좌동과 산곡동(명신여고) 사이,



부평사거리 굴포천



갈산2동의 굴포천



굴포누리생태체험장의 굴포천 유래 설명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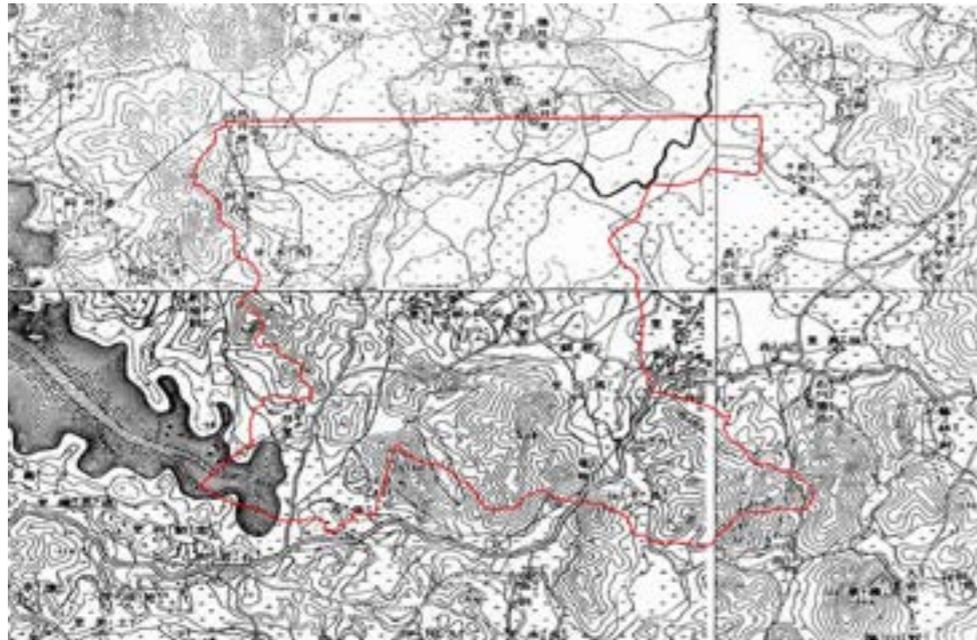
도로명 굴포로(갈산2동 한국지엠삼거리-삼산2동 진산고사거리)

❖ 굴포천의 하천 경관(2020)

석남동과 산곡동 사이의 원적산터널, 그리고 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인터체인지가 건설된 지점이 한남정맥의 주요 고개였다.

지세의 측면에서 부평은 19세기 말까지 굴포천 연안의 충적지를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다. 20세기에는 철도망이 부평이 통과하면서 인천과 서울의 중간 지점에서 상업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1909년 상황을 반영하는 『민적통계표』(1910)는 부평군에서 상업호가 10%를 상회하는 면으로 부내면(30/252호, 12%)이 유일했음을 알려준다. 이후 부평에는 경인 신작로와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넓고 평평한 대지에 기반하여 한국 최초의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농촌 경관의 딱지를 떼고 도시적 면모를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7 「富平一帶의慘災」, 『동아일보』, 1925년 7월 24일자.



❖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1895년경 측도의 부평구 지역

1890년대 중반에 측도(測圖)된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에 수록된 지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지도는 일제가 조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간첩단을 파견하여 비밀리에 만든 지도이다. 이에 지도를 속성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었고, 일일이 지명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제작 방식도 삼각측량이 아니라 목측(目測)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등고선이나 도로망, 취락 등의 위치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누락되거나 오기된 것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는 19세기 말 부평 일대의 취락 분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부평구는 조선시대에 부평도호부 마장면(馬場面) 일부, 서면(西面) 일부, 동소정면(同所井面), 그리고 인천도호부 주안면 일부 지역이 오늘날 부평구를 구성하고 있다. 청천1동과 청천2동 일부 지역, 산곡1·2·3·4동과 부평1동이 옛 마장면에 속하고, 갈

산1동과 청천2동·갈산2동·삼산동 일부 지역이 서면에 속하며, 부평2·4·5·6동과 부개1·2·3동, 그리고 일신동과 구산동이 옛 동소정면에 속한다. 이밖에 부평3동과 십정1·2동은 인천 주안면 땅이었다.

『호구총수』(1789)에는 마장면에 효성리와 청천리, 서면에 가현리, 화전리, 갈월리, 후정리, 그리고 동소정면(東所井面)에는 구산리, 향동리, 마분리, 대정리가 소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효성리는 오늘날 효성동이고 청천리는 청천동의 모태를 이룬 마을이다. 1890년대 중반에 측도된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에는 오늘날 부평구 지역에서 마정리, 향동, 장말리, 동취정리, 마분리, 향동, 구산리, 장자곡 등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 부터 당시 취락 분포를 살필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취락을 형성한 곳은 동취정리 일대로, 오늘날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동으로는 부평1동, 5동, 6동이 공유한다. 효성리는 계양구 효성동, 그리고 청천리는 청천동의 모태가 된 마을이다.

이 지도에 수록된 마정리(馬井里)는 청천동의 마재이(마장리, 馬場里) 마을의 오기일 것이다. 향동(項洞)은 1872년 지방지도에 표기된 정향현(井項峴)일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장말리(長末里)는 장고개(長峴)의 산곡동쪽 마을로 군부대(3보급단) 앞 산곡여자중학교 일대이다. 이 고갯길은 반대편쪽으로는 가좌노인문화센터(가좌동, 장고개로



❖ 1960년대 말 마재이마을과 장현

387)로 이어진다. 마재이나 장현(長現)은 1960년대 말에 제작된 1:50,000 지형도에 잘 표시되어 있다(김포 도엽, 1968년 편집, 1969년 발행).

동취정리(同取(?)井里)는 오늘날 부평역 일대에 표시되어 있다. 마정리(馬井里)의 오기일 것이다. 마분리(馬分里)는 오늘날 부개동의 중심 마을로 일제시기 지형도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향동(巷洞)은 일신동의 향동마을로 향골, 황골 등으로도 불린다. 삼각측량에 기반한 1910년대 1:50,000 지형도와 비교해 보면, 그 남쪽의 마분리(馬汾里)는 정체를 알기 어렵다.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에 표기된 구산리는 오늘날 구산동으로 옛 중심 마을은 사라지고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등으로 탈바꿈되었다. 구산리 아래에는 장자곡이 두 곳에 표기되어 있다. 성현 옆의 장자곡은 수현리(무너미골)의 오기일 것이고, 아래에 있는 장자곡이 곧 장수동의 중심 마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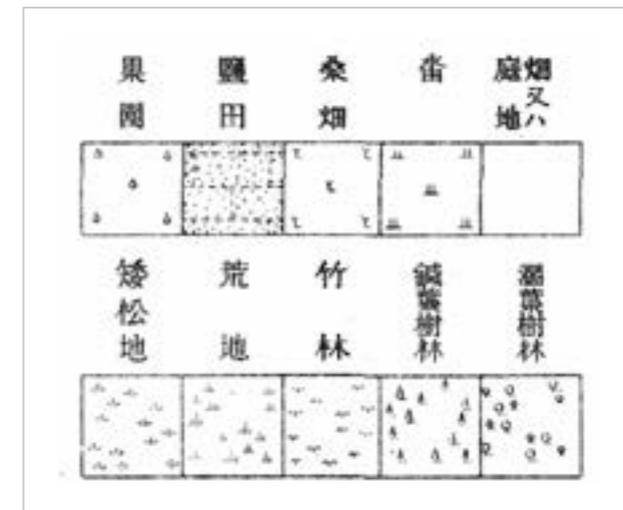
부평 지역에 아직 수리시설이 도입되기 이전, 19세기 말 부평들은 반 이상이 습지 상태였다. 서쪽 상단의 마정리로부터 구산리에 이르기까지 취락 분포지는 모두 한남정맥에 연해 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굴포천 상류의 충적지와 한남정맥이 만나는 지점에서 등고선 하나 안쪽, 즉 충적지와 20m 고도 차를 두고 산사면에 취락이 들어서 있다. 들(충적지)을 농경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지만, 더 큰 요인은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이들 충적지의 상당 부분이 배후습지의 상태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습지는 자체로 취락지로 적합하지 않다.

현재 계양구 작전동과 갈산동에 속하는 갈월리와 후정리 마을 등도 모두 산록 완사면의 끄트머리에 입지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평구 시가지는 한남정맥의 안쪽, 즉 동사면과 북사면 방면 거의 전역에 펼쳐져 있지만, 1920년대 이후 부평들이 개발되고 안정화되면서 취락지도 조금씩 확산되어 나갔다. 이로부터 추론하면, 현재 부평의 주요 시가지는 오래된 곳일지라도 100년을 넘기 힘들다.

제4절 | 경인철도의 부설과 20세기 초 취락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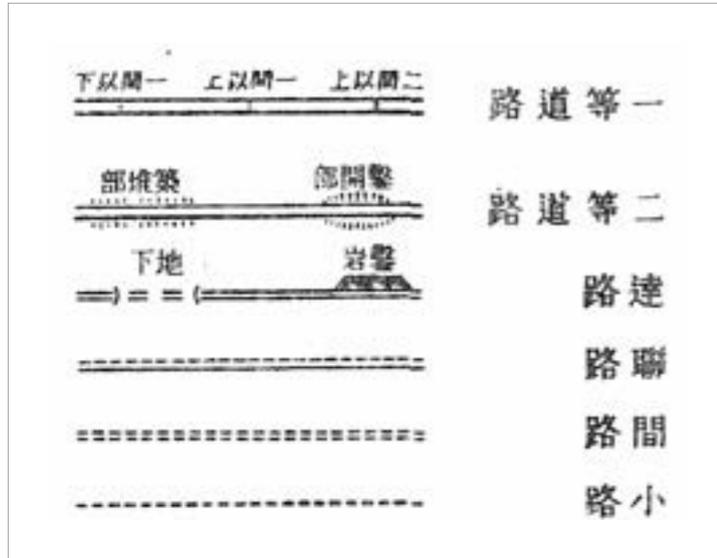
1910년대에 제작된 1:50,000 지형도 김포 도엽(1916년 측도, 1917년 발행)과 인천 도엽(1917년 측도, 1918년 발행)은 20세기 초 부평의 경관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삼각측량에 기반하여 등고선이 사실적으로 그려짐으로써 고지와 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저지 중에는 논으로 이용되는 곳과 밭으로 이용되는 곳, 그리고 과수원이나 황지 등도 경계지을 수 있게 되었다.

취락은 여전히 충적지와 산지 사면의 접촉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산화촌(山花村)은 피꼬지, 피꽃말, 산곡, 마장, 백마장 등으로도 불린다. 산 능선이 곳처럼 삐죽 튀어나와 있다하여 붙은 이름이다. 산꽃이, 산고지, 피고지, 피꼬지, 피꽃(山花) 등으로 변형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백마장 일대를 일컫는다. 마장은 전근대에 말에게 물과 여물을 먹이던 곳이라 것에서 붙은 이름이다.⁸



❖ 1910년대 1:50,000 지형도의 면 범례

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8(경기편 하-인천편), 인천시 북구 산곡동, 1986, 561쪽.



❖ 1910년대 1:50,000 지형도의 선 범례

산곡리와 가좌리는 연로(聯路)로 연결되어 있다. 이곳이 바로 장고개(장현)이고, 앞에서 언급한 제3보급대가 자리잡은 그 곳이다. 지금은 산곡동이 4개 동으로 분화되어 있지만, 원 마을이 위치한 부대 앞의 산곡2동 일대로부터 확산되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의 동취정리는 마정리로 대체되었고, 부평역 북쪽의 완사면에는 대정리 취락이 들어서 있다. 현 부평5동에 해당한다.

20세기 이후 교통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철도 교통은 노선이 경유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핵심은 철도역이 유치되는 것이었다. 부평역이 대정리에 들어서면서 대정리는 인천과 경성의 중간 기착지로 부상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일본육군조병창이 뒤따라 들어왔다. 부평역 유치는 대정리가 부평읍내(계산동)를 제치고 20세기 이후 부평의 중심 취락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 결과론적이지만 부평동이 오늘날 인천의 최고 변화가로 발전한 것에서 이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 최초 경인선 인천역-노량진역 간 37km 거리에 경유역은 5개였다. 이 5개의 포인트에 대정리가 든 것이다. 경인철도는 1899년에 완공되었다. 처음에는 인천역과 노량진역 사이를 운행하다가 이듬해 한강철교가 완공되면서 경성역까지 연장되었다. 『황성신문』(1900년 7월 4일,

수요일)에 ‘기차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경인철도합자회사에서 발표하기를, 노량진역과 경성역 간 노선 공사가 준공되었으므로 7월 4일부터 개통함’이라는 기사가 났다. 이때 경성역은 서울 중구 순화동 서울유관순기념관 자리에 있었다.

경성역은 1905년에 서대문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1919년까지 운행되다가 폐역되었다. 지금은 흔적도 없다. 경인선 개통 당시 지금의 서울역 자리에는 남대문정거장이라는 임시 역사가 있었다. 1920년대 초까지도 경성의 제1역은 용산역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경성의 수송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1915년에 남대문정거장을 남대문역으로 확장하였고, 1922년부터 1925년까지 새로 역사를 짓고 경성역으로 이름도 바꿨다. 이 경성역은 일본 도쿄역에 이어 동양에서 두 번째로 컸다. 이로써 경성역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중심역으로 재탄생하였다. 경성역은 1947년에 서울역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ktx 역사가 신축되면서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사서울284’로 변신하였다.

『황성신문』 기사에 따르면, 인천역의 첫차는 오전 6시에 출발하였다. 이어서 7시 45분, 10시 15분, 13시 45분, 16시 45분 발차를 포함하여 하루 5회 운행하였다. 경성역에서는 오전 8시 10분에 첫차가 출발하고, 10시 10분, 13시 10분, 16시 10분, 19시 10분에 출발 역시 5회 운행하였다. 최초 인천-경성 간 1등석 요금은 1원 50전, 2등석은 80전, 3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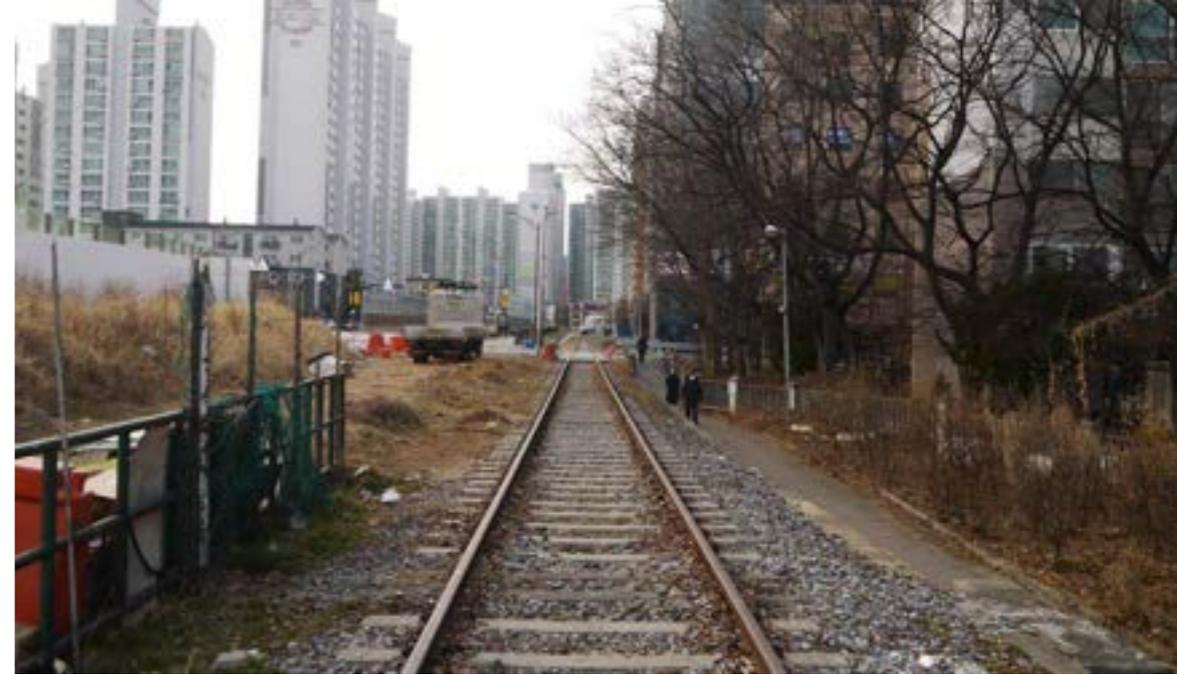
❖ 『황성신문』 경인선 개통 기사

석은 40전이었고, 30회 쿠폰 할인 차표도 있었다. 기명으로 하면, 즉 한 사람만 이용하면 1등석의 경우 30%를, 여러 명이 같이 이용할 경우에는 20%를 할인해 주었다.

최초 경인선은 인천-축현-우각동-부평-소사-오류동-노량진역을 연결하였고, 인천역에서 노량진역까지 1시간 40분이 소요되었다. 1936년 상황에서는 운행 횟수가 5회에서 15회로 증가하였고, 노선이 인천-상인천-주안-부평-소사-오류동-영등포-노량진-용산-경성역으로 연장되었으며, 경유역도 변경, 신설되었다. 축현역은 상인천역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우각역은 선로 이전과 함께 폐지되었다. 우각역은 도원역 동쪽 약 500m 지점, 송의동 석정로와 새천년로가 만나는 삼거리 부근에 있었다. 경부선의 철도역으로 건설된 영등포역은 오류동과 노량진역 사이에서 경인선의 정차역으로 추가되었다.

1936년 열차시각표에 따르면, 아침 6시에 인천역을 출발한 첫차는 6시 19분에 부평역에 도착하였고, 경성역에는 6시 55분에 도착하였다. 개통 당시 인천역에서 부평역까지 36분이 소요되었으므로 19분이 단축되었고, 전 구간 소요 시간은 100분에서 55분으로 줄어들었다. 거리도 길어졌고 정차 역도 늘었지만 차량 성능의 기술 향상이 이를 능가하였다. 1936년 인천역 발차 시각은 6:00 첫차 이후 7:10, 8:20, 9:30, 10:15, 11:35, 12:55, 14:00, 15:05, 16:25, 17:50, 19:00, 20:20, 21:30, 23:05까지 이어졌다. 23시 05분 막차를 타면 경성역에 자정에 도착하였다. 경성역 발 첫차는 6:50이고, 막차는 23:25분이었다. 소요 시간은 출발편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상행선보다 조금 길어 1시간 내외였다. 경성역에서 23시 25분 막차를 타면 인천역에는 다음날 0시 25분에 도착하였다. 조선 시대에 경인로 노선은 80리 길로 새벽부터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으면 당일 겨우 도착할 수 있었지만, 1930년대에는 첫차와 막차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아침 6시 55분부터 밤 11시 25분까지 16시간 30분간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부평역에서 경성역까지도 36분 만에 주파하였다. 지금은 부평역에서 1호선 전철을 타면 서울역까지 46분이 걸린다. 100년 전보다 열차 속도는 빨라졌지만 소요 시간은 10분이 늘었다. 1930년대에 부평역과 서울역 사이 정차 역은 6개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세 배 이상 늘어나 19개가 됐기 때문이다. 1936년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경성이 한반도 내의 중주도시로서의 면모가 확고해지면서 한강 너머 양화동-영등포-동작동까지 시역(市域)을 확장한 해이기도 하다.



❖ 부평역-조병창 군수용 지선 철로(산곡4동, 2021)



❖ 대정로(大井路)(출처 : 다음 지도(map.daum.net))

부평 일대에 인천육군조병장이 건설된 이후에는 부평역에서 물자 수송을 위해 조병창과 경인선을 이어주는 지선 철로가 부설되었고, 주변 지역으로는 조병창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정리 일대의 시가지는 점차 부평읍내를 능가하게 되었고, 대정리가 부평을 대표하는 취락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대정리는 1940년에 소화정이 되면서 이름을 잃어버렸다. 일제시기에 일식 지명은 광복 직후 대부분 복구되었지만 대정리는 1945년에 대정동이 아니라 부평동이 되면서 이름을 되찾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지금 대정리의 흔적은 부평4동 부평시장 내 대정공영주차장과 대정로, 그리고 산곡3동에 '대정초등학교 등의 지명으로 남아 있다.

『한국지명총람』에도 대정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여기서 부평동은 자연마을 신용동, 동수정, 신타리, 소반재말, 신촌을 병합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동수정은 동소정의 오기일 것이다. 조선시대에 부평동이 속했던 동소정면 이름이 전해 내려온 것이다. 부평역 남동쪽 부평6동에 '동소정사거리'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 신타리는 부평4동, 부평구청 일대를 일컫는다. 1970년대 지형도에 '신타리'로 적혀 있다.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에서 '신촌' 또는 새터(신기, 新基), 새틀(신기, 新機, 새틀, 새트리, 새터리), 또는 신대리(新垓里, 신타리) 등으로 불렸다. 지금은 부평구청 동쪽에 신타리공원이 넓게 조성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용동과 소반재말은 그냥 부평동에 있는 마을, 소반재는 부평동에 있는 고개로만 소개되어 있다. 한편 부평문화원 홈페이지에는 소반재는 소방서가 있는 고개로 풀이되어 있다. 일제 때 삼능(三菱) 사택을 지을 당시 일본인들은 현 감리교회가 있는 앞쪽에 최신식 소방서를 지었는데, 높은 언덕 위에 있으므로 이 언덕을 '소반재'라 부르게 되었고, 이곳에 조성된 마을을 '소방재말'→'소반재말'이라 하였다는 것이다.⁹ 소반재말뿐 아니라 이 일대의 취락은 한남정맥 위에 입지해 있다. 원통이고개 말단 부이기도 하다.

1910년대 1:50,000 지형도에는 대정리와 마분리 사이에 '불잠(佛岑)'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본 지형도에서만 확인된다. 지도상에서는 마을이 부평역의 동쪽 부평동과 부개동의 경계선 일대에 있다. 부평문화원에서는 '부개산 북쪽 줄기에 작은 봉우리가 등잔산

9 부평문화원 홈페이지(문화와 역사)지명유래(<https://portal.icbp.go.kr/bpcc/history/nomination.asp>).

인데, 부개동과 부평동의 경계를 이룬다. 등잔을 엮어 놓은 모양에서 연유'한 것으로 기술한다. 불잠은 이 등잔산 일대의 마을일 것이다. 불잠은 음차와 훈자가 혼재되어 표기되었다. 등(燈)은 '등불'과 같은데, 그 뜻이 불(火)과 통하고, 불(佛)은 불(火)과 음이 같다. 잠(岑)은 잔(簫)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오류일 것이다. 혹은 잠에 '산봉우리'의 뜻이 있으므로 작은 구릉지를 뜻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을 수도 있겠다.



❖ 1910년대 1:50,000 지형도 위에 중첩시킨 오늘날 부평구의 영역



❖ 1910년대 불잠(佛岑)마을

마분리(馬墳里)는 부개동의 중심 마을이었다. 말무덤이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오늘날 산곡동과 청천동 일대는 마장면(馬場面) 소속이었고, 이곳에 마장이 있었으며 마분리에 말들의 무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오늘날 부개초등학교 일대로 초등학교 동쪽에 마분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마분리 남동쪽에 향동이 있다. 오늘날 일신동이 이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향동은 향골, 황골 등으로도 불렸는데 한골, 즉 큰 골짜기라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전술했듯이 굴포천은 인천과 부평의 경계를 이루는 한남정맥의 북쪽(北麓) 여러 곳에서 발원하는데, 부개산과 거마산 사이 큰 골짜기 안에 자리 잡은 마을이 곧 향동이다. 이 골짜기 상류쪽이 구산동이고, 더 올라가서 한남정맥을 넘으면 인천대공원이 있는 인천 남동구 장수동이다.

갈월리(葛月里)와 후정리(後井里)는 각기 오늘날 갈산동과 삼산동의 중심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두 곳은 모두 서면 소속이었다. 갈월리의 중심 마을은 오늘날 부평북초등학교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남쪽 평천로 건너 마을은 재개발되어 갈산동 지식산업센터,



❖ 1910년대 갈월리(갈산동)와 후정리(삼산동)

인천테크노밸리센터 등 대규모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후정리는 갈월리의 옆 동네이다. 오늘날 삼산중학교 인근이 후정리의 중심 마을이었다. 두 마을은 '갈산'으로 불리는 작은 독립 구릉지의 남쪽에 자리를 잡았다. 1910년대에 구릉지 전면에는 논과 습지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서쪽의 원적산, 철마산, 만월산에서 내려오는 굴포천 상류가 이곳 갈월리 앞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기에 이 일대는 상습적으로 침수되었을 것이다. 갈산천과 청천천이 만나는 지점에 놓여 있는 청천교(갈산동 상구지 놀이공원 옆, 서부2교)가 이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에 일찍이 하천 연안에 제방이 건설되었고, 이후 취락이 저지대쪽으로 좀 더 전진할 수 있었다. 갈월리는 원 부평(계산동)과 지금의 부평동을 잇는 중간 마을이었다. 경인로 상의 동수역(인천1호선) 부근에서 달로(達路)가 하나 분기하는데, 이 길은 부평역을 지나고 갈월리와 화전리(작전동)를 경유한 후 부평읍내로 들어갔다. 당시 대정리에서 읍내로 가는 길에 처음 보이는 취락이 갈월리였다.

이처럼 1910년대에는 청천리, 화산촌, 산곡리, 신촌, 대정리, 불잠, 마분리, 향동리, 구산리, 갈월리, 후정리 마을이 부평구 내에 형성된 마을들이었다. 이들 모두 전형적인 농촌 취락이었고, 각 취락의 규모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1910년대 중후반, 이 일대에서 그나마 큰 취락이라면 그래도 역이 들어서 있는 부평역 부근의 대정리였다. 역이 설치되고 18년 지난 시점에서 측도된 상황이므로 그 사이에 대정리는 그 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마을이 커졌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였고, 산업화 이전이라 그 속도는 더디었다. 대정리에서 마분리와 향동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부평역부터 17사단 군부대 정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부평1·5·6동 접경 지역과 부개1·2동의 접경지가 20세기 초 부평 지역에서 그나마 규모가 있는 취락들이었다.

제5절 | 1940년대 공업화와 경인로

2020년 2월 주민등록상으로 부평구의 인구는 50만 8,587명이다.¹⁰ 인천광역시 8구 2군 가운데 서구(54만 4,000명)와 남동구(53만 2,000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다. 네 번째 인구를 보유한 곳은 미추홀구(40만 7,000명)로 상위 세 구와는 차이가 크다. 서구에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관할 면적이 넓은 것에 기인한다. 인구밀도는 미추홀구가 1만 6,426명/km²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부평구로 1만 5,893명/km²에 달한다. 세 번째로 높은 남동구(9,322명/km²)와 차이가 크다. 이처럼 부평구는 인구수와 세대수뿐 아니라 밀도의 측면에서도 단연 인천의 상위권에 속한다. 면적은 동구와 미추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작다.

전술했지만, 부평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서울과의 위치 관계 속에서 인천을 이해하는 것은 인천-서울에서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이다. 부평구의 이러한 관계적 위치는 인구와 교통, 산업 시설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이면서 동시에 전제적인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부평구에는 원 인천의 중심지였던 미추홀구(문학동), 개항기 이후 전국적인 수준의 도회로 성장한 중구(관동), 현재 인천시청·문예회관·고속버스터미널·백화점 등이 입지한 남동구(구월동)를 능가하는 인천 최대의 시가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가지는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뻗어나간 가로를 따라 형성되었고, 이를 품은 곳이 부평동이다.

전통시대에 부평구 지역은 한국의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농촌 경관을 띠고 있었다. 지금은 삼산동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역에 시가지화되어 농촌 경관을 찾아볼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부평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시작은 1930년대로 올라간다. 1920년대까지 부평은 부평수리조합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평야의 개발’에 여념이 없는 농촌 지역이었다. 한강 합수점에 배수문을 설치하고, 굴포천 연안에 제방을 쌓아 범람을 막고, 곳곳에 양배수장을 건설함으로써 홍수와 가뭄에 대비, 이른바 수리안전답을 만듦으로써 안정적인 미곡 증산에 매진한 것이 부평 일대에서 1925년까지 추구한 사업들이었다.

¹⁰ 위키백과 ‘인천광역시’ 검색 결과(<https://ko.wikipedia.org>).



❖ 부평역 일대의 지세

일제는 1930년대부터 조선에 공업화정책을 도입한다. 1934년에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통해 경성과 인천 사이의 지역 내에 공업용지를 지정하고 공업지대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후 식료품, 정미, 방직, 기계공장들이 조금씩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부평 일대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부평역의 주변 지역이 핵심이었다. 굴포천의 상류역에 속하는 부평역 역시 구릉지의 깎트머리, 충적지보다 고도가 살짝 높은 사면에 자리 잡고 있다.

부평이 공업지대로 변모해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부평에 일본육군조병장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조병창(造兵廠)이란 무기, 탄약 등의 각종 군수품을 제작, 수리, 공급하는 일종의 공장이다. 조병창이 부평에 들어선 것은 1939년이고, 그 부지는 현 부평1동의 대림·옥일·동아아파트, 산곡3동과 4동의 현대·우성·동남·삼일아파트, 그리고 구 캠프 마켓 부지에 걸쳐 있었다. 1940년대로 접어들면 전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조병창도 확대되었다. 조병창의 주요 생산 품목은 소총, 탄약, 포탄약, 총검, 수류탄, 경차량 등이었고, 수천 명의 군인과 군무원이 종사하였다. 또 조병창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들

이 조병창 주변 지역에 입주하면서 1940년대 부평 조병창 공업단지는 기존 인천항 일대의 송현동·화수동·만석동 일대의 매립지 공업단지, 그리고 학익동과 용현동 일대의 공업단지와 함께 인천의 3대 공업지대로 부상하였다.



❖ 부평공원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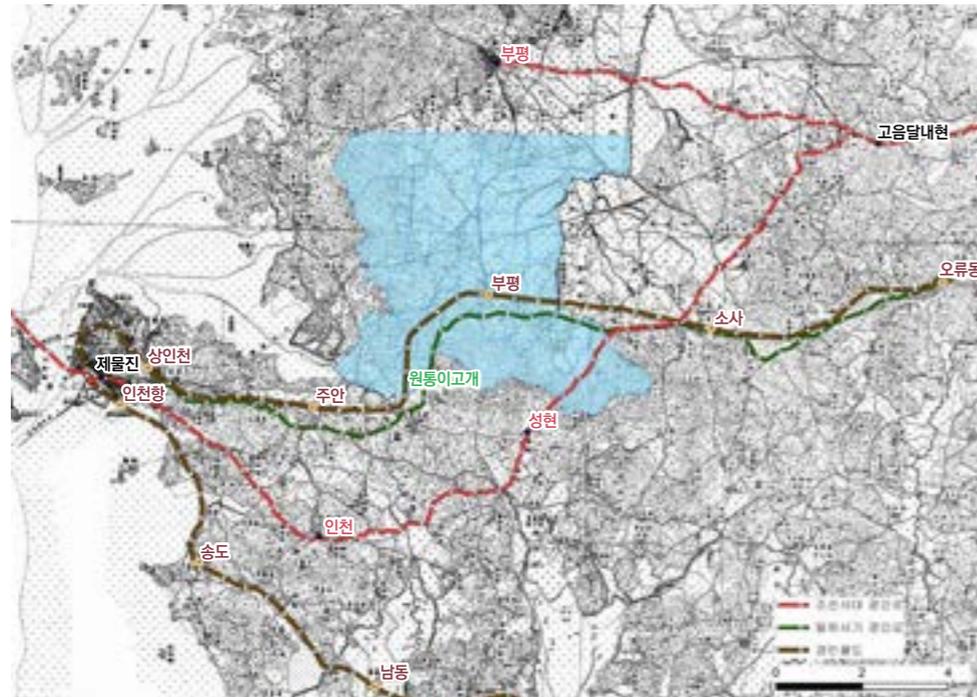


❖ 캠프 마켓

부평공원은 광복 후 1997년까지 군수차량 기지(88정비대)로 사용되다가 2002년 공원으로 재탄생하였다. 조병창은 징용 노동의 현장이기도 하여 이를 상기하고자 조각상을 세웠다. 부평공원 북쪽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군부대 캠프 마켓이 있었다. 지금은 군부대가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병창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의거, 전시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강제노역이 집행된 현장이기도 하다. 1930년대 말에 설립된 히로나카(弘中) 군수품 제조 공장은 부평 조병창과 관련된 공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의 하나이다. 히로나카는 1940년에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에 인수되지만, 이후에도 군수무기 생산에 몰두하였다. 지금 부평공원으로 조성된 곳의 일부가 이 히로나카공장 부지였다.

조병창과 관련 여부를 떠나 1940년대에 부평동에는 흥중상공주식회사, 디젤자동차공업주식회사, 동경제강, 광진정공, 부평금속공업공사, (유)조선아미노산장유, 부평인쇄소, 조선공무점 등이, 산곡동에는 조선베어링주식회사, 국산자동차주식회사, 동양정공주식회사 등이, 계산동에는 부평양조합이, 부개동에는 인근 충적토를 원료로 삼아 부평요업, 부평연와공업 등이, 청천동에는 동양제강, 경성공작주식회사, 부평와사공장 등이 입주하고 있었다.¹¹



❖ 조선시대 및 일제시기의 경인로와 경인철도(1:50,000)

11 부평사편찬위원회, 「제2편 제6장 4절 1930~1940년대 일제의 공업정책과 경인·부평공업단지」(『부평의 역사』, 2007), 143~152쪽 참조.

인천은 19세기 말 개항 이후 가장 중요한 조선의 출입구가 되었다. 아직 철도가 놓이지 않았을 때에도 외부 세계가 한반도와 소통을 시도하는 창구는 인천이었다.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해로를 통해 인천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경인로는 문학동 치소에서 성현을 넘어 부천시-양천구 목동-양화진(2호선 당산철교)-서대문-도성으로 연결되는 루트였는데, 개항 이후 인천의 행정 중심지가 문학동에서 제물포로 이전한 이후로는 경인로가 문학동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성현이 아니라 원통이고개를 넘는 루트로 노선이 바뀌었다. 이 루트는 현재 46번 국도로 계승되어 있고, 지금도 경인로로 불린다. 개항 이후 조선을 찾은 일본인과 중국인을 비롯하여 서양의 상인, 관료, 선교사 등은 거의 대부분 나귀를 타고 이 길을 통해 입성하였다.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종자(從者)는 걸어가야 했으므로 이동속도는 도보와 같았다. 원통이고개를 넘어 오면 이들은 부평의 넓은 들을 보며 길을 재촉했을 것이다. 제물포에서 출발하여 당일 서울에 도착하려면 부평에는 오전 중으로 도착해야 했다. 경인철도가 놓인 이후에는 당연히 철도를 이용하였다. 한국에서 인천-서울 구간에 처음 철도가 놓인 이유이기도 하다.

새로 정비된 경인로는 인천 제물포에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경인철도와 나란하게 놓여 있다. 주안역과 석바위를 지나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 십정동(간석동)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부평구 관할이 된다. 원통이고개를 넘으면 부평동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역-부평삼거리역-동수역이 원통이고갯길을 따른 것이다. 동수역에서 경인로는 46번 국도를 벗어나 동쪽으로 난 ‘동수로’로 이어진다. 조선시대 경인로는 성현을 넘어 구산동에서 부평구를 경유했으나, 개항 이후에는 경인철도와 경인 신작로가 부평 남부 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철도망과 도로망은 부평구의 운명을 180도 바꿔 놓았다. 이 교통망은 부평 지역이 농업사회 단계를 벗어나 공업화의 길로 접어들 때 기저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기능하였다. 해로와 내륙 수로, 도로와 철도 교통을 망라하여 인천과 부평은 전국 최고의 교통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인천은 육로와 해로가 결절하기도 했지만, 수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도회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인천과 부평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서울의 관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일찍이 해운과 수운, 철도망과 육로망에 기반한 육운이 발달해 있었다는 점, 외부의 선진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기술과 정보, 자본의 유입이 수월



❖ 경인고속도로와 부평IC(1:50,000)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천이 가장 먼저 공업화의 길로 접어든 것은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경인철도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전철화되었고, 1969년에 개통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최초 왕복 최대 4차선에서 왕복 8차선까지 확장되었다. 1970년대에 영등포, 구로, 부평, 주안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경인공업지대는 전국 최고차의 산업단지가 되었고,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의 1등 공신이 되었다. 철도망에서 노선보다 역의 유치가 중요하듯, 고속도로에서는 나들목(인터체인지)의 건설이 핵심이다. 애초 경인고속도로에 나들목은 부천, 부평, 서인천 세 곳이었다. 고속도로 연변에는 부평 나들목 남안, 즉 청천동에 가장 먼저 규모 있는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지금의 ‘부평국가산업단지’이다.

| 제6절 | 광복 직후 애스컴 시티의 건설과 캠프 마켓

일본 패망 후 조병창은 미군에게 접수되었다. 군수 시설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미군정이 이를 접수,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리고 조병창은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본디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 여전히 미군의 보급기지로 기능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중에는 조병창 기지를 북한군에 빼앗겼지만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 직후 탈환하였고, 1951년 1·4후퇴 때 다시 철수하게 되었지만 같은 해 봄에 재탈환 이후 부평에 미군이 상주하게 되었다. 초창기 이곳에 미군은 보급창, 의무대, 공병대, 통신대, 항공공대 등의 부대가 입주하고 있었다.

경인철도와 부평역, 그리고 조병창이 20세기 전반 부평의 도시화를 개시했다면, 광복 후 1970년대까지는 애스컴 시티(ASCOM CITY)가 이를 견인하였다. 애스컴이란 미국 24군단 소속의 군수지원사령부(Army Service Command)의 약칭으로 1945년 9월부터 1973년 6월까지 주둔한 미군부대를 일컫는다. 영외 지역까지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밀집해 있었기에 부대 주변 일대를 애스컴 시티로 불렀다. 애스컴은 주한미군 용산기지가 생기기 전까지 국내 최대의 미군 기지였다.

애스컴은 부평 주민들에게 부대 내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부대 밖에서는 미군은 물론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몰려온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부평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195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애스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시절, 1957년 12월 말 약 4만 3,000명에 달했던 부평 지역의 인구가 1962년 12월말에 약 8만 7,000명으로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부대 업무와 관련하여, 하역, 차량 정비, 취사, 세탁, 이발, 미장, 벽돌, 운전, 정비, 용접, 배관, 비서, 타자수, 서기, 은행 출납원, 경비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였고, 이를 중개하는 용역회사나 용역 하청업체도 호황을 누렸다. 당시 부평의 직업 구성으로는 부대 관련 직종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농업과 상업, 그리고 공무업이었다.¹²

¹²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의 역사』, 2007, 203~207쪽.

이 과정에서 부평 일대에는 미국식 서양 문화가 유입되었고, 기지촌이 갖는 여러 병폐가 발생했지만 시가지는 확산되었고 각종 새로운 도시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에스컴 시티는 부평1동과 3동, 그리고 산곡1·2·3·4동 전체와 청천동에까지 걸쳐 있었다. 산곡1동 백마경로당 근처에는 교회가 있었고, 청천동 소재 부평우체국 서쪽에는 캠프 아담스(Camp Adams)가 있었으며, 그 남쪽에는 체리힐(Cherry Hill)로 불렸던 유흥가가 조성되어 있었다. 산곡2동 한화아파트 단지는 캠프 타이러(Camp Tyler), 마장로 서쪽의 산곡1동은 캠프 그랜트(Camp Grant), 산곡3동 우성4차아파트 및 부영공원은 캠프 헤이즈(Camp Hayes), 부평1동 동아아파트는 캠프 타이러와 해리스(Camp Tyler & Harris)가 주둔했던 곳이고, 산곡3동 부평현대아파트 인근에는 1971년 용산으로 이전한 병원(121st Evac Hospital)이 있었다.

에스컴 시티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곳은 이른바 ‘신촌’으로 불렸던 곳이다. 구 캠프마켓(Camp Market)의 정문 건너 ‘신촌로’ 주변 지역은 에스컴 시티 최대의 유흥·유희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골목길 패튼은 남아 있지만 옛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재건축되어 옛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Green Door, Dream Boat, Key Club, Soul Brother Club 등이 당시 유명한 유흥업소였다.¹³

주한 미군이 대거 철수하면서 에스컴 내의 여러 부대도 각지로 흩어지고 캠프마켓만 남았다. 다른 캠프의 이름은 미국의 대통령 이름을 딴 것인데, 캠프마켓의 경우는 부대 내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판매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마켓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캠프마켓은 부평1동과 산곡3·4동에 걸쳐 있었는데, 부대 면적은 44만㎡(약 85만 평)으로 에스컴 시절보다는 축소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부평구민들은 캠프마켓 반환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2002년에 반환이 결정되었다. 이후 순차적으로 부대와 부지 이전이 진행, 2020년 10월에는 일부 구역이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¹³ 이상 에스컴 시티 내의 부대 위치 등은 팀 노리스(Tim Norris)의 소설 『Seasons in the Kingdom(2007)』에 근거한 것이다(<https://www.google.com/maps/d/viewer?ie=UTF8&hl=en&h&msa=0&ll=37.49837209876789%2C%20126.7070602161931&spn=0.00326%2C0.006716&z=14&mid=1quYzA2pq0qAXkZTeljBJLJIWGNy>).



❖ 1950년대 부평의 토지이용(1:50,000)

1970년대에 인천이 한국 산업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 중 핵심은 주안공단과 부평 공단이였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 주안 공단은 아직 본격적인 개발 이전이였다. 이때까지 인천에서 도회적 성격을 띠는 곳은 개항장 인천(중구)과 에스컴이 입주하고 있는 부평 일대였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 농촌 경관을 유지하고 있었고, 굴포천 연안의 충적지는 1920년대 마련된 부평수리조합의 관개지로 관리되고 있었다. 1910년대와 비교하면 부평 지역에서는 원 부평, 즉 계산동보다는 부평동 쪽에 취락의 성장세가 훨씬 두드러진다. 오늘날 부평3동 일대, 특히 ‘신촌’으로 불리는 지역이 이미 에스컴 시티의 일부로 시가지화되었다.

제7절 | 1970년대 이후 취락의 확산과 인구의 증가

1970년대 초반 부평 지역은 부평역을 중심으로 이미 시가지가 크게 형성되었다. 일부는 애스컴의 부대이며, 청천1·2동과 산곡1·2동의 취락 역시 애스컴 시티의 영향을 직접 받은 곳이다. 동시에 부평공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남안의 청천동과 그 남쪽에 대우자동차 공장이 크게 자리를 잡았다. 산곡동의 백마장은 부평역 일대의 시가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 이 또한 애스컴 시티의 일부를 구성한다. 갈산동의 후정리 마을도 눈에 띄게 취락이 커졌고, 삼산동에서도 취락의 확산이 확인되지만 이들 지역은 아직 전통적인 농촌 경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 1970년대 부평의 도시 경관(1:50,000)

산곡동의 시가지는 마재이(백마장, 청천동, 산곡동, 산화촌, 산꼬지) 일대에서 또렷해졌고, 부평동의 경우는 부평4동, 그리고 경인철도 및 경인로 아래에 있는 부평2·6동과 부평3동에 걸쳐 시가지 확산이 두드러진다. 부평역을 중심으로 원형의 도시 지역이 형성된 것은 1970년대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원통이고개 너머 동암역 부근의 십정동으로 시가지가 확산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십정동은 한남정맥 서쪽에 위치한다. 즉 굴포천 유역권에 속하지 않는다. 그 분수계는 원통이고개가 놓여 있는 한남정맥이다. 십정동은 간석동 및 주안과 연계하여 공업지대를 이루었고, 반면 갈산동, 삼산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은 공업화의 영향력이 아직 미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삼산동의 굴포천 연안에는 아직 논으로 상용되는 토지가 있다. 일신동과 구산동은 주변에 산지가 많기도 하지만, 군부대의 제약으로 시가지가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

부평구는 2018년 현재 인구가 거의 6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회이다. 25년 전, 1995년에 북구에서 계양구와 부평구가 분구할 때도 부평구의 인구는 이미 50만 명이었다. 1970년대 공업화의 최전방에 섰던 부평구는 1990년대까지 제조업 중심의 공업 도시로 계속 거듭나고 있었다. 부평구가 되기 30년 전인 1965년에 부평 지역민의 직업 구성은 농업이 20.6%, 상업이 16.4%, 서비스업이 52.2%로 이 세 직종이 거의 9할을 차지했고, 제조업은 3.8%에 불과했다. 서비스업과 상업이 70%에 육박하는 것은 역시 애스컴 효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은 타 지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지만 굴포천 하류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주산업이었다.

부평이 본격적인 제조업 도시로 거듭나게 된 계기는 1965년 인천수출산업공단 조성 계획에 의거할 것이다. 이듬해 부평 제1단지를 착공하였고, 1968년에는 경인고속도로와 부평수출산업공단(제4단지)을 착공하였다. 이후 수출 전략 품목 제조업체가 속속 입주하면서 1970년에 인천 수출액의 42.5%를 부평에서 담당하였다.¹⁴

1969년에 고속도로가 놓이고, 1974년에는 경인선 철도가 전철화되었으며 인천항 도크 공사도 완공됨으로써 서울-인천-해외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고도화되었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전철화로 인해 두 교통로의 연선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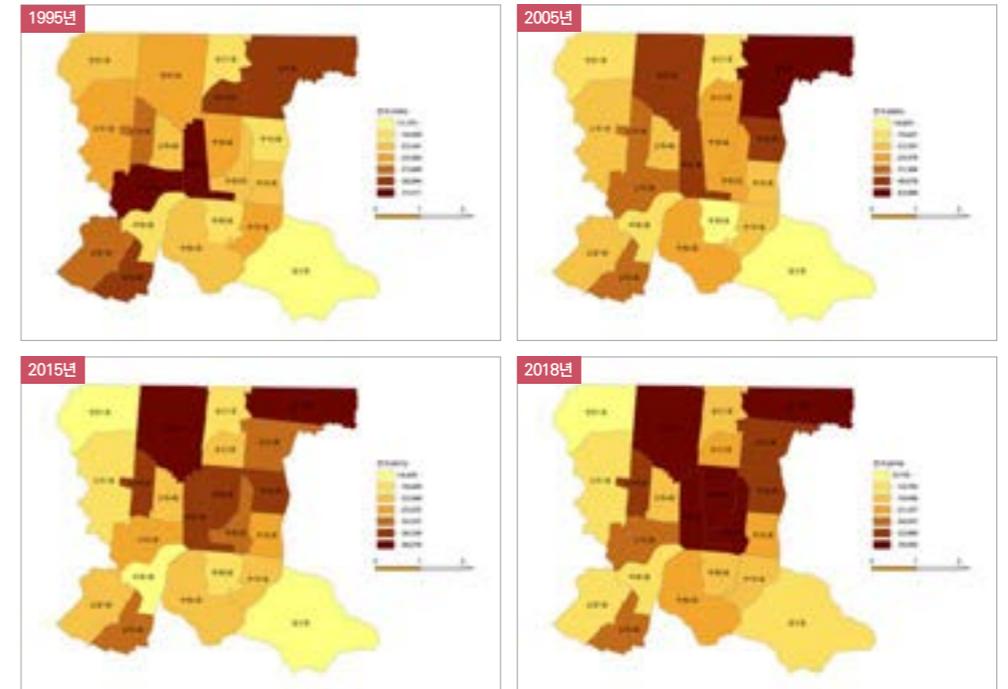
14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의 역사』, 2007, 214쪽.

다. 인프라가 갖춰질수록 제조업은 점차 다각화되었고 고도화, 정밀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한국베어링주식회사, 경인에너지, 인천정유공장 등이 건설되면서 부평 지역은 기계 및 화학공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청천동에 있던 신진자동차는 1972년에 제너럴모터스와 합작 투자하여 GMK(General Motors Korea)로 이름을 바꿔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생산하였다. 이 회사는 1979년에 대우그룹에 병합되어 새한자동차로 다시 이름을 바꾼다. 부평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우리가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일제시기부터 자동차 공업이 존속해 온 것에서 부평이 자동차 산업의 시발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청천동 199번지’는 한국자동차 공업의 메카를 알리는 주소로 상징화되어 있다. 이는 구 한국GM부평공장의 주소이다.

이밖에 전방·동일방직·한일방직 등의 섬유공업, 비철금속, 음식료업, 목재가구업 등은 부평의 주요 수출업체였다. 이러한 추세는 생산액과 공업단지의 규모가 커졌을 뿐, 1980년대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1990년대까지도 부평의 산업과 지역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그만큼 노동자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은 그 시대의 오점일 것이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상권도 확장되었다. 이른바 부평 최고의 상업지구, 변화가, 유흥가는 단연 부평역 북광장 일대였다. 지상뿐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부평모두몰)는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부평의 변화는 1990년대에 백운역과 동암역 부근까지 확장되었다.

1990년대가 되면 부평은 거의 전역이 시가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5년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인천은 광역시가 되었고, 북구에서 계양구로 각기 독립한 부평구는 구청장을 구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본절에서는 인구통계를 통해 1995년부터 2018년까지의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역사통계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부평구 인구의 성장과 분포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통계는 부평구에서 펴낸 통계연보이며, GI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구수, 인구밀도, 성비를 동별로 분석하였다. 『통계연보』 가운데 본고에서 사용한 최신 것은 2019년에 발행된 2018년 통계이며, 1995년, 2005년, 2015년, 2018년을 분석 시점으로 설정하여 10년간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 행정동별 인구수

부평구의 인구 분포를 보면, 부평동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 인구가 많고, 일신동, 갈산1동, 부평6동, 청천1동 등 구의 외곽에 위치한 동은 인구가 적다. 시기별로 인구수의 증감폭은 다양했지만, 부평1·4동, 삼산1동, 청천2동, 부개3동, 산곡2동(확인요망), 갈산2동 등은 대체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많았다.

1995년 부평구의 동별 인구는 부평1동(3만 1,511명)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3만 명을 넘는 동은 산곡3동과 갈산2동이 더 있었지만, 두 동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은 중위권에 속한다. 2005년에는 삼산동의 인구가 6만 3,000명에 달해 가장 많았다. 1995년에 2만 9,000명명이었으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기존의 주공아파트 주변에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도 2001년에 개장하였다. 2000년 전후하여 삼산동에서는 논으로 이용되던 충적지가 대거 주거지와 상업지로 전환되었고, 이에 인구가 급증하였다. 1992년에 갈산동에서 분리, 신설된 삼산동은 결국 2006년에 삼산1동과 2동으로 분동하였다.

2005년에는 부개3동과 청천2동도 인구가 크게 늘었다. 부개3동은 1995년에 1만 8,000명에서 2005년에 4만 명이 2.3배 가량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부개3동의 인구 증가 역시 논으로 이용되던 충적지 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에 기인한다. 청천2동도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1.6배 가량 늘었다.

표 3 부평구의 인구(1995~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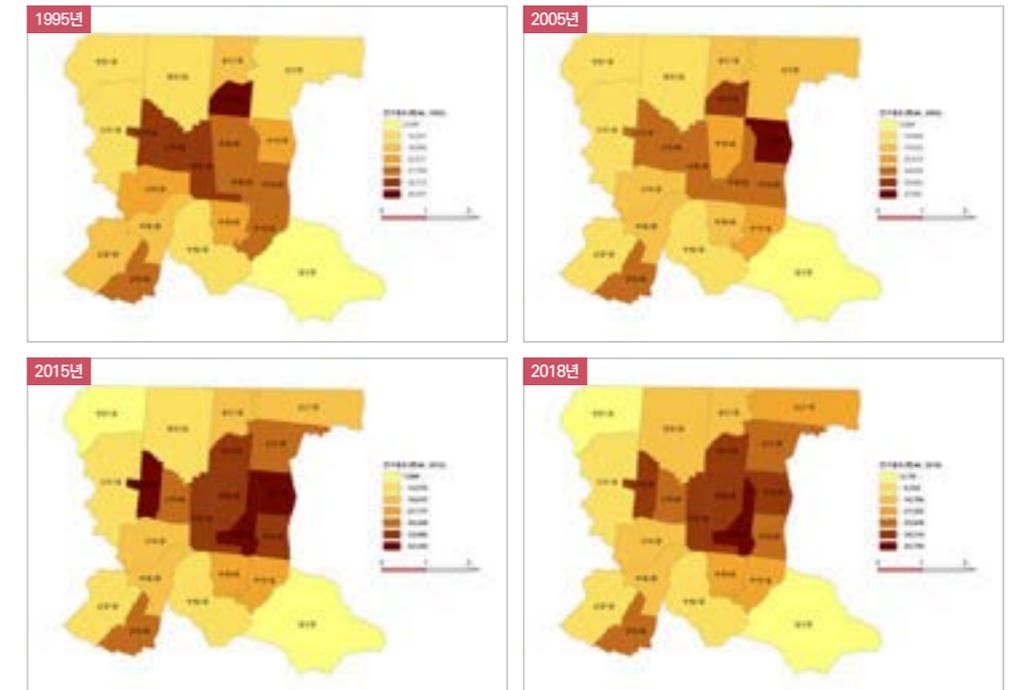
(단위: 명%)

동	연도	연도				증가율		
	1995	2005	2015	2018	1995→2005	2005→2015	2015→2018	
부평4동	25,367	25,828	35,342	39,092	1.8	36.8	10.6	
부평1동	31,511	35,956	35,420	38,487	14.1	-1.5	8.7	
삼산동*	28,589	63,008	40,078	38,035	120.4	-36.4	-5.1	
부평5동	22,211	24,038	32,237	37,511	8.2	34.1	16.4	
청천2동	25,464	40,573	37,741	36,133	59.3	-7.0	-4.3	
부개3동	17,791	40,678	36,329	33,984	128.6	-10.7	-6.5	
산곡2동	27,690	31,306	34,980	33,527	13.1	11.7	-4.2	
삼산동	-	-	31,812	30,919	-	-	-2.8	
십정2동	29,340	31,292	28,487	26,937	6.7	-9.0	-5.4	
산곡3동	31,087	27,920	25,255	23,890	-10.2	-9.5	-5.4	
부평2동	21,909	24,130	21,903	21,327	10.1	-9.2	-2.6	
갈산2동	30,094	25,979	22,260	20,674	-13.7	-14.3	-7.1	
부개2동	20,782	22,762	24,598	19,446	9.5	8.1	-20.9	
산곡4동	23,341	21,955	19,964	18,946	-5.9	-9.1	-5.1	
부개1동	25,426	22,655	19,763	18,184	-10.9	-12.8	-8.0	
갈산1동	17,336	19,621	18,022	17,665	13.2	-8.1	-2.0	
부평6동	17,154	14,825	16,777	17,203	-13.6	13.2	2.5	
부평3동	18,269	16,789	15,632	14,792	-8.1	-6.9	-5.4	
산곡1동	25,319	22,653	18,649	14,653	-10.5	-17.7	-21.4	
십정1동	26,478	23,397	20,982	14,345	-11.6	-10.3	-31.6	
일신동	11,175	13,193	14,428	13,669	18.1	9.4	-5.3	
청천1동	22,082	18,789	15,313	8,718	-14.9	-18.5	-43.1	
계	498,415	567,347	565,972	538,137	13.8	-0.2	-4.9	

* 삼산동은 2005년까지, 2015년과 2018년은 삼산1동

2005년과 2015년 두 시점 사이에서는 인구가 미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정체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듯하다. 즉, 부평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대부터는 정체기에 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기간 3년에 불과하지만 지난 10년 간 감소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유사 이래 인천의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없고, 광역자치체 중 경기도와 함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인천광역시에서 부평구는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다. 부평구 인구 감소는 최근 서구의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5~2015년 사이에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삼산1동이지만, 이는 삼산동이 1동과 2동으로 분동한 것에 기인하므로 인구학적 의미는 없다. 이밖에 청천1동, 산곡1동, 갈산2동 등에서 인구 감소가 컸고, 반대로 부평4동과 5동은 1.3배 이상 인구가 증가하였다. 부평4동과 5동은 부평구 행정동 22개 가운데, 1995년 이래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없는 2개 동이다. 부평역 북광장 전면에 펼쳐진 두 동은 부평 지역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이다.



❖ 행정동별 인구밀도

부평시장, 부평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부평구청, 래미안부평아파트, 신트리공원, 부평고등학교, 역전 호텔촌 등이 모두 이 2개 동 안에 있다. 부평6동도 2005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평1동은 2005~2015년 사이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한 유일한 동이다. 결국 부평동 지역은 부평구의 중심지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인구의 절대수만으로는 인구 분포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인구밀도 현황을 같이 살펴야한다. 각 동별로 보면 인구수와 밀도에는 꽤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부평구 전체적으로는 부평동 일대의 구 중심부에 인구밀도가 높고, 그 주변부로 갈수록 대체로 인구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인구수의 분포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부평구의 인구밀도 분포의 특성으로는 인구수가 많은 곳에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가 적은 곳에 인구밀도가 낮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8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동은 부평5동이고, 부개3동과 부평4동이 그 뒤를 잇는다. 산곡2동과 부평1동, 갈산2동까지가 인구밀도 3만 명/km² 이상이고, 그 아래 부개2동, 산곡4동, 십정2동부터는 큰 폭으로 떨어져 2만 5,000명/km²을 넘지 못한다. 앞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으로 확인된 부평4동과 5동은 면적에 변화가 없으므로 당연히 인구밀도가 꾸준히 높아졌다. 인구밀도의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청천1동으로 1995년 이래 계속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밀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

표 4 부평구의 인구밀도와 성비(1995~2018년)

동	연도				동	연도			
	1995	2005	2015	2018		1995	2005	2015	2018
부평5동	27,087	29,315	38,840	45,194	청천1동	111.9	112.8	117.8	120.1
부개3동	20,687	47,300	42,243	39,516	십정2동	107.6	101.4	104.8	106.4
부평4동	25,116	25,572	33,983	37,588	십정1동	108.6	106.3	105.7	105.4
산곡2동	30,098	34,028	38,022	36,442	일신동	105.4	104.6	105.7	105.2
부평1동	28,646	32,687	32,200	34,988	부개1동	103.8	102.4	101.8	102.0
갈산2동	45,597	39,362	33,727	31,324	산곡1동	103.7	102.4	98.9	101.9
부개2동	27,709	30,349	32,797	25,928	갈산1동	106.8	103.6	101.4	101.7
산곡4동	30,712	28,888	26,268	24,929	청천2동	106.8	101.1	101.2	100.7
십정2동	26,917	28,708	26,135	24,713	부평2동	101.8	100.6	99.4	100.5
삼산2동	-	-	25,248	24,539	부평3동	103.2	100.2	98.3	100.0
부평6동	22,571	19,507	20,971	21,504	부평6동	99.5	100.7	99.6	99.5
부개1동	26,764	23,847	21,718	19,982	부평4동	103.6	101.6	99.5	99.2
삼산1동	8,433	18,586	18,816	17,857	부평5동	101.9	101.5	100.6	99.0
산곡3동	21,739	19,524	17,661	16,706	산곡2동	99.6	99.4	98.1	97.5
갈산1동	16,202	18,337	16,687	16,356	삼산1동	101.0	99.5	97.1	96.2
부평3동	18,269	16,789	15,632	14,792	부개2동	103.5	101.3	96.9	96.1
청천2동	9,160	14,595	13,576	12,997	갈산2동	98.9	97.8	96.2	95.9
부평2동	9,609	10,583	9,607	9,354	산곡3동	97.1	96.3	96.2	95.5
십정1동	14,792	13,071	11,722	8,014	삼산2동			95.9	94.9
산곡1동	12,231	10,943	9,009	7,079	부평1동	98.3	96.3	94.5	93.5
청천1동	10,223	8,699	7,089	4,036	부개3동	102.2	99.1	95.1	93.5
일신동	2,599	3,068	3,355	3,179	산곡4동	97.5	95.5	93.8	93.2
계	15,585	17,741	17,687	16,817	계	102.7	100.6	99.2	98.6

성비(性比, sex ratio)는 여자의 인구수를 100으로 지수화하여 남자의 수를 나타낸 수치로 단위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성비가 100을 넘는 지역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남초 지역을, 반대로 100을 넘지 못하는 지역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여초 지역을 의미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남자의 일손이 더 필요한 광산 지역이나 중화학 공업도시, 군인이 많은 휴전선 접경 지역 등은 대표적인 남초 지역이고, 여성 고령 인구가 많은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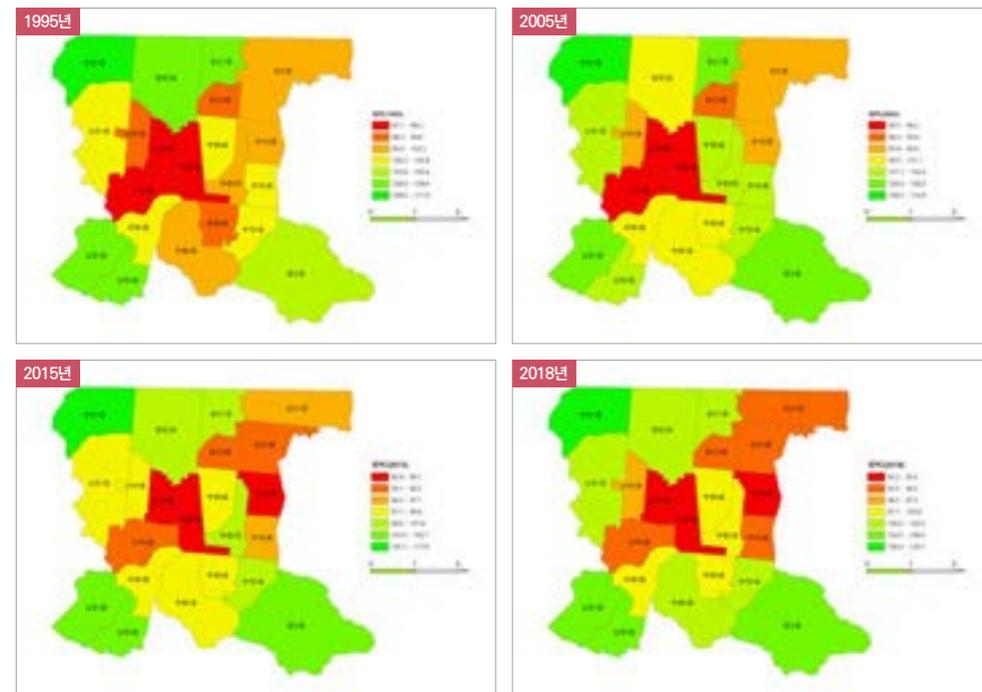
촌 지역이나 서울·부산·대구 등의 대도시 등은 여초가 일반적이다. 도시에서 여초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특히 젊은 여성들의 취업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성비는 101.3으로 약한 남초 지역이다. 세부적으로는 옹진군의 성비가 132.7에까지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 두 번째는 124.4의 울릉군이다. 부평구는 2005년까지 남초 지역이었으나 이후 여초 지역으로 바뀌었다. 2018년 현재 부평구의 성비는 98.6(여자 27만 987명, 남자 26만 7,150명)으로 여자가 살짝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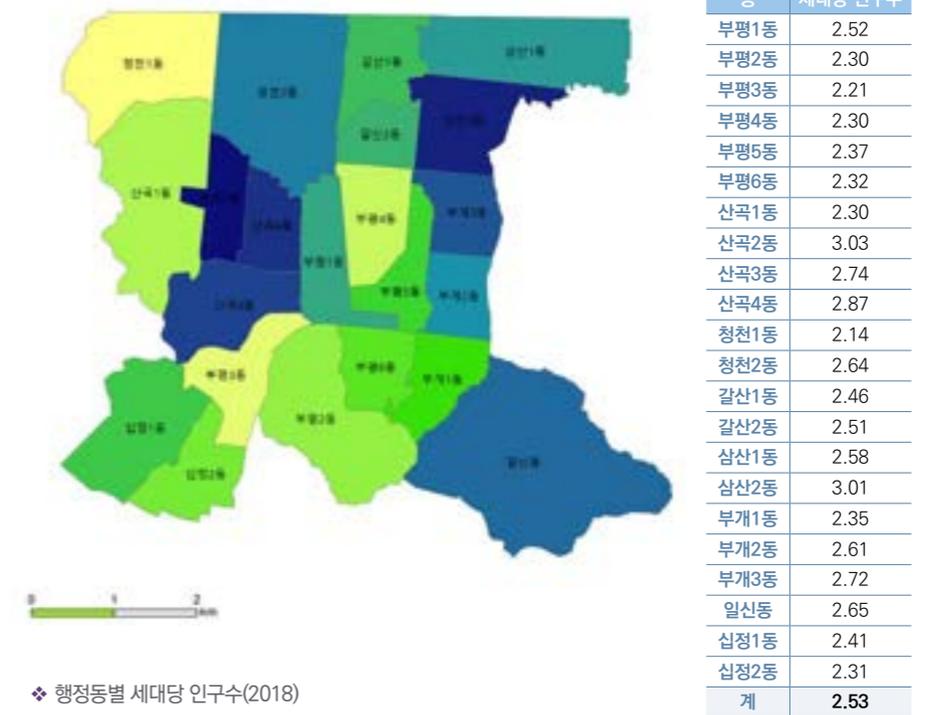
여초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산곡4동으로 성비는 93.2이다. 여자 100명당 남자가 93명 정도 거주함을 의미한다. 산곡4동은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그리 많은 지역이 아니고 최근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기능적으로도 거의 전역이 아파트 단지와 그 주변 상가로만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주거 중심 지역이다. 두 번째로 성비가 낮은 부개3동 역

시 산곡4동과 비슷한 상황이다. 반대로 남초 현상을 보이는 지역은 청천1동(120.1), 십정2동(106.4), 십정1동(105.4) 등이다. 부평구에서 도시 시설 밀도가 가장 낮은 일신동도 성비 105.2의 남초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1995년 이래 언제나 남자 인구가 더 많았고, 반대로 산곡4동, 부평1동, 산곡3동, 갈산2동은 줄곧 여자 인구가 더 많았다. 인구수가 많고, 인구밀도도 높은 부평 중심 지역, 즉 부평4동과 5동은 2005년까지 남초 지역이었다가 지금은 여초 지역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부평구의 세대당 인구수는 2.53명이다. 세대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산곡2동으로, 삼산2동과 함께 3명이 살짝 넘고, 가장 적은 곳은 청천1동으로 2.1명이다. 세대수는 인구수와 대체로 비례하는데 부평4동, 5동, 1동이 상위 세 지역을 차지한다. 상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1인 세대수가 많은 경향이 있는데, 위 세 동은 차례로 세대당 인구수가 2.30명, 2.37명, 2.52명으로 구 평균(2.53명) 보다 낮다.



❖ 행정동별 성비



❖ 행정동별 세대당 인구수(2018)

고을 이름, 부평(富平)은 온화한 느낌을 준다. ‘부’든 ‘평’이든 음이 부드러우면서 친근한 느낌을 준다. 그 뜻도 여유롭고 넉넉하여 안정감을 준다. 부평은 20세기 초까지 한국 전체가 그렇듯이 전형적인 농촌 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인천과 별개의 고을로서 수백 년을 단위 지역을 지탱해 왔다.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한강으로 유입하는 굴포천이 만들어 놓은 충적지를 기반으로 전근대적 구조 안에서 넉넉한 삶을 영위할 만한 생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부평의 운명은 인천과 서울이라는 두 도회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에서 전기를 맞이한다. 19세기 말 조선은 서양 세력에 의해 서서히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편입되고 있었다. 수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 인천은 서양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첫인상을 주는 대표적인 고을이었다. 대부분의 외부인들은 인천을 통해 부평을 경유, 서울로 들어갔다. 이에 경인로는 가장 일찍이 신작로로 정비된 도로 중의 하나이고, 그 가운데 부평이 있었다. 20세기를 혁명의 세기라고 한다면 여러 혁명 가운데 교통혁명도 한자리 차지할 것이고, 이를 혁명으로 부르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철도였다. 한국에서 철도는 서양의 기술과 자본으로 건설되었고, 수도 서울과 인천을 잇는 노선은 그들의 시각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그들이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은 서울까지 이동하는 수단이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평은 19세기 말부터 조금씩 외부 세계에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그전까지의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평이 새로운 역사를 기술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결정적인 사건은 역시 경인철도이다. 철도가 단순히 부평을 경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천-노량진 사이 5개 철도역 중의 하나가 부평에 유치된 것이다. 부평에 역이 들어선 것은 1899년이고, 이때부터 부평의 중심성은 원 부평 읍내(계산동)에서 부평역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전되고 있었다.

부평역 일대가 부평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계기는 일본육군조병창의 건설이었다.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조병창이 부평1동, 산곡3·4동 일대에 주둔하게 되면서 주변 지역은 기계공업 중심의 공업 지역이 형성되었고, 이로부터 인구의 유입이 촉진되면서 취락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비농업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 및 상업 종사자들도 더불어 늘어났다. 이렇게 부평은 농촌

경관을 탈피하고 조금씩 도시적 면모를 갖춰나가기 시작하였다.

광복 후 부평은 약간의 슬럼프에 빠진다. 조병창으로 불붙은 공업화는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그 불씨가 꺼졌기 때문이다. 이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이 에스컴 시티의 건설이었다. 에스컴은 조병창보다 훨씬 더 큰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였다. 1945년부터 1973년까지 에스컴이 존재했던 기간은 전체 부평 지역사에서 가장 다이나믹했던 시기였고, 동시대 어느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시기였다. 어쩌면 부평의 동시대 최고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에스컴이 미국식 서양 문화를 배달해 준 것도 한 몫하였다. 한때 부평은 전국에서 몇 안되는 서양식 첨단 문화가 향유되던 지역이었다.

네 번째 계기는 1970년대 수출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이다. 이때부터 부평은 본격적으로 공업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부평의 공업단지는 규모나 기술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부평은 처음부터 경공업보다는 중공업 중심의 공업 도시로 디자인되었다. 특히 자동차 공업 부문은 부평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평은 일제시기부터 자동차 생산을 주도하고 있었고, 이후 한국 자동차 공업의 메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오래 전부터 기반을 닦아온 기계공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부평은 수출 역군의 대표 주자였다. 수출 주도 경제 체제 아래에서 부평은 주안과 더불어 인천의 양대 축을 담당하였고, 서울의 구로 및 영등포와 연계하여 이른바 경인공업지역을 형성하였다. 이 공업 벨트는 어쩌면 1899년 경인선 철도가 놓였을 때, 이를 예견한 사람은 많지 않았겠지만 이미 예고된 결과처럼 보인다.

한국의 산업이 고도화되기 시작하는 1990년대부터는 부평의 산업구조도 바뀌기 시작하였다. 부평의 주산업 역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상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고, 서울과의 접근성 때문에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부평역 북쪽의 부평4동과 부평5동의 상업 지구가 부평의 대표 이미지로 부각되었고, 실제 부평역은 그 배후지가 서울과 인천 전역에까지 미칠 정도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탈산업사회에서 부평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할 시점을 맞이하였다. 캠프 마켓이 철수하면서 마련된 부지와 제조업이 번성했던 옛 공업단지는 점차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전화하고 있으며, 과거 농업을 지탱해준 토지(논) 위에서는 더 이상 작물이 자라지 않는다. 그 위에서 사람들이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모여 살고 있다. 부평 인구의 상당수는

생활 근거지를 부평이 아니라 서울에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가(地價)가 싸고, 2000년 대 이후 전철 노선의 확충,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고속도로의 신노선 개발, 그리고 자가용 보유의 급증 등, 교통 조건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제조업은 더 이상 지역을 지탱해줄 수 없으며, 배후지가 확보되지 않는 상업 지역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 부평은 제조업이 워낙 강했던 지역이었기에 상대적으로 문화산업 부문은 축적된 경험치도 적고 인프라도 약하다. 이는 역으로 그 개발 잠재성이 크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이에 친환경 마인드가 전제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 인문학적 전통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규장각, 『호구총수(戶口總數)(1789)』,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전총서(영인본), 1971.
 부평사편찬위원회, 『역사』,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이한창, 「민적통계표(民籍統計表)」, 『민적통계표의 해설과 이용방법(컴퓨터와 인문학3)』,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1997.
 조선총독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태학사(영인본), 1985.
 한국학문헌연구소, 전국지리지 제2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아세아문화사(영인본), 1983.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한글학회, 198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8(경기편 하·인천편), 한글학회, 1986.
 越智唯七,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중앙시장, 1917.

기타

〈지도자료〉

- 고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서비스 <https://kyudb.snu.ac.kr/index.jsp>)
 - 『해동지도(海東地圖)』, 18세기 중반.
 - 김정호, 『청구도(靑丘圖)』, 1834.
 - 김정호, 『동여도(東輿圖)』, 1859?.
 - 김정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
 - 1872년 지방지도





2. 1:50,000 지형도

1)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 1890년대

일본 육군참모부 육지측량부, 한성 1895년 측도(추정), 1911년 인쇄발행
 일본 육군참모부 육지측량부, 과천 1895년 측도(추정), 1911년 인쇄발행
 일본 육군참모부 육지측량부, 제물포 1895년 측도(추정), 1911년 인쇄발행
 일본 육군참모부 육지측량부, 부평 1895년 측도(1899년 재판), 1911년 인쇄발행(추정)

2) 일제시기 : 1910년대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김포 1916년 측도(1917년 재판), 1919년 인쇄발행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경성 1918년 측도 (1918년 재판), 1919년 인쇄발행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인천 1917년 측도 (1918년 재판), 1918년 인쇄발행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군포장 1917년 측도 (1918년 재판), 1919년 인쇄발행

3) 1970년 전후

김포 1968년 편집, 1969년 발행; 1974년 편집, 1975년 발행
 서울 1968년 편집, 1969년 발행; 1974년 편집, 1976년 발행
 인천 1968년 편집, 1969년 발행; 1974년 편집, 1976년 발행
 안양 1974년 편집, 1975년 발행

4) 2000년대

김포 1975년 편집 1994년 수정 2002년 인쇄
 서울 1987년 편집 2001년 수정 2002년 인쇄
 인천 1987년 편집 2001년 수정 2002년 인쇄
 안양 1987년 편집 2001년 수정 2002년 인쇄



3. 행정지도

행정자치부, 「부평구행정지도」, 『전국행정지도』 권 I, (주)동서지도정보, 2001.
 행정자치부, 「인천광역시행정지도」, 『전국행정지도』 권 I, (주)동서지도정보, 2001.
 조찬석, 「옛 부평지역의 땅이름에 관한 조사 연구 : 특히 부평구를 중심으로」, 『기전문화연구』27, 1999.

〈통계 자료〉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8회 부평구 통계연보(1995년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1996.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18회 부평구 통계연보(2005년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6.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28회 부평구 통계연보(2015년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6.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31회 부평구 통계연보(2018년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제 4 장

전근대의 부평

- 제1절 _ 삼국시대 해양 방어의 요충지 계양산성
- 제2절 _ 온천(溫泉) 소동과 부평의 읍격 강등
- 제3절 _ 조선 후기 부평 지역의 호구 양상
- 제4절 _ 조선시대 부평 출신 과거 합격자들
- 제5절 _ 일제의 인천 개항 강요와 부평의 방어 시설 설치
- 제6절 _ 20세기 초 부평 지역의 사립학교 설립

제4장 전근대의 부평

임 학 성(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 제1절 | 삼국시대 해양 방어의 요충지 계양산성¹

1. 계양산성의 현황

계양구 계산동에는 계양산(해발 395m)이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진산(鎭山)으로 ‘안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하였다. 계양산에는 예로부터 고성(古城)으로 전해 오던 ‘계양산성(桂陽山城)’ 터가 있다. 계양산성은 인천 및 부평 지역의 고대 문화를 상징하는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둘레가 1,180m, 면적이 6만 2,863㎡에 달해 삼국시대의 산성으로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² 1992년 5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된 계양산성은 잘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아 올려 만들었는데, 성벽이 잘 남아 있는 곳은 그 높이가 7m에 이른다. 성곽은 계양산 정상이 아닌 동쪽의 낮은 봉우리를 중심으

1 이 부분은 견수찬의 『계양산성』(『인천광역시사 10 : 인천의 관방유적(상)』, 인천광역시, 2019)에 수록된 글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2 『계양산성 지표조사』, 인천광역시, 1997 및 『계양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2.



❖ 계양산성 전경(동→서)(출처 : 계양산성박물관)

로 축조되었다.

산성의 형세는 동남에서 서북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놓인 장타원형에 가까운데, 서남 쪽이 튀어나오고 북동쪽이 들어간 모습이다. 성벽은 동문지 주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체성부(성벽의 몸체 부분)가 대부분 온전히 남아 있지만, 외벽은 면적이 80% 가까이 유실되어 남벽과 서벽, 북벽의 일부 구간에서만 간간히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10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북문지와 치성 2개소, 집수시설 3개소, 대형 건물지 1개소, 건물지 9개소, 제사유적 1개소 등의 성내 잔존유적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유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제2차 발굴이 이루어진 곳이 ‘동문지’, 그리고 북쪽 최정상부의 산불 초소 일대와 남동쪽 끝의 육각정 일대가 ‘장대지(將臺址)’로 추정되고 있다.



❖ 계양산성 성벽(외벽)의 잔존 현황(출처 : 계양산성박물관)

2. 계양산성에 대한 옛 기록들

계양산성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지리지와 읍지의 부평도호부 고적조에 간략한 유적의 현황만 기록되어 있다. 계양산성에 대한 문헌기록의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6세기 전반)

계양산 고성(桂陽山古城)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1,937척이다.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7세기 중엽)

계양산 고성(桂陽山古城)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1,937척이다. 삼국시대 쌓았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 『여지도서(輿地圖書)』(18세기 중엽)

계양산 고성(桂陽山古城)은 그 터만 남았다.

○ 『경기지(京畿誌)』(19세기 전반)

계양산 고성(桂陽山古城)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1,937척이다. 지금은 모두 무너졌고 최상부에 흔적이 남아있다.

○ 『대동지지(大東地志)』(19세기 중엽)

고성(古城)은 안남산(安南山)의 동남쪽에 있는데, 둘레가 1,937척이다.

○ 『경기읍지(京畿邑誌)』(19세기 후반)

계양산 고산성(桂陽山古城)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1,927척이다.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19세기 말)

계양산 고성(桂陽山古城)은 돌로 쌓았다. 둘레는 1,937척이었으며,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다.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20세기 초)

부평 계양산성은 삼국시대에 설치한 것으로,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937척이다. 지금은 폐성(廢城)이다.

계양산성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시기가 앞서는 것은 1530년(중종 25)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도호부 고적조에 실린 내용이다. 이 기록을 통해 계양산성이 “돌로 쌓은 성”이며, “둘레 1,937척의 규모”라는 사실, 그리고 당시에 “무너져 ‘고성(古城)’으로 불린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후의 기록들은 대부분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17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국여지지』와 대한제국기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는 “삼국시대에 쌓았다”고 성의 연혁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문헌 기록으로 미루어 계양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었

으나, 16세기 이전에 이미 폐허가 되어 이후 ‘고성(古城)’으로 칭해지며 그 터만 전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도에는 계양산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살펴보자.

○ 『광여도(廣輿圖)』 부평부(18세기 후반)



❖ 『광여도』에 나타난 '고산성'(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아 건물이 위치한 부평부 중심지의 북쪽에 계양산 자락이 겹겹이 그려져 있고, 주봉 동쪽으로 이어지는 산봉우리 위에 겹줄로 산성을 표시하고 그 위에 ‘고산성(古山城)’이라고 표기하였다.

○ 『계양산사적도(桂陽山事跡圖)』(1916)³



❖ 『계양산사적도』에 나타난 계양산성(출처: 계양산성박물관)

1916년 6월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우에바야시 게이지로(上林敬次郎)가 계양산 일대의 유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로, 지형도 위에 시가지와 계양산 일대의 유적 현황을 표시하였다. 석탑과 절터, 고분, 고성지를 기호로 표시하고 범례를 따로 두었다. 계양산성은 도면의 북동쪽에 표시되어 있는데, 성곽의 북동쪽 1/3 정도는 표시하지 않았다.

3 『大正5년 계양산 고성 등 조사보고서』(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수록.

○ 『근세 5만분의 1 지형도(近世五萬分之一地形圖)』(1918)



❖ 『근세 5만분의 1 지형도』에 나타난 계양산성(출처 : 계양산성박물관)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서 측량한 축척 1/50,000의 지형도로, 계양산 일대의 정밀한 지형과 일제강점기 초 부평의 도로와 시가지 모습이 상세히 표현되어 있다. 계양산 주봉의 동남쪽에 계양산성 잔존 성곽의 범위를 표시하고 ‘고산성’이라 기입하였다. 『계양산사적도』에 표기되지 않았던 산성의 북동쪽 부분을 포함해 성곽의 외형과 잔존 범위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

○ 『조선성지실측도(朝鮮城址實測圖)』(20세기 전반)⁴



❖ 『조선성지실측도』에 나타난 계양산성(출처 : 계양산성박물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성곽의 실측 도면 자료이다. 자료에는 도면의 제작자나 제작 연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자료의 내용과 성격 등으로 미루어 조선총독부 산림과에서 ‘국유림 구분조사(國有林區分調査)’가 실시되던 1911~1924년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⁵

이 자료에는 1/6,000 축척의 지형도에 계양산성의 현황 실측 성과를 기입한 도면이 수록되어 있다. 도면 우측에는 “桂陽山城 國有林 古城址”라 도면의 제호가 기입되어 있고, “京畿道 富川郡 桂陽面 林鶴里, 富內面 富平里”라 소재지가 기입되어 있다. 성내 동남쪽에는 ‘富內面共同墓地’라 표기되어 있어, 도면이 작성되던 시기에 이미 계양산성이 공동묘지화되는 등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곽 주변에는 각기 다른 인물의 성명이 기입되어 있는데 해당 필지의 토지주로 추정된다.

4 조선총독부 산림국, 『조선성지실측도』(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5 太田秀春, 『朝鮮城址實測圖와 倭城』, 『한국문화』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0.

3. 계양산성의 주요 발굴조사 및 성과

1) 제1차 발굴조사(2003.8.~2003.10) : 서벽

계양산성에 대한 첫 발굴조사로, 성벽의 잔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팔각정 부근의 서벽을 절개하여 그 내외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성벽은 자연 구릉의 경사진 곳을 굴착한 후 안쪽은 깎돌로 채우고 외벽은 장방형의 깎돌을 다듬어 쌓아 올렸는데, 잔존 성벽은 높이가 5m, 폭은 4m 정도이고, 성벽의 기울기는 8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기와, 철축 등 다수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 서벽 발굴 현황 : 제1차 발굴조사(출처 : 계양산성박물관)

2) 제4차 발굴조사(2009.5.~2009.8) : 북문지 일원

계양산성의 주 출입문으로 추정되는 북문지와 부근 지역의 유구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조사에서 북문지로 추정된 지점과 그 좌우의 성벽, 성문 안쪽의 평탄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해 북문의 문지와 ‘ㄱ’자로 꺾인 통로부, 시대를 달리하는 2개의 문루와 그 기둥자리, 배수구, 문확석(門樞礎石)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북문이 원래 현문식(縣門式) 구조였으며 왜성의 영향을 받아 개축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인접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성내 건물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토기와 기와가 다량 출토되었고 화살촉 등의 철제 유물도 발견되었다.



❖ 북문지 발굴 현황 : 제4차 발굴조사(출처 : 계양산성박물관)

3) 제7차 발굴조사(2015.5.~2015.8) : 북동쪽 치성 및 건물 추정지

지표조사 당시부터 비교적 뚜렷한 치성(雉城)의 흔적으로 여겨졌던 북동쪽 치성 추정지 2곳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치성의 잔존 유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치성은 성곽의 초축 이후 기존의 성벽에 ‘토심 석축’ 기법으로 덧붙인 시설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측 성벽 인근의 건물 추정지 2곳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건물지의 흔적이 확인되어 이후 8차 발굴조사가 이어졌다.



❖ 북동쪽 치성 발굴 현황 : 제7차 발굴조사(출처 : 계양산성박물관)

4) 제8~9차 발굴조사(2016.5.~2017.10) : 북동쪽 건물 추정지, 집수지 등

7차 발굴조사 때 건물의 기초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된 2개 지점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하여 23.7×10.2m 규모의 대형 건물지, 집수지, 제사유구를 확인하였다. 대형 건물지는 성내에서 가장 높고 전망이 뛰어난 곳에 두꺼운 판축 흙벽으로 지었다는 점에서 계양산성의 핵심 건물이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성내 북동쪽 완사면에서는 방형의 집수지와 자연 암반을 다듬어 만든 제사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집수지의 내부 구조와 인접 지역의 관련 유적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이어졌다.



❖ 북동쪽 대형 건물지 유구 발굴 현황 : 제8~9차 발굴조사(출처 : 계양산성박물관)

4. 계양산성의 연혁과 역사적 가치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고대사회에서 계양산성은 서쪽으로 서해와 강화도 일대, 서북쪽으로 한강 하류와 북동쪽으로 김포평야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때문에 한강 하류 지역을 군사적으로 제어하고 주변의 넓은 평야지대를 통제하

기 위해 계양산성을 축조·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 이미 폐허가 된 ‘고성(古城)’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계양산성을 처음 쌓은 시기와 그 주체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한 역사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하는 역사기록은 대부분 계양산성의 초축 시기와 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삼국시대에 쌓은 것이라고만 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양산성의 세부 연혁과 역사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찍부터 문화재 지표조사와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유적에 대한 조사자료와 1,000여 점의 유물이 체계적으로 확보됨으로써, 계양산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었고 그 평가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가 촉진되었다.



❖ 계양산성과 주변의 고대 산성(1918년 지도)
(출처 : 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 『인천의 고성 계양산성』,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 2015)

- ① 제1~3차 발굴조사에서는 성벽 조사와 집수정 출토 목간의 탄소연대 측정값 등을 근거로 계양산성이 한성백제의 유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② 제4차 발굴조사에서는 현문식 문지와 보축 성벽, 왜성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 ③ 제5~6차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후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다수의 건물지와 생활공간이 확인되었다.
- ④ 제7차 발굴조사에서는 후대에 '토심석축' 기법으로 2개소의 치성을 추가 설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⑤ 제8~9차 발굴조사에서는 두꺼운 판축 벽체를 지닌 대형 건물지와 제사유적, 집수지가 확인되어 계양산성이 통일신라시대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초축 시기와 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술조사 초기에는 제1~3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벽의 축조 방식과 목간, 토기편, 원저단경호 등 백제계로 판단되는 출토 유물을 근거로 한성백제 후기(5세기)에 축조된 산성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4차 발굴조사 이후 계속 이어진 학술조사에서 후기 신라(6세기)와 통일신라(8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유구와 유물이 다량 확인되면서 계양산성을 6세기 후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신라에 의해 축조된 후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이 지역의 '치소성(治所城)'으로 활용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학술조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점차 정리되어 나가겠지만, 계양산성이 한강 하류와 서해안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삼국의 치열한 각축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이었고 주 사용시기가 통일신라시대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토심석축기법'을 사용한 치성, 판축 벽체를 사용한 대형 건물지 등 축성법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고대산성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제2절 온천(溫泉) 소동과 부평의 읍격 강등

1. 15세기 전반 부평의 호구 및 농지 규모

조선 왕조는 그 이전 왕조와 비교할 때 군현제가 체계적, 실제적으로 정비·구축된 시기였다. 부평은 조선 초(1413년)부터 읍격(邑格)이 중상위에 해당하는 '도호부(都護府)'로 시작하였다. 그 읍격을 정하는 기준은 호구(戶·口)와 농지의 다과였는데, 이는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고을을 대우하려는 현실적 판단도 작동하였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선 초 전국 300여 개의 고을(군현)의 호구와 농지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세종실록』의 부록 성격으로 작성한 『세종실록지리지』이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대체로 15세기 전반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15세기 전반 경기도 각 군현의 호와 농지 규모

(단위: 호·결)

邑格	郡縣名	戶數	墾田數
목(牧: 正3品)	광주(廣州)	1,436	16,269
도호부 (都護府: 從3品)	강화(江華)	2,445	5,606
	수원(水原)	1,842	19,154
	양주(楊州)	1,481	15,190
	여흥(驪興)	538	6,145
	원평(原平)	494	5,325
	남양(南陽)	487	4,348
	부평(富平)	429	5,296
군수 (郡守: 從4品)	철원(鐵原)	351	4,343
	해풍(海豐)	792	6,564
	안성(安城)	424	5,436
	양근(楊根)	388	4,343
	인천(仁川)	357	2,601
	안산(安山)	302	2,289
	삭녕(朔寧)	233	3,854

邑格	郡縣名	戶數	墾田數
현령 (縣令 : 從5品)	용인(龍仁)	457	5,988
	김포(金浦)	318	3,032
	양천(陽川)	222	1,877
	진위(振威)	221	2,841
	장단(長湍)	170	1,645
	영평(永平)	138	2,487
현감 (縣監 : 從6品)	이천(利川)	1,026	7,532
	고양(高陽)	679	6,326
	교하(交河)	590	3,956
	통진(通津)	458	5,361
	양성(陽城)	425	4,742
	천녕(川寧)	413	4,573
	음죽(陰竹)	390	3,163
	포천(抱川)	371	3,948
	임강(臨江)	364	3,934
	양지(陽智)	346	2,068
	금천(衿川)	327	2,762
	가평(加平)	288	3,057
	임진(臨津)	274	2,571
	지평(砥平)	267	3,335
	과천(果川)	244	3,128
	교동(喬桐)	221	1,986
	적성(積城)	212	2,663
	연천(漣川)	186	1,939
	마전(麻田)	146	1,171
	안협(安峽)	140	1,422
* 총 41개 군현의 평균치 : 510戶 / 4,738結			

❖ 출처 : 『세종실록지리지』

15세기 전반기 경기도는 전체 41개 고을로 구성되었는데 목(牧)이 1곳, 도호부가 8곳, 군(郡)이 6곳, 현령 현(縣)이 6곳, 그리고 현감 현이 20곳 등이었다. 41개 고을의 호구와 농지 규모를 보면 우선, 평균치는 510호에 4,738결이었으며, 부평은 호구수가 429호로

14번째⁶, 농지(墾田)가 5,296결로 13번째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다.⁷ 호구 규모는 경기도 전체 평균치보다 적었던 반면, 농지 규모에서는 평균치보다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호부 8곳 중에서는 6번째(간전) 내지 7번째(호수)의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읍격은 고정불변인 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발생하면 읍격이 상승하거나 반대로 하락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사건이 바로 세종 때 부평에서 발생한 일명 ‘온천 소동’이었다.

2. 세종의 부평 온천 조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온수동(溫水洞)’이란 마을이 있다. 서울지명사전에 이 마을의 지명 유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온수동 동명은 옛날 이 지역 일대에서 더운물이 나왔기 때문에 ‘온수골’이라 하고, 이를 한자명으로 온수동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온수동은 조선시대에는 부평도호부 수탄면 온수동이었으며, ……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부평군이 인천군(부내면과 다소면을 인천부로 하고 남은 지역)과 합하여 부천군이 되고, 부평군 수탄면 온수동을 부천군 계남면 온수리로 칭하였다. 1931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05호에 의해 계남면이 소사면으로 바뀌었고, 1941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253호로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온수리가 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에 의한 서울 시역 확장으로 부천군 소사읍 일부가 서울 시역에 편입될 때 온수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온수동이 되었다. …… 1980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로 영등포구에서 구로구가 분리 신설됨에 따라 구로구에 속하여 오늘에 이른다.

6 경기도 41개 군현 가운데 호수가 부평도호부보다 많은 곳은 ①강화도호부, ②수원도호부, ③양주도호부, ④광주목, ⑤이천현, ⑥해풍군, ⑦고양현, ⑧교하현, ⑨여흥도호부, ⑩원평도호부, ⑪남양도호부, ⑫통진현, ⑬용인현 등이었다.

7 경기도 41개 군현 가운데 간전수가 부평도호부보다 많은 곳은 ①수원도호부, ②광주목, ③양주도호부, ④이천현, ⑤해풍군, ⑥고양현, ⑦여흥도호부, ⑧용인현, ⑨강화도호부, ⑩안성군, ⑪통진현, ⑫원평도호부 등이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온수'역

행정구역상 구로구에 속해 있는 온수동은 원래 조선시대 때 부평 수탄면에 속해 있었으며, 그 지명 유래는 한자 이름 풀이 그대로 온천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온수동이 그 역사의 진원지였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여하튼 부평 땅에 있었던 온수동, 즉 온천 때문에 부평이 '도호부'(종3품)에서 '현'(종5품 현령)으로 그 읍격이 강등된 사건이 있었다.⁸

이 사건은 1434년(세종 16) 추운 겨울인 11월 29일에 처음 시작되었다. 세종 임금이 봉상시의 관료 이사맹(李師孟)을 부평에 보내 온천을 찾아보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부평에 있다는 온천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온천 조사 지시로부터 무려 4년이 지난 1438년(세종 20) 10월 4일에 세종은 다시 이조(吏曹)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8 『여지도서(輿地圖書)』상, 부평도호부, 건치연혁조. "세종 20년(1438) 현령으로 강등하였다가, (동왕) 28년(1446)에 복구하였다".

이조(吏曹)에 명령을 내리기를, "온수(溫水)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자못 신비로 운 효험이 있으므로, 내가 이를 구하는 것은 실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지, 옛 사람들이 신선을 구하는 뜻과는 다르다. 부평부(富平府)에 온수가 있다는 것은 비단 안팎으로 떠들 뿐만 아니라 그 고을 사람들도 역시 그 실정을 숨기지 못하나, 단지 그 소재처를 분명히 말하지 아니할 뿐이다.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찾아보게 하였으나 관료나 아전이나 백성들이 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혹시 장래에 번거롭고 소요스러운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한 목소리로 감추거나 숨기니, 어그러짐이 심한 것이다. 이제 만약 전처럼 굳이 숨기면 고을의 명칭을 깎아내려서 그 죄를 징계할 것이요, 만일 다른 고을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영 명칭을 회복시킬 리가 없을 것이니, 이런 사의(事意)로써 공문을 보내어 효유하게 하라"하였다.⁹

위 기사 내용을 보면 세종은 분명 부평에 온천이 있다고 확신하였는데, 부평의 관료 및 아전, 백성들이 온천 발견 시 그 폐단을 염려하여 숨기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세종은 그 징벌로 계속 온천의 존재를 숨기면 고을의 명칭, 즉 읍격을 깎아내리겠다는 공문을 내려 타이르라고 명령하였다.

이후 부평에 온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나타나 관료와 수백 명의 일꾼들을 보냈으나 역시 온천을 찾지 못하였다.

승(僧) 신조(信照)라는 자가 부평에 온천이 있다고 말하므로, 사재감 정(司宰監正) 이사맹(李師孟)과 경기 경력(京畿經歷) 권준(權遵)을 보내 역군(役軍) 2백 명을 데리고 땅을 파서 찾았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찾지 못하였다.¹⁰

이에 세종은 앞서 공문을 내려 밝힌 대로 1438년(세종 20) 11월 8일 부평을 종 3품 수령이 부임하는 '도호부'에서 종 5품 현령이 부임하는 '현'으로 강등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부평 고을에 패심죄가 적용된 사례였는데, 이는 단지 읍격의 강등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인적인 징벌도 동반하였다.

9 『세종실록』, 권83, 세종 20년 10월 4일.

10 『세종실록』, 권83, 세종 20년 10월 29일.

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 이사맹(李師孟)이 아뢰기를, “부평의 아전과 품관들이 온정(溫井)의 소재지를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므로, 조사하기가 어렵사옵니다”하니, 즉시 의금부에 명령하여 전 판사(判事) 남급(南汲)과 향리(鄕吏) 김우(金雨) 등 5인을 국문(鞫問)하게 하였다.¹¹

이로써 부평 온천 소동은 그대로 끝나는 듯했으나, 처음 온천 조사의 책임을 맡은 이사맹은 조사를 끝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다. 1439년(세종 21) 2월 12일 실록 기사를 보면, 부평 사람들과 아전들이 온천의 존재를 감추고 숨기므로 그들에게 온천을 고하게 할 방안을 세종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경기도 경차관 사재감 부정 이사맹이 아뢰기를, “각 고을에서 온정(溫井)으로 의심될 만한 곳은 해빙되기를 기다려 굴착하여 시험하겠사오나, 단지 부평 사람들과 아전들만은 온천이 있는 것을 감추거나 숨기므로, (함경도) 4진(鎭)에 입거시켰다 하더라도 그 뒤에 다시 논죄할 법이 없사와 조금도 두려워하는 뜻이 없고, 스스로들 말하기를 ‘굳게 숨긴다면 영영 수고하고 소요스런 폐해가 없을 것이다.’고 하옵니다. …… 이 고을 사람과 아전들은 왕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그러지는 죄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중한 법전을 써서 비록 추려서 입거하게 하였더라도 해로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향품관(留鄕品官)이나 토성품관(土姓品官)들은 한 고을 일을 쉽게 알 수 있사오니, 논죄할 법이 없다 하여 숨기고 고하지 아니한다든가, 또는 나이 많은 백성들이 필연코 보고 들은 것이 있을 터인데도 그 나이가 늙어서 형벌을 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고, 비록 순순히 타일렀더라도 또한 고하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아전의 사례에 따라 기한을 정하고 찾아 물어보게 하되, 기한이 지나도록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타향으로 옮기게 하옵시고, 만약 마음을 다하여 일러서 헌신해 고하는 자가 있사오면 모두 포상이 있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사맹에게 전지하기를, “지금은 농사가 장차 시작하려 하니, 그 굴착하기 시작한 것은 춘분(春分) 날까지를 기한하되, 형편에 따라 파는 것을 끝내게 하라. 소재한 각 고을에서 능히 온천을 찾아내어 고

하는 자는 이미 전교한 데에 의하여 상줄 것이나, 만일 감추고 숨겨 고하지 아니하였다가 뒤에 드러나게 된 자는 그 죄상을 중하게 논죄할 것이니 각 고을에 알아듣게 타이도록 하라.”하였다.¹²

즉, 이사맹은 해빙기를 기다려 부평의 온천을 굴착하겠는데, 부평 사람들과 아전들이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천 존재 사실을 감추거나 숨기고 있으니 기한을 정하여 그들에게 묻고 기한이 지나도록 고하지 않는 자는 다른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되, 고하는 자는 포상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은 춘분(春分)까지 기한을 주어 굴착을 끝내고 온천을 찾아내어 고하는 자는 포상을 주되, 감추고 숨겨 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된 자는 중하게 징벌하겠다는 뜻을 고을에 알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온천을 찾아내어 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 방침이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효과 때문인지 열흘이 지난 2월 21일에 조서강(趙瑞康)이 부평 남쪽 마을에 온천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찾아보자고 세종 임금에게 아뢰었던 것이다.

조서강(趙瑞康)이 아뢰기를, “부평현(富平縣)에 사는 사노 어리종(於里宗) 등이 말하기를, ‘본현 남촌(南村)의 순지(尊池) 서남쪽으로 온천이 있다’하오니, 청하건대 찾아보게 하옵소서”하였다. 이에 즉시 경차관 이사맹(李師孟)에게 전교하여 찾아보게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¹³

조서강(1394~1444)은 부평 출신의 중신(重臣)으로 부평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세종의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이었다. 이에 세종은 즉시 이사맹에게 부평 온천을 다시 찾아보게 했으나 그 결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러자 세종은 같은 해 윤2월 18일에 부평 온천을 찾아내는 데에 이사맹이 가져간 ‘사목(事目)’에 의해 시행하라고 경기도 관찰사에게 명하였다. 그 ‘사목’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1 『세종실록』, 권83, 세종 20년 11월 13일.

12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1439) 2월 12일.

13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 2월 21일.



❖ 조서강 묘(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호, 인천 서구 석남동 산 119-2번지 소재)(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여럿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승복하여 대지 않는 자에게는 고문하고 심문할 것.
- 온수(溫水)가 나오면 그 고을의 호칭을 승격시키고, 그들의 부역을 면제하며 노비를 넉넉하게 줄 것.
- 품관(品官), 아전, 백성이고 간에 능히 찾아 묻는 자가 있으면 모두 포창할 것.
- 아전 중에 그 족속이 강성한 자로 삼반(三班)의 수리(首吏)로 정하여 다시 온천 있는 곳을 찾게 하되, 그래도 보고 듣는 데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함경도의) 4진(鎭)으로 들어 보낼 것.
- 여러 차례 기한이 지나도 고하지 아니하면, 그 고을의 호칭을 혁파하고 아전은 타도의 각 고을로 분속시킬 것.
- 유향품관(留鄕品官)이나 토성품관(土姓品官)과 누대로 살던 백성도 아전의 예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고 찾게 하되, 기한이 지나도 관가에 고하지 않는 자는 또한 타향으로 옮기게 할 것.¹⁴

그 전에 이사맹이 제안한 방침을 좀 더 다듬으면서도 온천이 나오면 그 보고자나 발견자에 대한 포상은 물론 고을을 승격시키고 부역(賦役) 면제 및 노비 하사의 혜택까지

¹⁴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1439) 윤2월 18일.

규정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여러 차례 기한이 지나도록 온천 사실을 고하지 않을 경우 고을의 이름을 아예 없애겠다는 징벌도 추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세종은 부평 온천을 찾아내는 데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1440년(세종 22) 8월 27일 기사를 보면, 부평 온천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결과는 찾아내지 못하였다. 포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다투어 온천을 보고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알게 해준다.

이후 1441년(세종 23) 1월 7일과 2월 2일 등의 기사 내용을 보면, 정해진 기한이 지났는데도 부평 온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은닉했다는 이유로 부평의 아전들을 쇠잔하여 망해 가는 역(驛)의 아전으로 보내거나, 의금부로 잡아와 조사하고 신문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마련한 ‘사목’의 규정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해를 넘겨 1442년(세종 24) 11월 27일에도 온천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병조(兵曹)에 명하여 300명의 군인들을 동원시켜 20일 동안 땅을 파보게 하였다. 실록 기사에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으나 역시 찾아내지 못했던 것 같다.

부평 온천에 관한 세종 때의 기사는 1443년(세종 25) 7월 11일의 내용이 마지막이다. 세종은 예조에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예조에 명하기를, “경기도 부평현의 향리로 온정(溫井)의 소재처를 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찍이 함길도에 입거(入居)시키고, 또 쇠잔하고 망해 가는 역(驛)의 아전으로 정하였던 자를 모두 방환(放還)하고, 이제부터는 온정의 소재처를 고하지 않는다고 논죄(論罪)하는 법을 거행하지 말게 하고, 다만 찾아내는 사람을 포상하는 법만을 신칙해 밝히라”하였다.¹⁵

즉, 온천의 소재처를 고하지 않아 징벌을 받은 부평의 향리들을 모두 풀어 돌려보내고, 이후로는 온천의 소재를 고하지 않았다고 징벌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대신 온천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포상하는 방침은 그대로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징벌’이라는 채찍 방침을 버리고 ‘포상’이라는 당근 방침으로 변하였다

¹⁵ 『세종실록』, 권101, 세종 25년(1443) 7월 11일.

고 하겠다. 근 10여 년에 걸친 부평 온천 조사에 대한 집념과 의지를 사실상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3년여 후 부평은 현에서 원래대로 도호부로 승격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부평 온천 소동' 추이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세종 때의 '부평 온천 소동' 추이

연월일	내용
1434년(세종 16) 11월 29일	봉상시(奉常寺)의 소윤(少尹) 이사맹(李師孟)을 부평 지역에 보내 온천(溫泉)을 찾아보게 함.
1438년(세종 20) 10월 4일	부평 사람들이 온천의 존재 사실을 숨겨 그 소재처를 말하지 않을 경우, 고을의 명칭을 깎아 내려서 그 죄를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라고 명을 내림.
1438년(세종 20) 10월 29일	사재감 정(司宰監) 이사맹과 경기 경력(經歷) 권준(權遵)을 보내 역군(役軍) 2백 명을 데리고 땅을 파서 찾았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온천을 찾지 못함.
1438년(세종 20) 11월 8일	임금이 부평에 온천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여러 번 조관(朝官)을 보내어 찾아보았으나, 아전과 백성이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므로 부평을 도호부(都護府)에서 현(縣)으로 강등함.
1438년(세종 20) 11월 13일	사재감 부정(司宰監) 이사맹이 부평의 아전과 품관들이 온천의 소재지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임금께 아뢰니, 즉시 의금부에 명령하여 전 판사(判事) 남급(南汲)과 향리(鄕吏) 김우(金雨) 등 5인을 국문(鞫問)하게 함.
1439년(세종 21) 2월 21일	조서강(趙瑞康)이 부평현에 사는 사노(私奴) 어리종(於里宗) 등이 부평 남촌(南村)의 순지(尊池) 서남쪽으로 온천이 있다고 말하니 찾아보게 하자고 아뢰자, 즉시 경차관 이사맹에게 전교하여 찾아보게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함.
1439년(세종 21) 윤2월 18일	경기 관찰사에게 부평 온천을 방문하여 찾아보는 일은 부평 지현사(知縣事) 이사맹이 가지고 간 '사목(事目)'에 의하여 일체 시행하라고 지시함.
1440년(세종 22) 8월 27일	전 부사정(副司正) 기복관(奇復觀)이 부평현의 부강(富強)한 향리(鄕吏)의 집이 곧 온천의 옛터라고 아뢰니, 임금이 기복관에게 옷 한 벌을 하사하고 온천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함.
1441년(세종 23) 1월 7일	부평에서는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도 온천을 발견하여 알리지 못했으니, 그 삼반(三班)의 우두머리 되는 아전을 경기도의 쇠잔하여 망해가는 역(驛)의 아전으로 정하게 하되, 가을까지 기다려도 여전히 알리지 못한다면 함경도의 4진(鎭)으로 옮기라고 임금이 부평 지현사 이사맹에게 명을 내림.
1441년(세종 23) 2월 2일	부평현의 아전들이 온천을 은닉하므로, 의금부 도사 김계(金啓)에게 명하여 가서 그들을 국문(鞫問)하게 함.
1442년(세종 24) 11월 27일	어떤 사람이 부평의 옥원(玉院)에 온천이 있다고 말하니, 이듬해 2, 3월에 그 부근의 각 고을 선군(船軍) 300명으로 20일을 기한하여 땅을 파서 시험하게 하라고 병조에 명을 내림.
1443년(세종 25) 7월 11일	부평현(富平縣)의 향리로 온천의 소재처를 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찍이 함경도에 입거(入居)시키고, 또 쇠잔하고 망해 가는 역(驛)의 아전으로 정하였던 자를 모두 방환(放還)하고, 이제부터는 온천의 소재처를 고하지 않는다고 논죄(論罪)하는 법을 거행하지 말게 하고, 다만 찾아내는 사람을 포상(褒賞)하는 법만을 신칙해 밝히라고 예조에 명을 내림.
1446년(세종 28) 11월 10일	부평현(富平縣)을 승격시켜 다시 도호부로 삼음.

한편, 부평은 세종 이후에도 아예 고을 이름이 없어진 적도 있고, 또 다시 현(종6품 현감)으로 강등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760년(영조 36)경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정리해 본다.¹⁶

연산군 11년(1505)에 부평도호부 사람인 내시 김순손(金舜孫)을 죽이고 본부를 혁파하였다가 1년 후(중종 1년, 1506)에 복구하였다. …… 숙종 24년(1698)에 장릉(章陵)에 방화한 죄인 최필성(崔弼成)이 태어난 고을이라 하여 현감 현으로 강등하였다가 10년 후(숙종 33년, 1707)에 복구하였다.

끝으로 세종 때의 부평 '온천 소동'은 이후로도 오랜 동안 옛이야기(전설)로 전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옛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본다.

〈온천을 메워 버리다〉¹⁷

조선 왕조의 세종대왕은 학문에 열중한 탓에 눈병을 앓아 온천물로 목욕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한양 도성에서 가까운 곳에는 온천이 없기 때문에 궁궐을 떠나 여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느 신하가 아뢰었다. “전하, 부평 땅에 온천이 있었다는 옛 기록이 있습니다. 부평 땅에도 그런 전설이 있다 하옵니다.”

대왕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걸 찾았으면 좋겠소. 짐의 눈병도 문제지만 온천을 찾으면 많은 백성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요.”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본격적으로 부평의 온천을 찾는 일에 나서게 되었다. 왕명에 따라 부평 부사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내가 다스리는 곳에서 온천을 찾는다면 역대 최고의 성군이라는 대왕 전하의 병도 고치고 내 공이 크게 빛날 것 아닌가.”

그는 옛 기록을 정리했다. 기록은 그곳이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 없었다. 막

¹⁶ 『여지도서』상, 부평도호부, 건치 연혁조(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3.

¹⁷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옛날 옛적에 인천은』, 2004, 332~334쪽.

연하게 온천이 있었다는 기록뿐이었다. “그러면 전설을 더듬는 거지.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이 없지 않은가.”

그는 부평의 노인들을 모아놓고 전설을 들었다. 한 노인이 말했다. 고려 중엽 부평의 옛 지명 수주에서 우연히 노천 온천이 발견되었다. 피부병에 특효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니 소문이 퍼져 나갔다. 그래서 당시 수도인 개경에서 많은 벼슬아치들이 찾아와 온천 욕을 했다. 수주의 사또는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 각 고을의 대표들을 불렀다. “고관들에게 잠자리와 좋은 음식을 해 드려야 한다. 그러니 고을마다 돈을 거둬라.” “네, 분부대로 하겠 습니다.” 고을 대표들은 그렇게 대답하고 개경에서 온 고관들을 정성으로 대접했다. 그러나 그것이 자주 반복되고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도 그들이 찾아와 크게 방해가 되었다. “온천 때문에 못살겠네. 온천이 있는 것이 우리 백성들에게는 행운이 아니라 짐만 될 뿐이야.” 백 성들은 중얼거렸다. 그러던 중 몽골 군대가 쳐들어와 모두들 피난을 가게 되었다.

늦게 피난을 떠난 농부 하나가 그 온천을 메워 버렸다. “에잇, 근심거리니 차라리 없애 는 게 낫지.” 전란이 끝나 다시 돌아온 수주 사또는 온천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당황하여 명 을 내렸다. “모두 나서라. 어서 온천을 다시 찾아라.”

그러나 온천은 수맥이 영영 묻혀 버려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조선 세종 때의 부평 부사는 백성들을 동원해 전설이 남아 있는 마을 이곳저곳을 파헤 쳤다. 조짐이 있는 곳은 열 길 스무 길 파들어 갔다. 그러나 역시 온천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평 부사는 실망하여 고개를 흔들었다. “온천을 찾아 전하의 병을 고쳐 드리고 나도 덕분에 더 크게 입신출세를 하려 했더니 다 틀렸군.”

그는 자신이 온천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기록한 일지를 조정에 올렸다. 조 정에서는 더 이상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 인조대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다. 부평 땅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평지가 갑자기 열 길이나 꺼져 버렸다. 사람들은 이것이 큰 재앙이 라 여겨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토지신이며, 노여움을 풀고 우리 마을에 불행한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사 덕인지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구덩이에 흙을 메워 다시 평지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200년 전에 묻혀버린 온천에 대해 말했다. “온천 때문 일지도 몰라. 바로 이 자리가 온천일지도 모르는 일이야.” “200년 전에 온천을 찾는다고

여기저기 땅을 파헤쳤기 때문에 이번에 꺼져 내린 것일 게야.”

이때에도 사람들은 전설 속의 옛 사람들처럼 온천이 발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래서 쉬쉬하며 온천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평 땅에 있었다는 온천은 전설과 함께 묻혀 버렸다.

고을 읍격의 강등까지 불러온 ‘온천 소동’은 조선시대 내내 부평 지역 사회에 많은 이야기 거리를 생산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그 이야기 거리가 담고 있는 교훈의 핵 심 요소가 ‘세종 임금에 대한 원망’일지? 아니면 ‘백성들의 불충’일지? 여하튼 세종 시기 부평 지역에서 발생한 ‘온천 소동’ 이야기는 이후 변형·변질된 또 다른 버전을 계속 생 산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 제3절 | 조선 후기 부평 지역의 호구 양상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전국 각 군현별로 호구와 농지 규모를 파악하여 지리지 및 읍 지에 기록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이 절에서는 조선시대 부평 지역의 사회적 양상을 살필 수 있는 호구 규모 및 그 특징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려 한다.

먼저 조선 전기 부평 지역의 호구수는 15세기 전반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 實錄地理志)』에 수록된 내용이 유일하다. 호수는 429호이며, 인구수는 954명으로 기록되 었다. 따라서 1호당 평균 인구수는 2.2명에 불과하다. 한 집당 2명이 조금 넘는 가족이 거 주하였다는 셈인데, 이 수치가 상식적인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인구수가 적게 나타난 까 닙은 여성 인구수를 제외한 남성 인구수만 파악하여 기록한 때문이었다.¹⁸ 그러다보니 수 치상으로 아버지와 아들 각 1명씩만 거주하는 모양을 취했던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에 기록된 인구수가 실제 수치와 큰 차이가 있었음은 자료 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18 한영국, 「조선 초기 호구통계에서의 호와 구」, 『동양학』1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경기도 전체) 호수가 2만 882호, 인구가 5만 352명이다. 조선은 인구의 법이 명확치 않아 호적(戶籍)에 적힌 것이 겨우 10의 1, 2가 되므로 나라에서 매양 바로잡으려 하나, 너무 인심을 잃게 되어 그럭저럭 이제까지 이르렀다. 각도, 각 고을의 인구수가 이렇게 되었고, 다른 도들도 모두 그렇다.¹⁹

인구 조사의 법이 명확치 않아 호적에 적힌 인구가 10분의 1, 2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그 누락률이 과장되었기는 하나 15세기 전반기 당시 상당수의 인구가 호적 조사에서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 18세기 중엽

호적 조사의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임진·병자의 양란을 겪고 약 반세기가 지난 17세기 중엽이었다. 조선 후기 각 고을별 인구 규모를 알려주는 첫 자료는 『여지도서(輿地圖書)』이다. 이 자료는 18세기 중엽 영조 때에 왕명에 의해 편찬된 전국 규모의 지리지이다. 이 자료에 수록된 부평도호부의 호수는 2,923호이며, 인구수는 남성이 4,928명, 여성이 5,970명이다. 이 호구수는 '기묘'년, 즉 1759년(영조 35)에 작성된 호적대장의 수치라고 하였다.

그런데 15개 면의 호구수 합계는 2,925호와 남성 5,026명, 여성 5,547명으로 자료에 기재된 통계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호수에서는 그 차이가 2호밖에 되지 않으나 인구수에서는 남성의 경우 98명이 적게 기재된 반면 여성은 무려 423명이 더 많게 기재되었던 것이다. 여하튼 정정된 통계치를 적용하면 18세기 중엽 부평의 1호당 평균 인구수는 3.6명으로 나타났다.²⁰ 그리고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47.5% 대 52.5%로 나타나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약 5%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세종실록지리지』, 경기.

20 1호당 평균 인구수 3.6명도 실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인구사회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조선시대 호구 조사 결과는 영유아 인구가 거의 누락된 수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 18세기 중엽 부평 지역의 면별 호구 규모

(단위: 호·명)

面	위치	坊(洞里)數	戶數	口數		
				남	여	계
부내면(府內面)	-	2	214	380 <51.8>	353 <48.2>	733
동면(東面)	동쪽 5리	8	163	265	296	561
당산면(堂山面)	동쪽 10리	5	136	197	209	406
주화곶면(注火串面)	동쪽 15리	5	173	310	323	633
상오정면(上梧亭面)	동남쪽 20리	7	126	273 <53.8>	234 <46.2>	507
하오정면(下梧亭面)	동남쪽 20리	7	184	303	350	653
수탄면(水呑面)	동쪽 30리	12	185	316	370	686
옥모면(玉毛面)	동남쪽 30리	7	164	297	319	616
석천면(石川面)	남쪽 15리	6	196	370 <51.5>	349 <48.5>	719
동소정면(同所井面)	남쪽 20리	5	162	290 <45.6>	346 <54.4>	636
서면(西面)	남쪽 5리	7	155	280 <49.9>	281 <50.1>	561
마장면(馬場面)	남쪽 10리	3	96 (3.3)	146	166	312 (3.0)
석곶면(石串面)	서남쪽 20리	8	326	565	646	1,211
모월곶면(毛月串面)	서쪽 20리	8	357 (12.2)	571 <45.5>	683 <54.5>	1,254 (11.9)
황어면(黃魚面)	북쪽 15리	7	288	463 <42.7>	622 <57.3>	1,085
합계	총 15개 面 / 97개 坊		2,925 (100) [2,923]	5,026 <47.5> [4,928]	5,547 <52.5> [5,970]	10,573 (100)

❖ 비고 : ① 면의 위치는 부내면의 관아를 기준으로 한 것임.
 ② [] 안의 수치는 원 자료에 기재된 합계임.
 ③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④ < > 안의 수치는 남녀별 비율임.

한편 면별 양상을 보면, 호구(주민)가 가장 많은 곳은 모월곶면으로 전체 부평 지역 호구의 약 12%를 차지하였고, 가장 적은 곳은 마장면으로 약 3%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다음 성비 양상을 보면 부평 지역 전체로는 여성이 더 많았으나, 읍치 지역인 부내면과 상오정면, 석천면 등 3개 면에서는 남성이 더 많은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2. 18세기 말

다음, 부평 지역의 호구수를 상세히 알려주는 자료가 1789년(정조 13)의 호적 조사 결과를 수록한 『호구총수(戶口總數)』이다. 앞에서 살핀 『여지도서』와 마찬가지로 총 15개 면이 수록되었는데, 『여지도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동리(총 76개 리와 3개 島) 명칭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 부평 지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표 3-2 18세기 말 부평 지역의 면·리와 호구 규모

面	洞里 및 島	戶數	口數		
			남	여	계
읍내면 (邑內面)	상리(上里) <1개 리>	242	409	356	765
동면 (東面)	이막동(里幕洞), 용종리(龍宗里), 방축리(坊築里), 광정리(廣井里) <4개 리>	174	321	311	632
당산면 (堂山面)	야리(野里), 굴현리(掘峴里), 양지리(陽之里), 동리(東里) <4개 리>	150	276	273	549
주화곶면 (注火串面)	장산리(章山里), 오곡리(五谷里), 오금리(五金里), 대장리(大壯里) <4개 리>	165	319 <55.1>	260 <44.9>	579
상오정면 (上梧亭面)	약대리(若大里), 삼정리(三井里), 내촌리(內村里), 두지촌(斗之村), 도당리(都堂里), 외우리(臥牛里), 마오정리(馬梧亭里) <7개 리>	186	341	311	652
하오정면 (下梧亭面)	화력리(禾力里), 고리동리(古里洞里), 언담리(偃談里), 성곡리(成谷里), 여월리(余月里), 작동리(鵲洞里) <6개 리>	201	377	324	701
수탄면 (水呑面)	온수동리(溫水洞里), 궁리(宮里), 오류동리(梧柳洞里), 천왕리(天王里), 가사리(加沙里), 백사리(栢寺里), 고척리(高尺里), 개봉리(開峯里) <8개 리>	192	346 <54.9>	284 <45.1>	630

(단위: 호·명)

面	洞里 및 島	戶數	口數		
			남	여	계
옥산면 (玉山面)	소사리(素沙里), 당하리(堂下里), 조종리(曹宗里), 범박동리(凡朴洞里), 과안리(果安里), 벌응절리(伐應節里) <6개 리>	200	411	363	774
석천면 (石川面)	상리(上里), 중리(中里), 구지리(仇之里), 검대리(檢垔里), 목자리(木子里), 심곡리(深谷里) <6개 리>	233	452 <56.9>	343 <43.1>	795
동소정면 (東所井面)	귀산리(龜山里), 항동리(項洞里), 마분리(馬墳里), 대정리(大井里) <4개 리>	191	379	323	702
서면 (西面)	가현리(佳峴里), 화전리(化田里), 갈월리(葛月里), 후정리(後井里) <4개 리>	181	336 <55.4>	271 <44.6>	607
마장면 (馬場面)	효성리(曉星里), 청천리(淸川里) <2개 리>	83 (2.6)	133	117	250 (2.2)
석곶면 (石串面)	봉현리(蜂峴里), 가정리(佳亭里), 신현리(新峴里), 포촌리(浦村里), 번작리(番作里), 가좌동(加佐洞), 울도(栗島) <6개 리, 1개 島>	305	554 <54.6>	461 <45.4>	1,015
모월곶면 (毛月串面)	공촌리(公村里), 연희리(延希里), 고잔리(古殘里), 검암리(黔巖里), 시천리(始川里), 백석리(白石里), 청라도(靑蘿島), 난지도(蘭芝島) <6개 리, 2개 島>	354 (11.2)	640	556	1,196
황어면 (黃魚面)	독실리(蠶實里), 목상리(木霜里), 갈산리(葛山里), 역동리(驛洞里), 오류동리(五柳洞里), 이화리(梨花里), 선지곶(先地串), 노오지리(老吾之里) <8개 리>	312	815 <46.8>	927 <53.2>	1,742 (15.0)
합계	총 15개 면 / 76개 리, 3개 島	3,169 (100)	6,109 <52.7>	5,480 <47.3>	11,589 (100)

❖ 비교: ①()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②< > 안의 수치는 남녀별 비율임.

이 자료는 1789년(정조 13)에 호구 조사한 결과를 책자로 작성한 것인데, 부평 지역 전체의 호수는 3,169호이며, 인구수는 1만 1,589명으로 1호당 평균 인구수는 3.7명이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남성이 6,109명, 여성이 5,480명으로 나타나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52.7% 대 47.3%로 나타나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약 5%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년 전 『여지도서』 확인된 것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 것이다.

한편 면별 양상을 보면, 호구(주민)가 가장 많은 곳은 모월곶면과 황어면으로 전체 부평 지역 호구의 약 11%(모월곶면 호수 기준)~15%(황어면 인구수 기준)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역시 마장면으로 그 차지하는 비율이 약 2% 정도였다.

다음 성비 양상을 보면 14개 면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황어면은 여성(약 53%)이 남성(약 47%)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탄면에 속한 마을 명칭을 보면 ‘온수동리(溫水洞里)’가 발견된다. 이 지역이 바로 세종 때 발생한 부평 ‘온천 소동’과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호구총수』 제2책, 경기도 부평
(출처: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19세기 후반

1871년경에 편찬된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에 수록된 부평 지역 전체의 호수는 2,757호이며, 인구수는 7,996명으로 나타난다. 80년 전인 1789년과 비교하면 그 수치가 적잖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호당 평균 인구수도 2.9명이라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였다.

남녀별 비율은 남성이 약 57%(4,577명), 여성이 약 43%(3,419)로 나타나 성비의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호적에서 더 심하게 누락하였던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부평 수탄면 온수동 거주 고금석(高今石) 준호구(1872)
(출처: 부평역사박물관)

한편 면별 양상을 보면, 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모월곶면으로 전체 부평 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호구가 가장 적은 곳은 마장면과 동면·당산면·주화곶면 등이었으며, 전체 부평 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에 불과하였다.

다음 성비 양상을 보면 14개 면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당산면에서만 여성(51%)이 남성(49%)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19세기 후반 부평 지역의 면별 호구 규모

面	위치	坊(洞里)數	戶數	口數		
				남	여	계
부내면(府內面)	-	2	250	385	330	715
동면(東面)	동쪽 5리	5	111	190	163	353
당산면(堂山面)	동쪽 15리	4	113	171 <48.9>	179 <51.1>	350
주화곶면(注火串面)	동쪽 15리	5	110	159	120	279
상오정면(上吾丁面)	동쪽 20리	5	163	290	205	495
하오정면(下吾丁面)	동쪽 20리	7	232	452 <60.3>	298 <39.7>	750
수탄면(水呑面)	동쪽 30리	6	159	274	192	466
옥산면(玉山面)	남쪽 30리	7	223	317 <59.1>	219 <40.9>	536
석천면(石川面)	남쪽 15리	5	179	267	220	487
동소정면(同所井面)	남쪽 20리	4	145	249 <61.0>	159 <39.0>	408
서면(西面)	남쪽 5리	6	169	250	211	461
마장면(馬場面)	서쪽 10리	2	94 (3.4)	163 <59.1>	113 <40.9>	276 (3.5)
석곶면(石串面)	서쪽 20리	8	218	387	298	685
모월곶면(毛月串面)	서쪽 20리	10	335 (12.2)	572 <59.3>	392 <40.7>	964 (12.1)
황어면(黃魚面)	북쪽 15리	9	256	452	319	771
합계	총 15개 면 / 85개坊		2,757 (100)	4,577 <57.2> [4,578]	3,419 <42.8> [3,418]	7,996 (100)

❖ 비교: ① 면의 위치는 부내면의 관아를 기준으로 한 것임.
② [] 안의 수치는 원 자료에 기재된 합계임.
③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④ < > 안의 수치는 남녀별 비율임.

4. 20세기 초

20세기 초 부평 지역의 호구 규모를 알려주는 자료는 『한국호구표(韓國戶口表)』이다. 이 자료는 1907년 5월에 일제의 통감부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전국의 호구를 조사한 내용을 편찬한 일종의 보고서이다. 특히 이 자료에 기재된 호구 내용은 이전 시기에 작성된 호구 기록보다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부평 지역의 호수는 3,279호이며, 인구수는 1만 2,463명이었다. 1호당 평균 인구수는 그 이전 시기에 조사된 것보다 높은 3.8명이었다. 남성 인구수는 6,858명(55%), 여성 인구수는 5,605명(45%)을 보여 역시 남성 인구가 1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평 수탄면 온수동 거주 고술환(高述煥) 호적표(1907)
(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표 3-4 20세기 초 부평 지역의 면별 호구 규모

(단위 : 호·명)

面	戶數	口數		
		남	여	계
군내면(郡內面)	246	420	347	767
동면(東面)	154	295	238	533
당산면(堂山面)	144	246	191	437
주화곶면(注火串面)	133	309 (57.0)	233 (43.0)	542
상오정면(上吾丁面)	190	319	287	606
하오정면(下吾丁面)	256	564	436	1,000
수탄면(水呑面)	231	491 (49.1)	509 (50.9)	1,000
옥산면(玉山面)	261	616	508	1,124
석천면(石川面)	231	526	403	929
동소정면(同所井面)	208	508	421	929
서면(西面)	213	477 (57.3)	356 (42.7)	833
마장면(馬場面)	124 (3.8)	243	186	429 (3.4)
석곶면(石串面)	260	582	496	1,078
모월곶면(毛月串面)	387 (11.8)	747	580	1,327 (10.6)
황어면(黃魚面)	241	515	414	929
합계	3,279 (100)	6,858 (55.0)	5,605 (45.0)	12,463 (100)

❖ 비교 : ①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② (<) 안의 수치는 남녀별 비율임.

면별 양상을 살펴보면 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여전히 모월곶면(전체 부평 호구의 약 11%)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도 여전히 마장면과 당산면이었다(부평 전체의 약 3%). 한편, 유독 수탄면에서만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약 1%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1910년에 5월에 조사한 내용을 편찬한 『민적통계표(民籍統計表)』 자료를 통해 20세기 초 부평 지역 주민들의 인구 규모와 함께 직업 분포 양상도 살필 수 있다.

먼저, 호구 규모는 3,726호에 1만 7,777명을 보여 3년 전(『한국호구표』)에 조사한 내

용보다 호수와 인구수 모두 적잖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호당 평균 인구수도 3년 전 수치보다 약 1명이 더 많은 4.8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성비는 남성이 52%, 여성이 48%로 나타나 3년 전에 비해 여성 인구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한편 면별 양상을 보면, 모월곶면이 가장 호구가 많았으며(전체 부평 호구수의 약 13%), 마장면과 동면·당산면·주화곶면 등이 호구가 가장 적은 곳이었다(전체의 약 4%). 그리고 성비에서는 서면 한 곳만이 여성(55%)이 남성(4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20세기 초 부평 지역의 면별 호구 규모 및 직업 분포

(단위: 호명)

面	戶數	口數			職業												계
		남	여	계	官公吏	兩班	儒生	商業	農業	漁業	工業	鑛業	日稼	기타	무직		
군내면 (郡內面)	248	528	521	1,049	4 [1.6]	1	0	30 [11.9]	190 [75.4]	0	0	0	4 [1.6]	15	8 [3.2]	252 [100]	
동면 (東面)	177	387	384	771	2 [1.1]	0	0	13 [7.1]	156 [85.7]	0	1	0	0	10	0	182 [100]	
당산면 (堂山面)	164	403	323	726 (4.1)	1	0	1	5 [95.8]	159 [95.8]	0	0	0	0	0	0	166 [100]	
주화곶면 (注火串面)	152 (4.1)	381	365	746	1	0	0	6 [3.8]	147 [94.2]	0	1	0	0	0	1	156 [100]	
상오정면 (上吾丁面)	206	531	513	1,044	1	0	0	2	204 [98.6]	0	0	0	0	0	0	207 [100]	
하오정면 (下吾丁面)	271	737	627	1,364	2	1	0	1	270 [98.5]	0	0	0	0	0	0	274 [100]	
수탄면 (水呑面)	266	672	630	1,302	1	1	0	4	264 [97.8]	0	0	0	0	0	0	270 [100]	
옥산면 (玉山面)	285	740	645	1,385	1	2	0	4	284 [97.6]	0	0	0	0	0	0	291 [100]	
석천면 (石川面)	273	696	629	1,325	3 [1.1]	0	0	11 [3.9]	270 [95.1]	0	0	0	0	0	0	284 [100]	
동소정면 (同所井面)	215	560	539	1,099	1	0	0	2	214 [98.6]	0	0	0	0	0	0	217 [100]	
서면 (西面)	225	519 <45.0>	634 <55.0>	1,153	1	0	1	2	223 [98.2]	0	0	0	0	0	0	227 [100]	

面	戶數	口數			職業												계
		남	여	계	官公吏	兩班	儒生	商業	農業	漁業	工業	鑛業	日稼	기타	무직		
마장면 (馬場面)	161	397	343	740	2 [1.2]	0	1	2	159 [97.0]	0	0	0	0	0	0	164 [100]	
석곶면 (石串面)	290	736	669	1,405	1	0	1	11 [3.7]	258 [87.5]	5 [1.7]	0	0	3 [1.0]	15	1	295 [100]	
모월곶면 (毛月串面)	479 (12.9)	1,182	1,045	2,227 (12.5)	3	0	1	19 [4.0]	349 [72.7]	7 [1.5]	1	0	0	100 [20.8]	0	480 [100]	
황어면 (黃魚面)	314	750	691	1,441	2	1	1	19 [6.0]	293 [92.1]	0	0	0	1	0	1	318 [100]	
합계	3,726 (100)	9,219 <51.9>	8,558 <48.1>	17,777 (100)	26 [0.7]	6 [0.2]	6 [0.2]	131 [3.5]	3,440 [90.9]	12 [0.3]	3 [0.1]	0	8 [0.2]	140 [3.7]	11 [0.3]	3,783 [100]	

❖ 비교 : ①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② < > 안의 수치는 남녀별 비율임.

다음, 직업 분포를 보면 농업 종사자가 약 9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밖에 상업 종사자가 3.5%, 관공리가 0.7%를 보였다.

면별 분포에서는 상오정면·하오정면·수탄면·옥산면·동소정면·서면·마장면 등이 상대적으로 농업 종사자가 많은 곳이었으며, 농업이 우세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업 종사자가 많은 곳은 군내면과 동면·모월곶면·황어면 등이었다.

특히 모월곶면은 직종에서 분류하지 못한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비율이 무려 약 21%로 높게 나타나는 특이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제4절 | 조선시대 부평 출신 과거 합격자들

조선시대 간행된 부평 지역의 읍지 가운데 부평 출신 과거합격자가 가장 많이 기록된 자료는 1871년경에 간행한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 : 부읍사례(附邑事例)』이다.²¹ <인물(人物)>조에 문과 급제자 6명과 무과 급제자 2명 등, 총 8명이 기록되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조서강(趙瑞康) : 진사로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이조 참판을 지냈고 나이가 들자 (벼슬에서) 물러나 석호(石湖)의 별업에서 지냈으며, 세종 때 여러 번 나라에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 ② 변종인(卞宗仁) : 용감하고 지략이 있었으며, 무과에 등제하였다.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 정벌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다.
- ③ 정희량(鄭希良) : 연산군 초에 (문과에) 등제하여 예문관 검열에 제수되었고, 독서당에 들어갔다.
- ④ 이림(李霖) : 문과 출신으로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명종 을사(사화) 때 윤원형(尹元衡) 등의 무고로 죽임을 당하였다.
- ⑤ 김민선(金敏善) : 문과 출신으로 (사헌부) 집의를 역임하였다. 선조 임진(왜란) 때 인천 부사로 있으면서 사방에 왜적을 토벌하라는 격문을 전하는 공을 세웠다.
- ⑥ 이경운(李卿雲) : 문과 출신으로 (사간원) 정언을 역임하였다.
- ⑦ 변삼근(卞三近) : 변종인의 5세손이다. 문과 출신으로 참판을 역임하였다.
- ⑧ 이필형(李必馨) : 종실 순강군(順康君) 이선린(李善麟)의 아들이다. 인조 병자년에 지략과 용맹으로써 권무(勸武) (군관이) 되어 무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수군절도사를 역임했고, 청백리에 뽑혔다.

과연 조선시대 500년간 과연 부평 출신의 인물 가운데 과거 합격자가 이 읍지에 기록된 8명뿐이었을까? 조선시대는 문과 소과 합격자의 『사마방목(司馬榜目)』과 문과 대

²¹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경기읍지(京畿邑誌)』(청구기호 奎12177) 제1책에 수록되어 있다.



❖ 「소과 응시(小科應試)」(19세기), 작자미상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과 급제자의 『문과방목(文科榜目)』, 무과 급제자의 『무과방목(武科榜目)』, 그리고 잡과 각종 합격자의 『잡과방목(雜科榜目)』 등 과거합격자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무과와 잡과는 자료가 방대하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부평 출신의 인물을 추출하는 게 쉽지 않다. 이에 문과, 즉 소과(사마시)와 대과(문과)에 합격한 부평 출신 인물들만을 살펴보기로 한다.²²

²² 이 글의 사마시 합격자에 대한 내용은 임학성, 「조선시대 '仁川'지역 거주자의 과거급제 양상-생원·진사 합격자를 중심으로-」(『인천학연구』5,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06)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문과 급제자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에서 확인하였음을 밝힌다.

1. 부평 출신 과거 합격자의 규모

조선왕조는 문과 시험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과(小科 : 일명 ‘사마시’)와 대과(大科 : 일명 ‘문과’)의 이원 체제를 운영하였는데 소과는 생원과 진사 각 100명씩을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물론 소과는 관리 선발을 목적으로 한 시험이 아니었고, 이에 합격해야만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成均館)의 상재생(上齋生)으로 입학하거나, 대과(33명 선발)에 응시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예비시험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사마방목』과 『문과방목』에서 확인되는 부평 출신 과거 합격자는 소과(사마시)가 68명, 대과(문과)가 18명이다. 소과의 종류별로는 생원(生員)이 26명(38.2%), 진사(進士)가 42명(61.8%)이었다. 생원을 뽑는 시험은 대체로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을 시험했으며, 반면 진사의 경우는 문장과 시부(詩賦)의 능력을 시험하였다.²³

1) 사마시 합격자

사마시 합격자의 등위(等位)별 합격자의 분포를 보면, 전체 68명 중 1등이 2명(2.9%), 2등이 19명(27.9%), 3등이 47명(69.1%) 등이었다. 대체로 사마시가 1등 5%(5명)·2등 25%(25명)·3등 70%(70명)의 비율로 선발하는 게 규정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평 출신 합격자들은 1등 비율은 조금 저조했던 반면, 2등은 다소 높았고, 3등은 규정과 거의 일치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부평 출신(거주) 사마시 합격자 현황

(단위: 명)											
생원				진사				전체			
1등	2등	3등	계(A)	1등	2등	3등	계(B)	1등	2등	3등	계(C)
8	18	26	2	11	29	42	2	19	47	68	
-	<30.8>	<69.2>	<100>	<4.8>	<26.2>	<69.0>	<100>	(2.9)	(27.9)	(69.1)	(100)
		(38.2)				(61.8)					

❖ 비교 : () 안의 수치는 '계(C)'에 대한 백분비이며, < > 안의 수치는 '계(A, B)'에 대한 백분비임.

²³ 생원을 뽑는 시험은 대체로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을 시험했으며, 반면 진사의 경우는 문장과 시부(詩賦)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시험 종류별로는 진사시에서만 1등에 2명이 합격하였는데, 이들은 1795년(정조 19))에 합격한 양성묵(梁性默, 본관 남원)과 1798년(정조 22)에 합격한 류지익(柳之翊, 본관 진주)이다.

2) 문과 급제자

문과(대과) 급제자의 등급별 분포를 보면, 전체 18명 중 갑과 급제가 1명(5.6%), 을과 급제자 5명(27.8%), 그리고 병과 급제가 12명(66.7%) 등이었다. 갑과에 급제한 인물은 생원 신분으로 1469년(예종 1)에 급제한 이종호(李宗顯, 본관 부평)였다.

표 4-2 부평 출신(거주자) 문과(대과) 급제자 현황

(단위: 명)			
갑과	을과	병과	전체
1	5	12	18
(5.6)	(27.8)	(66.7)	(100)

❖ 비교 : ()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백분비임.

2. 과거 합격자의 연령

1) 사마시 합격자

부평 출신 사마시 합격자의 연령을 보면, 최저 16세에서 최고 65세까지 나타났는데,²⁴ 이를 5세 간격으로 파악해 보면 30대 전반(30~34세)이 17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20대 후반(25~29세)이 13명(19.1%), 30대 후반(35~39세)이 9명(13.2%), 40대 전반(40~44세)이 8명(11.8%), 50대 전반(50~54세)이 5명(7.4%) 등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이를 10세 간격으로 살펴보면 30대가 26명(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0대

²⁴ 최연소 합격자는 1891년(고종 28)에 생원시 3등으로 합격한 이희중(李羲鍾, 본관 경주)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819년(순조 19년)에 생원시 3등으로 합격한 민종성(閔種性, 본관 여흥)이다.

가 15명(22.1%), 40대가 11명(16.2%), 50대가 8명(11.82%), 10대와 60대 각 1명(1.5%)씩이었다. 따라서 20~30대 연령의 합격자 비율이 무려 약 60%(41명)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부평 출신 사마시 합격자의 연령 분포

(단위: 명)

연령	종류	생원	진사	계
10대	전반	-	-	-
	후반	-	1(2.4)	1(1.5)
	계	-	1(2.4)	1(1.5)
20대	전반	1(3.8)	1(2.4)	2(2.9)
	후반	5(19.2)	8(19.0)	13(19.1)
	계	6(23.1)	9(21.4)	15(22.1)
30대	전반	5(19.2)	12(28.6)	17(25.0)
	후반	4(15.4)	5(11.9)	9(13.2)
	계	9(34.6)	17(40.5)	26(38.2)
40대	전반	5(19.2)	3(7.1)	8(11.8)
	후반	-	3(7.1)	3(4.4)
	계	5(19.2)	6(14.3)	11(16.2)
50대	전반	1(3.8)	4(9.5)	5(7.4)
	후반	1(3.8)	2(4.8)	3(4.4)
	계	2(7.8)	6(14.3)	8(11.8)
60대	전반	-	-	-
	후반	1(3.8)	-	1(1.5)
	계	1(3.8)	-	1(1.5)
연령 미상		3	3	6
전체		26(100)	42(100)	68(100)

❖ 비교: ()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백분비임.

그런데 생원과 진사별로 합격자의 연령 분포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생원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전반, 40대 전반 연령이 모두 5명(19.2%)씩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

이 4명(15.4%)으로 그 다음 분포를 보였다. 이에 반하여 진사의 경우는 30대 전반이 12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이 8명(19.0%), 30대 후반이 5명(11.9%), 50대 전반이 4명(9.5%) 등을 보였던 것이다. 즉, 생원에 비하여 진사 합격자의 연령 분포가 다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2) 문과 급제자

부평 출신 문과 급제자의 연령을 보면, 최저 24세에서 최고 54세까지 나타났는데,²⁵ 이를 5세 간격으로 파악해 보면 20대 후반이 4명(22.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후반이 3명(16.7%), 그리고 20대 전반·30대 전반·50대 전반이 각 2명(11.1%)씩이었다. 한편 이를 10세 간격으로 살펴보면 20대가 6명(3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4명(22.2%), 30대가 3명(16.7%), 50대가 2명(11.1%) 등의 분포를 보였다.

표 4-4 부평 출신 문과 급제자의 연령 분포

(단위: 명)

연령	종류	갑과	을과	병과	계
20대	전반	-	-	2(16.7)	2(11.1)
	후반	-	120.0	3(25.0)	4(22.2)
	계	-	1(20.0)	5(41.7)	6(33.3)
30대	전반	-	1(20.0)	1(8.3)	2(11.1)
	후반	-	1(20.0)	-	1(5.6)
	계	-	2(40.0)	1(8.3)	3(16.7)
40대	전반	-	1(20.0)	-	1(5.6)
	후반	-	-	3(25.0)	3(16.7)
	계	-	1(20.0)	3(25.0)	4(22.2)

25 최연소 합격자는 1785년(정조 9년) 병과에 급제한 권홍(權弘, 본관 안동)과 1891년(고종 28) 병과에 급제한 임백영(任百瑛, 본관 풍천) 2명이다. 그리고 최고령 합격자는 1723년(경종 3) 을과에 급제한 박규문(朴奎文, 본관 밀양)과 1741년(정조 18) 병과에 급제한 류지우(柳之羽, 본관 진주) 2명이다.

연령	종류	갑과	을과	병과	계
		전반	-	1(20.0)	1(8.3)
50대	후반	-	-	-	-
	계	-	120.0)	1(8.3)	2(11.1)
연령 미상		1	-	2	3
전체		1(100)	5(100)	12(100)	18(100)

❖ 비교 : ()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백분비임.

3. 과거 합격자의 전력(前歷)

1) 사마시 합격자

부평 출신 사마시 합격자의 합격 직전의 경력을 보면, 조선시대 벼슬하지 않은 양반 유생에 대한 일반적 식별인 '유학(幼學)'이 90%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학 이외의 전력으로는 訓導·內禁衛·許通이 각 1명씩이었다.

표 4-5 부평 출신 사마시 합격자의 전력

생원				진사				전체						
幼學	許通	미상	계	幼學	內禁衛	訓導	미상	계	幼學	訓導	內禁衛	許通	미상	계
24 (92.3)	1	1	26 (100)	37 (88.1)	1	1	3	42 (100)	61 (89.7)	1	1	1	4	6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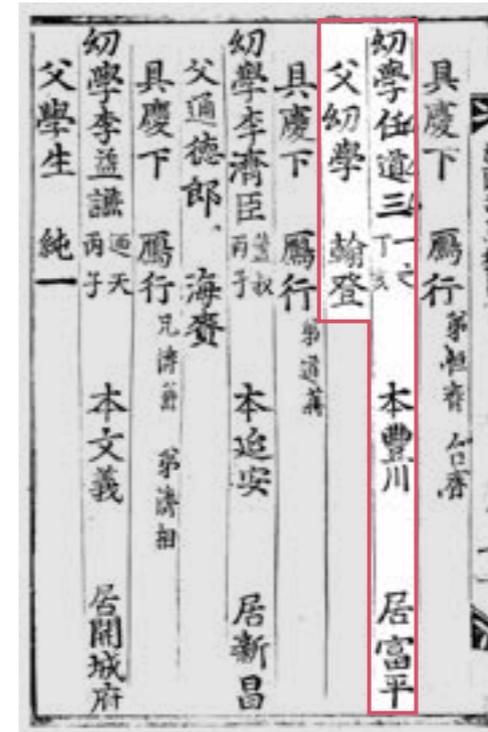
❖ 비교 : () 안의 수치는 각 항목의 '계'에 대한 백분비임.

소수 전력 가운데 훈도(訓導 : 정9품 및 종9품)는 실직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 문반 계열의 품계는 지니고 있었던 자로 보이며, 허통(許通)은 양반의 서자로 문과 응시에 허락된 자를 말한다. 그리고 내금위(內禁衛)는 조선시대 궁궐을 지키고 국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았던 관청을 말하는데, 사마시 합격자의 전력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내금위에 소속된 정병(精兵)이었지 않나 여겨진다. 내금위 정병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서 선발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시대 사마시에 합격한 전체 생원·진사의 전력에서 내금위는 단 2명뿐이었는데, 그 가운데 1명이 바로 부평 거주 합격자였던 것이다.²⁶

2) 문과 급제자

부평 출신 문과 급제자의 전력을 보면, 사마시에 합격하여 문과 응시 자격을 획득한 생원과 진사가 9명(50% : 생원 5명 28%, 진사 4명 2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유학이 8명(44%)이었다. 이밖에 을과에 급제한 자 가운데 전(前)참봉이 한 명이 확인되었다.



❖ 『기유식년(1669) 사마방목』 중 '임도삼'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26 1510년(중종 5)의 진사시에서 3등으로 합격한 윤탕조(尹湯祚, 본관 파평)였다.

한편, 급제 등급에서는 을과와 병과 간에 커다란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학 전력자의 경우 을과(40%)에 비해 병과(50%)에서 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6 부평 출신 문과 급제자의 전력

(단위: 명)

갑과		을과					병과					전체				
생원	계	생원	진사	幼學	前參奉	계	생원	진사	幼學	계	생원	진사	幼學	前參奉	계	
1	1	1	1	2	1	5	3	3	6	12	5	4	8	1	18	
(100)	(100)	(20.0)	(20.0)	(40.0)	(20.0)	(100)	(25.0)	(25.0)	(50.0)	(100)	(27.8)	(22.2)	(44.4)	(5.6)	(100)	

❖ 비교: () 안의 수치는 각 항목의 '계'에 대한 백분비임.

4. 과거 합격자의 성씨

그러면 인천 지역에서 합격한 생원·진사는 과연 어떤 가문의 인물들이었으며, 또 어떤 가문에서 다대하게 합격했는가를 성씨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마시 합격자

부평 출신 사마시 합격자 가운데 양시(兩試: 생원과 진사 두 시험)에 합격한 3명의 경우를 계상한 전체 65명의 성씨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全州 李(12명, 18.5%), 晉州 柳(10명, 15.4%), 海州 鄭(6명, 9.2%), 宜寧 南(5명, 7.7%), 淸州 韓(4명, 6.2%), 原州 元(3명, 4.6%), 驪興 閔·密陽 朴·密陽 卞(이상, 각 2명, 3.1%), 晉州 姜·仁川 貢·綾城 具·慶州 朴·昌寧 成·平山 申·南原 梁·海州 吳·坡平 尹·慶州 李·廣州 李·全義 李·미상 李·平澤 林·豐川 任·東萊 鄭·稷山 趙·미상 蔡·慶州 崔(이상, 각 1명, 1.5%)

전주 이씨가 12명(18.5%)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 류씨가 10명(15.4%), 해주 정씨가 6명(9.2%), 의령 남씨가 5명(7.7%), 청주 한씨가 4명(6.2%), 원주 원씨가 3명(4.6%), 여흥 민씨와 밀양 박씨·밀양 변씨가 각 2명(3.1%), 이밖에 진주 강씨 외 18개 성씨가 각 1명(1.5%)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한 5대 성씨를 들면, 전주 이씨·진주 류씨·해주 정씨·의령 남씨·청주 한씨 등으로 나타났다.

2) 문과 급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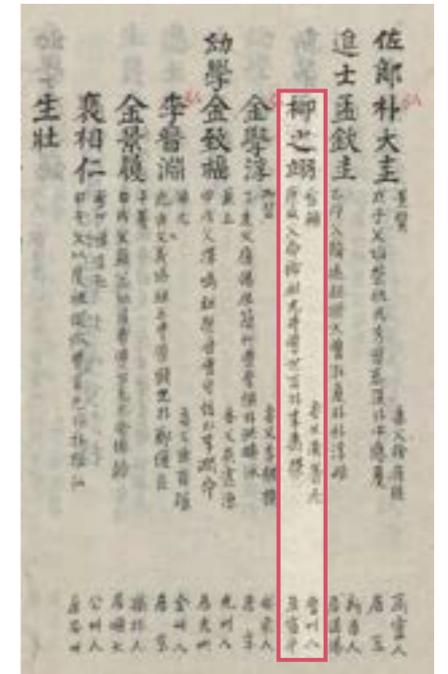
다음 문과 급제자 18명의 성씨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晉州 柳(4명, 22.2%), 安東 權(3명, 16.7%), 全州 李·豐川 任(각 2명, 11.1%), 驪興 閔·高靈 朴·密陽 朴·大邱 徐·慶州 李·富平 李·海州 鄭(이상, 각 1명, 5.6%)

진주 류씨가 4명(22.2%)로 가장 많았고, 안동 권씨가 3명(16.7%), 전주 이씨와 풍천 임씨가 각 2명(11.1%), 그리고 여흥 민씨 외 6개 성씨가 각 1명(5.6%)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주 류씨의 경우 사마시 합격자의 양상과 유사하게 문과 급제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마시에서는 단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안동 권씨가 문과 급제에서는 그 비율이 17%나 높게 나타난 점은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1871년 부평읍지 자료에 나타난 과거(문과와 무과) 급제자는 과연 몇 명이나 『문과방목』에서 확인되었을까? 두 자료의 대조 결과 읍지에 기록된 이경운(李



❖ 『국조문과방목』 중 '류지익'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卿雲)만이 유일하게 확인되었다. 전주가 본관이었던 이경운은 1556년생으로 40세 때인 1595년(선조 28)에 을과에 급제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부평의 인물로 문과에 급제했다고 읍지에 기록된 나머지 인물인 조서강(趙瑞康)·정희량(鄭希良)·이림(李霖)·김민선(金敏善)·변삼근(卞三近) 등은 읍지가 잘못 기록한 것일까? 『문과방목』 살펴본 결과 이들 5명의 경우 모두 문과에 급제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① 조서강 : 1394년생. 1414년(태종 14) 을과에 급제. 본관은 배천. 거주지 미상.
- ② 정희량 : 1469년생. 1495년(연산군 1) 병과에 급제. 본관 해주. 거주지 미상.
- ③ 이림 : 1501년생. 1524년(중종 19) 을과에 급제. 본관 함안. 거주지 경(京).
- ④ 김민선 : 1542년생. 1572년(선조 5) 병과에 급제. 본관 광산. 거주지 경.
- ⑤ 변삼근 : 1579년생. 1611년(광해군 3) 병과에 급제. 본관 초계. 거주지 경.

그런데 이들이 과거에 응시할 때의 거주지를 보면, 2명(조서강과 정희량)은 미상이며, 3명(이림, 김민선, 변삼근)은 거주지가 경(京), 즉 한성으로 나타났다. 거주지가 미상인 2명은 실제 부평에 거주하며 문과에 응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거주지가 한성이었던 3명은 무슨 연유로 읍지에서 부평의 인물로 기록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의 열쇠는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합격자 수에 지역 할당제를 도입했다는 점에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권2 예전(禮典), 제과(諸科)조를 보면, 전국은 각 도별 인구수와 비례하여, 그리고 京(한성)은 국도(國都)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 <표 4-7>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합격자 수를 배정하였던 것이다. 물론 첫 시험인 초시(初試)에 국한하였다.

표 4-7 조선시대 사마시·문과 초시 합격자수의 지역별 분포

종류	지역	京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평안	황해	함경	전체(전국)
		성균관	한성	계									
사마시	-	400	400	400 (28.6)	120	180	180	200	90	90	70	70	1,400
문과	50	40	90	90 (37.5)	20	25	25	30	15	15	10	10	240

❖ 비교 : ① 사마시의 인원수는 생원시와 진사시(각 同數)를 합한 것임. ② () 안의 수치는 각 항목의 '전체(전국)'에 대한 백분비임.

사마시의 경우 초시에서 전국적으로 1,400명(생원과 진사 각 700명)을 선발하였는데 약 30%에 가까운 400명을 한성에 배정하였으며, 문과 초시의 경우는 전국 240명 중 무려 40%에 가까운 90명을 한성에 배정하였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한성과 지근거리인 부평이나 인천 등에서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합격자 배정이 많은 한성에 거처를 마련한 후 시험에 응시하는 편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사실 조선시대 양반사족 가운데 향리(鄕里)와 한성에 각각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²⁷ 따라서 문과 급제 당시 거주지가 한성으로 나타난 3명의 경우도 주 거주지가 부평이었으나, 편익에 따라 거주지를 한성으로 하여 과거에 응시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27 강원도 원주 거주 사마시 합격자를 분석한 장영민의 「조선시대 원주 거주 사마시 급제자와 양반사회」(『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시사하고 있다.

【부록】부평 출신 과거(문과) 합격자

1. 사마시 합격자

이름	출생년도	본관	합격 시기	합격 등급	전력	비고
박순손(朴順孫)	미상	밀양	1447년(세종 29)	생원 3등	미상	-
원경희(元景禧)	미상	원주	1480년(성종 11)	생원 2등	幼學	-
이식(李軾)	미상	미상	1480년(성종 11)	진사 2등	幼學	-
채순(蔡恂)	미상	미상	1480년(성종 11)	진사 3등	幼學	-
윤탕조(尹湯祚)	미상	파평	1510년(중종 5)	진사 3등	內禁衛	-
조세림(趙世琳)	미상	직산	1513년(중종 8)	생원 2등	幼學	-
이의간(李義幹)	1512년	전의	1561년(명종 16)	진사 3등	訓導	-
변충원(卍忠元)	1568년	밀양	1603년(선조 36)	생원 2등	幼學	-
공신국(貢薰國)	1586년	인천	1610년(광해군 2)	생원 3등	幼學	-
이식(李埴)	1599년	전주	1624년(인조 2)	생원 3등	許通	-
정도영(鄭道榮)	1601년	해주	1627년(인조 5)	생원 3등	幼學	1633년 문과(병과) 급제
이이현(李頤賢)	1599년	전주	1627년(인조 5)	진사 3등	幼學	-
임도삼(任道三)	1647년	풍천	1669년(현종 10)	생원 3등	幼學	1675년 문과(병과) 급제
이만엽(李萬葉)	1643년	전주	1669년(현종 10)	진사 3등	幼學	-
이상(李相)	1637년	전주	1673년(현종 14)	생원 3등	幼學	-
남징(南澄)	1645년	의령	1673년(현종 14)	진사 3등	幼學	-
오성규(吳聖規)	1634년	해주	1675년(숙종 1)	생원 2등	幼學	-
이동표(李東標)	1634년	전주	1675년(숙종 1)	생원 3등	幼學	진사시에서도 합격
이동표(李東標)	1634년	전주	1675년(숙종 1)	진사 3등	幼學	생원시에서도 합격
이태령(李泰齡)	1666년	전주	1690년(숙종 16)	진사 2등	幼學	-
임만창(林晩昌)	1648년	평택	1691년(숙종 17)	생원 3등	幼學	-
성봉장(成鳳章)	1660년	창녕	1691년(숙종 17)	진사 3등	幼學	-
이봉령(李鳳齡)	1668년	전주	1693년(숙종 19)	진사 2등	幼學	-
박규문(朴奎文)	1670년	밀양	1696년(숙종 22)	진사 3등	幼學	1723년 문과(을과) 급제
정후주(鄭後周)	1645년	해주	1699년(숙종 25)	생원 3등	幼學	진사시에서도 합격
정후주(鄭後周)	1645년	해주	1699년(숙종 25)	진사 2등	幼學	생원시에서도 합격
한세유(韓世維)	1670년	청주	1699년(숙종 25)	진사 2등	幼學	-
원태규(元泰揆)	1665년	원주	1699년(숙종 25)	진사 3등	幼學	-
구문식(具文湜)	1676년	능성	1711년(숙종 37)	생원 3등	幼學	-
이구령(李龜齡)	1680년	전주	1713년(숙종 39)	생원 3등	幼學	진사시에서도 합격
이구령(李龜齡)	1680년	전주	1713년(숙종 39)	진사 2등	幼學	생원시에서도 합격
정진태(鄭震泰)	1666년	해주	1713년(숙종 39)	진사 3등	幼學	-

이름	출생년도	본관	합격 시기	합격 등급	전력	비고
정진호(鄭震虎)	1682년	해주	1715년(숙종 41)	진사 3등	幼學	-
변세언(卍世彦)	1694년	밀양	1723년(경종 3)	진사 3등	幼學	-
한석조(韓錫祚)	1681년	청주	1727년(영조 3)	진사 3등	幼學	-
이덕리(李德履)	1708년	전주	1735년(영조 11)	생원 3등	幼學	-
이명택(李命宅)	1707년	전주	1735년(영조 11)	진사 3등	幼學	-
정낙조(鄭樂祚)	1710년	해주	1741년(영조 17)	생원 2등	幼學	-
이흥종(李興宗)	1718년	전주	1747년(영조 23)	진사 3등	幼學	1751년 문과(을과) 급제
정홍연(鄭弘淵)	1723년	동래	1753년(영조 29)	진사 3등	幼學	-
남익주(南益周)	1723년	의령	1756년(영조 32)	생원 3등	幼學	-
이의범(李宜範)	1730년	전주	1762년(영조 38)	생원 3등	幼學	-
한응렴(韓應濂)	1726년	청주	1765년(영조 41)	진사 2등	幼學	-
남익유(南益裕)	1731년	의령	1774년(영조 50)	생원 2등	幼學	-
류지우(柳之羽)	1741년	진주	1774년(영조 50)	진사 3등	幼學	1794년 문과(병과) 급제
한병겸(韓秉謙)	1743년	청주	1774년(영조 50)	생원 3등	幼學	-
남정여(南正興)	1744년	의령	1795년(정조 19)	생원 2등	幼學	-
양성묵(梁性默)	1760년	남원	1795년(정조 19)	진사 1등	幼學	장원
류지익(柳之翊)	1760년	진주	1798년(정조 22)	진사 1등	幼學	1805년 문과(병과) 급제
류지습(柳之習)	1767년	진주	1801년(순조 1)	생원 3등	幼學	-
류지광(柳之翊)	1768년	진주	1801년(순조 1)	진사 2등	幼學	-
박창우(朴昌禹)	1773년	경주	1804년(순조 4)	진사 2등	幼學	-
정지선(鄭止善)	1763년	해주	1813년(순조 13)	진사 3등	幼學	-
민종성(閔種性)	1755년	여흥	1819년(순조 19)	생원 3등	幼學	-
최이중(崔履中)	1795년	경주	1819년(순조 19)	생원 3등	幼學	-
강성(姜愷)	1761년	진주	1819년(순조 19)	진사 3등	幼學	-
류정동(柳鼎東)	1789년	진주	1822년(순조 22)	진사 3등	幼學	-
신석룡(申錫龍)	1795년	평산	1840년(헌종 6)	진사 3등	幼學	-
류택동(柳宅東)	1813년	진주	1849년(헌종 15)	진사 3등	幼學	-
민희철(閔羲黻)	1813년	여흥	1855년(철종 6)	생원 2등	幼學	-
원석춘(元錫春)	1808년	원주	1861년(철종 12)	진사 3등	幼學	-
류태형(柳台衡)	1826년	진주	1876년(고종 13)	진사 2등	幼學	-
류정무(柳正茂)	1848년	진주	1885년(고종 22)	진사 2등	幼學	-
이희종(李羲鍾)	1876년	경주	1891년(고종 28)	진사 3등	幼學	-
남형원(南衡元)	1866년	의령	1891년(고종 28)	진사 3등	幼學	-
류내형(柳來衡)	1850년	진주	1891년(고종 28)	진사 3등	幼學	-
류희태(柳熙泰)	1863년	진주	1894년(고종 31)	진사 3등	幼學	-
이석영(李錫永)	1874년	廣州	1894년(고종 31)	진사 3등	幼學	-

2. 문과(대과) 급제자

이름	출생년도	본관	급제 시기	급제 등급	전력	비고
박사란(朴思爛)	미상	고령	1438년(세종 20)	병과	生員	-
이종호(李宗顥)	미상	부평	1469년(예종 1)	갑과	生員	-
민은(閔閔)	미상	여흥	1532년(중종 27)	병과	進士	-
권협(權峽)	1553년	안동	1577년(선조 10)	을과	幼學	-
이경운(李卿雲)	1556년	전주	1595년(선조 28)	을과	生員	1871년 읍지에 기록
정도영(鄭道榮)	1601년	해주	1633년(인조 11)	병과	生員	1627년 생원시 3등 합격
임도삼(任道三)	1647년	풍천	1675년(숙종 1)	병과	生員	1669년 생원시 3등 합격
박규문(朴奎文)	1670년	밀양	1723년(경종 3)	을과	前參奉	1696년 진사시 3등 합격
이흥종(李興宗)	1718년	전주	1751년(영조 27)	을과	進士	1747년 진사시 3등 합격
권영(權煥)	1741년	안동	1768년(영조 44)	병과	幼學	-
권홍(權弘)	1762년	안동	1785년(정조 9)	병과	幼學	-
류지우(柳之羽)	1741년	진주	1794년(정조 18)	병과	進士	1774년 진사시 3등 합격
류춘동(柳春東)	1776년	진주	1803년(순조 3)	병과	幼學	-
류지익(柳之翊)	1760년	진주	1805년(순조 5)	병과	進士	1798년 진사시 1등 합격
이계철(李啓哲)	1800년	경주	1836년(헌종 2)	을과	幼學	-
류태동(柳泰東)	1792년	진주	1837년(헌종 3)	병과	幼學	-
서행보(徐行輔)	1836년	대구	1880년(고종 17)	병과	幼學	-
임백영(任百瑛)	1868년	풍천	1891년(고종 28)	병과	幼學	-

| 제5절 | 일제의 인천 개항 강요와 부평의 방어 시설 설치

1. 연희진과 포대²⁸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서해 연안 지역을 개항장으로 개설하기 위한 일본과의 교섭이 전개되었다. 조선정부는 장차 일본이 인천 제물포를 개항장으로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인천과 이웃한 부평을 강화도에 못지않은 해문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⁹

인천·부평 연안에 대한 방비책은 1878년(고종 15) 8월에 이르러 진을 창설하여 포대를 설치하자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듬해 7월 1일 인천 화도진(花島鎭)과 부평 연희진(連喜鎭)의 창설로 완성되었다. 아울러 화도진 소속으로 제물포 포대·북성곶 포대·묘도(괭이부리) 포대, 논현(호구포) 포대 등을 두었고, 연희진에는 연희(용두) 포대·가정 포대·원창 포대·가좌 포대 등을 두어 관할하게 하였다.



❖ 연희진지 터(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소재)



❖ 연희진지 기념비

²⁸ 이 부분은 이윤혜의 「연희진」(인천광역시사 10 : 인천의 관광유적,상, 인천광역시, 2019, 인천광역시, 2019)에 수록된 글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²⁹ 박광성, 「인천개항과 연안방비책에 대하여」, 『기전문화연구』11,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1980.

부평 지역에서의 연희진 설치는 두 차례의 양요(1876년 병인, 1871년 신미)와 운요호 사건(1875년) 이후 인천·부평의 연안 방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비롯되었다. 특히 ‘조일수호조약’(일명 ‘강화도조약’, 1876년)에 따라 조선의 개항이 결정된 후, 일제가 인천 제물포를 개항 후보지로 거론하자 인천과 부평 연안에 대한 방비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에, 1878년(고종 15) 8월 27일 조정에서는 인천·부평의 연안 방비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 인천·부평의 연안에 포대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듬해 7월 1일 인천과 부평 지역의 역사(役事)가 마무리되자 고종은 신설된 진의 명칭은 각각 ‘화도진(花島鎭)’과 ‘연희진(延喜鎭)³⁰’이라 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강압에 의해 1880년(고종 17)에 인천의 개항을 허용하기로 결정되자 연안 방비의 목적을 위해 설치했던 두 군진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1882년(고종 19) 6월 28일 화도진은 훈련도감으로 이속되고 연희진은 혁파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연희진이 폐지될 당시에 소속 포대도 함께 혁파되었는지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부평에 설치하기 전인 1883년(고종 20) 12월에 기연해방영 소속 포군(砲軍)의 훈련에 대한 내용을 사목(事目)으로 작성할 것을 지시한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연희진 혁파 이후에도 그 소속 포대들은 부평부 또는 기연해방영에서 관할하며 일정 기간 존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희진은 존속 기간이 3년으로 짧았기에 소속 포대에 관한 기록도 미비하다. 현재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희 포대’ 3곳과 ‘가정 포대’ 1곳, ‘원창 포대’가 2곳, ‘가좌 포대’ 1곳 등, 총 7개 정도의 포대가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0 연희진은 관찬 사료에 ‘延喜鎭’으로도 기록되었으나, ‘連喜鎭’으로의 기록이 일반적이다. 현재 문화재(비지정) 명칭도 ‘連喜鎭址’로 기록하고 있다.

표 5 연희진 소속 포대 현황

명칭	소재지	특징
연희 1포대	서구 경서동 343번지 일대	• 공촌천 수로 방어 • 포좌 방향: 남동쪽
연희 2포대	서구 연희동 산 124번지 일대	• 공촌천 수로 방어 • 포좌 방향: 서북쪽 • 연희 1포대와 교차 사격 가능
연희 3포대 (용두 포대)	서구 연희동 423번지 일대	• 양끝 돌출부 사이로 만을 형성하는 지점에 설치 추정 • 공촌천 수로 방어 • 포좌 방향: 서북쪽
가정 포대	서구 가정동 69-1번지 봉우재 일대	• 그동안 연희(용두)포대로 잘못 알려짐 • 심곡천 수로 방어 • 포좌 방향: 서남쪽
원창 1포대	서구 원창동 산 1~4번지 일대	• ‘환자곶뒀산’이라 불리는 곳에 포대 설치 추정 • 심곡천 수로 방어 • 포좌 방향: 서북쪽
원창 2포대	서구 석남1동 산 125-1번지 일대	• 주변 공업단지 조성으로 원지형 상실 • 포좌 방향: 서쪽 추정
가좌 포대	서구 가좌동 329번지 일대	• 간석오거리로 이어지는 수로를 방어(현재는 육지화) • 포좌 방향: 남서쪽 추정

연희진의 주요 역할은 외국 선박이 부평 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기에 포대는 해안 및 갯골, 수로 등에 입지하였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포대가 유력한 지역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을 뿐, 현재로서는 포대와 관련한 유구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연희진이 혁파된 이후에도 조선 정부는 외세가 부평을 통해 도성으로 진입하는 것을 대비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연희진 혁파 1년 후인 1883년(고종 20)에 연희진에서 부평도호부로 가는 길목인 경명현에 중심성(衆心城)을 축조하였다.

2. 중심성(衆心城)³¹

1) 중심성(터)의 현황

계양산 정상에서 경명현[景明峴. 징맹이고개]을 지나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1883년에 쌓은 중심성의 옛 터이다. 중심성은 경명현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성을 쌓아 해안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중요 관문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성곽이었다. 행정구역상으로 계양구와 서구의 경계를 이루는 경명현 생태 통로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계양산 정상, 남으로는 중구봉에 이르는 능선의 등산로와 그 주변에 해당된다.



❖ 1970년대의 경명현과 중심성지(출처 : 『인천광역시사 10 : 인천의 관방유적』상, 인천광역시, 2019)

31 이 부분은 견수찬의 「중심성지」(『인천광역시사 10 : 인천의 관방유적』상, 인천광역시, 2019)에 수록된 글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 「중심성 사적비」 기부(인천광역시 서구청 화단 내 소재)

과거의 학술조사에서 현재의 경명현 생태통로 자리에 성문의 초석과 사적비가 있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무너진 성돌이 산재해 있음이 보고되었으나, 오랜 기간 자연적·인위적 훼손이 계속되어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2) 중심성의 축성 배경

부평 지역은 외적이 해안에 상륙하면 하루 만에 도성에 접근할 수 있어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으나, 오랫동안 왕실의 피난처인 강화도를 외곽에서 방어하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었다. 부평이 도성 방어의 전초기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일본과 인천 등의 개항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1876년(고종 13) 이후부터였다.

어영대장 신정희는 “인천·부평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진을 신설하라”는 어명에 따라 1878년(고종 15)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7월 1일 제물포의

화도진(花島鎭)과 더불어 부평 해안에 연희진(延喜鎭)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때 연희진을 설치한 것은 일본 등 열강의 군사 도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비가 부실했던 부평 해안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육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항으로 인해 해안 방어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임오군란 후 군제가 개편됨에 따라 연희진은 1882년 폐지되고 말았다. 그 후 제물포 개항에 따라 1883년(고종 20) 10월 경명현에 중심성(衆心城)을 축조해 유사시 부평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게 하고, 이듬해 1월에는 부평에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해 경기 연안에 대한 군사적 방비를 강화해 나갔다.

3) 중심성의 축성 경위와 사적비

중심성의 축성 과정은 <중심성 사적비(衆心城事蹟碑)>의 비문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중심성 사적비는 우리나라 성곽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화강석 귀부(龜趺) 위에 오석(烏石)으로 된 비신(碑身)을 갖춘 높이 151cm, 폭 46cm, 두께 25cm의 규모였다고 전한다. 본래 중심성의 공해루(控海樓) 서쪽에 세워져 있었는데, 1949년에 만국공원(현 자유공원) 내 인천시립박물관으로 비신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의 포화 속에 비신이 소실되어 지금은 당시 인천시립박물관의 이경성 관장이 조사한 비문의 내용만이 글로써 전해지고 있다.³²

〈중심성 사적비(衆心城事蹟碑) 원문 판독 및 번역〉

原文

桂陽山之西 有峴曰景明 卽沿海關門 不佞口茲州 有志關防未就矣 是歲九月之小晦 仍詔勅 經紀城堡 吏民便宜 樂爲之赴役 西築將臺 爲鍊武之所 門因地名以景明 建上高樓 曰 控望海 爲衆心者口何義 今以家民之心 築城卽 此國語所爲衆心成城也 故名以衆心者 豈不美哉 時重修軍器 諸津砲土爲此固守之策 訖役之日 府人請以事蹟 以余不文辭 略爲之紀而特捐六十金府之邑上下洞 以爲城堞 修葺之資焉 光緒九年癸未十月 行府使朴熙房

記而書

董役 座首 朴周鳳 中軍 朴春東 將校 鄭鴻達 尹基煥 禹景雲 高昇煥 邑吏 金鼎完 盧性燮 吳秉揖 蔡東權 林聲鶴 李鎮康 盧俊燮 韓建洙 姜培煥 崔啓昌 韓尙賢 洪應澤 方佑均 朴漢植

上洞 口口學 朴口浩 金奎源 下洞 姜啓煥 金寬玉

번역문³³

桂陽山の 서쪽에 고개가 있으니 景明이라고 한다. 곧 바다와 접한 關門이다. 내가(찬자 朴熙房) 이 고을에 원으로 와서 관방에 뜻을 두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해 그믐 9월에 詔勅이 있어 城堡를 쌓음에 使民이 편하게 하여 기꺼이 부역하도록 하였다. 서쪽에 장대를 쌓고 병사의 훈련하는 곳을 삼고 지명을 따서 이름을 景明이라 하였으며, 高樓에 올라 이르기를 “바다에 아뢰고 바랍니다. 衆心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지금 家民의 마음으로 성을 쌓은 즉 이것은 우리말로 여러 사람의 마음으로 城을 쌓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衆心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요. 이때 軍器를 중수하고 모든 나무의 砲土들로 하여금 굳게 지키는 방책을 삼게 했다. 役을 마치는 날 고을 사람들이 이 事蹟으로 글을 잘하지 못하는 나에게 부탁하니 특히 府의 읍인 上洞과 下洞에서 60金을 연출하여 城堞을 修葺하는 자금을 마련하였음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光緒 9년 계미 10월 行 府使 朴熙房은 글을 짓고 쓴다.

董役

좌수 박주봉, 중군 박춘동, 장교 정홍달·윤기완·우경운·고승환, 읍리김정완·노성섭·오병음·채동권·임성학·이진강·노준섭·한건수·강배완·최계창·한상현·홍은택·방우균·박한식
상동 口口학·박口호·김규원, 하동 강계환·김관옥

위 ‘중심성사적비’의 비문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축성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32 이경성, 『인천고적조사보고서』, 1949.

33 인하대학교 박물관, 『계양산 중심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3.

첫째, 성은 1883년(고종 20)9월 29일 조칙에 따라 축성 공사가 시작되었다.

둘째, 상동(上洞)과 하동(下洞)의 부호가 60금을 공사비로 출연하고,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는 등 부평부의 주민이 공사에 적극 참여하였다.

셋째, 성은 한 달 만에 완공되었다.

넷째, 성의 서쪽으로 장대를 조성하여 병사를 조련하였고, 해안의 포대에 병사를 재 배치하여 연안 방비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성의 이름은 부민의 뜻을 모아 축조했다 하여 ‘중심성(衆心城)’이라 이름 붙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후 부사 박희방이 사적비를 세웠다.

4) 중심성의 철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계양산 일대 조사(1916년)와 총독부 산림국의 『조선성지실측도』(1911~1924년)에 중심성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중심성은 일제의 ‘읍성폐지령’에 따라 1914년경에 이미 철거되어 성곽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축성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주민이 짧은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한 탓에 성곽이 견고하지 않아 성의 붕괴와 훼손이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에도 문루 등 중심성의 핵심 시설이 잔존하던 경명현 정상부는 1980~1990년대에 걸쳐 진행된 도로 개설과 확장 과정에서 높이가 30m 낮아지고, 성곽의 중심부는 도로 공사 과정에서 모두 사라졌다. 현장에 남아 있던 사적비의 귀부도 이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 옮겨져 현재는 중심성이 있던 과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1. 부평의 근대 최초 사립학교 ‘보명(普明)’³⁴

최근까지 인천 지역의 유지들이 설립한 사립학교로 알려진 것은 1900년대 초반에 세워진 외국어를 가르친 제녕(濟寧)학교뿐이었고, 개화기에 부평 지역에 사립학교가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런데 비록 그 존립 시기는 짧았으나 부평지역인 모월곶 검암동에 지역 유지들이 뜻과 힘을 모아 사립학교를 건립하였다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었고, 이 사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도 작성된 바가 있다.

이에,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더 이상의 연구 및 내용 서술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중요성이 크기에 일단 부평사 편찬의 기회를 얻어 수록해 본다. 필자에게 본인이 작성한 원고와 관련 자료를 제공한 이원규 선생의 글을 소개하면서 서술을 시작해 보겠다.

“당시 부평에 공립학교는 있었다. 부평공립소학교(현 부평초등학교)가 현재의 계산동 162번지에 개교한 것은 1899년 3월 15일이다. 북서곶 학동들도 경명현을 넘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나 북서곶 일곱 마을에서 다닌 학생은 모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었다.

검암동에 사립학교를 세웠더니, 서구사 및 부평사를 넘어 인천시사를 고쳐 써야 할 일이라 필자는 깜짝 놀라 그 신문을 찾아보고 관련 자료를 추적하고 증언을 채록하게 되었다.”

부평 지역에서 근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시도는 1900년에 있었다. 『황성신문(皇城新聞)』 1900년 11월 1일자 기사 내용을 보면, <富平設校>(부평에 학교 설립)이라는 제목에 다음과 같은 짧은 기사가 게재되었던 것이다.

34 이 부분은 「이원규의 향토이야기 : '검암동의 보명학교와 선각자 정홍석(鄭洪錫)」(『북서곶마을지』, 서구문화원, 2018)의 서술 내용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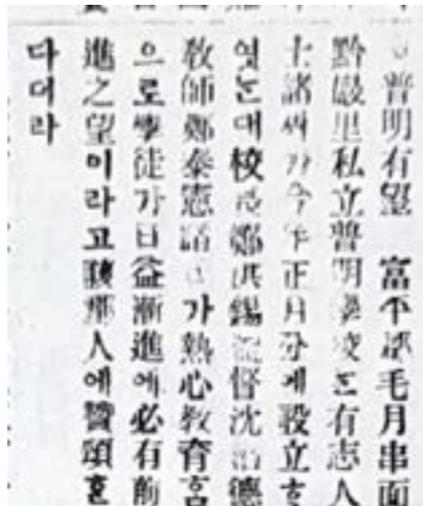
富平郡 玉山面居李彰珪氏가 該洞에 待立私立學校를 設始하고 農家俊乂를 募集教育
한다고 學部에 請願하였다.

부평군 옥산면에 거주하는 이창규(李彰珪)가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농가 뛰어난 인재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겠다는 뜻을 학부에 청원했다는 기사이다. 그런데 실제 학교 설립은 당장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자료에 부평 지역에서의 사립학교 설립 사실에 관한 기사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부평 지역 사립학교 설립에 관한 최초의 기사는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7년 9월 29일자에 「普明有望」(보명에 희망이 있음)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이다.

富平郡 毛月串面 黔巖里 私立普明學校는
有志人士 諸씨가 今年 正月 分에 設立하였는
대 校長 鄭洪錫 監督 沈相德 教師 鄭泰憲 諸
氏가 熱心教育함으로 學徒가 日益漸進에 必有
前進之望이라고 該郡人에 贊頌한다더라.

(부평군 모월곶면 검암리 사립 보명학교는 뜻있는 인사 여러 명이 금년 정월쯤에 설립하였는데 교장 정홍석, 감독 심상덕, 교사 정태헌 등이 열심이 교육하므로 학생이 날로 늘어나 반드시 전진할 희망이 있다고 부평군 사람들이 칭송한다더라)



◆ 보명학교 설립 기사
(출처 :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9일자)

1907년 1월에 부평군 모월곶면 검암리, 즉 현 서구 검암동에서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아 사립 ‘보명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교장에는 정홍석이 선임되었고, 감독에는 심상덕, 교사로는 정태헌이 직무를 맡았다는 기사이다. 그리하여 이들에 의해 교육 사업이 번창하여 학생 수가 날로 늘어가 반드시 문명의 진보가 있게 될 것이라는 보도이다.

당시 검암동에 거주하였던 정홍석(鄭洪錫)은 세거(世居) 가문인 해주 정씨의 인물이

었다. 어린 시절 검암동에서의 기억을 지니고 있는 이원규와 지우 3인(정웅섭·정근섭·정기홍 선생) 4인이 어릴 적 기억을 회고하여 정리한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07년, 나라가 패망을 향해 기울 무렵 전국의 토호 유지들이 애국계몽을 위해 사재를 털어 신식 학교를 세울 때 검암동의 정홍석도 나섰다. 농투성이가 아니라 꽤 박식한 선비로서 인삼 판매를 해서 돈을 모은 분이였다. 왕도인 한성이나 다른 대도시들도 가 본 개화인이기도 했다. 이분은 1878년생으로 이 때 30세였고 운영비를 쾌척하고 교장을 맡았다. 아마도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심상덕이라는 친구를 끌어들이 감독을 맡겼다. 이분은 인접 마을 백석동의 풍산 심씨 가문은 아니고 고개 넘어 목상동에 살던 청송 심씨 가문 사람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890년생으로 정홍석보다 두 살 아래인 친척 조카 정태헌을 교원으로 내세웠다. 아마도 머리를 땅을 사내아이들 여남은 명을 모았을 것이고 수업은 심상덕과 정태헌이 했을 것이다. 1910년 강제합방 후 일제는 민족혼 교육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공포해 전국의 많은 사립학교들을 교육 기준에 모자란다는 핑계로 폐쇄시켰다. 보명학교도 그렇게 끝났을 것이다.

정홍석은 학교가 문을 닫자 인삼 판매 사업을 하러 상하이로 떠났다. 1910년 일본 상하이 총영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강제합방에 대한 상하이 체류 한인들의 행동을 분석한 내용에서 거기 그의 이름이 처남 윤흥삼(尹興三)과 함께 등장한다.

그는 1920년대에 상하이를 떠나 윈난(雲南)으로 갔고 가족을 불러 합류했다. 그곳에 있는 강무학교(무관학교)에 조선인 청년들이 입학한 것과 관련된 기록이 일본 영사의 보고서에 남아 있다. 윈난강무학교는 중국 윈난성 쿤밍(昆明)에 있었는데 현재 그 건물이 보존되어 있다. 한국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 이범석(李範錫)과 김훈(金埴, 한국독립운동사와 중국 공산주의운동사에 양림(楊林)으로 나온다)이 졸업한 학교이다.

정홍석과 윈난에서 함께 살았던 그의 손자 정효근이 쓴 행장(行狀)이 족보에 실려 있는데 ‘상하이 시절 백범 김구의 막하에 들어 있었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사귀었다’고 하였다.

검암동 정씨 가문은 위의 정홍석과 정태헌 외에도 근현대사에서 교육자를 많이 배출

했다. 정지석은 1895년 관립 한성사범학교 속성과를 졸업한 서포 최초의 공립 교사였다. 정광근(鄭光根)은 운영난에 빠진 검암동의 고려중학교를 인수해 인광중학교로 개명하고 오늘의 서인천고등학교에 이어가게 한 교육자였다. 그런 점에서 근대 이후 부평 지역 교육사의 흐름에 검암동 해주 정씨 일가는 지대한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부평의 또 다른 사립학교들

개화기 부평군에는 앞에서 살핀 보명학교 외에 또 다른 사립학교들이 있었다. 역시 근대 신문 자료에서 그 내용들이 확인된다.

1) 사립 '계양(桂陽)'학교

『황성신문(皇城新聞)』 1908년 2월 20일자 신문에 사립 계양(桂陽)학교의 설립 취지서가 실려 있다.

부평군의 뜻 있는 신사(紳士) 이규룡(李圭龍), 박희병(朴熙秉), 조용배(趙龍培), 박민병(朴斌秉), 공면주(孔冕周), 박제병(朴濟秉), 정행원(鄭行元) 등과 각 면장 모두가 사립학교를 창설하였다. 각 인, 각 처에서 기부 청구한 금액이 약 50원 이상에 달하였다고 하는데, 그 취지서는 다음과 같다더라.

“슬그머니 생각하니 정계상 정교롭고 아름다운 방법과 사회상 활동과 할 일이 모두 원인이 있음에도 결과가 생겨나지 않는 것은 이 변칙이라. 현재 세계 열방이 반석과 태산에 국가를 두고 교화와 지경에 민생을 두어 엄연한 확립에 권리를 신장하니, 이 어찌 자연적으로 성립하겠는가. 이 또한 원인이 있어 결과가 생겨난 것이니,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학교다. 무릇 학교는 인민 개진의 창호요, 국가 수용의 기관이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것과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모두 이에서 나온 것을 따르니, 학교의 효력이 진실로 중대하다. 생각하건데 우리 대한이 개국 517년이고, 통상(通商)이 30여 년인데, 인문이 오히려 많지만 열리지 않고 형세를 자못 가까우나 풀지 못하여 국가의 흥륭(興隆)을



❖ 계양학교 설립 취지서(출처: 『황성신문』, 1908년 2월 20일자)

다만 자연 성립하기를 바라고 중대한 효력의 발생 원인에 이르러서는 마치 갈대 올타리 변사의 일과 같이 인식하여 이에 시들어 일어나지 못하니, 진실로 지극히 원통하다.”

삼가 생각하건데 우리 태황제 폐하께서 시의(時宜)를 살피시어 교육 권면에 부지런히 힘쓰라 하신 조칙을 계속 굽이 내려주시고 주무부에서 신학문을 편집하여 이끌고 배양에 책임으로 부·군에 훈칙이 정중함에 공·사 학교가 울창하게 일어나니, 앞으로 성적이 가히 여섯 주가 인정하고 같은 날 말할 것이다. 돌아보건대 우리 부평군은 면에 재능 있는 자가 15명이고, 가구 수는 불과 3,000인데, 또한 국민 일부분이다. 솔 또한 귀가 있거늘 하물며 국민이 된 자가 열방에 국가 부강과 인재 발달한 원인이 학교에 있는 줄을 어찌 들리지 않았으며 조칙이 지극한 의미와 성대한 뜻과 가르치는 말씀에 격절함에 대하여 감동하여 깨달음에 정이 없으리오. 우리 동지 인사로 인하여 사립학교 설립에 의를 제기하며 일경이 부합하여 각기 스스로 기부한 뜻에 기본금으로 만들고, 학교 명칭을 '계양(桂陽)'이라 하며, 임원을 조직하고 교사를 초빙하여, 총명하고 준수한 자제를 성심으로 교육하여 장차 크게 씬에 기구를 만들어 줄 것을 깊게 생각하니, 이는 특별히 한 고을의 행복은 아닐 것이고, 또한 국가의 행복이 될 것이요, 사회의 행복이라 하노라.³⁵

35 「富平郡私立桂陽學校趣旨書」, 『황성신문』, 1908년 2월 20일자.

이 기사를 통해 1908년 초 부평군의 뜻 있는 인사 이규룡(李圭龍), 박희병(朴熙秉), 조용배(趙龍培), 박빈병(朴斌秉), 공면주(孔冕周), 박제병(朴濟秉), 정행원(鄭行元) 등과 각 면의 면장들이 힘을 모아 사립학교를 창설하고 그 이름을 ‘계양(桂陽)’이라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앞서 살핀 모월곶면 검암동에 설립했다는 보명학교에 이어 부평 지역 내 두 번 째로 설립한 사립학교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 신문 기사 외 계양학교에 대한 자료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2) 사립 '계창(桂昌)'학교

부평 지역에 ‘계창(桂昌)’이라는 사립학교가 있었던 사실도 개화기 신문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908년 4월 28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富平郡私立桂昌學校義捐氏名>(부평군 사립 계창학교에 의연금을 낸 명단)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부평 군수 전국환(全國煥)을 비롯하여 군내면(郡內面)과 동면(東面), 서면(西面), 마장면(馬場面), 석곶면(石串面)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연금을 납부하였던 것이다.

이 의연금 납부자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郡內面

- 郡守 : 全國煥 100圓
- 郡主事 : 李濟翼 10圓
- 校長 : 李圭龍 200圓
- 總務 : 朴희(熙)秉 50圓
- 監督 : 趙龍培 100圓, 朴斌秉 8圓
- 贊成員 : 朴濟秉 150圓, 朴春秉 50圓, 리(李)종善·童蒙 리升雨 각 40圓, 宋春錫·崔成圭 각 30圓, 趙九鉉 25圓, 禹致俊·정(鄭)行敏·리秉常·리종敦 각 20圓, 李文浩 8圓, 문(文)聖完·리善五 각 7圓, 尹元圭·崔仁甫·김(金)致根·俞春擘·朴正來·리在根 각 6圓, 김東根·方聖규·朴宗伯·吳九榮·梅宗燁·김昌雲·林氣會·金奇男·리道亨·徐聖敏·許辰化·尹德眞·우(禹)남淳·薛完圭·金壽甫·리完植·朴台鳳·玄貞默·리奉凡·杜宗華·高載煥·姜南현·尹德俊 각 5圓, 김문玉 4圓, 權信一 3圓. 금액 합계 1,093圓.
- 京居 : 視察 김時鉉 5圓, 技師 리基鎬 2圓.

○ 東面

- 朴承祚 25圓, 朴綏秉 20圓, 趙性殷 16圓, 白樂元 16圓, 朴昌秉 14圓, 崔性淳 12圓, 김雲先 11圓, 김致西 10圓, 朴한益·박容赫·김連實·朴容冕·김한德·박학秉·박厚秉·朴承赫·朴容熙·김仲燁 각 5圓, 朴奉益·趙伯云·최(崔)春五·최致云 각 4圓, 朴承宅·趙聖必·趙元西·金한善·姜連熙·姜鳳熙·최聖柱 각 3圓, 尹龍柱·김化成·崔文煥·김成弘·최壽兼·리元基·金順集·리云實 각 2圓, 金永洙·박性實·朴永益·박應俊·黃近洙·朴順文·리春先·唐順弼·김仲鎰·尹準九·朴景煥 1圓23錢, 朴昌淳 50錢. 금액 합계 238圓73錢.

○ 西面

- 後井동 : 申仁淑 60圓, 申聖極·申完植 각 9圓, 申문秀·文用觀 각 3圓, 金貴甫 2圓, 박春教·申在均 각 1圓50錢, 申孝秀·林聖培 각 50錢.
- 葛月里 : 尹致舜 10圓, 리永祚·리萬兼·리文白·리元教·리元西 각 6圓60전, 리星汝·리平伯·리公善·리在亨 각 3圓60전, 洞中 각人 32圓60전. 합 90圓.

- 鶴井里 : 金成鎭 6圓, 張敬祚·김公化·김成彦 각 3圓60전, 洞中 各人 13圓20전. 합 30圓.
- 佳峴 : 洞中 各人 2圓.
- 新대리 : 安弘植·김順儀 각 1圓80전, 치(蔡)致玉·崔永觀·김永信·김元학 각 1圓40錢, 洞中 各人 12圓80전. 합 22圓.
- 化田里 : 리順元·리秉德 각 8圓, 리秉哲·리秉會·리秉律 각 6圓, 리秉裕·리允植 각 4圓, 洞中 各人 24圓. 합 66圓.
- 이상 (西面) 300圓.
- 馬場面 : 任百영 36圓50전, 沈魯興·리東宇·池有弼 각 15圓, 黃友賢·김龍化 각 8圓, 리東業·리致浩·김永化·리致弘 각 6圓, 리性友·리台凡·任永春·리元凡·김斗淵·김晚秀 각 5圓, 面內 各人 48圓50전. 합 200圓.
- 石串面
 - 佳佐동 : 各人 금액 合計 74圓.
 - 新峴里 : 各人 金額 合計 44圓.
 - 高棧里 : 各人 金額 合計 20圓.
 - 番作里 : 各人 金額 合計 16圓60전.
 - 浦里 : 各人 金額 合計 22圓.
 - 佳亭里 : 趙順根 40圓
 - 栗島 : 洞中 金額 合計 20圓.
 - (이상 石串面) 합 236圓60전.
- 上吾丁面 : 內 各人 金額 合計 201圓40전.
- 黃魚面 : 內 各人 金額 合計 208圓.
- 毛月串面
 - 公村 : 各인 金額 合計 20圓.
- 이상 (부평 전체) 金額 合計 2,504圓73錢.



❖ 계창학교 의연금 납부자 명단(출처: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28일자)

이 납부자 명단을 보면 부평 군수를 비롯하여 대다수 면의 지사들이 계창학교의 설립을 위해 의연금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명단 중에는 같은 해 계창학교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 발견된다. 바로 이규룡·박희병·조용배·박빈병·박제병 등이다. 이들은 계창학교의 교장과 총무, 감독 등의 중추적 직무를 맡고 있었다.³⁶

계창학교는 부평에 설립된 사립학교 중 가장 많은 신문 기사가 게재된 학교이다. 부평 군수 전국환이 학교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이후 학교 발전에도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³⁷

³⁶ 학교 설립의 주도적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 중복되는 것을 볼 때, 계창과 계창은 교명을 변경한 동일 학교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단서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³⁷ 전국환(1878~1927)은 전협(全協)이라고도 불렸다. 1898년 농상공부 주사, 제주 군수, 일진회 평의장, 부평 군수(1907~1909 재직) 등을 역임하였다. 1920년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비밀결사체인 '대동단(大同團)'을 조직하여 김가진(金嘉鎭)을 총재로 추대하고, 기관지 『대동신문(大同新聞)』을 발간하여 민족정신을 드높였다. 그해 의친왕 이강(李坰)을 중국으로 망명시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합세하기로 하고 임시정부 국무총리 안창호(安昌浩)와 연락, 협의하여 승낙을 얻었다. 먼저 총재 김가진을 상해로 탈출시킨 뒤 의친왕의 망명 공작을 추진하였다. 1920년 11월 의친왕을 가장시켜 서울역을 출발하였으나 신의주에서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이 사건으로 대동단 조직이 발각되어 수많은 동지와 함께 붙잡혔다. 이 사건의 주동자로 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모진 고문으로 7년 만에 질병으로 보석되었으나 곧 사망하였다. 1982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계창학교에 관한 신문 기사들을 좀 더 정리해 보자.

부평군 사립 계창학교는 지역 내 뜻있는 인사가 의연금을 내어 설립한 지 몇 달 만에 학생이 50명에 달하였는데, 다가오는 (1908년) 5월 3일 춘계 운동회를 거행하기로 예정하고 부평 군수 전국환 씨도 공·사립학교에 두루 행차하여 격려한다고 하더라.³⁸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30일자 기사인데, 설립한 지 몇 달 만에 학생이 50명에 달하였다는 내용에서 계창학교가 늦어도 1908년 초에는 설립되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아울러 전국환 부평 군수가 학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부평 지역 각계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계창학교는 날로 번창하였다.

부평군 사립 계창학교에서 이번 달(1908년 7월) 13일에 하계시험을 치렀는데 갑반(甲班) 우등생은 박용균(朴容均)이며, 을반(乙班)은 박도원(朴濬遠)·송사명(宋四明) 등 3인이며, 병반(丙班)은 이공우(李公雨)·박흥길(朴興吉) 등 4인이며, 정반(丁班)은 홍시석(洪時石)·홍진태(洪鎭泰) 등 여러 명이다. 모든 임원이 회동하여 지필묵(紙筆墨)과 책자(冊子)를 다수 시상하였다더라.³⁹

부평군수 전국환(全國煥) 씨는 교육에 열심하여 부평군에 사립학교와 노동야학교를 설립하고 공무의 틈에 매일 학교에 나아가 격려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그 학생들이 더욱 감격하여 학업을 부지런히 익힌다고 한다.⁴⁰

1908년 9월 19일, 계창학교가 크게 번창하다, 부평군 계창학교가 점차 흥왕(興旺)함은 본보에 누차 게재하였거니와 그 학생들이 성심껏 수업을 받아 장취지망(將就之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아목동(樵兒牧童)까지도 낮에

는 전주(田疇)에 종사하고 밤이면 학교에 와서 학습하는 까닭에 야학을 차리고 국한문과 각 과정을 교육하는데 야학도가 70여 명에 달하였으니 이는 부평 군수 전국환 씨와 임원 모두가 열심히 권면하는 효력이라고 한다.⁴¹

이에, 1909년 1월에는 ‘1년 속성과정’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교육의 성과를 이루었다.

부평군 계창학교에서 1년 속성과 졸업시험을 치렀는데 우등(優等)은 박태병(朴泰秉), 급제(及第)는 박용선(朴容璿)·박용원(朴容元) 등이다. 교장과 교감 박희병(朴熙秉) 씨가 우등생을 시상하였다더라.⁴²

부평군 계창학교에서 졸업시험을 보았는데 그 졸업자는 박태병(朴泰秉), 박용선(朴容璿), 박용원(朴容元) 등이라고 한다.⁴³

그러나 계창학교는 사립이라는 특성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학교를 설립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1910년 5월 말의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폐교’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 어려움이 컸음을 엿볼 수 있다.

부평군 사립 계창학교가 폐지할 지경에 이르러서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에서 권유 위원(勸諭委員)으로 파송하였던 유병필(劉秉玢) 씨는 권유의 사무를 완료하고 어제 서울로 돌아갔다더라.⁴⁴

이에, 기호흥학회에서 파견된 유병필 위원의 권유로 부평 군수가 계창학교 유지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스스로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각 면장과 이장에게 교육 진흥 방침

38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30일자.
39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3일자.
40 「富倅勤勸」, 『황성신문』, 1908년 9월 13일자.

41 「桂昌益昌」, 『황성신문』, 1908년 9월 19일자.
42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19일자.
43 「桂昌卒業生」, 『황성신문』, 1909년 1월 27일자.
44 「勸諭委還京」, 『황성신문』, 1910년 5월 26일자.

을 위한 밝히고 있다.

부평 계창학교 권유 위원 유병필 씨가 임경함은 앞과 같거니와 유병필 씨가 권유한 결과로 부평 군수 정운구(鄭雲衢) 씨가 계창학교 유지에 대하여 흔쾌히 스스로 부담하고, 각 면·리장에게 교육 진흥의 방침을 간명히 효시할 차로 오늘 내일 중 훈령(訓令)한다더라.⁴⁵

그런데 이후 신문 자료에서 계창학교에 대한 기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재정적 어려움으로 폐교에 이르렀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3) 사립 '계남(桂南)'학교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17일자에 실린 「桂南日進」(날로 발전하는 계남학교)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에서 부평군 옥산면 소사리에 '계남(桂南)'이라는 사립학교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부평군 옥산면(玉山面) 소사(素砂)리의 사립 계남학교(桂南學校)는 서상대(徐相大), 이계현(李啓賢), 윤백헌(尹百憲) 씨 등이 힘을 합쳐 설립하여 인허까지 받았는데, 교장 이하 일반 임원이 열심히 권장(勸獎)한 결과 학생이 날로 증가하여 현재 60여 명에 달하였다더라.⁴⁶

학교가 설립한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위 기사가 실린 시기가 1909년 11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09년 초에 설립되지 않았나 추정해 본다.

1910년 1월 14일자 『황성신문』에는 계남학교에 대한 기부 기사 내용이 확인된다.

부평군 옥산면 소사의 사립 계남학교는 임원과 학부형이 열심히 권장함으로 학생이 날로 증진하여 60여 명에 달하였는데, 지난달에 학부형 회의를 열고 그 지역 군수 정운구(鄭雲衢) 씨와 교장 이명헌(李命憲) 씨가 차례로 교육의 필요함을 격렬히 설명함에, 그 면

의 조종리에 사는 학부형 이원서(李元西) 씨가 자기가 경작하던 논 5두락을 특별히 학교에 기부하며 말하길, "우리가 비록 우매한 농민이나 국민교육이 여차 시급한즉 어찌 전토(田土)를 애석해하리오"하고 일장 연설을 하였다. 이를 보던 여러 사람이 그의 학계 열심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더라.⁴⁷

한편,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15일자 기사에는 지난달(1909년 12월) 연말 시험을 치룬 결과 우등생이 갑반(甲班)에 10인, 을반(乙班)에 11인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부평군 소사리(素砂里) 사립 계남학교에서 지난달에 연종시험(年終試驗)을 치렀는데 우등생이 갑반(甲班)에 10인, 을반(乙班)에 11인이라더라.⁴⁸

이후 계남학교에 대한 신문 자료의 기사는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다.

4) 사립 '계산(桂山)'학교

부평 지역에 또 다른 사립학교 '계산(桂山)'학교가 있었음은 『황성신문』 1910년 4월 3일자 기사에서 발견된다.

부평군 당산면(堂山面) 면내의 뜻있는 신사(紳士) 강인규(姜寅圭), 권승규(權昇奎), 강정규(姜定圭), 강완규(姜完圭), 강필규(姜必圭) 등이 열심히 출자하여 계산학교를 설립하고, 교사 한성희(韓聖熙) 씨가 열심히 교육하여 학생이 30여 명에 달하여 진취의 희망이 있다 하더라.⁴⁹

부평군 당산면 면내 뜻있는 신사(紳士) 강인규(姜寅圭), 권승규(權昇奎), 강정규(姜定圭), 강완규(姜完圭), 강필규(姜必圭) 여러 명이 열심히 출자하여 계산학교를 설립하고,

45 「郡守興學」, 『황성신문』, 1910년 5월 26일자.

46 「桂南日進」,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17일자.

47 「可謂學父兄」, 『황성신문』, 1910년 1월 14일자.

48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15일자.

49 「桂校有望」, 『황성신문』, 1910년 4월 3일자.

교사 한성희(韓聖熙) 씨가 열심히 교육하여 학도가 30여 명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6일자 기사에서도 「계산학교 설립」이란 제목으로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부평군 당산면에 사는 강인규, 권승규, 강정규, 강완규, 강복규 등은 교육이 시급을 깨닫고 자본금을 모아 그 면에 계산학교를 설립하고 교사 한성희 씨를 고빙하여 열심히 가르친다더라.⁵⁰

그렇지만 계산학교 역시 이후의 신문 자료에서 기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5) 사립 '부명(富明)'학교

부평군 주화곶면(注火串面) 내촌에 거주하는 유지 신사 한기서(韓基瑞), 한묘학(韓墓鶴), 한익선(韓益善), 박제우(朴濟祐), 한기정(韓基正) 등 여러 명이 1910년에 부명학교(富明學校)를 설립하였다는 사실도 『황성신문』 1910년 5월 10일 기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부평군 주화곶면(注火串面) 내촌(內村)에 거주하는 뜻있는 신사 한기서(韓基瑞), 한묘학(韓墓鶴), 한익선(韓益善), 박제우(朴濟祐), 한기정(韓基正) 등이 부명학교(富明學校)를 설립하고, 교사 이찬의(李贊義), 이구연(李龜淵) 씨를 초빙하여 열심히 교육함으로 생도가 40여 명에 달하였는데, 부평 군수 정운구(鄭雲衢) 씨도 열심히 찬성하여 그 면내 인사를 집합한 후 교육을 진흥케 할 목적으로 상세히 설명한 후 보조금을 넉넉히 의연함에 일반 인사도 각기 과다한 금액을 힘을 보태 기부함으로 이 학교가 한층 확장하여 진취의 희망이 상당히 많다 하더라.⁵¹

이 사실은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10일자에서도 확인되었다. 「-<富明設立>-」(부

50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6일자.

51 「富校有望」, 『황성신문』, 1910년 5월 10일자.

평학교를 설립함)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다.

부평군 주화곶면(注火串面)에 사는 한기서(韓基瑞), 박제우(朴濟祐) 등이 협력하여 부명학교(富明學校)를 설립하고, 이찬의(李贊義), 이구연(李龜淵) 두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여 학생 40여 명을 열심히 가르친다 하더라.⁵²

그렇지만 부명학교 역시 위 두 신문 기사 외에 더 이상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 개화기 부평 지역에 설립된 근대 사립학교들을 신문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비록 많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부평 지역에도 나름 적잖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군수는 물론 뜻있는 인사들이 주도하여 설립하였고, 부평 지역 내 각계의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표 6 개화기 부평 지역의 근대 사립학교

학교 명칭	설립 시기	위치	설립 주도 인물
보명(普明)학교	1907. 1.	모월곶면 검암리	정홍석(鄭洪錫), 심상덕(沈相德), 정태현(鄭泰憲)
계양(桂陽)학교	1908. 2.	미상	이규룡(李圭龍), 박희병(朴熙秉), 조용배(趙龍培), 박빈병(朴斌秉), 공면주(孔冕周), 박제병(朴濟秉), 정행원(鄭行元), 각 면장
계창(桂昌)학교	1908년 초	미상	부평 군수 전국환(全國煥) 등
계남(桂南)학교	1909년(?)	옥산면 소사리	서상대(徐相大), 이계현(李啓賢), 윤백헌(尹百憲)
계산(桂山)학교	1910년(?)	당산면	강인규(姜寅圭), 권승규(權昇奎), 강정규(姜定圭), 강완규(姜完圭), 강필규(姜必圭), 강복규(?)
부명(富明)학교	1910년 초	주화곶면 내촌	한기서(韓基瑞), 한묘학(韓墓鶴), 한익선(韓益善), 박제우(朴濟祐), 한기정(韓基正)

다만, 아쉬운 점은 이들 사립학교가 초반에는 날로 번창하다가 점차 재정의 어려움,

52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10일자.

특히 일제의 압력과 식민교육 정책으로 1910년 8월 일제강점기 이후 대부분 폐교되거나, 일부 공립학교에 흡수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사』1, 인천광역시 부평구, 1997.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옛날 옛적에 인천은』,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4.
인천광역시, 『고(古)신문 속의 인천 2 : 황성신문(1905~1907)』상·하, 인천광역시, 2019.
인천광역시, 『고신문 속의 인천 3 : 황성신문(1908~1909)』상·하, 인천광역시, 2020.
조기준, 『부평사연구(증보판)』, 백암문집간행위원회, 1995.

논문

- 견수찬, 「계양산성」, 『인천의 관방유적』상, 인천광역시, 2019.
견수찬, 「중심성지」, 『인천의 관방유적』상, 인천광역시, 2019.
박광성, 「인천개항과 연안방비책에 대하여」, 『기전문화연구』11,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1980.
이원규, 「검암동의 보명학교와 선각자 정홍석(鄭洪錫)」, 『북서꽃』,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7.
이윤해, 「연희진」, 『인천의 관방유적』상, 인천광역시, 2019.
임학성, 「조선시대 '仁川'지역 거주자의 과거급제 양상-생원-진사 합격자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5,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06.
장영민, 「조선시대 원주 거주 사마시 급제자와 양반사회」, 『조선시대의 사상과 사회』, 조선사회연구회, 1998.
한영국, 「조선 초기 호구통계에서의 호와 구」, 『동양학』1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0.

신문

- 『황성신문』, 1907~1910년 기사.
『대한매일신보』, 1907~1910년 기사.





사료

『세종실록』

『세종실록지리지』, 15세기 전반.

『여지도서』, 1760년경.

『호구총수』, 1789년경.

『부평부읍지』, 1871년경.

『한국호구표』, 1907년 5월.

『민적통계표』, 1910년 5월.

웹사이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부평사
富平史





제 5 장

개항기 인천·부평의 염업과 주안천일제염시험장 설치

제1절 _ 개항기 경기만의 염전과 염업 조사 사업

제2절 _ 통감부 염업 조사로 본 인천·부평 지역의 제염 방식과 경영 실태

제3절 _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의 설치와 제염 성적

제5장 개항기 인천·부평의 염업과 주안천일제염시험장 설치

류 창 호(인하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 제1절 | 개항기 경기만의 염전과 염업 조사 사업

삼면을 바다와 접하고 있는 한반도는 고대로부터 해수(海水)를 이용한 소금 생산이 전 연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해안 만입이 깊고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넓은 간석지(干潟地)를 품고 있는 서남해안에는 김해, 나주, 태안, 남양 등과 같은 유수의 염산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서 국내 생산염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다.

강화해협(鹽河)을 지나 영종 수로를 거쳐 남양만·아산만으로 이어지는 경기만의 연안 및 도서 지역 역시 예로부터 염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온 지역 중의 하나이다. 최대 10m에 이르는 조수 간만의 차와 150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섬들이 해류의 흐름을 교란·완화시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거대한 간석지를 만들어 내었다. 아울러 만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 낮은 수심의 바다, 높은 일조량과 적은 강수량 등은 염전이 입지하기에 최적의 자연적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모든 해안선이 바다와 접하고 있다고 해서 제염지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갯벌의 토질이 제염에 적합한 토성(土性)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흙의 입자가 너무 미세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굵거나 찰

져서도 안 된다. 이는 생산량뿐만 아니라 소금의 맛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¹ 또한 연료의 공급이 용이해야 하며, 소금 운송이 편리하도록 교통이 발달한 곳, 소비 시장이 가까운 곳,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곳이어야 했다.²

전통시대 경기만의 제염지를 대표하는 곳은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남양만 일대의 염전이다. 현재의 화성시에 속하는 옛 남양도호부의 송산면, 마도면, 음덕리면, 우정면, 신리면 등 일대에 속한 염전들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통칭하여 ‘남양염’이라 불리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는 앞서 서술한 자연환경적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발달된 갯골과 하천을 통해 서울, 수원 등 전통적인 인구밀집 지역으로의 수송이 편리하다는 지리적 이점이 제염지로서의 발달을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남양염이 왕실의 진상품으로 공납되었음은 물론, 한말에는 둔포·부강·김천 등 멀리 삼남 지방의 소금 집산지에까지 유통되었다.³

남양만의 염업이 번성하였음은 조선시대 여러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1446년(세종 28) 구휼미 확보를 목표로 한 의염법(義鹽法) 시행 과정에서 국가가 직접 소금 생산과 판매를 관장하는 관영 염전이 되기도 했으며,⁴ 1708년(숙종 34)에는 무려 300여 개에 달하는 염분(鹽盆)이 호조와 각 궁방·아문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⁵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남양만 일대에 수백 호나 되는 소금 굽는 집이 남쪽과 북쪽 바닷가에 별처럼 깔려있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⁶

한편 남양과 더불어 경기만의 제염지로서 빠질 수 없는 곳이 인천과 부평의 염전이다. 고려 말 이곡(李穀)의 시에 자연도(영종도)를 “개펄은 구불구불 전자(篆字) 같고, 돛대는 종 꽃아 비녀와 같다. 소금 굽는 연기는 가까운 물가에 비졌고, 바다 달은 먼 멧부

1 김일기, 「전염 제염방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1, 3~4쪽.
 2 유승훈,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민속』, 민속원, 2008, 49쪽.
 3 『通商彙纂』, 45, 「京釜沿線二於ケル鹽ノ需要狀況」, 1905.
 4 『세종실록』, 111, 세종 28년 1월 5일.
 5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 12월 30일.
 6 『택리지』, 팔도총론, 경기.

리에 오른다.”⁷ 고 표현했듯이 인천의 연안과 도서 지역은 남양 못지않게 오래된 제염지다. 인천의 연안과 경계를 함께 하는 부평 역시 과거부터 많은 염전이 있었다. 1790년(정조 14) 7월 경기만의 북부 해안을 강타한 해일로 부평 석곶면·모월곶면에 있는 염분 20개소와 김포 검단면의 염분 9개소가 파괴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⁸ 남양만의 염전과는 비교할 수 없겠으나 조선시대 상당수의 염전이 인천과 부평 연안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라고 하겠다.

현재까지 조선시대 남양, 인천, 부평 등 경기만의 주요 염전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본인들이 조사·보고한 기록들이 일부 남아있어, 이를 통해 옛 제염법과 경영 실태를 추정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특히 인천과 부평은 최초의 천일염전이 설치되는 등, 근대적 제염법이 시작된 곳이어서 타 지역에 비해 좀 더 자세한 조사와 기록이 남아있다.

근대 제염법 도입 이전, 전통적 제염법과 경영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대표적인 것이 1907년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의 염업 조사는 이듬해 『한국염업조사보고』란 이름의 보고서이다. 1446년(세종 28) 의염색(義鹽色)에 의해 전국 각도(평안도 제외)의 염분 수, 제염 성적, 염가(鹽價) 등이 조사·보고된 이후로 치면, 무려 462년 만에 실시된 전국적인 염업 조사 사업이었다. 다만 세종이 연해민의 유망(流亡)을 막기 위해 염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그 이익으로 구황(救荒)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라면, 1907년의 염업 조사는 통감부가 식민 통치의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원으로 주목한 염세(鹽稅) 징수를 목표로 실시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⁹

1907년 12월 「탁지부관계」 개정으로 대규모의 임시재원조사국이 설립되면서 전면적인 염업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미 이 사업은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朗)가 이끄는 재정고문부에 의해 1906년 5월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더 나가 남부 지역에서는 러일전쟁

시기부터 각 개항장에 주재하는 일본영사관에 의해 실시된 조사를 계승한 것이었다.¹⁰

1907년 임시재원조사국의 염업 조사는 이듬해 『한국염업조사보고』란 이름의 보고서로 출간되었다.¹¹ 각 도의 군·면별로 제염장의 입지 조건, 염전 구조, 제염 방법, 제염 도구, 거래 및 운반 관습, 소작 관계, 경영 수지, 염전 시가 등은 물론, 각 소유자 및 소작인의 성명과 주소, 소유 염전의 면적과 생산량까지 기록하고 있어서, 당시의 지역별 염업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의 보고서가 전국 각지의 염전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만을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를 제외하고는 일부 지역의 조사 결과만을 싣고 있고, 충청남도·경상북도·황해도·강원도 지역은 아예 생략되어 있다. 1907년에 조사된 총 3,206정보의 염전 중 55%에 불과한 1,755정보의 염전에 대한 조사 결과만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아래 그림 <『한국염업조사보고』에 수록된 염업 조사 보고 지역> 참조).



❖ 『한국염업조사보고』에 수록된 염업 조사 보고 지역

7 『신증동국여지승람』, 9, 경기 인천도호부 산천.

8 『정조실록』, 30, 정조 14년 7월 10일.

9 이영호, 「통감부시기 조세증가정책의 실현과정과 그 성격」, 『한국문화』1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5.

10 류창호, 「러일전쟁기(1904~1905) 주한일본영사관의 염업조사사업」, 『도서문화』5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8.

11 度支部 臨時財源調查局, 『韓國鹽業照查報告』, 1908.

사실 『한국염업조사보고』는 1906년부터 1915년까지 일본 대장성(大藏省)에서 편찬한 전4권의 『대일본염업전서(大日本鹽業全書)』를 모델로 하여, 각 도별 염업 조사의 성과를 정리하고자 했던 방대한 분량(470쪽)의 보고서였다.¹²

본래 2권으로 나누어 인쇄하기로 계획했지만, 후속권은 끝내 발간되지 않았다. 이는 예산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당시의 염업 조사가 복잡한 신고 절차, 도량형의 불일치, 염민(鹽民)들의 저항 등으로 완결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¹³ 1907년까지 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경상남북도, 강원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에 불과했고, 경기도·충청남도·전라남북도는 일부 미완결, 그리고 황해도는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무라카미 마사요시(村上正祥)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염업 조사의 완성도가 전국의 3분의 2 정도에 그치고 만 것으로 추정한다.¹⁴

<표 1>은 임시재원조사국이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시행한 전국 염업 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본 것이다. 총계로만 보자면 『조선전매사』에 수록된 1911년의 통계가 염전면적과 연간 생산량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므로 당연히 염업 조사의 완결된 데이터 값을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도별로 세분해 보면 그 증감률이 들쭉날쭉하여 조사 값에 대한 신뢰마저 의심케 된다. 다만 『조선전매사』에 “조선 민간 염전의 생산량은 약 2억 8,000만 근에 달하지만, 실제의 제염량은 2억 근 내외를 예상한다”고 비교란에 기술하고 있어서, 당시 통감부가 1909년 당시 조선염의 생산 규모를 대략 2억 근(12만t) 내외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동일하다. 당시 수입염의 압박이 심하여 각 도의 염전이 휴업과 폐업을 속출하고 있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러한 염업 조사 결과의 혼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12村上正祥, 「朝鮮の在來製塩法について(1)」, 『日本塩業の研究』20, 日本塩業研究会, 1991, 203~204쪽.
 13류창호, 「한국 근대염업의 네트워크와 그 특성」, 인하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153~157쪽.
 14村上正祥, 「朝鮮の在來製塩法について(1)」, 『日本塩業の研究』20, 日本塩業研究会, 1991, 204쪽.

표 1 1907~1911년의 염업 조사에 의한 각도별 제염 상황

(단위: 정보, 1,000근)

道	염전 면적			생산고		
	1907년	1909년	1911년	1907년	1909년	1911년
경기도	477	292	525	50,010	27,500	52,481
충청남도	197	158	518	8,592	7,900	31,166
전라북도	129	150	185	2,958	4,700	9,202
전라남도	798	880	776	102,733	57,400	104,104
경상북도	79	172	79	7,042	7,800	7,042
경상남도	415	381	415	26,125	32,100	26,125
황해도	-	258	63	-	12,300	8,041
평안남도	427	427	427	10,365	13,200	10,395
평안북도	50	50	50	985	1,200	985
강원도	54	193	54	7,785	9,000	7,785
함경남도	566	564	566	21,139	24,900	21,139
함경북도	53	53	53	1,409	2,000	1,409
합계	3,206	3,578	3,710	240,143	200,000	279,875

❖ 출처: 1907년은 臨時財源調査局, 『韓國鹽業概況』(1910), 1909년은 臨時財源調査局, 『韓國鹽務行政要領』(1910), 3~5쪽, 1911년은 朝鮮總督府 專賣局, 『朝鮮專賣史』(第3卷, 1936年) 276쪽.
 ❖ 비교: 합계에 오차가 있으나 원본 자료에 의함.

또한 염업 조사 시행의 동기가 1906년 11월에 반포된 「염세 규정」의 시행에 있었던 만큼, 염민들의 조직적 염세 저항이나 폭넓은 탈세 행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염세 규정」은 염 제조자에게 지명(地名), 염전면적, 제조장 및 저장장의 위치와 개수, 염정 또는 염부의 수, 제조방법, 1년간 예상 제조 근수, 제조자의 주소씨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탁지부에 제출하여 면허를 받게 하고, 염 100근당 6전(錢)의 비율로 염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¹⁵ 아울러 미신고자에게는 3원 이상 300원 이하의 벌금, 장부 기재나 신고를

15이전의 어염세가 생산수단 또는 생산수단과 생산물 양쪽 모두에 세금을 부과한 것과 달리 「염세 규정」과 「수산세 규칙」(1906년 12월)이 생산물을 정률로 하여 과세 기준을 통일했다는 점에서 收益課稅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근대적 조세 구조의 변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박성준, 「1894~1910년 海稅制度의 변화와 稅制 정비의 방향」, 『한국사연구』128, 한국사연구회, 2005, 240~241쪽).

태만히 한 자에게는 3원 이상 5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까다로운 신고 절차와 엄격한 처벌 규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보아서 효과적인 염세 징수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복잡한 수속과 장부 작성을 번거롭게 여기는 염민들의 비협조로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었고, 또 을사늑약 이후의 반일감정 고조로 일부 지역에서는 염세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¹⁶ 탈세 또한 흔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는 1920년 「염세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염세 징수액의 3분의 1 이상이 매년 탈세된 것으로 추정했다.¹⁷

위의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1907년 염업 조사 당시 경기도 소재의 염전은 총 477정보이다. 일부 지역의 조사가 미결된 것을 고려하면 500정보를 충분히 넘겼을 것이다. 염전 면적은 물론 생산고에 있어서도 전라남도 다음의 전국 2위 규모이다. 비록 『한국염업조사보고』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서두에서 소개한 경기도 최대의 제염지인 남양만 염전 또한 1907년에 염업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수원군의 토진·포내·외지곶·현암·가사·청룡면, 남양군의 장안·초장·마도·음덕리·우정·압정·신리면에 분포되어 있는 염전 면적이 101.22정보(수원 18.2정보, 남양 83정보), 염부(鹽釜) 수는 97개소(수원 21, 남양 76)로 나타났다.¹⁸ 연간 생산량은 수원군이 5,439석(石), 남양군이 2만 8,093석으로 추정되었다.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아 1석이 120근에서 250근까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1석당 200근으로 평균하여 계산하여도 670만 근(4,020t)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조사는 보고서의 제목 그대로 수원·남양군 ‘일부’ 지역의 염업 조사에 불과하다. 남양만 염전의 중심지를 이루는 송산면이나 대부도면 등이 빠져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비해 『한국염업조사보고』에 수록된 경기도의 염업 조사 지역은 통진, 김포, 부평, 인천, 안산 등 5개 군의 165정보이다. 생산량은 1,461만 근(8,760t)으로 나타나 경기도 전체의 30%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의 염업 조사 결과 역시 영종·용유도 등의 도서 지역이나 안산군 성곶·인화면 등 일부 면(面)의 염전이

빠진 한계점도 있지만, 수원·남양군의 조사에 비하면 훨씬 완결성을 지닌 조사라고 하겠다. 『한국염업조사보고』에 실린 1907년 경기도 북부 지역의 조사 결과를 일람표로 비교한 것이 <표 2>이다.

표 2 경기도 북부 지역 제염 일람표

(단위: 개소·丁·斤)					
군명	면명	鹽井數	釜屋數	反別	생산고
통진군	내면	31	6	4.6707	507,780
	고리곶면	22	6	3.3114	347,490
	대파면	116	31	17.7726	1,911,600
	상곶면	116	24	19.6602	939,600
	소계	285	67	45.4219	3,706,470
김포군	검단면	162	33	27.3617	1,281,995
	소계	162	33	27.3617	1,281,995
부평군	모월곶면	158	44	21.0719	2,011,260
	석곶면	62	23	6.9115	664,226
	소계	220	67	27.9904	2,675,486
인천군	주안면	20	10	2.5218	347,700
	서면	19	4	2.3217	231,560
	부내면	26	5	3.2028	318,240
	남촌면	161	24	19.0719	1,970,640
	조동면	50	9	6.9220	660,960
	신현면	5	2	0.5825	61,200
	소계	281	54	34.6717	3,591,300
안산군	초산면	58	6	5.9304	676,350
	마유면	202	22	19.5819	2,274,585
	와리면	35	10	3.5910	408,120
	소계	295	38	29.1103	3,359,055
	합계	1,243	259	164.5628	14,614,286

❖ 출처: 『한국염업조사보고』

❖ 비고: 소계 및 합계에 오류가 있으나 원본에 의함.

16 박민웅, 「1905~1910년 일제의 염업정책」, 『지배문화와 민중의식』, 한신대학교출판부, 2008, 131~133쪽.

17 田中正敬, 「植民地期朝鮮の塩需給と民間塩業」, 『朝鮮史研究會論文集』35, 1997.

18 韓國財政顧問本部, 「京畿道 水原郡·南陽郡 一部 鹽業照査」, 『財務週報』30(부록), 1907, 1~3쪽.

<표 2>에서 보이듯이 경기도 북부의 염전 중에서 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높은 곳은 통진군이다. 하지만 1정보당 생산량으로 환산해 볼 때 안산군(11만 5,390근), 인천군(10만 3,580근), 부평군(9만 5,585근)의 순으로 바뀐다. 인천, 부평, 안산의 염전들이 이후 주안염전, 남동염전, 군자염전, 소래염전 등 관영 천일염전으로 바뀌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즉, 『한국염업조사보고』는 단순히 염세 징수만을 위한 염업 조사 보고서가 아니었다. 통진군의 지세를 말하면서, “연안에 많은 간석지를 가졌지만 해수 간만의 차가 심하고, 더하여 연안에 많은 도서를 가져 바람의 유통이 나빠 염전 축조에 매우 편리하지 못하다”고 기록한 것은 차후에 있을 천일제 염지의 적합 여부까지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천의 남촌면과 조동면을 “특히 제염에 적합하여 장래 염전 축조에 유망하다”고 하거나, 부평군 석곶면을 “한국정부 재정고문부 제염시험장으로 선정된 주안면 부근에 접하여 장래 크게 유망한 땅”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제2절 | 통감부 염업 조사로 본 인천·부평 지역의 제염 방식과 경영 실태

1. 제염 방식과 제염 시설

경기도에 소재한 염전은 모두 제방이 없는 입빈식(入濱式) 무제 염전이다. 우리나라 전통적 자염(煮鹽) 방식의 염전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조수 간만 차가 큰 평안 남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에서 행해졌다. 이와 달리 입빈식 유제염전은 염전 주위를 제방을 쌓아 막고, 곳곳에 도랑을 설치하여 해수의 유통을 편리하게 만든 염전이다. 매월 상현과 하현을 전후로 하는 조금(小潮) 때(음력 8일에서 12일, 23일에서 27일)에만 채합 작업을 할 수 있는 무제염전과 달리, 날씨만 좋으면 작업 시기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점이 있었다. 기타 제염 작업에서는 무제염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전라남도와 경상남북도, 함경남북도에서 행해졌다.

한편 해수를 자연스럽게 염전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입빈식과 달리 해안선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인공적으로 염전을 조성하는 양빈식(揚濱式) 염전도 있었다. 이러한 양빈식 염전은 해면보다 높은 염전 지반에서부터 해변에 이르는 곳까지 도랑을 설치하여 바가지로 해수를 퍼 올린다. 조수 간만의 차가 적은 강원도와 함경남북도에서 일부 존재하였다.¹⁹

『한국염업조사보고』에서는 경기도의 염전을 양빈식 무제염전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자의 착오로 생각된다. 사리(大潮) 때 염전까지 들어온 바닷물을 토사에 침윤시키고, 물이 빠지는 조금 때 소를 끌고 다니며 개흙을 갈아 토사에 염분을 달라붙게 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입빈식 염전법임에 틀림없다. 다만 염정과 부옥(釜屋)이 만조 때에도 조수의 침입을 받지 않는 염전 상층에 위치하고 있어, 함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보고 조사자가 양빈식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방식을 쓰고 있는 수원·남양군에서는 양빈식과 입빈식이 혼합된 것으로 기술되기도 하였다.²⁰

다시 정리하여 말하자면 입빈식 무제염전은 사리 때의 해면과 조금 때의 해면 사이에 있는 갯벌에 위치하여 갯고랑을 통해 해수를 자연스럽게 염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그림 <입빈식 무제 염전의 구조>와 <경기도의 염정 구조> 참조). 갯고랑의 끝에는 원형 또는 반원형으로 염전을 만들고, 그 중앙에는 염정(鹽井)을 설치하여 여기서 염분의 농도를 높인 함수(鹹水)를 만든다. 그런데 염정을 만드는 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충청남도·전라북도 등에서는 갯벌을 파내어 그 속에 염정을 설치하는 소위 ‘첫구덩이식’ 또는 ‘통조금식’을 사용하는 반면, 경기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마치 사발을 뒤집어 놓은 듯이 벌흙을 쌓아 올린 ‘첫등식’의 염정을 사용한다. 이러한 제염법의 차이는 갯벌의 종류와 조차 등 해안의 퇴적 환경과 해양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펄과 모래가 섞인 갯벌에서는 ‘첫구덩이식’과 ‘통조금식’이, 주로 펄갯벌로 이루어진 경기만에서는 ‘첫등식’이 채택된 것이라고 하겠다.²¹

염정에서 완성된 함수는 사리 때에도 조수가 침입하지 않는 곳에 설치된 부옥(釜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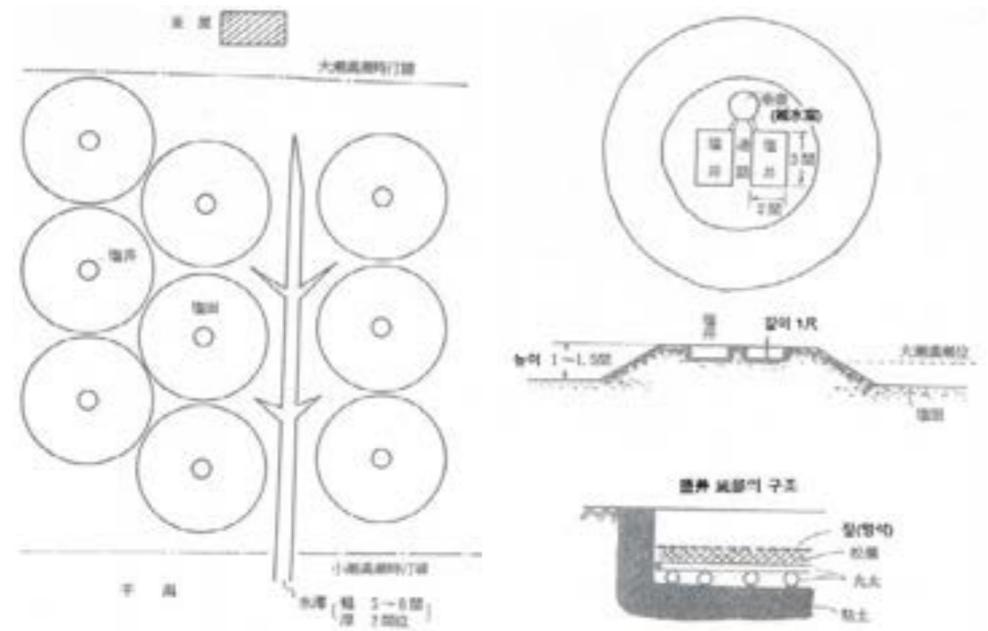
19 農商工部 水産局, 『韓國水産誌』1, 1908, 564~565쪽.

20 韓國財政顧問本部, 『京畿道 水原郡·南陽郡 一部 鹽業照査』, 『財務週報』30(부록), 1907, 3쪽.

21 김준, 『소금의 생산과 민속』, 『소금꽃이 핀다』, 국립민속박물관, 2011, 242쪽.

‘염막’이라고도 함)으로 옹기고, 그 안에 있는 소금가마(鹽釜)에서 가열하여 결정염을 얻는다. 보통 부옥 1개소에 부속된 염정과 염전을 모두 합하여 염전의 1필지로 구분하였다. 부옥 1개당 부속된 염정을 평균해 보면 인천이 5.2개, 부평이 3.3개, 김포가 4.9개, 통진이 4.3개, 안산이 7.8개였다.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염전 역시 수원이 5.3개, 남양이 4.6개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다만 부옥 1개당 염전의 면적을 평균하면 인천 0.64정보, 부평 0.42정보, 김포 0.83정보, 통진 0.68정보, 안산 0.77정보여서, 수원의 0.87정보나 남양의 1.09정보에 비해 작은 규모였다.

다음으로는 『한국염업조사보고』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인천·부평 등 경기도 북부 지역의 제염 시설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입빈식 무제 염전의 구조(평안남도)
(출처:村上正祥,『朝鮮の在來製塩法について(1)』,『日本塩業の研究』20,日本塩業研究会,1991,210쪽)

❖ 경기도의 염정 구조
(출처:村上正祥,『朝鮮の在來製塩法について(1)』,『日本塩業の研究』20,日本塩業研究会,1991,214쪽)

① 채합 시설과 도구

염전에서 농후한 함수를 얻는 작업을 채합(採鹹)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염정(鹽井)과 함수 저장 및 수송 장비가 필요하다. 채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염정이다. 염정은 ‘소정(沼井)’이라고도 하며,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역별로 ‘섯’, ‘섯등’, ‘간통’, ‘간수통’ 등으로도 불리었는데, 특별히 인천에서는 이를 ‘갈판(渴板)’이라고 하였다.

그림은 인천·부평 등 경기도 북부 지역의 염정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사리 때에도 조수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지반면으로부터 1~1.5칸 높은 곳에 위치하고, 통행로 양측에 반원형의 염정 2개를 만들거나 또는 1개만 만들기도 하였다. 인천군 염정의 규모는 길이 3칸, 폭 2칸, 깊이 1척 정도이고, 김포·부평군의 것은 같은 크기에 깊이만 4척으로 더 깊다. 사면은 점토로 두들겨 굳혔고, 그 밑바닥에 환목을 가로세로로 짜 맞춘 후 솔잎(松葉)을 깔거나 멩석(莖)을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함사(鹹砂)를 두텁게 깔아놓는데, 이는 매월 2회 조금 때마다 5~6일간 매번 소를 끌고 나와 나레와 썬레로 염전 바닥의 모래나 벌흙을 갈아 염도를 한껏 높인 것이다. 염정 안에 함사를 밀어 넣고 여기에 맞두레로 해수를 부어 여과시키면 농후한 함수를 얻을 수 있었다.

안산군 마유면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함수 저장장치(鹹水溜)를 갖추지 않은 채 염정 옆의 함수 항아리(垂壺)가 이를 겸용한다. 염정 밑바닥으로부터 항아리로 통하는 하나의 통관(樋管)을 통해 함수를 모으는 것이다. 항아리의 입구는 3척에 불과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형 또는 방형으로 넓고 깊어져 거의 2칸에 이른다. 외견상 마치 우물처럼 보이며, 강우(降雨)를 막는 덮개가 있고, 주위는 환목 또는 판목으로 쌓아 막았다. 아울러 인천과 안산에는 이 함수 항아리와 부옥 안의 저함호(貯鹹壺)를 연결하는 수송 장치도 있었다. 인천의 염전은 염정과 부옥 간의 거리가 먼 것은 40~50칸, 가까운 것은 7~8칸인데, 그 사이를 점토로 작은 제방을 만들고 그 위에 가느다란 함송구(鹹送溝) 설치하여 함수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부평과 김포, 통진 지방에는 따로 수송 장치가 없어서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였다.

채합 작업에서 특이한 사례를 들자면, 안산군 마유면에서는 위와 같이 채집된 함수가 그 비중이 낮을 경우, 청국(중국) 천일염 5두(斗)짜리 가마를 그대로 함수 항아리에 투입시켜 그 비중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부평군 석곶면 신현리의 이윤선(李允

先)이란 자도 청국염을 구입하여 해수에 용해시켜 함수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식염을 제조하였다. 청국 염 2석(石) 5두(斗)를 용해하여 10석의 함수를 얻어서, 가마에서 전오하면 3석 5두의 소금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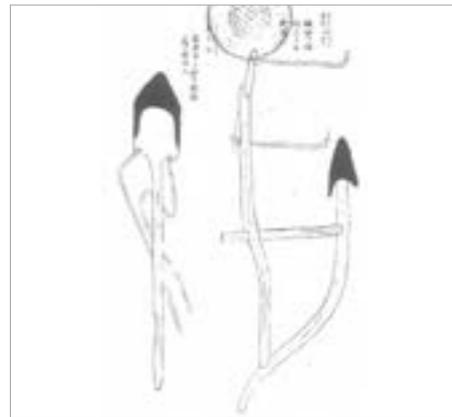
인천·부평 등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채합 작업에 사용되던 기구와 기계는 다음과 같다.



❖ [나레] 염정 옆의 살사(撒砂)를 긁어모으는 데 사용한다. 소 1필과 사람 1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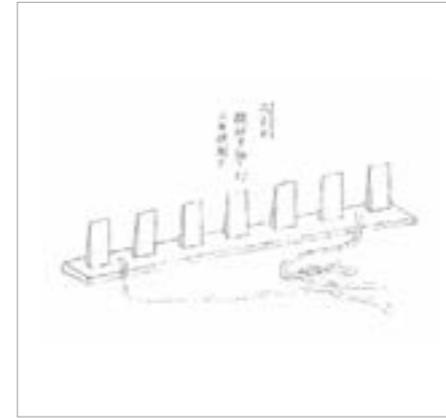
❖ [바가지통] 함수 항아리에서 함수를 길어 올리는 데에 사용한다.



❖ [가레(좌)] 염정을 팔 때 사용한다. [쟁기(우)] 염전을 파 일구는 때 사용한다.



❖ [맞두레] 해수를 염정 안으로 퍼 올릴 때 2인이 함께 사용한다.



❖ [써레] 염전의 살사(撒砂)를 긁어모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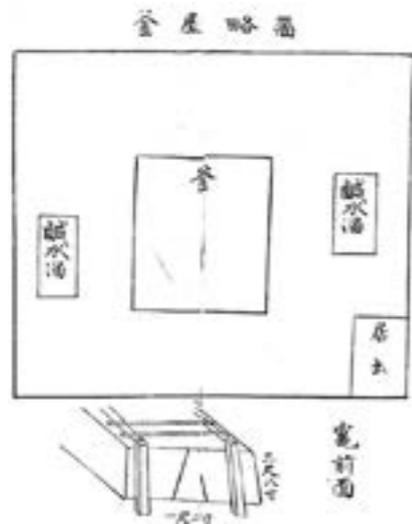


❖ [나무통] 함수 수송 용구이다.

② 전오 시설과 도구

전오(煎熬) 시설은 채합 작업으로 만들어진 함수를 가공하여 완성된 결정염을 만드는 공간과 설비이다. 함수에 불을 피워 소금을 만드는 부옥(釜屋)과 가마(釜), 그리고 결정염을 일정 기간 보관하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출장(居出場) 등이 주요 시설이라고 하겠다.

‘염막(鹽幕)’이라고도 불리는 부옥은 점토와 돌로 겹겹이 쌓아 원형의 벽을 만들고, 초가로 지붕을 올린 매우 간단한 건축물이다. 부평과 김포 지역은 점토로 높이 3척 정도의 원형 토벽을 만들고, 내부에는 지주목 5~6개로 지붕을 받치는 형태이다. 부옥 주위에는 2~3개의 입구를 설치하였고, 또 지붕에는 제염 때 연기의 방출이 편리하도록 사방 1칸의 구멍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붕 형태는 비가 내릴 경우에는 작업에 큰 차질을 입혔다. 안산에서는 가마니를 덮어 빗물의 침입을 막는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빗물의 낙하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지붕은 매년 1회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비용은 대략 20원 이상이었다.



❖ 부옥과 아궁이 구조(남양군)
 (출처: 韓國財政顧問本部, 「京畿道 水原郡·南陽郡 一部 鹽業照査」
 『財務週報』30(부록), 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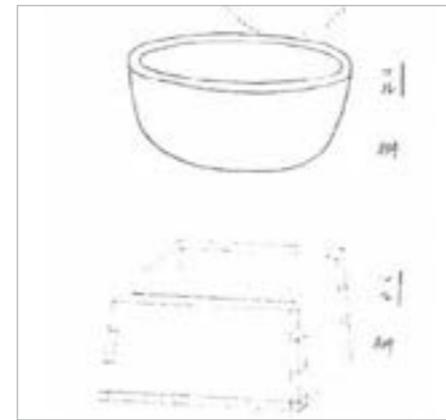
부옥과 아궁이 구조(남양군)에 관한 위의 그림은 수원·남양 지역의 부옥 구조이다. 부옥의 중앙에 가마[釜]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 아궁이(竈)가 있다. 상술하였듯이 수원·남양과 달리 인천·부평 지역은 별도의 함수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수 항아리로 이를 겸용한다. 아궁이의 높이도 2척 5촌이어서 3척 8촌인 수원·남양 지역보다 작았다.

가마의 종류는 철부(鐵釜)와 토부(土釜)가 함께 사용되었다. 철부는 두께 5리(厘)의 선철판 3매를 못으로 엮고 사방을 구부러뜨려 연결한 것이다. 인천 주안면의 경우 길이 11척, 폭 9척 5촌, 깊이 4촌의 크기였다. 이처럼 장방형 또는 정방형으로 만들어진 철부는 30~45개의 쇠바늘(鐵鈞金)에 의해 아궁이 위에서 지지된다. 주로 인천에서 제조되었으며 가격은 80~90원 정도이고, 5~6년간의 내구력을 지녔다고 한다. 이와 달리 토부는 조개회(蠔灰)를 굳히어 만든 것이다. 가마의 용적은 철부와 동일하지만 쇠바늘을 225개나 사용한다. 축조비용은 겨우 20원에 불과하지만 내구력이 부족하여 1년에 4~5회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부옥에서 이루어지는 전오 작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염정의 함수 항아리에서 수송된 함수를 퍼 올려 부옥 안의 가마에 가득 넘치도록 부은 후, 솔잎·건초·잡목 등을 연료로 전오(煎熬)를 시작한다. 가마 안의 함수가 증발하여 감소되면 조금씩 새로운 함수를 보충하는 식으로 5회 정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분이 증발되어 염분이 결정되

기에 이르면 이것을 ‘고무래’로 휘저어 모아 ‘삼태기’에 넣고 거출장(居出場)으로 옮긴다. 전오 과정의 마지막 작업은 거출장에서 소금의 부산물인 간수(苦汁)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즉, 갓 생산된 소금에는 수분이 많고 간수가 남아 있어 쓴 맛이 나므로 이것이 빠지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인천의 조동면에서는 부옥 옆에 세로 2척, 폭 1척, 깊이 5촌 정도의 지하면을 파고, 그 위에 환목 4개를 가로지른 후, 가마니를 놓는 선반을 만들어 놓았다. 가마 안에서 소쿠리로 긁어모은 소금을 이 선반 위에 올려놓아 간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인천·부평 등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전오 작업에 사용되던 기구와 기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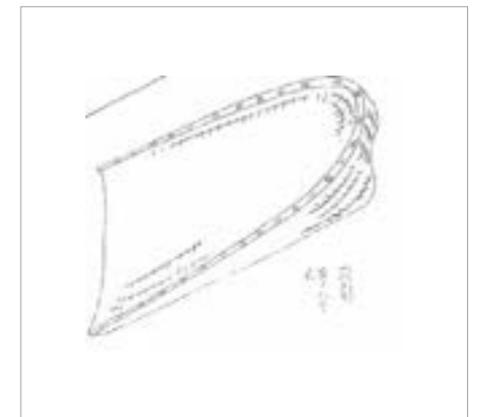
❖ [되·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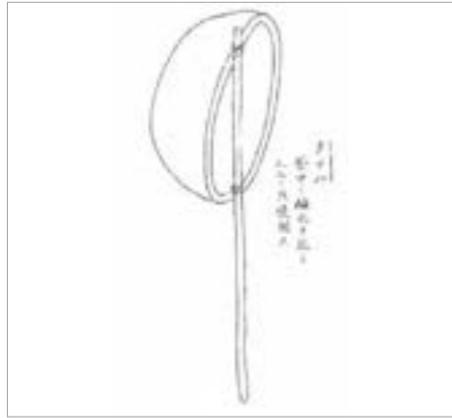
❖ [부지쟁이] 부젓가락



❖ [주걱] 가마 안의 소금을 소쿠리에 넣을 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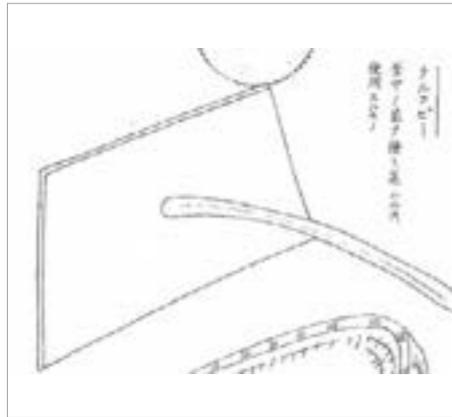
❖ [삼태기] 소금을 담은 소쿠리



❖ [두레박] 가마 안에 함수를 길어 넣을 때 사용



❖ [살비] 가마 안에 固結된 것을 썩혀거릴 때 사용



❖ [고무래] 가마 안의 소금을 긁어모으는 것

2. 소금 판매와 경영 상태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일주일 안에 중매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다. 따라서 소금 생산자는 재고염의 보관 등을 걱정할 일이 없었다. 소금 가격은 계절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1907년 염업 조사 당시 인천·부평 등지에서는 소금 1가마당 2원에서 2원 40전 정도의 도매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두량이 통일되지 않아 지역별로 가마의 부피가 차이가 났는데, 부평군은 1,100되(柵)에 2원 40전, 김포군은 880되에 2원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니었고, 쌀로 대응되는 일도 흔했다.

한편, 소금 생산자와 상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칭량(稱量) 시비를 막기 위해, 따로 ‘승취(榷取)’라고 불리는 검침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인천군 주안면 십정리에 거주하는 성락현(成洛賢) 소유 염전에서는 소금을 인도할 때마다 같은 주안면에 사는 천배원(千倍元)이란 자로 하여금 칭량의 임무를 맡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1가마당 3전의 수수료가 필요했지만 반드시 생산자와 중매인 쌍방의 입회하에 칭량을 마치고 소금을 인도하는 것으로 하였다.²² 중매인에게 인도된 소금은 대부분 선편(船便)에 의해 마포와 황해도, 장단·개성 등지로 운반되었다. 인천-마포, 인천-황해도는 각각 20전, 22전의 운임이 추가되었다. 통진-마포가 가장 싼 16전의 운임이 소요되고, 부평·김포에서 마포까지의 운임은 18전이였다.

앞서 제1장에서 서술하였듯이 『한국염업조사보고』 경기도편에는 인천·부평·김포·안산·통진 5개군 각 면별로 염전 소유자 및 소작인의 성명과 주소, 염전의 면적과 염정 수, 종업원 수, 연간 생산량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별표 1~3 참조). 이를 통해 1907년 당시 경기도 북부 지역의 제염업 실태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영역에 속하는 옛 인천군, 부평군, 김포군의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3 인천군 각 면의 제염업 실태

(단위: 명·개소·정보·군)

면명	소유자 수	소작인 수	종업자 수	鹽井 數	釜屋 數	면적	생산고
주안면	10	0	20	20	10	2.5218	347,700
서면	4	0	8	19	4	2.3217	231,560
부내면	4	2	10	26	5	3.2028	318,240
남촌면	25	1	48	161	24	19.0719	1,970,640
조동면	4	0	18	50	9	6.9220	660,960
신현면	2	1	4	5	2	0.5825	61,200
합계	49	4	108	281	54	34.6717	3,591,300

❖ 출처: 『한국염업조사보고』

❖ 비고: 합계에 오류가 있으나 원본에 의함.

22 「朱安面鹽業調査報告」, 『財務週報』제25호 報告及統計(1907. 9. 30).

먼저 인천군 각 면의 제염업 실태를 살펴보겠다. 전술하였듯이 염전의 필지는 1개 부 옥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표 3>에 보이듯이 인천은 총 54개 필지의 염전(34町 6反 7畝 17步)을 49명의 염전주가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1필지당 평균 면적이 0.6420정보가 된다. 면별로는 남촌면 1, 3리의 염전이 인천군 전체 염전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곳의 염전은 1899년(광무 3) 농상공부 소속의 제염시험장으로 지정되어 1901년까지 근대식 제염법을 도입·시험했던 장소이기도 하다.²³

경기도의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인천의 염업자 역시 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소규모로 단독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다른 군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우선 염전 소유자 중에 4명의 일본인 이름이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미카미 소케이(三上素敬)는 조동면에 6필지(6개 부옥, 32개 염정) 3.7126정보를 갖고 있을뿐더러, 안산군 마유면 월곶리에도 4필지(4개 부옥, 52개 염정) 5.3253정보를 소유하고 있어서, 경기도 북부지역 최대의 염전주라고 하겠다. 이밖에 노자카(野阪)란 인물이 부내면 도장리에 2필지 1.0527정보, 스즈키(鈴木)가 남촌면에 0.8211정보, 죠호 기주로(著方儀十郎)가 부내면에 0.7818정보를 소유했다. 모두 인천군 평균 면적을 상회하는 염전 소유자들인데, 대부분은 조선인 소작인을 두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1906년 가을, 혹은 1907년 봄부터 염업을 개시하였지만, 연료비 급등 등의 이유로 사업 수지를 맞추지 못하여 1년 만에 휴업하거나 조선인에게 소작을 준 상태였다고 당시의 염업 조사자는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근대적 공동 경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남촌면 3리에서 0.8211정보를 소유한 이인○과 최경○은 서로 자본을 투자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염전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는 부옥만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기타 염정 사용 및 종업원 사역에 있어서는 별도의 경영을 하던 종래의 관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김포군 검단면 반월촌리의 서봉규, 이용현 공동 소유의 염전(1.3519정보)은 염정 8개와 부옥 1개의 축조비, 가마의 매입비, 기타 수선비와 잡비 등을 각자 등분하여 출금하는 식의 경영을 하고 있었다. 즉 부옥만을 공동으로 사용할 뿐, 기타의 경영은 독자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23 류창호,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제염업의 교류와 네트워크」, 『한국학연구』5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표 4 부평군 각 면의 제염업 실태

(단위: 명·개소·정보·근)

면명	소유자수	소작인수	종업자수	鹽井數	釜屋數	면적	생산고
석곶면	22	0	46	62	23	6.9115	664,226
모월곶면	42	2	88	158	44	21.0719	2,011,260
합계	64	2	134	220	67	27.9904	2,675,486

❖ 출처: 『한국염업조사보고』, 1908.

❖ 비고: 소계 및 합계에 오류가 있으나 원본에 의함.

<표 4>는 부평군 각 면의 제염업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총 67필지의 염전(27町 9反 9畝 4步)을 64명이 소유하고 있고, 1필지당 평균 면적은 0.4178정보이다. 번작리, 가좌리, 신현리, 가정리 등에 위치한 석곶면의 염전은 면적이 0.2~0.4정보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염전이 대부분이고, 고잔리, 백석리, 거월리로 이어지는 모월곶면 쪽에 좀 더 큰 염전들이 많았다. 가장 많은 염전을 소유한 사람은 모월곶면 고잔리에 거주하는 노순근으로, 3필지 1.1722정보의 염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종업원은 1부옥당 2인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가마 불 지피기, 함수 퍼 올리기 등 제염 작업상 반드시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어서 대부분 숙련자를 고용하였다. 기타의 살사(撒砂) 작업이나 염정 파기 등은 농사철을 피하여 임시 고용하였다. 이들에게는 작업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불되지만, 만약 중간에 강우 등의 날씨로 인해 제염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그 1회분에 대해 급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맹약이 있었다고 한다.

표 5 김포군 검단면의 제염업 실태

(단위: 명 개소 정보: 근)							
면명	소유자 수	소작인 수	종업자 수	鹽井數	釜屋數	면적	생산고
검단면	34	1	99	162	33	27.3617	1,281,995

<표 5>는 김포군 검단면의 제염업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33필지의 염전(27町 3反 6畝 17步)을 34명이 소유하고 있다. 1필지당 평균 면적은 0.8291정보로 부평균의 2배에 해당하지만 생산량은 도리어 부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소유주의 대부분은 대왕길리와 반월촌리에 거주하는데, 유일하게 경성에 사는 노성민이란 사람이 0.6724정보를 소유하여 소작을 주고 있었다. 1년에 8말(斗) 8되(升)로 포장된 가마 6가마를 봄·가을로 나누어 납부한다고 한다. 부평균의 소작인이 1섬(石) 8되, 또는 1섬 1말 1되의 가마를 봄·가을로 납부하는 것에 비하면 과중한 소작료라고 하겠다. 한편 세금은 소유자 부담이었다.

마지막으로 제염의 수지 계산을 살펴보겠다. 『한국염업조사보고』에는 인천의 남촌면, 안산의 마유면, 통진의 상곶면 3곳의 특정 염전을 예시로 하여 제염 생산비와 수입금을 산출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표 6>이다.

표 6 경기도 제염 수지계산

	인천군 남촌면	안산군 마유면	통진군 상곶면
反別	0.9909町	0.2316町	0.8422町
製鹽高	97,921斤	38,880斤	40,500斤
收入高	1,307.232圓	570.370圓	626.130圓
100근당 생산비	1.301	1.479	1.533
鹽田 修築消却 및 修繕費	1.000	1.000	3.000
釜屋 修築消却 및 修繕費	15.333	13.428	12.000
採鹹用 기구·기계 소각 및 수선비	5.500	5.500	3.860
煎熬用 기구·기계 소각 및 수선비	0.550	0.550	0.700
煎炭費	806.400	384.000	350.000
採鹹勞銀	211.136	70.400	80.000

	인천군 남촌면	안산군 마유면	통진군 상곶면
煎熬勞銀	115.200	44.800	93.750
公租	3.200	1.680	4.000
포장비	-	-	13.900
고정자본 이자	46.819	21.810	27.912
운전자본 이자	69.305	31.178	31.975
지출금 합계	1,274.443	575.346	621.097
差引	32.789	-4.976	5.033

일본인 소유주들이 1년 만에 모두 휴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1907년 경기도의 제염업 상황은 수입염의 압박과 연료비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료비로 남촌면은 63%, 마유면은 67%, 상곶면은 5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임금으로 각각 약26%, 20%, 약28%를 차지한다. 따라서 안산군 마유면의 경우 염전 소유자는 4원 98전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제3절 |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의 설치와 제염 성적

「염세 규정」을 통해 염세를 중앙집중식 과세 체제로 통일함으로써 안정적인 식민 통치의 재원을 마련하려 했던 일제 통감부의 계획은 앞서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전히 첩징(疊徵: 중복 징수)의 폐해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특히 강압적 방법에 의한 염세 조사와 징수는 지방 염민들의 반발과 조직적인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 “징수 기관이 불비하고, 완고한 백성이 공연스레 옛 것을 고수하여 새로 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히 분규를 빚어내어 징수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²⁴며 염세 개혁의 실패를 자인하기도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통감부가 고려하고 있던 방안 중의 하나가 제염업에 근대적 생산시설과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재래식 제염업(煮鹽業)으로는 임금 및 연료비의 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의 이윤 창출이 힘들고, 청국염 등 수입염의 압박에 의해 결국 폐절하고 말 것이라고 예측하여, 결국 생산체제의 개편을 통한 제염 생산의 증대를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가장 먼저 실행된 것이 대만의 천일제염법과 일본의 전오제염법을 모방한 제염시험장의 설치였다.

본래 천일제염시험장은 와카마쓰 도사부로(若松兎三郎) 목포 영사가 러일전쟁 기간 중인 1904년부터 목포에 설치할 것을 청원하고, 사전 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1906년 이후 통감부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의 지시에 의해 시험 염전의 입지 장소가 인천으로 바뀌어졌다. 여기에 대해 메가타의 전기(傳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원래 韓人은 鹽의 수용이 많지만 자국의 생산은 소액이어서 대체로 그것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크게 염의 산출을 장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메가타: 인용자주)은 일찍부터 여기에 착안하여 광무 9년(1905) 11월 이래로, 한국 남

부 연안에서의 제염사업을 조사하였고, 광무 10년(1906) 관영 제염 시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본식 전오법과 대만식 천일제염의 適否 여부를 연구하였다. 본래 한국은 降雨가 적고 또 증발량이 많으며 연안에서는 도처에 干瀆地가 있기 때문에, 천일제염사업에 적합하다는 것은 識者들도 인정하는 바였다. 조사의 결과는 雨量, 氣溫, 晴天日數, 蒸發量 등에서 목포보다 인천 쪽이 우량하다고 하였는데, 처음에 목포에 주목하였던 것을 선생은 천일제염시험장을 인천에서 가까운 朱安灣의 한 지점으로 변경시킨 것이다.²⁵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천일제염시험장이 목포에서 인천으로 바뀐 것은 강우량, 기온, 청천일수(晴天日數), 증발량과 같은 기후적 조건이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아래의 <표 7>은 1904년 3월부터 부산, 목포, 인천, 용암포, 원산 등에 세워진 일본 중앙기상대 임시관측소의 기상 자료를 토대로 천일제염시험장 예정지인 목포와 인천의 기상 상태를 분석한 자료이다. 당시 목포항과 속칭 팔구포(八口浦)로 불리는 옥도(玉島) 일대 도서 지역의 염전들을 조사한 일본 농상무성 기사 시모 케이스케(下啓助)의 보고에 따르면, 한반도는 북부 및 중부의 대륙적 성질과 남부의 해양적 성질로 구분된다고 하였고, 토양은 인천과 목포 모두 중국 요동(遼東)이나 회북(淮北) 지역의 토양과 닮아 천일염전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²⁶ 하지만 습도나 강우량 등 기상 조건만을 놓고 볼 때, 7~8월 장마철에 집중 강우가 인천에 있었던 것만 빼놓고는 인천이 목포보다 더 우월한 결과가 나왔다.

24 「鹽稅實施二關スル件」, 『財務週報』25호(1907.09.30)

25 目賀田男爵傳記編纂會, 『男爵目賀田種太郎』, 1938, 505~506쪽.

26 農商務省 水産局, 『韓國鹽業』, 『韓國水産業調査報告』, 1906.

표 7 1904년 목포(팔구포: 八口浦) 및 인천 부근의 기상표

(단위: °C·%·mm·日)

月	기온		습도		雨量		雨天日數	
	목포	인천	목포	인천	목포	인천	목포	인천
4월	10.5		83	78	134.6		16	
5월	13.8	14.2	82	80	174.3	50.5	13	14
6월	19.3	19.7	88	80	118.7	34.6	6	7
7월	23.9	23.5	90	83	83.2	293.7	13	21
8월	24.9	25.5	87	82	84.3	117.4	6	9
9월	21.0	20.8	80	72	59.6	17.1	7	5
10월	15.5	13.7	78	72	38.0	25.6	8	8
11월	10.1	5.9	77	68	38.3	16.9	12	6
12월	5.7	0.4	78	65	11.4	11.5	11	5

출처: 農商務省 水産局, 『韓國水産業調査報告』, 1906.

또한 메가타로서는 위와 같은 기상 조건뿐만 아니라 기존 제염업과의 관계 또한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을 것이다. 만일 처음 계획대로 목포 지역에 천일염전을 건설했을 경우, 이에 따른 기존 제염업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앞의 <표 1>에서도 보이듯이 전라남도도 전국 제염자·소작인·종업자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또 생산량 역시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수입염의 압박을 피하고 있는 곳에 관영 천일염전을 건립한다는 것은 곧 한국 자염업의 붕괴를 초래하는 일이라는 것은 당시 누구라도 인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는 천일염전의 입지는 기존 제염업이 번성하지 않은 곳(실제로는 청국 염의 수이입으로 제염업이 도태된 곳), 그리고 천일염에 대한 기호상의 거부감이 없으며, 소비 시장이 가까운 곳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은 인천만한 곳이 없었다.

한편 위와 같은 메가타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후, 천일제염시험장 설립 사업의 진행 속도는 과거 와카마쓰 영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통감부 설치 이후 재정고문부가 획득한 자율적인 권한 강화가 크게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통감부 설치 이전 한국에 관한 중요 문제는 주한일본공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또 일본 정부의 훈령이 필요한 문제는 동(同) 공사를 거치거나 혹은 직접 외무대신에게 요청하여 지휘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한국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메가타 재정고문은 일본 정부

의 직속의 지휘에서 벗어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 아래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사업을 좀 더 자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²⁷

『조선전매사』에 의하면 통감부는 천일제염의 시험을 위해 1906년 일본 대장성 기사인 오쿠 겐조(奥建藏)를 초빙하여 실지를 조사하였고, 오쿠 기사의 의견을 따라 이듬해 인천부 주안면 십정리에 1정보의 천일제염 시험장과 동래부 용호리에 2.3정보의 일본식 천일제염 시험장을 각각 설치하였다고 하였다.²⁸ 그러나 이시카와 다케요시(石川武吉)의 기록에 따르면 천일제염의 적지(適地)를 조사하고 직접 주안의 천일제염시험장을 축조한 사람은 대만 전매국에서 파견된 야마다 나오지로(山田直次郎), 미키 케요시로(三木毛吉郎) 두 기수(技手)였다.

한국정부는 광무 10년(1906) 염업 개발을 위해 일본정부에 대해 제염기술자의 파견을 요구하고, 천일제염의 적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천일제염에 관한 기술자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것을 위해 정부는 臺灣에서 천일제염에 종사하였던 山田直次郎 및 三木毛吉郎, 두 사람을 조선의 관리로 하여 초빙, 조선 내의 천일제염에 적합한 干瀉地를 조사시켰다. 그 결과 조선의 서해안 인천항 연안의 朱安 干瀉地 및 진남포항 연안의 광량만 연안이 유망한 적지로 발견하였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명치 40년(1907) 9월, 대만식의 천일염전 1정보를 축조, 완성하여 제염 시험에 착수하였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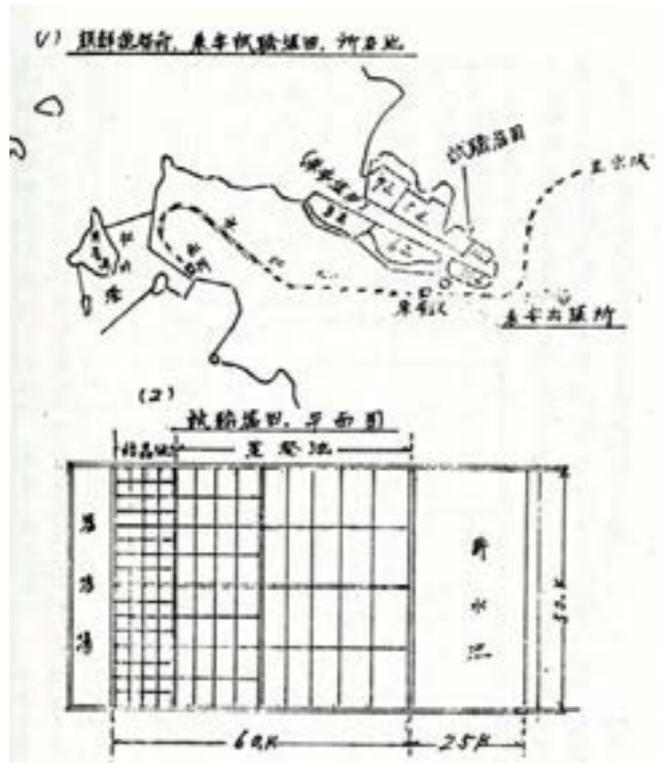
실제로 이시카와는 1920년대 미키 기수와 함께 주안 염전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야마다와 미키 두 기수가 천일염전 후보지를 조사하고, 직접 주안염전을 축조하였다는 위의 기록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두 기수들은 하급 관리였으므로 천일제염의 실무자들이었고, 대장성의 기사인 오쿠 겐조가 천일염전 건설의 총책임자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7 井上敏孝, 『朝鮮における築港事業: 韓国財政顧問目賀田種太郎の業績と吞吐分散方針を中心に』, 『東洋史訪』23, 兵庫教育大学 東洋史研究会, 2016, 38쪽.

28 朝鮮總督府 專賣局, 『朝鮮專賣史』3, 1936, 297쪽.

29 石川武吉, 『朝鮮の天日製鹽に関する資料總説編』(1973), 『朝鮮の鹽業』, 友邦協會, 1983, 79쪽.

1907년 9월에 준공한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은 1정보(3,000평)의 증발지 및 결정지, 그리고 같은 1정보의 저수지를 포함하는 총 2정보(6,000평)의 규모로 축조되었다. 대만에서 온 기술자들이 만든 만큼 그 형태는 대만과 같은 급상식(汲上式)이었다. 따라서 제1증발지보다 제2증발지가 높게 축조되어 합수를 이동시킬 때에는 반드시 수차를 이용하여 위로 퍼 올려야만 했다.³⁰ 증발지는 사면이 높이 7촌, 너비 2척 내외의 작은 휴반(畦畔)으로 둘러싸인 수십 개의 방형으로 이루어진 9단의 계단으로 만들어졌다. 지면 바닥은 매우 평탄하게 고르기를 행한 후, 다시 석제 물러로 다졌다. 이밖에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를 만들었고, 합수류, 수로 및 배수구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었다.³¹ 동 염전의 평면도와 면적 비율은 아래의 그림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의 위치와 평면도>와 <표 8>과 같다.



❖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의 위치와 평면도(출처: 財團法人友邦協會, 『朝鮮の鹽業』, 1983)

30 유승훈, 「인천연안의 염업」, 『인천연안의 어업과 염업』,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1, 99쪽.

31 專賣局 朱安出張所, 「昭和3年八月, 朱安鹽田概要」, 『專賣局朱安出張所關係資料』(CTA0002798), 1쪽.

표 8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의 면적 비율

(단위: 평)			
구역명	면적	구역명	면적
蒸發池	2,388	貯水池	1,350
結晶池	320	堤防敷地	1,650
鹹水溜	100		
畦畔水路	192		
합계	3,000	합계	3,000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메가타 재정고문은 1907년 9월 23일, 총리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내부대신 임선준, 탁지대신 고영희 등 소위 4대신과 함께 한일 실업가 및 신문기자 등 총 138명을 대동하고 임시 열차 편으로 인천 주안면에 도착하였다. 이들 138명의 일행은 오후 1시 40분경 주안출장소에 도착하여 아카쿠라(赤倉) 염세과장 및 야마다(山田) 주임으로부터 천일염전의 제염 방법과 채취염표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위의 작업장을 시찰하였다. 대신들을 비롯한 한국인 관민들은 처음 보는 천일염 제조 광경에 놀라며 일일이 그 소금을 입에 넣어 맛보고 감탄했다고 한다. 이후 사무소에서 간단한 다과를 즐긴 후, 오후 3시 6분에 발차하는 열차에 탑승하여 4시에 남대문 역에 도착하였다. 일행 중 대신들은 아카쿠라 염세 과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제염 항아리를 들고 입궐하여 순종황제에게 봉정하였다.³²

준공식 후 본격적으로 채염 작업에 들어간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의 제염시험 결과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천일제염이) 조선에서도 확실히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³³ 그 품질은 일본 전매염의 1~2등급에 상당하는 품질이었고,³⁴ 색깔 등에 있어서도 청국염이나 대만염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도 하였다. 실제로 1907년 10월에 조사한 주안 염전 천일염의 분석성적표에는 염화나트륨(NaCl) 함유량이 무려 96.316%에 달하고 있

32 「朱安模範鹽田ノ巡視」, 『財務週報』第25號(1907. 9. 30)

33 朝鮮總督府 專賣局, 『朝鮮專賣史』3, 1936, 297~299쪽.

34 일본 전매염의 품질등급은 NaCl 함유량 90% 이상을 1등급, 85% 이상을 2등급, 80% 이상을 3등급 등으로 구분하였다.

어, 88~93%로 나오는 청국염의 성적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었다.³⁵ 아울러 1908년 시험 염전에서 채염한 천일염 수량은 다음의 <표 9>과 같다.

표 9 1908년 주안시험염전 1정보로부터 채염한 천일염의 수량

(단위: 斤·日)

월별	채염량	채염 일수	1일당 평균 채염량	1일당 평균 최고량	1일당 평균 최저량
4월	25,352	22	1,150	2,128	40
5월	25,850	15	1,720	2,408	643
6월	25,141	14	1,800	2,862	264
7월	15,634	11	1,420	2,018	617
8월	11,417	11	1,040	1,800	337
9월	14,883	17	870	1,799	198
10월	12,941	18	720	1,822	213
합계	131,218 (78,731kg)	108	1,215		

❖ 출처: 조선총독부 전매국, 『조선전매사』, 1936.

한편 메가타 재정고문의 지시로 주안천일제염시험장과 함께 동래부 용호리에 설치된 일본식 전오제염시험장(煎熬製鹽試驗場)의 성적 역시 나쁘지 않은 것이었다. 특히 생산비에 있어서는 종전보다 무려 1석당 1원을 감소시켜 중국산(청국) 천일염에도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1석당 생산비가 주안 천일염이 1원 10전인 것에 비해 용호리 전오염은 1원 50전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³⁶ 그러나 『조선전매사』가 전하는 통감부 당국의 견해는 “전오염은 생산비의 절약이 곤란하여 도저히 천일염에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³⁷ 이것은 제염업 개량에 임하는 통감부의 두 가지 길, 즉 전오제염의 개량이나 천일제염의 도입이나 하는 갈림길에서 후자의 길을 선택한 주요 논리가 되었다.

천일염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정책적 결정도 시급히 이루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이 한국에서 천일제염사업을 처음으로 계획한 시기는 1904년이다. 와카마쓰 도사부로(若松兎三郎) 영사가 목포에서 천일제염시험장 설치를 청원하였고, 그 방식은 관업(官業)으로 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논의되었다. 통감부 출범 이후로는 자원 확보를 위해 제염업의 경제적·재정적 유리함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국가 사업에 의한 천일제염 시행이 재논의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07년 10월에 ‘민간인 및 외국인에 의한 천일염전 개설 금지’의 훈령이 나왔다. 이는 천일제염을 관업으로 운영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1908년 주안천일제염시험장에서의 성공적인 결과에 고무 받은 통감부는 이듬해인 1909년부터 관영 천일염전의 건설을 개시하였다. 천일염전을 정부 스스로 건설하고 경영하는 제조전매제인 ‘관업 제염(官業製鹽)’의 방침이 수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식민지기 천일염을 ‘관염(官鹽)’으로 부르며, 전통 자염을 생산하는 민간 제염,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염과 구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42년 「조선염전매령」이 선포되어 민간 제염업에서도 그 생산과 배급을 통제하는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35 「朱安出張所天日製鹽分析成績表」, 『財務週報』第27號(1907. 10. 14)

36 田中正敬, 「統監府の塩業政策について」, 『一橋論叢』115-2, 一橋大學 一橋學會, 1996, 482-483쪽.

37 朝鮮總督府 專賣局, 『朝鮮專賣史』, 1936, 297쪽.

〈별표 1〉 인천군 제염업 일람표

면명	주소	소유자명	소작인명	종업자수	反別	연간 제염고	염정수	부옥수	비고	
남 촌 면	3리	崔善有		2	0.9404	97,920	8	1		
	"	李仁○, 崔景○		2	0.8211	85,680	7	1		
	"	崔○○		2	0.5826	61,100	5	1		
	"	金○源		2	1.0707	97,920	8	1		
	"	閔公益		2	0.4704	48,960	4	1		
	"	崔茂卿		2	0.7018	52,440	6	1		
	"	徐昌燁		2	0.8211	85,880	7	1		
	"	姜文周		2	0.9404	95,920	8	1		
	"	崔仁伯		2	0.4706	48,960	4	1		
	"	崔仁俊		2	0.9404	97,510	8	1		
	"	孔門元		2	1.2913	124,640	11	1		
	"	具然○		2	0.8211	85,680	7	1		
	인천 朝鮮町	鈴木○	孫永振		2	0.8211	85,680	7	1	
	1리	金辰甫			2	0.9404	97,920	8	1	
	"	具先爾			2	0.7018	72,440	6	1	
	"	孔春範			2	0.8211	85,680	7	1	
	"	孔行源			2	0.5825	61,100	5	1	
	"	崔景敍			2	0.9404	97,920	8	1	
	"	孔聖水			2	0.7018	72,440	6	1	
	"	千輻賢			2	0.8211	85,680	7	1	
	"	千光浩			2	0.7018	72,440	6	1	
	"	崔連成			2	0.4702	48,960	4	1	
	"	千○兼			2	0.7018	72,440	6	1	
	"	千英淑			2	0.9404	97,920	8	1	
	소계	25명	1명		48	19.0719	1,970,640	161	24	
조 동 면	○○포 리	李文鄉		2	1.2518	97,920	6	1		
	"	○元執		2	1.2518	97,920	6	1		
	조동면 내리	尹興植		2	0.7018	72,440	6	1		
	인천	三上素敬		12	3.7126	392,680	32	6	본인 전부 휴업	
	소계	4명		18	6.9220	660,960	50	9		

면명	주소	소유자명	소작인명	종업자수	反別	연간 제염고	염정수	부옥수	비고
신 현 면	山井里	安保汝	秋明根	2	0.3509	36,720	3	1	
	"	秋聖舜		2	0.2316	24,480	2	1	
	소계	2명	1명	4	0.5825	61,200	5	2	
서 면	2리	崔務鄉		2	0.5825	61,200	5	1	
	3리	鄭○恒		2	0.4902	48,960	4	1	
	1리	李寅德		2	0.4702	48,960	4	1	
	"	李演哲		2	0.7818	72,440	6	1	
	소계	4명		8	2.3217	231,560	19	4	
	부 내 면	道長里	李道○		2	0.5925	61,200	5	1
"		崔泰延		2	0.7818	73,440	6	1	
"		野阪某	呂○德	2	0.5825	61,200	5	1	
"			崔俊習	2	0.4702	48,960	4	1	
인천		著方儀十 郎		2	0.7818	73,440	6	1	본년 휴업
소계		4명	2명	10	3.2028	318,240	26	5	
주 안 면	십정리	文○景		2	0.2624	33,600	2	1	
	"	具○蕃		2	0.2316	32,700	2	1	
	"	文夢悅		2	0.3009	42,000	2	1	
	"	具士善		2	0.2007	42,000	2	1	
	"	具聖化		2	0.1825	26,250	2	1	
	"	文○○		2	0.1503	11,000	2	1	
	"	文景○		2	0.2624	37,100	2	1	
	"	成樂賢		2	0.1212	18,600	2	1	
	"	成樂○		2	0.2624	15,100	2	1	
	"	洪自三		2	0.4104	57,190	2	1	
	소계	10명		20	2.5218	347,700	20	10	
합계	49명	4명	108	34.6717	3,591,300	281	54		

❖ 출처 :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 「한국염업조사보고」, 1908.

❖ 비고 : 소계 및 합계에 오류가 있으나 원본에 의함.

〈별표 2〉 부평군 제업업 일람표

면명	주소	소유자 명	소작인 명	종업자 수	反別	연간 제업고	염정 수	부옥 수	비고
석 곶 면	번작리	李聖道		2	0.2015	19,526	2	1	
	"	鄭百甫		2	0.4100	29,072	4	1	
	"	張德永		2	0.2015	19,526	2	1	
	"	李日三		2	0.2015	19,526	2	1	
	"	孔善○		2	0.2015	19,526	2	1	
	"	金善浩		2	0.2015	19,526	2	1	
	"	崔聖化		2	0.2015	19,526	2	1	
	가좌리	李永善		2	0.3327	31,258	2	1	
	"	"		2	0.3327	31,258	2	1	
	"	朴日玄		2	0.3007	31,258	2	1	
	"	具成○		2	0.3007	31,258	2	1	
	"	徐致康		2	0.3007	31,258	2	1	
	신현리	金聖有	孫永振	2	0.2015	19,526	2	1	
	"	金相雲		2	0.2015	19,526	2	1	
	"	崔成淳		2	0.2015	19,526	2	1	
	"	朴仲吾		2	0.2015	19,526	2	1	
	"	金辰成		2	0.4100	39,072	4	1	
	"	尹○卿		2	0.4100	39,072	4	1	
	가정리	趙永文		2	0.4100	39,072	4	1	
	"	趙順根		2	0.6115	58,608	6	1	
	"	尹玄浩		2	0.4100	39,072	4	1	
	"	鄭永煥		2	0.4100	39,072	4	1	
	"	金致雲		2	0.2015	19,526	2	1	
소계	23명	1명	46	6.9115	664,226	62	23		
모 월 곶 면	심곡리	任奇玉		2	0.4703	44,400	4	1	
	"	李洛玄		2	0.7020	66,493	6	1	
	"	李義仁		2	0.4703	44,400	4	1	
	"	李聖凡		2	0.4703	44,400	4	1	
	"	金守虎		2	0.4703	44,400	4	1	
	連善里	張光七		2	0.4703	44,400	4	1	
	"	李光權		2	0.2316	22,164	2	1	
	"	李洛云		2	0.4703	44,400	4	1	
	"	鄭士吉		2	0.2318	22,164	2	1	
	"	李永辰		2	0.4703	44,400	4	1	

면명	주소	소유자 명	소작인 명	종업자 수	反別	연간 제업고	염정 수	부옥 수	비고
모 월 곶 면	"	李寬一		2	0.2315	22,164	2	1	
	"	鄭周八		2	0.7020	66,493	6	1	
	"	鄭仲守		2	0.2316	22,164	2	1	
	고잔리	金永根		2	0.4703	44,400	4	1	
	"	盧桂弘		2	0.7020	66,493	6	1	
	"	崔昌根		2	0.4703	44,400	4	1	
	"	金宅凌		2	0.4703	44,400	4	1	
	"	許士益		2	0.2316	22,164	2	1	
	"	盧順根		2	0.2316	22,164	2	1	
	"	"		2	0.4703	44,400	4	1	
	"	"	鄭泯膽	2	0.4703	44,400	4	1	
	"	姜致順		2	0.4703	44,400	4	1	
	"	金士玄		2	0.2316	22,164	2	1	
	艮子里	宋汝九		2	0.3007	29,174	2	1	
	"	宋鳳卿		2	0.6014	58,348	4	1	
	"	鄭致俊		2	0.6014	58,348	4	1	
	"	宋公瑞		2	0.6014	58,348	4	1	
	"	鄭永佑		2	0.6014	58,348	4	1	
	시천리	金伯先		2	0.6014	58,348	4	1	
	백석리	○鳳汝	柳六有	2	0.6014	58,348	4	1	
	"	沈公三		2	0.3017	29,174	2	1	
	"	鄭聖化		2	0.3017	29,174	2	1	
	"	洪致俊		2	0.6014	58,348	4	1	
	"	沈○山		2	0.6014	58,348	4	1	
	"	柳景先		2	0.3007	29,174	2	1	
	"	沈○交		2	0.3007	29,174	2	1	
	於巨乙里	李公○		2	0.3007	87,521	2	1	
	"	李致方		2	0.9021	87,521	6	1	
	"	李方云		2	0.6014	58,348	4	1	
	東士右之里	金石化		2	0.6014	58,348	4	1	
	"	權公先		2	0.6014	58,348	4	1	
	"	沈允甫		2	0.6014	58,348	4	1	
	"	梁景方		2	0.6014	58,348	4	1	
"	權士化		2	0.6014	58,348	4	1		
소계	44명	2명	88	21.0719	2,011,260	158	44		
합계	67명	2명	134	27.9904	2,675,486	220	67		

❖ 출처 :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 「한국염업조사보고」, 1908.

❖ 비고 : 소계 및 합계에 오류가 있으나 원본에 의함.

〈별표 3〉 김포군 제염업 일람표

면명	주소	소유자명	소작인명	종업자수	反別	연간제염고	염정수	부옥수	비고
김 단 면	大旺吉里	林仲伯		3	0.3327	15,730	2	1	
	"	金顯河		3	0.3327	15,730	2	1	
	"	林仁瑞		3	0.6724	31,460	4	1	
	"	林永三		3	0.6724	31,460	4	1	
	"	林弘淳		3	0.3327	15,730	2	1	
	"	林永伯		3	0.6724	31,460	4	1	
	"	李周瑞		3	0.6724	31,460	4	1	
	"	李順敬		3	1.0121	47,190	6	1	
	"	崔聖三		3	0.6724	31,460	4	1	
	"	洪士元		3	0.6724	31,460	4	1	
	"	洪泰君		3	1.3518	62,920	8	1	
	"	林聖相		3	0.6724	31,460	4	1	
	半月村里	李用云		3	0.8002	47,190	5	1	
	"	李允伯		3	1.4726	70,785	9	1	
	"	徐炳夏		3	0.6724	31,460	4	1	
	"	李光榮		3	1.0121	47,190	6	1	
	"	李德成		3	0.6724	31,460	4	1	
	"	趙化允		3	1.6915	78,650	10	1	
	"	李致貞		3	0.6724	31,460	4	1	
	"	梁先化		3	1.0121	47,190	6	1	
	"	金義道		3	0.6724	31,460	4	1	
	"	李恭烈		3	0.6724	31,460	4	1	
	"	徐炳極		3	0.6724	31,460	4	1	
	"	趙景倫		3	0.6724	31,460	4	1	
	"	徐炳日		3	1.0121	47,190	6	1	
	"	趙致根		3	1.0121	47,190	6	1	
	"	金興烈		3	0.6724	31,460	4	1	
	"	徐鳳奎, 李容憲		3	1.3519	62,920	8	1	
	"	李成老		3	1.0121	47,190	6	1	
	"	朴顯乾		3	1.0121	47,190	6	1	

면명	주소	소유자명	소작인명	종업자수	反別	연간제염고	염정수	부옥수	비고
김 단 면	"	李錫甫		3	1.0121	47,190	6	1	
	"	朴允坤		3	0.6724	31,460	4	1	
	경성	魯成坻	李致三	3	0.6724	31,460	4	1	
합계		33명	1명	99	27.3617	1,281,995	162	33	

❖ 출처 :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 「한국염업조사보고」, 1908.
 ❖ 비고 : 합계에 오류가 있으나 원본에 의함.



참고 문헌



단행본

- 국립민속박물관, 『소금꽃이 핀다』, 국립민속박물관, 2011.
 유승훈,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민속』, 민속원, 200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연안의 어업과 염업』,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1.

논문

- 김일기, 「전염염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1.
 류창호,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제염업의 교류와 네트워크」, 『한국학연구』5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류창호, 「러일전쟁기(1904~1905) 주한일본영사관의 염업조사사업」, 『도서문화』51,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8.
 류창호, 「한국 근대염업의 네트워크와 그 특성」, 인하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류창호, 「19세기 후반 정부의 염세징수와 그 성격」, 『한국학연구』2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박성준, 「1894~1910년 海稅制度의 변화와 稅制 정비의 방향」, 『한국사연구』128, 한국사연구회, 2005.
 이영학, 「개항기 제염업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1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1.
 이영호, 「통감부시기 조세증가정책의 실현과정과 그 성격」, 『한국문화』1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5.
 조한보, 「인천연안염업에 관한 연구」, 『논문집』18-2, 인천교대, 1984.
 한인수, 「한말이후 일제하의 우리나라 제염업의 실태」, 『응용지리』1-3, 한국지리연구소, 1977.
 田中正敬, 「植民地期朝鮮の塩需給と民間塩業」, 『朝鮮史研究會論文集』35, 1997.
 田中正敬, 「統監府の塩業政策について」, 『一橋論叢』115-2, 一橋大學 一橋學會, 1996.
 井上敏孝, 「朝鮮における築港事業：韓国財政顧問目賀田種太郎の業績と吞吐分散方針を中心に」, 『東洋史訪』23, 兵庫教育大學 東洋史研究会, 2016.
 村上正祥, 「朝鮮の在來製塩法について(1)」, 『日本塩業の研究』20, 日本塩業研究会, 1991.



사료

- 『세종실록』
 『정조실록』
 『비변사등록』
 『택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通商彙纂』, 日本 外務省 通商局
 『財務週報』, 韓國財政顧問本部
 『韓國水産業調査報告』, 農務省 水産局, 1906.
 『韓國鹽業照査報告』, 度支部 臨時財源調査局, 1908.
 『韓國水産誌』, 農商工部 水産局, 1908.
 『韓國鹽業概況』, 臨時財源調査局, 1910.
 『韓國鹽務行政要領』, 臨時財源調査局, 1910.
 『朝鮮專賣史』1~3, 朝鮮總督府 專賣局, 1936.
 『男爵目賀田種太郎』, 目賀田男爵傳記編纂會, 1938.
 『專賣局朱安出張所關係資料』(국가기록원, CTA0002798)
 『朝鮮の鹽業』, 財團法人友邦協會, 1983.





제 6 장

부평 지역의 농업경제와 수리조합

- 제1절 _ 부평 지역 토지조사
- 제2절 _ 일제의 농업정책과 부평 지역 농업생산
- 제3절 _ 산미증식계획과 부평수리조합
- 제4절 _ 부평 지역 지주제와 농민운동

제6장 부평 지역의 농업경제와 수리조합



이영호(인하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조선시대의 부평은 계양산 아래 도호부가 위치하고 남동쪽으로 넓은 평야 지대가 펼쳐져 있던 곳이다. 삼남 지방과 같지는 않아도 이 일대는 곡창 지대였고 그 외곽의 산간과 구릉지대에 밭작물과 과수 재배, 그리고 목축이 가능했다. 개항 이후 인천에서 경인로를 따라 서울로 통행하는 도정에 이 지역이 포함되어 주목되었는데, 1899년 경인철도가 놓인 이후 서울과 인천의 한국인 및 일본인의 농업 투자가 본격화되었다. 마장면에 목양을 위한 농장이 설치되었으며, 소사의 구릉 지역에는 과수원이 개발되었고, 부평평야는 미곡 생산지로 각광을 받았다.

주지하듯이 일제의 산업 정책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수리조합의 설치, 1930년대 이후 공업화의 과정을 밟았다. 이들 산업 정책이 순차적으로 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된 대표적인 지역을 든다면 단연 부평군 지역이다. 일제 산업 정책의 전개 과정을 한 지역에서 일목요연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토지조사사업의 시험 조사, 부평수리조합의 설치, 경인공업단지의 설치가 모두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토지조사사업은 오늘날의 계양구 쪽에 더 많이 걸쳐 있고, 부평수리조합은 김포군과 오늘날의 부천군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경인공업단지는 부평구 지역에 편중되었다.

여기서는 경인공업단지의 설치를 제외하고, 오늘날의 부평구 지역에서 일어난 토지조사사업의 시험 조사, 부평수리조합의 설치, 지주제와 농민운동에 관해 검토함으로써 일제시기 부평 지역 농업경제의 실상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¹

| 제1절 | 부평 지역 토지조사

1. 토지시험조사의 의의

일제는 식민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조사를 실시했다. 일제는 조선 식민지만이 아니라 앞서 대만(臺灣)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했고, 이후 관동주(關東州), 남양군도(南洋群島), 만주(滿洲) 등 식민지를 영유할 때마다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식민지에 대한 원시적 수탈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경제에 편입시켜 자본주의적 지배를 피하고자 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지배를 위한 기초 작업 중 하나가 토지조사사업이다. 토지의 자본주의적 상품화를 위해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자를 확정함으로써 일물일권(一物一權)의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정 짓고자 했다.

일제는 토지조사를 국유지와 민유지로 나누어 시행했다. 국유지는 왕실과 관청의 소유지로서 그 소유구조가 복잡하므로 통감부시기부터 이미 조사 정리에 착수하고, 1909년 6월부터 1910년 10월까지 역둔토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국유지임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민유지 조사사업에 착수하고자 했다. 그런데 식민지마다 지리적 역사적 관행적 사정이 다르므로 토지조사사업을 똑같이 시행할 수는 없었다. 해당 지역의 토지제도와 관행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청일전쟁의 결과, 식민지로 된

¹ 필자는 이들 문제에 대해 이미 다음과 같은 논고를 작성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부평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적 특성을 밝히는데 집중하여 재정리했다. 이영호, 「일제시대 부평 지역의 사회경제」,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일제의 조선식민지 토지조사의 기원, 부평군 토지시험조사」, 『한국학연구』1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부평의 수리조합과 지주소작관계」, 『박물관지』16, 인하대학교 박물관, 2013; 「인천의 개항과 배후지의 산업변동」, 『근대 동아시아의 공간재편과 사회변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소명출판, 2015.

대만의 경우 사전에 토지조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일제가 보호국(保護國)을 만들어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시험조사(土地試驗調査)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바로 부평군 군내면·서면·동면이다.² 이곳은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중심 구역이었으며, 오늘날 계양구에 대부분 포함되고 동면의 일부가 부평구에 포함되어 있다.

부평군 ‘토지시험조사’는 통감부 통치를 통해 준비해 온 토지조사사업을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험해 본 것이다. 그 목적은 토지조사에 대한 민심의 동향을 살피고 측량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에서는 1909년 11월부터 1910년 2월에 걸쳐 경기도 부평군 군내면·동면·서면에서 시험적 토지조사를 실시했다. 1909년 6월부터 이미 국유지로 간주한 역둔토에 대한 조사를 1년 기한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것은 1910년 9월에 일단락되었다. 부평군 토지시험조사는 민유지뿐만 아니라 당시 진행 중이던 국유지 측량과는 관계없이 국유지도 포함하여, 산림을 제외한 한 지역의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그런 점에서 토지시험조사는 역둔토조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조선토지조사사업(1910~1918)의 ‘기원’이라 할 만하다.

2. 군내면·서면·동면 지주의 토지소유

토지시험조사를 실시한 부평군 군내면·서면·동면의 토지소유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재지주와 재지지주의 토지소유 실태를 살펴보면 <표 1>, <표 2>와 같다.

² 탁지부, 『토지조사참고서』 제4호, 土地調査試行報告, 1910년 4월 28일.

표 1 부재지주의 소유실태

(단위: 정보·%·명)

구분	면적과 비율		인원과 비율	
	면적	비율	인원	비율
0~0.5	4.32	1.0	19	25.9
0.5~1.0	5.50	1.3	8	10.8
1.0~1.5	14.76	3.4	12	16.2
1.5~2.0	5.59	1.3	3	4.0
2~3	15.05	3.5	6	8.1
3~5	23.76	5.4	6	8.1
5~10	67.78	15.6	10	13.5
10~20	88.88	20.4	7	9.4
20~50	42.99	9.9	2	2.7
50~100	0.00	0.0	0	0.0
100~170	166.48	38.2	1	1.3
계	435.10	100	74	100

❖ 출처: 「토지조사부」 부평군 해당 동리
❖ 비교: 면적단위는 정보(町步), 1정보는 3,000평

표 2 재지지주의 소유 실태

(단위: 정보·%·명)

구분	면적과 비율		인원과 비율		소유 구분
	면적	비율	인원	비율	
0~0.5	36.22	3.3	194	39.6	과소지주
0.5~1.0	66.88	6.1	94	19.2	
1.0~1.5	59.15	5.4	50	10.2	
1.5~2.0	43.71	4.0	25	5.1	중지주
2~3	108.83	9.9	45	9.2	
3~5	124.26	11.3	32	6.5	
5~10	205.91	18.7	31	6.3	대지주
10~20	144.08	13.1	11	2.3	
20~50	166.66	15.1	6	1.2	
50~100	144.49	13.1	2	0.4	
100~170	0.00	0.0	0	0.0	
계	1100.19	100	490	100	

❖ 출처: 「토지조사부」 부평군 해당 동리

부재지주의 수는 전체의 13.1%, 재지지주는 86.9%인데 그 면적은 부재지주가 28.3%, 재지지주는 71.7%로서 부재지주의 1인당 평균소유면적이 훨씬 넓다. 부재지주는 5.88정보, 재지지주는 2.25정보로 부재지주의 평균 소유면적이 2배나 넓다. 10정보 이상 소유한 부재지주가 10명이나 된다. 재지지주의 경우 39.6%의 과소지주가 3.3%의 소유, 29.4%의 소지주가 11.5%의 소유, 20.8% 중지주가 25.2%의 소유, 10.2%의 대지주가 60.2%를 소유했다.³

같은 지역의 대토지소유자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10정보(3만 평) 이상 대토지 소유자

(단위: 평)

이름	면적	이름	면적	이름	면적
松尾元之助	499426	이승양	60375	박선익	37357
이종면	241582	정행민	51325	김희종	36053
신인숙	191875	管田豊次郎	45417	공덕선	34889
박용균	133448	송태련	44930	신성극	34827
田鍋安之助	110016	황수연	43053	신완식	33992
조인태	69598	최성규	42418	윤용식	33604
이준용	68201	박승조	42109	박창선	33592
이종선	65226	이규룡	41070	박희병	32827
조용배	61306	조구현	40877	이도상	30516
이종익	60772	송영달이랑	40028		

❖ 출처: 「토지조사부」 부평군 군내면·서면·동면 해당 동리

3개 면만 통계를 낸 것인데도 대토지 소유자의 소유 규모가 상당히 크다. 조선 후기에 이미 지주제가 발달했지만 1910년 단계에서 농업경제의 지주제적 기반은 부평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과 인천에서 멀리

3 이것은 어디까지나 3개면의 범위 내에서일 뿐이다. 경향성을 반영하려면 좀 더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철도의 부평역에서 가까운 부평평야에 일본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도 많다. 특히 마쓰오(松尾元之助)는 미간지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일본인 개인이 무려 166정보나 소유할 정도로 일본인의 토지 잠식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외국인의 토지소유실태를 더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외국인의 토지소유 실태

(단위: 필지수(평수))

성명	거주지	소유지	전	답	대	잡종지	계	신고월	인천부 소유지
松尾元之助	경성부	도두리, 하동		1 (75,674)		3 (423,752)	4 (499,426)	1913.9.	
田鍋安之助	부평군	후정리		1 (105,567)		5 (4,449)	6 (110,016)	1909.11.	
管田豊次郎	경성부	후정리		4 (45,417)			4 (45,417)	1909.11.	11654
松永達二郎	경성부	박촌리		4 (40,028)			4 (40,028)	1909.11.	
福田又兵衛	경성부	갈월리, 작정리, 후정리		16 (22,497)			16 (22,497)	1909.11.	
川本逸造	인천부	병방리, 박촌리, 방축리, 하동		5 (8,493)			5 (8,493)	1914.3.	
樋口平吾	인천부	하동		1 (3,399)			1 (3,399)	1909.11.	27367
馬場清七	인천부	하동, 화전리	2 (2,488)	1 (530)			3 (3,018)	1909.11. 1910.6.	
西川音吉	부평군	가현리, 상동	1 (1,262)		1 (30)		2 (1,292)	1909.11.	
계			3 (3,750)	33 (301,605)	1 (30)	8 (428,201)	45 (733,586)		

❖ 출처: 「토지조사부」 부평군 해당 동리

일본인들은 농장을 개설하기 위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기경지에서는 밭보다 생산성이 높은 논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경성부와 인천부에 거주하는 부재지주가 많은데 경성부 거주자들의 투자가 훨씬 활발하다. 간다(菅田豊次郎)는 경성에 거주하면서 인천과 계양 지역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수도권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히구치(樋口平吾)는 부산을 거쳐 1883년 인천으로 이주한 뒤, 잡화상, 수출상, 거류민회 상임의원, 청일전쟁 지원, 일본상업회의소 상임의원, 미두거래소 감사·이사장, 계림장업단 평의원, 조선신탁합명회사 사장으로 토지가옥 매매와 대부업, 대곡과 본원사의 인천자선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천의 유지였다. 일제의 한국병합 뒤에 농장을 개설한 마쓰오(松尾元之助)는 논뿐 아니라 잡종지를 대량으로 확보했는데 미간지 개간을 목표로 국유미간지를 대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⁴ 일본인 9명 중 4명이 10정보 이상 소유하고 있다. 부평 지역은 지리, 교통, 경지분포 등에서 볼 때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개항 이후 일본인의 토지집적 대상이 되었다.

제2절 | 일제의 농업정책과 부평 지역 농업생산

식민지체제하의 조선 농업은 일본제국주의 산업 정책의 종속변수였다. 일본 산업자본은 일찍부터 조선의 미곡을 필요로 하여, 인천항을 통한 수출품의 핵심은 미곡이었다. 따라서 식민지화된 이후 1910년대 조선 농업생산의 핵심은 미곡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10년대에는 미곡을 비롯한 곡물 이외에 면화·양잠도 장려되었다. 일제는 이들을 3대 농산물로 삼아 증산정책을 추진했다. 1910년대 일제의 조선농업정책은 일본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작물화정책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경성과 인천 대도시의 중간에 위치하고 철도와 항만 등 유통의 편리성을 배경으로 한 부평 지역에서 상품작물화정책의 모범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 1900년대부터 부평

4 이영호, 「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 문제」, 『역사와 현실』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참조.

지역의 농업은 보통농사·양잠·과수 재배·임업 등으로 나타났다. 보통농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특히 1920년대 전반까지는 양잠을 장려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192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전적으로 보통농사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제의 농업정책이 미국 증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개항과 경인철도 개통 이후 부평 지역은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그것이 경성과 인천의 대도시와 소통된다는 점, 또 인천항을 통해 해외 무역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일찍이 농업생산의 기지로서 주목되었다. 부평 지역은 도시 근교로서의 이점을 지녔기 때문에 일찍이 잠업과 목축업을 경영하려는 투자자들이 나타났다.

많은 투자자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친일파 송병준(宋秉峻)이었다. 그는 친일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상금을 받아 식산흥업에 투자했는데, 그가 부천군에서 경영한 농장은 일제의 초기 농업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일제는 송병준이 모범적인 농업경영을 했다고 하여 금패(金牌) 산업훈장을 수여했다. 훈장 수여의 근거로서 제시한 농업경영 성적을 통해 그의 농업경영 실태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송병준의 농업경영

사업명	위치	사업	사업내용
啓農園	京畿道 富川郡 桂南面 (素砂)	과수 재배	蘋果 16정보, 葡萄 4정보 재배.
		蠶業	잠실 설치. 一進會員 자제에게 양잠 傳習. 주민에게 잠업 시범.
		보통농사	초생지 70여 정보 小作制度로 개간. 施肥방법 교육. 개량종자 배급.
富平농장	경기도 富川郡 富內面	임업	수전 180정보, 苗圃 및 과수원 15정보, 草生地 104정보, 산림 139정보, 합계 438정보.
		보통농사	소사 계농원과 동일.
蘭芝島농장	경기도 高陽郡 蘭芝島	미간지의 개척	400정보 미간지. 1910년 山口縣農會로부터 2인을 고용하고 1912년 長野縣人 21명을 이민시켜 개척. 100여정보 개간.
		농업	경작방법 개량. 발작물 시험. 채소재배.
		잠업	1912년 이후 양잠 및 잠종 제조. 桑樹 4정보.
秋溪里농장	경기도 龍仁郡 內四面	과수 재배	蘋果와 梨의 수확 부진.
		묘목 양성	소나무, 낙엽송 등 묘목 양성.
		잠업	1905년 양잠전습소 개설.

사업명	위치	사업	사업내용
秋溪里농장	경기도 龍仁郡 內四面	보통농사	벼 품종 개량. 못자리 개량. 부업장료와 弊風矯正. 근검저축 장려.
秋風嶺농장	충청북도 永同郡	蠶種製造	일본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조선의 기후 풍토에 적합한 잠종 개발.
		보통농사	소작인의 종자개량, 농법개량 장려.
蠶絲傳習所	京城府 獨立門 옆 杏村洞	잠업	전습생 80명 양성.
		製絲	일본에 전습생을 파견하고, 공장을 세워 제사업 개업.
		機業	일본기술자를 초빙하여 직물 제조.
國有未墾地 開墾	경기도 長湍郡 石串里, 경기도 富川郡 西串面	미간지 개간	석곶리는 미간지 23정보를 개간하여 소유권 신청. 서곶면은 防潮시설 마련하여 개간. 답 70정보, 양어지 20정보 확보.
		농사의 개발	미흡
水利灌溉	경기도 水原郡 楊甘面		東淸江 右岸 400정보에 1913~1914년 2차에 걸쳐 양수기를 설치하여 200정보 관개.
	함경남도 永興郡	관개용수 공급	龍興江 本支流 사이 200정보의 田地에 1913년 양수기를 설치하여 100정보 成畝.
	충청남도 公州郡		銅川�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거액을 투자하여 1914년 補築하여 80정보에 관개하고 開墾 추진 중.

❖ 출처 : 大橋淸三郎, 『朝鮮産業指針』, 開發社, 1915, 372-385쪽.

송병준의 농업경영은 과수 재배, 잠업, 보통농사, 임업, 미간지 개간, 잠사전습소 운영, 수리관개 등 농업생산의 전반에 미쳤다. 그는 부천군 계남면 중리의 소사농장, 부내면의 부평농장, 경기도 난지도 농장, 용인군 추계리 농장,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농장 등을 경영했다. 잠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각 농장마다 양잠경영을 꾀했다.

과수 재배는 경기도 부평 지역 소사의 계(啓)농원을 중심으로 했다. 송병준은 일진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1905년, 한·일인 6명의 합자회사로서 대한계농원(大韓啓農園)을 조직하고 과수 재배와 양잠을 기획했다. 1911년 11월에는 회사의 전 재산을 3만 원에 사들여 독자적인 농장경영을 꾀했다. 처음에는 일본인을 고용하여 재배 및 일반 감독을 하도록 했지만, 농사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시켜 특히 농학을 수득하도록 한 3남 송종헌 및 조선인들로 하여금 이 사업의 발전을 꾀하도록 촉구했다. 사과(蘋果)재배 16정보, 포도 재배 4정보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소사지방은 원예지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송병준은 1906년 소사의 계농원에 잠실을 설치한 후, 옛 일진회원의 자제 25명을 전국에서 모집하여 의식을 지급하고 양잠전습을 시행했다. 일제의 한국병합 후 은사수산장(恩賜授産場)이 설치되자 가옥기구 및 상원(桑園) 일체를 수산장에 대여하여 잠업장려에 몰두했다. 매년 봄 가을로 부근 촌락의 주민에게 잠업의 시범을 보여 부근촌락의 주민들 중에서도 양잠 종사자가 증가했다. 잠업 경영은 소사농장에 그치지 않고 다른 농장에서도 왕성하게 경영했다. 송병준이 양잠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일찍이 일본 망명 중 이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던 것과도 관계될 것이다.

임업은 부천군 부내면의 부평농장에서 활발했다. 부평농장은 경인철도 부평역에 근접한 곳에 있었는데, 수전 180정보, 묘포(苗圃) 및 과수원 15정보, 초생지 104정보, 산림 139정보, 합계 438정보에 이르렀다. 송병준은 각지로 흩어진 옛 일진회원들에게 상묘(桑苗)를 무상으로 배부하여 식수(植樹) 및 잠업을 장려하여 생업으로 삼게 했다. 1909년 처음으로 묘포를 설치하여 주로 뽕나무, 아카시아, 낙엽송 등을 심었다. 경영은 일본인을 고용하여 묘포 설비 등 전체감독을 맡겼다. 또 부근에서 이주자를 모집하여 처음에는 약간의 자금을 대여, 전답을 소작시키고 또 여력으로 초생지를 개간하여 묘포 등을 심어 부업으로서 잠실을 건설하도록 촉구했다. 1913년 각 지방 옛 일진회원 등은 뽕나무 및 과수 재배가 유망함을 인식하고 송병준에게 묘목을 배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농장의 묘포 생산고만으로는 요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일본 나고야에서 묘목을 얻어 무상으로 배부했다고 한다.

송병준의 양잠 경영에 대한 관심은 잠사전습소의 설치에서도 볼 수 있다. 경성부 독립문 옆 행촌동에 잠사업의 전습기업(傳習機業)을 일으켜 조선 풍토에 적합한 잠사업의 보급을 꾀했다. 1911년 3월 사립한성중학교를 폐지하고 한성잠사전습소로 고쳐 일본인 1명 및 관립용산잠업강습소 졸업생 2명을 교사로 고용하여 부근 전지 약 3정보에 뽕나무를 심고 원래 중학교 강당을 잠실로 삼았다. 1912년 7월 잠사전습소로 이름을 바꾸었고, 1911~1914년까지 80명을 양성했다고 한다.

이처럼 송병준은 한말 일제초기 친일 활동의 대가로 얻은 다액의 은사금 등의 자금을 토지·농업에 투자하여 일제의 식민지농업정책에 호응했다. 소작제에 의거한 보통농사뿐 아니라 특히 양잠 경영에 주목하고, 과수 재배·임업 등에도 투자했다. 1920년대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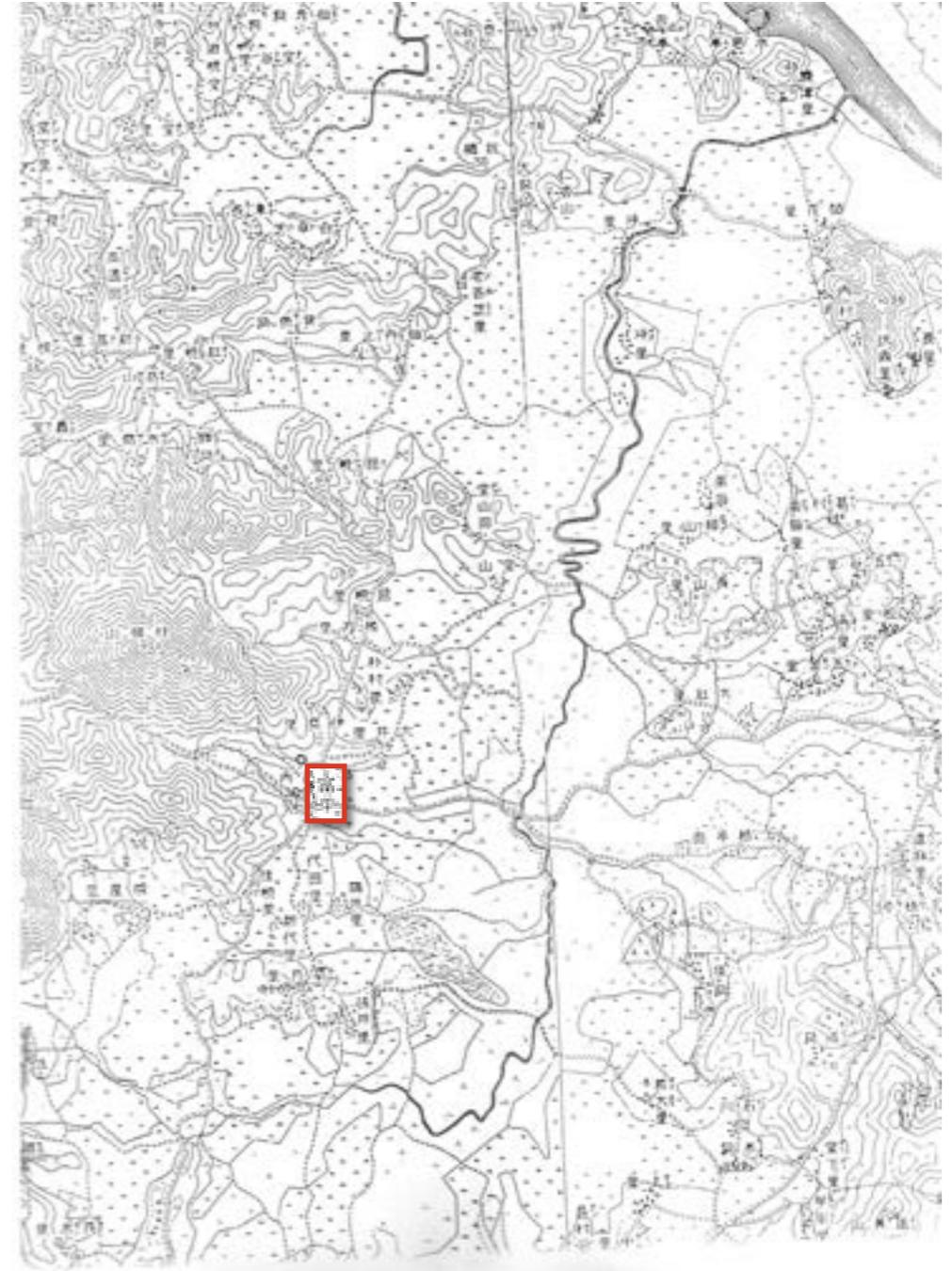
미증식정책과는 판이하게 주곡생산보다 부업 생산에 치중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이 산업화 초기 피한 식산흥업정책을 모델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무년간 한국인의 농업투자가 상업적 농업의 다각화의 방향을 취한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다른 한편 농업경영과정에서 송병준은 자신이 이끌던 친일단체 일진회 회원의 생업을 챙기고 있는 친일과 두목으로서의 면모도 드러내고 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은 일본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작물화정책으로서, 친일파 송병준이 경영한 부평 지역에서 농업경영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겠다.

| 제3절 | 산미증식계획과 부평수리조합

1. 부평 지역의 농업실태

경인철도가 놓인 뒤 부평 지역은 인천과 서울 사이에 끼어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국내외 지주, 자본가의 투자 대상이 되었다.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허용되지 않던 대한제국기에 이미 많은 일본인이 잠매(潛賣), 도매(盜賣), 전당(典當)의 방법으로 이곳의 토지를 확보해 나갔다. 값싼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도 일본인에게는 토지 확보의 중요한 방법이었다. 부평 지역은 이미 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농업지대로서 바다와 강의 연안에 많은 미간지가 있어 수리관개시설을 완비하면 경작지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지역이었다.

굴포천이 중심을 가르고 흐르는 부평평야 지역을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895년의 부평평야
출처 :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1895년 측량, 1911년 발행[『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성지문화사 영인본]

부평평야는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굴포천 좌우에 넓게 펼쳐져 있었다.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비롯하여 부평구, 부천시, 그리고 서울시의 강서구와 양천구, 김포군에 걸쳐 있다. 부평구의 동북쪽이 부평평야다.

부평평야는 일찍부터 수해와 한해가 심하여 농업생산을 위협했다. 부평 지역의 수해와 한해의 상황을 살펴보자.

종래 골짜기에 있는 다소의 용수(湧水)에 의존하여 경작하거나 또는 굴포천(掘浦川)에 연(沿)하는 일소부분(一小部分)에 있어서는 겨울과 봄에 굴포천을 막아 논에 저류(滯溜)하여 식부수(植付水)를 공급하는 외에는 하등의 관개시설이 없어 거의 천수(天水)에 의존하여 경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우량이 적은 이곳에서는 한해(旱害)를 입는 일이 적지 않다.

하루 아침에 호우가 내습하면 사업지의 북부를 흐르는 한강의 역류와 주위의 수수(受水)지역으로부터의 홍수가 합쳐져 지구 내가 범람하는데 얇은 곳은 2~3척, 깊은 곳은 8~9척에 달하고 침수일수 5~15일에 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⁵

수리조합 사업 추진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굴포천 인근의 논을 제외하면 천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는데 한해를 자주 입고 또 한강에 비하여 저지대였기 때문에 한강 홍수의 피해를 자주 입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강의 범람을 막고 적절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면 비옥한 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수리시설을 완비하면 개간될 수 있는 땅도 적지 않았다.

5 「사업계획서」(장시원, 「부평수리조합의 창설과정」,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1992, 68쪽에서 재인용).

2. 부평수리조합의 결성

1920년대 일제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자 식민지 조선에서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했다. 1920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선산미증식계획(朝鮮産米増殖計劃)의 핵심은 토지개량 사업이었다. 그것은 곧 미곡 생산을 위한 관개(灌溉) 개선에 집중되었다. 관개 개선을 위해 종래의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수리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했다. 수리시설로 혜택을 볼 지주들이 수리조합을 조직했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에 부응하여 부평 지역에서도 일찍이 수리조합이 결성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미곡 생산을 강요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⁶

부평평야의 수리사업은 부평 지역 농업생산의 안정화를 위한 현안이 되어 있었다.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부천, 김포 2군에 걸친 부평평야 3,500정보에 대한 수리사업은 1918년 이래의 현안 중이었던바 토지의 위치가 경성에 접근함과 면적이 광대함과 사업의 효과가 지대함 등 이유에 의하여 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음은 이미 공인(公認)하는 바이나, 아직 시기의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하여 실행에 착수치 못하고 아직 지연되는 중이더니 이번에 황해사(黃海社)에 위탁하여 측량 설계와 설립 준비 등 일체 사업을 청부케 하여 이미 측량에 착수함에 이르렀는데 동 지적(地積)은 재작년 말에 총독부에서 직접 실측조사를 하여 크게 사업의 유리함을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업은 필히 성공을 확보할 터이며 당시 총독부의 조사서의 내용을 보니 이 지역은 한강의 범람 구역으로 해마다 수해를 입을 뿐 아니라 한천(旱天)이 계속되면 용수가 곧 고갈하여 한재를 입는 것이 극단에 달하여 수한(水旱) 양재(兩災)를 공히 면치 못할 지역이므로 이를 구제키 위하여 첫째 한강안(漢江岸)에 방수제방(防水堤防)을 설할 것, 둘째 수면적(水面積) 600정보의 유수지를 축설할 것, 셋째 배수로를 신설할 것, 넷째 중앙의 굴포천을 개수할 것.⁷

6 부평수리조합에 대해서는 장시원, 「부평수리조합의 창설과정」(『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1992)을 참조하였다.

7 「水利事業實測」, 『동아일보』 1921년 6월 12일자 : 장시원, 「부평수리조합의 창설과정」,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1992, 68~69쪽.

부평평야는 경성에 근접하고 면적이 광대하며 사업의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 수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이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1919년 말 직접 실측조사를 실시했다. 말하자면 부평평야의 수리사업은 산미증식계획 이전부터 주목되었던 것이다. 이미 한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을 설치하고 홍수에 대비한 우수지를 만들고 배수로와 굴포천 준설 개수가 필요한 사업임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시작된 부평수리조합사업의 실시 개황을 「부평수리조합 준공검사복명서」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조합지구는 경인선 부평역 북방에 위치하여 남은 부내면 대정리 및 계남면 중리로부터 북은 한강안의 고촌면 전호리 및 신곡리에 이르는 사이로서 부천, 김포의 2군에 걸치고 관계면은 실로 계남, 부내, 계양, 오정, 양서 및 고촌의 6면에 미친다. 몽리면적(蒙利面積)은 3,600정보를 품는 일대 평야로서 지미(地味) 자못 비옥하지만 해마다 한강의 범람을 입을 뿐 아니라 한천(旱天)이 조금 연속할 때는 갑자기 용수의 부족을 보게 되는 것을 상례로 하였다. 이 한수해를 제거하여 토지의 개량을 계획하기 위해 1919년 본부에서 본 지구를 답사하여 대체로 이 답사서에 기초하여 1921년 관계자는 황해사에 의탁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작하고 1923년 4월 수리조합설치인가를 받았던 것이다.⁸

여기서도 1919년 답사서를 통해 부평 지역의 수리사업이 구상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1920년 말 산미증식계획이 개시되자 이 답사서에 기초하여 1921년 곧바로 황해사에 수리조합 실시설계서의 제작을 의뢰했던 것이다. 황해사는 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이어 1922년 5월 22일 부평수리조합 설립을 신청한 뒤 1923년 4월 9일 조합설치인가를 받았다. 창립 당시 부평수리조합은 부평평야의 3,872정보(답 75%, 전 5%, 초생지 20%) 가운데 3,601정보를 몽리면적으로 했으며, 당시 전국에서 다섯번째 규모였다. 그 지역은 부천군의 계남면(1931년 소사면), 부내면, 오정면, 계양면, 김포군의 양서면, 고촌면 내 35개리에 걸치는 지역이다. 1941년 현재, 몽리면적 4,120정보로서 양수

기를 수원으로 하는 조합으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였다.

부평수리조합에서는 한강 하류의 물을 양수기로 끌어올려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했다. 김포군 김포면 신곡리의 한강 변에 중앙 배수 갑문을 건축하고 거기에 300마력 전동기 3대와 펌프 6대를 설치하여, 동서 간선수로, 지선 용수로, 지선 배수로 및 굴포천을 통하여 용수 및 배수를 했다. 수리관개사업에 전기를 사용한 것은 부평수리조합이 처음이었다. 또 한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김포군 양서면 개화리에서 고촌면 전호리까지의 동방수제(東防水堤)를 신축하고 고촌면 전호리에서 김포면 신곡리에 이르는 서방수제(西防水堤)를 개축했다.

부평수리조합의 창립위원은 한다(半田善四郎), 카사마쓰(笠松清一), 수이즈(水津彌三松), 정인섭(鄭寅燮), 나카무라(中村福三郎), 마쓰야마(松山常次郎) 등이었다. 창설을 주도한 사람은 한가와 마쓰야마였다. 한가는 1918년 2월 부평, 김포 일대에 한다농장을 설치했는데, 그 면적은 406정보에 이르렀다. 그는 구역 내의 최대의 지주로서 조합 창설을 주도하고, 조합의 4,5,6대 조합장을 지냈다. 마쓰야마는 황해사 사장으로서 창설 공사를 주도하고 조합창립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그는 일찍이 조선으로 건너와 1915년 가와사(川佐)농장의 간척사업에 참여했고, 수리사업의 공사를 청부 맡기 위하여 1918년 3월 토목회사인 황해사를 창설했다. 이 토목회사가 조합창설의 주도자가 되어 조합창설계획에서부터 설치공사까지 담당하고, 마쓰야마는 제1대 조합장이 되었다. 그는 황해사를 이용한 토목 수리공사를 담당하여 부평수리조합뿐 아니라 함안수리조합, 제2함안수리조합, 연해수리조합의 조합장도 겸임하였다. 일본 정우회 대의사라는 정치적인 배경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8 「부평수리조합공사 준공검사복명서」, 1927년 9월 16일. (국가기록원 소장).

1. 수리조합-지주-소작농의 갈등

수리조합구역의 농업생산은 주로 지주제(지주소작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주제는 조선사회의 관행적 토지소유관계로 형성되어 왔지만, 식민지 지주제는 1908년 일제 통감부가 왕실과 정부기관 소유의 토지를 역둔토(驛屯土) = 국유지(國有地)로 통합하고 여기에 역둔토관리규정, 역둔토소작료징수규정을 두어 역둔토를 5년간의 소작 계약에 의거하여 경영하면서 시작되었다. 지주제는 1912년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의 임대차관계규정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 1910~1918년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토지의 상품화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주제는 더욱 확대되었다.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수리조합의 결성은 지주제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지주소작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수리조합의 설치는 수세, 소작료, 조합비 등 조선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농민경제의 과탄을 초래했다. 미국 수출량의 급증으로 농민의 춘궁이 일상화되었다. 증산정책이 조선 내부의 사회적 분업의 발전에 기초한 본래적인 상업적 농업의 전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해체를 초래했다. 농민은 조세 부담, 비료 부담, 고율 소작료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아 농민층은 전반적인 몰락을 강요당했다. 수리조합에 대한 조선 농민의 반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이처럼 수리조합의 결과가 조선인 소작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수리조합이 지주에게 유리한지 의심되기도 하고, 수리조합의 성공과 실패는 수리조합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수도권 한복판에 위치한 부평수리조합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먼저 수리조합시설에 편입된 지역의 지가 보상 때문에 소규모 지주의 저항이 일어났다. 1923년 6월 29일 기공식을 거행한 부평수리조합에서는 수리조합터를 매수하면서 지가를 결정하기도 전에 공사를 먼저 시작하여 농사를 금지했다. 이에 소지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조합은 들어주지 않았다. 조합에서는 지주의 승낙도 없이 전신주를 강제로 세우기도 했다. 이에 부천군 계양면 지주 60여 명은 기명 날인하여 부천 군수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 부평수리조합평면도(「부평수리조합공사 준공검사복명서」)

그림 <부평수리조합평면도>의 한 가운데 흰색 영역이 부평수리조합 구역이다. 구역의 중심을 굴포천이 흐르고 그 좌우에 수로를 만들어 양수기로 퍼 올린 한강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굴포천의 왼쪽 부분이 계양구에 속하는 부분이다.

부천군의 중재를 통해 겨우 조정되었다. 그렇지만 땅을 팔지 않겠다는 지주를 조합에서는 강제 매수하는 실정이었다.⁹

잡지 『개벽』의 한 특과원은 이러한 실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부천(富川)은 빈천(貧川)이다. 1만 3,000에 가까운 민호(民戶)를 통틀어 놓고 보아도 1,200石 이상의 자력(資力)을 가진 자산가(資産家)가 한 명도 없다 한다. 그런데다가 부평(富平) 부근 거민은 여간한 귀퉁이에 작만하야 두엇든 옥지(沃地)라든 것은 토지수용령(土地收用令)에 겁을 내어 하는 수 없이 수리조합에게 헐가방매(歇價放賣)를 당하였다. 내일 관개(灌漑)의 혜택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돌아올런지는 모르나 우선 목전에 가슴이 쓰린 데야 어찌하며¹⁰

수리조합 터가 된 토지의 주인은 부평수리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토지를 수용당할까 겁을 내게 되어 헐가로 방매를 당했다는 것이다. 수리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토지를 강매당하여 피해를 입은 조선인 자작농, 중소지주들이 적지 않았던 것을 짐작케 한다.

다음으로는 공사 하자과 부정 사건으로 인한 공사비의 추가 부담 문제가 불거졌다. 부평수리조합은 1925년 3월 공사를 준공했으나 그해 여름 소위 을축년(乙丑年) 대홍수로 인해 한강이 범람하면서 수리시설이 크게 파손되었다. 이로 인하여 거액의 수선비가 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황해사의 사장 마쓰야마가 초대 조합장이 되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 재료를 부정 사용하는 등 공사의 부정이 드러났다. 이 문제가 1927년 여름 언론에 공개되어 크게 사회문제화되었다. 이에 1927년 8월 27일자로 공사 개조 명령이 내려지고 공사비는 마쓰야마 및 하청업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¹¹

9 「부평수리조합과 民怨」, 『조선일보』, 1923년 8월 31일자; 「부천군의 민원이 재연」, 『조선일보』, 1923년 10월 8일자; 「부평수리의 분규」, 『동아일보』, 1923년 10월 31일자; 「부평수리에 대한 가지가지의 민원」, 『동아일보』, 1923년 10월 23일자; 「부평수리문제로 분규」, 『조선일보』, 1923년 11월 12일자.

10 一特派員, 「일홈 조흔 富川郡」, 『개벽』48, 1924년 6월 1일자.

11 장시원, 「부평수리조합의 창설과정」, 「부평수리조합의 재정구조」,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일조각, 1992)를 참조하였다.

2. 부평농민조합의 결성과 소작쟁의

구조적인 문제는 지주인 조합원이 내는 수세 등 조합비, 소작인이 지주에게 내는 소작료의 부담 문제였다. 1927년 10월 5일 지주회에서 풍작을 빙자하여 구답(舊畓) 6할, 신답(新畓) 5할의 소작료였던 것을 각각 6할 5푼, 6할로 인상하고 기타 여러 조건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비 추가부담으로 인한 조합비의 상승과 같은 요인이 소작료 인상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소작농들은 지주의 소작료 인상에 대항하여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강력하게 대항했다. 1927년 10월 15일 중리의 박성환 등 소작인 10여 명이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대항하기로 결의하고 발기회를 조직했다.¹² 그리고 소작인들은 10월 28일 오후 2시 반 부천군 계남면 소사에서 부평농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¹³ 소작인들이 수년 간 지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살길을 찾아 일어난 모임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창립대회장에는 조선공산당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일본노동농민당에서 파견되어 경성에 체류 중인 변호사 후루야(古屋貞雄)를 비롯하여 경성농민총동맹 중앙위원 인동철(印東哲), 조선노동총동맹 집행위원 조경서(曹景紱), 노동대중사 권태휘(權泰彙), 서울청년회 이상학(李相鶴), 경기도청년연맹 고일(高逸), 인천노동친목회(仁川勞工親睦會) 권충일(權忠一), 그리고 각 신문사 기자가 참석했다. 부평농민조합은 경기도에서 처음 조직되어 농민조합 결성의 기폭제가 된 소작인들의 저항운동으로 주목되었다.

농민조합 창립총회 석상에서 소작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쌀 10석을 수확하면 소작인은 1석도 차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계양면 동양리의 권리성은 소작답에서 10석을 추수한 뒤 지주에게 상납한 소작료 수탈의 실태를 고발하며, 남는 것은 1/10도 안된다고 주장했다.¹⁴ 농민들은 창립총회에서, “소작료는 종전과 같이 구답에 있어서는 6할, 신답에 있어서는 5할로 할 일”, “비료 대금은 지주 6할, 소작인 4할의 비율로 부담할 일”, “소작기간은 5년간으로 확정하여 기간 내에는 이작(移作)치 못할 일”, “종자는 지주 6할, 소

12 「농민조합 발기, 지주대항책으로」, 『동아일보』, 1927년 10월 21일자.

13 「단결반항을 절규하며 창립된 富平農組」, 『동아일보』, 1927년 10월 30일자.

14 「소작수입은 불과 十分一 : 눈물겨운 소작인 哀訴」, 『동아일보』, 1927년 10월 31일자.

작인 4할 부담으로 할 일”, “금년 소작료는 6할, 4할로 하되 만일 지주가 응치 않는 때에는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그 소작료를 농민조합에서 보관할 일” 등 10가지의 강경한 사항을 결의했다. 교섭위원으로 어종면, 조지풍, 장영섭 등 3명을 선정하여 지주회와 교섭하도록 했다.

농민조합의 기세가 높아지자 지주 27명은 10월 31일 오후 2시 반 경성구락부에서 소작인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주가 소작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것은 지주의 자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조선총독부의 조정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원래 대로 지주 6할, 소작인 4할을 수취하는 것으로 되었다.¹⁵

그런데 지주 측도 불만이 적지 않았다. 공사부정 사건으로 조합비가 증가했고 소작료 인상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주 측은 지주대회를 개최하고 조선총독부에 진정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전개했다. 1930년 3월 30일 지주 400여 명이 지주대회를 열어 지주의 부담을 경감할 대책을 마련했다. 지주회는 조합비 경감과 조합 간부 불신임이 포함된 이러한 결의사항을 조선총독부 당국에 강력하게 진정했다. 900여 명의 지주가 모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만장일치로 간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집행위원 20명을 뽑았다. 현재의 간부를 사퇴시키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주대회를 상설로 할 것도 결의했다.¹⁶ 이렇게 지주회와 조합 측은 갈등을 빚었다.¹⁷

부평수리조합의 경우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조합비 인상으로 지주측의 수익성은 악화되었고, 소작료를 인상하려는 지주 측의 압력으로 소작농의 생활은 피폐해졌으며, 조합 간부들은 조합 운영과정에서 지주 측과 갈등을 빚어 충돌했다. 부평과 김포에 걸친 수천 정보의 전답에 수리관개 개선 효과를 가져왔으나 토지소유와 농업생산을 둘러싼 조합-지주-소작인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고스란히 사회문제로

노출되었다.

부평의 수리조합과 농민조합운동을 통해 볼 때 산미증식계획이 원만하게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은 파탄 일로에 놓였다. 일제도 농촌 갱생을 위해 농촌진흥운동을 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렸다. 오늘날의 부평구 지역 일대를 공업단지로 개발함으로써 농업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15 「종전대로 6할 소작인 요구 승인」, 『동아일보』, 1927년 11월 2일자.

16 「900여 지주로 부평지주대회」, 『조선일보』, 1930년 3월 31일자; 「현간부 불신임안 만장일치 가결」, 『조선일보』, 1930년 4월 1일자; 「부평수리조합 문제 총독부에도 진정」, 『중외일보』, 1930년 4월 1일자.

17 「부평수소위원회에 八尋課長 吐暴言」, 『중외일보』, 1930년 4월 5일자; 「부평수소문제 당국 주선 언명」, 『중외일보』, 1930년 4월 7일자; 「부평수소문제 형세 더욱 악화」, 『조선일보』, 1930년 4월 9일자; 「부평수소 부담액 과중 당국에서도 시인」, 『조선일보』, 1930년 4월 13일자; 「조합측 무성의를 철저히 규탄」, 『조선일보』, 1930년 4월 24일자; 「부평수소의 지주와 평의원 회견 분규」, 『중외일보』, 1930년 4월 24일자.



참고 문헌



단행본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 탁지부, 『토지조사참고서(土地調査參考書)』, 제4호, 「토지조사시행보고(土地調査試行報告)」, 1910.
- 남영우,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영인본), 성지문화사, 1997(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1895년 측량, 1911년 발행).
- 부평군, 『토지조사부』.
- 大橋清三郎, 『朝鮮産業指針』, 開發社, 1915.

논문

- 이영호, 「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 문제」, 『역사와 현실』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 이영호, 「일제의 조선식민지 토지조사의 기원, 부평군 토지시험조사」, 『한국학연구』1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 이영호, 「부평의 수리조합과 지주소작관계」, 『박물관지』16, 인하대학교 박물관, 2013.
- 이영호, 「인천의 개항과 배후지의 산업변동」, 『근대 동아시아의 공간재편과 사회변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소명출판, 2015.
- 장시원, 「부평수리조합의 창설과정」, 「부평수리조합의 재정구조」,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1992.

신문

-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기타

- 「부평수리조합공사 준공검사복명서」(1927. 9. 16), 국가기록원.



부평사
富平史



제 7 장 — 부평의 수령(守令)

제1절 _ 고려시대의 부평 수령

제2절 _ 조선시대의 부평 수령

제7장 부평의 수령(守令)

남 달 우(인하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는 “땅을 맡아 백성을 기를 수(守)라하고,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행함을 령(令)이라한다”¹ 라고 수령을 풀이하였다. 즉 수령은 임명된 고을의 백성을 기르고(牧民) 국왕을 대신하여 행정·형벌·재정과 아울러 군정도 관장하는 자이다. 부평 지역에 수령이 파견된 때는 삼국시대라 여겨진다. 그러나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부평 수령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 그러므로 부평의 수령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부평 지역의 수령에 대한 자료는 지리지와 읍지에 기록된 환적조와 선생안이다. 그러나 지리지의 환적조와 선생안은 고려나 조선시대의 부평 수령을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의 부평 수령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로 보충하였고, 조선시대의 수령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그리고 『비변사등록』에서 찾아 보충하였다.

1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경국대전주해』 후집 주해 상, 이전, 1979, 138쪽.

제1절 | 고려시대의 부평 수령

고려시대의 수령은 지리지의 환적조와 읍지의 선생안에 몇몇 인물만이 기록되었다.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리지의 환적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 부평도호부, 명환.

윤관(尹瓘)·허홍재(許洪材)·이인손(李仁孫)·이인로(李仁老 : 계양관기(桂陽管記)이다)

이규보(李奎報 : 정우(貞祐) 7년에 좌사간에 있다 나와서 계양 부사(副使)가 되었다).

『동국여지지』 명환조

현덕수(玄德秀 : 명종 때 안남도호부사(安南都護府²使)가 되어 정치를 청렴하게 한 관리로 백성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했으며 더욱이 음사와 무격을 싫어하여 이것들이 그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인로(명종 때 계양관기에 보임되었다), 이규보(고종 때 좌사간에 있다 나와서 계양 부사(副使)가 되었다).

2) 읍지의 선생안³

『부평부읍지』(1871년경 편찬)

윤관(관직은 시종(侍中)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숙공(文肅公)이다), 허홍재, 이실충, 이인손, 이인로(계양관기-간의대부에 이르렀다), 이규보(좌사간에서 좌천되어 계양 부사가 되었으며, 관직은 평장사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순공(文順公)이다).

2 뒤에서 언급하였듯이 부사의 한자 표기는 ‘副使’가 맞다. 그런데 『동국여지지』에서는 ‘府使’로 기록되었다. 유형원의 오기인 듯하다.

3 선생안 설명은 제2절 조선시대의 부평 수령에 기술하였다.

『부평군읍지』(1899년경 편찬)

윤관, 허흥재, 이실충, 이인손(관직이 우의정에 이르렀고 시호는 충희공(忠僖公)이다. 성종조 때 (이인손의) 15대손인 의익(宜翼)이 부평 부사에 있으면서 선생안을 살피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삼가 선생안 서문을 썼다), 이인로(자는 미수(眉叟)이고 인주(仁州) 사람이다. 고려 명종 때 장원하여 옥당에 무릇 14년 동안 있었으며 문집을 『은대(銀臺)』라 하였다), 이규보(문과 출신이다. 정우 7년(1219) 좌사간에서 폄하되어 계양 부사(副使)가 되었다. 자는 춘경(春卿), 초명은 인저(仁底)이고 황려(黃驪) 사람이다. 스스로 백운거사라 불렀다. 관직은 수태보평장사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순공이다).

이상은 지리지와 읍지에 기록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부평 수령이나 918년부터 1392년까지 고려시대 전 기간의 수령에 대한 기록은 아니다. 고려시대 부평 수령은 부평의 읍호 변화에 따라 그 당시의 수령을 사료에서 찾아 서술하겠다.

1. 수주(樹州)에서 지수주(知樹州)까지의 부평 수령

1) 수주의 수령

『삼국사기』에 “장제군(長堤郡)은 본시 고구려의 주부토군(主夫吐郡)인데 경덕왕이 장제로 개명하였다⁴”라고 하였다. 지금의 부평의 지명이 고구려의 주부토군(475년)에서 신라의 장제군(757년)으로 바뀐 것이다.

고려 개국 초인 940년(태조 23)에는 지방제도를 개혁하여 전국을 부(府), 주(州), 군(郡), 현(縣)으로 나누었고,⁵ ‘장제군’의 읍호는 수주(樹州)로 바뀐다.⁶ ‘수주’로 바뀐 까닭에 대해 조기준은 『부평사연구』에서 “수주라 함은 공신 이희목(李希穆)이 수소(樹蘇) 마을의 호족이었기에 수주로 했고 수소마을에 읍을 두었다가 후에 교통이 편리한 배곳이

4 『삼국사기』 권35, 잡지 4, 지리 2, 신라.
5 『고려사』 권2, 세기2, 태조 23년 3월.
6 『고려사』 권56, 지10, 지리 1, 양광도, 안남도호부.

〔船串, 悟柳洞〕로 이전된 것으로 여겨진다⁷”고 하였다. 조기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수주로 바뀐 후 이 곳의 첫 번째 수령은 이희목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희목은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다만 『부평이씨대동보』의 ‘시조유사 비문(始祖遺事 碑文: 1990년 6월에 건립)에 왕건을 도와 공신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이희목을 “삼중대광벽상공신(三重大匡壁上功臣)⁸”이라하고 있다. 삼한벽상공신은 940년에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여 공신당을 설치하고 동쪽과 서쪽의 벽에 삼한공신을 그린⁹ 것에서 기인하였다.

2) 지수주(知樹州)의 수령

고려는 1018년(현종 9)에 지방제도를 완성하여 3경(개경, 서경, 남경), 5도호부(안동-경주, 안남-전주, 안서-해주, 안북-안주, 안변-등주), 8목(상주, 진주, 전주 나주, 광주, 충주, 청주, 황주), 56지주군사(知州郡事), 28진장(鎭將), 20현령(縣令)을 두었다. 지사(知事)는 고려시대의 관직으로 주의 수령은 지주사, 군의 수령은 지군사, 현의 수령은 지현사라 하였다. 부평은 지주사로 고쳐지면서¹⁰ 수령을 지수주사라 하였다. 『고려사』백관지에서는 “지주군의 관원과 아전 품계는 방어진(防禦陣)과 같다¹¹”고 하였다. 문종(文宗) 때에 고려의 관제를 정하였는데, 방어진에 사(使) 1인은 5품 이상, 부사(副使) 1인은 6품 이상, 판관(判官) 1인은 7품, 법조(法曹) 1인은 8품 이상을 두었다. 간혹 문학(文學) 1인을 더 두어 글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하고, 의학(醫學) 1인을 두어 질병의 치료를 맡게 하였다.¹² 이로 보아 지수주사는 5품 이상의 관품이었다고 여겨진다.

1899년 발간된 『부평군읍지』선생안을 보면 지수주사로는 윤관(尹瓘, ?~1111)이 부임한 듯하다. 선생안에는 ‘지수주사’란 표현은 없지만 윤관의 경우는 생몰년이 지수주사로

7 조기준, 『부평사연구』, 1994, 52쪽.
8 『증보문헌비고』 권47, 제계고8, 富平李氏始祖希穆.
9 『고려사』 권2, 세기2, 태조 23년 12월.
10 『고려사』 권2, 세기2, 태조 23년 12월.
11 『고려사』 권31, 백관지2, 외직.
12 『고려사』 권31, 백관지2, 외직.

된 1018년(현종 9)에서 1150년(의종 4) 안남도호부로 바뀐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윤관은 1104년(숙종 9) 동북면행영병마도통(東北面行營兵馬都統)으로 여진 정벌에 나섰다. 패하고 돌아온 후 별무반(別武班) 설치를 주도하여 1107년(예종 2)에는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9성을 쌓는 공적을 세웠다. 부평선생안에 의하면 윤관은 관직이 추충좌명 평용척지진국공신 개부의동삼사태위 문하시중 판상서이부사 감수국사 상주국 영평군 개국백(推忠佐命平戎拓地鎮國功臣·開府儀同三司太尉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監修國史上柱國鈴平郡開國伯)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숙공(文肅公)이다.

2. 안남도호부사와 계양도호부사

1) 안남도호부사

1150년(의종 4) ‘지수주’에 안남도호부가 설치되었다.¹³ 안남도호부는 고려가 후백제를 멸망시킨 직후에 전주에 설치하였지만 940년에 곧 폐지하였다. 951년(광종 2)에 고부(古阜)에 안남도호부를 다시 두었다가 983년(성종 2)에 폐지하였다. 995년(성종 14)에는 다시 낭주(朗州 : 영암)에 안남도호부가 설치되었다가 1018년(현종 9)에는 낭주에서 전주로 옮겨졌으나 1022년(현종 13)에 또다시 폐지되었다. 그 뒤 1150년(의종 4) ‘지수주’에 안남도호부가 다시 설치된 것이다.

그러면 이 당시 안남도호부의 수령은 부사(府使)일까 아니면 부사(副使)일까? 인종대(재위, 1123년~1147년) 지방 관리의 녹봉에 대한 규정을 보자.

200석【서경 유수(西京留守)], 166석 10두【동경 유수(東京留守), 남경 유수(南京留守)], 120석【안서대도호 부사(安西大都護副使), 안북대도호 부사(安北大都護副使), 안변 소도호사(安邊小都護使), 안남소도호사(安南小都護使), 8목의 부사(八牧副使)], 86석 10두【동경 판관(東京判官), 서경 판관(西京判官), 남경 판관(南京判官), 안변도호 부사(安邊

¹³ 『고려사』 권56, 지리지1, 양광도, 안남도호부.

都護副使), 안남도호부사(安南都護副使)¹⁴

위 자료에서 안서·안북·안변은 대도호부사의 읍격이었는데 수령은 ‘副使’로 표현하였다. 안남의 수령은 안남소도호사와 안남도호부사가 있는데 이때도 안남도호부사는 ‘副使’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증보문헌비고』에는 “고려는 중도호 부사(中都護府使)와 부사(副使)를 각 오십인 씩 두었다”¹⁵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당시 안남도호부의 수령은 ‘副使’가 된다.

안남도호부사를 살펴보자. 선생안에서 확인되는 안남 도호부사는 허홍재와 이실충(李實忠) 이인손(李仁孫) 이인로(李仁老, 1152~1220) 등이다. 이들을 안남도호부 시기 수령으로 추정한 까닭은 허홍재의 과거합격 연도인 1134년(인종 12)부터 이인로의 졸년인 1220년(고종 7)까지는 부평이 안남도호부 시기였기 때문이다. 선생안에 기록되지 않은 안남도호부사는 현덕수(玄德秀)와 공유(孔楡) 그리고 김영부(金永夫) 등이 찾아진다. 선생안에 수록된 인물과 선생안에 없는 수령을 합하여 활동했던 연도의 순서대로 살펴볼 것이다.

허홍재(許洪材, ?~1170)는 1134년(인종 12)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여 의종 초에는 종6품 좌정언(左正言)에 있다가 이후 안남도호부사에 임명되었으며 1164년(의종 18) 정3품 좌승선에 이른다. 그러므로 30년 만에 관품이 7등급이 올랐고, 이를 평균하면 4년 반마다 관품이 한 등급씩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5품 이상인 지수주사나 4품 이상인 안남도호부사가 모두 가능성이 있는데 필자는 더 높은 관품인 안남도호부사로 보았다. 허홍재는 1170년 무신란 때 판이부사(判吏部事)로 있다 죽임을 당하였다.¹⁶ 허홍재는 안남도호부사 시절 계양에 돌을 쌓아 대를 만들어 초정의 터를 닦았다.¹⁷

허홍재 다음에 선생안에 기록된 사람은 이실충이다. 이실충은 허홍재가 닦은 초정의

¹⁴ 『고려사』 권34, 식화지3, 녹봉.

¹⁵ 『증보문헌비고』 권231, 직관고18, 都護府使.

¹⁶ 『고려사』 권126, 열전41, 반역, 정중부.

¹⁷ 『부평부읍지』(1871), 고적, 초정.

터에 정자를 세우고 현관을 척서(滌署)라고¹⁸ 하였다. 이실충 다음의 이인손은 고려시대의 수령이 아닌 듯하다. 부평선생안의 이인손에 대한 기록은“관직이 우의정에 이르렀고 시호는 충희공이다. 성종조 때 (이인손의) 15대 손인 의익(宜翼)이 그 자리(부평 부사)에 있으면서 선생안을 살피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삼가 쓴다”라고 되어 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이인손을 살펴보자. 『세조실록』에 의하면 “이인손(1395~1463)의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자는 중윤(仲胤)이며 호는 풍애(楓厓)이다. 1455년(세조 원년) 세조의 즉위와 함께 원종공신2등에 봉하여졌다. 이어 판중추원사 겸 판호조(判中樞院事兼判戶曹)를 겸임하고 우찬성을 거쳐 1459년(세조 5) 우의정에 오른 뒤 곧 치사하였다. 시호는 충희공(忠禧公)이다”라고¹⁹ 기록되었다. 이인손의 15대 손 이의익은 부평선생안에 의하면 1839년 6월에 사복시 첨정으로 있다 부평 부사에 임명된 인물이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문약(文若)이며 이종억(李宗億)의 아들이다. 이의익은 90세까지 장수하였고 부부가 결혼 생활을 60년 동안 같이하였다. 이 때문에 1883년(고종 20) 고종은 이의익의 90세를 축하하며 그의 손자를 관직에 의망(擬望: 천거)하라는 전교를 내리고 아울러 결혼 60년을 기념하기 위한 물품을 내렸다.²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인손은 조선 세조대의 인물인 듯하며 ‘성종조’란 표현은 오기이고, 이의익은 현종~철종~고종 연간에 활동한 인물로 보는 것이 맞다.

선생안에 기록되지 않은 김영부(金永夫, 1096~1172)는 상서좌복야 김극검(金克儉)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외랑 김태개(金台凱)의 딸이다. 증조할아버지는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김행경(金行瓊)이고 할아버지는 김수녕(金守寧)이다. 의종(1146~1170 재위)이 즉위하여 격구와 말달리기만 좋아하고 칭찬 바를 들어주는 것을 번잡하게 여겼다. 김영부가 이 때문에 합문에 앞드려 극진히 아뢰자 의종이 노하여 김영부를 외관직인 안남도호부사로 내보냈다.²¹

18 『부평부읍지』(1871), 고적, 초정.

19 『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윤7월 13일.

20 『고종실록』 권20, 고종 20년 1월 14일.

21 임세권 저, 이우태 편저, 『金永夫墓誌銘』, 『한국금석문집성』32, 2014.

선생안에 등재된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자는 미수(眉叟)이고 본관은 경원(慶源)이다. 호는 와도현(臥陶軒)이고 증조부는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이오(李顥)이다. 이인로가 처음 부평과 관계를 맺은 것은 1180년(명종 10) 장원으로 급제하여 계양 관기(桂陽管記)로 나아가면서부터다.²² 이후 정확한 연도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이인로가 안남도호부사로 부임한 것이다. ‘계양관기’ 역시 지방 수령이다. 1260년 이세황(李世黃)이 아버지 이인로의 글을 모아 편찬한 『과한집』 발문에는“이세황의 부친이 계양 서기(桂陽書記)로 나가셨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로 보아 계양 관기나 계양 서기는 모두 수령을 뜻한다고 하겠다.

선생안에 없는 현덕수(玄德秀, ?~1215)는 안남도호부사(安南都護副使)에 임명되어 정사가 청렴하고 명확하여 아전과 백성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한번은 어떤 아전이 여자 무당과 그 남편을 잡아왔다. 현덕수가 신문하며 동료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이 무당은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만약 여자가 아니라면, 어찌 지아비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현덕수가 곧 살펴보도록 명령하니 과연 남자였다. 이 무당은 사람을 살리는 술법을 가탁하여 사족의 집에 출입하며 몰래 부녀들에게 난행을 하였다. 더럽혀짐을 당한 사람들은 또한 부끄러워 감히 남에게 말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무당은 이르는 곳마다 더러운 행동을 많이 하였다.²³ 현덕수는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치사(致仕: 퇴직)하였다가 1215년(고종 2)에 세상을 떠났다.²⁴

다음 안남도호부사로는 공유(孔楡, 생물년 미상)가 있다. 1231년(고종 18) 몽골의 침입이 있을 후 1270년(원종 11)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하였다. 그러나 몽골과의 강화에 반

22 『고려사』 권102, 열전15, 이인로. 한편 ‘계양’이라는 지명은 1117년 이전부터 쓰여진 듯하다. 『고려사』 권14, 세가14, 예종12년 12월에 “이위(李瑋)를 태부 계양군개국백(太傅 桂陽郡開國伯)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예종 12년은 1117년이고 고려시대에 신하의 5등작(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은 봉지(封地)에 해당하는 군현의 명칭과 개국(開國)이 덧붙여서 호칭되었으므로 ‘계양’은 1117년 이전부터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안남도호부에서 “고종 2년(1215)에 다시 계양도호부로 고쳤다”라는 기록 때문에 ‘계양’이라는 지명으로 쓰여진 연도를 1215년으로 보아 온 것이다. 그러므로 ‘계양’은 시기에 따라 구별하여 표기하여야 하겠다. 즉 1117년 이전부터 안남도호부로 바뀌는 1150년까지는 ‘계양군’으로, 1215년 이후는 ‘계양도호부’로 해야 하겠다.

23 『고려사절요』 권14, 고종(高宗) 2년 5월.

24 『고려사』 권99, 열전12, 제신, 현덕수.

대한 삼별초는 1270년에 강화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공유는 1271년(원종 12) 관직을 삭탈당했다가²⁵ 이후 안남도호부사에 임명되었다. 공유가 부사로 재직 중인 1272년(원종 13)에 삼별초가 안남도호부에 침입하여 공유와 그 아내를 잡아갔다.²⁶ 공유는 1273년 홍주 부사(洪州副使) 이행검(李行儉)과 함께 살아 돌아온다.²⁷

2) 계양도호부사(桂陽都護副使)

1215년에 안남도호부는 계양도호부가 된다. 당시 계양의 수령 역시 부사(副使)이다. 계양도호부사는 2인이 확인된다. 최종번(崔宗蕃)과 이규보이다. 최종번은 사재경 최종준, 좌사랑중 최종재와 형제 간이다. 그런데 이들이 부모상을 당하였을 때 국왕이 기복(起復: 상을 당하여 휴직한 관원을 상복 기한이 다하기 전에 불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였으나 이들 형제가 사양하였다. 그런데 이때 최종번은 계양도호부사(桂陽都護副使)에 재직 중이었다.²⁸

최종번은 이규보와 친구지간이었다. 최종번이 세상을 떠나자 이규보는 “경인년(1230) 11월 21일은 내가 남쪽에 유배된 날인데 이날 친우 최승선이 죽었다. 숙정(宿亭)에 와서 부음을 들었으나 만시(輓詩)를 지어 조곡할 겨를이 없었다. 이듬해에 서울에 돌아와 문자 사이에서 우연히 그가 서(署)한 성자(姓字)를 보고 측연히 상심한 나머지 시로써 추곡한다”²⁹고 하며 애통해 하였다.

이규보는 1219년 중앙직인 좌사간 지제고로 있다 계양도호부 부사 병마검할(桂陽都護府副使兵馬黔轄)로 좌천되었다가 다음 해 개경으로 돌아갔다. 이규보는 계양도호부사로 있으면서 ‘자오당기(自娛堂記)’, ‘초정기(草亭記)’, ‘망해지(望海誌)’ 등 계양과 관계된 기문을 남겼다.³⁰

25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 12년, 1월.

26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 13년, 11월.

27 『고려사』 권27, 세가 27, 원종 14년 6월.

28 『동문선』 권30, 비답(批答).

29 『동국이상국전집』 권17, 고율시(古律詩), 고 승선(承宣) 최종번(崔宗蕃)을 추곡하며.

30 『동국이상국전집』 권24, 기(記).

한편 『仁川の 姓氏·人物考』의 부평부 수령에는 이낙보(李樂甫, 1218년 계양 부사), 염세충(廉世忠, 1269년 안남 부사), 이조년(李兆年, 1269년 안남 서기) 등을 부평 부사로 기록하고 있다³¹. 이로 보면 계양과 안남이라는 지명은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길주 목사(吉州牧使)

1308년(충렬왕 34) 계양도호부를 길주목으로 승격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 재정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국에 전민계점사(田民計點使)를 파견하여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임시로 목을 설치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전민계점사업(田民計點事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계양도호부가 길주목으로 승격하였으나 전민계점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년 뒤인 1310년(충선왕 2)에는 길주목을 철폐하여 부평부로 하였다. 즉 길주목이었던 기간은 단 2년이였다. 이 기간의 길주 목사는 찾아지지 않는다.

4) 부평 부사(富平府使)

1310년 부평부가 된 이후 조선 개국 전까지의 부평 부사로는 이경(李峒, 1378년 부평 부사), 공부(孔俯, 1384년 부평 부사), 주언방(周彦邦, 1387년 부평 부사) 등이 『仁川の 姓氏·人物考』에 보인다.

31 이훈익, 『仁川の 姓氏·人物考』, 仁川地方郷土文化研究所, 1991, 395, 396쪽.

1. 부평 수령에 대한 자료

조선시대 부평 수령에 대한 기록은 지리지의 환적조와 읍지의 선생안이 남아 있다.

1) 지리지의 환적(宦蹟)조

지리지의 환적조는 관직에 있었던 인물에 대한 기록이다. 부평 수령에 재임하였던 인물의 환적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과 『동국여지지』(1656년 유형원)에 실려 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제9권, 경기, 부평도호부, 명환.

권천(權踐)·목진공(睦進恭)·이사관(李士寬)·김연지(金連枝) 모두 부사(府使)이다.

『동국여지지』, 명환

권천, 목진공, 이사관, 김연지(모두 부평 부사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적혀 있고 부평 수령직에 부임한 날짜와 이임한 날짜, 재임 기간 등은 기록하지 않았다.

2) 읍지의 선생안

『함경도관찰사선생안』의 선생안 서문에 “……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선각(先覺)과 세상을 같이하여 일찍이 관직을 지낸 자이니 선생은 또한 이 뜻이다. 이 때문에 관품이 낮거나 높거나, 관직이 경직이나 외직이나 모두 선생안이 있다”³²고 하였다. 즉 선생은 ‘일찍이 관직을 지낸 자’임을 알 수 있다. 부평 수령 선생안은 1871년 편찬된 『부평읍지』

32 『관찰사선생안(觀察使先生案)』(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古朝57-가416)

와 1899년 편찬된 『부평읍지』에 실려 있다.

『부평부읍지』(1871년경 편찬)의 선생안

1871년 편찬된 『부평부읍지』와 1899년 편찬된 『부평군읍지』와의 기록상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71년 편찬된 『부평부읍지』선생안의 기록은 1869년 3월 부평에 부임하여 1870년 12월 사망한 최익봉(崔翼鳳)이 마지막이다. 고려시대의 부평 수령 6명과 조선시대의 부평 수령 243명 등 총 249명의 수령 명부이다. 조선시대의 수령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둘째, 1871년 선생안에는 정응린(鄭應麟, 1527.10.18.~1528.1.18. 재임) 다음 장계문(張季文, 1529. 9.28.~1532. 5.18. 재임)이 기록되었으나, 1899년 본에는 정응린 다음 한숙창(韓叔昌, 1528.2.12.~1529.7.17. 재임)이 들어가 있다.

셋째, 1871년 본에는 최상정(崔尙鼎, 1720.12.~1723.8. 재임) 다음에 정후일(鄭厚一, 1734.1.19.~1734.5. 재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99년 본에는 최상정 다음에 임세양, 이광도, 홍우제, 심주현, 조규빈, 이우신, 김연희, 김계환, 정동유, 김치구, 김상성 등 11명이 보인다. 김상성 다음에 정후일이 기록되어 있다.

『부평군읍지』(1899년경 편찬)의 선생안(이후의 ‘부평선생안’은 1899년에 기록된 선생안 임)

첫째, 1899년 선생안은 고려시대의 부평 수령 6명과 조선시대의 부평 수령 281명 등 총 287명의 수령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조선 개국 후 부평의 명환(名宦)으로 권천(權踐), 목진공(睦進恭), 이사관(李士寬), 김연지(金連枝)가 보인다.³³ 권천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목진공은 “官至參判 :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다”, 이사관은 “官至京畿觀察使 : 관직이 경기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김연지는 “官至知中樞 諡戴敬公 : 관직은 지중추에 이르렀다. 시호는 대경공이다”라고만 기록되었고 부평에 부임한 날짜와 이임한 날짜 등은 보이지 않는다.

33 김연지 아래에 “以上本朝名宦此間 先生姓名年代不可攷(이상은 조선의 이름난 관원인데 이 기간의 선생의 성명 연대는 고찰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둘째, 1498년(연산군 4) 4월 29일 부임한 이계복(李繼福)부터는 부임과 이임 일자, 교체 사유, 부평 수령에서 교체된 이후의 관직 등이 기록되었다.

셋째, 1506년(중종 즉위년) 10월 29일 부임한 오세훈(吳世勳)부터는 관품이 첨가되었으나 출신에 대한 것은 없다.

넷째, 1516년(중종 11) 2월 4일 부임하여 1518년 7월 11일 교체된 신복순(申復淳)에 대해 ‘음서’출신으로 기록한 후, 1779년(정조 3) 6월 22일 단양 군수로 있다 부평 부사로 부임하여 1780년 10월 12일 파직된 송재연(宋在淵)까지는 출신에 대한 기록이 있다.

다섯째, 1780년 부임하여 1784년(정조 8) 상주 목사로 옮겨 간 윤광유(尹光裕)부터 선생안에 등재된 마지막 수령인 신찬희(申贊熙, 1896.4.24. 부임)까지는 출신 기록이 없다. 윤광유 바로 전 수령인 송재연까지는 문과, 무과, 잡과, 음서 출신을 모두 기록하였다. 그리고 『여지도서』(1760년경 편찬) 부평부 관직조에는 “부평 부사는 강화 진무영의 전영장을 겸임하며 음서 출신으로 종3품³⁴이라 되어 있다. 이로 보아 1780년 부임한 윤광유와 이후의 부평 수령은 모두 음서 출신이기 때문에 선생안에도 더 이상 ‘음서’라는 표기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법전에 규정된 수령직

조선시대 외관직 수령은 관찰사(종2품), 부윤(府尹, 종2품),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 목사(牧使, 정3품), 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 군수(郡守, 종4품), 현령(縣令, 종5품), 현감(縣監, 종6품) 등을 이른다. 수령은 종2품 하계(下階)인 가선대부 이하에서 6품의 하계인 선무랑 이상까지, 또는 3품 이하 6품 이상으로 참서관이 원칙이었다.

수령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과거 외에 취재, 천거, 음서 등이다. 수령 취재는 사서(四書 : 대학, 논어, 맹자, 중용)와 일경(一經 : 시경, 서경, 역경 가운데 하나) 가운데 한 책 및 『대명률(大明律)』과 『경국대전』에 대한 강(講 암송)과 치민방략(治民方略 : 백성을 다

스리는 법)에 대한 제술(製述)을 시험한다.³⁵ 수령 천거는 문반 3품 이상인 자와 무반 2품 이상인 자가 매년 1월에 수령과 만호(萬戶)를 감당할 만한 인물 3인을 천거한다.³⁶ 음서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음덕에 따라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이다.

수령의 임기는 1,800일이나 당상관 수령과 임지에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은 수령은 900일이었다. 임기는 전임지의 근무 기간도 함께 통산(通算)하였다.³⁷ 그러나 1746년 편찬된 『속대전』의 규정은 수령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의 근무 일수를 통산하지 않았다. 수령의 임기 계산은 관찰사와 도사는 관직 임명일부터 이지만, 그 외 수령은 임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하였다.³⁸

수령직에는 65세 이상인 자는 임명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었지만 당상관과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은 수령은 예외였다.³⁹ 상피제도에 의하여 경기도 관찰사나 경기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사람은 부평 수령에 임명될 수 없었다.⁴⁰

수령의 근무 성적 평가 기준은 출퇴근 시간과 수령칠사(守令七事)인데 관찰사가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출퇴근시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관원들은 묘시(卯時 : 오전 5~7시)에 출근하고 유시(酉時 : 오후 5~7시)에 퇴근하였다.⁴¹ 수령의 임무인 수령칠사는 백성의 호구를 증가시키고(戶口增), 농사와 양잠업을 흥성하게 하고(農桑盛), 학교를 흥하게 하며(學校興), 소송을 간소하게 하고(詞訟簡), 간사하고 교활함을 없애고(奸猾息), 군정을 잘 다스리고(軍政修), 부역을 고르게(賦役均)하는 것이었다. 관원의 근무평가 등급은 상·중·하로 나뉘는데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관찰사가 병마절도사와 함께 상·중·하로 등급을 매겨 왕에게 보고하였다. 10번의 등급 평가에서 10번 모두 상을 받은

35 『경국대전』, 이전, 취재(取才).

36 『경국대전』, 이전, 천거(薦舉).

37 『경국대전』, 이전, 외관직.

38 『속대전』, 이전, 외관직.

39 『경국대전』, 이전, 외관직.

40 『속대전』, 이전, 외관직.

41 『경국대전』, 이전, 고과(考課).

34 『여지도서』, 경기도, 부평, 관직, “府使 兼鎮撫前營將 蔭, 從三品”.

수령은 중앙 관직으로 옮겨주었다.⁴² 두 번 중을 받은 수령은 무록관(無祿官 : 무보수 관원)으로 임용하고, 세 번 중의 평가를 받은 수령은 파직하였다. 당상관 수령은 한번만 중을 받더라도 파직되었다.⁴³

수령직은 4품인 대부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했다.⁴⁴ 수령은 지방에서 왕권을 대행하는 자로 행정권, 형벌권, 군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다.⁴⁵

3. 조선시대의 부평 수령

조선시대의 부평 수령은 읍지의 선생안과 실록,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1392년부터 1413년까지의 부평 부사(富平府使)

현재의 부평은 1310년 ‘부평’이란 이름이 사용되면서 ‘부평부(富平府)’가 된 후 1413년에 도호부가 된다. 조선 태종대인 1413년(태종 13)은 지방제도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진 때로, 군·현의 등급 및 읍호의 개정 작업이 시행되었다. 전국을 8도로 정하고 도(道) 아래 목사(州), 대도호부, 도호부, 군, 현을 두었다. 이때의 개편으로 지방제도의 체제가 주→부→군→현의 등급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러한 규정은 조선 후기까지 통용되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다. 1413년의 지방제도 개혁은, 첫째 예전의 우수부나 대도호부가 아닌 ‘부’인 단부관(單府官)의 칭호를 모두 도호부로 통일시키고, 둘째 감무(監務 : 고려 말, 조선 초기에 현령을 둘 수 없는 작은 현의 수령)는 현감(縣監)으로 개칭하며, 셋째 무릇

42 『대전통편』, 이진, 고과.

43 『경국대전』, 이진, 포평(褒貶).

44 『경국대전』, 이진, 경관직, “승문원의 관원으로서 사자(寫字 : 글씨를 베껴 씌)나 이문(吏文 : 독특한 용어나 문제)에 특이한 재능이 있는 자, 홍문관의 관원, 여러 도의 교관(敎官)과 체아직 이외의 자는 수령을 거치지 않으면 4품 이상의 품계로 올라갈 수 없다”.

45 『경국대전』, 형전, 추단(推斷).

군(郡)·현(縣)의 이름 가운데 주(州)자를 띤 것은 모두 산(山)자, 천(川)자로 고쳤다.⁴⁶ 이러한 원칙 가운데 단부관인 부를 도호부로 통일시킨다는 첫 번째 원칙에 의거하여 부평은 ‘부’에서 ‘도호부’로 바뀌었다. 조선 개국 후 부평도호부로 바뀌기 전까지 부평 수령의 직함은 부평 부사이다. 1392년부터 1413년까지의 부평 수령은 1410년 2월 7일 “부평 부사 조진(趙璠)을 삭직(削職)하여 공주(公州)로 귀양보냈다”⁴⁷는 기록이 찾아진다.

2) 1413년부터 1438년까지의 부평도호부사

부평선생안에 의하면 아래의 기록과 같이 4명의 이름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들이 부평도호부사였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권천, 기록 없음,⁴⁸

목진공,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다.

이사관, 관직이 경기 관찰사에 이르렀다.

김연지, 관직이 지중추에 이르렀다. 시호는 대경공이다

반면 선생안에 보이지 않은 부평 수령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된다.

46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10월 15일.

47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2월 7일.

48 이훈익의 『仁川의 姓氏·人物考』에는 목진공, 권천, 김연지의 차례대로 부평부사에 임명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목진공은 1417년(태종 17)에, 권천은 1429년(세종 2)에, 김연지는 1432년에 임명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전거를 밝히지 않았다.

표 1 1413~1438년 실록에 기록된 부평 수령

번호	품계	성명	출신	부임 일시 및 전력	교체 일시 및 사유	비고 및 전거
1		이유 (李愔)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1423) 2월 12일
2		조흥 (趙興)		1426년 7월		『세종실록』 권33, 세종 8년(1426) 7월 9일
3		이효례 (李孝禮)			1436년, 9월. 탄핵	『세종실록』 권74, 세종 18년(1436) 9월 2일
4		송기 (宋箕)		1436년 10월		『세종실록』 권75, 세종 18년 10월 11일

그런데 조선은 1393년(태조 2)에 각도의 계수관(界首官)을 정한다. 경상도의 계수관 지역은 계림(鷄林)·안동(安東)·상주(尙州)·진주(晉州)·김해(金海)·경산(京山)이고, 전라도는 완산(完山)·나주(羅州)·광주(光州)이며, 양광도는 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수원(水原)이며, 교주 강릉도(交州江陵道)는 원주(原州)·회양(淮陽)·춘주(春州)·강릉(江陵)·삼척(三陟)이며, 서해도(西海道)는 황주(黃州)·해주(海州)이며, 경기좌도(京畿左道)는 한양(漢陽)·철원(鐵原)이며, 경기우도(右道)는 연안(延安)·부평(富平)이다.⁴⁹

계수관은 행정 구획으로서의 의미와 계수관 자체가 관원으로서 수령이라는 의미⁵⁰를 지닌다. 특히 조선시대의 행정 구획으로서의 계수관은 도(道)와 군현 사이의 중간적 존재로서 도의 지시를 관할 구역의 군현에 전달하면서 군현을 거느리기도 하였고 계수관 자체 지역을 지배하기도 하였다. 관원으로서의 계수관은 군현을 거느리는 대읍(大邑)의 수령을 뜻한다.⁵¹ 1413년(태종 13)부터 1438년(세종 20)까지 부평 수령은 계수관 수령으로서 강화도호부와 인천군·해풍군(海豐君)·김포현(金浦縣)·교동현(喬桐縣)·양천현(陽川縣)·통진현(通津縣) 등을 관할하였다.⁵² 그러므로 이유, 조흥, 이효례, 송기 등은 부평이 계수관이었을 때의 수령이라고 볼 수 있다.

49 『태조실록』, 태조 2년 11월 12일.

50 이준희, 「선조 지방통치체제의 정비와 계수관」, 『동국사학』15-16, 1981, 84쪽.

51 이준희, 「선조 지방통치체제의 정비와 계수관」, 『동국사학』15-16, 1981, 86~87쪽.

5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경기, 부평도호부.

3) 1438년부터 1446년까지의 지부평현사(知富平縣事)

1413년 도호부로 승격된 이후 부평도호부는 세종대인 1438년에 부평현으로 강등된다. 세종은 어려서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하였고, 등에는 부종(浮腫)이 생겨 고통이 심하면서도 독서를 좋아하여 주야로 책을 읽었으므로 시력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세종은 대신들의 권유로 온양온천에 가서 목욕한 후 효험을 보았다. 온천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세종은 도성(都城) 가까운 부평에 온천이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온천 탐색을 명하였다. 세종은 이사맹을 경차관으로 임명하여 온천을 탐색토록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부평도호부는 1438년(세종 20)에 온천을 은닉하였다는 죄목으로 현으로 강등⁵³되었다. 부평은 현으로 강등되면서 아울러 계수관의 지위도 박탈되었으며 부평에 소속되었던 각 읍은 네 지방의 계수관 지역에 분속되었다.⁵⁴

현으로 강등되었을 때의 부평 수령은 경기도 경차관으로 온천을 조사한 이사맹(李師孟)이 보인다. 이사맹은 1439년(세종 21) 2월 12일까지의 기록에는 경기도 경차관으로 기록되었으나⁵⁵ 같은 해 윤2월 18일 기록에는 직급이 지부평현사(知富平縣事)로 되어 있다.⁵⁶ 그러나 1444년(세종 26)에는 이사맹의 관직이 판승문원사⁵⁷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지부평현사에서 교체된 것을 알 수 있다. 부평현은 1446년 도호부로 복구⁵⁸ 되었다.

4) 1446년부터 1505년까지의 부평도호부사

부평은 1446년 도호부로 복구된 후 1496년에 부평 출신 내시 김순손(金舜孫, ?~1504)이 죄를 짓자 그를 처형한 후 1505년(연산군 11)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음 해인 1506년(중종 원년)에 다시 도호부로 복구되었다. 1496년(연산군 2) 김순손은 부평 출신 환관으로 연산군이 아버지 성종의 상중에 암말과 수말을 꺾내에 끌어들여 교접하는 것

53 『세종실록』 권83, 세종 20년 11월 8일.

54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 3월 25일.

55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 2월 12일.

56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 윤2월 18일.

57 『세종실록』 권104, 세종 26년 5월 13일.

58 『세종실록』 권112, 세종 28년 11월 10일.

을 구경하고,⁵⁹ 또 행위가 부도(不道)한 것이 많아 이를 간하다가 의금부에 하옥되어 장 100대를 맞고 곧 제주도 대정에 유배되었다. 다음 해 연산군은 제주 목사로 하여금 김순손의 죄상을 문초하여 3년 후에 처형하도록 하였으나 간관들로부터 법에 의하여 죄상을 밝히지 않고 왕의 자의로 처벌을 명령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심한 반발을 받았다. 1504년(연산군 10)에는 김순손의 전 가족이 제주도로 유배됨과 동시에 김순손은 참형에 처하여졌으며, 머리는 서울로 가져와 단봉문 밖에 두고 환관들로 하여금 구경하도록 하였다.⁶⁰ 아울러 김순손이 태어난 부평도호부(중3품 관아)는 현(중6품 관아)으로 강등되었다.

1446년부터 1505년까지의 부평도호부사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부평선생안에는 1446년부터 1498년 4월 이전까지의 수령은 명단이 없다. 1498년 4월 29일 부임한 이계복(李繼福, 1498.4.29.부임~1502.8.21.교체)부터는 기록이 있다. 1446년부터 1498년 4월까지의 부평 수령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몇 명이 찾아진다.

표 2 1446~1505년 실록에 기록된 부평 수령

번호	품계	성명	출신	부임 일시 및 전력	교체 일시 및 사유	비고 및 전거
1		김경장 (金慶長)			국문(鞫問)	『세조실록』, 권44, 세조13년(1467) 12월 11일 계묘.
2		김칭 (金僖)	1470.9.7	하직	1470. 10. 23. 국문	『성종실록』, 권7, 성종 1년(1470) 9월 7일, 10월 23일
3		김원윤 (金元潤)			1473. 9. 26.	『성종실록』, 권34, 성종 4년(1473) 9월 26일
4		안우삼 (安友參)			1475. 10. 25. 경직(京職)에 임명	『성종실록』, 권60, 성종 6년(1475) 10월 25일
5		한사문 (韓斯文)			1479. 윤10.23. 경기관찰사와 상피	『성종실록』, 권110, 성종 10년(1479) 윤10월 23일
6		고태익 (高台翼)	1479.11.24.	하직		『성종실록』, 권111, 성종 10년(1479) 11월 24일
7		민효남 (閔孝男)	1484		1484.4.24. 승서(陞叙)	『성종실록』, 권165, 성종 15년(1484) 4월 24일

59 『연산군일기』 권15, 연산 2년 5월 13일.

60 『연산군일기』 권52, 연산 10년 4월 13일.

번호	품계	성명	출신	부임 일시 및 전력	교체 일시 및 사유	비고 및 전거
8		신종흡 (申從洽)				『성종실록』, 권270, 성종 23년(1492) 10월 3일
9	통정	김성동 (金誠童)		1492.11.4.		『성종실록』, 권271, 성종 23년(1492) 11월 4일
10		이계복 (李繼福)		1498.4.29.	1502.8.21. 부상(父喪)	부평선생안
11		윤형로 (尹衡老)		1502.9.9.	1504.4.6. 경기 감사와 상피	부평선생안
12		심순도 (沈順道)		1504.4.6.	1505.7.26. 파직	부평선생안

위의 표와 같이 1446년(세조 28)부터 1505년(연산군 11) 7월 부평이 도호부에서 현으로 강등될 때까지의 수령은 실록에서 9명, 선생안에서 3명 등 총 12명이 찾아진다. 그런데 1484년 4월 승진하여 경직으로 옮겨간 민효남 이후 1492년 부평 부사에 부임한 김성동 사이에는 신종흡 외에도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수령이 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수령의 임기는 1423년(세종 5)에 1,800일 근무의 육기법(6년 근무)을 시행하기를 결정⁶¹하여 『경국대전』에 명문화⁶²되었다. 그러므로 1484년 민효남이 물러난 후 1492년 김성동이 부임할 때까지는 8년의 공백이 있으므로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수령이 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1505년 8월 부평도호부가 부평현으로 강등된 이유는 연산군의 비행을 직언한 내시 김순손의 고향이라는 이유 때문으로 실록에는 기록되었다.⁶³ 그런데 선생안은 부평의 읍호 강등이 수령 심순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부평선생안의 심순도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을축년(1505, 연산군 11) 7월 26일 아우 심순문(1465~1504) 사건에 연좌되어

61 『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 6월 5일.

62 『경국대전』, 이진, 외관직.

63 『연산군일기』 권59, 연산군 11년 8월 24년, “부평 땅은 이제 이미 갈라서 금표(禁標) 안에 넣었으며, 또 죄인 김순손이 살던 고향이니, 혁파하라.”

의금부에 잡혀서 파직되었다. 이로 인하여 부평부는 혁파되었다”⁶⁴라는 기록이 보인다. 부평도호부가 부평현으로 강등된 것이 심순도와 관련되었다고 한 것이다. 심순도의 아우 심순문은 대간직에 있으면서 연산군의 어의의 길고 짧음을 지적하여 미움을 사고, 갑자사화(1504)에 연루되어 참수되었다.⁶⁵ 1505년 7월 연산군은 “심순문·이주(李胄)의 아들과 형제, 가흥청·운평·여의(女醫)의 지아비 중에서 익명서를 넣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자는 모두 실정을 고할 때까지 형신(刑訊)하라”⁶⁶고 하였다. 심순도는 아우 심순문 사건에 연루되어 파직된 것이다.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죄를 지은 주모자와 연관되어 파직된 경우, 그가 다스리던 고을의 읍호가 강등된 경우는 인천의 경우도 있다. 1613년(광해군 5) 김제남 역모사건 때 김제남의 사위 심정세가 수령으로 있던 인천도호부가 인천현으로 강등된 사례이다.⁶⁷ 이로 보아 부평도호부가 1505년 부평현으로 다시 강등된 이유는 김순손과 심순문 2인과 관계되었다고 하겠다.

5) 1505년부터 1506년까지의 부평 현감

부평은 1505년 7월 심순도가 파직된 이후 1506년(중종 원년) 9월 2일 중종반정 후 도호부로 복구⁶⁸되기 전까지는 수령이 임명되지 않은 듯하다. 조선시대에는 부모와 남편을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죽이고, 관아의 노비가 관아의 수장을 죽인 강상죄인은 재판이 종결한 후 사형에 처하고 그 처와 자녀를 노비로 삼고 가옥을 파괴하여 웅덩이로 만들며 그 읍호를 강등하고 수령을 파직한다.⁶⁹ 그런데 1505년 처형을 당한 내시 김순손은 연산군에게 대불경(大不敬)의 죄를 지었고 부평도호부사 심순도는 아우 심순문의 죄에

64 1899년 편찬 『부평군읍지』 선생안, “沈順道, 弘治十七年, 燕山十年甲子四月初六日赴任, 乙丑七月二十六日, 以同生弟順門緣坐, 被拿王府因革本府.” 官至敦寧副正.

65 『연산군일기』 권56, 연산군 10년 12월 5일, “심순문(沈順門)을 처형할 때에 의금부 당상으로 하여금 ‘네가 대간으로 있을 때, 모든 간신이 위를 능멸하는 일을 조금도 탄핵하지 아니하고, 어의(御衣)의 짧고 좁은 것을 말함은 명예를 닦으려 한 것이다.’라고 타이르게 하라.”

66 『연산군일기』 권38, 연산군 11년 7월 3일.

67 『광해군일기』 권66, 광해군 5년 5월 11일.

68 『여지도서』, 경기도, 부평부, 건치 연혁.

69 『경국대전』, 형전, 추단(推斷).

연좌되어 파직되어 강상죄인의 가족에게 가하는 연좌 처벌을 받았다. 이 때문에 부평도호부는 종3품에서 종6품 현으로 강등되고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표를 설치하였으며 수령도 파견하지 않았던 것이다.

6) 1506년부터 1896년까지의 부평도호부사 및 부평 현감

1506년(중종 원년) 부평도호부로 복구된 후 1896년(건양 원년)까지의 부평선생안에 대한 대부분 수령의 품계, 부임일시, 교체 일시, 교체 사유 등이 기록되었다. 이 시기의 선생안의 수령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의 수령의 재임 기간은 음력이며 부임일과 그만둔 날 역시 음력이다.

표 3 부평선생안의 수령(1506~1896)

번호	품계	성명	출신	재임 기간	교체 사유
1	통정	오세훈(吳世勳)		1506.10.29.~1508.2.22.	모친 병으로 사직
2	통훈	기 저(奇 褚)		1508.3.24.~1509.1.25.	파직
3	통훈	서극철(徐克哲)		1509.2.24.~1512.	임기 만료
4	통훈	안 장(安 璋)		1512.12.~1514.9.29.	병으로 교체
5	통정	이윤중(李允中)		1514.11.4.~1516.1.9.	병으로 사망
6	통정	신복순(申復淳)	음서	1516.2.4.~1518.7.11.	임기 만료
7	통정	허 광(許 曠)	문과	1518.10.7.~1520.8.	임기 만료
8	통정	이희옹(李希雍)	문과	1520.9.7.~1525.8.	임기 만료
9	통훈	김 우(金 祐)	음서	1525.윤9.~1527.9.26.	재임 중 사망
10	통정	정응린(鄭應麟)		1527.10.18.~1528.1.18.	병으로 교체
11	통정	한숙창(韓叔昌)	음서	1528.2.12.~1529.7.17.	병으로 교체
12	봉정	장계문(張季文)		1529.9.29.~1532.5.18.	모친상
13	통정	이희보(李希輔)	문과	1532.6.13.~1534.2.6.	임기 만료
14	통정	최중인(崔重演)	문과	1534.2.25.~1534.8.27.	재임 중 사망
15	통정	성 룰(成 璪)	음서	1535.1.15.~1535.12.15.	근무 평가 중으로 파직
16	통정	유 면(柳 沔)		1536.1.23.~1537.8.	재상(災傷)으로 파직
17	통훈	이만손(李萬孫)		1537.11.16.~1537.12.	모친 병으로 사직
18	통훈	정세소(鄭世紹)		1538.2.13.~1538.4.1.	사헌부 탄핵으로 교체
19	통정	윤풍정(尹豊亨)	문과	1538.4.22.~1538.7.13.	판결사로 이배
20	통훈	이맹우(李孟友)	음서	1538.8.3.~1539.8.	대간 탄핵으로 파직

번호	품계	성명	출신	재임 기간	교체 사유
21	통훈	심광언(沈光彦)	문과	1539.8.22.~ 541.8.21.	형조 참의로 이배
22	통정	김태준(金台俊)	무과	1541.9.17.~1543.7.5.	부친상
23	중훈	장 옥(張 玉)	문과	1543.8.3.~1545.6.	병으로 사직
24	통훈	진복창(陳復昌)	문과	1545.7.24.~1545.12.	장령에 이배
25	통훈	나윤명(羅允明)	문과	1546.2.7.~1547.2.	모친상
26	통정	이감남(李坎男)	음서	1547.3.~1549.9.	임기 만료
27	통정	성 근(成 謹)	음서	1549.10.1.~1550.1.	재임 중 사망
28	통훈	이 출(李 穉)		1550.3.9.~1553.5.	대간 탄핵으로 파직
29	통훈	정사겸(鄭士謙)		1553.6.~1553.12.	교체
30	통훈	심수경(沈守慶)	문과	1554.1.2.~1554.9	병으로 교체
31		유사기(柳師琦)		1554.10.8.~1557.7.26.	여사가 아뢰어 파직
32	통정	윤 옥(尹 玉)	문과	1557.8.12.~1560.1.24.	임기 만료
33	통정	신 건(申 健)	음서	1560.2.22.~1562.8.8.	논박으로 교체
34	통훈	박윤한(朴胤韓)		1562.8.12.~1565.4.3.	여사가 아뢰어 파직
35	통훈	이여경(李餘慶)		1565.5.23.~1567.3.	조운선 치패(致敗)로 파직
36	통정	정윤희(丁胤禧)	문과	1567.4.4.~1569.9.3.	임기 만료
37	통정	유순선(柳順善)	문과	1569.9.21.~1569.12.7.	술을 좋아하여 파직
38	통훈	조대곤(曹大坤)	무과	1569.12.27.~1571.3.6.	사헌부가 아뢰어 파직
39	통훈	성수익(成壽益)	문과	1571.3.21.~1572.7.3.	부친상
40	봉정	권 봉(權 鵬)	문과	1572.8.1.~1573.6.18.	사헌부가 아뢰어 파직
41	통정	김경원(金慶元)	문과	1573.7.4.~1574.7.6.	사간원이 아뢰어 파직
42	통정	한성원(韓性源)	문과	1574.7.25.~1575.10.26.	사헌부가 아뢰어 파직
43	통정	유종선(柳從善)	문과	1575.11.21.~1576.6.15.	근무 평가 중으로 파직
44	통정	최흥원(崔興源)	문과	1576.7.13.~1578.6.	효릉 얼음 진상 문제 교체
45	통훈	한효우(韓孝友)	문과	1578.7.7.~1579.10.	사헌부가 아뢰어 파직
46	통훈	양사기(楊士奇)	문과	1579.12.11.~1580.6.	근무 평가 상
47	중훈	김시회(金時晦)	문과	1580.8.9.~1581.4.	여사가 아뢰어 파직
48	봉렬	남궁지(南宮芷)	문과	1581.4.28.~1583.12.14.	부모가 80세로 사직
49	통훈	심례겸(沈禮謙)	음서	1584.1.23.~1585.11.25.	죄수 도망으로 파직
50	중훈	윤 경(尹 暉)	문과	1585.12.9.~1587.12.25.	사헌부가 아뢰어 파직
51	통훈	한백후(韓伯厚)	문과	1587.12.25.~1589.8.5.	부친상
52	통훈	권 식(權 寔)	문과	1589.8.24.~1590.5.23.	조운선 치패로 파직
53	통훈	김 청(金 淸)	문과	1590.4.27.~1591.7.2.	여사가 아뢰어 파직
54	통훈	남 유(南 瑜)	무과	1591.8.3.~1592.?.12.	감사가 아뢰어 파직
55	통훈	기 훈(奇 薰)	무과	1592.9.16.~1594.12.11.	사간원이 아뢰어 파직
56	봉정	윤명선(尹明善)	문과	1594.12.20.~1595.6.4.	사간원이 아뢰어 파직

번호	품계	성명	출신	재임 기간	교체 사유
57	통정	심신겸(沈信謙)	음서	1595.6.14.~1596.10.24.	재임 중 사망
58	중훈	최 관(崔 瓘)	문과	1596.11.14.~1597.8.20.	조운선 치패로 파직
59	통정	한수민(韓壽民)	문과	1597.9.27.~1598.6.	근무 평가 중으로 파직
60	통훈	김 계(金 洵)	문과	1698.8.3.~1598.9.3.	정원 이유홍이 아뢰어 파직
61	통정	박춘무(朴春茂)	음서	1598.10.22.~1599.4.24.	감사가 아뢰어 파직
62	통훈	김 방(金 昉)	문과	1599.5.23.~1599.10.22.	사헌부가 아뢰어 파직
63	통정	김 협(金 鉞)	문과	1599.11.12.~1600.1.25.	사헌부가 아뢰어 파직
64	통훈	황치경(黃致敬)	문과	1600.1.24.~1605.1.2.	임기 만료
65	통훈	박동망(朴東望)	문과	1605.2.10.~1605.12.28.	감사가 아뢰어 파직
66	통정	김정목(金庭睦)	문과	1605.12.10.~1606.2.	여사가 아뢰어 파직
67	통정	박동선(朴東善)	문과	1606.3.~1607.8.	감사가 아뢰어 파직
68	통정	윤유기(尹惟幾)	문과	1607.10.17.~1608.8.	감사가 아뢰어 파직
69	중훈	김 래(金 球)	음서	1608.8.17.~1610.3.6.	감사가 아뢰어 파직
70	통훈	서희신(徐希信)	문과	1610.4.4.~1610.9.18.	사간원이 아뢰어 파직
71	통정	이 영(李 瑩)	문과	1610.10.5.~1611.6.15.	근무 평가 중으로 파직
72	통정	홍경신(洪慶臣)	문과	갑인.6.3.~1613.12.12.	임기 만료
73		이익빈(李翼賓)		1614.6.10.~1617.3.9.	양주 목사와 바꿈
74	가의	허 임(許 任)	의과	1617.3.17.~1619.8.30.	임기 만료
75	통정	유희로(柳希老)	음서	1620.3.12.~1621.윤2.7.	파직
76	통훈	허 자(許 祜)	음서	1621.윤2.28.~1623.3.20.	사헌부가 아뢰어 파직
77	통훈	박지술(朴知述)	음서	1623.4.20.~1623.10.23.	파직
78	가선	안응형(安應亨)	문과	1623.윤10.25.~1623.12.24.	파직
79	통훈	조 박(趙 璞)	문과	1624.1.25.~1625.1.9.	나주 목사로 이배
80	가선	홍진도(洪振道)	음서	1625.1.28.~1628.4.12.	임기 만료 후 1년 재임
81	가선	오 준(吳 竣)	문과	1628.5.1.~1629.5.17.	연안 부사와 바꿈
82	통정	신득연(申得淵)	문과	1629.6.6.~1629.10.16.	재해로 파직
83	통훈	한회일(韓會一)	음서	1629.11.5.~1632.11.14.	임기 만료
84	통정	이경엄(李景嚴)	문과	1632.12.3.~1634.8.	부친상
85	통정	민 기(閔 機)	문과	1634.9.21.~1635.3.3.	파직
86	통정	송극인(宋克勳)	문과	1635.4.6.~1635.6.8.	병으로 사직
87	가의	정문익(鄭文翼)	문과	1635.7.11.~1636.10.17.	파직
88	통훈	전이성(全以性)	문과	1636.12.15.~1637.3.	파직
89	통정	한 언(韓 瑱)	문과	1637.3.25.~1637.12.	근무 평가 중으로 파직
90	통훈	송국준(宋國準)	문과	1638.1.11.~1640.3.13.	조운선 치패로 파직
91	통훈	조 흠(趙 滄)	음서	1640.3.20.~1642.6.20.	감사가 아뢰어 파직
92	통정	유후성(柳後聖)	의과	1642.7.2.~1642.12.6.	감사가 아뢰어 파직

번호	품계	성명	출신	재임 기간	교체 사유
93	가선	허 서(許曙)	무과	1642.12.11.~1643.10.11.	사헌부가 아뢰어 파직
94	통정	이필달(李必達)	문과	1643.10.16.~1644.8.27.	감사가 아뢰어 파직
95	통정	이원룡(李元龍)	의과	1644.9.7.~1645.8.7.	사헌부가 아뢰어 파직
96	통정	이형익(李馨益)	의과	1645.8.23.~1648.1.30.	임기 만료
97	통정	신 확(申濩)	음서	1648.1.17.~1649.11.20.	어사가 아뢰어 파직
98	통훈	서정리(徐貞履)	음서	1649.11.26.~1653.2.14.	모친상
99	통정	이홍연(李弘淵)	문과	1653.2.19.~1653.12.22.	천안 유배
100	통정	이 한(李 欄)	음서	1654.1.18.~1654.12.24.	파직
101	통훈	김우명(金佑明)	음서	1654.12.13.~1656.8.25.	병으로 그만둠
102	통훈	박세모(朴世模)	문과	1656.9.13.~1657.11.23.	모친상
103	통정	이수강(李守綱)	음서	1657.12.8.~1658.7.29.	감사가 아뢰어 파직
104	통정	유 창(兪 瑒)	문과	1658.7.29.~1660.6.3.	유배
105	통정	정 석(鄭 哲)	문과	1660.6.29.~1662.4.16.	사헌부 집의로 옮겨 감
106	통정	정창주(鄭昌胄)	문과	1662.4.16.~1662.4.22.	부친상
107	통훈	이장영(李長英)	음서	1662.10.4.~1662.11.19.	병으로 그만 둠
108	통정	오 빈(吳 翮)	문과	1662.11.22.~1664.2.6.	병으로 그만 둠
109	통정	윤부(尹 木敷)	음서	1664.3.2.~1664.6.22.	원주목사로 옮겨 감
110	통훈	강윤형(姜允亨)	문과	1664.윤6.18.~1666.1.26.	감사가 아뢰어 파직
111	가의	엄정구(嚴鼎壽)	문과	1666.2.11.~1666.5.25.	병으로 그만 둠
112	통훈	윤세교(尹世喬)	음서	1666.6.7.~1667.1.11.	감사와 상피로 교체
113	통훈	강 옥(姜 瑱)	음서	1667.1.27.~1667.11.13.	사간원이 아뢰어 파직
114	통정	김진표(金震標)	문과	1667.12.1.~1668.1.2.	병으로 그만둠
115	통훈	구문제(具文濟)	음서	1668.1.5.~1669.1.20.	부모 병으로 그만둠
116	통훈	최효건(崔孝騫)	문과	1669.2.19.~1670.윤2.11.	대간이 아뢰어 파직
117	통정	이 정(李 程)	문과	1670.3.4.~1671.8.15.	재임 중 사망
118	통훈	김 상(金 鎬)	문과	1671.8.27.~1672.6.16.	근무 평가 중으로 파직
119	통훈	권대재(權大載)	문과	1672.7.1.~1672.7.21.	충주 목사로 이배
120	통훈	정시형(鄭時亨)	음서	1672.7.20.제수~1675.2.8.	해주 목사로 이배
121	통정	김운장(金雲長)	문과	1675.2.6.제수~1677.6.	임기 만료
122	통훈	이 박(李 燁)	문과	1677.7.1.~1678.10.4.	부친상
123	통훈	유영립(柳英立)	문과	1678.11.4.~1679.3.27.	감사가 아뢰어 파직
124	통정	황도광(黃道光)	음서	1679.4.1.~1680.8.	대간이 아뢰어 파직
125	가선	남두북(南斗北)	무과	1680.8.제수~1681.3.	감사가 아뢰어 파직
126	통훈	박상형(朴相馨)	문과	1681.3.제수~1681.9.	사간원 헌납으로 이배
127	통훈	박시경(朴時璟)	음서	1681.10.6.~1683.1.23.	모친상
128	통훈	정재후(鄭載厚)	음서	1683.2.9.~1684.11.7.	병으로 그만둠

번호	품계	성명	출신	재임 기간	교체 사유
129	통정	조위수(趙渭叟)	음서	1684.11.19.~1686.6.	파직
130	통정	김석연(金錫衍)	음서	1686.12.1.~1686.12.26.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이배
131	통훈	이만저(李冕著)	음서	1686.12.~1687.1.	교체
132	통정	박원도(朴元度)	문과	1687.11.1.~1689.윤3.15.	병으로 그만둠
133	통정	안필성(安弼星)	음서	1689.윤3.~1690.3.	공주 목사로 이배
134	통훈	이윤문(李允文)	음서	1690.5.5.~1693.11.21.	사간원 정언으로 이배
135	통훈	정행백(鄭行百)	음서	1693.11.28.~1695.12.17.	사직
136	통정	엄 집(嚴 緝)	문과	1695.12.25.~1696.2.22.	개성 유수로 이배
137	통정	유상재(柳尙載)	문과	1696.3.1.~1698.6.6.	임기 만료
138	통훈	이하조(李賀朝)	음서	1698.7.9.~1700.5.27.	진무사와 상피로 교체
139	통훈	남수만(南受萬)	음서	1700.12.22.~1702.4.4.	교체
140	통훈	박태원(朴泰遠)	음서	1702.5.5.~1703.3.5.	교체
141	봉정	이기익(李箕翊)	음서	1703.4.5.~1703.5.24.	부친상
142	중훈	최창연(崔昌演)	음서	1703.6.2.~1703.11.16.	병으로 그만둠
143	통훈	김 유(金 楙)	음서	1703.11.22.~1704.1.9.	모친상
144	통훈	정 치(鄭 治)	음서	1704.2.5.~1704.10.3.	대간에 의해 파직
145	통훈	이신룡(李臣龍)	음서	1704.10.11.~1706.7.4.	모친상
146	통훈	이세유(李世瑜)	음서	1706.7.20.~1707.1.	근무 평가 하로 파직
147	통훈	이인희(李寅熿)	음서	1707.8.11.~1707.11.11.	사직
148	통훈	홍만선(洪萬選)	음서	1707.11.25.~1709.4.16.	부모님 병으로 사직
149	통훈	심정보(沈廷輔)	음서	1709.4.19.~1713.6.21.	병으로 그만둠
150	통훈	이기한(李基漢)	음서	1713.6.23.~1714.3.	병으로 그만둠
151	가선	박필명(朴弼明)	문과	1714.3.15.~1714.7.11.	병으로 그만둠
152	통훈	김만재(金萬栽)	음서	1714.8.3.~1714.12.15.	근무 평가 때 파직
153	통훈	최석필(崔錫弼)	음서	1715.2.~1717.6.	암행어사가 아뢰어 파직
154	통훈	어유봉(魚有鳳)	음서	1717.6.25.~1718.2.	사헌부 장령으로 이배
155	통정	남지훈(南至熏)	문과	1718.3.~1718.10.29.	재임 중 사망
156	통훈	이성좌(李聖佐)	음서	1719.1.~1719.7.	광주 목사로 이배
157	통훈	이 오(李 澳)	음서	1719.9.16.~1720.11.23.	재임 중 사망
158	통훈	최상정(崔尙鼎)	음서	1720.12.~1723.8.	충주 목사로 이배
159	통훈	임세양(林世讓)	음서	1723.9.21.~1724.1.9.	감사가 아뢰어 파직
160	통훈	이광도(李廣道)	문과	1724.9.16.~1725.1.18.	감사가 아뢰어 파직
161	통훈	홍우제(洪禹齊)	음서	1725.2.16.~1726.6.2.	파주 목사로 이배
162	통훈	심주현(沈胄賢)	음서	1726.6.17.~1726.10.14.	모친상
163	통훈	조규빈(趙奎彬)	음서	1726.12.18.~1727.2.26.	감사와 상피로 교체
164	통훈	이우신(李雨臣)	음서	1727.3.27.~1727.10.14.	사직

번호	품계	성명	출신	재임 기간	교체 사유
165	통훈	김언희(金彦熙)	음서	1727.11.29.~1729.11.28.	사직
166	통정	김계환(金啓煥)	문과	1729.12.18.~1730.5.1.	사직
167	통훈	정동유(鄭東游)	음서	1731.3.22.~1732.윤5.5.	감사가 아뢰어 파직
168	통정	김치후(金致厚)	문과	1732.윤5.22~1732.7.	조부상
169	통훈	김상성(金尙星)	문과	1732.8.12.~1734.1.6.	홍문관 부응교로 이배
170	통훈	정후일(鄭厚一)	음서	1734.1.19.~1734.5.	순무사와의 상피로 교체
171	통정	윤득인(尹得仁)	음서	1734.5.21.~1735.12.15.	근무 평가 때 파직
172	통훈	이사윤(李思胤)	음서	1736.1.5.~1737.7.28.	사직
173	통훈	임 거(林 蓮)	음서	1737.8.16.~1738.8.2.	사직
174	통훈	윤경일(尹慶一)	음서	1738.8.12.~1739.5.14.	모친 병으로 사직
175	통훈	서명형(徐命珩)	문과	1739.6.17.~1739.10.3.	의주 부윤으로 이배
176	통훈	오수업(吳遂燁)	음서	1739.10.13.~1742.10.19.	병으로 사직
177	통정	어유봉(魚有鵬)	음서	1742.11.11.~1746.9.1.	임기 만료
178	통훈	김상우(金尙遇)	음서	1746.10.13.~?	
179	통훈	김한창(金漢昌)	음서	1747.8.15.~1747.8.21.	영조가 불러 본 후 파직
180	통훈	홍 저(洪 標)	음서	1747.9.3.~1749.10.16.	감사가 아뢰어 파직
181	통훈	이 담(李 潭)	음서	1749.11.17.~1751.2.	대간이 아뢰어 파직
182	통정	정동량(鄭東良)	음서	1751.3.3.~1751.7.22.	이조가 아뢰어 파직
183	통훈	신경민(申景閔)	음서	1751.8.2.~1754.1.	감사가 아뢰어 파직
184	통훈	정석교(鄭錫敎)	음서	1754.?월~1755.1.	감사가 아뢰어 파직
185	통훈	서민수(徐敏修)	음서	1755.2.2.~1756.2.15.	근무 평가 하로 파직
186	승록	방태여(方泰興)	의과	1756.12.25.~1759.9.25.	임기 만료
187	통훈	김성휴(金聖休)	음서	1759.10.9.~1760.2.9.	상주 목사로 이배
188		안상楫(安商楫)		1760.3.27.~1764.12.	건원릉 령으로 이배
189		박호원(朴好源)		1765.1.4.~1769.12.	임기 만료
190		이복해(李福海)		1769.12월~1771.3.	진무사와 상피
191		이성진(李成鎭)		1771.3.28~?	?
192	통훈	윤심위(尹心緯)	음서	1772.4.12.~	임기 만료
193	통훈	권이성(權彝性)	음서	1776.12.29.~1778.9.17.	상
194	통정	손상룡(孫相龍)	무과	1778.9.21.~1779.6.22.	첨지중추부사로 이배
195	통훈	송재연(宋在淵)	음서	1779.6.22.~1780.10.12.	파직
196		윤광유(尹光裕)		1780.10.~1784.	성주 목사로 이배
197		이 서(李 澈)		1784.10.22.~1786.6.29.	나주 목사로 이배
198		윤기동(尹耆東)		1786.7.30.~1787.10.10.	모친상
199		유한준(兪漢雋)		1787.10.10.~1788.1.20.	청주 목사로 이배
200		이재형(李在亨)			기록 무

번호	품계	성명	출신	재임 기간	교체 사유
201		정동협(鄭東協)		1789.10.27.~1793.4.28.	풍덕 부사와 서로 바꿈
202		강명길(康命吉)	의과	1793.5.4.~1794.11.6.	어사가 아뢰어 파직
203		조상존(趙象存)		1794.11.16.~1796.9.19.	어사가 아뢰어 파직
204		정상우(鄭尙愚)		1796.9.19.~1796.11.2.	동래 부사로 이배
205		윤광석(尹光碩)		1796.11.7.~1798.12.18.	황주 목사로 이배
206		조휘진(曹暉振)		1798.12.24.~1800.5.24.	병으로 그만둠
207		조정현(趙廷鉉)		1800.5.27.~1804.10.	진주 목사로 이배
208		김용순(金龍淳)		1804.10.22.~1804.11.21.	교동 수군절도사와 상피
209		이희문(李羲文)		1804.12.26.~1808.9.9.	재임 중 사망
210		김 유(金 錄)		1808.9.19.~1809.3.1.	재임 중 사망
211		박빈원(朴彬源)		1809.3.11.~1809.12.3.	재임 중 사망
212		김세근(金世根)		1810.1.3.~1810.6.13.	배천 군수와 서로 바꿈
213		김재삼(金在三)		1810.6.13.~1810.12.27.	화성 판관으로 이배
214		조학춘(趙學春)		1810.12.27.~1813.2.5.	삭녕 군수와 서로 바꿈
215		홍욱호(洪旭浩)		1813.2.5.~1814.윤2.11.	교동 수군절도사와 상피
216		이정회(李靖會)		1814.윤2.16.~1815.9.22.	진주 목사로 이배
217		김사식(金思植)		1815.9.29.~1816.11.5.	충주 목사로 이배
218		김지순(金芝淳)		1816.11.29.~1817.6.6.	병으로 사직
219		서낙수(徐洛修)		1817.6.11.~1819.6.	근무 평가 중으로 파직
220		김노종(金魯鍾)		1819.7.8.~1821.8.23.	부친상
221		박만수(朴晩壽)		1821.8.29.~1826.2.7.	파직
222		김영석(金永錫)		1826.2.7.~1826.10.12.	안성 군수와 서로 바꿈
223		김 횡(金 鑠)		1826.12.12.~1827.4.23.	부친상
224		서봉보(徐鳳輔)		1827.4.29.~1830.7.9.	재임 중 사망
225		성도묵(成道默)		1830.7.16.~?	?
226		임현철(林顯喆)		1832.2.28.~1833.5.	사직
227		신재순(申在順)		1833.5.26.~1837.12.24.	성주 목사로 이배
228		조석현(曹錫玄)		1837.12.24.~1839.6.	파직
229		이익익(李宜翼)		1839.6.29.~?	?
230		이민영(李敏榮)		1840.1.20.~1841.7.24.	재임 중 사망
231		김한순(金漢淳)		1841.7.26.~1844.10.21.	사직
232		김응근(金應根)		1844.10.21.~1846.7.29.	사직
233		김기묵(金箕默)		1846.8.2.~1847.12.24.	성주 목사로 이배
234		박준양(朴竣陽)		1841.1.28.~1852.1.30.	황주 목사로 이배
235		서용보(徐用輔)		1852.2.13.~1853.11.15.	무안 현감으로 이배
236		김유순(金有淳)		1853.12.21.~1855.7.11.	모친상

번호	품계	성명	출신	재임 기간	교체 사유
237		박현규(朴顯圭)		1855.7.21.~1856.6.14.	진주 목사로 이배
238		안응수(安膺壽)		1856.7.21.~1860.12.20.	수원 판관으로 이배
239		김주현(金胄鉉)		1860.10.20.~1864.7.28.	부친상
240		조병섭(趙秉燮)		1864.8.8.~1865.4.2.	여주 목사로 이배
241		정기년(鄭基年)		1865.4.16.~1865.6.10.	병으로 사직
242		조운금(趙雲兢)		1865.7.27.~1865.12.20.	안산 군수와 서로 바꿈
243		조병검(趙秉儉)		1866.1.9.~1866.7.25.	부모의 병으로 사직
244		조병로(趙秉老)		1866.8.10.~1866.11.26.	충주 목사와 서로 바꿈
245		한응필(韓應弼)		1866.12.6.~1867.4.20.	홍주 목사로 이배
246		김병훈(金秉薰)		1867.5.30.~1867.7.19.	모친상
247		서광두(徐光斗)		1867.9.3.~1869.3.20.	진위 현령으로 이배
248		최익봉(崔翼鳳)		1869.3.21.~1870.12.16.	재임 중 사망
249		이기조(李基祖)		1870.12.18.~1871.9.29.	훈련도감 천총으로 이배
250		이정하(李貞夏)		1871.10.15.~1874.2.2.	고양 군수와 서로 바꿈
251		조병익(趙秉益)		1874.2.17.~1874.8.4.	원주목 판관으로 이배
252		조태영(趙台永)		1874.9.13.~1875.5.23.	병으로 사직
253		이병숙(李秉淑)		1875.6.8.~1875.12.21.	모친상
254		민석호(閔哲鎬)		1875.12.27.~1878.6.16.	임기 만료
255		조용하(趙龍夏)		1878.7.10.~1880.7.29.	청주 목사로 이배
256		이호선(李浩善)		1880.9.6.~1881.11.15.	교체
257		김낙진(金洛鎭)		1881.11.30.~1882.6.29.	교체
258		김호균(金濤均)		1882.7.2.~1883.5.3.	교체
259		박희방(朴熙房)		1883.5.15.~1884.1.9.	교체
260		허 진(許 璉)		1884.1.21.~1885.6.29.	교체
261		박제문(朴齊文)		1885.8.18.~1885.11.17.	교체
262		정병하(鄭秉夏)		1885.12.6.~1888.5.29.	교체
263		김광신(金宏臣)		1888.6.22.~1888.10.5.	교체
264		이근호(李根濤)		1888.12.12.~1888.12.7.	교체
265		고영근(高永根)		1888.12.14.~1889.5.22.	교체
266		민준호(閔俊鎬)		1889.8.13.~1889.12.29.	용천 부사로 이배
267		최석두(崔錫斗)		1890.2.12.~1891.12.21.	교체
268		홍자룡(洪柘龍)		1892.7.17.~1892.4.28.	교체
269		안경수(安駟壽)		1892.5.22.~1893.11.8.	교체
270		이한영(李漢英)		1893.12.9.~1894.4.15.	교체
271		이근용(李根鎔)		1894.4.24.~1894.7.14.	교체
272		강태희(姜泰喜)		1894.7.29.~1894.8.12.	재임 중 사망

번호	품계	성명	출신	재임 기간	교체 사유
273		신 림(申 林)		1894.8.27.~1896.4.12.	북청 군수로 이배
274		신찬희(申贊熙)		1896.4.24.~?	?

위의 기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 부평 수령의 출신

1506년부터 1896년까지의 부평 수령은 총 274명이다. 출신별로 문과가 80명, 음서가 165명, 무과가 7명, 의과가 6, 출신 표시가 없는 수령이 16명이다. 202번의 강명길은 선생안에는 출신이 없지만 1768년 식년 의과에 장원한 인물이다.⁷⁰ 195번의 송재연(1779.6.22. 부임)의 출신을 음서로 기록한 후 196번 윤광유부터는 부평 수령의 출신 기록이 없다. 까닭을 살펴보자. 1757년부터 1765년에 걸쳐 각 읍의 읍지를 모아 편찬한 『여지도서(輿地圖書)』 부평도호부 관직조에 ‘(부평)부사 겸 진무전영장(府使兼鎭撫前營將)’ ‘음(蔭) 종3품’으로 기록하였다. 즉 『여지도서』에 ‘부평 부사는 음서 출신 종3품’이라고 한 것에 의하여 보면 송재연 이후의 부평 부사는 모두 음서 출신이므로 출신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아예 문과·무과·음서의 입사로에 따라 임명하는 군현을 고정시켜 운영했다. 상급 수령과 중요 지역에는 문과 출신을, 연변에는 무과, 내륙과 중소 군현에는 음서 출신을 다수 기용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부평 지역은 내륙 지역으로 음서 출신 수령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평 부사는 1685년(숙종 11)부터는 진무전영장을 겸임하였다.⁷¹ 진무영은 1700년(숙종 26)에 설치하여 강화도에 본영을 두어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인 강화를 지키게 했다. 1779년(정조 3)에는 통어영과 합쳤다가 1789년에 다시 분리했고, 1887년(고종 12) 심영으로 개칭되었다. 진무영 체제는 강화 유수가 겸임하는 진무사 밑에 정3품의 중군 1인과 상영대솔군관(上營帶率軍官) 3인, 중영대솔군관(中營帶率軍官) 2인을 두었다. 소관 부대로는 종전에 경기 수영하에 있던 각 진(鎭)이 이속되었다. 진영장(鎭營

70 『잡과방목』, 영조 44년, 의과방목.

71 『여지도서』 상(한국사료총서 제20집), 경기도, 부평, 건치 연혁 “肅宗十一年設營兼鎭撫前營將.”

將) 5명은 정3품으로 전영장(前營將)은 부평 부사(富平府使), 좌영장(左營將)은 통진 부사(通津府使), 중영장(中營將)은 본부 중군(本部中軍), 우영장(右營將)은 통덕 부사(豐德府使), 후영장(後營將)은 연안 부사(延安府使)가 겸임하였다.⁷²

(2) 행직 수령과 수직 수령

행수법의 규정을 보면 품계가 높는데 낮은 관직을 받은 경우는 ‘행(行)’자를 관직 앞에 쓰고, 반대로 낮은 품계이면서 높은 관직을 받는 경우는 ‘수(守)’자를 쓴다. 부평도호 부사는 종3품 관직이다. 그러므로 종2품 가정대부(후에 가의대부로 바뀜)와 가선대부, 정3품의 통정대부와 통훈대부가 부평도호부사로 부임하면 ‘행부평도호부사’가 된다. 반면 종3품의 증직대부와 증훈대부가 부평 수령으로 부임하면 ‘부평도호부사’가 되며, 정4품의 봉정대부와 봉렬대부나, 종4품 조산대부와 조봉대부가 부평 수령이 되면 ‘수부평도호부사’가 된다. 부평도호부사는 대부분이 행직 수령 또는 관직과 품계가 상응하는 경우이고 12번의 장계문(봉정대부), 40번의 권봉(봉정대부), 48번의 남궁지(봉렬대부), 56번의 윤명선(봉정대부), 141번의 이기익(봉정대부) 등 5명만이 수직 수령이다. 수직은 7품 이하는 2품계를 뛰어넘어, 6품 이상은 3품계를 뛰어넘어 줄 수 없다.⁷³

그런데 186번의 방태여는 종1품 승록대부이다. 종1품 승록대부가 종3품 관직인 부평도호 부사로 부임하였으니 무려 행직을 수여할 때 3품계를 넘은 것이다. 수직은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행직은 제한 규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부평 수령의 교체

부평 수령의 교체 사유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우선 부모님 상을 만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이다. 둘째, 부모님 병이나 자신의 병으로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이다. 셋째, 임기만료된 경우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부평 수령의 임기는 당상관과 가족 없이 부임한 경우는 900일, 이외는 1,800일이다. 넷째, 재임 중 사망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파직된 경우이다. 파직은 감사나 사헌부와 사간원 그리고 어사 등의 논박에 의

72 『대전통편』, 병전, 경관직, 군영아문, 진무영.

73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하여 파직된 경우, 조운선의 침몰로 인하여 파직된 경우, 근무평가에서 중이나 하를 받아 파직된 경우이다. 『경국대전』이전 표품조에 “堂上官守令一中罷職(당상관 수령은 한번이라도 중을 받으면 파직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파직된 것이다. 여섯째, 승진하거나 타 지역 수령으로 옮겨가거나 타 지역 수령과 서로 바꾸는 경우이다. 일곱째, 경기도 관찰사와 상피에 저촉되는 경우이다. 여덟째, 조부모 상에 승중(承重: 장손으로 돌아가신 부친을 대신하여 조부모상을 받드는 일)하는 경우이다. 아홉째 국왕이 직접 파직을 지시한 경우이다. 179번의 김한창은 영조가 부평의 농사 상황을 물었을 때, “농행을 위한 교량 개수 작업 때문에 부평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상세히 알지 못하나 해일의 피해가 참담하다”고 들었다고 답하였다. 이어 영조가 통진과 남양의 상황을 물었는데 김한창은 “부평과 한가지로 참담하다”고 들었다고 답하였다. 김한창은 영조에게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다고 답한 것이다. 이에 영조는 김한창을 파직시킨 것이다.⁷⁴

교체 날짜에 있어 선생안의 오기도 몇몇이 보인다. 예를 들면 29번의 정사겸은 “明宗八年癸丑六月赴任, 同年二月 殿最居水遞去(명종 8년인 계축년(1553) 6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2월에 근무 성적에서 상을 받아 교체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내용상 6월에 부임하였다가 같은 해 2월에 교체되었다는 것은 오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 관직자의 근무 성적 평가인 포폄은 음력 6월 15일과 12월 15일 실시한다.⁷⁵ 그리고 정사겸의 후임인 30번의 심수경이 1554년 1월 2일 부임하는 것으로 보아 정사겸이 교체된 2월은 1553년 12월에 교체된 것으로 수정하였다. 264번의 이근호는 “1888년 12월 5일 인사 이동 때 임명되어 같은 달 12일 부임하였고, 같은 해 12월 7일 교체되었다”고 하여 부임 이전에 교체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에는 10월 5일 고종이 조병익(趙秉翊)에게 “부평 부사를 대체할 인물로 부호군 이근호를 추천하라”⁷⁶고 전교하였고, 같은 날 부평 부사에 임명된다. 이어 12월 7일에는 통진 부사를 대체할 인물로 부평 부사 이근

74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8월 21일.

75 『경국대전』, 이전, 포폄.

76 『승정원일기』, 고종 25년 10월 5일.

호를 제수하고 있다.⁷⁷ 이를 바탕으로 선생안의 이근호에 대한 부임과 교체일은 “1888년 10월 5일 임명되어 12월 7일 교체”된 것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

200번의 이재형은 부임 일시와 교체 일시 및 교체 사유에 관한 기록이 선생안에는 없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에는 1789년(정조 13) 1월 26일 이재형을 부평 부사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 1789년 10월 10일 기사에도 이재형의 관직이 부평 부사로 확인된다. 그러면 이재형에 관한 기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1795년(정조 19) 9월 14일 의금부에서는 이재형이 죄를 자복했다고 하며 정조에게 형을 집행할 것을 청하고 있다.⁷⁸ 의금부에서 다루는 죄는 국왕과 관련된 것이며 이 때문에 이재형에 대한 기록은 선생안에서 삭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전임 수령의 파직이 결정되기 전에 후임 수령이 부임한 경우도 있다. 52번의 권식은 1590년 5월 23일 조운선 1척이 침수된 일로 물러났고 53번의 김청은 권식이 물러나기 한 달 전인 4월 27일 부임하였다. 65번의 박동망은 1605년 12월 28일 감사가 아뢰어 파직당하였고 66번의 김정목은 박동망이 파직되기 18일 전인 12월 10일 부임하였다. 71번의 이영은 1611년 신해년 6월 15일 근무 평가에서 중을 받아 물러났는데 후임인 72번의 홍경신은 갑인년 6월 3일 부임하여 계축년(1613) 12월 12일 임기가 차 물러났다고 기록되었다. 갑인년은 1614년이 된다. 부임하기도 전에 물러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갑인년은 잘못된 기록이며, 갑인년이 아니라 신해년(1611) 또는 임자년(1612)일 가능성이 높다. 신해년이라고 하면 이영이 파직(6월 16일)되기 전에 홍경신이 부임(6월 3일)한 것이 되며, 임자년이라고 하면 전직 수령이 파직되고 1년이 경과한 뒤에 수령이 임명된 것이 된다. 그런데 위에서 전임 수령이 물러나기 전에 후임 수령이 부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홍경신이 부임한 때는 신해년인 1611년 6월 3일에 부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임 수령의 파직이 결정되기 전에 후임 수령이 부임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권식, 박동망, 이영 모두 파직된 경우이다. 아마도 파직이 이미 결정되어 수령 직을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후임 수령을 임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선생안의 기록은 부평 수령의 부임 일시와 교체 일시가 명확한 경우도 있고, 제수 일

77 『승정원일기』, 고종 25년 12월 7일.

78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9월 14일. 이재형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자만 있고 부임 일시는 없는 경우, 교체 일시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는 선생안이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이 되었다는 증거라 하겠다. 그러므로 기재 방식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이다.

(4) 부평의 선정(善政) 수령

정약용이 지방 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내용을 기록한 『목민심서(牧民心書)』 서문에는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下民)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친구령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라고 개탄하였다. 지방관이 백성에 대해 탐학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고려는 지방에 수령을 파견할 때 선정을 베푸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고려 전기 선정의 기준은 ①백성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 ② 향리의 능력을 살피는 일, ③ 도적과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를 살피는 일, ④ 백성들이 금령을 범하는 것을 살피는 일, ⑤ 백성 중에서 효도하고 우애하고 청렴한 자를 살피는 일, ⑥ 향리가 전곡을 함부로 손대는 것을 살피는 일 등 6가지였다.⁷⁹ 즉 백성의 생활, 향리 규찰, 도적 감시, 백성 제재, 윤리, 향리의 탐학을 방지하는 일 등이 수령의 중요 임무였던 것이다. 수령의 임무는 고려 말에 들어 변화된다. 1375년(우왕 1)에는 교서를 내려 수령을 고과하도록 했는데 전야(田野)의 개간, 호구의 증가, 부역의 균등, 소송의 감소, 도적의 근절⁸⁰ 등 5가지로 주로 농사, 인구, 부역과 재판, 도적 등에 관련된 업무가 중심이 되었고 향리의 수탈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은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에 왕권의 대행자인 수령을 파견하였다. 지방 정치의 바른 운영은 수령에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수령의 선정에 대한 지방민들의 기대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선정에 대한 기준은 ‘수령칠사(守令七事)’이다. ‘수령칠사’는 수령이 지방에서 행해야 할 조규(條規)로서 농

79 『고려사』 권75, 지29, 선거3, 전주, 현종 9년 2월.

80 『고려사』 권75, 지29, 선거3, 전주, 우왕 1년 2월.

상을 권장하고(農桑盛), 인구를 증가시키고(戶口增), 학교를 일으키고(學校興), 군정을 잘 정돈하고(軍政修), 부역을 고르게 하고(賦役均), 송사를 공정하게 하고(詞訟簡), 간교한 무리들을 없애는(奸猾息) 일 등 일곱 가지 일이다. 이는 또한 수령의 근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수령칠사'를 잘 시행한 수령은 승진되거나 중앙 관직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수령은 관찰사나 감사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지방으로 부임해 '수령칠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백·공정한 치민을 실현하여 수령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의미하는 선정비(공덕비, 거사비, 영세불망비)가 세워진 수령도 다수이다. 선정비는 일반적으로 수령이 교체된 후 그 지방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령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만 수령 재임 중에 건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평의 선정 수령은 읍지의 선생안에 거사비가 세워졌다는 기록과 부평초등학교 내에 있는 선정비에서 확인된다.

부평선생안에 선정비가 세워진 수령으로는 35번의 이여경, 64번의 황치경, 71번의 이영, 81번의 오준, 83번의 한희일, 94번의 이필달, 148번의 홍만선 등 7명이다. 부평초등학교에 선정비가 있는 수령으로는 오준, 이필달, 김운장, 박시경, 조위수, 유상재, 홍만선, 심정보, 김상성, 김상우, 김응근, 김기묵, 박준양, 안응수, 조병로, 이기조, 민석호, 정병하(1800년대 이후 집중됨) 등 18명이다. 선생안에도 기록이 있고 부평초등학교에도 선정비가 남아 있는 수령은 81번의 오준, 94번의 이필달, 148번의 홍만선 등 3명이다. 부평초등학교에 남아 있는 선정비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부평초등학교 내의 부평 수령 선정비

번호	재직 기간	전면	후면	건립 연월 및 교체 사유
1	1628.5.1.~ 1629.5.17.	行府使吳公峻清德愛民碑	崇禎二年己巳七月日立	1629.7. 이배
2	1643.10.16.~ 1644.8.27.	行府使李公必達清德愛民碑	順治二年乙酉十一月日立	1645. 11. 파직
3	1675.2.6.~ 1677.6.	行府使金公雲長清德愛民碑	康熙十五年二月 日	1676. 2. 임기 만료
4	1681.10.6.~ 1683.1.23.	行府使朴公時璟清德愛民善政碑	康熙二十五年二月 日立	1686. 2. 모친상
5	1684.11.19.~ 1686.6.	行府使趙公渭叟清德愛民善政碑	康熙四十五年二月 日立	1706.2. 파직
6	1696.3.1.~ 1698.6.6.	行府使柳公尙載清德愛民善政碑	康熙四十五年二月 日立	1706.2. 임기 만료
7	1707.11.25.~ 1709.4.16.	行府使洪公萬選清德愛民善政碑	康熙五十二年八月 日 立	1713.8. 사직
8	1709.4.19.~ 1713.6.21.	行府使沈公廷輔清德愛民善政碑	康熙五十二年八月 日 立	1713.8. 사직
9	1732.8.12.~ 1734.1.6.	府使金候尙星永世不忘碑	乾隆元年丙辰三月日 東面民人立	1736.3. 이배
10	1746.10.13.~?	行府使金公尙遇清德愛民碑	歲在丙戌十二月日立	1766.12. 미상
11	1844.10.21.~ 1846.7.29.	行府使金候應根愛民善政碑	道光二十六年五月日立	1846.5. 사직
12	1846.8.2.~ 1847.12.24.	行府使金候眞默永世不忘碑	道光二十八年三月 日立	1848.3. 이배
13	1841.1.28.~ 1852.1.30.	行府使朴候峻陽愛民善政碑	辛亥五月 日立	1851 이배
14	1856.7.21.~ 1860.12.20.	行府使安候膺壽永世不忘碑	咸豐九年 月 日 立	1859 이배
15	1866.8.10.~ 1866.11.26.	行府使趙候秉老永世不忘碑	同治六年正月 日	1867.1. 이배
16	1870.12.18.~ 1871.9.29.	行府使李候基祖清德愛民善政碑	同治十一年十月 日立	1872.10. 이배
17	1875.12.27.~ 1878.6.16.	行府使閔候哲鎬永世不忘碑	光緒十一年十月 日	1885.10. 임기 만료
18	1885.12.6.~ 1888.5.29.	行府使鄭候秉夏永世不忘碑	光緒十三年丁亥九月 日	1887. 9. 교체

부평 수령 선정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전기의 선정비는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만이 남아 있다. 둘째, 영조대 송인명(宋寅明)의 주청을 받아들여 수령의 비석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는데,⁸¹ 정조 역시 “묘당에서 모든 도에 행회(行會 : 국가의 지시를 알리고 지시를 실행 방법을 의논하는 모임)해서 고을과 진(鎭)에 엄히 신칙하여 비석이란 명목이 붙은 것들을 모두 철거하게 하라. 그런 뒤에도 다시 금령을 범하는 자는 한결같이 법대로 감죄(勘罪)하라”⁸²고 한 것을 반영한 듯 영조의 명이 있었던 1741년(영조 17)부터 정조가 승하한 1800년(정조 24)까지 60년 가까이 김상우의 선정비 1기만이 건립되었다. 참고로 1629년(인조 7) 건립된 선정비 이후 1741년 이전까지 110년 기간의 선정비는 9기가 남아 있고 1800년대 건립한 선정비는 8기가 남아 있다. 셋째, 선정비는 수령 재임 후에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김운장, 김응근, 박준양, 안운수 등 4명은 재임 중에 건립되었다. 넷째, 이필달, 조위수는 파직되었으나 선정비가 세워졌다. 이필달은 1644년(인조 22) 8월에 부평 수령 재직 중 감사가 아뢰어 파직되었으나 파직된 사유는 찾아지지 않으며 1년 뒤인 1645년(인조 23) 6월 영변 부사에 임명된다.⁸³ 조위수는 1686년(숙종 12) 6월에 파직되었다가(파직 사유 불명) 같은 해 12월 21일 오위장(五衛將)에 임명된다.⁸⁴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돌에 새겨 덕을 칭송하여 영원토록 보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선정비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으로 반성하여 부끄럽지 않기가 어렵다”⁸⁵라고 지적했듯이 마땅히 선정비가 세워져야 할 수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령도 있었을 것이다.

(5) 부자, 형제, 조손간이 부평 수령에 부임한 경우

부평에 수령으로 부임한 인물들 가운데는 친인척 관계가 다수 보인다. 첫째, 부자간, 조손 간, 장인 사위 간에 부임한 경우이다. 8번의 이희용은 이사관의 손자이며, 14번의

최종인은 장인이 연산군대 아우 심순문 사건과 연좌되어 파직당한 심순도이다. 47번의 김시회는 94번의 이필달의 외조부이다. 101번의 김우명은 130번의 김석연의 아버지이다. 112번의 윤세교는 171번의 윤득인의 할아버지이다. 101번의 김우명의 아들이 130번의 김석연이며 187번의 김성휴는 김석연의 손자이다. 152번의 김만재의 5대손이 213번의 김재삼이다. 이들은 사계 김장생의 후손으로 김만재는 김장생의 증손자이고 김재삼은 김장생의 8대손이다.

둘째, 형제간에 부평 수령 으로 부임한 경우가 다수 보인다. 8번의 이희용은 1498년 부임한 이계복과는 재종형제이다. 8번의 이희용은 이사관의 증손자이며 1498년 부임한 이계복과는 재종형제(6촌형제)이다. 37번의 유순선은 43번의 유종선과 형제이며, 49번의 심례겸은 57번의 심신겸과 형제이다. 65번의 박동망은 67번의 박동선과 사촌형제이다. 154번의 어유봉은 177번의 어유봉의 형이 된다.

(6) 재임 중 읍호가 강등되거나 복구된 경우의 수령

1413년(태종 13) 부평도호부가 된 후 부평은 읍호가 3번 강등된다. 그 하나는 세종대 온천 파동으로 1438년(세종 20)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446년(세종 28) 복구되었고, 다음은 연산군대 내시 김순손의 고향이라는 이유와 부평 수령 심순도가 그의 아우 심순문의 사건에 연좌된 것이 겹쳐 1505년(연산군 11) 강등되었다가 1506년(연산군 12) 복구된 경우이다. 이 경우의 수령은 앞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 번째의 읍호 강등을 알아본다.

1697년(숙종 23) 12월 인조의 생부 원종의 능인 장릉(章陵)에 방화한 사건이 발생하였다.⁸⁶ 그런데 장릉에 방화한 죄인인 최필성(崔弼成)의 거주지가 부평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능 방화 사건은 대역이며 강상죄이기 때문에 범인은 수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하며 처자는 노비로 삼고 죄인의 가옥은 파가저택하며 죄인 거주지의 읍호를 낮추며 수령은 파직된다.⁸⁷ 그런데 장릉 방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부평

81 『영조실록』 권53, 영조 17년 12월 9일.

82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6월 19일.

83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6월 22일.

84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12월 21일.

85 『목민심서』, 해관 6조, 유애(遺愛) “刻石頌德 以示悠遠 則所謂善政碑也 內省不愧 斯爲難矣”.

86 『추안급국안』, 무인년, 안사현(安士賢) 등 추안, 2월 23일 최필성 추문.

87 『경국대전』, 형전, 추단 : 『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 2월 26일 “포청에서 장릉에 방화한 사람 최필성·안사현 등을 잡아 금부(禁府)로 이송하고, 국청(鞠廳)을 설치해서 추치(推治)하고, 모두 자복을 받아 정형(正刑 : 사형)에 처하고, 연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집을 헐어버리고 읍호도 법률대로 강등시켰다.”

수령이 137번의 유상재이다. 방화사건으로 부평도호부는 부평현으로 강등되었으나 유상재는 파직되지 않고 1698년 6월 6일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되었다. 강상죄인의 고을 수령을 파직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은 1865년 편찬된 『대전회통』에 명문화되었으나⁸⁸ 그 이전에도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읍호가 강등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예전의 읍호로 복구시켜 준다는 규정에 따라 부평은 1707년(숙종 33) 146번의 이세유 부사 때 다시 도호부로 복구된다.

(7) 기문(記文)을 남긴 수령

이하조는 1698년 7월 부임하여 1700년 5월 강화 진무사와 상피로 교체되었다. 이하조는 아버지가 1664년 6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인천도호 부사를 지낸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이며 형은 1695년 3월 1일부터 1696년 11월 13일까지 인천 현감을 지낸 동보(同浦) 이희조(李喜朝)이다. 이희조는 인천 현감 재임 중 업무를 보는 공간을 ‘인민당(仁民堂)’이라고 현판한 후 이단상의 제자인 김창협(金昌協)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이것이 김창협이 쓴 「인민당기」이다. 그런데 이하조는 부평현감으로 있으면서 공무를 보는 곳을 ‘사무헌(使無軒)’이라고 하였다. 사무헌은 『논어』 안연편 13장에 공자가 “송사를 다스리는 일은 나도 남과 같으나 나는 반드시 송사함이 없게 할 것이다”⁸⁹에서 따온 말이다. 이하조 역시 김창협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무헌 기문은 부평 동헌에 게시되지 못하였다. 이후 1717년 6월 25일 부평 수령으로 부임한 어유봉(魚有鳳)이 기문을 걸어 두고 아침저녁으로 쳐다보고, 또한 뒤에 부임하는 수령에게도 알렸다.⁹⁰

다음은 『부평부읍지』(1871년 편찬)에 실린 사무헌기이다.

김창협의 기문에 다음과 같이 있다. 이 후(李侯 : 이하조) 낙보(樂甫)가 계양현의 현감으로 부임하면서 『대학』의 「청송(聽訟)」장에서 취하여 공무를 보는 곳을 사무헌(使無軒)이라고 이름 붙이고 편지로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이하조) 이곳에 부임한 지 3년이 되

었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일에 성심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송사(訟事)를 듣고 판결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만 못하다고 생각되어 송사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모두 사양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가폐(嘉肺 :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 필자 주) 사이 어느 쪽도 사람 하나 오지 않습니다. 이 또한 ‘송사가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백성들에게 송사가 없을 수 없으니 옛 시대부터 이미 그러하였다. 그래서 복희(伏羲)가 지극히 순박하고 후덕하였음에도 괘(卦)에 송(訟)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있었던 것이다. 대개 하늘과 물의 운행이 어긋나고 군센 것과 험한 것이 서로 겹치는 것을 관찰하면서 송(訟)의 뜻이 드러난다. 송사는 본시 갑자기 없게 할 수 없다. 오직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뼈에 붙은 말라빠진 고기를 씹는 것과 같은 어려움도 꺼리지 않고 기꺼이 해서 송사하는 자가 올바른 쪽으로 변해가는 길함이 있게 한다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낙보와 같이 하는 것은 자기 편의를 위한 임시방편에 가깝고 백성을 통솔하고 사물을 다스리는 뜻이 아닌 점이 없지 않겠는가? 게다가 『대학』의 ‘송사가 없게 한다’는 것은 성인(聖人)이나 할 수 있는 일로 덕을 밝히고 백성을 쇄신시키는 일의 지극한 경지이니 어찌 낙보가 미칠 수 있는 바이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것을 붙여서 이름을 삼고자 하였으니 지나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 마음에서 의혹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에 석연치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 혼자 생각하다가 그 답을 얻었다. 대체로 시대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백성들의 풍속은 점점 각박해져, 사소한 것으로도 서로 다투고 골육 간에도 원수가 되는 등 송사가 날마다 끊임 없이 발생한다. 백성의 뒷자리에 있는 이가 일일이 송사를 듣고자 해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송사만 더욱 많아지니 이는 실타래를 정돈하려다 도리어 뒤엉키게 만드는 꼴과 같다. 더군다나 그 진실과 거짓이란 미묘하고 모호하여 수없이 변한다. 따라서 주돈이(周敦頤) 선생이 말한바 바르고 명철하고 통달해서 명확히 단안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면, 어찌 송사를 감당하여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세상에서 흔히 능력 있는 관리라고 불리는 자들은 한갓 꾀를 부리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심한 경우는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재판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좋다고 하고 그만두게 할 방도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은 설사 재판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해도, 그 마음이 이미 어질지 않다. 더군다나 판결이 반드시 합당하란 법도 없는데, 어땠겠는가? 이 때문에 낙보

88 『대전회통』, 형전, 추단.

89 『논어』, 안연 13장, 子曰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이 글은 『대학』 청송장에도 있다.

90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주)부평군읍지』(1871), 제영(題詠). 2005. 202~207쪽.

가 심히 부끄럽게 여기면서 재판을 맡으려 하지 않은 것이다. 어찌 자기 편의를 위해 임시 방편으로 그런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도 그 의도를 묵묵히 알아차려 서로 주춤춤 물러나, 핏대를 세웠던 자는 누그러뜨리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격하였던 자도 평정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며, 그럼으로써 송사도 그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 처리 방식이야 졸렬하지만 그 마음은 참으로 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어쩔줄 몰라 우물쭈물 고민만 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목소리를 높여 판결하는 쪽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오니 어찌 훌륭하지 않은가? 아무리 낙보가 수준이 낮다고 하여도 『대학』에서 ‘송사가 없게 한다’는 것이 성인(聖人)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오늘날에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님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가 『대학』의 구절에서 뜻을 취하여 편액을 단 것은 또한 그 취지를 보전하는 데 뜻을 둔 것이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덕을 밝히고 백성을 진작시키는 일에 힘써 노력한다면, 뭐 나쁠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내막을 글로 써 벽 사이에 걸어두어서 뒤에 부임하는 자가 그 뜻을 기억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경진(庚辰)년 3월 안동인 김창협이 쓰다.

위 내용은 농암 김 선생이 이낙보를 위해서 계양현 동헌(東軒)에 기문으로 써준 것이다. 이 현감은 병으로 벼슬을 내놓고 돌아갔으나 이내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 기문은 결국 게시 되는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정유(丁酉)년에 내가 외람되게 현감으로 부임하니, 이 선생이 다스린 지 어느새 18년이 지나서였다. 이 선생이 별세한 지도 또한 10년이나 되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사우(師友) 간의 정리(情理)에 느끼는 바 있어 처연한 심정을 이기지 못하겠다. 더구나 내가 정무를 졸박(拙朴)한 방식으로 함은 대개 이 선생이 먼저 행한 것에 탄복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선생의 가르침에 대하여 더욱 묘미를 느낀다. 그래서 이 기문(記文)을 차고리 사이에 걸어두고 아침저녁으로 쳐다보고, 또한 뒤에 부임하는 이에게도 알리는 바이니 영원히 끊어짐이 없게 할 따름이다. 이 현감의 함자는 하조(賀朝)요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정관재(靜觀齋) 선생의 막내아들이다. 무인(戊寅)년에 부임하였고 경진(庚辰)년까지 다스렸는데, 그 정사가 후덕하여 그 물려받은 충후함이 백성들에게 남아 있다. 정유년 11월 하순 문인 어유봉이 삼가 쓴다.

(8) 부평 수령이 타 지역 수령을 겸임한 경우

부평 수령이 타 지역 수령을 겸임한 경우가 보인다. 1732년(영조 8) 윤5월 10일 비변사에서 균향을 바치지 못한 수령을 아뢰면서 경기는 부평 부사 신치운(申致雲)이 꼴찌를 차지하고 파주 목사 이평(李滢)이 꼴찌 다음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인천 겸임 부평부사(仁川兼任富平府使) 신치운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아뢰었다.⁹¹ 즉 부평 부사 신치운은 인천 겸임 부평부사라는 직함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신치운은 부평선생안에 기록이 없다. 다만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신치운은 1730년(영조 6) 5월 13일 부평 부사에 임명된다. 부평선생안에 정동유가 1731년 3월 22일 부임하여 1732년 윤5월 5일 이임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신치운은 167번의 정동유 이전의 부평 부사로 재직할 것이다. 그리고 신치운이 인천 겸임 부평부사로 재직할 때의 인천 수령은 조재박(趙載博, 1731.7.9.~1733.5.16. 재임)이다.⁹² 조재박은 1732년 윤5월 13일 어사가 칭찬하여 영조가 표리(表裏)를 내려주었다⁹³고 하여 조재박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이 드러난다. 엄연히 인천수령이 있음에도 부평 수령이 인천 수령을 겸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또 있다. 1839 2월 4일 이계조가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인천 겸임 부평부사 조석현, 곡주관 공주판관 이정구를 예대로 나장을 보내 잡아오는 것이 어떠합니까?”⁹⁴라고 하였다. 조석현은 1837년 12월 24일에 부임하였고 1839년 6월까지 부평 수령에 재직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인천 부사는 이인승(李寅升, 1838.12.24.~1842.8.20. 재임)⁹⁵이다. 위의 두 사례는 부평 수령이 인천 부사를 겸임한 경우이다. 부평 수령이 통진 수령을 겸임한 경우도 있다. 1862년 1월 20일 의금부가 충청감사 유장환(兪章煥)의 계본(啓本)을 인용하여 “장재관(裝載官) 임천(林川) 겸임 홍산현감(鴻山縣監) 조영화(趙英和), 호송지방관 통진(通津) 겸임 부평부사 김주현(金胄鉉) 등의 죄상을 유사로 하여금 아뢰었습니다”⁹⁶라고 한 것이다.

91 『비변사등록』, 영조 8년 윤5월 10일.

92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주)인천부읍지』 선생안, 2004, 42쪽.

93 『영조실록』 권31, 영조 8년 윤5월 13일.

94 『승정원일기』, 현종 5년 2월 4일.

9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주)인천부읍지』 선생안, 2004, 45쪽.

96 『승정원일기』, 철종 13년 1월 20일.

그러면 이러한 겸임 수령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대읍에 계수관을 두었다. 조선시대의 계수관은 도와 군현 사이의 중간적 존재로서 도의 지시를 군현에 전달하면서 군현을 통합하거나 계수관 자체 지역을 지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456년(세조 2) 계수관제도도 없어진다. 계수관제도가 없어진 이후에도 유습이 남아 있던 것이 겸임 수령이었다고 생각된다.

(9) 부평선생안에 등재되지 않은 수령

선생안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부평 수령으로 기록된 인물들도 있다. 1506년(중종 원년) 10월부터 1896년(건양 1) 4월 사이에 선생안에 등재되지 않은 수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유엄(柳澣) : 1534(중종 29)년 2월 10일 대간이 개정하기를 청하여 윤허받았다.⁹⁷
- ② 이척(李滌) : 1543년(중종 38) 7월 8일 현부가 이척이 재능이 없고 노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직시키기를 청하였으나⁹⁸ 선조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육이 같은 해 8월 3일 부평 부사에 부임하는 것으로 보아 이척은 체직되거나 같은 해 7월 8일부터 8월 2일 전까지만 부평 부사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 ③ 백유온(白惟溫) : 1574(선조 7)년 7월 8일 부평 부사에 임명⁹⁹된다. 그러나 한성원이 7월 25일 부임하는 것으로 보아 백유온은 부임 이전 체직되거나 7월 24일까지만 부평 부사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 ④ 이유(李綏) : 1598년(선조 31) 10월 13일 사간원이 이유는 전일 수령이 되었을 때 별다른 명성이 없었고 경력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차를 청하였다.¹⁰⁰ 이유에 대한 선조의 결정은 알 수 없으나 박춘무가 10월 22일 부임하는 것으로 보아 이유는 체직되거나 10월 21일까지만 재임한 것으로 생각된다.

97 『중종실록』 권76, 중종 29년 2월 10일.
 98 『중종실록』 권101, 중종 38년 7월 8일.
 99 『선조실록』 권8, 선조 7년 7월 8일.
 100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년 10월 13일.

- ⑤ 이여운(李汝溫) : 1599년(선조 32) 윤4월 5일 지평 남탁(南暲)이 부평 부사 이여운은 이력에 뚜렷한 성적이 없다는 이유로 파직¹⁰¹하기를 청하여 윤허를 받는다.
- ⑥ 윤경(尹暲) : 1599년 윤 4월 15일 부평 부사에 임명된다. 그러나 사관은 윤경이 덕산에 낙향에 있을 때 재산 증식을 일삼아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향곡을 무단(武斷)하였다고 기록하였다.¹⁰² 그런데 같은 해 5월 23일 김방이 부임하는 것으로 보아 윤경은 체차되었거나 5월 22일까지만 재임한 것으로 생각된다.
- ⑦ 이경천(李慶千) : 1605년(선조 38) 1월 4일 부평 부사에 임명된다. 그런데 1월 5일 사헌부는 이경천이 갑자기 3품으로 승진되어 외람되니 개정해 달라고 청하여 윤허를 받는다.¹⁰³
- ⑧ 강복성(康復誠) : 1623년(인조 1) 10월 25일 부평 부사에 임명된다.¹⁰⁴ 그런데 같은 해 윤 10월 25일 안응형이 부평 부사에 부임하는 것으로 보아 강복성은 윤10월 24일 이전에 체차된 것으로 보인다.
- ⑨ 이경인(李景仁) : 1635년(인조 13) 6월 14일 행 부평 부사에 임명된다.¹⁰⁵ 그런데 7월 11일에 정문익이 부임하는 것으로 보아 이경인은 7월 10일 이전에 체차된 것으로 생각된다.
- ⑩ 이해(李澣) : 1640년(인조 18) 3월 11일 부평 부사에 임명된다.¹⁰⁶ 그런데 3월 20일 조흠이 부평 부사에 부임하는 것으로 보아 이해는 3월 19일 이전에 체차된 것으로 보인다.
- ⑪ 조용립(趙應立) : 1644년(인조 22) 7월 26일 부평 부사에 임명된다.¹⁰⁷ 그런데 1643년 10월부터 1644년 8월 27일까지의 부평 부사는 이필달이다. 즉 이필달이 체직되지 않았는데 조용립이 임명되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데 조

101 『선조실록』 권112, 선조 32년 윤4월 5일.
 102 『선조실록』 권112, 선조 32년 윤4월 15일.
 103 『선조실록』 권183, 선조 38년 1월 4일·1월 5일.
 104 『승정원일기』, 인조 1년 10월 25일.
 105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6월 14일.
 106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3월 11일.
 107 『승정원일기』, 인조 22년 7월 26일.

응립이 부평 부사에 임명된 날의 『승정원일기』에는 조응립을 부령(富寧) 부사로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조응립은 부평 부사에 임명된 것이 아니라 부령 부사로 보는 것이 맞다.

- ⑫ 박순의(朴純義) : 1664년(현종 5) 2월 8일에 부평 부사에 임명된다. 그런데 같은 해 3월 2일 윤부가 부평 부사에 부임한 것으로 보아 박순의는 3월 1일 이전 체차된 것으로 보인다.
- ⑬ 이광덕(李匡德) : 1730년(영조 6) 5월 6일 부평 부사에 임명된다.¹⁰⁸ 그런데 5월 8일 우의정 이집(李堦)이 이광덕은 부친의 병으로 여러 번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말하였다고 하였다. 5월 19일 이광덕은 형조 참의에 제수된다.¹⁰⁹ 그리고 5월 9일에 서종집을 부평 부사에 임명하는 것으로 보아 이광덕은 부임하지 않았다.
- ⑭ 서종집(徐宗集) : 1730년 5월 9일 선혜청 낭청으로 있다 부평 부사에 임명된다.¹¹⁰ 그런데 5월 11일 선혜청에서는 서종집을 계속 선혜청에 근무하게 해 줄 것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¹¹¹
- ⑮ 신치운(申致雲) : 1730년 5월 13일 부평 부사에 임명된다.¹¹² 신치운은 1732년 3월 22일 정동유가 부임하기 전까지 부평 부사와 인천 겸임 부평부사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신치운은 재직 기간이 짧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안에 등재되지 않았다. 신치운이 선생안에 등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신치운은 1755년 나주괘서사건¹¹³이 있는 직후 심정연(沈鼎衍)·김인제(金寅濟)·박사집(朴師緝) 등과 함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경상북도 흥해군에 유배되었다가 처형당하였다.¹¹⁴ 이 때문에 신치운은 부평선생안에 오를 수 없었던 것이다.

108 『승정원일기』, 영조 6년 5월 6일.

109 『승정원일기』, 영조 6년 5월 19일.

110 『승정원일기』, 영조 6년 5월 9일.

111 『승정원일기』, 영조 6년 5월 11일.

112 『승정원일기』, 영조 6년 5월 13일.

113 1755년(영조 31) 소론(少論) 일파가 노론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역모 사건.

114 『영조실록』 권84, 영조 31년 5월 21일.



참고 문헌

단행본 및 논문

이훈익, 『인천의 성씨·인물고(仁川의 姓氏·人物考)』, 인천지방항토문화연구소, 1991.

이준희, 「선조 지방통치체제의 정비와 계수관」, 『동국사학』 15-16, 1981.

관찬사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영조실록』

『정조실록』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잡과방목』

『관찰사선생안(觀察使先生案)』국립중앙도서관 소장, No. 한

『추안금국안』





법전

- 『경국대전』
- 『경국대전주해』
- 『속대전』
- 『대전통편』

지리지 및 읍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 『부평부읍지』(1871)
- 『부평군읍지』(1899)
- 『여지도서』
- 『증보문헌비고』
- 『인천부읍지』

문집 및 경서

- 『동문선』
- 『동국이상국전집』
- 『金永夫墓誌銘』
- 『목민심서』
- 『논어』



부평사
富平史



제 8 장 — 부평의 인물

제1절 _ 전근대 인물

제2절 _ 근현대 인물

제8장 부평의 인물



| 제1절 | 전근대 인물

남 달 우(인하역사문화연구소 소장)

1871년 편찬된 『부평부읍지』 방리조에 의하면, 전근대 부평 지역은 부내면(현 계양구), 동면(현 계양구), 당산면(현 계양구), 주화곶면(현 부천 및 강서구 일대), 상오정면(현 부천), 하오정면(현 부평구일대와 부천), 수탄면(현 부천, 오류동), 옥산면(현 부평구, 부천일대), 석천면(현 서구), 동소정면(현 부평구), 서면(현 부평구), 마장면(현 부평구), 석곶면(현 서구), 모월곶면(현 서구), 황어면(현 계양구) 등 총 15개 면이 있었다. 그러므로 전근대 부평의 인물은 15개 면을 대상으로 당시의 부평 거주자와 부평 출신자로서 역사적 활동(충신, 명환, 효자, 열녀, 열부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 부평에서 관직을 역임하고 명망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부평 지역에 묘가 남아 있는 경우의 인물을 선정하여 서술하겠다. 참고문헌은 부평읍지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1842·1871),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1899), 『여지도서(輿地圖書)』, 『국조방목(國朝榜目)』, 『송자대전(宋子大全)』,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인천의 성씨·인물고(仁川의 姓氏·人物考)』(이훈익,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1), 『부평사연구(증보판)』(백암문집간행위원회, 1995), 『부평이씨대동보(富平李氏大同譜)』(부평이씨대동회, 1998), 『부평인물사(富平人物史)』(조기준, 부평문화원, 2001), 『계양사』(계양사편찬위원회, 2001), 『인천광역시사(仁川廣域市史)』(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부평사(富平史)』(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서구사(西區史)』(서구사편찬위원회, 2004·2014), 『태조실록(太祖實錄)』,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종실록(太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경인증광사마방목(庚寅增廣司馬榜目)』,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등이다.

고성기(高聖基)

부평 출신으로 조선 고종대 승척감(升尺鑑)이 되어 황어장의 관리 및 장세(場稅)의 징수를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공유(孔楡)

고려 원종~충렬왕대의 무신이다. 공유는 1270년(원종 11) 삼별초의 난 때 장군으로 출전하였다. 그러나 삼별초군에게 7일간이나 공격을 당한 금성(錦城 : 나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방경(金方慶)이 토적사(討賊使) 상장군 변윤(邊胤), 장군 조자일(曹子一), 공유 등을 섬에다 귀양 보내자고 요청했으나 원종은 이들을 용서하고 다만 1271년 1월 공유·안세정(安世貞)의 관직을 박탈하였다. 1272년 안남도호 부사(安南都護副使)가 되었다. 11월 삼별초가 안남도호부를 침입하였을 때 공유는 그의 처와 붙잡혀 갔으나, 1273년 6월 홍주(洪州) 부사 이행검과 함께 삼별초군에서 탈출하였다. 충렬왕 때 대장군

이 되고, 1278(충렬왕 4) 9월 원에 있던 충렬왕이 돌아올 때 제안공(齊安公) 왕숙, 대방공 왕증, 한양공 왕현(王僎) 등과 함께 압록강에까지 가서 만났다. 1283년(충렬왕 9) 7월 염승익(廉承益)과 함께 현화사(玄化寺)와 남계원(南溪院) 왕륜사(王輪寺)의 석탑을 수리하였다. 1284년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로서 성절사가 되어 원에 다녀왔다. 1285년(충렬왕 11) 왕이 내안대왕(乃顔大王)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보내 토벌을 원조할 목적으로 군사를 징발하게 하였다. 이때 나유(羅裕), 공유 등이 북경에 가 있을 시위군(侍衛軍)을 선발하였는데 금학 양관 유생(禁學兩館儒生)까지 징발하였다. 1287년 동판밀직사(同判密直事)가 되고, 6월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올랐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부(孔俯, ?~1416)

자는 백공(白恭), 호는 어촌(漁村)·수선(修仙)이다. 조부는 공소(孔紹)이다. 1376년(우왕 2) 문과에 급제하여 전의부령(典儀副令), 예조총랑(禮曹總郎)을 거쳐 집현전 태학사를 지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별감 제조(別監提調)·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總制)·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을 역임하였다. 1384년 부평 부사를 지냈다. 도교에 조예가 있어, 도교를 좋아하던 태종의 총애를 받았고, 1408년 10월 이후 서장관으로 여섯 번이나 중국에 다녀왔다. 당시 그는 소격전 제조(昭格殿提調)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태종의 명에 의하여 중국에 가서 도교의 초사(醮祀) 등 도교 의식을 배워왔고, 또 동남동녀를 거느리고 광연루(廣延樓)·상림원(上林園) 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1413년 4월, 태종은 부친 상중에 있는 그에게 수진(修真 : 장생불로의 수련법)에 관해서 물어 보기도 하였다. 1416년 천추사(千秋使)로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젊어서는 정몽주(鄭夢周)·이색(李穡) 등과 교유하였다. 세상에서는 그의 관대한 성품과 솔직함을 높게 평가하여 팔청(八淸)의 우두머리라고 칭하였고, 또한 초서와 예서에도 매우 능하였다. 저서로는 『회암사묘엄존자무학선사탑비(檜巖寺妙嚴尊者無學禪師塔碑)』, 『한산군이색신도비(韓山君李穡神道碑)』가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근(權謹, ?~1743)

자는 동오(童五)이다. 본관은 안동이며 조부는 권보언(權堡彦)이다. 부평 출신으로 1768년(영조 44) 문과에 급제하여 의금부 도사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권근중(權謹中)

본관은 안동이다. 부평 수탄면에 거주하였다. 문과 급제 후 행세자익위사사어(行世子翊衛司司禦)를 지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권대임(權大任 1595~1645)

자는 홍보(弘輔)이다. 본관은 안동이며 조부는 길창군(吉昌君) 예조 판서 권협(權俠), 부는 길흥군(吉興君) 권신중(權信中), 모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이씨는 광평대군(廣平大君) 이여(李瑬)의 7세손이자 사평(司評) 이정필(李廷弼)의 딸이다. 부평 수탄면 궁동(宮洞) 출신이다. 서예에 뛰어나서 선조가 칭찬하며 여러 번 상을 내렸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반란이 일어나자 공주(公州)로 피난 가는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였고, 그 공으로 봉헌대부(奉憲大夫)가 되었다. 1635년(인조 13) 아버지 3년 상이 끝나자 선무공신(宣武功臣)의 적손(嫡孫)으로 길성군(吉城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는 어가를 호종하여 승덕대부(崇德大夫)로 승진되고 도총관(都總管)이 되었다. 1639년(인조 17) 심양(瀋陽)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 행장에 든 재화를 다 털어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지 못한 노약자들을 속환(贖還)하여 돌아왔다. 정선옹주(貞善翁主)와 결혼하여 길성위(吉城尉)에 봉해졌고, 돈녕부봉사(敦寧府奉事) 권진(權瑱)을 낳았다. 사후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으로 유록대부(綏祿大夫)를 더하여 정일품이 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권대재(權大載, 1620~1689)

자는 중거(仲車), 호는 소천(蘇川)이다. 본관은 안동이며 증조부는 지중추부사 권상(權常), 조부는 예조 판서 권협(權協), 부는 진사 의중(禕中), 모는 신종사(申宗泗)의 딸이다. 1646년(인조 24) 사마시에 합격하고, 1653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승문원에 선발되었다. 1658년(효종 9) 문과 증시에 병과로 급제해 전직에 승진되었고, 병조 좌랑·창평 현감 등을 역임했다. 1660년(현종 1) 전라도 도사 재임 시 과거 시관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파직되었고, 1666년 공산 판관(公山判官) 때에는 소송자를 함부로 죽였다 하여 파직되었다. 1672년 7월 1일 부평도호부사에 임명되었다가 7월 20일 충주 목사로 옮겨 갔다. 그 뒤 격화된 당쟁의 와중에서 남인으로 처신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직 생활도 평탄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예송(禮訟)을 거친 뒤 남인이 정권을 잡자, 승지·영남 순무사·대사간·대사헌·예조 참판 등을 역임하면서, 송시열(宋時烈)의 처벌을 적극 주장했다. 남인이 허목(許穆)을 중심으로 하는 청남(淸南)과 허적(許積)을 중심으로 하는 탁남(濁南)으로 분열되자 청남에서 활동하였고, 1679년 청남이 정권에서 물러나면서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쫓겨났다. 그 해 10월에 전라 감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경신환국이 일어나 서인이 정권을 잡자 영변(寧邊)으로 유배되었다. 그 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다시 남인이 정권을 잡자 홍문관 제학으로 등용되었다. 같은 해 호조 판서로 있으면서 주전(鑄錢)을 반대하였고, 송시열과 김수항(金壽恒)을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저서로는 『독역수차(讀易手筮)』·『중용변의(中庸辨疑)』·『사림평요(士林評要)』·『남위록(南爲錄)』·『광산록(光山錄)』·『용문록(龍門錄)』·『초산록(草山錄)』 등이 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는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세태(權世泰)

본관은 안동이며 부평 수탄면 출신이다. 1660년(현종 원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군수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권신(權神, ?~1645)

자는 자옥(子玉)이다. 부평 수탄면 궁동(宮洞) 출신으로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권신(權愼)

본관은 안동이며 부평 수탄면 출신이다. 문과 급제 후 조봉대부(朝奉大夫)에 올랐으며, 행돈녕부 도사(行敦寧府都事)에 증직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권신중(權信中, 1575~1633)

자는 군집(君執)이다. 본관은 안동이며 조부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권상(權常), 부는 길창군(吉昌君) 권협(權俠), 모는 정랑(正郎) 최말(崔沫)의 딸이다. 부인은 세종의 아들 광평대군(廣平大君)의 후손 사평(司評) 이정필(李廷弼)의 딸 전주 이씨(全州李氏)이다. 부평 수탄면에 거주하였다. 1605년(선조 38) 증광시 생원과 3등 45위로 합격한 후, 장원서 별제(掌苑署別提)에 제수되었다. 1606년(선조 39) 의정부 도사(議政府都事)에 임명되었다. 그 후 태복시 주부(太僕寺主簿)·형조 좌랑(刑曹佐郎)·강서 현령(江西縣令)·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창평 현령(昌平縣令)·김제 군수(金堤郡守)·여산 군수(礪山郡守)·단양 군수(丹陽郡守)·풍덕 군수(豐德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만년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으나 병으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장남이 길성군(吉城君)에 봉해지면서 좌찬성(左贊成)과 우의정(右議政)에 차례로 증직되고, 길흥군(吉興君)에 봉해졌다.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정선옹주(貞善翁主)와 혼인한 길성군 권대임(權大任)과 권대호(權大鳴) 권대식(權大式)이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이경(權以經)

본관은 안동이며 부평 수탄면 출생이다. 1638년(인조 16)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 후 문과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고, 1686년(숙종 12) 이조 참관을 역임하였다. 길평군(吉平君)에 봉해졌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권제남(權濟南)

본관은 안동이며 부평 동양동(東陽洞) 출신이다. 의금부 부총관(義禁府副總管)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권환(權換, 1636~17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권환(權煥)'으로 표기)

자는 증장(仲章), 호는 제남(濟南)이다. 본관은 안동이며 조부는 권근중, 부는 증 이조 참관 권대운(權大胤), 모는 순천 김씨(順天金氏)로 현감 두명(斗明)의 딸이다. 숙종대에 영의정을 지낸 권대운(權大運)의 조카이다. 부평 동양동(東陽洞)에 거주하였다. 이민구(李敏求)에게 수학하였으며, 허목(許穆)을 사사하였다. 1658년(효종 9) 생원시에 합격하고, 1668년(현종 9)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여러 벼슬을 거쳐 홍문관 교리·사헌부 지평 등을 지냈고 평안도와 경상도의 암행어사로 발탁되기도 하였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때에 허적(許積)·윤휴(尹鑄)등의 당인으로 연루되어 북평사(北評事)에서 파직되어, 처향(妻鄉)인 김포 제진(濟津)에서 여러 해를 보냈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다시 등용되어, 대사간·황해도 관찰사·공조참판·병조 참판·성균관 대사성·한성부 좌윤·개성부 유수 등을 역임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로 파직되어 향리에서 후진을 가르치면서 여생을 마쳤다. 기사환국 때 박태보(朴泰輔)·오두인(吳斗寅)·이세화(李世華) 등이 인현왕후 민씨의 폐출을 반대하는 상소문 때문에 화를 당하자, 반대파의 입장에서 이들을 변호하는 구제소를 올렸으므로 그 후손들로부터 재생의 은인으로

추앙을 받았다. 저서로는 『제남집』 27권이 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복관(奇福觀)

세종 때 문관으로 부정(副正)을 지냈다. 세종 때 부평에서 온천을 찾는 과정에서 기복관이 거짓으로 온천의 위치를 아뢰었다. 이것이 밝혀지자 기복관은 행적을 감추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김계원(金繼元)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부평 수탄면에 거주하였다. 무과에 급제하여 자산(慈山) 군수를 역임하였다. 말년에 부평에 낙향하여 거주하였으며, 그의 고손자가 임진왜란 때 왜군을 격퇴시킨 김민선(金敏善) 인천 부사이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김득남(金得男, 1591~1637)

자는 선술(先述), 호는 매죽헌(梅竹軒)이다.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부는 참판(參判)에 추증된 김억창(金億昌), 모는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된 의성 김씨 참봉(參奉) 지순(之淳)의 딸이다. 선원 김상용의 문인이며, 1620년(광해군 13) 무과에 급제하여 1623년(인조 원년) 선전관(宣傳官)으로서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원종공신(靖社原從功臣)에 올랐다. 1624년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키자 공주(公州)까지 인조를 호위하였고, 안현(鞍峴)에서 적을 격파하여 그 공으로 초계 군수(草溪郡守)에 이어, 백령진 첨절제사(白翎鎭僉節制使)에 제수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강화의 철곶진 첨사(鐵串津僉使)로 임명되어 수비하였으며, 이듬해 적이 강화에서 물러나자 스스로 모집한 병사 30여 명을 거느리고 부평 계양산 아래 굴포(掘浦)까지 진격하여 적 수백 명을 죽이고 포로가 된 조선의 여인

을 구출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어 도망가는 적을 계속 추격하여 싸우던 중 적의 화살을 얼굴에 맞고 순절하였다.

후에 ‘가선대부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되었으며, 강화 유수 이유(李瑜)가 표충단(表忠壇)을 세워 배향하였다. 1977년 강화의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그의 아들인 김방보(金邦寶) 역시 무장으로 난포 만호(蘭浦萬戶)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인천광역시사』(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김등(金登)

본관은 김해(金海)이며 부평 모월곶면 고잔동에 거주하였다. 김홍목의 묘역 비문에 의하면 통정대부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김만형(金萬亨, 1679~?)

자는 형중(亨仲)이다. 본관은 부평(富平)이며 부는 김여광(金麗光)이다. 1705년(숙종 31) 을유 식년 문과(乙酉式年文科) 을과에 7등으로 합격하여 사예(司藝)와 현감(縣監)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김민선(金敏善, 1542~1592)

자는 달부(達夫)이다. 본관은 광산이며 부평 출생이다. 증조부는 김한수(金漢秀), 조부는 김석경(金碩卿), 부는 김상겸(金尙謙), 모는 정건(鄭健)의 딸이다. 1572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집의(執義)가 되었다. 1581년에 경성 판관(鏡城判官)의 직책을 고의로 버리고 돌아왔으므로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

다. 헌납으로 있을 때 사간원과 사헌부가 함께 정철(鄭澈)을 탄핵하는 데 참여하여 정철·백유함(白惟咸)·유공진(柳拱辰)·이춘영(李春英) 등을 유배시켰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인천 부사로 참전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복선(金福善, 1556~?)

본관은 광산이며 부평 수탄면 오류동 출신이다. 부는 덕천 군수 김상겸(金尙謙), 인천 도호 부사 김민선의 아우이다. 1585년(선조 18) 생원시에 합격하고 병조 좌랑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김상호(金尙瑚)

본관은 부평이며 김환(金丸)의 후손이다. 좌통례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인천의 성씨·인물고』(1991), 『부평인물사』(2001).

김석순(金碩順)

본관은 광산이며 부평 수탄면 개봉동 출신이다. 인천 부사 김민선의 조부이다. 무과 출신으로 덕원(德源) 부사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김선필(金善弼, 1807~1883)

자는 중필(仲弼)이다. 본관은 안동이며 양부는 김학기(金學基), 생부는 군수를 지낸 김정기(金鼎基)이다. 1829년(순조 29)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도·충청도의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고종 때에 흥선대원군의 신임을 받아 중용되어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통

진부(通津府)에 진을 친 선봉장 이용희(李容熙)의 우익(右翼)으로 부평(富平)에 주둔하면서 수도 방위를 담당했다. 경기 중군(京畿中軍)을 거쳐,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 수로(江華水路)의 중요한 근거지인 광성진(廣城津)을 방어하다 미국군의 공격을 받아 장렬하게 전사한 진무 중군(鎭撫中軍) 어재연(魚在淵)의 후임으로 진무사(鎭撫使)가 되어 중군(中軍)을 지휘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복설(復設)된 삼군부(三軍府)의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를 거쳐 대호군(大護軍)에 이르렀다. 1882년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를 역임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순손(金舜孫, ?~1504)

부평 출신 환관이다. 1491년(성종 22) 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 하여 승전색(承傳色)이 되었으며, 다음해 상전(尙傳)이 되었으나 전지(傳旨 : 임금의 문서로 내린 명령서)의 내용을 덧붙여 전달한 죄로 장 100대를 맞았다. 1495년(연산군 1) 연산군이 상중에 궁중에서 문란한 생활을 하자 이를 간하다가 의금부에 하옥되어 장 100대를 맞고 외방에 충군(充軍)되었다가 곧 제주도 대정에 유배되었다. 다음해 왕은 제주 목사로 하여금 죄상을 문초하여 3년 후에 처형하도록 하였으나, 간관(諫官)들로부터 법에 의하여 죄상을 밝히지 않고 왕의 자의로 처벌을 명령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심한 반발을 받았다. 1504년 전 가족이 제주도로 유배됨과 동시에 그는 참형에 처하여졌으며, 목은 서울로 가져와 환관들로 하여금 구경하도록 하였다. 중종반정 후 그 공을 인정받아 1509년(중종 4) 정문(旌門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이나 마을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이 세워지고 복호(復戶 : 전세나 요역 이외에 잡부금을 면제하여 주던 일)하도록 하였으며, 상선(尙膳 : 종2품 내시부의 최고 품계)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안로(金安老, 1481~1537)

자는 이숙(頤叔), 호는 희락당(希樂堂)·용천(龍泉)·퇴재(退齋)이다. 본관은 연안이며 조부는 군수 김우신(金友臣), 부는 참의 김흔(金訢)이며, 모는 윤지(尹墀)의 딸이다. 1501년(연산군 7) 진사가 되었고, 1506년(중종 1)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전적(典籍)에 처음 임명된 뒤 수찬(修撰)·정언(正言)·부교리(副校理) 등 청환직(淸宦職,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내리는 관직)을 역임하였다. 1511년(중종 6) 유운(柳雲)·이항(李沆) 등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했고, 직제학(直提學)·부제학·대사간 등을 거쳤으며 일시 경주 부윤으로 나갔다. 1519년 기묘사화로 조광조(趙光祖) 일파가 몰락한 뒤 발탁되어 이조 판서에 올랐다. 아들 김희(金禧)가 효혜공주(孝惠公主)와 혼인해 중종의 부마(駙馬)가 되자, 이를 계기로 권력을 남용하다가 1524년 영의정 남곤(南袞)·심정(沈貞), 대사간 이항 등의 탄핵을 받고 경기도 풍덕(豐德)에 유배되었다. 남곤이 죽자 1530년 유배 중이면서도 대사헌 김근사(金謹思)와 대사간 권예(權輓)를 움직여 심정의 탄핵에 성공하고, 이듬해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서용되어 도총관(都摠管)·예조 판서·대제학을 역임하였다. 그 뒤 이조 판서를 거쳐 1534년 우의정이 되었으며 이듬해 좌의정에 올랐다. 그는 1531년 다시 임용된 이후부터 동궁(東宮 : 인종)의 보호를 구실로 실권을 장악해 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황사우(黃士佑) 등과 함께 정적이나 뜻에 맞지 않는 자를 축출하는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켰다. 정광필(鄭光弼)·이언적(李彦迪)·나세찬(羅世縝)·이행(李衍)·최명창(崔命昌)·박소(朴紹) 등 많은 인물들이 이들에 의해 유배 또는 사사되었으며, 경빈 박씨(敬嬪朴氏)와 복성군 미(福城君暉) 등 종친도 죽음을 당했다. 또한 왕실의 외척인 윤원로(尹元老)·윤원형(尹元衡)도 실각 당하였다. 중종 대 부평 운하 굴포를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537년 중종의 제2계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폐위를 기도하다가 발각되어 중종의 밀령을 받은 윤안인(尹安仁)과 대사헌 양연(梁淵)에 의해 체포되어 유배되었다가 곧이어 사사되었다. 허항·채무택과 함께 정유삼흉(丁酉三凶)으로 일컬어진다. 저서로는 『용천담적기 龍泉談寂記』·『희락당고 希樂堂稿』가 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안정(金安鼎)

본관은 풍산이다. 판상사(判尙事)를 지낸 시조 풍산백(豐山伯) 김문적(金文迪)의 7대 손으로 부는 별좌(別坐)를 지내고 이조 참관을 증직받은 김윤견(金允堅)이다. 고려 공민 왕대의 충신이다. 봉익대부(奉翊大夫) 삼사(三司) 좌윤(左尹)을 지냈으며, 사후에는 이조판서 겸 홍문관대제학을 증직받았다. 부평부(현 원당동)에 묘가 있다. 김안정의 구비(舊碑)는 2003년 12월 묘의 서쪽 5m지점에서 발굴되었다. 신비(新碑)는 후손들에 의해 1786년(정조 10) 묘의 동쪽에 세워졌다. 구비는 현재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 『서구사』(2014).

김연(金研)

본관은 광산이다. 부평 임학동에 거주하였으며 청양 현감(靑陽縣監)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김연지(金連枝)

자는 간보(幹甫), 시호는 대경공(戴敬公)이다. 세종 때 문신으로 형조 정랑, 부평도호부사, 경상도 관찰사, 대사헌을 역임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김우명(金佑明, 1619~1675)

자는 이정(以定),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본관은 청풍이며 증조는 군자감 판관 김비(金斐), 조는 참봉 김흥우(金興宇), 부는 김육(金堉), 딸은 현종의 비이다. 1642년(인조 20) 진사시에 합격하여, 강릉 참봉·세마(洗馬) 등을 역임하였다. 1654년 12월 13일 부평도호부사에 부임하고 1656년 8월 25일 병으로 그만두었다. 1659년 현종이 즉위하자 국

구(國舅)로서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에 봉하여졌다. 1616년 영돈녕부사가 되고 이어 오위도총관과 호위대장을 겸직하였다. 송시열(宋時烈)과 같은 서인이었으나 민신(閔愼)의 대부복상문제(代父服喪問題 : 실성한 아버지 대신 손자가 상주가 된 것에 대한 대립 문제)를 계기로 남인인 허적(許積)에 동조하였다. 또한, 숙종 초에 복창군 정(福昌君楨)·복평군 남(福平君柟) 형제가 궁중에 드나들면서 궁녀들을 괴롭힌 사실을 들어 이들의 처벌을 상소하였다. 그 뒤 남인 윤휴(尹鑣)·허목(許穆) 등과 알력이 심하여짐으로써 벼슬을 그만두고 두문불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인수(金仁樹)

본관은 수주(樹州)로 수주 김씨의 시조이다. 고려 초기 수주의 호족이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김창협(金昌協, 1651~1708)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삼주(三洲),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본관은 안동이며 증조부는 좌의정 김상헌(金尙憲), 부는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형은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모는 해주목사 나성두(羅星斗)의 딸이다. 1669년(현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82년(숙종 8) 증광문과에 전시장원으로 급제하여 전직에 출사하였다. 이어서 병조 좌랑·사헌부 지평·부교리 등을 거쳐 교리·이조 좌랑·함경북 도병마평사(咸鏡北道兵馬評事)·이조 정랑·집의·동부승지·대사성·병조 참지(兵曹參知)·예조 참의·대사간 등을 역임하고, 송시열(宋時烈)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劄疑)』를 교정하였다. 청풍 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진도에서 사사되자, 사직하고 영평(永平 : 현 경기도 포천시)에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 이후 아버지가 신원됨에 따라 호조 참의·예조 참판·홍문관 제학·이조 참판·대제학·예조 판서·세자우부빈객·지돈녕부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1700년(숙종 26) 부평 부사 이하조(李賀

朝)의 부탁을 받고 『사무헌기(使無軒記)』를 썼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이황(李滉)과 이이(李珣)의 설을 절충하였다. 그의 문장은 단아하고 순수하여 구양수(歐陽修)의 정수를 얻었으며, 그의 시는 두보(杜甫)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고상한 시풍을 이루었다. 특히 문장에 능하고 글씨도 잘 써서 「문정공이단상비(文貞公李端相碑)」·「감사이만웅비(監司李萬雄碑)」·「김송겸표(金崇謙表)」·「김명원신도비전액(金命元神道碑篆額)」 등의 작품을 남겼다. 숙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영암의 녹동서원(鹿洞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저서로는 『농암집(農巖集)』, 『주자대전차의문목(朱子大全筭疑問目)』, 『논어상설(論語詳說)』, 『오자수언(五子粹言)』, 『이가시선(二家詩選)』 등이 있다. 편저로는 『강도충렬록(江都忠烈錄)』, 『문곡연보(文谷年譜)』 등이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부평인물사』(2001).

김택(金澤)

본관은 부평이며 부평에서 출생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사정(司正)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김한수(金漢秀)

본관은 광산이며 부평 모월곶면 백석동(白石洞) 출신이다. 공조 좌랑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김한필(金漢弼)

본관은 광산이며 부평 수탄면 개봉동 출신이다. 중종 때 문관으로 공조 좌랑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김홍목(金洪穆)

본관은 김해이며 부평 모월곶면 고잔(현 서구 경서동) 출신이다. 가선대부에 오르고 동지사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김환(金丸)

본관은 부평이다. 경순왕의 후예로 부평에 거주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남급(南汲)

부평 오류동에 묘가 있었으나 군사 기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세종 때의 과학자이며 음악가로 대호군, 상호군을 역임하였다. 1421년(세종 3) 이천을 도와 주자(鑄字)를 개량하고 1424년(세종 6)에는 양근군의 주자소를 감독하였다. 1430년 악기 별좌(樂器別座)로 있을 때 박연(朴堧)과 함께 회례악기(會禮樂器)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죽은 후에 공조 판서로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남두장(南斗長, 1613~1689)

자는 천경(天卿)이며 본관은 의령이다. 부는 남정(南澗), 제는 남두징(南斗徵)이다. 1650년(효종 1)에 진사가 되어 2년 뒤 전설사 별검(典設司別檢)을 비롯하여 제용감 직장(濟用監直長),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 장예원 사평(掌隸院司評), 의령 현감, 한성부 판관(判官), 온양군수, 종묘서령(宗廟署令)을 거쳐 공조 정랑과 한성부 서윤(庶尹)을 지냈고 후에 광흥창 수(廣興倉守)를 역임하였다. 사후에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에 증직되었다. 묘가 부평(현 검단 원당동) 있다.

❖참고문헌 : 『경인증광사마방목』, 『서구사』(2014).

남연(南淵, 1651~?)

본관은 의령이며 부평 오정면 출신이다. 부는 통훈대부(通訓大夫) 전행의빈부도사(前行儀賓府都事) 남두추(南斗樞), 형은 남징(南澄)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학행이 뛰어났다. 1677년(숙종 3) 진사시에 합격. 세지익위사(世子翊衛司)의 위수(衛率)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남징(南澄, 1645~?)

자는 여심(汝深)이다. 본관은 의령이며 부는 통훈대부 남두추(南斗樞)이다. 부평 하오정면 여월리(如月里) 출신으로 1673년(현종 14)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남휘(南徽, 1671~?)

자는 덕조(德操)이다. 본관은 의령이며 부는 남징(南澄)이다. 부평 하오정면 여월리 출신으로 1708년(숙종 34)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당문보(唐文輔)

부평 동면 방축동 출신이다. 부평 제일의 갑부로 학식과 덕망이 높았다. 1798년(정조 22) 8월 15일 정조가 장릉(章陵)에 참배하고 다음 날 안산 행궁으로 가는 길에 부평부에서 점심을 하였는데, 부평 부사 윤광석(尹光碩)은 점심을 당문보에게 부탁하였다. 당문보는 정조의 행차 길에 광목을 깔고 융숭한 대접을 하였다. 정조가 당문보에게 소원을 물었는데 부평의 좌수(座首)가 되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아뢰어 좌수가 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당청룡(唐淸龍)

본관은 밀양이며 부는 문보(文輔)이다. 부평 동면 방축동에 거주하였다. 부친 문보에 이어 부평 유향소의 좌수가 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당효리(唐孝利)

부평 방축동에 거주하였으며 전리서 주부(典理署主簿)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맹연양(孟延陽)

부평 출신으로 중종대 부평의 좌수 겸 감여(座首兼監如)를 지냈다. 부평 거주자 김통동(金通同)·박우령(朴右齡) 등의 무고 사건에 연루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목진공(睦進恭)

1417년(태종 17) 부평도호부사로 재임할 때 우희열(禹希烈)이 부평 평야의 개간 신청을 하므로 이를 태종에게 아뢰어 윤허받았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부평 김씨(富平金氏)

신라 경순왕의 셋째 아들 영분공(永芬公) 김명종(金鳴鍾)의 18세손 김을진(金乙軫)을 시조(始祖)로 하고 있으나, 선계(先系)가 실전(失傳)되어 중간계대(中間系代)를 밝히지 못하고 조선(朝鮮) 중종 때 통훈대부(通訓大夫)·어모장군(禦侮將軍)·충좌위 부호군(忠

佐衛副護軍)에 오른 김환(金丸)을 일세조(一世祖)로 이어 오고 있다. 『부평김씨세보(富平金氏世譜)』에 의하면, 일세조 환(丸)의 아들 5형제 가운데 셋째 세삼(世參)과 넷째 세진(世軫)의 후대(後代)에서 관동파(關東派)와 호서파(浩西派)로 갈리었으며, 막내 세규(世奎)의 후대에서는 화순파(和順派)와 영광파(靈光派)로 분파되었다. 부평 김씨가 자랑하는 인물(人物)인 학자(學者) 세규(世奎)는 성리학(性理學)에 정통하고 고금의 예절에 박통(博通)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1582년(선조 15)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당대에 이름난 학자 정경세(鄭經世)·김선원(金仙源) 등과 교유하며 교수직을 맡아 사도(士道)와 효제(孝悌)를 크게 일으켰다. 한편 그의 손자 극수(克粹)는 인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선무랑(宣務郎) 과 울봉 찰방(栗峯察訪)을 역임했고, 경립(慶立)의 아들 택(澤)은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사복시 정(司僕寺正) 등을 거쳐 대사간과 공조 참판을 지냈다. 그 외 이태(履兌)의 아들 여정(麗精)은 통정대부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으며, 상호(尙瑚)의 아들 응추(應秋)는 승문원좌승지(承文院左承旨)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에 추증되어 가문을 빛냈다.

❖참고자료 : '아까돈보' 개인 블로그(<http://blog.daum.net/kyk548/8944352>)

민경영(閔慶榮)

본관은 여흥이며 부평 오정면 출신이다. 현종대 예문관 검열(檢閱)을 거쳐 감역(監役)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민기(閔機, 1568~1641)

자는 자선(子善), 호는 서한당(棲閑堂)이다. 본관은 여흥이며 조는 군수 민사용(閔思容), 부는 정랑 민여준(閔汝俊), 모는 전주 이씨로 충의위 경종(敬宗)의 딸이다. 장흥고 영여건(汝健)에게 입양되었다. 학문에 힘써 1597년(선조 30)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에 들어간 뒤 전적을 역임하고,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다. 특히, 제주 목사로 부임한

뒤 7개월 동안에 탐관오리를 몰아내고 공역(工役)을 과하였으며, 수입을 박하게 하여 지출을 절약하게 함으로써 제주도민을 숙연하게 하였다. 뒤에 경주 부윤을 지냈으며 청백리로서 선정을 베풀어 명성이 높았다. 1634년 부평도호부사로 부임하였으나 1635년 파직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언기(閔彦基)

본관은 여흥이며 부평 오정면 출신이다. 순조대 통덕랑에 올랐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민영목(閔泳穆, 1826~1884)

자는 원경(遠卿), 호는 천식(泉食),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본관은 여흥이다. 민달용(閔達鏞)의 아들로, 민태용(閔泰鏞)에게 입양되었다. 1871년 알성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881년 이조판서로 승진했으며, 곧 이어 군무변정기연사 당상(軍務邊情議沿司堂上)과 한성부 판윤에 올랐으며, 평안도 관찰사도 역임하였다. 1883년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가 되어 전권대사로서 조영(朝英) 및 조독수호조약(朝獨修好條約)을 조인하였다. 또한, 그 해 1월 일본과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을 체결하였고, 6월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및 해관세칙(海關細則)·일본인어채범죄조규(日本人漁探犯罪條規)·조선국간행리정약조(朝鮮國間行里程約條) 등을 조인하였다. 그리고 8월 인천일본조계조약을 체결하였다.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개화주의자인 박규수(朴珪壽) 등과 같이 서양의 기술 도입과 개국 통상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1882년의 임오군란 때 변장 도주한 민비(閔妃)의 장례를 치를 때 이회정(李會正)·정범조(鄭範朝)와 함께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박문국 당상(博文局堂上)이 되어 박영효(朴泳孝)·유길준(兪吉濬)·김윤식(金允植)·김만식(金晩植) 등과 같이 1883년 10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를 발간하였다. 같은 해 경기만 일

대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평에 일시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하였을 때 총리기연해방영(總理畿沿海防營) 책임자로 부임하였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 때 병조 판서로 조영하(趙寧夏)·민태호 등 수구당 요인과 경우궁(景祐宮)으로 입궐하다가 김옥균(金玉均) 등 개화당 인사들에 의해 참살 당하였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우경(閔宇慶)

본관은 여흥이며 부는 광흥 군수 민홍준(閔弘俊)이다. 부평 작리(鵠里) 출신으로 정선 군수(旌旋郡守)를 지냈다.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민의준(閔毅俊)

본관은 여흥이며 부는 단양 군수 민희설(閔希說)이다. 부평 오정면 작리(鵠里) 출신 진사(進士)이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민이승(閔以升, 1649~1698)

자는 언휘(彦暉), 호는 성재(誠齋)이다. 본관은 여흥이며 부평 하오정면 작리 출신이다. 부는 민만(閔晩), 모는 이천 서씨(利川徐氏), 처는 한산 이씨(韓山李氏), 자는 윤창(允昌)·경창(景昌)·회창(會昌)이다. 어려서부터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사서와 육경(六經)을 통독하면서 문장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이후 윤증(尹拯)의 문하에 들어가 능력을 인정받았고, 당대 석학이던 김창협(金昌協)과 교류하면서 그 명성을 떨쳤다. 1682년(숙종 8) 대신들의 천거로 창릉(昌陵)과 영릉(英陵)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으며, 후에 효릉 참봉(孝陵參奉)에 제수되어 잠시 부임하였다. 그 후 좌랑(佐郎)과 위수(衛率)를 거쳐, 왕실의

계보인 『선원보첩(璿源譜牒)』을 편집·기록하고, 종실의 잘못을 조사하고 규탄하는 임무를 맡아 보던 관청인 종부시의 주부로 제수되자 사양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명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 제자백가 연구로 여생을 보냈다. 저서로는 『성재집(誠齋集)』이 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정식(閔廷植, 1780~1894)

본관은 여흥이며 부평 하오정면 여월리 출신이다. (금부 도사)(禁府都事)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민종원(閔宗元)

본관은 여흥이며 부평 하오정면 작리 출신이다. 문과 급제 후 통정대부에 올랐고 영유(永柔) 현령을 역임하였다. 자헌대부 공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민취(閔取)

본관은 여흥이며 부평 오정면 출신이다. 순조대 통훈대부에 올랐으며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민홍준(閔弘俊)

본관은 여흥이며 부평 오정면 작리 출신이다. 광흥 군수(廣興郡守)를 지냈다.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민희눌(閔希訥, 1558~?)

자는 이민(李敏)이다. 본관은 여흥이며 부평 작리 출신이다. 영락 찰방(永樂察訪)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민희설(閔希說)

본관은 여흥이며 부평 오정면 작리 출생이다. 인종대 인물이다. 통훈대부에 올랐고 단양군수(丹陽郡守)를 지냈다. 가선대부, 이조참판, 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 吏曹參判, 同知義禁府事)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민희열(閔希閱)

본관은 여흥이며 부평 하오정면 작리에서 거주하였다. 동복 군수(同福郡守)를 거쳐 가선대부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강(朴綱)

본관은 밀양이며 부평 박촌동 출신이다. 비문에 선략장군(宣略將軍)이라 쓰여 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경복(朴慶福)

본관은 죽산이며, 부평 옥산면 벌응절리 출생으로 부평 연희동으로 이주하였다. 1880년(고종 17) 선공감 역(繕工監役)을 지냈고, 법무부 주사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교(朴校)

본관은 죽산이며 부는 장악원첨정 박영남(朴英男)이다. 부평 벌응절리 출신이다.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규문(朴圭文, 1670~?)

자는 문서(文瑞), 호는 궁교(窮交)이다. 본관은 밀양이며 부평 상오정면 삼정리(三井里)에서 출생하였다. 부는 승정원 주서 박선(朴漣)이다. 1723년(경종 3) 증광시에 합격하고,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 장연 현감(長淵縣監),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세자시강원 필선(世子侍講院弼善) 등을 역임하였다. 계양 8문장(八文章)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저서로는 『궁교집(窮交集)』이 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박기남(朴奇男)

본관은 죽산이며 부평 벌응절리 출신이다. 부는 인제 현감 박문필(朴文弼). 인조대 통훈대부에 올라 중림 찰방(重林察訪)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길성(朴吉城, 1592~?)

본관은 밀양이며 부평 석곶면 포리(浦里) 출생이다. 통훈대부에 올랐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대남(朴大男)

자는 응언(應彦)이다. 본관은 죽산이며 부평 벌응절리(伐應節里) 출신이다. 안성 군수(安城郡守)와 기호병마진관도위(畿湖兵馬鎭管都尉)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대충(朴大忠)

본관은 밀양으로 부평향교 교생이다. 임진왜란 때 박무영, 이언복 등과 함께 부평향교 대성전의 위판을 계양산에 토광을 파고 보존하였다. 이 공으로 참봉이 되었으며 부역을 면제받았다.

❖참고문헌 : 『부평사』(2007), 『부평인물사』(2001).

박동선(朴東善, 1562~1640)

자는 자수(子粹), 호는 서포(西浦), 시호는 정헌(貞憲)이다. 본관은 반남으로 증조부는 박조년(朴兆年), 조부는 사간 박소(朴紹), 부는 사재감 정 박응천(朴應川), 모는 사옹원 참봉 김희려(金希呂)의 딸, 자는 금주군(錦州君) 정(烜)이다. 1589년(선조 22) 28세에 진사가 되었고, 다음 해 증광 별시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에 들어갔으며, 여러 벼슬을 거쳐 병조 좌랑이 되었다. 그 뒤 남포 현감으로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는데, 논공행상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제외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는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켰다. 그 뒤 성균관 전적·직강·예조 좌랑·병조 좌랑·사복시 정 등을 차례로 지내고, 경기도사·수안 군수에 이어 인천·부평·남양 등의 부사가 되어 가는 곳마다 치적이 있었다.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그를 대사간에 임명하자 광해군의 패륜 행위를 못 마땅히 여겨 사양했지만 참의로 임명되었다. 이어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였다. 1613년(광해군 5) 폐모론이 일어나자 이를 적극 반대하고 시골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인조반정으로 대사간이 되었으며, 이듬해인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병조 참의로서 인조를 모시고 공주로 피난 갔다. 난이 평정된 뒤 돌아와 가

선대부로 대사헌이 되었고, 이조 참관을 거쳐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모시고 강화로 갔으며, 형조 판서·좌참찬·우참찬·지돈녕부사·지중추부사 겸 지경연사·지의금부사·춘추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늙고 병든 몸으로 왕손을 호종하고 강화·교동·호서 등지로 피난했다가 난이 끝난 뒤 한성에 돌아와 좌참찬이 되었다. 저서로는 『서포기문(西浦記聞)』이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리(朴理)

본관은 밀양이며 부평 동면 병방리 출신이다.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다. 박촌동에 묘가 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무영(朴茂榮)

부평 박촌동 출신이다. 부평향교의 교생으로 임진왜란 때 박대충, 이언복 등과 함께 부평향교 대성전의 위판을 계양산에 토광을 파고 보존하였다. 난 후 참봉이 되었고 부역을 면제 받았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문좌(朴文佐)

자는 영화(榮和)이다. 본관은 죽산이며 부평 벌응절리 출신이다. 인조대 사옹원 봉사(司饗院奉事)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문필(朴文弼)

본관은 죽산이며 부평 벌응절리 출신이다. 조는 박철정(朴鐵貞), 부는 박진(朴震)이다. 인조대 문관으로 인제 현감(麟蹄縣監)을 지냈다.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봉령(朴鳳齡, 1647~1728)

자는 명원(鳴遠)이다. 본관은 반남이며 부는 박수(朴琇), 처는 숙부인 개성 왕씨(淑夫人開城王氏)이다. 인천 원우금에서 부평 가좌동으로 이주하였다. 부사과(副司果)를 지내고 사후에 우승지(右承旨)의 벼슬을 증직받았다. 무인으로 절충장군에 올랐으며, 행 용양위 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을 지내고 사후 첨지중추부사에 추증되었다. 묘가 부평(현 서구 가좌동)에 있다.

❖참고문헌 : 『서구사』(2014).

박사들(朴士堧)

본관은 밀양이며 부평 박촌 출신이다. 밀양 박씨 가족 묘역 비문에 가선대부(嘉善大夫)라고 쓰여 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상일(朴商一)

부평 동면 박촌 출신으로 용양위부호군(龍讓衛副護軍)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상충(朴尙衷, 1332~1375)

자는 성부(誠夫)·초옥자(草屋子),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본관은 반남으로 부는 밀직 부사 박수(朴秀)이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정랑(禮曹正郎)이 되어 향사(享祀)의 법식을 마련했다. 우왕 초 모친 3년 상을 치르고 전교령(典校令)이 되어 신진 유학파로서 친명책(親明策)을 주장하며 이인임(李仁任) 등의 친원과(親元派)에 대항했다.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올랐을 때 북원(北元)의 사신이 오자 간관 이첨(李詹)·전백영(全伯英) 등과 상소하여 북원과 통하는 것을 반대하고 친원과 이인임과 지윤(池淵)의 주살을 주장한 것에 연좌되어 친명과인 전녹생(田祿生)·정몽주·김구용·이승인·염흥방(廉興邦) 등과 함께 귀양 도중 44세로 죽었다. 경사(經史)와 역학(易學)에 밝고 문장에 능했다. 나주 반계서원(潘溪書院)과 개성 오관서원(五冠書院)에 10대손 박세채(朴世采)와 함께 배향되었다. 묘가 부평(현 서구 검단 대곡동 두밀)에 있다.

❖참고문헌 : 『서구사』(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선(朴澗, 1642~?)

자는 심원(深源)이다. 본관은 밀양이며 부평 상오정면 삼정리 출신이다. 증조부는 박일현(朴逸賢), 조부는 박희(朴晞), 부는 박인행(朴仁行), 자는 박규문(朴奎文)이다. 1683년(숙종 9) 문과에 합격. 통덕랑에 올랐으며 승정원 주서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박세견(朴世堅 1619~1683)

자는 중고(仲固), 호는 단애(湍厓)이다. 본관은 반남이며 조부는 박동선(朴東善), 부는 이조 참판 박정(朴炡), 모는 강원도 관찰사 윤안국(尹安國)의 딸. 1639년(인조 17) 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한 뒤, 1643년(인조 21) 건원릉 참봉이 되었으나 얼마 뒤 사직하고, 1644년에 사산감역(四山監役), 1646년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시직(侍直)·위수(衛率)·익찬(翊贊)을 거쳐 사어(司禦)에 이르렀다. 1648년 흡곡 현령(歙谷縣令)을 거쳐 공조

정랑·마전 군수(麻田郡守)를 역임하고, 1654년(효종 5) 춘당대 정시(春塘臺庭試)에 병과로 급제, 다음 해 직강(直講)·장령(掌令)을 제수받은 뒤 대각(臺閣)에 출입, 시정(時政)을 소론(疏論)하였다. 그 뒤 정언·문학(文學)·집의(執義)의 직책과 충청도 청풍 군수·강원도사·통진 현감(通津縣監)을 역임하였다. 1669년(현종 10)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보덕이 되고 동부승지·병조 참의·좌부승지를 지냈다. 군읍(郡邑)을 다스릴 때 청렴하여 백성으로부터 인심을 얻었으나 관리들의 비위에 맞지 않아 증상모략을 받았다. 묘가 부평(현 서구 검단 대곡동 두밀)에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세모(朴世模, 1610~1667)

자는 여도(汝道)이다. 본관은 반남이며 증조부는 박응복(朴應福), 조부는 박동열(朴東說)이고, 부는 첨지중추부사 박호(朴濠), 모는 신흠(申欽)의 딸이다. 1630년(인조 8) 진사시에 합격, 1645년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세마(洗馬)를 지냈다. 1654년(효종 5) 춘당대 정시에 갑과로 급제하여 전적·병조 좌랑·정언·직강·지평·사예·부평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60년(현종 1) 사간으로 있을 때, 제1차 예송이 일어나자 기년제(基年制)를 주장하여 채택하게 하였다. 이듬해 첨지중추부사에 이어 좌승지·도승지·내의원 부제조·한성부 우윤·동지의금부사를 거쳐 경기도 관찰사로 나갔다. 그 뒤 도승지·예조 참판·개성부 유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온건한 서인 계열로 홍명하(洪命夏)·박장원(朴長遠)·이경휘(李慶徽)·서필원(徐必遠)·이상진(李尙眞) 등과 교유하였고, 특히 윤선거(尹宣擧)와는 우의가 두터웠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세재(朴世粹, 1681~?)

자는 자안(子安)·자하(子廈)이다. 본관은 밀양이며 부는 어모장군(禦侮將軍) 행 미관진병마첨절제사(行彌串鎭兵馬僉節制使) 박정호(朴廷豪), 형은 시재(時粹)·명재(明粹)·

민재(旻粹), 제는 양재(良粹)이다. 1706년(숙종 32) 정시 무과에서 병과 166위로 급제하였고, 1707년(숙종 33) 증시 무과에서 병과 22위로 급제하였다. 1728년(영조 4)에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발생하자 조정에서 도순무(都巡撫)의 대군을 급파하였는데, 대군에 대한 후원군이 없음을 고려하여 군대를 통솔할 맹장(猛將)들을 모집하였다. 이때 모집에 자원하여 이형원(李馨遠) 등과 함께 파견되었다. 이후 죽산에 위치한 좌간령(左棧嶺)에 도달하여 도주 중인 잔당들을 습격하였다. 그 결과 많은 수급을 바쳤지만, 대신(臺臣)으로부터 오인하여 죽인 양민이 많다는 탄핵을 받았다. 임금은 당시의 정황을 보고받은 뒤, 그의 군대에게 명령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백성의 장사를 지내주고,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도록 하였다. 이후 박세재(朴世粹)를 체포하여 국문(鞫問)하였다. 검토관(檢討官) 신치근(申致謹)이 그가 양민들을 학살한 것은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목에 해당하므로 엄한 형벌로 다스리도록 건의하였지만, 임금은 사사로운 뜻에서 사람을 죽인 것과는 다르므로 처벌을 완화하도록 하고하였다. 묘가 부평(현 서구 가좌동)에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수안(朴守安, ?~1584)

부평 석곶면 포리(浦里)에 거주하였다.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아불화(朴阿不花)

본관은 부평이며 부평 출신 내시이다. 원나라에 끌려가 고위 관직에 오른 뒤 고려를 도왔다. 이 공으로 계양군(桂陽君)에 봉해졌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영남(朴英男)

본관은 죽산이며 부평 벌응절리 출신이다. 부는 인제 현감 박문필(朴文弼)이다. 통훈대부에 올랐고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우(朴祐, ?~1584)

본관은 밀양이며 부평 석곶면 포리 출신이다. 중종대 초시에 합격하여 참봉이 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익(朴義)

고려 충렬왕 때 무관이다. 충렬왕이 부평 징맹이고개에서 매사냥을 즐길 때 오리 한 마리를 상납하여 왕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왕은 어의(御衣) 한 벌을 하사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익몽(朴義蒙)

본관은 밀양이며 부평 석곶면 포리에 거주하였다. 갑산 부사(甲山府使)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익진(朴義眞)

본관은 밀양이며 부평 석곶면 포리 거주하였다. 용양위 부사과(龍讓衛副司果)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응인(朴應寅, 1532~1606)

자는 원중(元仲)이다. 본관은 반남이며 증조부는 박임종(朴林宗), 조부는 이조 정랑 박조년(朴兆年), 부는 사간 박소(朴紹)이며, 모는 남양 홍씨(南陽洪氏) 사부(士俯)의 딸이다. 양부는 집(緝). 유조인(柳祖訥)에게 수업하였으며, 1558년(명종 13)에 사마시에 합격한 뒤 의금부 도사, 주부(主簿)를 거쳐 1592년(선조 25)에 상의원 정(尙衣院正)이 되었다. 1594년 연안 부사가 되었으나 탄핵당하였고, 다음해 봉산 군수로 재임 중 파직당하였다. 1599년에 인의(引儀)가 되었고, 이때 왕비가 수안(遂安)으로 옮겨갈 때 호위를 맡은 공으로 가자(加資)되었다. 묘가 부평(현 검단 대곡동 두밀)에 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남계집(南溪集)』, 『잠곡유고(潛谷遺稿)』, 『서구사』(2014).

박익몽(朴義蒙)

본관은 밀양이며 부평 석곶면 포리에 거주하였다. 무과에 급제한 후 갑산 부사(甲山府使)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인(朴仁)

본관은 밀양이며 부평 동면 박촌동 출신이다. 묘비에 의하면 인조대 용양위 부호군(龍讓衛副護軍)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일상(朴一商)

본관은 밀양이며 부평 박촌동 출신이다. 1650년(효종 원년) 용양위 부사과(龍讓衛副司果)에 올랐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임중(朴林宗 1434~1500)

자는 태지(泰之)이며 본관은 반남이다.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지내고 외직으로 나가 상주목사를 지냈다. 벼슬이 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묘가 부평(현 검단 대곡동 두밀)에 있다.

❖참고문헌 : 『서구사』(2014).

박정(朴廷, 1596~1632)

자는 대관(大觀), 호는 하곡(霞谷),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본관은 반남이며 증조부는 증 영의정 소(紹), 조부는 사재감 정 응천(應川), 부는 좌참찬 동선(東善), 모는 청선군(淸城君) 이걸(李傑)의 딸이다. 1619년(광해군 11)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보임되었다가 아버지가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고 유배되자, 사직하고 시골에 내려와 독서로 자적하였다. 1623년 인조 반정에 참여해 정사(靖社) 3등 공신에 책록되었다. 같은 해 홍문관 정자·박사를 거쳐 다음 해 사간,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사헌부의 장령(掌令)·집의(執義), 검상 등을 역임하였다. 1625년(인조 3) 부응교 유백증(柳伯曾),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나만갑(羅萬甲) 등과 함께 대사헌 남이공(南以恭)을 광해군 때에 당파를 만들고 권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탄핵했다가 오히려 함평 현감으로 좌천되었다. 1626년(인조 4) 문과 증시에 급제해, 다음 해 동부승지가 되어 호패법 강화를 주장했고, 그 뒤 대사간·병조 참지·병조 참의를 지냈다. 이어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않았으며, 다시 대사간으로부터 봉당을 만들어 자기파를 천거했다는 탄핵을 받고 좌천되어 남원 부사가 되었다. 금주군(錦州君)에 봉해지고 1631년 대사간·대사헌을 거쳐 이조 참판에 특진되었다가 홍문관 부제학에 임명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소서파(小西派)의 핵심 인물이다. 묘와 신도비가 부평(현 검단 대곡동 두밀)에 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중현(朴鍾賢, 1666~1728)

본관은 밀양이며 부평 상오정면 삼정리 출생이다. 부는 박윤기(朴允基)이다. 통정대부에 올랐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주봉(朴周鳳)

본관은 죽산이며 부평 벌응절리 출신이다. 1870년(고종 7) 부평 중심성(衆心城) 축조 때 헌금을 내고 공사 감독을 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진(朴珍)

부평 박촌 출신으로 비문에 호조 참의(戶曹參議)를 지냈다고 쓰여 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철정(朴鐵貞)

본관은 죽산이다. 임진왜란 때 부평 작동 장대산(將垓山) 주변 사래리(士來里)에서 의병 300명을 이끌고 커다란 전공을 세웠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박춘동(朴春東)

부평의 부자로 계양산 중심성 축조 때 부사 박희방과 함께 부평부의 중군(中軍)으로 재직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변강지(卞綱之)

자는 국맥(國脈)이다. 본관은 초계·밀양으로 부평 주화곶면 고강동 출생이다. 증조부는 변을명(卞乙明), 조부는 변예생(卞禮生), 부는 변종인(卞宗仁)이다. 1480년(성종 11)에 생원 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변건원(卞乾元, ?~1658)

자는 희주자(希注子)이다. 본관은 초계·밀양이며 부평 모월곶면 고강동 태생이다. 공장공 변종인의 후손으로 선무랑(宣撫郎)에 올랐다.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변삼근(卞三近, 1579~1648)

자는 성지(誠之), 호는 오정(梧亭)이다. 본관은 초계·밀양이며 부평 주화곶면 고강동 출신이다. 증조부는 변응몽(卞應夢), 조부는 변희전(卞希詮), 부는 박건원(卞乾元), 모는 김침(金琛)의 딸이다. 1611년(광해군 3)에 유학으로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14년에 주서(注書)가 된 뒤 사관(史官)으로 활약하였으며, 1618년에는 경기도 도사(京畿道都事)가 되었다. 그 뒤 여러 관직을 거쳐 1626년(인조 4)에는 부사(府使)로 재직 시 비변사(備邊司)의 상계로 무신으로 발탁되어 성천에 파견되었다. 1633년(인조 11)에 집례(執禮)로서 반숙마(半熟馬) 1필을 받았으며, 이듬해도 섭통례(攝通禮)로서 아마(兒馬) 1필을 받았다. 1641년에는 참관으로 진하 겸 진주사(進賀兼陳奏使)의 부사(副使)로 정사(正使) 인평대군(麟坪大君), 서장관(書狀官) 홍처량(洪處亮) 등과 함께 청에 다녀왔다. 신도비가 고강동에 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변예생(卞禮生)

본관은 초계·밀양이며 부평 주화곶면 고강동 출생이다. 부는 변을명(卞乙明)이다. 세종대 대군사직(大軍司直)을 지냈다.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변유지(卞維之)

본관은 초계·밀양이며 부평 주화곶면 고강동 사람이다. 주부(主簿)와 낭장(郎將)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변응몽(卞應夢)

자는 서옹(瑞翁)이다. 본관은 초계·밀양이며 부평 주화곶면 고강동 출신이다. 증조부는 우군사 정(右軍司正)을 지냈으며 세종 때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된 변예생(卞禮生), 조부는 성종 때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공조 판서(工曹判書) 등을 지낸 변종인(卞宗仁), 부는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와 종사랑(從仕郎)을 지낸 변강지(卞綱之)이다. 1519년(중종 14) 식년시에 진사 3등 16위로 입격하였다. 1545년(명종 즉위년)에 신계 현령(新溪縣令)으로 재임 중에 윤원형(尹元衡) 등이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켜 윤임(尹任)과 계림군(桂林君) 이유(李瑠) 등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당시 계림군 이유가 금강산(金剛山)의 연맥(連脈)인 황룡산(黃龍山)에 숨어 있었는데, 9월에 토산 현감(兎山縣監) 이감남(李坎男)·이천 현감(伊川縣監) 조계문(曹季文)·평강 현감(平康縣監) 박광국(朴光國)·곡산 군수(谷山郡守) 신수(申洙) 등과 함께 계림군을 체포하여 공을 세웠다. 이 공으로 10월에 통정대부로 품계가 올랐다. 사후에 통례원 좌통례(通禮院左通禮)로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변종인(卞宗仁, 1433~1500)

자는 자원(子元), 시호는 공장(恭莊)이다. 본관은 초계·밀양이며 부는 변예생이다. 부평 주화곶면 고강동에 거주하였다. 1460년(세조 6) 무과에 급제,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워 당상관이 되었다. 1473년(성종 4) 오랑캐가 북변을 침범하자 조전장(助戰將)으로 공을 세워 가선대부에 오르고, 그 공으로 1478년(성종 9) 온성도호 부사(穩城都護府使)가 되었다. 1481년 공조 참판을 거쳐 전라도 병마절도사·영안북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1486년 영안북도 병마절도사로서 오랑캐의 침입을 방어하지 못하고 태만하였다는 이유로 장형에 처해져 변방으로 충군(充軍)되었다가 다음해 풀려나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어 진향사(進香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다음 해 충청도 수군절도사에 이어 공조 참판·영안남도 병마절도사를 지내고, 다시 영안북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1494년 지중추부사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96년(연산군 2)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이어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하여 전후 12회에 걸쳐 변방을 지키는 임무를 맡아 국방을 튼튼히 하는 데 공헌하였다. 1498년(연산군 4) 65세의 고령임을 들어 수군절도사를 사임하였으나 다시 공조 판서에 임명되었고, 그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옮겨 재직 중 죽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변충원(卞忠元, 1568~?)

자는 신초(薰初)이다. 본관은 초계·밀양이며 부는 변희겸(卞希謙)이다. 부평 주화곶면 고강동 사람이다. 1603년(선조 36)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김포 현령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변혁조(卞赫祚, 1730~1808)

자는 명숙(明叔)이다. 본관은 초계·밀양이며 부평 주화곶면 고강동 출신이다. 부는 변광서(卞光緒). 1763년(영조 39) 생원시에 합격. 1770년(정조 원년) 문과에 급제.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서경서(徐景瑞, ?~1592)

본관은 달성이며 부평 석곶면 가좌리 출신이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선략장군(宣略將軍)에 올랐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서계(徐葵, 1625~1654)

본관은 장성이며 부평 동소정면 향동 출신이다. 명예직으로 가선대부 용양위 부호군(嘉善大夫龍讓衛副護軍)을 받았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서광년(徐光年)

본관은 달성이며 부평 석곶면 가좌리 출신이다.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성균관 교수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서노(徐瑤, 1643~1703)

본관은 장성이며 부평 동소정면 향동 출생이다. 명예직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서병순(徐秉淳)

본관은 장성이며 부평 동서정면 구산리 출신이다. 정조대 인물로 조부는 효자 서채량(徐采亮)이다.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서용보(徐用輔)

1852년(철종 3) 군자감 판관으로 있다 같은 해 2월 부평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다음 해 8월 부평향교를 중수하였다. 부평향교 명륜당에 걸어 놓은 현액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서용보가 쓴 것이다. 1853년 11월 15일 무안 현감으로 옮겨 갔다.

❖참고문헌 : 『부평군읍지』(1899), 『부평인물사』(2001).

서제한(徐弟漢, 1666~1726)

본관은 장성이며 부평 동소정면 향동 출생이다. 가선대부 용양위 부호군(嘉善大夫龍讓衛副護軍)에 올랐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서채량(徐采亮, 1779~?)

본관은 장성이며 부평 동소정면 향동 태생이다. 모는 밀양 박씨 두철(杜哲)의 딸이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으로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 직을 받았다. 효자 정려가 내려졌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서한재(徐漢宰 1658~?)

본관은 장성이며 부평 동소정면 향동 출생이다. 가선대부 용양위 부호군(嘉善大夫龍讓衛副護軍)에 올랐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선응시(宣應時)

부평 출신으로 아버지의 병이 위중하자 단지(斷指)하여 아버지의 입에 피를 흘려 소생시켰다. 부친 사후 3년 동안 죽만 먹고 묘막에서 살았다. 1655년(효종 6) 효자 정려를 내렸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성침(成琛)

본관은 창녕이며 부는 창산군(昌山君) 영의정 성희안(成希顔)이다. 1535년(중종 30) 1월 부평도호부사로 부임, 12월 체차. 중종반정 때 공을 세워 정국공신이 되었으며, 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고 자헌대부 창성군에 봉해졌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손변(孫抃, ?~1251)

초명은 습경(襲卿)이다. 본관은 부평으로 현재의 계양구 굴현동에서 태어났다. 과거에 급제하여 천안부 판관(天安府判官)으로 나가 치적이 드러나 공역서 승(供驛署丞)에 특진되었다. 1226년(고려 고종 13) 금(金)의 우가하(汚哥下)가 몽고군으로 변장하고 의주·정주(靜州) 지방에 침입해오자 예부 원외랑(禮部員外郎)·서북면 병마판관(西北面兵馬判官)으로서 병마 부사(兵馬副使) 김희제(金希礪)와 함께 출진, 압록강 넘어 석성(石城)까지 쳐들어가 적을 패물시켰는데 이때에 읊은 칠언고시(七言古詩)가 『동문선』에 수록되어 전한다. 그 뒤 예부 시랑(禮部侍郎)이 되었는데 누명을 입어 섬에 유배되었다가 곧 경상도 안찰부사(慶尙道按察副使)로 관직을 회복하였다. 이 때 부모의 유산 문제로 일어난 남매간의 송사(訟事)를 지혜 있게 해결하는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는데, 이는 고려시대 재산상속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료이다. 1236년 관소부감사(判少府監事)로서 서북면 지병마사(西北面知兵馬使)에 임명되고 1242년 판합문사(判閣門事)·삼사사(三司使)·동궁 시독사(東宮侍讀事), 다음해 전라도 순문사(全羅道巡問使)에 올랐다. 1248년(고

려 고종 35) 추밀원사(樞密院使)로서 몽고에 다녀왔으며, 벼슬이 수사공상서좌복야(守司空尙書左僕射)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국준(宋國準 1588~1651)

자는 평중(平仲)이다. 본관은 은진이며 증조부는 군수 송세훈(宋世勛), 조부는 장사랑(將仕郎) 송화수(宋樺壽), 부는 진사 송희득(宋希得), 모는 생원 이경홍(李慶洪)의 딸이다. 1624년(인조 2)에 생원이 되고, 1627년(인조 5)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에 있다가 참봉·봉사·직장을 거쳐, 성균관 전적·병조정랑 겸 춘추관기사관, 예조·형조 좌랑, 성균관 직강·충청도 도사·예조정랑 겸 춘추관기사관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 윤집(尹鑣)·이영현(李英顯)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그 뒤 병조 정랑·종친부 전첨(宗親府典籤)을 거쳐, 부평 부사·단천 군수 등을 지냈다. 이어 성균관에 들어가 직강·전적·사에 등을 역임하고 통례원 상례(通禮院相禮)를 지냈다. 상의원정 겸 선전관을 거쳐 양양 부사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송자대전』, 『국조방목』, 『국조인물고』.

송윤(宋玆, 1603~?)

자는 영중(瑩中)이다. 본관은 진천이며 부는 선교랑(宣敎郎) 송상질(宋尙質), 형은 빈(宋玘)과 완(琬), 제는 전(瑑)과 환(煥)이다. 1618년(광해군 10) 무오 식년 사마시(戊午式年司馬試)에 생원 3등으로 합격하였으며,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청의 군사가 부평을 침입하여 부평부 관아와 향교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싸인 향교로 뛰어들어 공자를 비롯한 여러 성인들의 위패를 모시고 탈출해 나왔다. 그리고 이 위패들을 공촌동 별관에 은밀히 안치시켜 두었다가 전쟁이 끝난 뒤, 향교 자리에 가막을 짓고 봉안하여 찬사를 받았다. 1648년(인조 26) 무자 식년 사마시(戊子式年司馬試)에 생원 2등으로 합격하였다. 이어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부총

관(同知中樞府使兼五衛都摠府副摠官)이 되었다. 또한 향교 재건에도 공을 세워 『청금록(靑衿錄)』에 제1호로 등재되었다.

❖참고문헌 : 『인천광역시사』(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군(申君)

부평 수탄면 고척동(高尺洞) 출신이다. 1502년(연산군 8) 무과 급제. 용강(龍岡) 현령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신씨(辛氏)

본관은 영월이다. 부평지역의 열부이다. 이명환(李明煥) 어머니가 종기로 고생하자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어 낫게 해 드렸다. 남편이 죽자 장례를 치르고 졸곡(卒哭) 이후 남편을 따라 자결하였다. 열녀 정려가 내려졌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신영(申瑛, 1499~1559)

자는 연보(攔甫), 시호는 이간(吏簡)이다. 본관은 평산이며 부는 신세경(申世卿)이다. 김식(金湜)의 문인이다. 1516년(중종 11) 진사시에 합격하고, 2년 후 알성 문과에 장원하여 홍문관에 등용되어 수찬(修撰)으로 있을 때 화를 입은 스승을 변호하다가 탄핵을 받았다. 뒤에 형조 좌랑을 거쳐 함경도 도사를 거쳐 공조, 형조, 병조의 정랑(正郎)과 지평(持平)을 역임했다. 하지만 권력층의 미움을 사 수원 부사로 좌천되었으나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다. 뒤에 한성부 서윤(漢成府庶尹)을 지내고 10여 년 동안 이조, 호조, 예조, 병조의 참관을 역임하고, 대사헌, 대사간, 호조 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올랐다가 지중추부사에 이르러 사직하였다. 묘가 부평(현 검단 대곡동 황골)에 있다.

❖참고문헌 : 『서구사』(2014).

신영훈(申永勳)

본관은 평산이며 부평 향동에서 성장하였다. 무과에 급제한 후 사천 현감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신정희(申正熙, 1833~1895)

자는 중원(中元), 호는 향농(香農), 시호는 정익(靖翼)이다. 본관은 평산이며 부는 판중추부사 신헌(申櫛)이다. 무과에 급제한 뒤 1877년(고종 14) 좌·우포도대장을 역임하였다. 1879년(고종 16) 인천의 화도진(花島鎭) 부평의 연희진(連喜鎭) 설치를 감독하였다. 1881년(고종 18) 통리기무아문 당상(統理機務衙門堂上)에 취임하였고, 형조 판서를 거쳐 1882년에 다시 어영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 해 임오군란이 일어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단행되었을 때 장어대장(壯禦大將)직에 있던 그도 파직되어 임자도(荏子島)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고향으로 방축(放逐)되었다. 1884년 석방되어 친군후영사(親軍後營使)를 역임하였다. 1893년에는 한성부윤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였다. 당시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을 전개하던 동학 교도들이 상경해, 경복궁 광화문 앞에 엮드려 봉장(封章)을 받들며 고종에게 직접 호소하는 형편에까지 이르렀다. 정부에서 동학 교도들의 상경을 사전에 막아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자를 힐책했기 때문이다. 1894년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하고, 호남·호서의 동학군들이 논산에 집결, 공주성을 공격할 기세를 보였다. 그 때 호위부장(扈衛副將)에 있다가 양호 순무사(兩湖巡撫使)에 임명되어 동학군 토벌 임무를 부여받았다. 같은 해 독판내무부사로서 동협판(同協辦) 김종한(金宗漢)·조인승(曹寅承) 등과 함께 3인 위원단을 구성해 노인정(老人亭) 회담에 참여하였다. 이 때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가 제시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내정 개혁안의 세목과 실시 방안에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주둔 중인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회담이 결렬된 뒤 일본 측은 조선정부에 대해 한층 위협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내정 개혁을 자의적으로 강행해 나갔다. 이 같은 일본의 예봉을 둔화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조선정부가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고 총재관(總裁官)과 당상관을 발령할

때 한성 부윤으로 임명되었다. 그 뒤 일본이 갑오개혁을 추진하고 군국기무처를 신설, 대원군을 상징으로 내세우면서 김홍집(金弘集)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적 정부를 새로이 조직할 때 신정부의 요직에 배치되었다. 저서로는 『훈련도감중기(訓鍊都監重記)』가 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흠(申欽, 1566~1628)

자는 경숙(敬淑), 호는 상촌(象村)·현현(玄軒)·현옹(玄翁)·방옹(放翁),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본관은 평산이며 부는 개성 도사(開城都事)를 지낸 신승서(申承緒)이다. 1585년(선조 18)에 진사가 되고 다음 해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학유(學諭), 경원 훈도(慶源訓導), 감찰(監察), 병조 좌랑을 역임했다. 임진왜란 때 삼도 순변사(三道巡邊使) 신립(申昶)을 따라 조령전투에 참가하였으나 패하자 양재도 찰방(良才道察訪)으로 강화에 들어갔다가 체찰사(體察使) 정철(鄭澈)의 종사관이 되었다. 뒤에 지평(持平), 사성(司成), 대사간(大司諫), 부제학(副提學), 도승지(都承旨), 병조 판서 등을 지내고 1608년(선조 41) 대사헌으로 세자책봉 주청사(世子冊封奏請使)가 돼서 명나라에 갔다가 다음해 귀국하여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 7신(遺教七臣)의 한 사람이 되었다. 계축옥사(癸丑獄事)가 일어나자 파직되고 1617년(광해군 9)에는 춘천에 유배되어 초가집을 짓고 이름을 여암(旅菴)이라 하였다. 1621년(광해군 13)에 풀려나 김포로 돌아왔다. 이때 선영 밑 한 칸의 초가에서 즐겁게 거처하며 집 이름을 하루암(何陋菴)이라 했다. 그 후 다시 산기슭에 집을 짓고 이름을 감지와(坎止窩)라 하고 이곳에서 『선천규관(先天窺管)』을 저술하였다. 인조반정 뒤에 이조 판서가 되어 대제학을 겸했다. 노서(老西)의 중진으로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되고, 이해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세자를 모시고 전주로 피난했다. 그 후 돌아와서 영의정에 올랐다. 정주학자(程朱學者)로 문명이 높았고 장유(張維), 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중기 한문학의 태두로 조선조 4대 대가(四大家)로 불렸다. 글씨를 잘 썼으며 이항복(李恒福) 등과 함께 『선조실록』의 편찬 사업에 참여했다. 1651년(효종 2) 인조 묘정에 배향되었고, 강원도 춘천의 도포서원(道浦書院)에 제향되었다. 부평(현 검단 대곡동 황골)에 은거하였다.

❖참고문헌 : 『서구사』(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심광언(沈光彦, 1490~1568)

자는 언지(彦之), 호는 둔암(鈍庵), 시호는 호안(胡安)이다. 본관은 청송이며 증조부는 관찰사 심선(沈璿), 조부는 병마절도사 심안인(沈安仁), 부는 안성 군수 심빈(沈濱)이다. 모는 대사성 서강(徐岡)의 딸이다. 1519년(중종 14) 생원시와 진사시에 연이어 합격하고 1525년(중종 20)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에 특별히 제수되었다. 그 뒤 사간원 정언·홍문관 부수찬·사헌부 장령 등의 청요직을 역임하였다. 1537년 파주 목사로 선정을 베풀어 감사의 추천으로 이듬해 사복시 정에 승진되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탄핵으로 다시 외직으로 밀려나 부평 부사에 부임, 민폐를 제거하고 진휼에 힘썼다. 그 뒤 대사간에 발탁되어 시무책을 제시했고, 1543년 예조 참판이 되었으며 이어서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인종이 즉위하자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되어 지방 수령의 탐학을 감독하고 민간에 효행과 절의를 장려하는 데 힘썼다. 1547년(명종 2) 이조 참의, 1550년(명종 5) 이조 참판, 1553년(명종 8) 한성부 판윤에 올랐다. 이어서 형조 판서·공조 판서·한성부 판윤을 역임하고, 1558년 지중추부사의 한직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곧 형조 판서에 발탁되었으며 1561년 우참찬이 되어서는 과거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성품이 검소하고 엄격하여 직무에 매우 공정하였다. 권세와 재물을 즐기지 않았고, 직언을 잘하였다. 특히, 법률에 밝아 형정을 오랫동안 주관하며 송사를 바르게 처리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심동구(沈東龜, 1594~1660)

자는 문징(文徵), 호는 청봉(晴峰)이다. 본관은 청송이며 증조부는 첨정 심자(沈磁), 조부는 목사 심우정(沈友正), 부는 판서 심집(沈諶), 모는 직제학 홍종록(洪宗祿)의 딸이다. 1615년(광해군 7)에 진사에 급제한 뒤 1619년(광해군 11)에 알성 급제하여 태릉 참봉(泰陵參奉)을 지내고 1624년(인조 2)에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해 승문원 주서에 임명되었다. 한림원 설서(翰林院設書)를 거쳐서 전적으로 승진한 뒤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삼사에 있을 때는 시강원(侍講院)에서 춘추관 지제교(知製敎)를 겸했다. 1634년(인조

12) 사간원 헌납 재직 시 왕의 뜻에 거슬려 청하 현감(�淸河縣監)으로 좌천되었다. 이곳에서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 3년 동안 현의 백성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으며 그가 떠나자 송덕비를 세웠다. 병자호란 후에는 삼사를 벗어나지 아니했고 호남의 안렴사(按廉使)로 임명되었다. 1638년 가을에 사헌부 집의에 재임 중 남이공(南以恭)이 김청음(金淸陰), 정동계(鄭桐溪)를 탄핵하려 하자 남이공의 부당함을 상소하고 사임하여 4년간 은거했다. 1641년에 춘추관 지제교에 복관되었다. 그 후 의정부 검상(檢詳), 사인(舍人)이 되어 서장관으로 심양(瀋陽)에 다녀왔다. 그 후 응교(應敎)를 거쳐 사간원 사간을 지냈다. 1644년 심기원(沈器遠)의 역모에 연계된 것으로 무고되어 장흥(長興)으로 유배되었다. 1650년(효종 1) 효종이 즉위하면서 사면되었다. 1655년(효종 6)에 심즙, 심동구 부자는 은전(恩典)을 받게 되나 다시 한 달 후 관작이 추탈되었다. 그 후 1693년(숙종 19) 40년 만에 복관되었다. 사헌부 대사헌에 증직되고 부인에게는 정부인 경주 김씨의 봉작이 내려졌다. 부평(현 서구 공촌동)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저서로 『청봉집』이 있다.

❖참고문헌 : 『서구사』(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심벽(沈璧)

본관은 청송이며 부평 모월곶면 백석동 출신이다. 통덕랑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심수경(沈守慶, 1516~1599)

자는 희안(希顔), 호는 청천당(淸天堂)이다. 본관은 풍산이며 증조부는 좌의정 심정(沈貞), 조부는 적개공신 심응(沈膺), 부는 심사손(沈思遜), 모는 이조 참의 이예장(李禮長)의 딸이다. 1546년(명종 1)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사가독서하였다. 1552년(명종 7) 검상(檢詳)을 거쳐 직제학을 지냈다. 1562년 정릉(靖陵 : 中宗의 陵)을 이장할 때 경기도 관찰사로 대여(大輿)가 한강을 건너는 선창(船艙) 설치를 하지 않은 죄로 파직되었다. 뒤에 대사헌과 8도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1590년(선조 23) 우의

정에 오르고 기로소에 들어갔으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 체찰사가 되어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이듬해 영중추부사가 되었다가 1598년 벼슬길에서 물러났다. 문장과 서예에도 능하였다. 1554년 부평도호부사에 부임하였으나 같은 해 9월 교체되었다. 저서로 『청천당시집(聽天堂詩集)』, 『청천당유한록(聽天堂遺閑錄)』 등이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심수익(沈壽益)

자는 덕구(德丘), 호는 칠봉(七峰)이다. 1559년(명종 14) 문과에 급제, 1571년(선조 4) 3월 부평도호부사로 부임하였으나 다음해 7월 부친상을 당하여 교체되었다. 형조 참판 및 예조 참판을 역임하였고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부총관으로 왕비 일행을 수안(遂安)으로 호송한 공으로 창산군(昌山君)에 봉해졌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심식(沈植)

본관은 청송이며 부평 황어면 독실리 사람이다. 정조대 선무랑에 올랐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심신겸(沈信謙, ?~1596)

본관은 청송이며 조부는 심연원(沈連源), 부는 심강(沈綱), 형은 의겸(義謙), 누이는 명종비 인순왕후이다. 조선 명종대 가산 군수를 지냈다. 1595년(선조 28) 6월 14일 부평 부사로 부임하였다. 부평에 낙향하여 거주하면서 바랫벌 일대를 개간할 때 독기(蠶旗)를 꽂고 개간하여, 이곳의 마을 이름이 ‘蠶’의 훈인 ‘독’을 따 ‘독실리’가 되었다.

❖참고문헌 : 『부평군읍지』(1899), 『부평인물사』(2001).

심우정(沈友正, 1546~1599)

자는 원택(元擇)이다. 본관은 청송이며 증조부는 사인(舍人) 심순문(沈順門), 조부는 통례(通禮) 심달원(沈達源), 부는 선공감 첨정 심자(沈鎡), 모는 구사겸(具思謙)의 딸이다. 1576년(선조 9) 진사가 되었다. 1583년(선조 16) 별시 문과에 장원, 전적(典籍)·형조 좌랑을 거쳐 지평(持平)·정언(正言), 호조·예조·형조·공조의 좌랑, 전라도 도사·해운 판관(海運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1589년 한성부윤으로 재직 중 상관에게 미움을 받아 선천 군수로 좌천되었다가 신병으로 면직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한강·임진강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패하고 이천으로 가 왕세자를 만나 필선(弼善)이 되어서 해서 지방을 두루 돌며 백성들을 위무(慰撫)하였다. 이어 강원도에 들어가 군대를 모집하였고, 이듬해 진흥랑(賑恤郎)이 되어 한성 백성들의 진흥에 앞장섰다. 그 뒤 군기시 정(軍器寺正)·과주 목사·사간·헌납(獻納)을 역임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는 광주 목사(廣州牧使)가 되어 산성을 수축하였다. 이듬해 영남에 있는 명 군사들의 군량을 조달하는 직책을 맡고 재능을 발휘하여 원활히 수행하였다. 세상을 떠난 6년 뒤에 호성(扈聖), 선무공신에 책록되었다. 후에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아들 집(諱)이 선무원종에 참여한 관계로 누차 심우정(沈友正)을 추증하여 이조 판서에 증직하였다. 부인에게는 정부인 광릉 안씨(貞夫人廣陵安氏)의 봉작이 내려졌다. 부평(현 서구 공촌동)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참고문헌 : 『서구사』(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심유(沈攸, 1620~1688)

자는 중미(仲美), 호는 오탄(梧灘)이다. 본관은 청송이며 증조부는 목사 심우정(沈友正), 조부는 판서 심즙(沈諶), 부는 응교 심동구(沈東龜), 모는 첨지 김수렴(金守廉)의 딸이다. 1642년(인조 20) 진사가 되고 1650년(효종 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보임되었다가 주서(注書)를 거쳐 전적·병조 좌랑·용안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현종 때에 지평·정언·장령·헌납·사간·집의 등의 언관을 두루 거쳤고 직강(直講)·사성·사도시 정·옥천 군수·사복시 정(司僕寺正) 등을 지낸 뒤 안변 부사로 나갔다. 1674년(현종 15)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자의대비(慈懿大妃, 仁祖의 繼妃인 莊烈王后)

의 복상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대공설(大功說)을 주장하였던 서인이 실각하여 송시열(宋時烈)이 유배당하게 되었을 때, 사간으로서 송시열을 변호하는 주장을 폈다가 이듬해 초에 관작을 삭탈당하고 광주(廣州)에 유배되었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한 뒤인 1682년(숙종 8)에 다시 등용되어 수찬이 되고, 교리·응교·사인·동부승지·우승지·병조 참지·예조 참의 등을 거쳐 황해도 관찰사로 나갔다. 1684년에 대사간이 되었다. 그 뒤 대사성·홍문관 부제학을 비롯하여 이조·예조·호조·형조의 참의를 두루 역임하였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진 뒤에 간관들이 소론인 윤증(尹拯)을 구원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였고, 김수항(金壽恒)·이단하(李端夏) 등 노론을 변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부평(현 서구 공촌동)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참고문헌 : 『서구사』(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심유(沈侑)

자는 중직(重直)이다. 본관은 청송이며 조부는 광흥서 주부(廣興署主簿) 심이(沈怡)이다. 부평 독실 출신으로 1650년(효종 원년) 오위도총부 사용(司勇)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심을(沈慄)

본관은 청송이며 부는 심신겸(沈信謙)이다. 현재의 계양구 독실리에서 거주하였다. 초시에 합격한 후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심이(沈怡)

본관은 청송이다. 심신겸(沈信謙)의 후손으로 부평부 독실리에서 거주하였다. 1640년(인조 18) 광흥창 주부(廣興倉主簿)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심정섭(沈廷燮)

본관은 청송이다. 부평 황어면 독실리 거주하였다. 심신겸의 후손으로 철종대 능참봉(陵參奉)을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심집(沈諶, 1569~1644)

자는 자순(子順), 호는 남애(南崖),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본관은 청송이며 증조부는 승문원 판교 심달원(沈達源), 조부는 선공감 첨정(繕工監僉正) 심자(沈鎡), 부는 목사(牧使) 심우정(沈友正), 모는 광주 안씨(廣州安氏) 여경(汝敬)의 딸이다. 1596년(선조 29)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보직되고 예문관에 들어가 검열(檢閱)·대교(待敎) 등을 역임하면서 사정(邪正, 옳고 그름)을 논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해 한때 은거하였다. 1601년(선조 34)에 예문관 검열로 복관되어 여러 요직을 역임하고 수원 판관이 되었는데, 당시 간관이었던 정홍익(鄭弘翼)과 함께 무고를 받은 성훈(成渾)을 변론하다가 옹진 현령으로 좌천되었다. 1605년 전적·예조 정랑·정언 겸 문학(正言兼文學) 등을 두루 거쳐 1607년에는 죽산 부사(竹山府使)로 나아갔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장령으로 직언을 하다가 다시 면직되었다. 그 뒤 은계 찰방(銀溪察訪)·해운 판관(海運判官)을 거쳐 고려 현감이 되었으나, 정인홍(鄭仁弘)의 당이 이언적(李彦迪)과 이항(李滉)을 비방한 데 반발하다가 대간의 탄핵을 받아 다시 면직되었다. 1614년(광해군 6) 양호 염철조도사(兩湖鹽鐵調度使)로 나갔다가 사예·검상·사인·보덕 등을 역임하고, 폐모론이 일어나자 한때 관직에서 물러났다. 인조반정 후 병조 참지가 되고, 왕의 신임을 얻어 도승지·안변 부사, 형조·공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한성부 판윤이 되었다. 1636년(인조 14)에는 형조 판서로서 남한산성에 왕을 호종(扈從)하였다. 이 때 화친의 조건이 되는 볼모로서 인조의 동생인 능봉군(綾峯君)을, 심집이 대신으로 가장했다가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다음 해 이로 인하여 유백증(兪伯曾) 등의 탄핵을 받아 문외출송(門外黜送 : 성 밖으로 쫓겨남)되었으나 1638년(인조 16)에 용서받아 예조 판서에 이르렀다. 그러나 1644년 아들 동구(東龜)가 심기원(沈器遠)의 모반 사건에 연좌되어 유배되자 지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뒤에 아들로 말미암아 직첩(職牒 : 관원의 임명 사령장)을 환수당했으나 숙종 때 송시열 등에 의

해 신원(伸寬 : 억울한 죄가 바르게 풀어 줌)되었다. 부평(현 서구 공촌동)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32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 『인천광역시사』(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심한웅(沈漢雄, 1652~1715)

자는 영숙(英叔)이다. 본관은 청송이며 부는 심경(沈敬)이다. 부평 석곶면 가좌리 출신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통덕랑을 지냈으며, 사후 아들 심봉양(沈鳳陽)에 의해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으로 추증되었고 그 부인은 1745년(영조 21)에 공인 이씨(恭人李氏)에서 증 정부인(贈貞夫人)의 봉작을 받았으며, 묘가 부평(현 서구 공촌동)에 있다.

❖참고문헌 : 『서구사』(2014).

심현(沈現)

본관은 풍산이며 부평 백석동 출생이다. 용양위 부사과를 지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심홍조(沈弘祖, 1764~1813)

자는 치원(致遠)이다. 본관은 청송이며 부는 통덕랑 심공좌(沈公佐)이다. 1784년(정조 8)에 무과 병과에 급제하여 1789년(정조 13)에 내금위의 효력부위 겸 선전관(效力副尉兼宣傳官)에 올랐다. 1791년(정조 15)에 선략장군 행 훈련원 주부(宣略將軍行訓練院主簿)를 맡아 병사 훈련의 주무를 보며 오위도총부에서 도사직을 수행하였다. 1801년(순조 1)에는 어모장군 행 훈련원 첨정(禦侮將軍行訓練院僉正)으로 승직되며, 1808년(순조 8)에 절충장군 황해도병마우후 겸 토포사(折衝將軍黃海道兵馬虞侯兼討捕使)로 승직되어 외관직을 수행하였다. 이어 1809년(순조 9) 절충장군 행 함경북도 병마우후겸토포사(折

衝將軍行咸鏡北道兵馬虞侯兼討捕使)를 지냈으며 초계 군수(草溪郡守)를 지냈다. 사후에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겸 내금위장(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內禁衛將)으로 추증되었다. 묘가 부평(현 서구 공촌동)에 있다.

❖참고문헌 : 『부평인물사』(2001), 『서구사』(2014).

현부인 엄씨(顯夫人嚴氏, ?~1636)

본관은 영월(寧越)이며 남편은 순평군(順平君) 이선봉(李善鳳), 자는 이필협(李必謙)이다. 성종의 12남 무산군의 손자인 순평군(順平君) 이선봉(李善鳳)의 처로 지금의 계양구 동양동에서 살았다. 아들은 한성 판관을 지낸 이필협(李必謙)이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선봉의 가족이 모두 강화도로 피신하였는데 청나라 군사가 강화도를 점령하자 현부인 엄씨는 적에게 붙잡혀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을 찢러 목숨을 끊었다. 이때 며느리였던 이필협(李必謙)의 처 숙인 구씨(淑人具氏)도 함께 자결하였다. 1638년 나라에서 이들에게 정려(旌閭)를 세웠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현부인 엄씨의 묘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3호인 이선봉 묘역(계양구 동양동 1525)에 있으며 남편인 이선봉과 아들 이필협, 며느리 구씨의 묘도 함께 위치해 있다.

❖참고문헌 : 『부평부읍지』(1842), 『부평군읍지』(1899), 『부평사연구(증보판)』(1995), 문화재청 홈페이지.

노비 종인(種仁)의 처 영렬(永烈)

생몰년을 알 수 없다. 조선시대 사노비인 종인(種仁)의 처로 울도(栗島)에 살았다. 『부평군읍지』에는 항상 검소한 행동을 하는 품이 남과 달랐다고 한다. 어느 겨울날 남편이 술에 취해 물에 빠져 죽자 남편의 시신을 끌고 나와 며칠 동안이나 가슴에 안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어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부모가 영렬을 재가시키려 하자 매일 밤낮으로 남편의 무덤 옆에서 울다가 결국 목을 매어 죽었다. 당시 나이 열아홉 살이었다.

❖참고문헌 :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1899), 『부평사연구(증보판)』(1995).

우희열(禹希烈, ?~1420)

본관은 단양(丹陽)이다. 가계는 정확히 전하지 않으며 음서(蔭紱)로 관직에 나아갔다. 1490년(태종 9)판원주목사(判原州牧事)로 있을 때 제언을 쌓아 관개를 개선하고 저수지에 고기를 길러 국용(國用)에 대비하자는 주장을 한 후 제언 축조 사업을 계속 맡아 하였다. 충청도 관찰사, 경기도 관찰사, 판광주목사(判廣州牧事) 등을 지냈다. 경기도 관찰사로 있을 때 부평에 제언을 쌓아 농경지를 정비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 『인천광역시사』(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윤기파(尹起坡)

생몰년을 알 수 없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조부는 원(輓)이다. 윤기파는 계양구 오류동에 살았으며 동생인 윤흥파(尹興坡), 윤진파(尹振坡), 윤홍파(尹弘坡)와 함께 효행이 뛰어나 나라에서 지평(持平) 벼슬을 내렸다. 아들인 윤정(尹玼)과 손자인 윤상우(尹尙友)도 효성이 지극해 마찬가지로 지평 벼슬을 추증받았다. 윤기파가 거주했던 계양구 오류동은 파평 윤씨 집안이 모여 살던 마을로 예로부터 효자 가문이 있는 곳으로 이름을 알려 왔다.

❖참고문헌 : 『부평부읍지』(1871), 『부평군읍지』(1899), 『부평사연구(증보판)』(1995).

윤상우(尹尙友)

생몰년을 알 수 없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조부는 기파(起坡)이다. 윤정은 윤기파의 손자로 효성이 지극해 지평(持平)을 추증받았다.

❖참고문헌 : 『부평군읍지』(1899), 『부평사연구(증보판)』(1995).

윤서(尹曙)

생몰년을 알 수 없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윤홍파(尹弘坡)의 고손자로 효성이 지극해 지평(持平)을 추증받았다.

❖참고문헌 : 『부평군읍지』(1899), 『부평사연구(증보판)』(1995).

윤정(尹玼)

생몰년을 알 수 없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조부는 원(輓), 부는 기파(起坡)이다. 조선시대 계양구 오류동 파평 윤씨 가문의 효자인 윤기파의 아들이다. 천성적으로 효성과 우애가 깊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삼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다 결국 실명하였다.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상복에 두른 띠를 풀지 않았다고 한다. 현종이 정려를 내리고 쌀을 하사하였으나 극구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숙종 때 윤씨 가문에 정려를 내리고 지평 벼슬을 추증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부읍지』(1871), 『부평군읍지』(1899), 『부평사연구(증보판)』(1995).

이교선(李教善, 1848~1922)

본관은 성주(星州)이며 부는 일용(日容)이다. 부평부 가좌동에 살았다. 어릴 때부터 효심이 가득하여 아버지가 병이 들어 사망하자 2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성묘를 하였다. 묘 앞에는 이교선이 무릎 꿇던 자리가 움푹 패었다고 한다. 생전에 부평 태수가 이 소식을 듣고 모시려고 했으나 사양하였다고 한다. 74세로 사망하자 나라에서 정려를 세웠으며 이건하(李建夏)가 그의 행적을 적어 찬양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사연구(증보판)』(1995), 『서구사』(2004).

이동진(李東振)

생몰년을 알 수 없다. 본관 및 가계가 정확히 전하지 않는다. 부평의 효자이다. 임진

왜란 중에 아홉 살의 나이로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다. 나이가 들어 아버지 역시 병을 얻어 위독하게 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 넣어 위기를 넘기게 하였다.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죽만 먹으며 3년을 보냈다. 이동진은 전쟁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복을 입지 못한 것을 항상 가슴 속에 한으로 품어 와서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친 후 추가로 3년상을 더 치렀다. 1676년(숙종 2)에 임금 이 사실을 알고 정려를 세웠다.

❖참고문헌 : 『부평군읍지』(1899), 『부평사연구(증보판)』(1995).

이비(李備)

생몰년을 알 수 없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정종(定宗)의 14남인 정석군(貞石君)의 후손으로 강동 부령(江東副令)이라는 벼슬을 지내다가 조선 세종 때 지금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에 낙향하여 여생을 보냈다. 그 후로 이비의 후손들이 19대에 걸쳐 지금까지 이곳에 살고 있다.

❖참고문헌 : 『서구사』(2004), 『인천광역시사』(2002).

이선린(李善麟, 1582~?)

자는 응서(應瑞)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조선시대 성종의 아들인 경명군(景明君)의 후손이다. 벼슬이 정의(正義) 순강군(順康君)에 봉해졌으며 후에 지금의 계양구 동양동에 위치한 부평 당피마을에 낙향해 살았다.

❖참고문헌 : 『계양사』(2001).

이선봉(李善鳳, 1578~1660)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조부는 부안군(扶安君) 석수(碩壽), 자는 필험(必讎)이다. 성종의 12남인 무산군(茂山君) 종(宗)의 후손으로 지금의 계양구 동양동에 낙향해 살았다. 나

라에 공을 세워 순평군(順平君)에 봉해졌으며 부인 엄씨(嚴氏)는 현부인에 올랐다. 아들은 한성 판관을 지낸 이필험(李必讎)이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선봉의 가족이 모두 강화도로 피신하였는데 청나라 군사가 강화도를 점령하자 현부인 엄씨는 적에게 붙잡혀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을 찢러 목숨을 끊었다. 이때 며느리였던 이필험의 처 숙인 구씨(淑人具氏)도 함께 자결하였다. 이선봉의 묘는 부인 엄씨, 아들 이필험 부부의 묘와 함께 현재 계양구 동양동에 있으며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53호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부평부읍지』(1871), 문화재청 홈페이지.

이세화(李世華, 1630~1701)

자는 군실(君實), 호는 쌍백당(雙栢堂)·칠정(七井),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본관은 부평(富平)이며 조부는 덕순(德純), 부는 이재(以載), 모는 부안 김씨(扶安金氏)이다. 1652년(효종 3) 증광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으며 1657년(효종 8) 식년시 병과에 합격하였다. 정언, 장령 등을 거쳐 황해도·평안도·전라도·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였고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와 이조 판서 등을 지냈다. 경연과 세자빈객(世子賓客)을 맡았을 때는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하다고 하여 청백리로 선발되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 왕비 인현왕후가 폐위되어 물러난다는 소식을 듣고 대궐로 들어가 폐위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로 인해 친국을 당한 후 정주에 유배되었다. 저서로는 『쌍백당집(雙栢堂集)』이 있다.

❖참고문헌 : 『연려실기술』, 『국조인물지』, 『부평이씨대동보』상(1998).

이언복(李彦復)

생몰년을 알 수 없다. 본관 및 가계가 정확히 전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부평향교 교생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이 부평으로 들어오자 같은 교생이었던 박무영(朴茂榮), 박대충(朴大忠) 등과 함께 부평향교의 위판(位版)을 계양산 굴속에 감추었다가 난이 끝

난 후 되돌려 놓았다. 당시 부평 인근의 군현에서는 전쟁 중에 위판을 모두 잃어버렸는데 이언복 등으로 인해 부평향교만이 온전하게 보전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찾아와 향규(鄉規)를 얻어갔다고 한다. 이언복은 이 일로 참봉첩을 받았고 그의 자손들은 역을 면제 받았다.

❖참고문헌 : 『부평군읍지』(1899).

이응신(李應新)

생몰년을 알 수 없다. 조선시대 부평향교 교생이다. 병자호란 때 노모를 등에 업고 피난을 가다가 부평에 다다른 청의 군대를 만나자 모친을 급히 피신시키고 홀로 청군에 맞서 싸우다 죽었다. 이로 인해 이응신의 노모는 청군의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나라에서 이 일을 듣고 정려(旌閭)를 내렸다.

❖참고문헌 : 『부평군읍지』(1899), 『부평사연구(증보판)』(1995), 『인천광역시사』6(2002).

이언척(李言揚, 1580~1643)

자는 양이(揚而), 시호는 무의(無懿)이다. 본관은 전의(全義)이며 조부는 경희(慶禧)이다. 부평군 석곶면 가좌리에서 태어났으며 1605년 무과에 급제한 후 사헌부 감찰, 의주첨사, 안변 수사, 충청·경기 병사, 경상좌도 목사, 파주부사 겸 방어사, 함경북도 병마수군절도사 겸 경성 부사 등을 지냈다. 1628년(인조 6) 유효립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영사공신(寧社功臣)의 칭호가 내려졌으며 1644년 사망 후 참군사원종공신(參軍司原從功臣)과 병조 판서를 추증하였다. 서구 가좌동에 묘가 있었으나 김포로 이장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사연구(증보판)』(1995), 『인천광역시사』(2002), 『서구사』(2004).

이제가(李悌可, 1555~1592)

자는 순원(淳元)이다. 본관은 전의(全義)이며 부는 경희(慶禧)이다. 부평 사람으로 무

과에 급제해 관직에 나아갔다. 북청 판관(北靑判官) 재임 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선조가 임해군(臨海君) 이진(李埈)과 순화군(順和君) 이보(李瑋) 두 왕자를 전란을 피해 함경도에 머물게 하였다. 얼마 후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부대가 이곳에 이르자 그는 왜병과 격전을 벌이다 전사하였다. 조정에서 후에 벼슬을 추증하고 정려(旌閭)를 내렸다.

❖참고문헌 : 『부평군읍지』(1899), 『부평사연구(증보판)』(1995),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이필형(李必馨, 1615~1676)

자는 문원(聞遠)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부는 순강군(順康君) 선린(善麟)이다. 지금의 계양구 동양동에 위치한 부평 당포 마을에 낙향해 살았던 순강군(順康君) 이선린(李善麟)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1642년(인조 20) 수의부위(修義副尉), 1648년행오위도총부 도사(行五衛都總府都事)를 거쳐 평해 군수(平海郡守), 해미 현감(海美縣監), 자산 군수(慈山郡守), 경원 부사(慶源府使), 중화 부사(中和府使), 명천 부사(明川府使), 덕원 부사(德源府使), 충청 수사(忠淸水使) 등을 지냈다. 충청 수사에 재직 중이던 1676년(숙종 2) 사망하였다. 청백리에 뽑혔으며 현재 다수의 교지가 후손에 의해 보관되어 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 『부평군읍지』(1899).

이희목(李希穆)

생몰년을 알 수 없다. 가계는 정확히 전하지 않는다. 시호는 충민(忠敏)이다. 본관은 부평(富平)이며 부평 이씨(富平李氏)의 시조이다. 『부평이씨대동보』(1998)에 의하면, 고려 태조 왕건이 삼한을 통일할 때 협력하여 개국공신으로 인정받으면서 벼슬이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시 부평의 옛 지명인 수주(樹州)의 호족이었다고 전하나 행적은 자세하지 않다.

❖참고문헌 : 『부평이씨대동보』(1998), 『인천의 성씨·인물고』(1991), 『인천광역시사』(2002), 『서구사』(2004).

정간(鄭揆, 1653~1725)

자는 군택(君擇)이다. 본관은 초계이며 부는 통덕랑 원심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고양 군수, 수안 군수, 제주 목사 등을 지냈다. 벼슬을 마치고 부평부 연희동에 낙향해 여생을 보냈다. 묘가 경서동에 있다.

❖참고문헌 : 『서구사』(2004).

정상주(鄭翔周, 1648~1729)

자는 상경(翔卿)이다.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부는 늑(劬)이다. 부평 검암동에서 태어났다. 1681년(숙종 7) 신유 식년 무과(辛酉式年武科)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이듬해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되었다. 그후 곡산 부사(谷山府使), 풍덕 부사(豐德府使), 통진 현감(通津縣監), 영종 첨사(永宗僉使) 등을 지냈다. 1727년(영조 3) 80세에 가까운 나이에 전라우수사(全羅右水師)가 되었으나 나이가 많아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삼사(三司)의 건의에 따라 한달 후 교체되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인천광역시사』(2002).

정희신(鄭希信, 1475~1548)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부는 연경(鄭延慶)이다. 정희량의 아우이다. 경상좌도 수군 우후(水軍虞侯)를 지냈으며 벼슬을 그만둔 후 서구 검암동에 내려와 살았다. 현재도 이곳에는 정희신의 후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사후에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인천광역시사』(2002), 『서구사』(2004).

조반(趙胖, 1341~1401)

시호는 숙위(肅魏)이다. 본관은 배천(白川)이며 조부는 삼중대광보국(三重大匡輔國) 은천군 하(何), 부는 호군 조세경(趙世卿), 모는 찬성사 양백연(楊伯淵)의 딸이다. 12세 때 아

버지를 따라 원나라 연경(燕京)에 가서 한문과 몽골어를 배운 후 중서성 역사(中書省譯史)로 근무하다가 1368년(공민왕 17)에 귀국하였다. 1382년(우왕 8) 판도판서(版圖判書)로 하정사 겸 주청사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시호와 승습(承襲)을 청하고 돌아왔으며 1385년에 도 사은사로 명나라를 다녀왔다. 이 무렵 염흥방(廉興邦)의 가노 이광(李光)이 부평에 있던 조반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은 일이 있었다. 조반이 이 일로 이광을 죽이자 염흥방이 즉시 조반을 투옥하여 옥사를 일으켰는데 최영의 도움으로 풀려나고 염흥방 일파가 오히려 처형되는 이른바 무진피화(戊辰被禍)가 일어났다. 조선이 개국한 후 개국공신으로 부흥군(復興君)에 봉해졌으며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명나라에 가 국호와 왕의 호칭 문제를 담은 표문을 전달하는 등 국왕의 사절로 수차례 명나라를 오갔다. 부평 석곶면에 가정(佳亭)이라는 별장을 지었는데 현재 서구 가정동에 터만 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절요』, 『태조실록』, 『태종실록』, 『부평군읍지』(1899), 『인천광역시사』(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서강(趙瑞康, 1394~1444)

자는 자경(子敬), 호는 경은(耕隱)이다. 본관은 배천(白川)이며 조부는 세경(世卿), 부는 개국공신 반(胖), 모는 경주 이씨(慶州 李氏) 사은서직장(司醞署直長) 양오(養吾)의 딸이다. 조선 1414년(태종 14) 생원시에 합격한 후 감찰, 장령 등을 지내다가 1431년(세종 13)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이 되어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1433년(세종 15) 우사간, 1436년 좌사간, 1437년 경상도 관찰사, 1438년 형조 참의, 1439년 우승지, 1441년 도승지 등을 거쳐 1443년 이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말년에 벼슬을 그만둔 후에는 부평에 내려와 부친 조반(趙胖)의 별장이었던 가정(佳亭)에 은거하였는데 세종이 수차례 벼슬을 내리며 불렀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이에 세종이 화공을 보내 조서강이(필자 그대로) 거쳐하는 곳의 그림을 그려 오게 하였더니 많은 선비들이 가정을 주제로 시를 지었으며 안평대군 역시 시문을 지어 그림을 완성하고 『석호가정별업도(石湖佳亭別業圖)』라는 제목을 붙였다. 조서강 스스로도 가정(佳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겨 놓았다.

한가로움을 틔타 좋은 날 촌집에 도착하니	乘閑勝日到村家
십 리 꽃다운 교외엔 온갖 나무와 꽃일세	十里芳郊萬樹花
반쯤 취하여 나귀 타고 일없이 가는 나그네	半醉騎驢無事客,
태평스런 봄 흥취 자랑할 만하네.	太平春興自堪誇.

조서강의 묘는 서구 석남동 산119-2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호로 지정돼 있다.

❖참고문헌 : 『부평부읍지』(1842), 『부평부읍지』(1871), 『인천광역시사』(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응복(鄭應福)의 처 평양 조씨(平壤趙氏, ?~1736)

자는 사수(師洙)이다. 본관은 평양(平壤)이며 부(夫)는 정응복(鄭應福)이다. 1736년 (영조 12) 집에 화재가 일어나 사당에 불이 붙자 신주를 구하려고 사당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를 본 아들 사수(師洙)의 처 창녕 성씨(昌寧成氏)가 시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뒤를 따라 함께 사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시어머니는 신주를 가슴에 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껴안은 채 모두 불에 타 죽었다. 영조가 이를 듣고 두 사람 모두에게 정려(旌閭)를 내렸다.

❖참고문헌 : 『부평부읍지』(1842), 『부평사연구(증보판)』(1995).

| 제2절 | 근현대 인물

이 원 규(소설가·(사)국제PEN한국본부 자문위원)

생애의 중심이 부평 시대에 걸려 있었던 분들, 스스로 부평인이라고 자처하며 살았던 분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지난날 부평은 오늘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외에 서구, 계양구, 부천시의 일부, 서울의 구로구 지역에 걸쳐 있었다. 부평의 근현대인물 기술의 범위는 공간상 현 구로구 지역 인물들을 일단 제외하였다. 시간의 범위는 1910년 경술병탄부터 인천시 북구에서 계양구와 서구가 분리되어 나가기 전까지로 한정하였다. 그 기간에 부평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들 중 이미 작고한 분들만 찾아 기술하였다. 부평에서 출생해 타지에서 활동한 출향 인사들도 넣고, 타지 출신으로서 생애의 중심을 부평에서 보낸 분들도 넣었다.

강한성(姜漢成)

생몰년을 알 수 없다. 계양 굴현동 출신이다. 사업가로서 경향정미소, 경향산업사, 한일연탄공장, 경향주유소, 경향여객운수회사 등을 경영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북구청 자문위원, 인천시 자문위원, 인천상공회의소 의원, 통일주체국민회의 북구대표의원 등을 역임하고 부평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 『계양사』(2001).

권필수(權泌壽, 1864~1940)

계양 출신이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3년 9월 외국어학교 부교관으로 관직에 올랐다. 원산과 해주에서 재판소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했다. 1910년 한일강제합병 이후 충남 공주에 은둔하며 30년간 문자학(文字學) 연구에 몰두해 『육서심원록(六書尋源錄)』 30권

을 완성했다. 그 책은 육당 최남선의 칭송을 받았다. 정인보가 서문을 썼으며 타이완(臺灣)대학 총장 등쩌빈(董作賓)에 의해 『대륙잡지(大陸雜紙)』에 크게 소개되었다.

❖참고문헌 : 『황성신문』 1903년 9월 9일자, 『김포시사』(2012).

김국환(金國煥, 1928~2001)

1928년 10월 평안북도 벽동군에서 출생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만주로 이주하여 성장했다. 중학교에서 일본인 학생을 폭행한 후,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군에 입대하였고 관동군에 배치되어 1년여 복무했다. 이후 탈영하여 독립전쟁 전선으로 갔다. 베이징(北京)에 있는 광복군 3지대 2중대에 배속되어 투쟁했다.

광복 이후 고향인 평북으로 돌아갔으나 공산당에 의하여 2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월남하였다. 1951년 부평 산곡동 369번지 함봉산 자락에 상이군인 동지들과 더불어 재할터전을 마련하고 화랑농장이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농장을 확대 발전시켰다. 그 후 제2기 인천시 의원에 당선되어 인천과 부평 발전에 진력하였다.

❖참고문헌 : 『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화랑농장』 1·2(2019).

김기선(金基善, 1885~1963)

서곶 연희동 상산 김씨(尙山金氏) 집안에서 출생했다. 부친 김윤화의 영향으로 소년기에 개신교에 입문했다. 소년기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 미국 유학을 떠났다. 각고의 노력 끝에 30대 중반에 네블라스카 주의 링컨고등학교를 정규과정으로 졸업하고 명문 프린스턴대학에 입학했다.

공화당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에 몰두, 하딩(Warren. G. Harding)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편 경제에 대한 판단력도 뛰어나서, 투자한 도료(塗料)회사의 주식이 뛰어오르는 바람에 거부가 되었다.

1923년 일시 귀국했다. 그 무렵 독립운동 활동과 일시 귀국, 재도미와 관련한 일제 외교관들과 관헌들의 기밀보고서들이 자료로 남아 있다. 다시 미국으로 간 그는 1926년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 유치원에서부터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망라하는 대규모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부평역 주변과 일신동, 구산동의 땅을 사들였으나 일본군 부대 주둔지로 수용되었다.

최근 전 단국대 부총장인 구산동 출신 강재철 교수(국문학)의 추적으로 폐쇄등기가 발굴되었다. 1926년 12월 구산리 전(田) 1,138평을 구입한 기록 등이다. 8·15 광복 후 부평과 일신동, 구산동 일대의 토지를 되찾을 수 있었으나 결국 농지개혁의 바람 속에 포기했다. 그 자리에는 국군 제33예비사단이 들어앉았다.

❖참고자료 : 장손 김경원(재미)과 전화 구술 이원규 채록(2015.8.19), 구산리 토지 폐쇄등기(강재철 교수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외.

김사삼(金士三, 1876~?)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1919년 3월 24일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횡기, 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9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김상근(金相根, 1889~?)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황어장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횡기, 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김숙현(金淑鉉, 1917~2003)

평안북도 선천군 군산면에서 출생, 일본 와세다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했다.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1946년 공산정권이 수립되자 월남했다. 육군 고등군법회의의 검찰관, 국방부 법무과장을 지내고 단국대 형법학 교수, 단국대 재단이사 등으로 일하다 1958년 변호사 사무실을 꾸렸다.

1971년 제8대 인천 북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는 부평에 머물면서 교육계에 정열을 쏟았다. 서인천고등학교 재단이사, 인천교육대학 유치, 학교법인 단국대학교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으로 일했다.

❖참고문헌 : 『인천의 인물 100인』(2009).

김순이(金順伊, 1904~?)

서곶 가좌동 출신이다. 1931년 독립운동을 하고 소요죄로 구속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서 복역하였다.

❖참고문헌 :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영권(金永權, 1867~?)

계양 선주지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장거리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횡기, 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9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영식(金永植, 베드로 1909~1963)

충남 예산에서 출생, 1937년 성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부 서품을 받았다. 1947년 천주교 부평본당 전임신부로 부임했다가 황해도 연안 본당 주임신부로 가서 보

육원을 설립 운영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월남, 피난지 부산에서 고아원 설립에 주력했으며 1952년 노기남 주교의 명으로 다시 부평에 왔다. 1954년 9월 건평 198평 2층 규모로 부평 성모자애병원을 개원하였다.

❖참고문헌 : 『부평4동 본당 30년사』(1995).

김장환(金章煥, 1909~1985)

부천군 부내면 신대리 새재마을(부평구 작전동)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김동천(金東天)이 공장이었기 때문에 활 만드는 법을 배웠다. 1932년에는 왜경과 마찰이 생겨 황해도로 옮겨다가 만주로 건너갔고, 다시 함경도에서 2년간 지내다가 황해도 연안에서 해방을 맞았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동안에도 활 만드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1947년 부천에서 국도신문사 지국장을 맡으면서 언론에 관여하다가 한국전쟁 후에는 주한미군사령관 푸시리 소장과 인연을 맺어 외국인들에게 우리 활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1967년 부천 성무정(聖武亭)을 만들면서 초대 사두(射頭)에 취임(1967~1984)하였다. 1971년에는 전통 활을 만드는 공적이 인정되어 중요무형문화재 47호 공장으로 지정받았다. 1977년에는 아들 김기원과 함께 『한국의 궁시』라는 책을 펴냈다. 『경향신문』 1979년 1월 3일자, 1984년 7월 6일자. 『동아일보』 1990년 11월 18일자.

❖『경향신문』 1979년 1월 3일자, 1984년 7월 6일자. 『동아일보』 1990년 11월 18일자.

김주리(1964~1993)

전남 목포 출생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여성신문사 기자, 출판사 변혁시대의 편집원 등으로 일했으며, 노동운동 투신을 결심하고 미싱을 배워 노동현장에 취업하였다. 부평공단의 우진상사, 진영물산 등 봉제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당한 뒤 동료들과 함께 생산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 후 미모사에 일했으며 거기서 불의의 화재로 사망했다.

❖참고문헌 : 『열사정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터넷 홈페이지.

김지옥(金知玉, 1922~1984)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인 강령탈춤의 예능 보유자이다. 황해도 강령 출신으로 해주 제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1년경부터 양소운(梁蘇云)에게서 탈춤을 배워 만양반·목중 춤을 추었다. 6·25 때 월남하여 인천 부평에서 살았다. 1954년 인천국악강습소에 입학하여 2년 동안 수료하고 조교로 활약하였다. 1970년 7월에 중요무형문화재인 「강령탈춤」 만양반 및 목중 예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참고문헌 :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34

김창렬(金昌烈, 1889~?)

계양 선주지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획기, 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9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김훈(金勳, 1909~1986)

부평 출생이다. 베이징(北京)대학 사학과를 중퇴했다. 조선독립군, 신민보안대에 가담하여 항일투쟁을 했다. 광복 후 대동청년단 중앙본부 서북처장, 국방부 제4국 훈련국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발기인과 중앙당 감찰위원, 민주당 인천병구당 위원장, 경기도당 위원장 역임했다.

부평2동 삼릉 지역에서 살면서 서민들과 호흡을 같이했으며 오랜 시간 자유당 정권과 맞서 투쟁하였다. 그 결과 부평이 포함된 인천 병구 지역구에서 4대 국회의원과 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참고문헌 : 「역대 국회의원 총람」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라성호(羅聖鎬, 1883~?)

라준영(羅俊英)이라는 가명도 썼다. 옛 부천군 부내면 상리 출신으로 경성의전을 5회로 졸업했다. 1915년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가서 개업의로 일하며 독립운동 조직에 들어가 활동했다. 1920년대 초에는 임시정부 자금모집책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에는 만주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 태림양행을 경영하며 비밀결사를 이끌기도 했다. 1930년대에는 텐진(天津)에서 박인(博仁)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업하고 비밀투쟁을 벌였다.

❖참고문헌 : 『삼천리』 1932년 2월 1일, 『고등경찰 연표』 1920년 5월1921년 1월, 「옹의조선인명부」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류완무(柳完茂, ?~1909)

서곶 시천동의 시시내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아명이 인무(寅茂)여서 ‘유인무’로도 알려져 있다. 1898년 치하포 사건으로 인천 감리서 감옥에 갇혀있던 백범 김구를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바 있고, 이후 백범과 간담상조하며 교유하였다. 1904년 간도감계(間島勘界) 지리서인 『북여요선(北興要選)』의 간행 사업을 주도하였다.

1905년 이후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 근거지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했으며, 1908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일신문 간행 사업에 참여하였다. 2009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데이터베이스.

류희강(柳熙綱, 1911~1976)

서곶 시천동의 시시내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검여(劍如)이다. 대사간을 지낸 류태동, 애국지사 류완무 등을 배출한 유서 깊은 명문 가문에서 성장, 향리에서 한학을 배우고 부평향교에서 공부한 뒤 성균관대학교의 전신인 경학원 명륜학원에 다녔다. 그 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상하이(上海)미술연구소에서 서양화를 공부하고 베이징으로 가서 서예와 금석문을 공부했다.

1952년 인천문총회관에서 박세립·장인식 등과 함께 대동서화동인회를 결성하고 활동하면서 서예 활동에 온 정열을 바쳤다. 1953년과 이듬해 국전에서 박세립·장인식 등과 나란히 연속 입선하였다. 1955년부터는 특선과 문교부장관상을 연이어 수상하고, 1958년까지 계속 4회에 걸쳐 특선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에는 추천작가가 되었으며 1959년에는 국전 심사위원 자격을 갖게 되는 국전 초대작가가 되어 활동하였다.

박광원(朴光遠)

생몰년을 알 수 없다. 계양 상리(현 계산동) 출신이다. 청년기부터 부천군과 인천시 공무원으로 일했다. 인천시 서곶출장소장, 부평출장소장과, 북구청장, 동구청장, 인천시 산업국장 등을 지냈다.

박문칠(朴文七, 1875~?)

계양 선주지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장거리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횡기, 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9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박영근(朴永根, 1958~2006)

전라북도 부안에서 출생, 전주고등학교에서 수학.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시인이다. 1980년 군에서 전역한 뒤 서울 구로 3공단 등지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다. 1981년 동인지 『말과 힘』을 발간하여 노동문학에 뛰어들었다. 그 뒤 박노해와 백무산, 이소리, 김해화, 김기홍 등 노동자 출신 시인들이 등장했다.

1984년 활발한 민중민족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첫 시집 『취업공고판 앞에서』를 출간했다. 그를 유명 노동 시인으로 알려지게 한 민중가요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는 이 시

집에 실렸다. 1985년 가을 미술동인 '두령'의 성효숙과 인천으로 이주했다. 1993년에 발간한 시집 『김미순전(傳)』으로 1994년 제12회 신동엽창작기금을 받았다.

그 뒤 민족문학작가회의 인천지회 부회장과 인천민예총 사무국장, 인천민예총 부지회장, 2004년 민족문학작가회의 시분과위원장 등을 맡았다. 2012년 9월 부평 신트리 공원에 시비가 세워졌다.

방운창(方允昌, 1914~?)

부평 부내면 마정 마을(현 산곡동) 출생 독립투사이다.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 신촌(新村) 223호에 살았다. 1934년 5월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경기도 경찰부에 치안유지법 위반 위반으로 구속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배응준(裵應俊, 1866~?)

계양 장기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횡기, 보안법위반 혐의로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성유운(成有運, 1924~?)

대전 출생이다. 194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52년 동 대학원 소아과 전문의 과정을 졸업했다. 미국 뉴욕대학 의과대학 대학원에도 유학했다. 1950년 보건부 중앙청진료소 의무관으로 의료 관료 생활을 시작, 1958년 나환자 의료시설인 부평 성계원(成蹊園) 원장(의무관3급)으로 부임하고 국립 부평병원 원장을 맡는 등 1960년대에 부평에 머물렀다. 1967년 국립의료원 부원장을 맡으며 인천을 떠났다. 그 후 국립서울공항검역소 소장을 지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행정간부전모」·「대한민국인물연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송선옥(宋先玉 1882~?)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황기, 보안법위반 혐의로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신현정(申鉉鼎, 1916~?)

부평 후정리(현 삼산동) 영성미 마을 출신이다. 부평공립보통학교를 나와 일본에 유학하여 와세다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광복 후 군법무관이 되었다. 전역 후 춘천지법과 인천지법 판사를 지내고, 인천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인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참고문헌 : 『계양사』(2001).

심계택(沈桂澤, 1917~?)

부평 후정리의 영성미 마을 출신이다. 부평 출신의 대표적 실업인으로 청송사업소, 동명산업, 청송건설 등을 경영하였다. 뒷날 진보당 당수가 되어 자유당 정권에 의해 법살 당한 죽산 조봉암을 도운 일로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계양사』(2001), 『대한민국인사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심난택(沈蘭澤, 생몰년 알려지지 않음)

부평 후정리의 영성미마을 출신이다. 일찍이 부평동 94번지에서 중앙연탄을 경영하는 등 상공업계에 투신하여 많은 사업을 했으며 인천상공회의소 의원을 지냈다.

❖참고문헌 : 『계양사』(2001).

심덕기(沈德基, 1911~1992)

서곶 백석동 한들마을의 평산 심씨 가문에서 출생해 1932년 경성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금촌금융조합에서 일했다. 일제의 수탈로부터 민족자본을 지키기 위해 갈등하고 고심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1951년 최초 지방자치제 실시 때 민선 시의원에 서곶 대표로 당선되어 고향 서곶의 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애썼다. 1954년 제2대 인천시 의원에 재선되고 의장에 피선, 농업과 공업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주력하였다.

1950년대에는 서구 검암동에 사유지 3만여 평을 쾌척하여 영화중학교 분교를 설립하고 낙후되어 있던 서곶 지역의 교육 발전에 큰 공적을 세웠다. 이 학교는 이후 서인천중, 고려중, 인광중으로 교명을 변경해 오다가 서인천고등학교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 『서구사』(2004).

심운섭(沈雲燮, 1899~1966)

서곶 가좌동 가재울마을에서 출생했다. 서곶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보통학교 과정 수학, 중학교 과정 수학의 길을 열었다. 인천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19년 인천상업학교를 졸업했으며 금융조합 서기로 일했고 1940년대에 인천 인현동에서 환일(丸一)형제운송점을 경영하였다.

1930년대에 브나로드 운동에 나서 가좌동 261번지 자택에서 가재울강습소를 열어 문맹퇴치와 계몽운동을 벌였으며 원적산 줄기 아래 지금의 가정초등학교 자리에 건물과 운동장을 짓고 강습소를 확대했다.

그의 농촌 계몽, 농민교육 운동은 장남 심재갑에 의해 가좌농민학교로 계승되었다. 가좌동 261번지에 1715년에 지은 청송의 고택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 : 『서구사』(2014), 『인천고인물사』(2016).

심혁성(沈赫誠, 1888~1958)

서곶 백석동 한들마을에서 출생했다. 청년기에 계양 오류리(현 계양구 오류동)에 이주했고 3·1운동 때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3월 24일 오후 2시경 장기리 시장에서 3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주동자로 체포되었다.

1919년 10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1년 3개월 남짓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연명하다가 8·15 광복 후 고향인 백석동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항일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훈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데이터베이스.

안병혁(安炳赫)

생몰년을 알 수 없다. 대한제국 말기 부평 작전리에서 출생했다. 개화기 교육을 받고 구한말 내무부 주사(主事)를 지냈다. 고향에 내려와 부평군 서면장(西面長)을 역임하고 계양면장으로 있을 때 기미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 때 군중들의 청탁으로 태극기를 그려주는 등 많은 일을 도왔다. 또한 순절한 이은선(李殷先)의 순절회문(殉節回文)을 송희선(宋熙善)·임대규(林大奎)와 함께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 『계양사』(2001).

안윤필(安允弼, 1887~?)

계양 장기리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횡기, 보안법위반 혐의로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안형범(安亨範, 1914~1992)

평안북도 구성군에서 출생했다. 1937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40년 부평의원을 개원했다. 1963년 부평연합병원을 개원하고 1967년 고려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부평안병원을 열고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뒷날 세림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말년에는 부평동 549번지에서 살았다. 아들을 따라 호주로 이민 갔으며 그곳에서 별세했다.

❖참고문헌 : 부평세림병원 홈페이지(<http://www.iserim.co.kr/>).

오강산(吳江山)

생몰년을 알 수 없다. 조선시대 말기 서곶 경서동에서 출생했다. 서곶 지역에 구전된 전설에 의하면 그는 소년기에 해안 방비 초병들로부터 총포술을 배우고 명포수가 되었다. 1906년 경서동 금산에서 큰 호랑이를 잡았다.

그 해 『만세보』신문은 ‘지난 달(11월) 계양산 일대에 호랑이가 출몰하여 인명과 가축의 피해가 많아 조선일일신문사가 포수들을 모집해 포획 작전에 나서 그 호랑이를 사살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포수 이름은 없으나 그가 오강산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만세보』1906년 12월 9일자 『인천의 성씨·인물고』(1991).

오순환(吳純煥, 1921~1992)

서울에서 출생했다. 서울 창천감리교회 청년 회원으로 있던 1938년 항일 결사인 창천체육회와 조기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항일독립운동의 방안으로서 조선총독과 일본인 고관을 암살하여 동포들의 민족의식을 고양할 계획을 세웠다. 1941년을 거사 시기로 잡고 무기조작 기술을 습득할 목적으로 인천조병장에 입사하여 일하던 중 체포되었다.

1942년 5월 10일 경성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언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데이터베이스.

원인상(元仁常, 1901~1965)

부평 오정리에서 출생했다. 인천공립상업학교를 졸업했다. 1927년 6월 인천 각 방면을 망라하여 계급과 파벌을 타파하고 전 인천적 집단체인 신정회(新正會) 창립 총회에서 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언론에도 몸담았다. 동아일보 인천지국 소사분국장(1934년), 소사지국장(1939년)에 있었던 것이 그것이다. 육영사업에도 힘을 보탰다. 소사공립보통학교가 학급 증설로 교지 부지가 협착해 교사를 증·개축하는 데 앞장섰다.

광복 후에는 1947년부터 한강수리조합 김포·부천조합장을 지냈다. 1950년대 지방의원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 『계양사』(2001), 『인천광역시사』(2002), 『부천시사』(2002), 『인천고인물사』(2016).

유연봉(柳連奉, 1891~?)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훼기, 보안법위반 혐의로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윤일중(尹日重 1892~?)

서울 출신이다. 일본 도호쿠(東北)제국대학 전문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다. 경성전기공업, 일본도쿄전등, 조선수력전기, 장진강수력전기, 조선전업주식회사 등에서 일했다. 광복 후 인천에 와서 부평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장을 지냈다. 그 후 학술원 회원, 대한기술총협회 이사를 지냈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경응(李敬應, 생몰년 알려지지 않음)

1919년 계양면 면서기로 재임 중 3·1 만세사건 당시 대중의 시위를 밀고하였다고 오해받기도 했다. 부천군 교육부 서기, 부평학교 교원을 지내고 1935년 10월부터 1940년 3월까지 5년간 부천군 서곶 면장으로 일했다. 그 후 부천군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다음해 10월 17일까지 인천부 서곶 지청장으로 일했으며, 동년 10월 17일 선거에 의해 서곶지청장으로 뽑혀 1949년까지 다시 일했다.

❖참고문헌 : 『인천공보』.

이공우(李公雨, 생몰년 알려지지 않음)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황어장터에서 심혁성과 함께 3·1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이른바 소요, 훼기,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서대문감옥에서 1년을 복역하고 그해 9월 19일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참고문헌 : 「판결문」 경성지방법원(1919년 9월 13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금산(李今山, 1893~?)

계양 선주지동 출신 독립투사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훼기, 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9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이담(李潭, 1879~1955)

계양 다남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운동 때 심혁성·임성춘 등과 함께 계양면의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소요, 훼기, 보안법 위반 등으로 같은 해 10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항일독립운동에 기여한 공훈으로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두산백과』.

이성민(李性玟, 1919~?)

경남 남해군 출생.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함경북도 청진에서 화학공업사, 고무공장, 방직공장 등을 자영했다. 광복 후 조선민족청년당 활동을 하다가 월남하여 인천에서 회사를 경영했다. 조선민족청년당 인천시 단장을 맡았으며 1948년 부평에서 제헌의원 선거에 출마, 조봉암에게 패했다. 다음해 반민특위 인천지부에 속해 이중화·전정윤 등 친일 인사들을 조사하는 조사관, 그리고 특위 인천 지부장으로 활동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인사록』,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유선(李裕善, 1903~1974)

부평군 부내면 구산리에서 태어났다. 이태준(李太俊)에서 개명하여 근대사 자료에는 두 이름이 다 등장한다.

인천공립보통학교를 나와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하였다. 1930년 향리인 구산리에서 지주인 김대원(金大元)에게서 땅을 무상으로 빌려 진영(進英)학원을 열어 문맹퇴치와 계몽운동을 중심으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했다.

3·1운동 후 일본으로 갔다가 1940년 귀국했다. 이후 부천군 심곡리에 거주하였다. 1941년 성서 조선역사와 민족잡지 발간, 강연 등의 혐의로 일경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하였다.

광복 후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참여하여 부천지부를 결성하였고,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5년 8월 5일자, 『대별 회원정보』 대한민국헌정회 인터넷 홈페이지.

이은선(李殷先, 1876~1919)

계양 장기리에서 출생하였다. 3·1만세 때 300여 명의 시위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4명의 일본인 순사가 주동자 심혁성을 체포하였다. 시위 군중과 함께 순사를 포위하고 심혁성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며, 일경을 구타하여 심혁성을 도망치게 하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일본인 순사가 칼로 선두에 있던 그를 찔러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데이터베이스.

이태완(李泰完, 1884~?)

계양 다남동 출신 독립투사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횡기, 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이학선(李學善, 1884~?)

경기도 여주 출생. 1908년 정용대(鄭用大) 의병진에 가담하여 소대장으로서 경기도와 부평 등지에서 투쟁하였다. 스스로 창의좌군장이라고 칭하고 기치를 들어 의병 수백명을 지휘해 무장투쟁을 펼쳤다.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데이터베이스.

이화자(李花子, 1916?~1950)

부평에서 출생했다. 13세 전후 인천 권번에서 기생 수업을 받고 술집에서 작부로 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1934년 8월 『조선중앙일보』를 보면 인천 권번 기생 13명이 재난의연금을 낸 기사가 있는데 맨 앞에 이름이 실려 있다.

20세 전후이던 1935년 부평에서 활동했다. 이해 여름 혹은 초가을, 포리돌레코드의 김용환이 부평의 한 술집에서 노래하던 이화자를 발굴하여 데뷔시켰다. 이화자는 1936년 2월 음반 녹음을 위해 도쿄로 갔고 그해 3월에는 방송 출연, 4월에는 데뷔 음반 「초립동」, 「새봄맞이」, 「섬시악시」 「평양은 좋은 곳」, 「월미도」 등을 취입 발매했다. 뉴코리아레코드에서는 1936년 가을까지만 음반을 발표했고 포리돌레코드로 소속을 옮겨 활동했다.

잡가풍의 신민요와 애담은 트로트에 고루 능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다. 주로 여성 화자가 넘두리조로 신세 한탄을 하는 내용의 서민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호소력이 뛰어났다. 자전적인 가사를 담은 자서곡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어머님전 상백」과 기생의 한 많은 삶을 그린 「화류춘몽」이 유명하다. 1940년대부터 손을 댄 아편에 중독되어 건강을 많이 상하고 잠깐의 결혼 생활도 실패로 끝나면서 폐인과 같은 생활을 했다.

광복 후 아편을 끊고 활발하게 무대에 서며 전성기를 누렸다. 1946년 2월에 조선악극단 「비 내리는 부두」 악극에 출연하고 4월에는 포항읍의 큰 요리점 대동관에서 공연, 5월에는 대구에서 극단 신성과 대공연을 해서 갈채를 받았다. 이후 조선극장악극단의 「갑수의 일생」, 「어머님전상서」로 전국 순회공연을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다시 아편에 빠져들었다. 1950년 봄 선배가수 이철(李哲) 추모 공연이 열린 중앙극장 무대에 선 것이 마지막이었다. 동년 4월 6일 서울 공덕동 136번지 자택에서 사망했다.

❖참고문헌 : 「유행가수 금석 회상」 「삼천리」 제8호-1938년 8월 1일자, 「부인신보」 1948년 7월 8일자, 「동아일보」 1957년 7월 28일자.

이후규(李厚珪, 생몰년 알려지지 않음)

인천 주안 출신이다. 부평 지역에서 인쇄업을 경영하고 1952년 인천시의회 의원, 1956년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참고문헌 : 「계양사」(2001).

이훈익(李薰益, 1916~2002)

서곶 연희동에서 출생했다. 부평공립보통학교를 나와 부친 이현신이 전교(傳敎)로 있던 부평향교에서 한학을 배웠다. 부천군 서곶면사무소의 서기로 임용되고 30여 년간 서곶출장소 소장 등 인천시 공무원으로 일했다. 인천원에농협의 전무로 일하기도 했다.

퇴직 후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해 인천사 발굴 정리에 몰두했다. 1983년 『인천충효록』을 시작으로 『인천지지』, 『인천지방 향토사담』, 『인천의 성씨 인물고』, 『인천지명고』, 『인천지방의 전통제례』, 『인천 금석비명집』, 『근세 인천지방의 전란사』 등으로 집필, 출간하였다.

1997년부터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연합회장을 맡았으며, 인천교육대상, 인천광역시문화상 학술부문, 서울신문사 제정 한국향토문화대상을 받았다.

임성일(林聖日, 1885~?)

본적이 계양면 선주지리 101번지였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훼손, 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임성춘(林聖春, 1869~1937)

본적과 주소가 계양면 장기리 12번지였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11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훼손·직무집행 방해·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포창)을 추서받았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데이터베이스.

임창현(林昌鉉, 1862~?)

계양구 선주지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훼기, 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임혜란(林惠蘭, 1965~1993)

서울에서 출생했다.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를 중퇴하고 노동 현장에 투신, 인천 링크시스템에 입사했다. 대한트랜스로 옮겨가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했다. 노동쟁의 관련으로 해고되고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91년 인천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공간 제공 및 기독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한 인천노동선교문화원 창립에 참여했다.

❖참고문헌 : 「열사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터넷 홈페이지.

장석우(張錫佑, 생몰년 알려지지 않음)

현 부평성모병원 자리에 있었던 소화고등여학교(현 박문여중고) 설립자이다.

강화 출신으로 1900년에 주명서, 김용태 등과 주단 포목전인 ‘서흥태(瑞興泰)’를 일으켜 번창 일로를 걷게 되었다. 인천 상업계에 중추 인물로 떠올라 정치국, 정영화 등과 함께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를 이끌어 나갔다. 한일합방이 되면서 조선인상업의(日人商議)에 합쳐지자 조선인 의원(議員) 중 특별회원으로 뽑혔으며, 1920년에는 조선인에게 유일하게 한 자리가 주어지는 부회두(副會頭)에 선출되기도 했다.

교육 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영화학교, 인천공립보통학교, 부평공립보통학교 설립에 토지를 기부했고, 1940년 3남인 광순(光淳)의 권유에 따라 소화고등여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사업에도 기여했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1916년 4월 27일자·1924년 2월 7일자·1925년 2월 7일자·1937년 7월 3일자.

전국환(全國煥, 1878~1927)

한성(서울) 출신 독립투사이다. 국내에서 부평군수 등 관직에 있을 때는 전국환이라는 이름을, 독립투쟁 시에는 전협(全協)이라는 이름을 썼다.

1898년 농상공부 주사로 관료에 올랐으며 이후 제주 군수를 지내고 1908년 부평 군수로 부임해 선정을 펼쳤다. 1908년 사립 계창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뒷날 부평공립보통학교로 계승시켰다.

1909년 망국이 눈앞에 보이자 북간도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펼쳤다. 1912년 군자금 마련하기 위해 국내로 잠입, 윤치호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일, 사주전(私鑄錢)을 만들려고 한 일로 일경에 체포되어 3년을 복역하였고 출옥 후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1919년 임시정부 창립에 참여하였고 국무총리 서리 도산 안창호의 명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 비밀결사인 대동단을 조직하였다. 동년 11월 의친왕 이강을 상하이로 망명시키는 공작을 전개했으나 실패해 다시 체포당했다. 다음해 12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27년 옥고로 인해 병을 얻어 가출옥한 직후 순국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의친왕 망명 호송작전에는 인천 장봉도 출신으로 인천상업학교를 나와 뒷날 의열단원. 아나키스트로 항일투쟁을 펼친 이윤규·이정규 형제가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다. 조봉암도 대동단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28일자, 「황성신문」 1908년 9월 3일자, 「매일신보」1912년 6월 4일자 「인천고인물사」(2016),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데이터베이스.

전기순(全基順, 1878~?)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훼기,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9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전봉학(全奉學, 1883~?)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본적과 주소가 부천군 계양면 이화리 255번지였다. 1919년 3월 24일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전원순(全元順, 생몰년 알려지지 않음)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아 1년 2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 경성지방법원(1919년 10월 29일) 「독립운동사자료집」제5권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전천능(全千能, 1891~?)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횡기, 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정광근(鄭光根, 1929~2004)

서구 검암동 중동 마을의 해주 정씨 집성촌에서 출생해서 성장했다. 부평의 미8군 에스컴(SCOM, 주한미육군병참본부) 기지의 NCO클럽 인천, 김포, 강화 지역 총책임자로 일하고 1989년 정년퇴직하였다.

1967년 서곶 지역 유일의 중학교인 고려중학교가 재정파탄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자 서곶 유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학교 유지 재단을 인수했다. 교명을 인광중학교로 개칭하고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재산을 아낌없이 털어 넣었다.

영화중학교서인천중학교고려중학교인광중학교로 이어진 이 학교는 철마산과 계양산으로 막혀 인천과 부평 다운타운보다 크게 낙후되고 교육에서 소외된 서곶 지역의 등불과도 같은 학교였다.

정운구(鄭雲衢, 1867~?)

경기도 출생. 1909년 부평 군수로 부임했다. 재임 중 부평공립보통학교의 전신인 사립계창학교와 사립계남학교 유지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 1910년 3월 계창학교가 부평공립보통학교에 병합되자 교장을 겸했다. 강제합병 후인 1910년 11월 조선총독부 발령으로 부평 군수에 유임되어 근무하다가 1914년 2월 퇴임했다.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구한국 말기 마지막 부평 군수로서 교육을 진흥하고 애민정신으로 통치한 사료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강제 합병 후 재임용되고 일제 통치에 순응한 기록 때문에 뒷날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참고문헌 : 「황성신문」 1909년 4월 21일자·1910년 1월 14일자·1910년 5월26일자 「매일신보」 1912년 5월14일자 「친일인명사전」(2009).

정재철(鄭在喆, 1921~1993)

1939년 부평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소화정(현 부평동) 소재 홍중(弘中)상공주식회사 부평 공장의 직공으로 근무하였다. 1940년 12월부터 1941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독립운동자금 520원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던 중 용산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42년 10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2년 12월 15일 대구형무소로 이송, 1943년 9월 25일에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경성지방법원(1942년 10월 7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정준택(鄭準澤, 1911~1973)

부평에서 출생해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했다. 1945년 4월 황해도 만년광산 기사로 자리를 옮겼다. 광복 직후 귀환하지 않고 북한에 남았으며 그해 11월 소련 군정하에서 공업국장을 맡고 이후 북조선5도총국 산업국장이 되었다.

1957년 북한 내각 제5대 부총리, 1958년 6대 부총리, 1962년 제7대 부총리에 선출되었고 그해 10월 다시 국가계획위원장에 임명되었다. 1969년 노동당 정치위원 후보위원을 지냈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90년 1월 26일자 외.

정지석(鄭芝錫, 1859~?)

서곶 검암동에서 출생, 1895년 관립한성사범학교 속성과를 졸업했다. 1896년 2월 27일 강화공립소학교 교원으로 임명, 관임관 6등 직급을 받았다. 1899년 9월 평안남도 삼화항(三和港) 공립소학교 교원이 되었다가 동년 12월 30일 강화공립소학교로 복귀했다. 1905년 10월 경기도 풍덕군 공립학교 교원을 거쳐 1907년 1월 관립징청(澄淸)보통학교 교원으로 전근했다.

중년기에 들어 교원직을 사임하고 향리에서 사설강습소를 열고 서곶 지역의 교육 계몽에 이바지하였다. 1924년에는 경기도 부천군 학교평의회 회원을 맡았다. 부평과 서곶의 경관을 읊은 「계양팔경」을 남겼다.

❖참고문헌 : 『대한제국관원이력서』(9책 254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정훈석(鄭薰錫)

출신지와 생몰년을 알 수 없다. 1914년 모월곶면과 석곶면 2개 면을 통합해 부천군 서곶면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 초대 서곶면장으로 부임, 동년 4월 1일부터 1920년 2월 7일까지 일했다.

❖참고문헌 : 『인천공보』.

조구현(趙九鉉)

부평 하리(현 계산동) 출신이다. 생몰년을 알 수 없다. 개화기에 한성(서울)에서 공부하고 1924년부터 1932년까지 부천군 부내 면장을 장기간 맡아보았다. 1928년 앞장서 부평금융조합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조합장이 됐으며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부평향교 초대 유도회장을 맡았다. 이후 부평향교 전교(傳敎)를 지냈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36년 8월 5일자, 『대중일보』 1946년 1월 24일자 『계양사』(2001)

조기준(趙璣濬, 1918~2003)

부평 출생이다. 부평공립보통학교를 나와 경기도 농업기술학교를 수료했다. 한강농지 개량조합 및 김포농장농업기술원에서 일했다. 광복 후 인천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부평향교 유도회장을 맡아 일했다. 1977년부터 부평향교의 전교를 맡아 지방문화재인 부평향교의 ‘교궁(敎宮)’을 복원하는 한편 유교의 현대화와 ‘내 고향 뿌리 찾기’ 운동을 전개, 30여 년간 모은 사료를 바탕으로 『부평사연구』를 발간했다.

1998년 7월 문을 연 부평문화원의 초대 원장으로 추대되고, 향토사 연구에 전념하여 『지방자치와 향교』, 『부평의 지명유래지』, 『부평인물사』 등의 저서를 발간했고 계양구에서 발간한 『계양사』의 집필과 교정, 감수 활동을 맡았다.

조봉암(曹奉岩, 1899~1959)

강화에서 출생했다. 강화공립보통학교와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하고 강화군청 사환, 사무보조원, 대서소 보조원 등으로 일하고 3·1만세 운동으로 투옥되어 반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 후 서울 YMCA 중학부에서 수학하며 인천의 미곡상 박삼홍의 아들인 박남철과 교유하였다. 대동단 사건으로 다시 투옥되었으며 출옥 후 고향 친구 유찬식의 권유로 일본 유학길에 올라 게이오(慶應)대학 전문부 정경과에서 수학하였다.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였으며 아나키스트들과도 교유하였다. 청년운동 지도자로

성장하고 이후 공산주의 거물 이론가가 되어 베르후네우딘스크 한인 공산주의자 연합 대회에 참가하였다. 다시 모스크바로 갔고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하였다.

귀국하여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 주역이 되었으며 코민테른 승인을 받기 위한 밀사로 다시 모스크바에 파견되었다. 조선공산당 조직이 일제 검거되자 중국 상하이에서 투쟁을 전개했으며 만주에 잠행하여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조직하였다. 1931년, 중국공산당 상하이지부 서기가 되었고 중국혁명호제회 상하이 한인분회를 조직하고 상하이한인반제동맹을 창립하였으며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하고 온 동생 조용암과 함께『혁명의 빛』을 발간하였다.

1932년 9월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체포 압송되고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1939년 가석방되어 인천으로 왔고 강화 출신 김용규, 그리고 박남철의 도움으로 인천비강업조합장 자리에 앉았다. 그 후 투쟁하지 않는 유희의 세월을 보냈다.

1945년 1월, 예비구금령으로 구속되었다. 8월 15일 석방되어 인천으로 와서 다음날 인천보안대를 조직하고 8월 18일,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를 조직했다. 1946년 미군정의 요청으로 공산주의를 버리고 전향, 1948년 부평이 포함된 인천 을구 제헌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85명의 무소속 의원들을 규합해 무소속구락부를 결성하고 대표가 되고 초대 농림부장관에 지명되었다. 농지개혁법을 입안해 세계 최고의 토지 균등성을 신속히 확보했다. 토지소유자가 된 농민들이 6·25전쟁 때 북한군 편에 서지 않아 나라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으며, 농민들의 저력이 자식 교육으로 집중되어 국가부흥의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50년 5월, 부평 중심 인천 병구에서 무소속으로 제2대 총선에 당선되고 6월에 국회부의장에 당선되었다. 1952년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다시 뽑혔다.

그 해 8월, 대통령선거에서 약 70만 표를 얻어 차점자로 낙선했다. 1955년 진보당 전국추진위원 대표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 후보로 뽑혔으며 다음해 대통령선거에서 216만 3천여 표를 획득했다.

1958년 육군특무부대가 ‘간첩 양이섭이 조봉암 씨에게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줬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함으로써 탄압이 시작되었다. 1959년 대법원이 국가 변란과 간첩죄

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고 다음 해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누명을 쓰고 법살당한 것이었다.

사후 52년이 지난 2011년 1월, 대법원 전원 합의부가 재심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이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처는 1940년대 초반 유희의 기간에 일제에 국방 헌금을 낸 것이『매일신보』 기사에 있다는 이유로 서훈을 유보하였다.

❖참고문헌 : 『조봉암 평전』.

조성철(趙成七 1872~?)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훼손, 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9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조한익(趙漢翊, 1884~?)

계양 박촌리 출신이다. 본적과 주소가 박촌리 10동 1호였다. 1906년 6월1일 탁지부(度支部) 사세국(司稅局) 측량과 견습생으로 시작해 동년 12월 토지측량법을 익혔다. 1907년 탁지부 지수(技手) 판임관 8급으로 임용되어 일했다.

❖참고문헌 : 『대한제국관원이력서』(35책 812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채귀현(蔡貴鉉, 1881~?)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훼손,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9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채규명(蔡奎明, 1886~?)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횡기,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9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채봉운(蔡奉雲, 1880~?)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횡기, 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채봉혁(蔡鳳赫, 1877~?)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횡기,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9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채흥봉(蔡興奉, 1895~?)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횡기,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9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최성옥(崔成玉, 1872~1929)

계양 장기리 출생. 1919년 3월 24일 오후 2시경 장기리(場基里) 장터에서 심혁성(沈懃誠) 등의 주도로 2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벌였다.

1919년 10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과 소요·횡기·직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미결구류 90일 통산)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하여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당하고 결국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서」경성지방법원(1919년 9월 13일), 「독립운동사자료집」 국가보훈처.

최정일(崔淸日, 1864~?)

계양 이화동 출신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횡기,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9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한하운(韓何雲, 1919~1975)

본명은 태영(泰永). 함경남도 함주 출신이다. 1932년 함흥제일공립보통학교, 1937년 이리농림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1939년 도쿄 세이케이고등학교(成蹊高等學校) 2년을 수료하였다. 그 해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1943년 베이징대학 농학원을 졸업하였다.

1944년부터 함경남도 도청 축산과에 근무하였으나 1945년 한센씨병(나병)에 걸려 공직을 사퇴하고 서점을 경영하였다. 1946년에는 함흥 학생데모사건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바도 있다. 그 뒤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하고 1948년 월남, 유랑의 생활을 하였다.

1950년 부평으로 와서 만월산 산록에 성혜원(成蹊園), 1952년 신명보육원(新明保育院) 등을 설립, 운영하였고, 1953년 대한한센연맹위원회장으로 취임하여 나환자 구제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 뒤 1966년에는 한국사회복지협회를 역임하는 한편, 무하문화사라는 출판사를 경영했다.

창작 활동은 학창시절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문단 활동은, 1949년 이병철의 소개로 『신천지』 4월호에 「전라도길」 외에 12편의 시를 발표하면서부터 전개되었다. 같은 해에 첫 시집 『한하운시초』를, 1955년에는 제2시집 『보리피리』를, 1956년에는 『한하운시전집』을 펴냈다.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1957), 자작시해설집 『황톳길』(1960), 『정본(定本)한하운시집』(1966) 등도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외.

홍여선(洪如善, 1877~?)

독립투사이다. 3·1만세 시위로 피체되어 소요, 회기, 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6개월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황남석(黃南錫 1929~?)

서울 출생으로 일본 간사이(關西)대학을 졸업했다. 광복 후 부평에 와서 미군 부평지구 교역처 지배인으로서 미군 부대 관련 부평의 경제를 좌우했다. 1967년 경진실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했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부평사
富平史



제 9 장

부평의 지명 유래

제1절 _ 부평 이전 이름의 뜻

제2절 _ 부평의 뜻

제3절 _ 부평구의 각 동(洞) 이름 유래

제9장 부평의 지명 유래



최재용(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인천광역시의 부평(富平)이 ‘부평’이라는 이름을 처음 갖게 된 것은 고려 충선왕 때인 1310년이다.

그 이전에는 시대에 따라 ‘주부토군(主夫吐郡)’(삼국시대~), ‘장제군(長提郡)’(통일신라 경덕왕 16년, 759~940), ‘수주(樹州)’(고려 태조 23년, 940~1150),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의종 4년, 1150~1215),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고종 2년, 1215~1308), ‘길주목(吉州牧)’(충렬왕 34년, 1308~1310)으로 불렸다.

이어 부평군이라는 이름을 얻은 뒤로는 지금까지 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부평군 이전 이름들의 뜻을 먼저 설명하고, 그 이후에 생긴 동네 이름들의 뜻을 설명하기로 한다.

| 제1절 | 부평 이전 이름의 뜻

1. 주부토군

부평의 삼국시대 때 이름은 ‘주부토군(主夫吐郡)’이다.

이는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 일대까지 영토를 넓히며 이곳을 점령한 뒤 군을 설치하고 지은 이름이라고 전해온다.

『삼국사기』에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장제군(長堤郡)은 본래 고구려 주부토군(主夫吐郡)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지금의 수주(樹州)로 4개 현을 거느렸다.(長堤郡 本高句麗主夫吐郡 景德王改名 今樹州 領縣四)”¹

그 이전에도 이 지역을 가리키는 어떤 땅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자료도 남아있지 않으니 현재로서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부평 지역의 이름은 ‘주부토군’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등 옛 자료에 기록된 대부분의 땅이름이 그렇듯, ‘주부토’는 당시의 어떤 우리말 이름을 한자의 소리와 뜻을 이용해 표시한 한자 차용(漢字借用) 표현이다. 우리말을 표현할 우리 글자 ‘한글’이 없던 시절이라 한자를 이용해 우리말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두(吏讀)나 향찰(鄉札)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하며, 땅 이름도 그렇다. 따라서 이를 지금의 한자 발음이나 뜻 그대로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되며, 당시에 어떤 뜻과 소리를 이들 글자로 표현하려 했던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주부토’는 그 해석이 쉽지 않아 국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통일된 견해가 없다.

¹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신라, 장제군.

이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석은 주부토의 ‘주(主)’를 ‘님’으로 해석하는 견해다.

이는 우선 신라시대 노래인 향가(鄉歌) 「서동요(薯童謠)」에서 “善花公主主隱(선화공주님은)…”이라는 표현에 ‘主’가 ‘님’의 뜻으로 쓰인 것을 근거로 한다. 또한 조선 중종 때 학자 최세진이 쓴 한자 학습서 『훈몽자회』에서 ‘主’를 ‘님 주(>주)’라고 풀어놓은 것도 좋은 근거다. 이때 ‘님’은 현대어에서도 그렇듯 높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는 ‘주인’이나 ‘어른’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넓게 ‘왕(王)’이나 ‘부족장’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고대어는 현대 일본어처럼 받침을 거의 쓰지 않는 ‘개음절어(開音節語)’였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이 단어가 고대에는 ‘님’이 아니라 ‘니마’라든가 이와 비슷한 어떤 발음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어에서 머리 앞부분을 ‘이마’라고 하는데, 중세어에서는 ‘니마’라고 했다. 그리고 ‘니마’ 이전, 고대에는 ‘나마’나 이와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 이 ‘나마’가 ‘니마’를 거쳐 ‘이마’가 되었고, 그 뜻은 ‘주인’이나 ‘왕’이라는 말이다. ‘이마’가 오늘날 사람 몸의 높은 곳(머리)의 맨 앞을 가리키는 것처럼 고대에는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던 것이다.

앞에서 밝힌 대로 『삼국사기』에는 “長堤郡 本高句麗主夫吐郡 景德王改名 今樹州 領縣四”라고 나와 있다. 곧 ‘主夫吐郡=長堤郡=樹州’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主夫=長=樹’, ‘吐=堤=州’라는 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님(<主)’은 고대에 ‘나마’ 또는 ‘니마’로 읽혔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발음이 조금 바뀌어 ‘나부’ 또는 ‘니부’가 되었고, 이를 한자로 나타낸 것이 ‘主夫’로 본다. 발음은 ‘나부’ 또는 ‘니부’가 되었지만 의미상으로는 ‘니마(<님 : 主)’를 나타낼 뿐이라고 본다.

또 ‘吐’는 장소(곳, 땅)를 뜻하는 우리말 ‘터’를 나타낸 말임이 거의 확실하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이 말은 ‘데’와 비슷한 어떤 발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며, 이를 ‘吐’라는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 ‘데’는 오늘날 ‘가운데’ 등의 단어에 쓰인 ‘데’처럼 장소(터)를 나타낸다. 그리고 ‘吐=堤=州’이니 ‘堤’나 ‘州’도 같은 뜻을 갖는다.

우리 고대어에서는 지금과 달리 자음(子音)의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구분이

없었기에 당시에는 ‘ㄷ’과 ‘ㅌ’, ‘ㄸ’이 구분 없이 쓰였다. 이 중 ‘堤’는 당시에 ‘테’ 정도로 발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참 뒤에 구개음화 현상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제’로 발음이 바뀐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주부토(主夫吐)’는 ‘나마테’나 ‘니마테’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한 한자 차용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뜻은 ‘주인의 땅(터)’ 또는 ‘임금(왕)의 땅’ 정도가 된다. 부평이 지금까지도 이 일대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이는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부 학자들은 ‘주(主)’는 ‘님’이라는 뜻으로 보되, ‘부(夫)’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옛날 우리 땅 이름에서 ‘불(火)’이나 ‘부리(夫里)’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나 별판 또는 산(山)을 뜻하는 말로 흔하게 쓰였고, 지금도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 착안한 해석이다. 하지만 ‘부(夫)’ 한 글자만으로는 ‘부리(夫里)’의 뜻을 갖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이 해석의 문제다.

이와는 또 다르게 ‘줄보뚝(毒)’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나타낸 것이 ‘주부토’라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 지역에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부평 평야는 원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곳으로 황무지였는데 사람들이 방죽을 쌓아 농경지로 가꾸었다고 한다. 농토를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 독을 쌓다 보니 그 독들이 줄줄이 이어져 ‘줄보뚝(毒)’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이 이름을 한자로 나타낸 것이 ‘주부토’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르면, 한자(漢字)로 된 우리 땅 이름 중 ‘주천리(注川里)’나 ‘주을동(注乙洞)’ 등의 여러 이름에 쓰인 ‘注’는 ‘줄’, 즉 선(線)처럼 곧게 뻗은 땅이나 물줄기를 나타낼 때 많이 쓴 글자이다. 그리고 ‘주부토(主夫吐)’의 ‘主’가 바로 이 ‘注’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고 본다. 또 ‘부리(夫里)’라는 한자로 자주 표현된 우리말 땅 이름 ‘부리’가 대부분 ‘벌(판)’을 뜻하는 바, 주부토의 ‘夫’는 이 ‘夫里’의 준말로 본다. 끝으로 ‘吐’는 ‘독(제방)’이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바꿔 쓴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주부토’는 ‘줄처럼 생긴 긴 벌판의 독’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라 경덕왕 때부터 고려 초까지 이곳이 ‘긴 제방’이라는 뜻의 ‘장제군(長堤郡)’으로 불린 것이며, ‘장제’ 역시 “독이 늘어서 있다”는 뜻을 한자로 바꾼 것이라 해석한다.

2 이에 대한 아래의 설명은 이병선, 『한국 고대 국명(國名) 지명(地名)의 어원(語源) 연구』(이회, 2012, 228~231쪽) 등을 참고했다.

하지만 옛날 우리말 땅 이름의 한자 표기에서 ‘注’가 ‘主’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거나 주로 땅(터)을 뜻하는 ‘吐’가 ‘독’을 뜻한다고 본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문헌 자료에서 그런 경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벌판이나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부리’를 ‘夫’라는 한 글자로 나타낸 것이라는 설명도 타당성이 별로 없다.

한편 지난 2009년에 실시한 계양산성 제4차 발굴조사에서 ‘主, 主夫, 主夫十’ 등 주부토와 관련된 글자가 쓰인 기와가 수십 점 발견되었다.³ 이 기와들은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 경덕왕이 재위 16년째인 서기 759년에 ‘주부토(主夫吐)’라는 이름을 ‘장제(長堤)’로 바꾸었는데 그 뒤로 100년이 훨씬 넘은 때까지도 ‘주부토’라는 이름이 계속 쓰이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한번 사람들의 입에 굳어진 이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2. 장제군

‘주부토군(主夫吐郡)’은 759년(신라 경덕왕 16)에 ‘장제군(長提郡)’으로 이름이 바뀐다. 경덕왕은 이때 전국의 행정구역을 ‘9주5소경(九州五小京)’ 제도 아래 ‘주-군-현(州-郡-縣)’ 체제에 맞춰 정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현처럼 주 앞에는 한자(漢字) 한 글자, 군-현 앞에는 한자 두 글자를 쓴 이름으로 통일했다. 장제군도 이에 맞춰 생긴 이름이다.

앞서 밝혔듯 ‘主夫吐=長提’라는 관계를 볼 때 여기서 ‘長’은 ‘主夫’, 즉 ‘님’과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長’은 ‘어른’이나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 또는 ‘말아들’에서처럼 또래 중에서 가장 위를 말하는 ‘만’의 뜻을 갖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또 ‘提’는 앞서 보았듯이 ‘吐’, 즉 ‘땅’을 나타낸 말로 해석된다.

결국 ‘長提’의 뜻은 주부토와 같이 ‘주인(만)의 땅’ 또는 ‘임금(왕)의 땅’ 정도가 된다.

3 이건식, 「조선시대 부평부(富平府)의 삼국시대 표기(表記) 계승 면명(面名) 표기에 대하여」, 『인천학연구』30, 2019, 131~132쪽.

3. 수주

‘수주(樹州)’에 대해서는 부평의 진산(鎭山)인 계양산의 북쪽 수소리(樹蘇里)에 주(州)의 청사(廳舍)가 있어 붙은 이름이라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분명치 않은 얘기다. 고려 초기에 주의 청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 부평부의 중심인 도호부관아는 계양산의 남쪽인 지금의 계산동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보다는 앞서 밝힌 『삼국사기』의 기록에 기대어 ‘수주’를 해석하는 것이 한결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樹(나무 수)’는 ‘님’의 뜻을 가진 고대어 ‘나마’ 또는 ‘니마’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 글자가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써 발음이 비슷한 ‘나마’를 표현한 것이다. 현대어 ‘나무’는 중세어에서는 ‘남기’ 또는 ‘나모’였으며, 고대어에서는 ‘나마’와 비슷한 어떤 발음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 ‘州’는 우리말 ‘터(땅, 마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수주’의 뜻은 ‘님의 땅’ 또는 ‘임금(왕)의 땅’ 정도로, ‘주부토’나 ‘장제’와 같다.

4. 안남도호부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는 군사 목적을 중심으로 행정 업무까지 관할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기구 이름이다.

이 동네의 진산(鎭山)인 ‘계양산’이 ‘안남산’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네에 만든 관청(도호부)과 행정구역이 ‘안남도호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안남(安南)’의 해석은 간단치 않은데, 우선 ‘安’은 ‘왕(임금)’이나 ‘주인’의 뜻을 나타낸 글자로 보는 해석이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고대 국어에서 이 ‘安’이 우리말 ‘아라’를 나타내기 위해 쓴 글자로 본다. 그리고 이 ‘아라’는 주인이나 임금을 뜻하는 우리말 ‘나라’의 ‘나’에서 ‘ㄴ’이 떨어

저 생긴 발음으로 추정한다.⁴

‘나라’는 지금도 국가(國家)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이며, 임금을 뜻하는 ‘나라님’이라는 말도 있다. 이처럼 ‘나라’라는 단어는 원래 주인이나 임금을 뜻하던 것이었고, 여기에 존칭 접미사 ‘님’이 붙어 쓰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이 좀더 넓어져 국가까지 뜻하게 되었다고 본다. 고대 성읍국가(城邑國家) 시절에는 나라님(임금, 왕)이 있는 도성(都城) 또는 조정(朝廷)이 곧 나라(국가)였던 것이다.

또 『삼국사기』에 보면 오늘날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에 있던 옛 고을 ‘安定縣(안정현)’에 대해 이런 설명이 나온다.

‘안현현은 본래 아시혜현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지금의 안정현이다’(安賢縣本阿尸兮縣 景德王改名 今安定縣)⁵

이를 보면 阿尸兮=安賢=安定的 관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兮, 顯, 定은 모두 별다른 뜻이 없는 접미사로 볼 수 있으며, ‘阿尸=安’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阿尸’는 당시 우리말 ‘아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므로, ‘安’ 역시 같은 발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아라’는 ‘나라’(주인, 임금)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를 한자 ‘安’으로 표기한 것이다. 한글이 없던 시절이라 표기는 한자를 이용해 ‘安’이라 썼지만 읽을 때는 ‘아라’라 읽었을 것이고, 그 뜻은 ‘주인, 임금’이라는 얘기다.

안남(安南)의 ‘安’ 역시 이와 똑같은 경우로 본다.

또 ‘南’은 앞의 1.주부토군에서 설명한 것처럼 ‘님(<主)’을 뜻한 고대어 ‘나마’를 발음이 비슷한 글자 ‘남(南)’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안남(安南)도호부’의 뜻 역시 앞선 이름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땅’ 또는 ‘임금(왕)의 땅’ 정도가 된다.

이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安’을 주인이나 임금이 아니라 ‘크다’는 뜻을 나타낸 말로 보는 해석도 있다.

4 이병선, 『한국 고대 국명(國名) 지명(地名)의 어원(語源) 연구』, 이회, 2012, 180~186쪽.

5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신라, 문소군.

이 역시 『삼국사기』에 있는 다음 내용들을 토대로 해석한 것이다.

“중반군 본고구려 식성군 경덕왕 개명 금안주(重盤郡 本高句麗息成郡 景德王改名 今安州)”⁶

“한성군 일운 식성 일운 내흥(漢城郡 一云 息城 一云 乃忽)”⁷

“한산현 본백제 대신현 경덕왕 개명 금홍산현(翰山縣 本百濟大山縣 景德王改名 今鴻山縣)”⁸

여기 “漢城郡 一云 息城 一云 乃忽”이라는 글에서 ‘漢(한)’은 ‘크다’ 또는 ‘많다’는 뜻의 순 우리말 ‘하다’의 관형형인 ‘한’을 뜻하는 글자이다. 당시 우리말을 표현할 한글이 없었기에 뜻과 관계없이 소리가 같은 한자를 끌어다 쓴 것일 뿐이다.

이는 “翰山縣 本百濟大山縣 景德王改名 今鴻山縣”에 나온 ‘한(翰)’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서는 ‘翰山=大山’이라 하여 ‘翰’이 ‘크다(大)’는 뜻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漢城郡=息成城’이라 했으니 ‘息’ 또한 ‘크다(漢)’는 뜻이고, ‘息城=安州’이니 ‘安’도 ‘크다’는 뜻을 가졌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남(安南)도호부’는 ‘큰 주인의 땅’ 또는 ‘큰 임금(왕)의 땅’ 정도가 된다.

이와는 다르게 ‘안남’이 우리말을 한자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한자의 뜻 그대로 “남쪽(南)을 편안하게(安) 다스린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의 남쪽인 이곳을 편안하게 다스린다는 말이다.

안남도호부는 본래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항복을 받은 뒤 전주(全州)에 처음 설치했고, 광종 때에는 고부(高阜)로, 성종 때에는 영암으로 옮겨다가, 지방제도가 정비된 1018년(현종 9)에는 다시 전주로, 그리고 1150년(의종 4)에 수주로 옮겨 설치한 것이 마

6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신라, 중반군.

7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한산주.

8 『삼국사기』, 권36, 잡지5, 지리3, 신라, 가림군.

지막이라고 한다.⁹

이 해석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데, 앞서 말한 1018년의 안남도호부 설치 때 지금의 황해도 해주(海州)에는 ‘안서(安西)도호부’를 설치하는 등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도호부를 설치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렇다.

이는 수도뿐 아니라 그 동서남북 지방 모두를 평안하게 다스리겠다는 뜻인 만큼, ‘안남도호부’를 “남쪽을 편안하게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안남’이라는 이름은 중국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던 것을 빌려다 쓴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 한 예로, 679년 중국 당(唐) 왕조 때 당나라가 지금의 베트남 하노이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두고 이곳을 지배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뒤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뒤로도 중국인들은 베트남 지역을 계속 ‘안남’이라고 불렀다. ‘월남(越南)’이라는 이름은 19세기에 들어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 중국인들이 이 ‘안남’을 어떤 뜻으로 쓴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자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중국에서 볼 때 남쪽에 있는 이 땅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를 부평의 옛 이름 안남도호부와 연결시키면, 이곳이 당시 수도인 개성을 중심으로 볼 때 남쪽에 있었기에 중국식 이름을 따서 ‘안남도호부’라 부른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에도 고려 광종 때인 951년(광종 2)에 똑같은 한자(漢字)를 쓰는 안남도호부가 설치되었다. 앞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이 역시 같은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계양도호부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는 이 동네의 진산(鎭山)인 계양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결국 계양산의 ‘계양(桂陽)’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9 남달우, 「지리지와 읍지를 통해 본 인천지역의 읍호 변천」, 『인천 정명 600주년 기념 인천광역시사』1, 2013, 225쪽.

이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이 산에 계수나무(桂)와 회양나무(陽)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이나 일본·중국 등지에 분포하는 계수나무는 단풍이 아름답고 꽃이 필 때 향기가 좋아 정원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 나무이다. 그런데 계양산에는 계수나무가 많지 않으며, 이전에 많았다는 기록도 없다.

회양나무는 실제로 이전에 계양산에 무척 많았던 나무이다. 재질이 단단해서 도장(圖章)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도장나무’라고도 불리는 회양나무는 계양산에 워낙 많아서 예전에는 계양산을 ‘회양목 산’이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물론 부평이나 서곶 쪽에 사는 사람들까지 와서 땀감용으로 이 나무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이처럼 회양나무가 많았다고는 하나 이 산에 계수나무가 없는 만큼 회양나무 때문에 산 이름이 계양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회양나무의 ‘양’은 한자로 ‘陽(별 양)’이 아니라 ‘楊(버들 양)’자를 쓴다.

따라서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말 땅 이름이 한자어로 바뀌는 과정에 비취 언어학적 입장에서 계양산을 해석하는 것이 한결 타당성이 있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계양(桂陽)’의 ‘桂’는 우리 옛말 ‘달’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계열의 땅 이름들과 비교했을 때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고구려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 ‘달’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늘에 있는 ‘달(月)’도 중세국어 때까지는 ‘달’이라 했고, 이 말에서 나온 ‘달다’라는 말은 오늘날의 ‘(매)달다’와 같은 뜻이다. 하늘에 있는 달이나 어떤 곳에 매다는 것이나 모두 ‘높다, 높은 곳’이라는 뜻과 이어져 있다.

지금은 이 ‘달’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곳에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데 키가 큰 사람을 말하는 ‘키다리(키+달+이)’, 방안에 있는 ‘다락(달+악)’, 비스듬하게 높은 곳을 말하는 ‘비탈(빛+달)’ 등이 모두 여기서 나온 말이다.

땅 이름에서도 ‘달’은 ‘산(山)’ 또는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였다.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달내’, ‘달래고개’, ‘달랫골’, ‘달래강’ 등의 땅 이름에 쓰인 ‘달’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곳들은 대부분 높은 곳, 곧 산골마을을 뜻한다.

『삼국사기』에 보면 “고성군 본고구려 달홀(高城郡 本高句麗達忽)¹⁰”이나 “고봉현 본고구려 달을성현(高烽縣 本高句麗達乙省縣)¹¹”이라 하여 ‘高=達’, 즉 ‘높은 곳=달(달)’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 ‘달’이 들어간 우리말 땅 이름들은 한자어 이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달월(月)’자나 ‘닭 계(鷄)’자를 갖게 된 경우가 많다. ‘높다’는 뜻의 ‘달’을 하늘의 달(月)로 해석하거나 ‘달’과 발음이 비슷한 ‘닭(鷄)’을 떠올리고 이 뜻을 가진 한자를 써서 이름 붙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도 경상도나 함경도 일부 지역 방언에서는 ‘닭’을 ‘달’이라 발음하기도 한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월곶(月串)이나 충청남도에 있는 계룡산(鷄龍山)이 이렇게 해서 생긴 대표적인 이름이다.

이곳 계양산의 ‘桂(계수나무 계)’자는 이 ‘달’을 ‘닭’으로 해석해 ‘계(鷄)’자를 쓰려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좀 더 좋은 뜻을 가진 글자로 바꾼 데서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¹²

한편 ‘양(陽)’은 땅 이름에서 흔히 바다나 강 같은 ‘물의 북쪽에 있는 땅’을 말할 때 쓰거나 ‘높은 곳’을 뜻할 때 쓴 글자이다.

서울의 옛 이름인 ‘한양(漢陽)’의 ‘陽’이 앞의 경우로, 물(한강)의 북쪽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또 뒤의 경우는 “높은 언덕을 양이라고 했다(高丘曰陽)”는 옛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다.

계양산(桂陽山)의 ‘陽’은 두 번째 경우로 볼 수 있다. 산이기 때문에 높은 곳이어서 이 글자를 쓴 것이다. 그냥 ‘계산(桂山)’이라고만 해도 되었겠지만 좀 더 뜻을 확실히 하거나 발음의 편리함을 위해 ‘陽’이 들어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陽’이 그냥 사람들이 사는 마을(별)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

다. 이렇게 보면 ‘계양’은 ‘달’이나 ‘달별’ 또는 이와 비슷한 어떤 발음으로 불리던 우리말 이름이 한자로 바뀌어 생긴 이름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뜻은 ‘높은 곳(산)’이나 ‘산이 있는 마을’ 정도가 된다. 이 역시 ‘주부토’ 등 그 이전 이름들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름이다.

6. 길주목

‘길주목(吉州牧)’의 ‘길주(吉州)’는 흔히 고려 충렬왕이 이곳에 매 사육장을 만들어 놓고 사냥을 즐긴 ‘길(吉)한 땅(州)’이라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충렬왕이 매 사냥을 즐겨 부평 일대에 매를 관리하는 ‘응방(鷹坊)’을 설치해 놓고 이곳에 자주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과, 임금을 절대시하며 우러러보던 당시 시대상을 따져볼 때 ‘길(吉)한 땅(州)’이라는 해석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적지 않다.

지금의 계양구 계산동과 서구 공촌동 사이에 있는 경명현(景明峴), 즉 ‘징맹이고개’도 이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전한다. 응방을 설치해 놓고 매를 징발(徵發)해 사냥에 이용했기 때문에 ‘징매(이)고개’라 했던 곳의 발음이 바뀌어 징맹이고개가 되었다는 얘기가 다.

하지만 언어학적 입장에서는 길주 역시 ‘큰 고을’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영동군 본길동군(永同郡 本吉同郡)¹³”, “영풍군 본고구려 대곡군(永豐郡 本高句麗大谷郡)¹⁴” 등의 기록을 통해 추론한 것이다.

이 두 문장을 보면 ‘永同=吉同’이고, ‘永豐=大谷’이다. 따라서 ‘永=吉=大’의 등식이 성립되고, ‘吉’이 ‘크다(大)’는 뜻을 가짐을 알 수 있다. ‘州’는 ‘고을(땅)’을 말하므로, 결국 ‘길주’는 ‘큰 고을’이라는 뜻이 된다. 이곳을 ‘큰 고을’이라고 부른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임금이 자주 왔던 곳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중요한 곳이어서 그리 부른 것일 수도 있다.

10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신라, 고성군.

11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신라, 교하군.

12 이처럼 땅 이름을 지을 때 기왕이면 좀 더 좋은 뜻을 가진 한자를 가져다 붙이는 것을 ‘가자표현(佳字表現)’이라고 한다. 인천 강화도(江華島)의 ‘華’가 원래 곳(串)을 뜻하는 글자여서, 다른 곳에서는 ‘곳’을 뜻할 때 대부분 ‘串(곳 곳)’이나 ‘花(꽃 화)’자를 썼는데 강화도는 ‘華(화려할 화)’를 쓴 것과 같은 경우다.

13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신라, 영동군.

14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신라, 영풍군.

어느 쪽이든, 이렇게 해석한다면 ‘길주(吉州)’라는 이름 역시 ‘주부토’의 뜻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 제2절 | 부평의 뜻

고려 충선왕 때인 1310년(충선 2) 이곳은 처음으로 ‘부평(富平)’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부평에 대해서는 이곳이 넓은 곡창지대여서 ‘수확이 많은(富) 넓은 들(平)’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부평 일대에 비교적 넓은 평야가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곳곳에 바닷물이 밀려들어 왔던 이곳 들판이 그 옛날에 마냥 풍요로운 평야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1750년대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海東地圖)』에 보면 부평의 동쪽 지역에 평지가 펼쳐져 있지만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논으로 개간하기 위해 쌓은 방축(防築)이나 지나다니기 위한 다리를 놓은 곳들이 여러 곳 표시되어 있다. 그런 만큼 이곳이 고려 충선왕 시대에 풍요로운 농경지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평’이라는 이름이 뜻도 그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역시 언어학적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것인데, 『삼국사기』등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지리지에 보면 지금은 북한 땅이 된 강원도의 김화군(金化郡)을 말하면서 “부평군은 본래 고구려의 부여군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김화현이다(富平郡 本高句麗夫如郡 景德王改名 今金化縣)¹⁵”라는 내용이 나온다. 지금의 인천 부평과 똑같은 한자 이름이 신라시대 김화군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이 기록을 보면 ‘夫如郡’이 ‘富平郡’을 거쳐 ‘金化縣’이 되었다고 했으니 ‘富平=金化’라는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어 ‘富=金’이라는 관계도 추론할 수 있다. ‘富平’의 ‘平’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별판이나 동네 등의 뜻을 가진 말일 뿐이고, ‘金化’의 ‘化’는 별 뜻이 없는 접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말 땅 이름에 쓰인 ‘金’은 흔히 ‘신(神)’이나 ‘거룩한 존재’ 등을 뜻하는 우리 옛말 ‘금’을 한자로 바꿔 쓴 것일 때가 많고, ‘金化’의 ‘金’도 이 같은 사례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富=金’이라는 관계에 따라 ‘富’ 역시 ‘金’과 같은 뜻을 가진다. 따라서 부평(富平)은 ‘거룩한 땅’, ‘높은 사람이 다스리는 땅’ 정도로 해석이 된다. ‘주부토’의 뜻과 같은 셈이다.

부평의 ‘富’가 이처럼 ‘금’의 뜻을 갖는다는 사실은 부산(釜山)광역시 이름의 통해서도 확인된다.

‘부산’의 ‘釜’는 ‘가마(솥)’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마’는 사실 ‘가마솥’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감, 곶, 굶, 가미, 거미...’처럼 ‘금’의 발음이 바뀌어 생긴 여러 변형(變形)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이 ‘금’의 변형 ‘가마’를 한자로 바꿀 때 ‘가마(솥)’이라는 뜻을 가진 ‘釜’자를 끌어다 쓴 것이다.

또한 조선 성종 임금 때 ‘釜山’이라는 한자 이름을 처음 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富山’이라는 다른 글자의 한자 이름을 썼다. 따라서 ‘富山=釜山’이고, ‘釜=금’이니 ‘富=釜=금’이라는 관계가 확인되는 것이다.¹⁶

‘부평’이라는 이름은 충선왕대 이후로 없어지지 않고 조선시대까지 도호부(都護府)나 현(縣), 부(府) 등의 이름으로 계속 유지되어 내려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때 부천군(富川郡)이 새로 생기면서 부평군은 없어지게 된다. 부천군은 이전의 부평군 전체와 인천군의 일부 지역, 인천 앞바다 신도·시도·모도·장봉도·영흥도 등을 합친 넓은 구역이었다. ‘부천’이라는 이름도 ‘부평’의 ‘부’와 ‘인천’의 ‘천’자를 합해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부(仁川府)는 지금의 중·동구 일대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중국 대륙 침략 정책을 노골화하면서 인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이에 일제는

15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신라, 부평군.

16 오늘날 ‘부유(富裕)하다’는 말을 중세국어에서는 ‘가우멀다’라고 했다. 따라서 중세국어나 그 이전에 ‘富’는 ‘가우멀’이라는 음(音)과 훈(訓)으로 읽었을 것이고, 이 ‘가우멀’이라는 말과 ‘금/감/가마’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富山’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꽤 타당성이 있는 분석이다.

1936년과 194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부의 확장하면서 부천군에 속해있던 동네들 중 상당 부분을 인천부로 다시 편입시킨다. 부평 지역은 1940년 2차 확장 때 대부분이 인천부로 들어와 부평리(富平里)가 됨으로써 ‘부평’이라는 이름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물론 이는 공식적인 행정구역 이름으로서의 부평을 말하는 것일 뿐, 주민들 사이에서는 부천군이 생겼든 아니든 부평이라는 동네 이름을 계속 썼을 것이다.

부평리는 광복 뒤에 부평동(富平洞)으로 바뀌었고, 1968년 인천시에 구제(區制)가 시행되면서 북구(北區) 부평동이 된다. 이어 1995년 3월1일에는 이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의 둘로 나뉘어, 이때부터는 동(洞)뿐 아니라 구(區)의 이름으로도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

| 제3절 | 부평구의 각 동(洞) 이름 유래

1. 갈산동(葛山洞)

갈산동은 구한말까지 부평구 서면에 속해 ‘갈우(葛隅) 마을’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지금 부평정수장이 있는 이 마을의 주산(主山)이 갈산인데, 갈우란 글자 그대로 ‘갈산의 모퉁이’라는 뜻이다.

이곳 갈산에 대해서는 산에 원래 굽고 오래된 칙(葛)덩굴이 많아 이렇게 불렀다는 설이 있다. 칙이 워낙 굽고 질겨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재목으로 썼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칙이 모두 없어져 찾아보기 힘들 뿐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곳에 실제로 칙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갈산, 갈매마을, 갈재...’처럼 ‘갈’자를 쓴 땅 이름이 무척 많다. 이중 상당수가 ‘葛(칙 갈)’자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칙과 관련되어서라기보다는 우리말 ‘갈’에 그냥 이 한자를 갖다 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곳의 지형(地形)이나 역사적 사실, 언어의 변화 등에 따라 ‘갈’의 뜻을 해석해야 하는데 언어학적 입장에서 ‘갈’은 몇 가지로 해석이 된다.

첫째는 ‘갈산’의 ‘갈(葛)’을 우리말 ‘가리’에서 나온 말로 해석하는 것이다.

지금도 (머리의) ‘가리마’ 등에 쓰이는 이 말은 어떤 땅이나 산, 물줄기 등이 갈라진 곳을 뜻한다. 중세어에서 길 등이 나누어지는 것을 ‘가리다(현대어 갈라지다)’라 했고, 이 말의 명사형은 ‘가림’이었다. 또 갈라진 곳을 ‘가래(현대어 갈래)’라고 했다. 이 ‘가리다’의 어간(語幹)이 ‘가리’이고, ‘갈라지다’라는 뜻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은 산줄기나 물줄기, 또는 길 등이 갈라져 있을 때 흔히 붙었다. 그리고 그 발음이 바뀌어 ‘갈(<가리)’이 되기도 했다. ‘갈재’, ‘갈매마을’, ‘갈월동’ 등이 이렇게 해서 생긴 이름이다.

이곳 갈산도 이런 뜻에서 생긴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 산줄기가 이리저리 갈라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이름을 한자로 바꿀 때 원래의 뜻과는 관계없이 발음만 따서 ‘칙갈(葛)’자를 쓰고 보니 나중에 다시 “칙이 많았다”는 얘기가 생겨난 것이다. ‘갈산’뿐 아니라 이렇게 해서 생겨난 ‘갈천(葛川)’, ‘갈곡(葛谷)’, ‘갈마리(葛馬里)’ 등의 땅 이름이 전국 곳곳에 있다. 때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갈(葛)’이 이 글자의 뜻인 ‘칙’으로 다시 바뀐 뒤 ‘칙골’, ‘치실’ 등의 땅 이름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둘째는 ‘갈산’의 ‘갈’을 ‘높다’는 뜻의 우리말로 보아 ‘갈산’을 ‘큰 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때의 ‘갈’은 옛말 ‘간(현대어 갓 : 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도 사람의 머리(높은 곳)를 말하는 ‘대가리(대갈)’ 등에 흔적이 남아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갈매, 갈매골, 갈미굴, 갈미, 갈미봉’ 등의 땅 이름이 전국에 퍼져 있다. 이들 이름에서 ‘매’나 ‘미’는 산을 뜻하는 우리말 ‘뫼’의 변형이다. 그런데 이 중에는 그다지 크거나 높지 않은 산에도 ‘갈’자를 붙인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곳 갈산 역시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물론 ‘갈뫼’나 ‘갈매골’ 계통의 이름 중에는 산봉우리의 모양이 실제로 머리에 쓰는 갈모처럼 생겼거나, 또는 그런 모양의 산 밑에 있는 골짜기나 마을이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이곳 갈산에는 해당될 수 없는 얘기다.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땅의 형세(形勢)가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세’, 곧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이어서 ‘갈’자가 들어갔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는 갈산을 ‘으스스하게 감춰져 있다’ 또는 ‘숨기다’는 뜻의 우리 옛말 ‘값다’에서 비롯된 ‘갈마곡’, ‘갈마골’ 등의 땅 이름과 같은 계통이라 보기도 한다. 이런 동네들은 산 속 깊은 곳에 있어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해석 역시 땅의 형세로 미뤄 이곳 갈산동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이곳 ‘갈산’의 뜻은 ‘갈라진 산’이나 ‘높은 산’이라는 앞의 두 가지 해석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 서면 갈우마을은 일제 강점기에 갈월리(葛月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1946년 ‘새갈’과 ‘사근다리’ 등 주변 마을을 합쳐 ‘갈산동’이 되었다.

〈소지명(小地名)〉

① 새갈

갈산 북쪽에 있는 땅이다. 원래는 산등성이였는데 1940년대에 주변에 도로를 만들면서 필요한 흙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 등성이의 흙을 모두 파내 평지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광복 뒤 이 평지에 수십 가구의 집들이 들어서 새로 마을을 이루자 ‘새로 생긴 갈월리’라 해서 ‘새갈’이라 부른 것이다.

② 사근다리

지금의 부평세관 동쪽에 있는 한강농수로 주변 높은 곳에 있던 마을이다. 이곳 농수로에 언제 놓였는지 알 수 없는 나무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둬 삭아버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사근다리라고 부른 것이 나중에 동네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2. 구산동(九山洞)

구산동은 조선시대 말 부평도호부 시절에 동소정면(同所井面) 구산리(龜山里)라 불리던 동네였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 동네의 산(山) 모양이 마치 거북이(龜)의 등허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구산(龜山)’이라 불렀고, 그 산기슭에 생긴 마을이라서 구산리라 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폐합 때 이전의 이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龜山’이 ‘九山’이 되었고, 이 이름이 광복 뒤에도 그대로 굳어져 지금의 구산동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곳 ‘구산동’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구암, 구봉산, 구봉’ 등의 땅 이름이 곳곳에 있다.

이런 곳에는 흔히 ‘산봉우리나 바위가 아홉(九) 개’라는 해석이 붙는다. 그리고 이 해석이 아니면 여지없이 “산이나 바위의 모양이 거북이(龜 : 거북 구)나 비둘기(鳩 : 비둘기 구)처럼 생긴 곳”이라는 해석이 따르곤 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그 모습이 닮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으며, 이곳 구산동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와는 다르게 ‘구산’을 ‘앞산’으로 해석하는 언어학적 입장이 있다.

여기서 ‘구’는 원래 우리말 ‘앞’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잘못 전달되거나 발음이 바뀌어 ‘아홉’이 되었고, 이것이 다시 한자로 바뀌며 ‘九’가 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구산동’은 원래 우리말로 ‘앞산말(마을)’이었는데, 이 이름이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홉산’으로 받아들여지면서 ‘九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같은 발음이면서 ‘九山’보다 좀 더 뜻이 좋은 ‘龜山’으로 바뀐 것이라 해석된다. 우리말 땅 이름이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처럼 발음은 같되 기왕이면 좀 더 뜻이 좋은 글자를 갖다 쓰는 것은 ‘계양산(桂陽山)’의 경우에서도 보듯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구산’을 ‘앞산’에서 나온 이름으로 볼 경우 문제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 앞산으로 보았는가이다. 이는 부평도호부 시절 도호부 관아(官衙)가 있던 계양(桂陽)쪽에서 보면 이곳이 앞쪽(남쪽)이었기에 생긴 것이라고 쉽게 추론할 수가 있다.

3. 만월산(滿月山)=약산(藥山)

만월산은 부평구 십정동과 남동구 간석동에 걸쳐 있는 산이다.

약사사라는 절이 있어 흔히 ‘약산(藥山)’으로도 불리는 이 산의 원래 이름은 ‘주안산(朱雁山)’이었다. 인천의 대표적 땅 이름 가운데 하나인 ‘주안(朱安)’이 바로 이 산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주안의 원래 위치도 지금의 미추홀구 주안이 아닌 이곳 십정동과 남동구 간석동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조선 중종 때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주안산(朱雁山)은 인천도호부 북쪽 11리 되는 곳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주안산이 바로 지금의 만월산인 것이다. 이 산은 ‘朱岸山(주안산)’이라는 다른 한자로 쓰이기도 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朱岸山’으로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주안산은 ‘朱雁山’이라는 한자의 뜻을 그대로 받아 “흙이 붉고(朱), 산의 모양이 기러기(雁)가 내려앉은 것 같아 붙은 이름”이라고 해석하곤 한다.

하지만 그 산의 모양이 기러기가 내려앉은 것 같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없다. 무엇보다 『대동여지도』에는 ‘岸(언덕 안)’자를 쓴 ‘朱岸山’으로 나와 있고, 18세기 정조 때 발간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朱安面(주안면)’이라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안산의 뜻을 기러기와 연결 지어 해석하는 것은 억지임을 알 수 있다.

주안산은 기러기 모양과는 전혀 관계없이, ‘붉은산’이라는 우리말 이름을 한자로 바꿔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산이 동(銅) 성분을 많이 갖고 있어 흙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먼저 주안산(朱雁山)의 ‘朱(붉을 주)’자는 이 ‘붉은산’의 ‘붉다’는 뜻을 한자로 나타낸 것이다. 원래 우리말로 된 이름을 한자로 바꿀 때 한자의 소리(음)나 뜻(훈)을 이용하곤 하는데, 여기서는 뜻을 이용한 것이다.

이 산의 바로 아래에 있는 신명여자고등학교 주변은 예전에 “쇠를 파낸다”는 뜻으로 보이는 ‘쇠판이’로 불렸던 곳이다. 역시 가까운 경인전철 동암역(銅岩驛)은 그 주변 땅이 구리(銅)와 같은 광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 불그스름한 색깔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얘기된다. 또 이곳과 연결돼 있는 주원고개 일대, 지금의 시교육청 옆 높은 지대는 예전에 ‘붉은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무엇보다 지금의 남동구 만수동 벽산아파트 옆길을 따라 ‘인천가족공원(부평시립공동묘지)’ 입구 쪽으로 가는 곳의 주안산 자락에는 일제 강점기에 실제로 일본인들이 구리(동:銅)와 은(銀)을 파내기 위해 운영한 광산이 있었다. 그때 이들이 거기서부터 주변의 부평 일대 땅 아래에 수없이 많은 땅굴(갱도:坑道)을 파고,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았다.

이 광산은 일제(日帝)의 패망(敗亡)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1954년 무렵에 엄씨(嚴氏) 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광업권(鑛業權)을 따내 한동안 다시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 뒤로도 이곳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 광산 작업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온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주안’의 ‘朱’가 ‘붉은색 땅(흙)’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雁’이나 ‘安’ 또는 ‘岸’은 글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우리말 ‘붉은’의 ‘-은’을 나타내기 위해 끌어다 쓴, 비슷한 발음의 한자라고 풀이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옛날 사람들이 흙이 붉다고 해서 우리말로 ‘붉은산’이라 부르던 산을 한자(漢字)로 바꿔 쓴 이름이 ‘주안산’이다. 말로 할 때는 ‘붉은산’이고, 한자로 쓰는 기록물에는 ‘붉은산’이라는 말을 그대로 한자로 옮겨 쓸 수가 없으니까 ‘주안산’이라고 바꿔 쓴 것이다.¹⁷

이 주안산에 만월산이라는 새 이름을 붙인 사람은 보월(普月) 한성안(韓性安) 스님이었던 것으로 전해온다.

1932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수행하던 그가 이곳을 지나다가 이 산 정상에 올라서 보니 산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동서남북이 한눈에 다 보이고, 산세(山勢)가 팔을 벌려 시가지를 감싸 안은 듯한 모양을 갖추었더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이듬해 이곳에 작은 암자를 짓고 ‘약사암(藥師岩)’이라 이름을 붙였다. 지금 이 산에 있는 절인 ‘약사사’보다 조금 더 산 위쪽에 있던 암자였다. 그리고 “이곳에 ‘동방만월세계 약사여래 정유리국(東方滿月世界 藥師如來 淨琉璃國)’이라는 불국(佛國)을 건설한다”라는 뜻에서 산 이름을 만월산이라 바꿔 불렀다는 얘기가.

17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보면 90여 개의 땅 이름에 대해 우리말 이름과 한자 이름을 함께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우리말 이름 ‘붉근섬(붉은섬)’은 한자로 ‘赤島(적도)’라 적혀 있다. 우리말 ‘붉근(‘붉은’의 15세기 표현)을 ‘赤(붉을 적)’자로 쓰고, ‘섬(‘섬’의 15세기 표현)’은 ‘島(섬 도)’로 쓴 것이다. 우리말로 말할 때는 ‘붉근섬’이라고 하고, 한자로 쓸 때는 ‘赤島’라 했음을 알려준다. ‘붉은산’을 ‘朱安山’으로 쓴 것도 이와 같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보월 스님이 도를 깨닫고 중생들에게 이를 전해줄 만한 곳을 찾던 중에 이곳 만월산이 꿈에서 본 산의 모습과 같아 도량(道場)으로 삼고 약사암을 지었다는 얘기도 있다.

보월 스님은 그 뒤 오래지 않아 금강산으로 돌아갔고, 그를 이어 인천 해광사에서 수도 중이던 동생 한능해 스님이 이곳을 지켰다. 그는 1960년대 들어 지금의 위치에 대웅전과 산신각, 칠성각 등을 짓고 약사암을 약사사(藥師寺)로 높이어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 약사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이 산을 만월산이 아니라 ‘약산’이라 부르곤 한다.

4. 부개동(富開洞)

부개동은 조선시대를 거쳐 1930년대까지도 ‘마분리(馬墳里)’라 불리던 동네다.

‘말(馬) 무덤(墳) 마을(里)’이라는 뜻인데, 흔히 여기에 죽은 말들을 가져다 묻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해석한다.

고려시대에 수도였던 개성에서 인천-수원을 잇는 길이나, 조선시대 한양에서 인천을 오가는 길에는 사람과 말이 쉬었다 가는 역(驛)이 여러 곳 있었다. 지금의 서구 시천동 부근에 있던 구슬역(球瑟驛)이나 남동구 소래 부근의 대야원(大也院), 남동구 수산동의 경신역(慶信驛)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또 부개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청천동·산곡동·효성동 일대에는 조선시대에 군사적 목적에서 말을 기르던 마장(馬場)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말고기를 먹지 않는 풍습이 있다. 그래서 이들 역이나 마장 등에서 말이 죽으면 고기를 먹지 않고 주로 이곳에 가져와 묻었기 때문에 ‘마분리’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조기준은 『지명유래지-부평의 땅 이름』에서 “비변사등록에 이르기를 ‘대야원의 역마가 얼어 죽으니 동수재이 마분에 묻었다(大也院 驛馬 凍死 于 同所井 馬墳)’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말 무덤이 있는 곳에 마을이 생겨 마분리로 불리게 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¹⁸ 이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다.

18 조기준,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 이름』, 부평문화원, 1999, 215쪽.

그러나 ‘말-’ 또는 ‘마(馬)-’를 이름 앞에 갖고 있는 땅 이름은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때 ‘말(마)-’은 동물이 아니라 ‘크다’는 뜻을 가진 우리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도 많다.

‘말’이라는 단어는 본래 왕이나 추장·우두머리 등의 뜻과 함께 ‘크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였다. 이를테면 지금도 큰 벌, 즉 왕벌을 ‘말벌’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큰 잠자리를 ‘말잠자리’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를 따르면 ‘말무덤’은 ‘우두머리의 무덤’ 또는 ‘큰 무덤’이라는 뜻이 된다. 부개동도 옛날에 큰 무덤이 있어 이렇게 불리다가 그 뜻을 잘못 해석해 ‘말(馬)의 무덤 마을’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땅 이름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마분리, 곧 큰 무덤 마을이라는 이름의 동네를 옛날 그 부족 족장의 무덤이 있던 마을 정도의 뜻으로 해석하곤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마분리의 ‘馬(말 마)’자는 뜻과 관계없이 소리만 빌려 갖다 붙인 글자가 된다.

부개동은 광복 뒤인 1946년에 이전의 마분리와는 전혀 관계없이 새로 지어 붙인 이름이며, “이곳에서부터 부평(富) 땅이 시작(開)된다”라는 뜻이다.

5. 부평동(富平洞)

부평동은 이 지역의 오랜 이름인 부평에서 나온 이름이다. 부평의 지명 유래는 앞에서 먼저 소개했다.

〈소지명(小地名)〉

① 동수(東樹)

인천지하철 역사가 있는 동수는 조선시대에 대략 지금의 부평역 남쪽, 부평6동 일대를 가리키던 이름이다. 이 이름은 원래 ‘동소(同所)’였던 것이 와전돼 생긴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定說)처럼 돼있다.

조선시대 이곳 일대는 모두 부평부의 동소정면(同所井面) 관할 지역이고, 이 동네가 동소정면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당시 부평 사람들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일러 흔히

‘동수쟁이’ 또는 발음이 조금 바뀐 ‘동수재이’라 불렀다 한다.

‘동소정(同所井)’은 옛날 이곳에 큰 우물이 있어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 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같은(同) 곳(所)의 우물(井)을 먹는 동네’라는 뜻에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무척이나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어 선뜻 받아들여지는 얘기는 아니다. 정조 임금 때인 1798년에 규장각이 펴낸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이곳이 ‘東所井面’이라 나와 있다. 이처럼 ‘同’이 ‘東’자로도 쓰인 것을 보면 한자 ‘同’이나 ‘同所井’ 모두가 한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소리만 빌려 어떤 우리말 이름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면에서 ‘동수’는 동소(同所)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선조들의 토착 종교(宗教) 내지는 풍수지리적 태도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것이 한결 타당할 수도 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짓거나 마을을 이루고 살 때 땅의 기운인 지기(地氣)나 물의 흐름인 수맥(水脈)을 무척 중요시했다. 이는 미신적(迷信的)인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땅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농작물 등의 생산이나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른 행위 중 하나로 ‘수구막이’라는 것이 있다. ‘수구(水口)’, 즉 ‘물의 입구’를 막는다는 뜻이다. 이는 흐르는 물이 멀리 돌아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형세(形勢)가 돼야 마을에 좋다는 것이다. 이중환이 쓴 『택리지(擇里志)』에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어찌하여 지리(地理)를 논하는 것인가. 먼저 수구(水口)를 보고, 다음 들(野)의 형세를 본다. 다음에 산의 모양을 보고, 다음에는 흙의 빛깔을, 다음은 조산(朝山 : 앞쪽으로 멀리 있는 높은 산)과 조수(朝水)를 본다. 무릇 수구가 영성하고 널따랗기만 한 곳에는 비록 좋은 밭 만(萬) 이랑과 넓은 집 천(千) 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저절로 흩어져 없어진다. 그러므로 집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수구가 꼭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이 펼쳐진 곳을 눈여겨보아서 구할 것이다.”¹⁹

이는 수구가 꼭 닫힌 것처럼 물이 흘러나가는 입구가 보이지 않는 지형이어야 좋은

땅, 즉 길지(吉地)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이런 지형이어야 물뿐 아니라 땅의 기운(지기 : 地氣)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동네의 입구 쪽에 큰 나무를 심거나 여러 그루의 나무로 숲을 만들어 안에서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이는 실제로 물이 나가는 입구를 안 보이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바꿔 말하면, 굳이 흐르는 물이 없는 곳에서라도 이런 방식으로 동네 입구에 숲을 만들어 놓으면 이 숲이 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동네 입구에 심어놓은 나무를 대개 ‘동수’, 그곳에 만든 숲은 ‘동림’이라 부르곤 했다. 순 우리말로는 ‘동나무’와 ‘동나무숲’ 정도로 불렸을 것이다. 이밖에 ‘동구목, 동구숲, 동산숲’ 등으로도 불렸으니, 이런 땅 이름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이는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숲이나 나무가 있던 곳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 그 나무나 숲이 없어졌더라도 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별다른 증거는 없지만, 이곳 ‘동수’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생긴 이름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하는 것이다.

옛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동네 입구였던 이곳에 동네 땅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뜻에서 큰 나무를 심어놓았다. 그래서 이곳이 ‘동수’라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 그 나무나 숲은 없어졌지만 이름만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오늘날 ‘동수’가 ‘함께 먹는 우물’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 입구의 나무’를 뜻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둘 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일제강점기 말에 이곳은 부천군 부내면(府內面) 대정리(大井里)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동수쟁이’ 또는 ‘동수재이’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광복이 되자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동네 이름을 ‘동수동(東樹洞)’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예전의 ‘동수’ 또는 ‘동소’를 되살린 것인데, 이것이 지금의 동네 이름이 되었다. 그때 사람들이 ‘동수’라는 이름을 어떤 뜻을 가진 말로 생각하고 다시 붙인 것인지는 역시 알 수가 없다.

19 『택리지』, 복거총론, 지리.

② 신트리

부평구청과 부평근린공원 조금 못 미치는 곳에 ‘신트리’라는 동네가 있다. 경인전철 부평역에서 앞쪽으로 넓게 나 있는 부평로를 따라 가다가 산곡동 입구 삼거리(백마장 방향)를 조금 지나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곳이다. 예전 번지로는 부평동 15번지와 38번지, 또 880번지 일대를 말한다.

‘신트리’는 ‘새로 생긴 마을’, 곧 ‘새터(리)’에서 우리말 ‘새’가 한자 ‘신(新)’으로 바뀌어 생긴 이름이다. 정상대로라면 우리말로 ‘새터말’이 되어야 했고, 아예 한자로만 하려면 ‘신촌(新村)’ 또는 ‘신기촌(新基村)’ 정도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 이름이 전해지는 사이에 우리말과 한자가 뒤섞이며 발음까지 묘하게 바뀐 꼴이 되었다.

조기준의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이름』에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곳은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불모지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곳에 도로와 수도가 생기자 1935년쯤부터 차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1942년 무렵 이곳에 사는 가구 수가 30여 호에 이르게 되자 한학자(漢學者)로서 당시 이 마을의 가장 웃어른 격이던 백낙환이라는 분이 동네 이름을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는 뜻에서 ‘새터리’라 붙였다고 한다. 이 새터리는 지금의 부평동 15·38번지 일대인데, 시간이 가면서 그 발음이 바뀌어 신트리가 됐다. 그 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무렵 이곳에서 100여m쯤 떨어진 부평동 880번지 일대에도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여기에 10여 가구가 모여 살자 사람들은 먼저 생긴 마을을 ‘웃(윗)신트리’라 하는 대신 이곳을 ‘아래신트리’라 불렀다.”²⁰

‘신트리’는 이처럼 불모지여서 사람들이 살지 않던 땅에 새로운 이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20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이름』, 조기준, 부평문화사, 1999, 198~199쪽.

③ 다다구미

옛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 복개천에 ‘다다구미’라 불리는 곳이 있다. 이는 1940년 일제가 부평의 조병창(造兵廠)을 확장 공사할 때 하청업체 중 하나였던 ‘다다구미(多田組)’의 현장 사무소가 있던 곳이다. 광복 뒤 이 사무소가 철수해 이 땅이 넓은 평지로 남게 되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허가 판잣집을 붙여서 지어놓고 대신 살기 시작했다. 이때 동네 이름을 ‘평화촌(平和村)’으로 부르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끝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다구미라는 이름이 살아남게 되었다.

6. 산곡동(山谷洞)

산곡동은 지금의 효성동·청천동 일대와 함께 고려시대부터 ‘마장(馬場)’이나 ‘마장뜰’ 또는 이 발음이 조금 바뀐 ‘마제이(마제이)’ 등으로 불리던 곳이다.

땅이 역새풀만 우거지고 농경지로는 쓰기에 적합하지 않아 나라에서 풀밭을 만들고 말을 먹여 기른 곳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산곡동은 이 마장면(馬場面)에 속해 ‘뽕말’, ‘뽕꼬지’ 또는 ‘장끝말’ 등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뽕말’은 이 마을의 서쪽 뒷산인 원적산(元積山 또는 元寂山)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흘러 내려오다 이 마을에서 작은 동산을 이루고 끝나기 때문에 ‘뽕(산)의 끝 마을’이라 해서 붙은 이름이다. ‘뽕말’ 이외에 ‘뽕꽃말’, ‘메꽃말(산화촌 : 山花村)’이라고도 불렀다. ‘꽃’자가 들어가니까 산에 꽃이 많아 생긴 이름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이보다는 뽕말의 발음이 변해 생긴 이름들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땅 이름들과 비교해 볼 때, 뽕꽃말이나 메꽃말은 ‘뽕꽃’에서 발음이 바뀐 것일 가능성도 크다. 뽕은 ‘산(山)’을 뜻하고, 꽃(串)은 산줄기가 길게 뻗어 내려온 곳을 가리킬 때 많이 쓴 글자다. 이 ‘꽃’은 물론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삐죽하게 뻗어나간 땅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의 ‘꽃(花)’은 중세어에서 ‘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땅 이름에서 ‘꽃’과 ‘꽃’이 종종 바뀌어 쓰이기도 했고, 한자로 바뀔 때도 그랬다. 이곳은 산줄기가 길게 흘

러 내려오다가(곶) 오뚝하게 작은 동산(뫼)을 이루며 끝난 곳이니 처음에는 ‘뫼곶’이라 불렀을 것인데, 시간이 가면서 그 발음이 ‘뫼곶’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또 다른 이름인 ‘뫼꼬지’도 ‘뫼가 불쑥 솟아 있어’ 붙은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꼬지’는 ‘꽃아 놓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말의 뿌리로 좀 더 내려가면 ‘두드러지게 솟아 있음’을 뜻하는 말로 이어진다. ‘꼬지’가 나무나 풀에서 가장 돋보이게 솟아 있는 ‘꽃(花)’이나 땅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빠죽이 뻗어나가 있는 ‘곶(串)’과 같은 뜻에서 출발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산화촌’이라는 이름은 이중 뫼곶말을 그대로 한자로 옮긴 것인데, 그 뜻만으로는 동네 이름의 원래 유래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장끝말’은 ‘마장의 끝 쪽에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이 마을은 이렇듯 산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세에 와서 부평부(富平府)가 동리(洞里) 이름을 새로 지을 때 ‘산(골)마을’이라는 뜻에서 ‘산곡리’라 했고, 이것이 광복 뒤인 1946년에 그대로 산곡동이 되었다.

〈소지명(小地名)〉

① 백마장(白馬場)

백마장은 산곡동에 있던 미군부대 ‘캠프 그란트·캠프 애담스’ 주변 동네다. 그 한자 이름 때문에 흔히 “옛날 이곳에서 백마를 길렀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는 해석이 나뉜다. 하지만 산곡동이 옛날 인근의 효성동·청천동과 함께 나라에서 국영 목장을 세우고 말을 먹여 기른 곳이어서 ‘마장(馬場)’ 또는 그 발음이 조금 변한 ‘마제이’라 불리기는 했어도 백마장은 이와는 전혀 관계없이 생긴 이름이다.

지금의 백마장을 포함한 산곡동 일대는 구한말까지 부평군 마장면 산곡리였다. 그 뒤 이곳은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때 부천군으로 들어가 부내면 산곡리가 되었고, 1940년 인천부가 행정구역을 넓힐 때 다시 인천부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이때 인천 부윤(府尹 : 지금의 인천시장 격)이었던 나가이 데라오(永井照雄)라는 일본 사람이 인천 전 지역의 동(洞)이나 리(里)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고쳐 버렸다. 이 과정에서 산곡리에는 ‘하쿠바초(白馬町 : 백마정)’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가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일설에는 이곳 일대가 옛날에 말을 키운 곳이었고, 특히 일제 강점기

때 군대 훈련장이 있어 백마를 타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하나 분명치 않은 얘기다. 이곳이 조선시대에 말을 키우던 곳이라 ‘마장’이라 불렀고, 일제 강점기 후반에 무기를 만드는 공장(조병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백마를 타고 훈련하는 일제의 군대 훈련장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나가이 데라오가 군사(軍事) 활동과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뜻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이때 생긴 이름이 광복 뒤에도 그대로 이어지며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인 ‘町(정)’만 ‘장’으로 바뀌어 ‘백마장’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다.

② 장고개

산곡동에서 서구 가좌동으로 이어지는 나지막한 고개를 장고개라 부른다. 부평구와 서구의 경계에 있는 ‘철마산(鐵馬山)’의 동쪽 끝에 자리잡은 고개다. 그 아래에 장끝마을이 있어 원래 ‘장끝고개’라 불렸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끝’자가 떨어져 나가 장고개가 됐다고 한다. 한자로는 장고개를 흔히 ‘場末峴(장말현)’이나 ‘場峴(장현)’으로 쓰지만 때로는 ‘長峴(장현)’이라 쓰는 경우도 있다. 이 중 ‘長峴’은 이곳의 고갯길이 길어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보다는 아마도 ‘場(장터 장)’을 ‘長(긴 장)’으로 잘못 알아 쓴 이름일 것이다. 지금의 효성동이나 청천동, 산곡동 일대에는 옛날 나라에서 말을 기르던 목장이 있어 ‘마장(馬場)’이라 불린 곳이다. 그런데 이 동네가 바로 ‘마장의 남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장끝마을(장끝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마을의 위에 있는 고개여서 ‘장끝고개(장고개)’라 불리게 된 것이다.

③ 화랑농장(花郎農場)

산곡동 현대아파트 3차 단지와 부평서중학교 사이의 샛길을 따라 고개를 넘어가면 그 북쪽 골짜기에 ‘화랑농장’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이었다. 그런데 1950년대에 상이용사 출신으로 인천시 2대 시의원을 지낸 김국환(金國煥)씨가 동료 진상구(陳相龜)씨와 함께 이곳 산곡동 369번지에 상이용사들을 위한 자활촌(自活村)을 만들고 ‘화랑농장’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신라 화랑도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일제의 36년 통치에 이어 6·25전쟁

까지 겪으며 장애인이 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상이용사들을 돕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그 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는 상이용사가 아닌 사람들도 들어오고 점차 하나의 마을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화랑농장’이라 불렀고, 이제는 주변이 수천 가구가 사는 커다란 주택단지가 되었는데도 그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다.

④ 조병창(造兵廠)

조병창은 부평동의 동아·대림 아파트와 산곡동 미군부대, 화랑농장 일대를 통틀어 불렀던 이름이다.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 있는데, 조병창은 ‘병기(무기)를 만드는 공장’라는 뜻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 후반인 1940년대 이곳에 군수품을 만드는 ‘인천육군조병창’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일제의 ‘조병창’은 원래 총이나 화약을 만들던 곳으로 일본 내 도쿄, 사가미, 나고야, 오사카, 고쿠라 등지에 건립되었다. 그러다가 일제가 조선을 중국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만들겠다는 방침 하에 부평에 인천육군조병창을 만든 것이다. 이는 일본 ‘제국’ 본토 외 지역에 세운 유일한 조병창으로 기록돼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매달 소총 4000정과 탄환 70만발, 총검 2만정, 포탄 3만발, 차량 200대 등을 생산했다고 한다. 일제가 패망한 뒤 조병창 자리에는 미군수지원사령부(ASCOM city)가 들어섰다. 미군수지원사령부에는 7개의 캠프가 있었는데 지금은 캠프 마켓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반환되었다. 지금은 반환된 땅에 아파트 단지와 옛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상가가 들어서 있고, 캠프 마켓도 우리나라에 반환되어 시민들을 위한 공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7. 삼산동(三山洞)

삼산동의 예전 이름은 ‘후정리(後井里)’로 그대로 해석하면 ‘뒤에 있는 우물 마을’이라는 뜻이다. 한자 이름보다는 당연히 우리말 이름이 먼저였을 테니 순 우리말로 ‘뒤우물말’ 정도로 불리던 것이 한자로 바뀌어 후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옆 동네인 갈산동(葛山洞)은 갈산(葛山) 아래에 있어 갈월리(葛月里)라 불리던 곳이

었는데, 삼산동은 그 갈산 동쪽 등성이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광복 뒤인 1946년에 동네 이름을 새로 지을 때 삼산동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그 뒤로 갈산동에 속해 있다가 1992년에 갈라져 나와 삼산동으로 독립했다.

이 동네에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땅 모양이 마치 삼태기의 안쪽처럼 구름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옛날 사람들이 큰 우물을 파고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곳보다 먼저 사람이 살았던 갈월리의 입장에서 이를 보면 산등성이 뒤쪽(後)에 우물(井)을 만들고 생긴 동네이니 ‘뒤우물말’이라 불렀던 것이다.

하지만 ‘후정리’는 ‘뒤우물말’이 아니라 그냥 ‘뒷마을’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꾼 이름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 땅이름에서 ‘井(우물 정)’자는 마을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 자주 썼던 글자이기 때문이다.²¹

후정리에는 100여m 높이의 ‘영성산(靈成山)’이 있었으며, 이 이름은 옛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염성산(廉成山)’이었다가 발음이 바뀐 것이다. 하지만 염성산은 그 이름의 유래를 잘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이 산 아래 생긴 마을은 산 이름을 따라 ‘영성리’ 또는 ‘영성미’ 등으로 불리었고, ‘흙더미’라는 동네도 주변에 있었다고 한다. ‘흙더미’는 1924년 이곳에 부평수리조합을 만들 당시 영성산과 갈산을 잇는 산등성을 뚫고 용수로(用水路)를 만들었는데, 이때 제방을 쌓고 남은 흙을 마을 입구에 모아둔 것이 동네 이름이 된 것이라 전해온다.

그러나 영성산은 1942년 무렵 경인고속도로의 전신(前身)이라 할 이른바 ‘국방도로’를 건설할 때 흙을 얻기 위해 깎아내는 바람에 산의 형태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삼산동이라는 이름은 일제 말인 1940년 일본인들이 일본식으로 ‘삼립정(三笠町)’이라 붙인 이름을 광복 뒤에 다시 우리 식으로 바꾼 것이다. ‘笠(립)’은 원래 머리에 쓰는 삿갓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산(山)을 말하는 것이니, ‘삼산동’이나 ‘삼립정’ 모두 이 마을에 3개의 작은 산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3개의 산이 어디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다. 일반적으로는 영성산과 갈산 외에 앞서 말한 ‘흙더미’를 하나의 산으로 보아 3개의 산이 된다고 해석하곤 한다.

21 ‘井’이 마을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점은 ‘십정동’편을 참고할 것.

8. 십정동(十井洞)

십정동은 원래 ‘열우물’이라 불리던 우리말 이름이 한자로 바뀌어 생긴 것이다. 지금의 경인전철 백운역과 동암역 사이 고개의 비탈에 있는 마을을 예로부터 열우물이라 불렀고, 주변의 원테이고개(원통이고개)에 대비해 ‘작은 원테이’라고도 불렀다. 이 동네의 원래 이름은 ‘열우물’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옛날 이 일대의 마을들 가운데 한 곳에 열(十)개가 넘는 우물(井)이 있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라는 것이다.

원래 이 지역은 물이 귀해서 한 곳을 몇 달씩은 파야 겨우 물이 나왔는데, 이 고개 너머 산 중턱에 있던 마을 한 곳만은 우물이 잘 나와서 사람들이 열 개도 넘는 우물을 봤다는 이야기이다.

한편에서는 이곳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물의 양도 많고,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따뜻해 ‘열(熱)이 나는 우물’이라는 뜻에서 열우물이라 불렀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이 이름을 한자로 바꿀 때 열(熱)을 숫자 열(十)로 잘못 옮겨 ‘十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는 전혀 다르게 ‘十井’을 ‘十丁(십정)’의 잘못으로 보면서 “이곳에서 산맥이 십자(十字)로 교체되며 크게 꺾이었다(丁)”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경기도 화성 광교산에서 시작한 산맥이 소래산을 거쳐 이곳 주안산에서 크게 꺾인 뒤, 계양산의 남쪽 줄기인 원적산 자락과 교차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해석은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다. 다만 조선시대 말 지도에 이곳 고개가 ‘십정현(十井峴)’ 또는 ‘정항현(井項峴: 우물목고개)’이라 나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동네 이름이 실제로 우물과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찬우물(마을)’, 한자로는 ‘냉정리(冷井里)’처럼 우리나라 곳곳에 우물과 관련된 동네 이름들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십정동’은 ‘우물이 많은 동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十(열 십)’은 꼭 10개라는 뜻보다 그냥 꽤 많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한결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반면 ‘열(熱)이 나는 우물’이라는 해석은 우리말의 구조상 이보다 좀 덜 자연스럽다.

앞서 본 ‘찬우물’처럼 우리말 이름이라면 ‘열우물’이 아니라 ‘더운우물’과 같은 구성이 되어야 하고, 이를 한자로 바꾸었을 때도 ‘찬우물→냉정(冷井)’처럼 ‘더운우물→온정(溫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보면 지금의 온천(溫泉)을 ‘온정(溫井)’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땅 이름에 쓰인 ‘정(井)’자는 ‘우물’이라는 뜻 말고도 그냥 ‘마을’을 나타내는 데도 많이 쓰인 글자이다. 이는 동네 이름에 쓰인 ‘谷(골 곡)’자를 ‘골짜기’로 해석하기보다 그냥 ‘마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밖에 ‘峴(고개 현)’, ‘泉(샘 천)’, ‘坪(들 평)’자 등도 그 자체의 의미 외에 ‘마을’의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십정’의 ‘정(井)’은 마을로 해석할 수 있는데 ‘十(열 십)’자의 해석이 문제로 남는다.

국어학적 입장에서 볼 때 ‘열’은 ‘열다’, ‘열려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동네 모양이 ‘(산비탈 앞쪽으로) 열려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십정동은 산비탈에 있는 동네이니 ‘(높은 곳에서 앞쪽으로) 열린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꽤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지만 단언하기는 어렵다.

행정구역상으로 이곳은 구한말을 거쳐 일제 강점기 때까지 ‘십정리’였고, 1946년 동 이름을 확정할 때 그대로 십정동이 되었다.

〈소지명(小地名)〉

① 동암(銅岩)

경인전철 역사가 있는 동암은 1960~70년대 초반 무렵에 생긴 이름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의 동암역 주변은 인가(人家)가 거의 없는 산비탈 불모지였고, 흔히 그 일대와 합쳐 ‘열우물’이라 불렸던 곳이다. 그러다가 이곳에 ‘동암’이라는 이름이 새로 생겼고, 전철 역사가 들어서면서 동암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이곳에 경인전철 역사가 생긴 것은 1974년이다. 처음에는 간이역으로 업무를 보다가 1983년 8월에 직원 10여 명이 배치된 정식 역이 되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곳에 갑작스레 ‘동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흔히 그 한자 이름이 ‘東岩’쯤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역 주변에 그런 이름을 가진 학교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東(동녘

동)’이 아닌 ‘銅(구리 동)’자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치 않고, 이 역사의 이름을 지은 철도청에서도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설명을 못하고 있다. 다만 향토 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주변의 땅이 구리와 같은 광물질 성분을 많이 갖고 있어 불그스름한 색깔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우세하다. 이 설명은 주변의 사정을 볼 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동암역에서 멀지 않은 남동구 간석동 신명여자고등학교 주변은 예전에 ‘쇠(金)를 파낸다’는 뜻에서 ‘쇠판이’라고 불렸던 곳이다. 이곳에 광물질이 많이 묻혀 있었다는 얘기가. 또 이곳서 멀지 않은 시청 옆에도 이전에 불그스름한 땅 때문에 ‘붉은고개’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곳과 연결돼 있는 만월산의 원래 이름이 주안산(朱雁山)으로, 이는 우리말 ‘붉은산’을 한자로 바꿔 쓴 이름이다. 이 산에 구리나 은 등의 광물이 많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탄광이 운영되었고, 그 구리 성분 때문에 흙이 붉어서 ‘붉은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동암역 일대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銅’자를 쓴 ‘동암’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宕(바위 암)’자가 붙은 이유는 아마도 만월산의 아래 자락인 이곳 땅의 상당부분이 암반(巖盤) 등 돌로 된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 이는 이 근처에서 한동안 채석장이 운영되었던 사실로도 뒷받침이 된다.

② 백운(白雲)

1984년에 문을 연 경인전철 백운역은 ‘흰 구름이 끼는 역’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철도청의 기록을 보면 “역사를 지을 당시 주변에 백운 주택단지가 있어 가칭 백운역이라 했으며, 그 뒤로 이 이름이 널리 알려져 정식 이름으로 쓰게 되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개인 업체들이 이곳에 주택단지를 지으면서 어떤 이유로 ‘백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인천의 땅 이름과 관련된 옛 문헌이나 지도를 보아도 이 지역을 ‘백운’이라 나타낸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곳이 흰 구름이 낄 만큼 높은 지역도 아니기 때문이다.

조기준은 『지명유래지-부평의 땅 이름』에 이런 사연을 적고 있다.

“옛날 이곳은 작은 원통이고개라 불리어 온 소로(小路) 고개로, 남쪽에 원통산 줄기를 타고 큰 길이 나게 돼 구름다리가 유난히 높게 가설됐다. 이 역명(驛名)을 지을 때 중론에 붙여 보았더니 ‘신촌역’ ‘십정역’ 등이 거론됐으나 그 중에서 높은 구름다리를 상징하여 ‘높이 뜬 구름 같다’ 하여 백운역이라 함이 지배적이므로 역명을 쓰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²²

그러나 이 글의 다음 내용을 보면 “이곳 서쪽 열우물 고개는 채석장으로 많은 골재를 채취하여 부평 건설에 기여하고, 그 부지에 주택단지가 들어서 그 이름 역시 백운역의 이름을 따서 백운주택이라 이름 붙여 불려오고 있다”²³고 적혀 있다.

이 같은 조기준의 설명은 “역사를 지을 당시 주변에 백운 주택단지가 있어 백운역이라고 했다”는 철도청의 기록과 시기적으로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구름다리가 높이 뜬 구름 같다고 해서 백운이라 불렀다”는 내용도 지나치게 과장된 듯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불과 40여 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철 역사와 주택단지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생긴 것인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한편 현재 백운역 남쪽에 있는 주원고개 주변에서 여러 대(代)를 걸쳐 살았다는 한 노인은 “안개가 많이 낀 날 집에서 백운역 쪽을 바라보면 그쪽이 구름이 쌓인 것처럼 보여 백운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얘기가.

이보다는 주택단지나 역사가 설 무렵 누군가가 지역 유래와는 관계없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갖다 붙인 이름이 ‘백운’일 것이라 봄이 한결 타당할 것 같다.

『부평읍지』 등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 철로가 지나고 있는 백운역과 동암역 사이는 옛날에 ‘열우물고개(十井峴 : 십정현)’ 또는 ‘우물목고개(井項峴 : 정항현)’라 불리던 곳이다. 그 고개를 넘으면 열우물(십정동)이고, 이 야트막한 고개가 열우물로 통하는 목(項)이어서 그렇게 불린 것이다. 그래서 조기준의 글대로 이곳 사람들은 지금의 부평삼거리 주변 원통이고개를 ‘큰 원테이(원통이)’라 부르면서, 열우물고개는 흔히 ‘작은 원테

22 조기준,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 이름』, 부평문화원, 1999, 212쪽.

23 조기준,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 이름』, 부평문화원, 1999, 212~213쪽.

이'라 부르곤 했다. 이런 옛 이름들을 통해 봐도 '백운'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사연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생긴 낯선 이름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③ 원통이고개

간석오거리에서 경인국도를 타고 부평삼거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약산(藥山) 아래 인천보훈회관 주변 언덕배기에서 원통이고개와 만난다. 발음이 바뀌어 '원테이고개'로도 불리는 이곳은 옛날 인천에서 부평을 거쳐 서울로 가는 주요 길목이었다. 그 특이한 이름이 붙게 된 사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해온다.

첫째는 조선 중종 때의 권신(權臣) 김안로(金安老)가 삼남(三南) 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쌀을 한강을 통해 서울로 옮기기 위해 파려했다는 경인운하와 관련되어 있다. 당시 삼남 지방에서 거둔 곡식을 실은 배가 수도인 한양으로 들어오려면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있는 물길 '손돌목'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이곳의 물살이 워낙 세고 바다 속에 바위가 많아 조난사고가 잦았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 이종환이 쓴 『택리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삼남 지방에서 세곡(稅穀)을 실은 배가 손돌목에 와서는 만조(滿潮)가 되길 기다려서 목을 지나는데 조금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 돌에 걸려 파선하게 된다.”²⁴

이 때문에 고려 말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손돌목을 지나지 않고 곡식을 수도로 나르기 위해 인천 앞바다에서 바로 한강으로 이어지는 운하 계획이 추진되었다. 오늘날 '아라뱃길'의 기원(起源)인 셈이다.

김안로는 당시 김포 고촌 일대 한강변에서 김포·부평 들판을 가로질러 운하를 파고, 맞은편 인천 앞바다에서도 지금의 백운역 방향으로 파왔다. 그러나 고개가 있는 이곳에서 단단한 바위에 막혀 결국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청천(淸川)의 상류인 안하지고개 쪽과 남동구 만수동 무네미고개 쪽에서도 이를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하고 말

24 이종환, 『택리지』, 팔도총론, 경기.

았다. 이에 끝내 뜻을 이뤄내지 못한 그가 “이 고개가 아니면 물길을 낼 텐데 억울하다” 하며 탄식했다고 해서 원통이고개라 불리게 되었다는 얘기가.

또 다른 전설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에 얽힌 얘기가.

태조가 조선을 세운 뒤 무학에게 새 도읍지를 세울 만한 땅을 알아보게 했다. 이에 무학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부평까지 와 보니 들판을 기름지고, 멀리 한강까지 끼고 있어 가히 한 나라의 도읍지가 될 만했다. 그런데 예로부터 “한 나라의 도읍지가 되려면 주변에 골짜기가 100개는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에 주변의 골짜기를 모두 세어봤지만 아무리 세어도 99개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무학이 이 고개 위에서 “골짜기 하나가 모자란 것을 원통해 했다”고 해서 원통이고개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전설이다.

둘 다 재미는 있지만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얘기가.

그나마 김안로에 얽힌 이야기는 정사(正史)인 『정조실록』 21년 8월에 남아있는 이런 기록과 이어진다.

“(정조가)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을 불러 말하기를 ‘장릉(章陵)은 계양산을 안산(案山)으로 하고 비단 병풍처럼 둘러싸여 지세가 매우 좋다…(중략)…옛날에 듣건데 김안로는 조수(潮水)를 40리까지 통하게 하여 원통현(圓通峴)에 이르러 그쳤다고 하는데, 이곳은 만년토록 감싸 호위하는 땅이니 어찌 인력(人力)으로 파고 깨뜨릴 여지가 있겠는가’ 하였다.”²⁵

그런데 이를 보면 정조의 말도 전해 들은 이야기라는 것이니 실제 있었던 일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김안로와 경인운하에 얽힌 이야기는 여럿이 있는데, 사실 이 중에 믿을 만한 내용은 거의 없다. 별다른 증거나 어느 정도나마 납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원통이고개 일대는 예나 지금이나 땅이 주변보다 높고, 돌과 암반이 많은 곳이다. 요즘처럼 현대식 장비가 있던 것도 아닌 그 옛날에 굳이 이런 곳을 택해 운하를 파려했다는 말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

25 『정조실록』, 권47, 정조 21년 8월30일.

무학대사에 얽힌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야사(野史)일지언정 그가 새 도읍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양 일대를 누비고 다녔고, 이 때문에 ‘왕십리(往十里)’ 등의 지명이 생겼다는 얘기는 있어도 부평 일대를 다녀갔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통이고개의 이름 유래는 이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설에서가 아니라 앞의 『정조실록』 기록에 나오는 ‘원통현’이라는 말에서 그 단서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원통현’은 원통이고개를 한자로 옮긴 말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 나온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 부평 편에 보면 동소정면(同所井面) 대정리(大井里)에 ‘원통산(圓通山)’이라는 산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대정리는 지금의 인천지하철 동수역 일대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원통산은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산을 가리키는 이름임을 알 수 있는데, 조기준의 『부평사 연구(증보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금마산(錦馬山)의 남쪽 줄기는 서쪽으로 뻗어 주안산(만월산)에 이어지고, 원통이고개라 불러 인가 하나 없는 산림 우거진 심산유곡이었다. 이곳에 시립공동묘지가 설치된 후 발디딜 틈 하나 없이 촘촘히 누빈 분묘가 즐비하게 꽉 차 있다. ... 지금 약사사가 있는 주안산을 원통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 이 근래에는 원통이고개의 산을 모두 원통산이라 마구 부르고 있어 필자는 지금의 맹아학교 뒷산을 원통산으로 고정시킴이 옳다고 본다. 이 산은 석산(石山)으로 암석이 모두 붉은빛을 띠고 있어 동암(銅岩)이란 역과 학교가 생겼듯이 종종 때 김안로(金安老)가 이 동암으로 인하여 경인운하 개굴에 실패한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열우물고개(十井峴 : 십정현)를 작은원통이고개로 불러왔으니 이를 오칭(誤稱)으로만 볼 수는 없다. ... 이 원통산은 맹아학교 뒷산을 주봉으로 하여 남쪽은 원통이고개를 거쳐 주안산에 이르고, 북쪽은 장고개를 거쳐 원적산에 이어지고 있다.”²⁶ ”

여기서 말한 금마산은 지금의 광학산이나 만수산(‘철마산’이라고 잘못 불리기도 함)을 가리키는 듯하며, 맹아학교는 지금의 인천혜광학교를 말한다. 그리고 맹아학교 뒷산은 동암산(법성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통산은 동암산을 말하며, 이 원

26 조기준, 『부평사연구(증보판)』, 백암 문집간행위원회, 1994, 117~128쪽.

통산 때문에 그 동남쪽에 있는 만월산(주안산)으로 건너다니는 고개가 원통이고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조기준의 설명이다.

하지만 조기준은 다른 책 『지명유래지-부평의 땅 이름』에서는 동암산이 아니라 주안산(만월산)이 원통산이라고 또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만월산은 한일합방 이후 인천 지방의 지지조사에 의하면 ‘인천부 주안면 원통산(元通山)’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986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에 ‘원통산-선유산, 간석동과 만수동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87m, 신선이 놀았다고 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예부터 부평 사람들은 주안산으로 부르지 않고 이 산을 ‘원통산’으로 불러왔으며, ‘원통이고개’는 원통산에 있는 고개로 지금의 시립묘지 입구인 십정동에서 약사사로 넘어가는 고개를 ‘원테이고개’라고 불러왔는데, 지금은 그 서쪽에 큰 도로가 뚫리어 이를 ‘원테이고개’로 모두 부르고 진짜 ‘원테이고개’는 이름도 빼앗기고 약사사의 벚꽃 상춘객이나 다니는 한적한 소로가 되고 있다.”²⁷

이를 보면 조기준은 최종적으로 주안산(만월산)이 원통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월산의 북쪽, 지금 인천가족공원(옛 부평묘지공원/시립묘지)이 있는 산에는 ‘원통천’이라는 이름의 냇물이 흐르고 있다. 앞서 말한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도 같은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조기준은 이 냇물이 만월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결국 원통산은 지금의 만월산이나 동암산 중 하나라고 하겠는데, 만월산(주안산)일 가능성이 더 크다.

동암산은 만월산보다 크기가 작아서 지금처럼 세밀하게 그리지는 않은 옛 지도에 표시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 실제로 옛 지도나 책자에 보면 이곳 부평 일대에는 ‘주안산’이나 ‘원통산’ 중 하나만 표시돼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대동여지도』에는 ‘주안산’만 나오고, 『광여도(廣輿圖)』에는 ‘원통산’만 나오는 식이다. 따라서 이 두 이름은 하

27 조기준,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 이름』, 부평문화원, 1999, 164쪽.

나의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통산은 이 같은 한자 이름을 갖기 이전에 분명 ‘뚝/두름’이나 ‘뚝뚝’같은 우리말 이름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한자로 바꾼 것이 원통산일 것이다. ‘뚝’ 또는 ‘두름’은 ‘땅 모양이 둥근 곳’이나 ‘주변이 산 등으로 빙 둘러싸여 있는 곳’등을 말하는 순우리말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둥그스름하게 생긴 산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 한 예로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한라산에 대해 이런 기록이 나온다.

“(제주도의) 진산(鎭山)은 한라(漢拏)이다. 주(州)의 남쪽에 있는데, 일명 두무악(頭無岳) 또는 원산(圓山)이라 한다. 그 고을 관원이 제사를 지내는데 둥그스름하고 높고 크며, 그 꼭대기에는 연못이 있다.”²⁸

이 기록에서 보듯이 둥그스름한 산을 ‘두무악’이라 했다. 여기서 ‘두무’는 앞서 말한 우리말 ‘뚝/두름’에서 나온 같은 뜻의 순우리말이다. 그리고 한자 ‘頭無’는 이를 나타내기 위해 ‘머리(頭)가 없다(無)’라는 글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발음만 따서 쓴 것이다. 그 뜻은 ‘둥그스름한 것’이라고 설명이 붙어있으며, 따라서 이를 한자로 나타낸 이름이 ‘圓山’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곳 원통산도 이전에 그 둥그스름한 모양 때문에 ‘뚝/두무/뚝뚝’등으로 불렸는데 이를 한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圓山’이 되었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圓通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말 이름 ‘뚝/두무/뚝뚝’가 언제부터 ‘圓山’이나 ‘圓通山’으로 바뀌었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앞의 『정조실록』에서 ‘원통현(圓通峴)’이라는 표현이 나오니 그 이전에 이미 바뀐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도 원통산이 아닌 ‘뚝/두무/뚝뚝’등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를 실록에 옮기는 과정에서 한자로 이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원통산 고개’라는 뜻에서 ‘원통현’이라고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한자 ‘圓通(원통)’은 ‘모든 일에 빠짐없이 통달해 있다’는 뜻이

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 ‘圓筒(원통)’은 ‘둥근 통이나 기둥’을 말한다. 앞의 ‘원산’이 ‘원통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아마도 두 번째 뜻을 생각하고 썼을 테지만 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앞의 말 ‘圓通’이 쓰이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땅 이름에서 이런 식으로 원래의 뜻과 다른 한자가 쓰이는 일은 무척 흔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통산은 주안산(지금의 만월산)을 말하며, 이 산 때문에 그곳을 넘어 다니는 아래 고개의 이름이 원통이고개가 되었다.

둘째, 원통산은 둥그스름한 산을 뜻하는 우리말 ‘뚝/두무/뚝뚝’ 등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며, 주안산은 ‘붉은산’이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옛날 이 동네 주민들은 이 산을 ‘뚝/두무/뚝뚝’나 ‘붉은산’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이름을 한자로 적은 주안산이나 원통산은 남고, 우리말 이름은 사라졌다.

셋째, 그 뒤 또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주안산은 만월산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원통산이라는 이름은 아예 사라졌다. 하지만 이 원통산 때문에 생긴 원통이고개와 원통천이라는 이름은 살아 남아있다.

9. 일신동(日新洞)

일신동은 예전에 ‘항굴’, ‘황굴’ 또는 ‘항동(航洞)’이라 부르던 동네이다. 이곳 항굴은 옛날 지금의 부개산(富開山) 능선을 따라 골짜기에 길게 들어앉아 있던 동네였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그 기다란 동네의 모양이 마치 항해하는 배처럼 생겼기에 ‘항(航 : 배 항)’자에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굴(窟)’이 붙어 ‘항굴’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해석은 “마을 안에 우물을 파면 동네가 망한다”라는 이 동네의 오랜 속설(俗說)로 이어진다. 동네의 생김새가 배의 모양이니 그 밑창에 구멍(우물)을 파면 가라앉

28 『세종실록지리지』151,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는다(땅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주민들은 마을 입구 밖에다 우물을 파놓고 물을 길어다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믿음이 줄어들어 주민들이 동네 안에 하나씩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모두 10여 개의 우물이 생긴 1940년대에 동네 전체가 일본군의 군수기지로 수용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모두 항굴에서 쫓겨나 번두리인 부개산 동쪽 끄트머리와 지금의 전철 송내역 아래쪽에 새 터전을 마련하고 살게 되었으니 이곳이 일신동이라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가 얼마큼이나 사실인지는 별다른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항굴’이나 ‘황굴’은 우리나라 곳곳에 많이 퍼져있는 이름이다. 그리고 국어학적 입장에서는 여기서의 ‘항’을 ‘크다’ 또는 ‘많다’는 뜻의 우리 옛말 형용사 ‘하다’의 관형형인 ‘한’의 발음이 바뀐 변형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이 ‘한’이 말머리에 들어가는 땅 이름은 한강을 비롯해 한들, 한개, 한골, 한내, 한피 등 무척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한강’이 ‘큰 강’이라는 뜻인 것처럼 이들 이름에서의 ‘한’은 대부분 ‘크다’는 뜻을 갖는다.

또한 이 ‘한’은 발음이 바뀌어 ‘항’이나 ‘황’이 되기도 했다. 뜻은 같은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발음만 바뀐 것이다. 이런 예는 우리말의 일반 단어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큰 새를 뜻하는 ‘한새’가 ‘황새’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 큰 소를 뜻하는 중세어 ‘한쇼’가 ‘한소’를 거쳐 ‘황소’가 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이곳 ‘항굴’이나 ‘황굴’도 원래 ‘큰 동네’나 ‘큰 골짜기 마을’을 뜻하던 ‘한골(한굴)’에서 발음이 바뀌어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옛날 이 동네의 모습이 정말 항해하는 배와 같았는지 고증되지 않는 형편이고 보면 그 이름이 ‘한골’에서 비롯되었으리라는 해석이 논리적으로 훨씬 더 타당성을 갖는다 하겠다.

항굴은 일제 강점기 말에 잠시 일본식 이름을 가졌다가 광복 뒤인 1946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때 일신동으로 새로 태어난다. 이는 『논어(論語)』에 나오는 “일신 우 일신(日新又日新)”에서 따온 말로, ‘날(日)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진다(新)’라는 뜻이다. 그 뜻은 좋지만, 이 이름으로 해서 ‘한골/항굴’이라는 원래 동네 이름의 유래는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다.

10. 청천동(淸川洞)

청천동은 구한말 부평군 마장면 청천리였다. 인근 효성동, 산곡동 지역과 함께 고려 시대부터 나라에서 목장을 만들고 말을 먹여 기르던 곳이다. 그래서 이 일대를 마장(馬場)이라 불렀는데, 청천동은 그 마장면의 중심이었던 곳이다. 마장은 그 발음이 변해 흔히 ‘마제이’라고도 불렸다. 그런데 마장에 속했던 이들 3개 동네 가운데서도 그냥 ‘마장 뜰’, ‘마장면’, ‘마제이’라고 하면 대개 청천동 지역을 뜻했다.

청천동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흐르는 개천 ‘청천’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청천’은 계양구 효성동과 서구 가정동·심곡동 일대에 걸쳐 있는 천마산과 계양산 사이의 골짜기에서 시작된 개천이다. 이 물줄기가 이곳까지 흘러오는 것인데, 물이 맑아 ‘맑은내’라 불렀다. 그 맑은내가 그대로 한자로 바뀌어 ‘청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청천이 흐르는 곳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청천리가 된 것이다.

구한말 부평군에 속해있던 청천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부천군 부내면 청천리가 되었다가, 광복 뒤인 1946년 청천동이 되었다.

〈소지명(小地名)〉

① 원적산(元積山)

원적산은 부평구 청천동과 서구 석남동 사이에 걸쳐있는 산이다. 흔히 ‘철마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원적산은 원래 ‘원한이 쌓인 산’이라는 뜻의 ‘怨積山(원적산)’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한자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리고 ‘怨積山(원적산)’은 조선 중종 때 권신 김안로가 이 주변으로 경인운하를 파려다가 산에 암석이 많아 끝내 실패하자 “원한이 쌓였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하지만 조선시대 경인운하에 얽힌 전설은 인천 곳곳에 여럿 퍼져있어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렇다고 이를 빼고는 ‘원적산’이라는 이름을 달리 해석하기도 마땅치 않아 그 이름의 뜻을 풀기가 어렵다.

11. 굴포천(掘浦川)

굴포천은 부평구 갈산동에서 시작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를 거쳐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서 한강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굴포천에는 청천천, 갈산천, 계산천, 굴현천 등의 지류(支流)도 딸려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도호부편에는 ‘대교천(大橋川)’, ‘직포(直浦)’, ‘굴포(掘浦)’라는 세 가지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대교천에 대해 “근원은 원적산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흘러 직포가 되고, 김포현을 지나면서 굴포가 되어 제법진(濟法津)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굴포천 상류는 대교천, 중류는 직포, 그리고 김포 일대의 하류는 굴포라는 이름으로 구분지어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 근원이라고 한 ‘원적산’은 오늘날 부평구 산곡동과 서구 석남동 사이에 있는 철마산을 말한다.

또 이 책의 김포현 편에는 굴포(掘浦)에 대해 “현 동쪽 17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인천부(仁川府) 정항(井項)에서 나오는데, 북쪽으로 흘러 고도강을 지나서 통진현 연미정(燕尾亭)으로 흘러든다. 강에 해마다 다리를 놓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았다. 본현(本縣) 사람 양성지(梁誠之)가 공조판서가 되었을 때 계청(啓請)하여 도선(渡船)을 설치하였다”라는 기록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굴포’가 마치 특정한 곳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그 본래의 뜻은 ‘강이나 해안 등을 파낸(掘) 개(浦)’라는 것이어서 보통명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개’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옛 이름인 ‘터진개’가 그렇듯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또는 ‘바닷물이 드나들며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이루는 곳’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그리고 ‘터진개’가 ‘바다 쪽(앞쪽)으로 터져있는 개’라는 뜻인 것처럼, 굴포는 곳곳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말 이름 ‘판개’가 한자로 바뀐 것이다.

이곳 굴포는 논이 많았던 별말(계양구 상야동) 일대에서 한강까지 물이 잘 통하도록 깊게 물길을 파서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이곳은 처음에 ‘판개’나 이와 비슷한 어떤 우리말 이름으로 불리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름을 글로 쓸 때 우리말 대신 그 뜻에 따라 ‘掘浦’라는 한자로 적었고, 그 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말 이름 ‘판개’는 없어지고 한

자 이름만 남아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처럼 순 우리말 이름이 한자 이름으로 바뀌어 기록된 뒤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우리말 이름은 없어지고 한자 이름만 남게 된 사례가 무척 많다. 기록된 내용이 말보다 오래 가고 널리 퍼지는, 이른바 ‘문자(文字)의 힘’ 때문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강신항, 『계림유사 고려방언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1.
- 강현규, 『국어 어원학 통사』, 이회, 2003.
- 경기문화재단, 『경기 땅이름의 참모습(조선지리지자료, 경기도편)』, 경기문화재단, 2008.
- 경기문화재단,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 경기문화재단, 2008.
-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충청편, 전라-제주편, 경상편, 북한편 1·2』, 2008~2013.
- 김동소, 『한국어의 역사』, 정림사, 2007.
- 김병욱, 『지명어 연구』,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7.
- 김태곤,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2008.
- 도수희, 『한국의 지명』, 아카넷, 2004.
- 도수희, 『한국지명연구』, 이회, 1999.
- 명칭과학연구소, 『명칭과학 1~8호』, 1994~2002.
- 박갑천,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을유문화사, 1998.
- 박상규 외, 『한국어학의 이해』, 역락, 2010.
- 박숙희,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500 가지』, 서운관, 1994년.
- 박영준 등, 『우리말의 수수께끼』, 김영사, 2002.
- 백문식,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삼광출판사, 2006.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2, 2007.
- 송호열, 『한국의 지명 변천』, 성지문화사, 2006.
- 신채호 저 박기봉 옮김,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2013.
- 이기봉, 『슬픈 우리 땅이름』, 새문사, 2016년.
- 이병선, 『한국 고대 국명 지명의 어원 연구』, 이회, 2012.
- 이영택, 『한국의 지명』, 태평양, 1986.
- 이재운 외,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1000 가지』, 예담, 2008.
- 이재운 외,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어원 500 가지』, 예담, 2008.
- 이정룡, 『한국 고지명 차자표기 연구』, 경인문화사, 2002.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사 자료집』, 2003.
- 인천광역시, 『인천의 지명유래』, 1998.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지와 지도』상·하, 2015.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정명 600년 기념 인천광역시사』1~3, 2013.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정명 600년 기념 인천광역시사』5·6, 2015.
- 전용신 편, 『한국 고지명 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 정호완, 『우리말의 상상력』1·2, 정신세계사, 1996.
- 조기준, 『부평사연구(증보판)』, 백암 문집간행위원회, 1995.
- 조기준,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이름』, 부평문화원, 1999.
- 조항범, 『국어 어원론』, 도서출판 개신, 2009.
- 조항범, 『다시 쓴 우리말 어원 이야기』, 한국문원, 1997.
- 천소영, 『우리말의 속살』, 창해, 2000.
- 최재용, 『역사와 어원으로 찾아가는 우리 땅 이야기』, 21세기북스, 2015.
- 최재용, 『월미도가 달꼬리라구?』, 다인아트, 2003.
- 최창렬, 『우리말 어원 연구』, 일지사, 1991.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2008.
- 한국지명학회, 『지명학1』, 1998.
- 한국지명학회, 『한국지명연구』, 한국문화사, 2007년.
- 홍윤표,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태학사, 2009.

사료

-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택리지』
『훈몽자회』



찾아보기

가정리	97	계산학교	238
가좌리	130	계수관	328
갈산동	470	계양도호부	464
갈월리	97	계양산	25, 122
강복성	355	계양산성	25, 166
강수량	42	계양학교	230
강한성	423	계창학교	230
개화산	122	고성	177
거마산	60, 122	고성기	363
거출장	259	공부	364
경국대전	212	공유(孔楡)	317, 363
경기우도	328	공해루	222
경기읍지	85	광학산	62
경기좌도	328	구산동	473
경인로	138	구산리	97
경인철도	143, 144	국산자동차주식회사	142
계남학교	236	굴포천	23, 498
계산동	99, 108	권근	365

권대임	365	김사삼	425
권대재	366	김상근	425
권세태	366	김상호	371
권식	344	김석순	371
권신(權神)	367	김선필	371
권신중	367	김속현	426
권이경	368	김순손	372
권제남	368	김순이	426
권근중	365	김안로	373
권필수	423	김안정	374
권환	368	김연	374
금마산	59	김연지	374
기복성	369	김영권	426
길주	22	김영부	318
길주목	81, 321	김영식	426
김계원	369	김우명	374
김국환	424, 483	김인수	375
김기선	424	김장환	427
김득남	369	김주리	427
김등	370	김지옥	428
김만형	370	김창렬	428
김민선	202, 212, 370	김창협	375
김복선	371	김택	376

김포평야	119	등면	89	미세먼지	73	박대총	386
김한수	376	동소정면	89, 127	민경영	380	박동선	386
김한필	376	동수	477	민기	380	박리	387
김홍목	377	동수로	143	민언기	381	박무영	387
김환	377	동수역	137	민영목	381	박문좌	387
김훈	428	등암	487	민우경	382	박문철	430
남급	377	동양정공주식회사	142	민익준	382	박문필	388
남두장	377	동취정리	128	민이승	382	박봉령	388
남연	378	디젤자동차	142	민정식	383	박사들	388
남징	378	라성호	429	민종원	383	박상일	388
남취	378	류완무	429	민취	383	박상충	389
다다구미	481	류희강	429	민홍준	383	박선	389
당문보	378	마분리	476	민희늘	384	박세건	389
당산면	89	마장면	89, 126	민희설	384	박세모	390
당청룡	379	마재이	127, 149	민희열	384	박세재	390
당호리	379	만월산	60, 474	박강	384	박수안	391
대기오염	56, 73	맹연양	379	박경복	384	박순의	356
대정리	97	모월곶면	89, 197, 199	박광원	430	박아불화	391
대한계농원	294	목민심서	345	박교	385	박영근	430
도두리	97	목진공	379	박규문	385	박영남	392
도호부	108, 179	외꼬지	481	박기남	385	박우	392
동경제강	142	외꽃말	481	박길성	385	박응인	393
동국여지지	313	무네미고개	60, 62	박대남	386	박익	392

박익몽	392	변종인	202, 398
박익진	392	변충원	398
박인	393	변혁조	398
박일상	393	보명학교	226
박임중	394	부개동	476
박정	394	부내면	89
박종현	395	부명학교	238
박주봉	395	부왕산	122
박진	395	부천군	90
박철정	395	부평 김씨	379
박춘동	395	부평 수령	312
밤바위산	122	부평공원	141
방윤창	431	부평군읍지	87
배응준	431	부평도호부	59
백마장	482	부평동	477
백운	488	부평리	97
백유온	354	부평문화의 거리	154
변강지	396	부평부	81
변건원	396	부평부읍지	313
변삼근	202, 212, 396	부평수리조합	124, 286
변예생	397	부평수리조합사업	300
변유지	397	부평시장	154
변응몽	397	부평역	134

부평역사박물관	80	서용보	400
부평와사공장	142	서제한	400
부평평야	119	서종집	356
부평향교	112	서재량	400
부평현	332	서한재	400
불잠	135	석곶면	89
비루고개	59	석천면	89
사근다리	472	선응시	401
사마시	204	성유운	431
산곡동	481	성주산	88, 122
산곡리	97, 130	성침	401
산미증식계획	296, 303	성현	119, 124
산화촌	129	세종대왕	189
삼산1배수펌프장	67	소반재말	134
삼산동	484	소화정	117
상오정면	89	손변	401
새갈	472	송국준	402
서경서	399	송병준	293
서계	399	송선옥	432
서광년	399	송윤	402
서노	399	수명산	122
서면	89	수주	22, 81
서병순	399	수출산업단지	159

수탄면	89	심우정	409
식산흥업정책	296	심운섭	433
신곡양수장	122	심유(沈侑)	410
신군	403	심유(沈攸)	409
신씨	403	심율	410
신영	403	심이	410
신영훈	404	심정섭	411
신정희	404	심집	411
신치운	356	심한웅	412
신타리	480	심혁성	434
신타리공원	154	심현	412
신헌정	432	심홍조	412
신흠	405	십정동	143, 486
심계택	432	안남	22
심광언	406	안남도호부	81, 316
심난택	432	안남산	166
심덕기	433	안병혁	434
심동구	406	안윤필	434
심벽	407	안하지고개	60
심수경	407	안형범	435
심수익	408	애스컴 시티	145
심식	408	약산	474
심신검	408	양광도	328

여지도서	87	윤일중	436
연희진	217	윤정	415
염정	255	윤홍삼	227
오강산	435	은사수산장	295
오순환	435	읍치	89
옥모면	89	이경운	202
온수동	181, 182	이경용	437
온수동리	196	이경인	355
온실가스	50	이경천	355
용현동	140	이공우	437
우희열	414	이광덕	356
원미산	88, 122	이교선	415
원인상	436	이규보	26
원적산	59, 497	이금산	437
원통이고개	60, 490	이담	437
원통천	64	이동진	415
월곶리	264	이림	202, 212
유엄	354	이비	416
유연봉	436	이사맹	185
윤경	355	이선린	416
윤기파	414	이성민	438
윤상우	414	이세화	417
윤서	415	이언복	417

이언척	418	임성일	441
이여운	355	임성춘	441
이유	354	임창현	442
이유선	438	임혜란	442
이은선	439	작동산	122
이응신	418	작천리	97
이인로	319	장고개	59, 483
이인손	318	장석우	442
이재형	344	장제	81
이제가	418	전국환	443
이척	354	전기순	443
이태완	439	전봉학	444
이토 히로부미	271	전원순	444
이필형	202, 419	전천능	444
이학선	439	전호산	122
이해	355	정간	420
이화자	439	정광근	444
이후규	440	정상주	420
이훈익	441	정약용	345
이희목	419	정운구	445
인천도호부	59	정응복	420
인천시립박물관	222	정재철	445
일산동	495	정준택	446

정지석	446	주안천일제염시험장	273
정홍석	227	주화곶면	89
정호근	227	중심성	220
정훈석	446	지군사	315
정희량	202, 212	지수주	315
정희신	420	지주사	81
제염시험장	264	지현사	315
조구현	447	채귀현	449
조기준	447	채규명	450
조반	420	채봉운	450
조병창	484	채봉혁	450
조봉암	447	채흥봉	450
조서강	185	철마산	60
조선베어링주식회사	142	천마산	59
조선산미증식계획	28, 299	천일제염	27, 271
조선총독부	172	천일제염시험장	269
조성철	449	청천동	497
조응립	355	청천리	97
조일수호조약	218	청천천	64
조한익	449	초미세먼지	73
주부토	22	최성옥	451
주부토군	81, 457	최종번	320
주안산	59	최정일	451

치성	175	홍여선	452
치소란	108	화도진	217
캠프 그랜트	146	화랑농장	483
캠프 마켓	146	환적조	322
캠프 아담스	146	황남석	452
캠프 타일러	146	황어면	89
캠프 헤이즈	146	효성리	97
토지조사사업	286	후정리	97
포대	217	히로나카	141
폭염	41		
피고개산	59		
하오정면	89		
학익동	140		
한국GM	150		
한남정맥	119		
한파	40		
한하운	451		
함봉산	60		
항동리	97		
항동천	64		
현덕수	319		
현문식	174		
현부인 엄씨	413		

집필위원(가나다순)

권선정 동명대학교 동양문화학과 교수
김종혁 역사지도공작소 소장
남달우 인하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류창호 인하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영호 인하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이원규 소설가·(사)국제PEN한국본부 자문위원
임학성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영은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최재용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부평사 1권

부평의 환경과 역사, 인물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처 부평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1
전화 032-505-9001

디자인·편집·인쇄 경성문화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 퍼스텍 빌딩
전화 02-786-2999

ISBN 979-11-5698-333-0 94300
979-11-5698-332-3 94300(세트)

비매품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